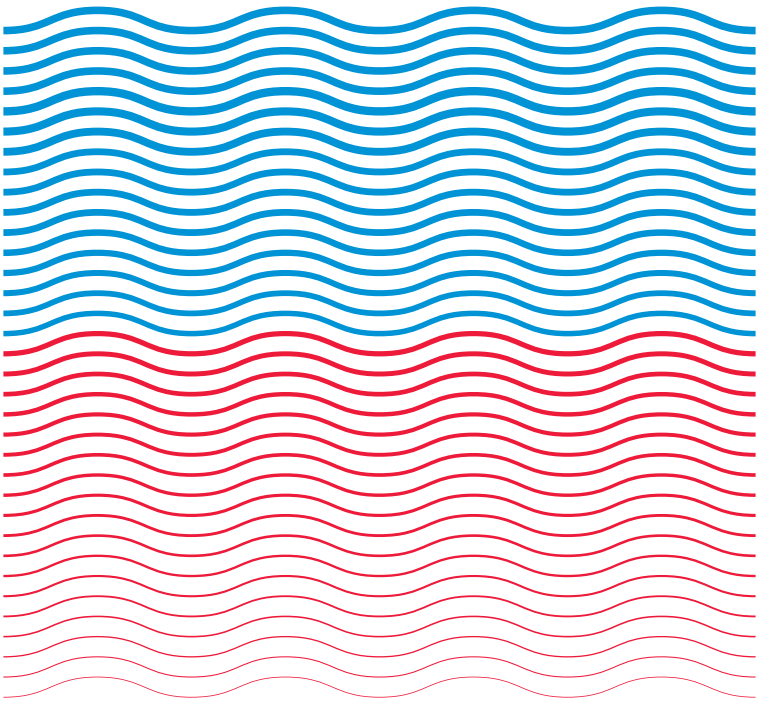
2018
지구촌 한류현황Ⅲ

유럽



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부

CONTENTS

2018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4

Ⅲ. 유럽

01. 그리스 ····· 8
02. 네덜란드 ····· 20
03. 노르웨이 ····· 32
04. 덴마크 ····· 46
05. 독일 ····· 58
06. 라트비아 ····· 84
07. 러시아 ····· 94
08. 루마니아 ····· 126
09. 벨기에 ····· 148
10. 벨라루스 ····· 182
11. 불가리아 ····· 198
12. 세르비아 ····· 210
13. 스웨덴 ····· 220
14. 스위스 ····· 238
15. 스페인 ····· 248
16. 슬로바키아 ····· 270
17. 아일랜드 ····· 284

18. 아제르바이잔 ····· 294
19. 영국 ····· 308
20. 오스트리아 ····· 326
21. 우즈베키스탄 ····· 340
22. 우크라이나 ····· 360
23. 이탈리아 ····· 370
24. 체코 ····· 416
25. 카자흐스탄 ····· 436
26. 크로아티아 ····· 458
27. 키르기즈스탄 ····· 468
28. 타지키스탄 ····· 478
29. 터키 ····· 490
30. 포르투갈 ····· 518
31. 폴란드 ····· 536
32. 프랑스 ····· 554
33. 핀란드 ····· 608
34. 헝가리 ····· 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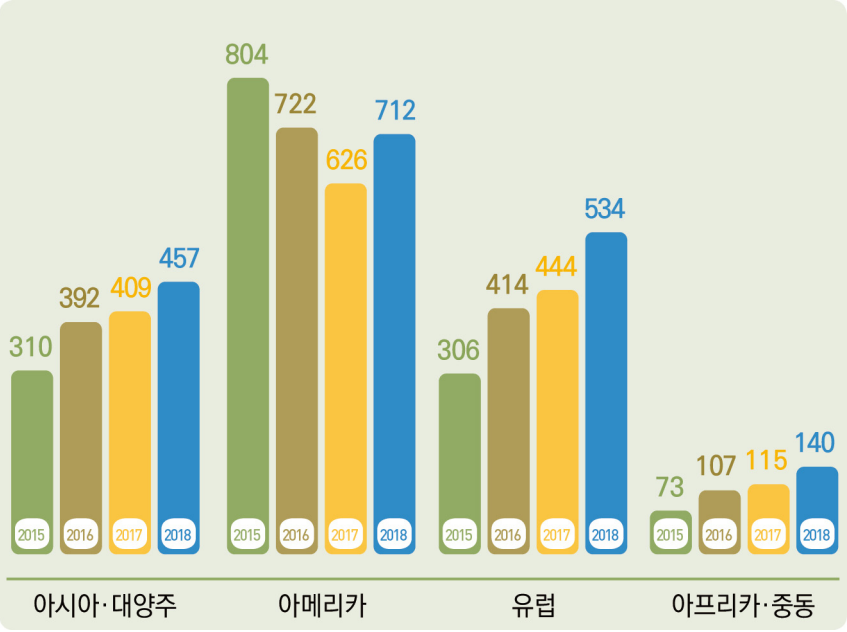
■ 현황

전 세계 113개국 조사 결과, 총 94개국에 1,843개의 한류 동호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전체 회원 수는 총 8,919만 명에 달함.(2018년 12월 기준)
※ 상기 수치는 재외공관에서 보고된 각 국가별 한류 동호회의 온라인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역별 한류 동호회

- 아시아·대양주 지역 457개(약 7,058만여 명)
- 아메리카 지역 712개(약 1,180만여 명)
- 유럽 지역 534개(약 656만여 명)
- 아프리카·중동 지역 140개(약 23만여 명)

■ 한류 동호회 증감 현황(2015~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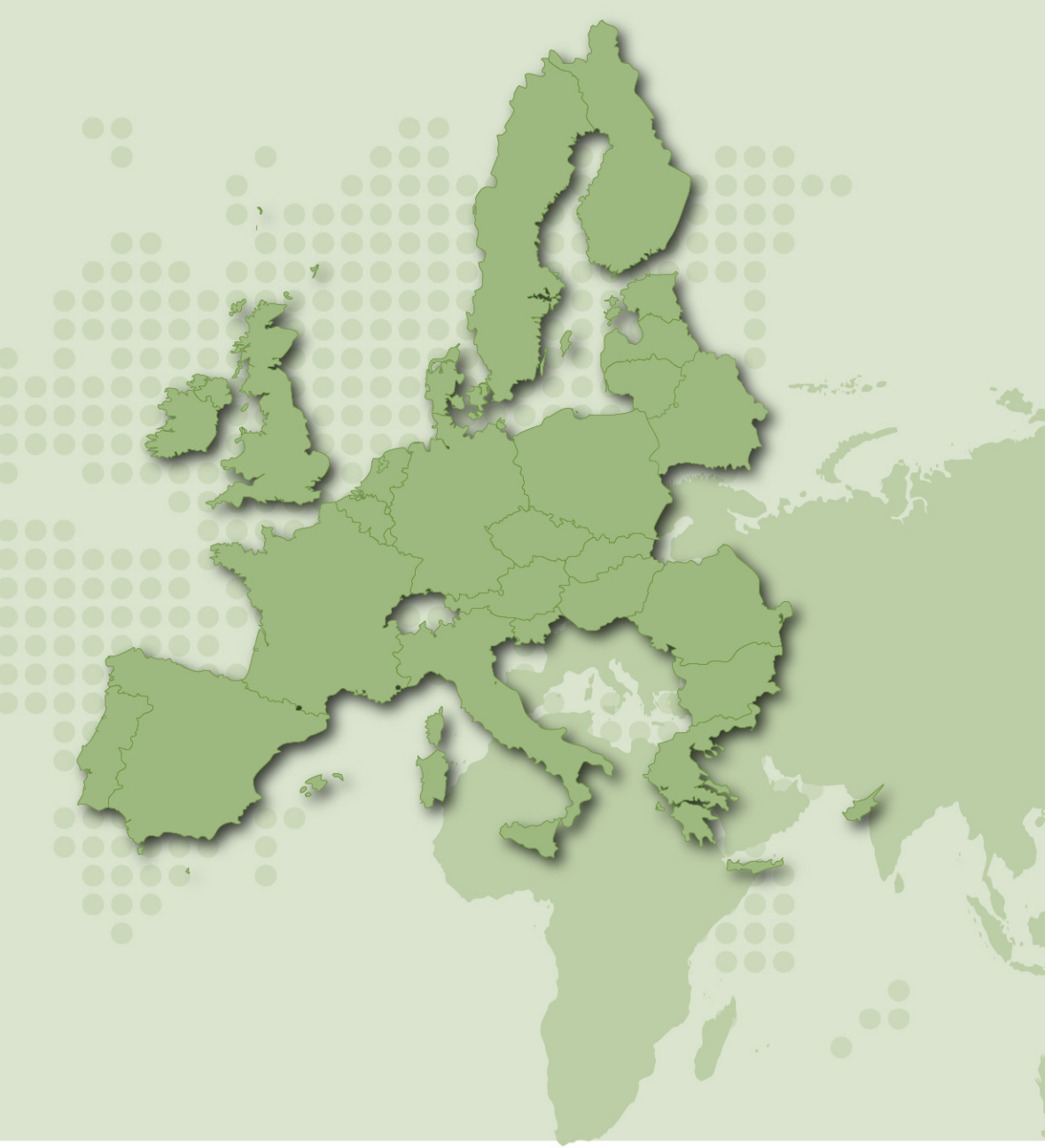


■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아시아·대양주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중동	
1. 네팔	1개	1. 과테말라	41개	1. 그리스	1개	1. 가나	0개
2. 뉴질랜드	2개	2. 니카라과	6개	2. 네덜란드	5개	2. 나이지리아	20개
3. 대만	8개	3. 도미니카 공화국	47개	3. 노르웨이	4개	3. 남아공	4개
4. 라오스	0개	4. 멕시코	7개	4. 덴마크	1개	4. 레바논	0개
5. 말레이시아	8개	5. 미국	64개	5. 독일	12개	5. 르완다	0개
6. 몽골	14개	6. 베네수엘라	75개	6. 라트비아	0개	6. 리비아	0개
7. 미얀마	3개	7. 볼리비아	22개	7. 러시아	62개	7. 마다가스카르	3개
8. 방글라데시	3개	8. 브라질	34개	8. 루마니아	14개	8. 모로코	4개
9. 베트남	42개	9. 아르헨티나	15개	9. 벨기에	4개	9. 모잠비크	0개
10. 부탄	3개	10. 에콰도르	26개	10. 벨라루스	34개	10. 바레인	1개
11. 브루나이	10개	11. 엘살바도르	43개	11. 불가리아	5개	11. 사우디아라비아	2개
12. 스리랑카	8개	12. 온두라스	5개	12. 세르비아	3개	12. 세네갈	0개
13. 싱가포르	8개	13. 우루과이	12개	13. 스웨덴	5개	13. 수단	1개
14. 아프가니스탄	0개	14. 자메이카	4개	14. 스위스	1개	14. 아랍에미리트	15개
15. 인도	56개	15. 칠레	39개	15. 스페인	34개	15. 알제리	5개
16. 인도네시아	30개	16. 캐나다	21개	16. 슬로바키아	4개	16. 앙골라	0개
17. 일본	56개	17. 코스타리카	18개	17. 아일랜드	4개	17. 에티오피아	3개
18. 중국	70개	18. 콜롬비아	23개	18. 아제르바이잔	2개	18. 오만	3개
19. 캄보디아	9개	19. 트리니다드토바고	2개	19. 영국	9개	19. 요르단	1개
20. 태국	56개	20. 파나마	92개	20. 오스트리아	1개	20. 우간다	0개
21. 파키스탄	4개	21. 파라과이	6개	21. 우즈베키스탄	13개	21. 이라크	4개
22. 파퓨아뉴기니	0개	22. 페루	110개	22. 우크라이나	1개	22. 이란	0개
23. 피지	0개			23. 이탈리아	8개	23. 이스라엘	3개
24. 필리핀	12개			24. 체코	2개	24. 이집트	57개
25. 호주	24개			25. 카자흐스탄	3개	25. 적도기니 공화국	0개
26. 홍콩	30개			26. 크로아티아	1개	26. 짐바브웨	0개
				27. 키르기즈스탄	0개	27. 카타르	1개
				28. 타지키스탄	0개	28. 케냐	2개
				29. 터키	17개	29. 코트디부아르	0개
				30. 포르투갈	10개	30. 쿠웨이트	1개
				31. 폴란드	4개	31. 튀니지	10개
				32. 프랑스	31개		
				33. 핀란드	3개		
				34. 헝가리	236개		
457개		712개		534개		140개	

2018 지구촌 한류현황

Ⅲ. 유럽



1 그리스	2 네덜란드	3 노르웨이	4 덴마크
5 독일	6 라트비아	7 러시아	8 루마니아
9 벨기에	10 벨라루스	11 불가리아	12 세르비아
13 스웨덴	14 스위스	15 스페인	16 슬로바키아
17 아일랜드	18 아제르바이잔	19 영국	20 오스트리아
21 우즈베키스탄	22 우크라이나	23 이탈리아	24 체코
25 카자흐스탄	26 크로아티아	27 키르기즈스탄	28 타지키스탄
29 터키	30 포르투갈	31 폴란드	32 프랑스
33 핀란드	34 헝가리		

1. 그리스

1 개황

- **국 명 :** 그리스공화국(Hellenic Republic)
- **수 도 :** 아테네(인구 약 66만 명)
- **인 구 :** 1,099만 명('17년)
- **면 적 :** 131,957㎢(본토 81%, 도서 19%)
- **민족구성 :** 원주민(40%), 메스티조(42%), 백인 등(18%)
- **종 교 :** 그리스정교 98%, 이슬람교 1.3%, 기타 0.7%
- **시 차 :** 우리시간 -7(서머타임 적용시 -6)
- **언 어 :** 그리스어
- **GDP('17년) :** 2,268억 미달러
- **1인당 GDP('17년) :** 21,140미달러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 수출 16억 미달러, 수입 4.5억 미달러

2 문화적 특성

(1) 우리나라와의 유사성

서양문명의 요람인 그리스는 민주주의 발상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

텔레스로 이어지는 고대철학의 요람, 신화와 올림픽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그리스는 유럽대륙에 위치한 또 하나의 한반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많다. 그리스와 한국은 유구한 문명과 역사의 격랑 속에서도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온 자부심을 공유하고 있고, 사회문화적으로도 유사점이 많아 우리나라와 그리스는 정서적으로도 잘 통하고 있다.

1 지정학적 유사성과 주변 열강의 각축

한국과 그리스는 북위 38도선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정학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오래 전부터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 그리스는 400여 년간 지속된 오토만 제국의 식민지배에서 1830년 독립하였으며, 독립 후에도 유럽의 열강이던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리스가 특정국의 영향권에 들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리스와 우리나라는 모두 동서냉전기에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면서 민주주의를 지켜오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리스는 냉전 당시 발칸 최후의 민주주의의 보루였으며,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아 공산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사수하였다. 그리스는 1946년~1949년간 공산세력과의 내전을 겪었고, 1967년~1974년간 군사정권의 통치를 받은 경험이 있다. 한편, 그리스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전 당시 10,581명의 군인을 파견했는데, 이는 그리스가 해외에 파병한 최대 규모다. 지금도 그리스 참전용사들이 많이 생존해 있으며, 참전용사들은 한국을 제 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2 가족과 인간적 유대관계 중시

서유럽국가와 달리 그리스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며, 교육열이 높아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 외국어 과외를 많이 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그리스인들은 인간적 유대관계를 특히 중시하며, 손님대접을 극진히 한다. 음식이 남을 정도로 많이 준비해야 손님대접을 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음악과 영화에 대한 열정

그리스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적 재능이 풍부하다. 영화음악의 거장인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전설적인 여가수 마리아 칼라스와 20세기의 뮤즈 나나무스쿠리는 그리스 출신이다.

그리스인들도 한국인들처럼 영화를 좋아하고, 세계적 영화감독을 배출했다. 1960년 영화 〈일요일은 참으세요〉와 1964년 영화 〈희랍인 조르바〉로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기 시작한 그리스는 테오도르 앙겔로풀루 감독, 코스타 가브리스 감독 등 세계적 영화감독을 배출해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등 주요 영화제를 석권하였다.

4 스포츠와 음식문화

그리스인들은 스포츠를 사랑하며 즐긴다. 농구와 축구, 배구가 인기가 있으며 그리스는 2004년 유로컵에서 우승한 축구강국이기도 하다. 또한, 많은 그리스인들이 태권도를 즐기고 있는데, 현재 그리스 태권도 협회 소속 600여개의 클럽이 있으며 약 15만명이 태권도를 수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대부터 발달한 그리스 요리는 지중해 음식의 기초가 되었다. 양과 염소의 사육이 많아 양고기를 많이 볼 수 있으며, 양과 염소의 젖으로 만든 페타치즈는 그리스 대표 치즈로 유명하다. 또한, 그리스인들은 미국인이나 서유럽인과 달리 오징어와 문어를 좋아해 식품점이나 식당에서 오징어와 문어를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리스인들은 대개 점심은 가볍게 먹으며 뜨거운 날씨를 피해 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는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K-Pop을 방송하는 현지 라디오 프로그램이 생길 정도로 K-Pop 의 인기가 확산되고, 한국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리스에서도 한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 증가와 한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는 제약되어 있으

므로 앞으로 드라마, 영화, K-Pop, 태권도, 한국어 등 우리 문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

(2) 분야별 현황

1 한국어

K-Pop, 한국 영화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려는 그리스인들도 늘고 있다. 현재 한국문화에 심취한 그리스인 수십 명이 아테네국립대학 및 한글학교에서 한국어 학습 중이며 수강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지에서 한국어 교재를 구하기 어렵고 교육 기자재가 부족하므로 그리스 대학 및 한글학교 교육 기자재 지원 강화, 우수학생 방한초청,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그리스 대사관은 2013년부터 매년 10월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30~40명의 그리스 학생들이 응시하고 있다.

2 음악(K-Pop)

그리스의 젊은 세대를 위주로 K-Pop에 대한 열기가 거세지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EXO 등 남성그룹의 인기가 높으며 여성그룹은 블랙핑크, 트와이스가 인기 있다.

K-Pop에 대한 인기가 커지면서 2018년 5월부터 현지 라디오 방송인 Music 89.2 채널에서 매주 일요일 21:00-22:00 간 K-Pop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스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 의하면 동 프로그램은 그리스 18세-24세 대상 동시간대 1위(청취율 18.2%)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주그리스 대사관은 K-Pop의 확산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K-Pop 콘테스트〉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매년 참가 신청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연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

3 방송

한국문화에 심취한 그리스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영어자막이 있는 한국드라마를 시청하는 등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그리스 대사관의 노력과 그리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원으로 2013년 9월 테살로니키 지역 TV(TV 100)에서 그리스 최초로 한국드라마 〈보고싶다〉가 방영되었다. TV 100

방송국은 이 드라마의 방영 종료 후 연이어 〈대장금〉을 방영해 테살로니키 및 동북부 그리스에서 한국드라마와 한식 붐을 조성했다.

또한 2016년 말~2017년 초에도 TV100 방송국에서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태양의 후예〉를 방영했다. 〈태양의 후예〉는 그리스의 자킨토스, 아라호바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촬영해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그리스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한국 드라마를 널리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4 영화

한국영화는 그리스 영화산업 관련인, 영화제작 지망생, 문화예술계 및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아테네 국제영화제와 테살로니키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수시로 초청되어 그리스 영화팬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영화 관람표가 매진될 정도로 성황리에 상영되었다.

주그리스 대사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 〈비주얼 코리아〉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매년 '아테네 한국영화제'를 비롯해 그리스 전역에 한국 영화 소개 행사를 적극 개최하여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5 한식

그리스 아테네에는 3개의 한식당이 있다. 한식은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보여주기 좋은 소재인 만큼, 주그리스대사관은 한국주간행사 등 각종 행사 계기에 한식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주그리스 대사관은 매년 아테네, 테살로니키, 파트라스 등 그리스 각 지역에서 개최하는 한국주간행사 등 주요 행사 계기 〈한식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유력인사와 한류 팬, 지역주민들에게 한식을 소개해오고 있다.

또한, 주그리스 대사관은 2017년 6월 피레우스 항구 요트클럽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한식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한식 소개 행사를 개최했다. 정부인사, 경제인, 학계, 문화계, 언론인 등 주요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행사 메뉴를 중심으로 한식 요리의 우수성을 설명하였고, 한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다.

6 태권도

1968년 Stamatis Kassis에 의해 처음으로 그리스에 소개된 태권도는 1987년 그리스태권도협회(Hellenic Taekwondo Federation)가 설립된 이후에 그리스에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 현재 그리스태권도협회에 등록된 도장은 600여개에 이르며 15만 명이 태권도를 연마하고 있다. 그리스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후 지속적으로 올림픽에 태권도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시드니올림픽에서 미할리스 무루초스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역대 통상 4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또한, 그리스는 태권도 대회 유치에도 적극 노력해 1991년 아테네에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한 이래 각종 국제 태권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2년 6월에는 유럽청소년태권도대회가 아테네에서 열려 40여 개 유럽국가에서 약 3,000명의 태권도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18년 10월에는 국기원과 유럽태권도협회가 주관으로 '유럽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그리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 현지인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그리스인들이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한국문화는 K-Pop, 영화, 음식이 있다. 우선 그리스 젊은이들이 K-Pop을 좋아하는 이유는 유럽이나 미국음악과 달리 K-Pop은 많은 아이돌 멤버가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공연을 한다는 점이다. 또한 용모가 뛰어나고, 퍼포먼스도 완벽하고, 연기, 노래, 춤 등 모든 것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또한 그리스인들은 한국영화가 스토리가 섬세해 지루하지 않고, 주인공들의 미세한 감정을 잘 표현해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영화관계자들은 한국영화 산업의 성장에 경외심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스인들은 한국음식도 아주 좋아하며, 한국음식은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건강식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한국음식은 다양한 맛이 공존하고 그리스인들의 입맛에도 잘 맞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그리스인들의 평가

"뮤직 비디오의 다양한 색채와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K-Pop의 매력 포인트이다. 또한 한국 드라마는 전개가 빠르고 줄거리가 매우 흥미롭다" (Evi Andrianaki, K-wave Greece 회원)

"한류를 좋아하는 이유는 음악, 영화, 음식 또는 역사를 통해 전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해주기 때문이다" (Rania Fouka, K-Wave Greece in Thessaloniki 회원)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그리스는 서양문명의 요람으로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고, 현재 음악, 영화, 축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스에는 세계적 음악가와 영화인이 많이 있으므로 그리스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을 언급하며 평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우리 문화만 일방적으로 그리스에 소개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 문화를 그리스에 알리면서 그리스 문화도 우리나라에 알리는 등 음악과 영화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그리스에는 공식 한류팬클럽이 결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주그리스 대사관에서는 그리스 내 한류확산을 위해 조직화된 하나의 팬클럽 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3년 4월 그리스 공식 한류팬클럽을 결성했다. 그리스 한류팬클럽들이 수차 회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주그리스 대사관에서 이 임원진들을 공식 인정함으로써 최초의 공식 한류팬클럽(K-Wave Greece) 팀이 출범하였다.

'K-Wave Greece'는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한국 문화, 교육 등 관련 정보를 Facebook 페이지에 수시 게재하고 있으며, 〈K-Pop 콘테스트〉, 〈한류의 밤 행사〉 등 각종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등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성격	한류 동호회
회원 수	3,100여 명
웹사이트	facebook.com/kwavegreece facebook.com/kwavethessaloniki
세부 활동 현황	한국문화행사, K-Pop, 한국유학 정보 등 관련소식 공유

6 2018년 문화행사

(1)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기념행사

- 일시 및 장소 : 2.9., 대사관저
- 내용 : 그리스 스포츠관광담당 장관 및 올림픽 위원회 인사, 한인 대표를 초청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시청함.

(2) 제3회 아테네 한국영화제

- 일시 및 장소 : 3.29-4.1., 미하엘 카코야니스 극장
- 내용 : 4일간 그리스 학생, 한류팬 및 가족, 경제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터널', '역린',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용의자'를 상영하였음.

(3) 테살로니키 한국주간행사

- 일시 및 장소 : 5.28., 테살로니키
- 내용 : 테살로니키 국제도서박람회에 참가하여 한국도서를 소개하고, '한국영화의 밤' 과 '한류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음.

(4) K-Pop 월드 페스티벌

- 일시 및 장소 : 7.9., 미키스 티오도라키스 극장
- 내용 : 총 23개팀이 참가신청을 한 가운데, 1차 예심을 통과한 11개팀이 500여 명의 관중 앞에서 경연 하였음.

(5) 크레테 한국주간행사

- 일시 및 장소 : 9.20., 크레테 테크노폴리스 극장
- 내용 : 크레테 섬 일반시민, 한국전 참전용사 및 가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한류 팬클럽의 퍼포먼스 공연과 영화 '용의자'를 관람하였음.

(6) 한식 강좌

■ 일시 및 장소 : 11월부터 그리스 요리학교에서 한식 소개 강좌 추진 예정(월 1회)

(7) 한류의 밤 행사

■ 일시 및 장소 : 11월중 예정

7 여행정보

(1) 비자

그리스는 쉥겐협약국이므로 관광 또는 출장 목적으로 6개월 중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다. 비영리 문화교류 이외에 영리목적의 방문(콘서트 등)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한그리스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 주한그리스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한화빌딩 27층
- 전화번호 : (+82 2) 7291400, 7291401
- 팩스번호 : (+82 2) 7291402
- E-mail : greek emb@koonet.net
- 홈페이지 : http://emb-greece.org

(2) 안전정보

그리스는 전반적으로 치안이 양호한 편이나, 아테네 신타그마 광장 등 유명 관광지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소매치기나 도난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 현지 문화

(1) 인사 및 관련 문화

아침에는 "깔리메라", 오후에는 "깔리스 페라"라고 인사하며 만나거나 헤어질 때는 "야사스", 감사를 표할 때는 "에프하리스토"라고 하면 된다. 다만 그리스에서 상대방에게 손바닥을 보이는 행위는 욕설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종교 관련 사항

그리스정교 수도원 시찰시 여성은 긴 스커트를 입어야 하며 남성은 긴 바지를 입어야 하며, 수도원에서 빌려주기도 한다. 그리스정교의 성산인 아토스산에는 여성의 입산이 금지된다.

(3) 팁 문화

식당에서는 보통 5~10% 정도의 팁을 주는 것이 보통이나, 201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로 팁을 주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9 현지 연락처

(1) 긴급 연락처

- 경찰 : 100
- 화재 신고 : 199
- 긴급의료지원 및 앰뷸런스 요청 : 166
- 긴급의료기관 요청 전화 : 1016
- 야간 의사 문의 : 1434

(2) 의료기관 연락처

- Alexandra Hospital
  - Vassilissis Sofias street 80 and K. Lourou street, 115 28 Ilisia
  - 전화번호 : (30) 210-338-1100
- Evangelismos
  - psilantou street 45-47, 106 76 Kolonaki
  - 전화번호 : (30) 210-720-1000

(3) 대사관 연락처

- 주소 : 2-4 Mesogion Ave. Athens Tower A Building, 115 27 Athens, Greece
- 전화 : (30) 210-698-4080~2
- 긴급연락처 : (30) 694-611-7098
- 팩스 : (30-210) 698-4083
- E-mail : gremb@mofa.go.kr
- 홈페이지 : http://grc.mofa.go.kr
- 근무시간
  - 월-금요일 : 8:30-16:30
  - 점심시간 : 12:30-13:30

10 기타

(1) 날씨

그리스는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은 고온건조하며, 겨울은 우기이다. 겨울에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날은 많지 않지만, 습하고 바람이 강해 실제 체감온도는 영하 이하로 느껴진다. 봄, 가을은 한국 기후와 유사하나 기간이 짧으며, 여름이 매우 길고 화창하다.

(2) 교통정보

1 지하철

■ 노선
- 1호선 : Piraeus – Kifissia
- 2호선 : Helliniko – Anthoupoli
- 3호선 : Aghia Marina – Doukissis Plakentias – Airport(공항 구간은 8유로 추가)

■ 운행시간 : 05:00(1호선), 05:30(2,3호선)~01:00(금, 토: 05:30~02:00)

■ 요금 : 1.20유로

2 버스

■ 전동차(트롤 레이)와 일반버스 두 종류

■ 요금 : 1.20유로
- 티켓은 지하철역 내 또는 가판대(Kiosk)에서 구입 가능
- 구매한 티켓(1.20유로)으로 70분 동안 모든 대중교통 이용 가능(공항 구간 제외)

3 택시

■ 기본요금은 3.50유로이며, 추가 요금은 시간 및 거리 병산제

(3) 환전

■ 유로화 사용(1유로=1,287원, 2018년 10월 현재)

2. 네덜란드

1 개황

- **수 도 :** 암스테르담(헤이그는 정부소재지)
- **인 구 :** 약 1,725만 명(2018년 9월 기준)
- **면 적 :** 41,526㎢(내해수면 제외 시 면적 : 37,305㎢)
- **민족구성 :** 게르만족 계통
- **종 교 :** 가톨릭(24%), 네덜란드 개신교(6%), 이슬람교(5%), 기타(16%), 무교(49%) (2014년 기준)
- **시 차 :** 우리시간 -8(서머타임 적용시 -7)
- **언 어 :** 네덜란드어
- **1인당 GDP('17년 기준, KOTRA) :** 48,223 미달러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KITA) :** 총교역 107억 미달러 (수출 46억 미달러, 수입 61억 미달러)

2 문화적 특성

(1) 작지만 강한 나라

풍차와 튤립, 운하와 자전거, 하멜과 히딩크 감독의 나라로 우리에게 친숙한 네덜란드 왕국은 수백 년 동안 물과 투쟁하면서 바닷물을 퍼내어 현재 국토의 절반을 만들 정도로 강한 투지와 근면성으로 전자, 화훼, 낙농,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유럽 중 칼뱅 사상이 가장 철저하게 뿌리내린 나라로 평가받을 정도로 근면하며, 검소한 생활과 실리우선주의가 오늘날의 네덜란드를 굳건히 떠받치고 있는 힘이다.

1568년 스페인에 저항을 시작한 이래(1648년 독립 인정), 해외진출을 적극 도모하여 17세기에 동인도회사(1602년)와 서인도회사(1621)를 설립, 아시아, 아프리카 및 아메리카에까지 진출할 정도로 17세기는 네덜란드의 황금시대(Golden Age)였다. 지리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의 강대국이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영국과 유럽 대륙 간, 프랑스와 독일 간 가장 편리하고 가까운 통로지점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스페인 왕국의 지배, 프랑스의 침략을 받고 17세기 해양 진출시대에는 영국과 무력으로 충돌하는 등 열강과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으나 오히려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로테르담항을 중심으로 유럽 물류중심지로 발전했다.

(2) 문화전통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수용

네덜란드는 독일, 벨기에, 그리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영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전통을 유지하면서 다른 민족의 문화와 종교 수용에 관대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연성 마약도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국제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휴고 그로티우스, 세계적인 화가 렘브란트와 반 고흐를 배출하였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네덜란드는 K-Pop 이외에도 한식, 한국어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한류가 자생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국가로서, 현재 현지 한류 동호인들의 자발적 모임인 한류콘(Hallyucon, 법인명: 한국문화진흥재단)을 비롯하여 아리랑(현지 입양인 단체), 레이던 대학 한국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모임, 한글학교 외국인반 학생모임 및 여기에서 파생된 사물놀이팀, K-Pop 이벤트를 기획, 개최하는 '소맥' 등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진 동호인 단체들이 정기 혹은 비정기적 모임이 활발하다.

아울러 대사관에서는 네덜란드 초중고 교과서 내에 한국에 관한 기술을 바로잡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사업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이 네덜란드의 젊은 세대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멜이 태어난 호리쿰시 등 몇몇 도시에서는 대사관에서 펴낸 'Ons Korea(Our Korea)'라는 한국 알기 교재를 사용하여 한국알기수업을 실시한 바 있고 흐로닝헨 대학에서도 한국 경제 관련 강의가 개설되는 등 한류의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단발성의 행사보다는 중장기 계획으로 한국문화를 소개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문화콘텐츠 중 네덜란드 진출 성공사례로 네덜란드 공영방송(NPO)에서 방영되었던 〈뽀롱뽀롱 뽀로로〉가 대표적이다.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후 방송된 바 있다.

〈작은 펭귄 뽀로로〉(Pororo De Kleine Pinguïn)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탄탄한 그래픽과 높은 교육성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향후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유럽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네덜란드 국영방송에서 뽀로로가 방영되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걸렸고, 유럽 내 제작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네덜란드에서 이례적인 일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유럽식 사업문화에 관한 사전조사와 기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한류콘 등 한류동호회를 중심으로 한국문

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세를 활용한 K-Pop 아이돌 가수의 현지 공연 등 한류공연단체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필요하다.

7~8월은 여름 휴가철임을 고려하여 연주회 또는 공연을 추진할 경우 이 시기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네덜란드 내 한류는 아직 초기 단계로서 광범위한 관심층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지만, 10대 후반~20대 초반의 한류 팬이 늘고 있으며, 자생적 한류 동호회의 역할이 도드라진다. 한류동호회 '한류콘'은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단체로, 2014년 유럽 최초의 종합 한류 컨벤션 'Hallyucon'을 선보였으며, 이를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 끝에 2018년 10월 제5회 컨벤션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

'Hallyucon'에는 태권도 배우기, 한국 전통 놀이 체험, 한복 입고 사진 찍기, 한국 전통주 체험, 한글 수업, K-드라마 더빙, K-Pop 및 K-Pop 댄스 배우기, 명상 체험 등 한국의 음식, 전통, 음악, 오락 등 한국 문화를 종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연합뉴스 2016.10.05.자 "한국문화의 모든 것 알린다…22일 네덜란드서 '한류콘 2016'" Hallyucon 2016 행사 상세 보도). 이는 독일·프랑스에서 열리는 한류 관련 행사와는 달리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벨기에 등 인근 국가의 한류 팬들도 참석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 동호회별 현황

1 한류콘

성격/결성시기	동호회, 2013
회원 수	운영진 5명, 회원 약 1,000명
웹사이트/연락처	www.hallyucon.nl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K-Pop, 한국 드라마 등 문화에 관한 정보와 한국 사회의 이슈 등 시사 정보를 교환 • (오프라인) 한류 캠프, 한류 컨벤션 'Hallyucon', 'Cheemchi'(한국문화 소개 행사) 등 다양한 한류 행사 개최

2 사물놀이(Amsterdam Samulnori Team)

성격/결성시기	사물놀이 동아리, 2013
회원 수	8명
웹사이트/연락처	amsterdamsamulnori@gmail.com
세부 활동 현황	• 정기 연습 • Hallyucon2014, 암스테르담 한글학교 졸업식 등에서 공연

3 소맥

성격/결성시기	한국 문화 관련 이벤트 기획 단체, 2014
회원 수	운영진 3인, 회원 약 1,200명
웹사이트/연락처	somaekentertainment@gmail.com
세부 활동 현황	• K-Pop관련 행사 'Strictly KPOP(댄스 워크숍, 디제이 파티)' 주최 • Hallyucon2014 등에서 '노래방' 체험 프로그램 주관

4 아리랑

성격	한인 피입양인 협회
회원 수	약 660명
웹사이트	www.arierang.nl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한국관련 정보 교환 • (오프라인) 매월 마지막 토요일 정기모임

5 레이던대학 한국학과

성격	정규학과
회원 수	1,027명(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개수)
웹사이트	www.facebook.com/koreastudies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한국어, 한국문화 관련 정보 교환 • 레이던 대학 한국학과 학생 및 한국에 관심 있는 졸업생 교류 모임

6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로테르담영화제(1월)

- 일정 : 1.24.(수)~2.4.(일)
- 주관 및 주최 :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 행사 내용 : 197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영화제로, 주로 신인 감독 작품 및 실험적 영화들을 선보임. 2018년 제47회 영화제에서 소개된 한국영화는 이광국 감독의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 황동혁 감독의 〈남한산성〉, 정병길 감독의 〈악녀〉이 있음.

(2) 암스테르담 Imagine영화제(4월)

- 일시 및 장소 : 4.11.(수)~4.21.(토), EYE Film Museum
- 주관 및 주최 : European Fantastic Film Festivals Federation
- 행사 내용 : 1984년 호러 영화 애호가들의 축제인 '판타스틱 영화제'로 시작, 판타지, 스릴러, 컬트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영화제로 발전했으며, 2009년부터 명칭이 현재와 같이 변경됨. 2018년 영화제에 김용화 감독의 〈신과함께-죄와 벌〉, 조선호 감독의 〈하루〉, 신수원 감독의 〈유리정원〉, 김기덕 감독의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출품됨.

(3) 제3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4월)

- 일시 및 장소 : 4.20.(금), 레이던 대학교
- 주관 및 주최 : 레이던 대학 주최 및 주네덜란드 대사관 지원
- 행사 내용 :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지 2년이 넘지 않은 13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나의 꿈'을 주제로 열띤 경쟁을 펼침. 경연 후에는 한식 즐기기 및 음악행사도 진행됨.

(4) Leiden International Short Film Experience(5월)

- 일시 및 장소 : 5.11.(금)~5.13.(일), Het Kijkhuis 외 다수
- 주관 및 주최 : Leiden International Short Film Experience

■ 행사 내용 : 2009년부터 시작된 영화제로, 장르를 불문하고 혁신적, 실험적인 단편 영화를 선정하여 상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Eunhye Hong Kim 감독의 〈세신사〉가 상영됨.

(5) 제8회 Strictly K-Pop, 제9회 Strictly K-Pop(6월, 9월)

■ 일시 및 장소 : 제8회(6.29.(금), HAL4 on the Mass) /
제9회(9.22.(토), Rotown)
■ 주관 및 주최 : 한류애호모임 소맥 주최 및 주네덜란드 대사관 후원
■ 행사 내용 : K-Pop 애호가들을 위한 디제이 파티와 K-Pop 댄스 및 노래 경연이 주된 유료 프로그램임.

(6) Hallyucamp(7월)

■ 일시 및 장소 : 7.13.(금)~7.15.(일), Paasheuvelgroep
■ 주관 및 주최 : 한류애호모임 Hallyucon(한류콘) 주최 및 주네덜란드 대사관 후원
■ 행사 내용 : 네덜란드 내 자생 한류 단체 한류콘이 올해로 5년째 개최하고 있는 행사임. 2박 3일간 진행된 유료행사에 5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K-Pop 경연, 한국어 퀴즈, 동계 올림픽 등의 한류 체험 활동을 함.

(7) 한국작가 초대전(9월)

■ 일시 및 장소 : 9.19.(목)-10.14.(일), 하멜하우스
■ 주관 및 주최 : Stichting Hendrick Hamel Foundation
■ 행사 내용 : 이정숙 작가 초청 전시회가 개최됨.

(8) 라 메르 에 릴(La Mer et L'Ile) (9월)

■ 일시 및 장소 : 9.30.(일), De Doelen
■ 주관 및 주최 : ㈜라메르에릴
■ 행사 내용 : 이 순회공연은 클래식 음악을 통해 우리 문화예술과 동해, 독도를 알리고자 파리를 거쳐 로테르담에서 열림.

(9) Hallyucon Convention(10월)

- 일정 : 10.27.(토)
- 주관 및 주최 : 한류애호모임 Hallyucon(한류콘)
- 행사 내용 : 한류콘이 주최하는 또 다른 연례행사로,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뿐 아니라, 언어, 음식, 전통 공예, 태권도 등 한국 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대규모 박람회임.

(10)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11월)

- 일정 : 11.14.(수)~11.25.(일)
- 주관 및 주최 :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msterdam
- 행사 내용 : 1988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다큐멘터리 경쟁 영화제이며, 2017년에는 김지나 감독의 〈Bloodless〉가 상영됨.

7 여행정보

(1) 비자

1 일반 여행객

사증면제협정(90일)으로 90일 이내로 여행할 경우 비자가 필요 없다.

2 공연비자

90일 이내 체류 시 따로 공연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더욱 상세한 사항은 주한네덜란드대사관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90일 이상 체류 계획 시 노동허가서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중구 정동 15-5번지 정동빌딩 10층(우편번호:100-784)
- 전화번호 : 82-2-311-8600
- 팩스 : 82-2-311-8650
- 웹사이트 : southkorea-kr.nlembassy.org

(2) 안전정보

대체로 치안이 안정된 나라이고 범죄율도 낮은 편이지만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로테르담과 같이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곳은 소매치기나 절도범을 조심해야 한다.

8 현지 문화

(1) 관용적인 국민성과 문화정책

네덜란드 정부는 문화생활의 대중화를 위한 문화시설(극장, 전시장, 문화 교육 시설 등) 확장 보급에 노력하는 한편, 입장료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동성 간의 결혼, 매춘과 안락사 등을 합법화하고 소위 'soft drug'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용인하는 등 진보적이고 관용적인 사회정책을 유지하고 있다(2012년 5월부터 남부 3개 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soft drug 판매금지). 이는 실용주의적이고 관용적인 네덜란드의 국민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반 고흐와 렘브란트를 탄생시킨 저력 있는 문화전통을 가진 네덜란드는 17세기부터 문화 중흥정책으로 예술가들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을 국가 혹은 사회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1975년에는 De Appel(www.deappel.nl)과 같은 재단을 세워 국적에 상관없이 재능 있는 예술가를 키우고 공연 및 예술 활동을 지원해 준다.

9 현지 연락처

(1) 긴급 연락처

- 경찰/소방/의료(긴급시) : 112
- 경찰(비긴급시) : 0900-8844
- 야간진료센터
  - 암스테르담 : 088-003-0600

• 헤이그 : 070-346-9669
• 로테르담 : 010-290-9888

(2) 대사관 연락처

- 주소 : Verlengde Tolweg 8, 2517 JV The Hague, The Netherlands
- 전화 : +31-70-740-0200(네덜란드 내에서는 070-740-0200)
- 영사 업무 : +31-70-740-0214/5(네덜란드 내에서는 070-740-0214/5)
- 팩스 : +31-70-350-4712
- E-mail : koreanembassynl@mofa.go.kr
- 홈페이지 : nld.mofa.go.kr
- 비상연락처 : +31-64-264-8412(사건/사고)
- 민원 업무시간 : 월~금요일 09:00~12:30, 14:00~17:00

10 기타

(1) 날씨

네덜란드의 기후는 온난다습한 해양성기후이다. 여름 평균은 섭씨 13~22도, 겨울 평균은 섭씨 1~4도를 유지한다.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며 여름에는 햇빛이 강하지만 후덥지근하지 않고 비교적 선선하다. 비가 자주 오므로 우산이나 우비를 항상 휴대하는 것이 좋다.

(2) 교통정보

1 대중교통

네덜란드는 대중교통이 발달한 나라이므로 굳이 차를 렌트하거나 운전하지 않아도 낯선 곳을 찾아가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교통카드인 OV-chipkaart로 기차 및 도시전차(트램), 버스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며, 구매와 충전은 기차역에서 가능하다.

2 자전거

네덜란드 인구의 46%가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통계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네덜란드인들의 자전거 사랑은 특별하다. 비가와도 그냥 맞거나 우비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차가 있더라도 가까운 거리는 주로 자전거를 이용한다. 도로에도 차도와 인도 외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따로 있어 보행자들조차도 절대로 침범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면서 걸어야 한다. 어디서나 쉽게 자전거 주차장을 찾을 수 있고 자전거를 이용한 전국투어도 해볼 만하다.

(3) 기타

1 전력사용

사용전압은 230V, 50Hz로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전자제품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가끔 110V인 호텔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환전

현지 은행에서 유로(Euro)로 환전할 수 있는데 환전수수료를 내야한다. 현금(유로)만 지불해야 하는 장소도 많으므로 얼마간의 현금은 반드시 소지하는 것이 좋다.

3 통신

우편 : www.postnl.nl, www.tntpost.nl

흔히 볼 수 있는 슈퍼마켓, 서점, 문구잡화점에 TNT 또는 Postal 표시가 같이 있다면 우편업무를 본다는 뜻이다. 우표를 살 수 있으며 문서나 소포를 부칠 수 있다.

4 전화

선불 유심칩을 구입해서 전화통화, 문자, 인터넷 등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심칩은 슈퍼마켓이나 이동통신 전문 매장에서 구입 가능하다.

-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전화
  - 국제전화 접속번호+31(네덜란드 국가번호)+0을 뺀 나머지 전화번호
-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전화
  - 00+82(한국 국가번호)+0을 뺀 한국 내 도시번호

5 인터넷

네덜란드의 인터넷 속도는 유럽 내에서 빠른 편에 속하며, 다수의 음식점, 카페 및 공공장소 등에서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3. 노르웨이

1 개황

- **수 도 :** 오슬로(인구 67만 명)
- **인 구 :** 530만 명
- **면 적 :** 385,180㎢(남한의 약 4배)
- **민족구성 :** 노르웨이인
- **종 교 :** 루터 복음교(74%)
- **시 차 :** 우리시간 -8(서머타임 적용시 -7)
- **언 어 :** 덴마크어의 영향을 받은 Bokmal어, 지방 고유어인 Nynorsk어
- **1인당 GDP('17년) : 74,941**미달러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 총교역 59.7억 미달러
  (수출 46.8억 미달러, 수입 12.9억 미달러)

2 문화적 특성

(1) 축제와 종교

노르웨이 문화는 문학, 예술, 음악 등에서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던 19세기에 꽃을 피웠다. 노르웨이 문화를 들여다보려면 매년 5월 17일

개최되는 National Day 행사를 살펴보면 된다. 이날은 사람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시가행진을 하는데 이 풍습은 17세기 작가인 헨릭 입센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자국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낭만주의 민족운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노르웨이 문화의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는 기독교이다. 지금도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가장 큰 명절로 여긴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노르웨이인들에게 특별한 기간으로 집집마다 양초를 밝혀놓고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시장과 전시가 열린다.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엔 고향집을 방문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또 어떤 가정은 성요한 기념일인 6월 24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날은 1년 중에 해가 가장 길어 여름의 정점이 된다. 이때부터 여름휴가가 시작되며 집 앞에 모닥불을 피우는 풍습이 있다. 이날 북극권에서는 24시간 해가 떠있는 백야 현상을 볼 수 있다.

(2) 노르웨이의 문화적 성취

노르웨이가 배출한 위대한 예술가로는 화가 에드바르 뭉크(Edvard Munch, 1863~1944), 작가 헨릭 입센(Henrik Ibsen, 1828~1906), 음악가 에드바르 그리그(Edvard Grieg, 1843~1907) 등이 있다. 한때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에서 도난당했던 뭉크의 그림 '절규'는 우리에게 친숙하다. '인형의 집'을 비롯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공연되는 작품의 작가인 헨릭 입센은 당시 유럽의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작품이 공연되는 극작가로 간주되고 있다. 입센의 극에 곡을 붙인 가곡 '페르귄트'로 널리 알려진 그리그는 노르웨이 민요를 정비해 노르웨이의 민족문화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의 음악에 노르웨이의 민족색이 짙게 묻어나며, 오늘날 많은 노르웨이인들은 그의 음악이 노르웨이에 없어선 안 될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

문학에서는 1903년 Bjørnstjerne Bjørnson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시작으로 1920년 Knut Hamsun, 1928년 Sigrid Undset 등 다수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노르웨이 문학은 1990년대에 Jostein Gaarder의 소설 〈Sophie's world〉가 세계 40여 개 언어로 번역되면서 다시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된다.

(3) 현대 대중문화

20세기 들어서는 노르웨이 문화의 경향성에 변화가 일어난다. 노르웨이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하던 경향과 달리, 노르웨이도 세계화의 영향으로 외국 대중문화를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 무용, 미술, 음악 등 공연 문화에서 광범위하게 볼 수 있다. 노르웨이 젊은이들은 미국이나 영국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즐겨 듣고, TV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에 자막을 입힌 것이 많다. 반대로, 노르웨이 대중음악 중에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많은데 80년대 전 세계적으로 3천 5백만 장의 앨범 판매부수를 기록한 경쾌한 명곡 'Take on me'를 남긴 밴드 아하(A-HA)가 노르웨이 출신이며, '노르웨이 팝'이라는 영역을 개척한 음악 아티스트 'Madcon'이나 'Maria Mena'의 팬 층도 넓은 편이다. 재즈와 포크, 일렉트로닉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이 장려되고 있어, 다른 나라의 프로듀서와 밴드가 음악적 영감을 얻기 위해 오슬로를 찾는 경우가 많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노르웨이에서 한류는 아직 생소한 편이지만 2005년~2006년경부터 노르웨이에서 K-Pop 애호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012년 가수 싸이의 활동으로 한류가 더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노르웨이 신문 등 대중매체에서 한국문화를 종종 소개하며 스포츠와 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는 EXO, 소녀시대, Big Bang, 방탄소년단 같은 걸그룹, 보이그룹이 한류 파워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꾸준히 유럽에서 SM 타운 콘서트를 개최하여 유럽 각국에서 많은 한류 팬들을 불러 모으는 등 현지에서 소속 가수들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노르웨이 TV에서는 한국 방송이 방영되지 않으므로 인터넷(YouTube 등)이 한류를 접할 수 있는 주된 통로이며, 그 밖에 현지 한류 동호회(K-Pop in Norway; KPiN)가 주관하는 행사를 통해 한류를 접하고 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선보이는 K-Pop과 메이크업이 노르웨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류라고 볼 수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한국의 태권도, 스케이팅, 축구 등이 알려져 있다. 특히 태권도는 저변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는 한국 출생의 노르웨이 여성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의 스마트폰과 자동차가 브랜드 파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삼성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삼성과 LG TV가 고급으로 꼽힌다. 현대차의 SantaFe, I-40, I-30 모델이 호평을 받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1 한국어

노르웨이에서도 한국어에 관심을 갖고 배우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르웨이 한글학교가 학기제로 주말마다 운영 중으로, 학기마다 60여 명이 등록하고 있다. 한편, 오슬로대학교 한국학 동아리에서 한국어와 한식을 선보이는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한국어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통해(www.talktomeinkorean.com 등) 독학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 문학작품 중에서 고은 시인, 황석영 소설가(〈바리데기〉, 〈한씨연대기〉), 신경숙 소설가(〈엄마를 부탁해〉,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한강 소설가(〈채식주의자〉) 등의 작품이 노르웨이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2 음악(K-Pop)

YouTube를 통해 한국음악을 듣는 젊은 노르웨이인들이 많이 있다. K-Pop 음악과 댄스를 즐기는 노르웨이인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KPiN이라는 단체에서 매년 K-Pop 댄스 경연대회를 주최한다. KPiN은 매년 '어머나(Omona)'라는 K-Pop 댄스 경연대회를 오슬로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 6월에도 Felix Conference Center에서 경연을 펼쳤다.

3 방송

노르웨이 TV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없어, 한국 드라마나 배우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4 영화

한국 영화는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영화제를 통해 꾸준히 소개되어왔다. 오슬로에서 매년 개최되는 〈Film from the South〉라는 국제영화제가 대표적인데, 2010년 10월 〈Film from the South〉 영화제에서는 〈하녀〉, 〈여행자〉, 〈김씨 표류기〉가 Silver Mirror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이어 2011년에는 〈황해〉, 〈시〉, 〈무산일기〉, 〈파란만장〉, 2012년에는 〈범죄와의 전쟁 : 나쁜 놈들 전성시대〉, 2013년에는 〈몽타주〉, 〈잠 못드는 밤〉, 2014년에는 〈용의자〉, 〈변호인〉, 〈설국열차〉, 〈한공주〉, 〈끝까지 간다〉, 2015년에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해무〉를 출품하였다. 2016년에는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한국영화를 노르웨이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영화제 등에서 호응을 얻은 영화를 간헐적으로 소극장에서 며칠 상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이지는 않다.

5 한식

한식은 오슬로 시내와 인근의 한식당, 현지 일간지 또는 여행 잡지의 한식 리뷰 기사, 한국대사관과 노르웨이-한국 민간 친선협회의 한식강좌 활동 등을 통해 꾸준히 알려지고 있다. 일식당, 중식당, 동남아 식당에서 한식 몇 종류를 내놓거나 김치를 곁들이는 경우도 있다. 현지 아시안 마트에서 라면 등 한국 식품은 인기가 많다.

6 스포츠

한국의 스포츠로 많은 노르웨이인들이 태권도를 떠올린다. 뿐만 아니라, 여자 배구 및 동계스포츠 부분에서의 한국의 우수한 성적 때문에 스포츠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며, 한국의 축구팀과 스케이팅도 알려져 있다. 특히 태권도는 대부분의 각 도시에 태권도장이 설립되어 있을 정도이다. 오슬로에서는 'Tøyen taekwondo klub'이 노르웨이 태권도 국가대표팀을 배출해내는 가장 큰 태권도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체급 67kg의 여성 선수가 16강에 진출했으며 2008년 올림픽에서는 한국에서 출생한 노르웨이 여성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노르웨이에서는 한국팀을 초청할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범공연을 하고 있다. 매년 전국단위의 노르웨이 국왕배 태권도대회가 열리는데 2017년 11월에도

국왕배 대회가 열려 성인부 우승자에게 국왕배가, 남녀 청소년부 우승자에게 한국대사배가 수여되었다. 한편, 2014년부터 북극권 지역 태권도 수련생들이 참가하는 한국대사배 북극권 태권도 대회가 매년 10월 개최되고 있다.

한편,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에서 노르웨이는 종합성적 1위를 기록하여 동계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7 뷰티

한류 애호가들은 한국식 '뷰티'에도 관심을 보인다. 2014년 발행된 〈Subjekt〉라는 잡지에서 한국 패션을 소개한 일이 있고, 2017년 KPiN 주최 'Omona' 행사에서 한국식 메이크업 강좌가 열리기도 했다. K-Pop을 좋아하는 노르웨이 젊은이들은 화장, 드라마, 패션, 한식 등에 두루 관심을 갖고 있으나 한국 뷰티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 중에 한류의 다른 분야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8 공연·미술

한국 미술도 꾸준히 노르웨이 현지에 소개되고 있다. 일례로, 오슬로에서 차량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있는 베스트포센(Vestfossen) 미술관은 2016년 5월 7일부터 10월 2일간 '돌아와요 부산항에(Please Return to Busan Port)' 제하의 한국 현대미술작가 21인 그룹전을 열었다. 노르웨이에서 한국 현대미술을 주제로 한 단독전시는 처음 있는 일로, 독일 쾰른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큐레이터들과 베스트포센 미술관 기획팀의 공동기획으로 추진되었다. 노르웨이 일간지 Aftenposten에 전시작품 평론기사가 게재되기도 했다.

2015년 3월에는 오슬로에 소재한 Black Box Theater에서 행위예술가인 정금형씨가 'CPR practice(심폐소생술)'이라는 공연을 선보였고 2015년 7월에는 노르웨이 북부 도시 Førde에서 열린 'Førde Traditional and World Music Festival'에서 한국 풍물 공연팀인 노름마치의 공연이 있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노르웨이인들은 외국 문화에 대한 편견이 적은 편이며, 윤택한 생활수준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비교적 초기에 한류를 접한 세대들은 한류를 좋아하게 된 계기로 2006년 동방신기 공연을 언급하는 경

우가 많다. 일본 미디어에서 동방신기를 처음 접한 노르웨이 젊은이들은 당시 노르웨이 팝문화에서 볼 수 없었던 음악과 댄스, 스타일을 하나로 녹여낸 동방신기 공연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K-Pop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 한식, 한국어, 한국 역사 심지어는 현대 한국정치에 이르기까지 관심영역이 꾸준히 넓어지고 있다고 한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노르웨이의 국민성은 검소하고 순박하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사치를 배격하고 매우 검소한 것을 미덕으로 여길 만큼 사치와 낭비를 찾아보기 힘들다. 유행이나 패션적인 것보다는 실용적인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면에서 드라마 콘텐츠, K-Pop 등에서 지나치게 화려한 것보다는 진솔한 내용의 콘텐츠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노르웨이인들은 정직할 뿐만 아니라 직설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표리부동한 태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좋고 싫음을 이야기한 후에 대화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처음에 나쁜 점이나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더라도 평상심을 갖고 진솔하게 대화에 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 배급사가 현지 방송국 관계자들을 섭외할 때에도 배급하려는 콘텐츠와 노르웨이 문화가 이질적이라면 이를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인들은 개인시간을 가장 우선시하므로 직장생활은 개인생활을 즐기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다. 업무 이외의 시간에 업무적인 만남을 싫어해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저녁초대 등은 서로 자제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여가 시간이 많은 현지인에게 선호에 맞는 한류 콘텐츠가 보급된다면 한류가 진입할 공간은 있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노르웨이 내 한류 동호회는 대개 Facebook 등 온라인 공간에서 한류 관련

정보들을 교환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 가운데 KPiN이라는 동호회는 해마다 'Omona'라는 이름의 K-Pop 댄스 경연대회를 열어 K-Pop을 함께 즐기는 단체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행사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해가 지날수록 한식과 한글, 한국 메이크업을 선보이는 종합적인 한류행사를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 동호회별 현황

1 KPiN(Organization for Korean Pop culture in Norway)

성격	K-Pop 동호회(2012년 3월 설립)
회원 수	약 3,500명 회장 : Camilla Jørgensen Ruud E-mail : informasjon@kpin.no
웹사이트	http://kpin.no.www.omona.no
세부활동현황	• 2012년 이래 연례행사인 "OMONA"(희망자들이 모여서 한국음식, 노래, 춤 등을 즐기는 옥외행사) 개최 • 한국팝문화 관련 행사 등 정보 제공

2 Nordic K-Pop TV

성격	SNS를 통해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한국음악 전파(2012.8.6. 개설)
회원 수	운영자 2명이 설립해 영상제작 때마다 참여인원 변동
웹사이트	www.facebook.com/NordicKpopTv
세부활동현황	• 스칸디나비아(특히 노르웨이)에 한국음악 및 문화 전파 • 한국 관련 YouTube 영상 제작, 한국 소개

3 Bring K-Pop to Norway

성격	SNS(2012.8.6 개설)
회원 수	572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groups/kpopnorway
활동	• 한국팝음악(최신가요포함) 소개 및 정보 교환, off-line 모임

4 K-Pop Norge

성격	한국음악(K-Pop) 팬페이지
회원	약 2,500여 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groups/kpopnorge/
활동	• K-Pop 동영상 공유

6 2018년 문화행사

- 한국어 말하기 대회(한글학교 주관)(4월)
- 한식 쿠킹 클라스(한-노르웨이 친선협회 주관)(5월, 8월)
- K-Pop 동호회(KPiN) K-Pop 댄스 경연대회 겸 한류행사(6월)
- 노르웨이-한국 친선협회 총회(9월)
- 한글학교 추석행사(9월)
- 한국대사배 북극권 태권도 대회 개최(10월)
- 노르웨이 6.25 참전용사회 현지 기념행사(11월)
- Film from the South(노르웨이 영화협회 주관)(11월)

7 여행정보

(1) 비자

일반여행객의 경우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로 외교관, 관용, 일반 여권 모두 180일 기간 중 90일간 면제된다.

(2) 공연비자

우리나라 예술가, 음악가, 연기자들이 노르웨이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 비자발급신청서, 공연 관련 계약 서류 등을 제출하고 관련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 1년 중 14일 이하 공연의 경우 비자가 불필요하나 입국 전에 공연자나

노르웨이측 초청자가 노르웨이 경찰에 공연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럽 비자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주한노르웨이대사관 홈페이지(www.norway.or.kr)와 이민국 홈페이지(www.udi.no/en)를 참조하면 된다.

※ 주한노르웨이대사관 연락처
- 서울시 정동길 21-15 정동빌딩 13층
- 전화 : 82-2-727-7100
- Fax : 82-2-727-7199
- E-mail : emb.seoul@mfa.no

※ 비자, 거주허가 신청(비자신청접수 대행기관)
-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5층(전화 : 070 4044 0599)

(3) 안전정보

1 여행경보단계 : 미분류

2 사건·사고 현황

노르웨이는 전반적으로 범죄율이 낮고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치안 상황이 비교적 양호하다. 단, 오슬로, 베르겐 등 큰 도시의 중앙역, 백화점 및 보행자 인접 지역 또는 혼잡한 호텔 로비 등에서는 제3국인 소매치기 등 경범죄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름 관광 시즌에 소매치기, 절도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오슬로 중앙역과 오슬로시 동부 지구(아시안마트 주변) 등에서 소매치기 조심 요망). 또한 야간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나 외진 지역으로의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8 현지 문화

(1) 소개와 인사

첫 만남에서는 남자와 여자, 아이들까지 악수를 하는 것이 에티켓이다. 공식적인 모임에서 헤어질 때 다시 한 번 악수를 하는 것이 좋다. 평상 모임이라면 그냥 작별인사만 해도 된다.

노르웨이인은 연장자를 예우하기 때문에 연장자에게는 적절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다. 영어는 광범하게 사용되지만 노년층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

(2) 식사예절

노르웨이인들은 시간관념이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노르웨이인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더 중요시하여 오찬은 통상 아주 간단히 비즈니스 위주로 진행된다. 반면 저녁은 많은 대화와 함께 오래 걸린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주최자에게 노르웨이어로 Takk for maten(탁 훠르 마텐-thanks for the meal)와 같은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좋다.

(3) 선물

현지인 가정에 초대받으면 주인이나 자녀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에겐 초콜렛 또는 빵, 과자류가 무난하지만, 노르웨이 부모들은 대개 토요일이 아니면 어린이에게 초콜렛이나 과자류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른에게는 꽃이나 와인을 선물하면 무난하다.

(4) 종교

노르웨이는 기독교 국가이다. 기독교 의식에 따라 교회에서 왕의 즉위식부터 세례식, 결혼식, 장례식 등이 행해진다. 물론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부활절, 성령강림주일, 성탄절 등 기독교 기념일은 모두 공휴일이다.

(5) 스킨십

노르웨이인들은 개인 간에 거리를 두는 것을 선호한다. 등을 토닥거리거나 안거나 키스, 팔을 만지는 것은 오로지 친한 친구나 가족들에게만 해당된다. 따라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6) 기타

노르웨이는 음주운전에 매우 엄격한 편이다. 또한 노르웨이인들은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므로 역사나 문화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자주

언급하는 것이 좋다. 노르웨이인들을 스웨덴 사람이나 덴마크인처럼 취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아울러 스웨덴이나 덴마크에 대한 칭찬도 피하는 것이 좋다.

9 현지 연락처

(1) 긴급 연락처

- 오슬로 경찰 : 02800
- 경찰, 소방 : 112, 110
- 분실물센터 : 2266 9865
- 경찰 : 22 66 9050
- 버스·지하철(오슬로) : 22 08 53 61
- 공항(오슬로) : 64 81 34 77
- 기차(오슬로) : 8156 8340
- 택시(Oslo 택시) : 02323

(2) 의료기관 연락처

노르웨이는 보험이 없는 경우 진료비가 매우 비싸며, 병원, 약국 대부분 영어 사용이 가능하다. 일부 제한된 약품에 한해서만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Apotek)에서 구입이 가능하나, 대부분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다.

- 긴급 의료지원
  - 앰뷸런스 : 113
  - 응급실 : +47 116 117
  - 중앙역 인근 24시간 약국(공휴일 포함) : +47 2241 2481

(3) 주노르웨이대사관 연락처

- 주소 : Inkognitogate 3, 0244 Oslo, Norway
- 전화번호 : (47) 2254-7091

- FAX : (47) 2256-1411
- E-mail : kornor@mofa.go.kr
- 홈페이지 : www.nor.mofa.go.kr
- 민원 시간 : 월~금, 08:45~16:15(점심시간 12:00~13:00)

10 기타

(1) 기후

위도상으로 볼 때는 매우 추운 나라로 인식하기 쉽지만, 멕시코만 난류로 인해 내륙/산간지방을 제외하면 겨울은 서울보다 온화하고 여름에는 평균 25~26℃로 한국보다 덜 덥다. 간절기(5월, 9월)의 온난한 시기에 잦은 강우로 인한 저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여름에는 건조하고 온난하며 겨울에는 눈으로 덮인 지역이 많아 자동차 운행시 조심해야 한다.

수도 오슬로나 베르겐 등 대도시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가지만 바람이 별로 없고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온난한 편이다. 하지만 중서부 산악과 피오르드 지역은 눈으로 덮여있고 이 기간 중에는 제설차를 계속 가동시켜 주요 간선도로만 소통시키고, 소규모 도로들은 적설과 결빙으로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 여름
  - 기간 : 6월~8월(3개월)
  - 기온 : 최고 기온 30도, 7월 평균 16.4도
  - 일출/일몰 : 일출 05:00, 일몰 22:00(밤이 7시간)
- 겨울
  - 기간 : 11월~3월(5개월)
  - 기온 : 겨울 최저 기온 -19.7도, 1월 평균 -4.3도
  - 일출/일몰 : 일출 09:00, 일몰 15:00(낮이 6시간)

(2) 식수

수질이 양호해 정수하지 않은 수돗물을 식수로 마실 수 있다.

(3) 교통정보

대중교통 이용 시 항상 티켓을 소지해야 한다. 대중교통(T-bane이나 트램) 탑승 시마다 티켓 검사를 하지는 않지만 불시에 검사를 해서 티켓 미소지가 적발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다. 자가운전 시에는 제한속도와 주차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4) 팁

식당 등에서 식사 후 결제 금액에 따라 5~10% 정도 더해 결제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결제시 팁을 포함한 총액을 카드기계에 입력하면 된다.

(5) 환전 등

노르웨이에서는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유료화나 달러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환전소(시내, 공항) 또는 은행에서 환전 후에 사용해야 한다.

- 은행 근무시간 : 월~금 09:00~15:00(계절, 지역, 요일별로 다를 수 있음)
- 공항 환전소 : 매일 06:00~22:30

4. 덴마크

1 개황

- **수 도 :** Copenhagen(인구 약 78만 명, 수도권 포함 약 131만 명, 2018년.5월 기준)
- **인 구 :** 578만 5,000명 (2018년.5월 기준)
- **면 적 :** 42,934㎢ (자치령 그린란드 및 페로제도 제외, 한반도의 1/5)
- **민족구성 :** 아리안계의 덴족, 고트족(인구의 90%가 북게르만 계통)
- **종 교 :** 덴마크 루터복음교(Evangelical Lutheran Church : 국교, 인구의 약 80%), 이슬람교(이민세대의 영향으로 2위), 가톨릭, 침례교, 유대교 등
- **시 차 :** 우리시간 -8(서머타임시 -7)
- **언 어 :** 덴마크어
- **1인당 GDP('17년) :** 63,830 달러 (2018년.5월 기준, 세계 7위)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 총 22억 달러(수출 15억 달러, 수입 7억 달러 (우리나라 기준))

2 문화적 특성

(1) 협소한 영토와 작은 인구/동질적인 문화적 특성

기본적으로 덴마크는 578만 명의 인구 중 90% 이상이 북게르만계 덴/고트족이며 전 국민의 76%가 루터복음교 신자이므로 이웃의 독일, 영국 등 대국에 비해 동질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는 덴마크 특유의 복지국가 시스템 정착에 큰 기여를 하였다.

(2) 실용적이고 평등지향적인 특성

덴마크인들은 과도한 의전과 낭비를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인식이 생활 속에서 보편적으로 체화되어 있다(예를 들어, 전 총리가 외국 출장 시 수행원을 대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현직 고위인사 외국 출장 시에도 수행원 숫자가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 그러나 왕국의 특성상 왕실 관련 행사 등에서는 깍듯하게 격식과 의전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다. 체면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을 중시하며, 원칙과 관행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하나 필요할 때는 원칙과 관행 등을 융통성 있게 해석하고 집행하는 등 유연성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3)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문화

덴마크인들은 교육 등의 영향으로 타 인종 및 타 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관대한 편으로 타 문화에 대한 수용능력이 뛰어난 편이다. 실례로 덴마크인 대다수가 영어로 의사소통에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며, 국가 규모에 비해 다양한 국적의 문화를 광범위하게 즐기고 있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덴마크에는 온라인으로 주로 활동하는 페이스북 동호회 'Danish K-Pop

Lovers'가 존재하나, 한류에 대한 열기는 K-Pop, 영화 등을 중심으로 개인 또는 소규모 모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2012년도 하반기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으며, 2014년에는 덴마크 최대 일간지인 Politiken에서 한국 대중문화에 관련 특집기사를 게재하는 등 한류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에는 한강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채식주의자"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아가씨"를 비롯한 한국 영화 등이 대형극장에서 개봉되기도 하였으며, 현지 방송 채널에서도 영화 "옥자"가 상영되기도 하였다. 또한, 김치페스티벌의 영향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식당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코펜하겐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대사관 및 코펜하겐 체류 우리 교환 학생 등과 함께 한류 관련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류 확산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2) 덴마크의 한류 관련 Youtube 동영상

- Danish K-Pop lover 미팅 영상(2011.12.17.)
  - www.youtube.com/watch?v=QWGv-yGZIgs
  - www.youtube.com/watch?v=nxHfh-ibTXY
- 코펜하겐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물 'Why We Love Korea'(2012.5.19.)
  - www.youtube.com/watch?v=boO5avmEloQ
- Korean wave in Denmark 덴마크의 한류(2012.6.25.)
  - www.youtube.com/watch?v=H61CBvEseI4
- 코펜하겐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 한류이벤트 덴마크국립박물관 한국전시실(2012.6.26.)
  - www.youtube.com/watch?v=q9E-SI_dIuE
- 코펜하겐시청 앞 광장 플래시몹(2012.8.2.)
  - www.youtube.com/watch?v=autsAfND-Qg
- 올보르(Aalborg)시에서 강남스타일 플래시몹(2012.9.23.)
  - www.youtube.com/watch?v=IGqhJYrUEdA

- 덴마크 TV 프로그램 보도내용(방송 'Deadline') (2012.9.17.)
  - www.youtube.com/watch?v=hD7VcoXV6pk
- 덴마크 밴드 DødspopPatruljen(The DeathpopPatrol) 강남스타일 한국어 공연(2012.10.14.)
  - www.youtube.com/watch?v=IkUXHGp6AqM
- 강남스타일 패러디(덴마크스타일) (2012.10.30.)
  - www.youtube.com/watch?v=hT98NKokSsM
- K-Pop 관련 모임 영상 1(2016.10.3.)
  - www.youtube.com/watch?v=Q6ng6LnsiL0
- K-Pop 관련 모임 영상 2(2017.1.31.)
  - www.youtube.com/watch?v=QhH2YUsA-KI
- K-Pop 댄스 관련 모임 영상 (2018.6.8.)
  - www.youtube.com/watch?v=53McG1tM8SU
- K-Pop 댄스 관련 모임 영상 (2018.6.10.)
  - www.youtube.com/watch?v=pToaEmqZ6Y8
- K-Pop 댄스 관련 모임 영상 (2018.7.6.)
  - www.youtube.com/watch?v=RwidH9i4I9o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덴마크는 아직까지 한류가 성숙한 국가는 아니며 현지인들 전반에 한국 문화가 흡수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덴마크인들의 타국 문화에 대한 적은 편견과 문화적인 개방성과 포용성은 향후 한류의 확산 가능성을 짐작하게 해준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한 번의 큰 행사를 통해 큰 성과를 내려고 하기 보다는 여러 군소 행사를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덴마크 일반인은 한국 문화에 대해 접할 기회가 적은 국가로 한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이 높지 않으나 최근 K-Pop, 싸이 돌풍 등에서 보듯이 한류 확산의 가능성은 다분하다.

영화, 한국음식 등 덴마크인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 등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점차 한국드라마, 만화, 연극, 공연 예술 등으로 그 범주를 확대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덴마크에서는 대부분의 공연이나 행사를 최소 6개월 이전에 기획하고 장소 등을 섭외하는 관행이 있는 바, 시간을 두고 문화 교류 행사를 기획해 장소 섭외나 관객 동원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덴마크는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이 여름휴가 기간으로 동 기간에 문화 행사 개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Danish K-Pop Lovers

성격	K-Pop 관련 페이스북 동호회
회원 수	2,123명(동호회 페이지 멤버수)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groups/DKL11/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상에서 K-Pop에 대한 정보와 소식 공유 • 두 달에 한번 정도 오프라인 정기모임(20-30명 참석)

6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유틀란디아 음악회

- 일시 및 장소 : 2016.2.9.(화), 덴마크 왕립 도서관 Black Diamond 극장
- 주관 및 주최 : 주덴마크대사관
- 내용 : 덴마크-한국 클래식그룹 'Trio con Brio Copenhagen'의 연주와 함께 한국 클래식 음악가들을 초청하여 유틀란디아호의 최초 한국 출항(1951.1.23.)을 기념

(2) 발레행사

- 일시 및 장소 : 2016.4.11.(월), 대사관 관저
- 주관 및 주최 : 주덴마크대사관
- 내용 : 덴마크 왕립발레단의 유일한 한국인 무용수인 홍지민 발레리나와 덴마크 출신 Sebastian Haynes 무용수가 '라 실피드(La Sylphide)' 장면에 맞춰 발레 동작을 시연

(3) 유틀란디아 전시관 개관식

- 일시 및 장소 : 2016.6.6.(월), 대사관 유틀란디아 홀
- 주관 및 주최 : 주덴마크대사관
- 내용 : 참전용사, 덴마크 주요 인사 및 외교단을 초청하여 '유틀란디아' 전시관 개관식을 개최, 유틀란디아호의 숭고한 정신과 인간애를 기억하고자 설립한 전시관을 홍보

(4) 퀴즈온코리아

- 일시 및 장소 : 2016.6.25.(토), 코펜하겐 Torvehallerne 광장
- 주관 및 주최 : 주덴마크대사관
- 내용 : 김치페스티벌 행사와 연계하여 퀴즈온코리아 덴마크 예선전을 개최 / 약 70명의 덴마크인 참가

(5) 그린란드 한국영화 상영 행사

- 일시 및 장소 : 2016.6.28.(화), Katuaq 문화센터, 그린란드 누크
- 주관 및 주최 : 주덴마크대사관
- 내용 : 주그린란드 명예 영사 임명 부대 행사와 함께 한국 영화('끝까지 간다') 상영

(6) 백남준 전시회 리셉션

- 일시 및 장소 : 2016.9.15.(목), SMK 덴마크 국립미술관
- 주관 및 주최 : 주덴마크대사관

■ 내용 :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유명 덴마크인을 모티브로 제작한 대형 로봇 4점을 선별하여 특별 전시회를 개최

(7) Korea week 한국문화주간행사

■ 일시 및 장소 : 2016.10.15.(토)-10.16(일),
Torvehallerne 광장 및 Bevtoft 마을 체육관
■ 주관 및 주최 : 주덴마크대사관
■ 내용 : 10월초 국경일 행사 계기 덴마크 최대 음식시장인 Torvehallerne, 코펜하겐 시청 광장 및 유틀란드 반도 Bevtoft 지역에서 흥겨운 풍물놀이 및 태권도 시범 등의 행사를 개최

(8) 코펜하겐 한국영화 상영 행사

■ 일시 및 장소 : 2016.10.19.(수), 10.21(금), 10.26(수). 11.29.(화)-11.30(수),
Cinemateket
■ 주관 및 주최 : 주덴마크대사관
■ 내용 : 덴마크내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 증진을 위해 한국 영화 다섯 작품 상영(고지전,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끝까지 간다, 도둑들, 맨발의 꿈)

(9) 덴마크 전국 태권도 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6.11.19.(토), 오덴세
■ 주관 및 주최 : 주덴마크대사관
■ 내용 : 전국 태권도 대회 개최와 함께 부대 행사로 한국 관광자료를 비치한 홍보 인포부스를 설치하여 참석자 및 방문객들에게 한식, 한국 관광지 등을 소개 / 수련생 500여 명, 학부모 1,000여 명 참석

(10) Korea Friendship Evening 한국주간

■ 일시 및 장소 : 2016.12.16.(금), 대사관저
■ 주관 및 주최 : 주덴마크대사관
■ 내용 : 신임 공관장 신임장 제정식 계기 덴마크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성악가 공연 개최

(11) 코펜하겐 김치 페스티벌

- 일시 및 장소 : 2017.6.23.(금)-6.25.(일), 코펜하겐 Torvehallerne 광장
- 주관 및 주최 : 주덴마크대사관, 차세대한국리더모임
- 내용 : 2013년부터 매년 한인 입양인협회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연례행사로 김치를 필두로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

(12) 코펜하겐 김치 페스티벌

- 일시 및 장소 : 2018.6.15.(금)-6.17.(일), 코펜하겐 Torvehallerne 광장
- 주관 및 주최 : 주덴마크대사관, 차세대한국리더모임
- 내용 : 덴마크 현지인들과 방문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김치 및 막걸리 워크샵을 진행하였으며, 퓨전국악 팀 공연 및 태권도 시범 등 한국 관련 행사 선보임.

7 여행정보

(1) 사증

한국-덴마크 간 사증면제협정으로 한국인이 덴마크에 여행을 목적으로 방문 시 무사증으로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취업, 유학 등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90일 이상 체류시에는 사증을 신청해야 한다. 사증 종류에 따라 신청을 국내 또는 덴마크에서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사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출입국 심사

덴마크 입국시 본인의 덴마크 출국(덴마크에서 여행을 마치고 떠나는 예정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한다.

(3) 통관

총기류, 탄약,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질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담배, 주류, 향수 등을 과다 반입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4) 외환 신고

신고가 불필요하다.

8 현지 문화

(1) 전기 : 220V, 50Hz

(2) 상하수도

상태가 모두 양호하나, 식수는 석회분이 많아 정수하여 마시는 것을 권한다.

(3) 화장실

여성용은 "DAMER", 남성용은 "HERRER"로 표시하고 있다.

(4) 팁

호텔, 레스토랑, 택시의 경우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어, 팁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특별한 일을 부탁할 경우나 서비스에 만족한 경우에 액면 가격의 10% 미만의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신용카드로 지불시 팁을 줄 것인지를 지불 승인에 앞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팁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아니요 Nej를 누르면 지불 모드로 넘어감).

9 현지 연락처

(1) 긴급 연락처

- 경찰, 앰뷸런스, 화재 등 : 112
- 코펜하겐 경찰서 : 33-14-14-48
- Rigs 국립병원(Rigshospitalet) : 35-45-35-45
- 이민국 : 35-36-66-00
- 주덴마크한국대사관
  - 주소 : Svanemøllevej 104, DK-2900 Hellerup
  - 전화번호 : 39-46-04-00
  - FAX : 39-46-04-22

- KOTRA
  - 주소 : Holbergsgade 14, 2th, 1057 Copenhagen K
  - 전화번호 : 33-12-66-58
  - FAX : 33-32-66-54

(2) 사고발생시

덴마크에 유학, 연수, 취업, 일반여행 등 목적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 교통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사고내용을 외교부에 보고하여 국내연고자에 통보되도록 조치하는 등 제반 협조를 제공하고 있다.

여행자 질병에 걸려 응급실 사용이 필요할 경우 국번 없이 1813번으로 연락하여 사용가능한 응급실을 확인·예약하고 필요할 경우 앰뷸런스를 요청할 수 있다. 최초 응급실 사용은 무료이다.

(3) 전화 거는 방법

- 국내 : 전화번호
- 해외 : 00(국제선 호출)+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
  (예) 서울로 거는 경우 : 00+82+2+전화번호
  국내 휴대전화로 연락할 경우 : 00+82+10+뒤 4자리

※ 호텔의 국제전화 사용료는 일반가정의 6배 수준

10 기타

(1) 환전

공항, 은행, 시내 환전소 등에서 환전이 가능하며 공항이나 은행보다 호텔이나 시내환전소가 환율 및 수수료에서 유리하다.

• 공항, 중앙역 소재 은행(Den Danske Bank)은 주말 및 정상 영업시간 이외에도 이용 가능

(2) 한국과의 시차

평시에는 한국보다 8시간 늦으며, 일광절약시간(summer time) 기간에는 7시간 늦다.


KOREA
FOUNDATION
KF
한국국제교류재단

5. 독일

1 개황

- **수 도 :** 베를린(Berlin, 인구 361만 명, 2017년 12월)
- **인 구 :** 약 8,279만 명(2017년 12월)
- **면 적 :** 357,121㎢(한반도의 약 1.6배)
- **민족구성 :** 독일계(76.4%), 독일 귀환자(3.5%), 터키 제외 유럽계(9.8%), 터키계(5.5%), 아시아계(2.7%), 기타(1.9%)
- **종 교 :** 개신교 26.5%, 가톨릭 28.5%, 이슬람 4.9%, 무종교 또는 기타 36.2%(2017년 9월)
- **시 차 :** 우리시간 -8(서머타임 적용시 -7)
- **언 어 :** 독일어

2 문화적 특성

(1) 고유한 지역문화의 공존

영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근대국가로의 정치통합이 뒤쳐졌으며(프로이센에 의한 독일통일은 1871년),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연방주의 국가 체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정치적 체제는 독일문화의 근본 특징을 이루는 다양성의 기본이 되고 있다.

독일의 헌법격인 기본법에는 예술 문화정책을 각 연방주의 소관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각 연방주들은 문화 및 교육장관의 소임 아래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연방주들은 지역을 넘어서 중요성을 갖는 문화정책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동의 의견과 의지를 도출하고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 문화장관 상설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980년대 들어 효율적인 문화정책 결정과 집행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연방총리 산하 문화미디어 장관을 신설하고 국가적인 문화프로젝트 및 문화시설에 대한 후원 및 관리를 하고 있다.

고유한 지역문화가 공존하는 독일 특징은 〈뮌헨 옥토버 페스트〉, 〈쾰른 카니발〉 등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축제가 세계적 축제로 부상하고, 〈베를린 국제영화제〉, 〈바이로이트 바그너 음악제〉, 〈카셀 도큐멘타전〉 등 세계 문화예술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국제행사가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2)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

근대적 '국민국가'를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찾기가 힘들었던 독일은 '문화 국가'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 공동의 언어 및 문화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18세기~19세기 유럽 지성사를 주도한 독일 철학 및 문학으로 표출되었으며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라는 세평을 얻게 했다.

흔히 관념적, 사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독일철학은 종교를 대신하여 '국가이념'으로서 기능하였으며, 칸트 및 헤겔의 관념론을 필두로 하이데거의 실존철학,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철학 등으로 이어지며 현대 세계 지성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영미의 실증철학과 프랑스의 포스트모던 철학이 풍미하면서 그 영향력은 줄어드는 추세다.

괴테, 쉴러, 헤르만 헤세, 토마스 만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을 배출한 독일은 노벨문학상 수상자만 9명에 이르는 등 세계 문학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20세기 들어 제2차 세계대전과 68혁명을 겪으며 사회 분석적이고 참여적 작품이 주를 이뤘다면, 통일 이후에는 대중문학적 흐름이 주류를 이루면서 문학

적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독일 세대를 대변하는 젊은 작가들의 등장과 사회통합문제를 다루는 이주민 출신 작가들의 등장으로 독일 문학에 새로운 자극제가 되고 있다. 2005년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참여한 적 있는 세계 최대 도서박람회인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을 개최하는 등 대표적인 출판국가인 독일은 연간 82,6백 권의 신간이 발행되고 있으며 2017년에 7,856여 권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3) 유럽문화의 중심지로 재부상하는 베를린

20세기 초반 표현주의 예술운동의 중심지로서 유럽 현대문화의 중심지였던 베를린은 제2차 세계대전과 분단을 거치면서 유럽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에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통일 이후 동베를린 재건사업의 일환으로 문화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문화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비록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를린 시당국이지만 "가난하지만 섹시하다"는 모토를 내세우며 문화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고 있다. 베를린은 세계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는 베를린 필하모니뿐만 아니라 국립오페라좌(Staatsoper Unter den Linden), 도이체오페라좌(Deutsche Oper), 코미쉐오페라좌(Komische Oper) 등 3개의 오페라 하우스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공연단체와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이 밀집되어 있는 '박물관 섬'을 비롯하여, 175개의 박물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박물관을 보유한 점도 베를린의 자랑거리다. 150여 개의 연극 공연장, 115개의 영화관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도 풍부한 편이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갤러리도 400~600여 개에 이르고 그 수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는 등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점차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와 임대료, 다양한 공연기회와 베를린시당국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파리, 런던, 뉴욕 등 기존의 세계 문화중심도시에서 활동하던 젊은 예술가들의 베를린 이주가 늘어나면서 국제문화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이로써 1920~30년대 유럽 문화수도의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한국대중문화의 독일 진출은 영화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김기덕 감독이 〈사마리아〉로 감독상을, 2007년에는 박찬욱 감독이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로 알프레드 바우어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또 2017년에는 배우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의 작품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다.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한국영화 작품뿐 아니라 한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상업영화 역시 독일 방송을 통해 심심찮게 방영되고 있다. DVD 대여점에도 한국영화 작품이 빠지지 않고 게시되어 있다.

YouTube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한국대중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10대 청소년층과 20대 청년층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대중문화를 향유하기 시작했다. YouTube를 통해 한국드라마를 접하면서 젊은이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K-Pop, 한국영화 등 다른 한국대중 문화로 향했고 영미권 Pop에서 보기 힘든 강렬한 율동과 외모를 앞세운 K-Pop이 최근 한류의 주류로 떠올랐다.

독일 내 한류는 YouTube를 통해 K-Pop의 글로벌 소비가 시작된 시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SM엔터테인먼트를 시작으로 국내 주요 K-Pop 기획사들이 YouTube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자사 음반 홍보 작업에 나선 2009년 이후 독일 각지에서 10대와 20대 여성들을 주축으로 한 K-Pop 팬클럽과 K-Pop 댄스 모임들이 만들어졌다. 이후 수년간 이들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한류 콘텐츠 소비층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독일 주류 매체와 음반시장에서 K-Pop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K-Pop 열풍이 독일 내에서 지속 및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행사 주최 측은 행사 분위기가 이렇게 될 것이라곤 전혀 예상치 못한 듯했다. TV 녹화는 이미 2시간째 진행 중이었다. 그때까지 공연장 안에서는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며 공연과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팝 밴드 2PM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시작하자 갑자기 젊은 소녀들과 소년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온 플랜카드를 공중에 흔들며 무대 앞으로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느 누구도 이들을 막을 수 없었다."

2013년 10월 26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었던 한독수교 130주년 및 파독 50

주년 기념공연 〈이미자의 구텐탁, 동백아가씨〉 공연에 대한 독일 언론의 보도는 현재 독일의 한류 현상을 잘 보여준다. 한류 K-Pop 가수들의 현지 공연을 열망하는 젊은 팬들은 상당수 존재하며, Facebook 등 SNS를 통한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다. 2011년 JYJ, 2012년 B2ST의 독일 공연은 주류매체를 통한 홍보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석 매진사례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독일에서는 2PM(프랑크푸르트, 2013년 10월), 방탄소년단(베를린, 2014년 7월), 인피니트(베를린, 2015년 10월), 지드래곤(베를린, 2017년 9월), 갓세븐(베를린, 2018년 7월), 방탄소년단(베를린, 2018. 10.16-17 예정) 공연이 개최되었고, EXO, Big Bang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BTS의 독일 인기도 과히 폭발적이다.

그러나 K-Pop 위주 한류 팬들은 아직은 소수의 10~20대 마니아층에 머물고 있으며, 한국대중문화는 여전히 낯선 편이다. 독일 K-Pop 팬들은 매주 방송되는 음악전문 케이블 채널의 인기투표 등에 집단적으로 참여하고, K-Pop 공연 청원 플래시몹을 벌이는 등 매우 적극적인 편이다. 이들의 적극적 활동 때문에 한류가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 K-Pop 외의 한류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상업방송 PRO7의 연예정보 프로그램인 'TAFF'에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K-Pop 열풍 현상과 주요 K-Pop 그룹의 소개와 인터뷰를 간헐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 슈피겔 등 독일의 유력 신문과 잡지들도 한국 드라마와 K-Pop 등 아시아 시장을 호령하는 한류 콘텐츠를 소개하기도 했다. 헤센주에 소재하고 있는 Raptor Publishing 잡지사는 2012년 한국의 K-Pop, 문화, 한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한국문화 전문잡지 'K*bang'를 창간하고, 독일어권 국가들(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시판(현재 10호 발간) 중이다.

(2) 분야별 현황

1 한국어

초기 한국어 교육은 교포 2세, 유학생 및 주재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업무나 사업상의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현지인들이나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교육수요가 간헐적으로 존재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양국 간 교류가 확대되고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K-Pop과 한류 드라마의 인기

가 서서히 증가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독일한국문화원에서는 세종학당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5개반에서 매주 200여 명이 수강하였고 수강인원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 K-Pop

아시아권이나 영미권만큼 K-Pop에 대한 열기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인터넷을 활용한 뉴미디어에 익숙한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니아층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만 보편적인 문화현상으로까지 자리잡지는 못하고 있다. 독일의 음반시장에 K-Pop 음반이 아직까지 출시된 적은 없으며 주로 YouTube 등의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K-Pop을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JYJ, 인피니트, 방탄소년단, 지드래곤 등의 현지 공연이 이어지면서 K-Pop의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나 현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연기획, 고가의 입장권 문제 등은 향후 K-Pop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K-Pop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유명 기획사와의 협업,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한 음반시장 진출, 현지 팬에 대한 배려 등이 선행 과제이다.

3 방송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등 한국의 방송 콘텐츠가 현지 TV를 통해 직접 방영된 적은 아직 없다. 다만 독립 운동가로 활동하다가 독일로 망명한 이미륵의 삶을 다룬 한독수교 125주년 기념 SBS 특별 3부작 드라마 〈압록강은 흐른다〉가 바이에른주 방송국(BR)과 공동 제작하여 2009년 7월 9일 독일 공영 ARD를 통해 방영된 바 있다. 또 2016년 8월 6일에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개최된 지 80주년을 맞아 독일 제 2공영 ZDF 방송에서 손기정 선수를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하기도 했다.

4 영화

한국영화는 다른 대중문화 분야보다도 해외에서 가장 일찍 알려졌다. 특히 세계 4대 국제영화제 중 하나인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가 잇달아 수상하고 경쟁부문에 꾸준히 진출하면서 독일 내에서도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영화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예술성이 높은 영화나 실험적 작품뿐 아니라 대중을 상대로 한 상업영화 역시 서서히 인기를 얻고 있다.

김기덕 감독이나 홍상수 감독의 특별전이 개최되는 등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공영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한국영화를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아직까지는 대형 영화관보다는 소극장을 중심으로 한국영화가 상영되고 있고 개봉되는 작품 수도 많지 않은 편이며, 극장 개봉을 하지 않은 채 DVD로 바로 출시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5년간 독일에서는 설국열차(봉준호 감독, 2014년 4월), 부산행(연상호 감독, 2016년 12월), 옥자(봉준호 감독, 2017년 6월), 아가씨(박찬욱 감독, 2017년 1월), 곡성(나홍진 감독, 2017년 10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홍상수 감독, 2018년 1월) 등 총 30편의 한국영화가(2014년 5편, 2015년 4편, 2016년 6편, 2017년 10편, 2018년 5편)독일 극장에서 개봉되었으며, 연간 23~24편의 한국영화 판권이 판매되었다.

5 한식

해외여행 경험이 풍부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식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한식이 '건강식', '다이어트 음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젊은 여성들이 한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유흥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게 교포 2세, 젊은 유학생들이 한식당을 개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한식의 정체성에 부합하면서도 현지 취향에 맞는 식당 인테리어 및 현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식재료를 이용한 메뉴 개발, 고급화와 대중화의 병행 등은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6 스포츠(태권도 등)

2015년은 태권도 독일 진출 50주년을 맞은 해였다. 1965년 국기원 시범단이 독일을 방문해 태권도를 소개했으며, 당시 독일에 있던 한국인들에 의해 태권도 보급이 시작됐다. 한국인 및 독일인 사범들이 지도하는 태권도장이 각 지역별로 분포해 있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지금까지 독일 태권도 국가대표팀은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주독일 한국문화원은 베를린 태권도 사범협회와 공동으로 2015년 제 1회 베를린 시장배 국제태권도 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베를린 스포츠 연맹, 올림픽 거점 베를린

등 주재국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독일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홍보열차 개통식(2018년 1월 29일)을 지원하고, 동계올림픽 참가 베를린 출신 선수단 출정식(2018.1. 30) 및 해단식(2월 28일)을 문화원에서 개최하여 스포츠 한국을 홍보하였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주로 10대 및 20대 초반 여성들로 구성된 독일의 K-Pop 팬들이 K-Pop에 매혹되는 이유는 K-Pop 음악이 갖고 있는 이국적인 감각 및 K-Pop 스타들의 패션 스타일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들이 벌이는 플래시몹, K-Pop 댄스 경연대회 등 이벤트에서 K-Pop 스타들의 패션 스타일 따라 하기는 이미 핵심적인 콘텐츠가 되었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현지 사정을 고려한 공연 기획,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지 유명 전문 공연기획사 섭외 및 진행, 철저한 사전 시장 조사 등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다. 그리고 이제 기반을 닦고 있는 시점임을 고려해 볼 때 성급한 단독 공연 등의 방법보다는 현지 주요 페스티벌, 국제행사 등 손쉽게 관객들을 모을 수 있는 행사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독일 내 K-Pop을 위주로 하는 한류 관련 모임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Facebook 등 SNS를 통한 관련 정보 교환, 플래시몹 등 행사 개최 준비, 기타 소규모 오프라인 모임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문화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웹진을 운영 중인 실력 있는 동호회도 존재한다. 한류 관련 동호회 회원들의 연령대는 주로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파악된다.

(2) 동호회별 현황

1 re〈mark〉able

성격	K-Pop 동호회
SNS 팔로워 수	3,584명
웹사이트	re-mark-able.de
세부활동현황	• (온라인) K-Pop중심 아시아 대중가요 관련 정보 교환 • (오프라인) 프랑크푸르트 한국영화제 계기 K-Pop 댄스콘테스트 개최, 팬미팅, 플래시몹 등 개최

2 K-Pop Meetings Germany

성격	K-Pop 동호회
SNS 팔로워 수	11,988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pages/K-Pop-Meetings-Germany/167949399909045
세부활동현황	• 한국가수와 그룹의 독일, 유럽지역 공연 정보 교환 • 독일 내 K-Pop 관련 모임 정보 교환

3 KoME

성격	K-Pop에 대한 정보(앨범, 공연, 기사)를 제공하는 사이트 6개 언어 제공(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SNS 팔로워 수	3,497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komeworld
세부활동현황	• K-Pop 관련정보 제공

4 SM Town in Germany

성격	기획사 SM 소속 K-Pop그룹 팬 동호회
SNS 팔로워 수	2,814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SM-Town-in-Germany-205953852771391
세부활동현황	• SM 소속 K-Pop그룹 소식 및 동영상 등 공유

5 Super Junior E.L.F. in Germany

성격	슈퍼주니어 팬 동호회
SNS 팔로워 수	4,874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Super-Junior-ELF-in-Germany-143804299030860
세부활동현황	• 슈퍼주니어 소식 및 동영상 등 공유

6 K-Popvision.net

성격	주로 K-Pop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한국문화와 여행에 대한 정보도 제공)
SNS 팔로워 수	13,035명
웹사이트	kpopvision.net/
세부활동현황	• 독일어권의 사람들에게 K-Pop의 정보와 새로운 소식들 정보제공

7 BTS - Bangtan Germany

성격	대표적인 K-Pop그룹인 방탄 소년단의 정보를 독일 내 팬들끼리 공유
SNS 팔로워 수	10,209명
웹사이트	http://www.bangtan.de/
세부활동현황	• 방탄 소년단의 공연 일정 및 활동 정보 공유

8 Kpop fans(Germany)

성격	K-Pop스타들의 사진과 정보 공유
SNS 팔로워 수	2,237명
세부활동현황	• 페이스북 페이지 내의 모든 프로모션을 배제하고 서로 좋아하는 K-Pop스타들의 사진과 정보들을 공유하는 대신에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절차가 필요함

9 K-Pop to Germany

성격	K-Pop 정보 공유
SNS 팔로워 수	2,853명
세부활동현황	• KPop뿐 아니라 일본, 중국, 영미권의 Pop들도 함께 즐기며 전 세계적으로 트랜드인 유행곡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0 KPOP Party People

성격	K-Pop을 테마로 한 관련 파티, 클럽 등의 정보 소개
SNS 팔로워 수	2,227
세부활동현황	• 한국의 유흥 문화등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1 (사)Project K

성격	프랑크푸르트 한국영화제 조직위원회
회원 수	오프라인 40명, 온라인 3,187명
웹사이트	www.project-k-frankfurt.de
세부활동현황	• 프랑크푸르트 한국영화제 개최 활동 및 한국문화 관련 활동 • 2018년 제7회 프랑크푸르트 한국영화제 개최 예정

12 Visual Culture

성격	프랑크푸르트 한국영화제 조직위원회
회원 수	오프라인 40명, 온라인 3,187명
웹사이트	www.project-k-frankfurt.de
세부활동현황	• 프랑크푸르트 한국영화제 개최 활동 및 한국문화 관련 활동 • 2018년 제7회 프랑크푸르트 한국영화제 개최 예정

13 Kaep Jjang Squad

성격	루르지역 K-Pop 커버댄스 동호회
회원 수	60명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KaepJjangSquad/
세부활동현황	에센지역을 중심으로 K-Pop 관련 행사 홍보 및 주최

6 2018년 문화행사

시기	행사명	장소	내용
1.3	강영숙 작가 문학 토론회	베를린	강영숙 작가와의 장편소설 〈리나〉 문학대담
1.30	김혜순 시인 문학 토론회	베를린	김혜순 시인 초청 문학 대담
2.1~24	만물만상, 영원한 기억	베를린	감민경, 유비호 2인 전시회
2.7	심보선 시인 문학 토론회	베를린	심보선 시인 초청 한국의 현대시 소개, 문학대담
2.3	김효영 생황 앙상블 연주회	베를린	국악 생황 연주회
2.9	한국 영화의 밤	베를린	베를린 국제 영화제 계기 한국영화의 밤
3.6~7	한국 아동극 〈달래 이야기〉 공연	베를린	한국 창작 아동극 공연
3.10	제4회 베를린 시장배 국제 태권도 대회	베를린	현지 독일 주요도시 시장이 후원하는 유일한 태권도 대회로 한국, 독일, 터키, 영국, 폴란드, 스웨덴, 루마니아 등 7개국 총 451명 선수 및 1,300여 명의 관객 참가
1.27~2.25	And who has not dreamed of violence?	베를린	김승환 작가의 청소년들의 불안, 우울 그리고 분노 및 인종차별적 문제를 담은 내용 전시회
1.28~3.11	역설역	베를린	김기라, 김형규, 김진우, 박지혜, 장재록 작가의 회화,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전시로 새상을 인지하는 역설적 방식 탐구
2.3	AlphaBAT Europe Tour	쾰른	K-Pop 그룹 AlphaBAT 콘서트
2.22	Dreamcatcher	베를린	K-Pop 걸 그룹 Dreamcatcher 콘서트
3.8	HALO (헤일로)	쾰른	K-Pop 그룹 HALO (헤일로) 콘서트
3.20	김애란 작가 문학 토론회	베를린	김애란 작가 낭독회 및 문학 대담, 두근두근 내 인생》(2011) / „Mein pochendes Leben“ (2017) 작품소개
3.20	정악-철학적 울림	함부르크	국립국악원 가사, 가곡, 시조 등 한국 전통 국악 함부르크 예술대학 콘서트 홀 연주회
3.24	VAV	쾰른	K-Pop 그룹 VAV 콘서트

시기	행사명	장소	내용
3.24	정악-철학적 울림	뮌헨	국립국악원 가사, 가곡, 시조 등 한국 전통 국악 바이에른 방송국 연주회, 공연실황 4.15일 라디오 방송
3.8~4.14	민들레의 밤하늘	베를린	시, 글씨, 그림을 한 화면에서 조화롭게 배치하여 전통적 회화를 현대적 판화로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대표 판화작가 이철수 독일 전시회
3.17~8.5	디아-로고스	칼스루헤	김윤철 작가 전시회
3.22~2019.2.1	Kollidierende Gelueste	베를린	이대천, 이지원 2인전
3.29	김도연 밴드 연주회	베를린	가야금, 피아노, 피아노 재즈 연주회
4.6	Junoflo (주노플로)	보흠	한국 래퍼 Junoflo (주노플로) 콘서트
4.7-8	재독입양인의 밤	본	한국문화 소개 및 체험, 입양 네트워킹
4.14	Be.A(비에이)	쾰른	K-Pop 그룹 Be.A 콘서트
4.18~8.12	양혜규 작가 전시회	쾰른	2018년 볼프강 한상의 수상자 양혜규의 1994 - 2018년 작업을 소개하는 회고전
4.20	Teen Top	베를린	K-Pop 그룹 틴 탑(Teen Top) 콘서트
4.23	Rock bottom	쾰른	K-Hip Hop Rock bottom 콘서트
4.25~5.14	Welle - 01	베를린	최정문 작가의 한국의 현상을 파도로 표현한 작품 전시
4.26~6.23	I like Korea and Korea likes Me	베를린	한국어 구사가 불가하던 작가의 90일간 한국어만 사용하며 한국인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 90점과 독일에서 진행했던 90일 독일인 되기 프로젝트를 함께 전시
4.27~28	하이델베르크 연극제 한국주빈국행사	하이델베르크	한국 공연 8팀 60 여 명 참가
4.29	미햐엘리스 콘소르트 공연	베를린	한국국악을 서양 고전악기로 연주
4.29	South Club	쾰른	한국 인디밴드 South Club 콘서트
5.5	황선미 작가 문학 토론회	베를린	황선미 작가 및 〈마당을 나온 암탉〉 작품 소개 대담
5.8~20	Non-Sense Music		한국 다원예술프로젝트
5.10~20	베를린 애니메이션 영화제(한국 애니메이션 특별상영)	베를린	마당을 나온 암탉 등 총 7편의 한국 애니메이션 특별 상영 및 작가 초청 관객과의 대화

시기	행사명	장소	내용
5.19	한국어 말하기 대회	베를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 독일 예선전
5.25	AlphaBAT	뒤셀도르프	K-Pop 그룹 AlphaBAT 콘서트
5.29~9.30	아이러니&아이디얼리즘	뮌스터	국경없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 및 독일 작가 8인과 함께 현대미술의 동향을 선보이는 전시
5.30	Ensemble Verein FG 연주회	베를린	한국 창작 현대곡 연주회
6.8	GOT7 Eyes on You	베를린	K-Pop 그룹 GOT7 콘서트
6.18	국립합창단 독일 연주회	비스바덴	국립합창단 유럽 연주회
6.26	경기가야금앙상블	베를린	경기 가야금 앙상블 한국 창작곡 및 전통 국악 연주
6.28~8.4	Project ON #4 - Umraum	베를린	주독일한국문화원 정기공모전
6.29	Neue Sound und alte Klaenge 한국 국악 워크숍 I	에센	독일 음악대학 작곡과 대상 한국 국악 워크숍
7.5	Neue Sound und alte Klaenge 한국 국악 워크숍 II	브레멘	독일 음악대학 작곡과 대상 한국 국악 워크숍
7.6	Randfestspiele Festival	베를린	베를린 란드슈필레 페스티발 한국 현대 음악 연주회
7.6	김남일 작가 문학 토론회	베를린	2010년에 발표한 "천재토끼 차상문"과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중심 낭독회 진행
7.6	퀴즈온코리아 독일지역 예선	프랑크푸르트	퀴즈온코리아 독일지역 예선
7.27	한국 전통 무용 공연	베를린	한국전통무용가 강성민, 이선경 초청 한국전통무용 공연
8.5	24K(투포케이)	베를린	K-Pop 그룹 24K(투포케이) 콘서트
8.13	24K(투포케이)	에센	K-Pop 그룹 24K(투포케이) 콘서트
8.17~9.8	북한을 바라보며 -반도 문법	베를린	비무장지대를 따라 설치된 15개 전망대를 주제로한 전시
8.22	한국 게임 캐릭터 전시회	베를린	한국 유명 게임회사의 게임 캐릭터 피규어 전시
8.22	다감 연주회	베를린	다감 국악연주단의 현대 판소리 공연

시기	행사명	장소	내용
8.24-26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강변축제 〈한국관〉	프랑크푸르트	한식 판매 및 시식, 문화체험, 한국 공연
8.28	전통주 시음회	프랑크푸르트	전통주 소믈리에 초청 시음회 진행
8.29~9.19	Domestic Architecture	베를린	이상혁 디자이너 작품전
8.30	한식콘테스트	프랑크푸르트	김치를 주제로 한 한식 요리 경연
9.5	정유정 작가 문학 토론회	베를린	"7년의 밤" 베스트셀러 작가 정유정 초청 문학대담
9.6	JJY Europe Concert Tour	뒤셀도르프	K-Pop 가수 정준영 콘서트
9.7	BIGONE	쾰른	K-Pop 가수 BIGONE 콘서트
9.15	Musik Bank	베를린	KBS 뮤직 뱅크 콘서트
9.15	한인입양인 한식체험행사	뒤셀도르프	김치, 불고기 등 한식 조리 체험
9.19	프랑크푸르트 한국음악제	프랑크푸르트	한국 전통음악 공연
9.19	Up10tion	쾰른	K-Pop 그룹 UP10TION(업텐션) 콘서트
9.20~11.17	차학경 작가 회고전	베를린	짧은 생애 동안 제작자, 감독, 연기자, 비디오, 영화작가, 공간 설치 예술가, 공연과 출판, 문학가로서 작품 활동을 통해 주목받은 천재 예술가 차학경 작품 소개
9.22	VICTON	에센	K-Pop VICTON(빅톤) 콘서트
9.29~ 2019.1.13	이불 작가 개인전	베를린	한국 여성작가로는 최초로 진행되는 베를린 마틴 그루피우스 바우 전시회
9.30	지코	베를린	한국 K-Pop 래퍼 지코 연주회
10.4	이상우 작가 문학 토론회	베를린	이상우 작가 초청 문학대담
10.11~12	Thar's Korean Food	프랑크 푸르트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 계기 한식 홍보행사
10.16~17	BTS 콘서트	베를린	BTS(방탄소년단) 콘서트
10.26-28	제7회 프랑크푸르트 한국영화제	프랑크푸르트	국제영화제 초청작, 국내 화제작, 독립영화, 단편영화 등 한국영화 상영
10.27	제2회 독일대학생 한국어말하기대회	뒤셀도르프	독일대학생 대상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시상
10.31	요하네스 트리오 연주회	베를린	트리오 연주회(브람스, 윤이상 곡 연주)
10.26~28	라이프치히그라시 디자인 박람회 한국주빈국 행사	라이프치히	한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전통이 묻어나는 디자인 작품과 신인 디자이너 작품 전시
11.1~10	대한독립영화제	베를린	스틸플라워 등 독립영화 8편 상영

시기	행사명	장소	내용
11.3	RAVI (VIXX)	쾰른	K-Pop 그룹 빅스 라비 콘서트
11.9	West meets East	바드 하르츠부르크	가야금 첼로 듀엣 창작 음악 연주회
11.3	배꽃이 떨어진다	로이틀링	정일련 작곡가의 매창과 황진이 기생의 시조로 작곡된 한국 창작 오페라 공연
11.12	공지영 작가 문학 토론회	베를린	공지영 작가 초청 문학 토론회
11.13	파더본 한국의 날 행사	파더본	파더본대학에서 한국 전통문화 체험행사 개최
11.18	The Rose	베를린	K-Pop 그룹 더 로즈 콘서트
11.21	The Rose	쾰른	K-Pop 그룹 더 로즈 콘서트
11.21	제4회 한국주간 문화공연행사	뒤셀도르프	실내문화공연(진명K-Pop)
11.23~24	제6회 한국영화제	뒤셀도르프	한국영화 최신작(3편) 상영
11.22	제 5회 재즈코리아 페스티발	베를린	한국 재즈그룹 초청 페스티벌 5개국(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터키)에서 진행
11.28	Basic Sound	베를린	한국 타악기 트리오 그르브엔드 연주회
12.19	제3회 국제 박영희 작곡상	베를린	재독 현대음악 작곡 거장 〈박영희 작곡상〉 시상식 및 수상작 연주회

7 여행정보

(1) 비자

1 일반여행객

관광 또는 출장 목적으로 6개월 중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다. 또한 쉥겐협약 지역에 한해 90일 동안 무비자로 국가 이동이 가능하나, 쉥겐협약 지역에서 90일을 체류한 경우 비쉥겐 협약국에서 최소 90일을 체류해야 재입국이 가능하다. 쉥겐 협약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이다.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거나 관광 및 출장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2005년부터 한-독 간 비자 협정에 따라 독일 입국 후 90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청에서도 비자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지역 외국인청에서 비자 발급이 승인된 경우 해당목적(예 : 취업, 유학)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2 공연비자

공연 활동을 위해 특별히 규정된 공연 비자는 없다. 다만 관광, 출장, 비영리 문화교류 목적 이외에 영리목적의 방문(콘서트 등)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공연 비자를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 및 양식은 없으며, 비자 신청서에 방문 목적을 적시하면 된다.

■ 주한독일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308-5, 140-816
- 전화번호 : (02) 748-4114
- 팩스 : (02) 748-4161
- E-mail : info@seoul.diplo.de
- 홈페이지 : www.seoul.diplo.de
- 업무시간
  - 월~목 : 08:00~12:30, 13:15~17:00
  - 금 : 08:00~12:00, 12:30~15:30

※ 하절기(7월 1일 ~ 8월 31일)

- 월, 수, 목 : 08:00~12:30, 13:15~16:00
- 화 : 08:00~12:30, 13:15~16:30
- 금 : 08:00~12:00, 12:30~14:00

(2) 안전정보

1 여행경보단계 : 미분류

2 사건·사고의 현황

■ 테러, 인질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독일은 매우 양호한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내란 가능성은 희박하나, 아프가니스탄 등 국제분쟁지역으로 독일군이 파병되면서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의 테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2016.12.19. 베를린 중심가에서 이슬

람 과격주의자들의 테러로 관광객 등 총 1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3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치안상태가 양호하며 신변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나, 극우주의자들(주로 스킨헤드)의 외국인 폭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야간에 지하철을 이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항이나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소매치기나 도난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시아 관광객들이 현금소지가 많다는 소문이 나면서 우리나라 사람도 종종 범행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시계대용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추세를 악용, 일부러 시간을 물으며 접근해 시간 확인을 위해 스마트폰을 꺼낼 경우 이를 빼앗아 달아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도 벌어진다. 야간에는 역주변이나 이민자들이 밀집 거주한 지역의 통행을 삼가는 편이 좋다.

4 자연재해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대형 자연재해는 없다. 다만 3~4월경에 갑작스러운 돌풍이나 우박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다. 폭우에 의한 홍수피해는 적은 편이나, 해빙기에 갑작스러운 수량증가로 강이 범람하는 경우가 잦다.

8 현지 문화

(1) 미팅

시간약속이 철저한 편인 독일은 미팅을 매우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최소 2~3주 전에 일정을 잡아야 한다. 임의의 일정변경은 실례로 간주되며 향후 관계유지에도 어려움을 주게 된다. 주요 인사의 경우 사전 일정으로 우리 측이 원하는 시기에 접촉할 수 없는 경우가 잦다는 점을 감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보통 1개월 전) 사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담은 보통 사무실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2) 독일 인사 및 이름 부르기

남자의 경우 Herr(영어의 Mr.), 여자의 경우 Frau(영어의 Ms.)를 성 앞에 붙여 부르며, 직함을 함께 붙여 부르고 싶을 경우 'Herr(혹은 Frau)+직함', 'Herr(혹은 Frau)+직함+성'으로 부르나, 고위직이 아니면 직함을 부르는 경우는 흔치 않다. 상대방이 박사 학위를 갖고 있을 경우 'Dr.'를 붙여 함께 부르는 것이 좋다. 이 경우 'Herr(혹은 Frau)+Dr.+성', 혹은 간단히 'Dr.+ 성'으로 부른다.

(3) 이름표기 방식

영미와 같이 '이름+성' 순서이다. 이 순서를 기억하고 '성' 대신 '이름'만을 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친한 관계가 아닌 경우에 이름만을 부르는 것은 실례다. 또한 친교관계가 쌓였다 해도 공적인 관계에서 이름만 부르는 경우는 없다.

(4) 첫 만남

비즈니스를 위한 첫 접촉은 대부분 해당 기관의 기업의 공보실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메일을 통해 접촉할 수도 있으나, 인터넷에 공개된 이메일을 통해 접촉할 경우 스팸메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고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전화 접촉이 좀 더 효율적이다. 인터넷에 담당자의 연락처가 공개된 경우 공보실을 통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화접촉을 통해 약속을 잡은 경우에도 구두약속은 구속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비즈니스 관계형성

독일은 공사를 철저히 구별하는 문화를 갖고 있으며,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사업이 결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섣불리 개인적 친분관계를 쌓기 위해 무리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독일에서는 사업관계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인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관계가 돈독할수록 사업관계에 보탬이 되는 것은 동서를 막론한 진리다.

(6) 오만찬

독일 초청자 측이 공식적으로 오만찬을 대접할 경우 반드시 리턴 초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개인적 친분으로 오만찬을 대접했을 때는 감사의 표시로 리턴 초대하는 것이 예의이다.

(7) 종교 관련

공공장소에서의 종교 활동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로 오인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자제하는 편이 좋다. 개신교나 가톨릭의 경우 한인 교회나 성당을 통해 종교 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나, 불교 신자의 경우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편이다.

(8) 팁 문화

팁제도가 미국만큼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호텔이나 음식점에서는 약간의 팁을 주는 것이 관례다.

- 호텔 포터 : 가방 수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2~3유로 정도가 적당
- 침실 청소부 : 하루 1~2 유로가 적당
- 레스토랑 : 가격의 5% 내외가 적절. 또는 일반식당에서는 1인당 1유로 고급 식당에서는 1인당 2~3유로 정도를 지불해도 무방함

9 현지 연락처

(1) 긴급 연락처

- 경찰(긴급) : 110
- 화재 및 긴급구조 : 112
- 전화안내(국내) : 11833
- 전화안내(국제) : 11834
- 긴급 의사 요청 : 116 117
- 야간 약국 : 0800-00-22833
- ADAC(자동차 고장시) : 01802-222222

(2) 공항 및 항공사 연락처

- 대한항공 : (069) 697 646 10 / 00800 0656 2001
- 아시아나 항공 : (069) 9210-190
- 루프트한자 항공 : (069) 86 799 799
- 베를린 공항 : (030) 609 111 50
- 프랑크푸르트 공항 : 0180 6 372 4636

(3) 주독일대사관 연락처

- 주소 : Stülerstr. 10, 10787 Berlin
- 전화번호
  - 대표 : (030) 260650
  - 영사과 직통 : (030) 26065432
  - 문화원 : (030) 269520
- 팩스
  - 대사관 대표 : (030) 2606551
  - 영사과 직통 : (030) 2606554
  - 문화원 : (030) 26952134
- E-mail : koremb-ge@mofa.go.kr(대표)
- 홈페이지 : deu.mofa.go.kr
-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처
  - 당직자 HP : 0173 4076943
- 업무시간
  - 월~금요일 : 09:00~12:30, 14:00~17:00

10 기타

(1) 날씨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4계절이 뚜렷하다. 여름에는 덥지만 건조한 편이며,

겨울에는 습하고 춥다.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아 하절기에는 일출시간이 빠르고 일몰시간이 늦어 낮이 긴 반면, 동절기에는 일출시간이 늦고 일몰시간이 빨라 낮이 짧다. 남부지방은 겨울에도 일조량이 풍부한 편이나 북부지방의 경우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일조량이 부족한 편으로 비타민제를 통해 비타민 D를 섭취하는 편이 좋다. 특히 겨울에는 습도가 높아서 실제 기온보다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다.

4월에는 날씨 변덕이 심하고 돌풍이 불거나 우박이 내리는 경우도 있어 외출 시 유의해야 한다. 심할 경우 4계절을 하루에 모두 경험할 수도 있는데, 변화가 심한 4월에 빗대어 변덕이 심한 사람을 '4월 날씨 같다'고 부르기도 한다.

(2) 교통정보

1 대중교통

독일의 철도는 매우 발달한 편으로, 고속열차(ICE)와 도시 간 철도(IC), 지역 간 고속철(RE) 등으로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중소 도시를 거의 커버하고 있다. 철도망이 잘 갖춰진 반면 철도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어서 장기 체류할 경우 현지에서 할인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이 좋고, 단기 체류일 경우 유레일패스나 저먼레일패스 등을 사전에 구입해 오는 것이 좋다.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 대도시의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U-Bahn), 고속철(S-Bahn) 등이 균형 있게 발달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출입구에 검표를 위한 별도의 개폐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 자율적으로 승차권을 구입하고 검표하게 되어 있다. 수시로 차량 내에 검표원들이 탑승해 표검사를 하며, 무임승차 적발 시(표를 구입했어도 검표하지 않았으면 무임승차로 간주) 벌금을 물기 때문에 승차권을 반드시 구입, 검표한 후 탑승해야 한다. 택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화를 걸어 승차 희망 장소와 시간을 일러주고 사전에 예약하는 편이 편하다. 택시 승차장이나 호텔에 대기 중인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호텔 앞에 대기 중인 택시가 없을 경우 호텔 직원에게 택시 호출을 부탁해도 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택시 예약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택시 예약 앱을 이용하면 많이 편리하다. 합승이나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며 요금 징수는 정확한 편이다. 원칙적으로는 팁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나, 보통 센트 단위의 잔돈을 팁으로 주는 경우가 많으며 장거리 운행의 경우에도 팁을 주는 편이 좋다.

2 도로교통

대도시의 경우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인구 밀집도도 낮은 편이라 출퇴근 시간에는 간혹 정체가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도로교통 혼잡도가 높지 않다. 대부분의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일 경우가 많으며 우회전 시 별도의 신호가 없는 경우 청색 신호에만 가능하다는 점, 별도의 우선주행 표지가 없는 경우 직진 차량이 아닌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는 점 등 우리와 다른 교통법규는 특히 유념해야 한다.

전방차량 흐름을 감안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점, 좌회전 차량이 전방주행을 방해하더라도 경적을 울리지 않는 점, 차선변경 차량에 양보하는 점 등 현지 교통 에티켓도 유념하는 편이 좋다. 자전거 통행이 잦은 것도 유의해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교차로 우회전시 꼭 고개를 돌려 자전거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사고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접촉이나 언쟁을 삼가고 경찰이 사고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고정황을 진술하고 경찰의 조치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 체류자일 경우 자동차보험 이외에 차량사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고장으로 차량운행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 유료가입 회원들을 위해 견인 및 간단한 수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ADAC'에 가입하는 것도 추천한다.

(4) 기타

1 전력사용현황

사용전압은 220V이나 주파수가 50Hz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어 호환이 되지 않는 모터를 탑재한 전기제품(예 : 세탁기)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전기코드는 우리나라와 동일해 별도의 어댑터 없이 사용가능하다.

2 환전

독일의 화폐단위는 유럽연합 공통화폐인 유로(EURO)화로, 호텔에서 언제나 환전할 수 있으나 환율이 불리하므로 근처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항의 환전소에서 미리 환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공항 내 환전소 등 특별한 환전소 이외의 곳에서는 환전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유럽연합 회원국내에서는 유로화가 통용되므로 독일 이외의 유럽연합 회원국 여행 시 유로화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별도의 환전은 불필요하나, 일부 회원국에서는 여전히 자국화폐를 이용하는 점을 감안, 여행 시 미리 환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통신

■ 우편

우편물은 주로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지만, 민간 기업도 있다. 부재 시 등기우편이나 소포가 발송될 경우 이웃에 맡기거나 관할지역 우체국으로 반송한 후 우편물 수령요청서를 넣어 놓는다. 우체국에 반송된 경우에는 보통 다음날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우편물 수령요청서를 제시하고 수령해야 한다. 우편물 수령 가능 시간은 우편물 수령요청서에 적시되어 있다.

소포의 경우 상품 구입으로 의심되어 세관에 계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세관에서 발급하거나 구입증명서 등 관세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오며 동 통지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직접 세관에서 수령해야 한다. 관세적용 대상일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지불해야 소포를 수령할 수 있다. 한-EU FTA에 따라 관세 적용이 되지 않는 품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니 자신이 수령할 품목의 관세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지에서 한국으로 우편을 발송할 경우 무게와 크기에 따라 요금이 산정되며, 소포의 경우 20kg을 초과할 수 없다. 등기 및 속달 등 부가서비스에 따라 우편요금이 달라지며, 우편 발송 전 독일우편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deutschepost.de)를 통해 우편 요금을 사전 체크할 수 있다.

※ 베를린-서울 간 우편 소요일수
- 일반국제우편 : 10~14일 정도
- DHL : 4~5일 정도
- EMS : 4~5일 정도

■ 전화

시내에 국제전화가 가능한 카드식 공중전화가 있으나 숫자는 많지 않은 편이다. 호텔에서도 국제전화가 가능하나 요금이 비싼 편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단기 체류의 경우 한국에서 로밍폰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데이터 요금 징수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데이터 로밍을 신청하는 편이 좋다.

통신사 약관상 핸드폰 이용계약이 최소 2년이기 때문에 2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을 통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2년 미만의 체류자일 경우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다른 제약사항은 없다.

■ 인터넷 사용현황

우리나라와 달리 PC방은 없으며 인터넷 카페가 있으나 프로그램 설치, 언어 설정 등 컴퓨터 설정 변경이 불가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무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일반 카페나 식당 등에서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초고속 인터넷망은 계속 확대 중으로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의 경우 속도가 느려 불편한 경우는 없으나, 국가 간 병목현상으로 대용량 파일의 전송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호텔에서 투숙객에게 무료로 유선 인터넷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무선 인터넷의 경우 대부분 요금을 청구한다. 간단한 이메일 확인 등은 호텔에 구비된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경비절감의 한 방법이다.

장기 체류로 주택을 임차하여 인터넷을 설치할 경우, 지역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설치가 불가한 곳도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전에 초고속 인터넷 설치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와 달리 인터넷 설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 역시 감안해야 할 것이다.


KOREA
FOUNDATION
KF
한국국제교류재단

6. 라트비아

1 개황

- **수 도 :** 리가(인구 64만 명)
- **인 구 :** 193만 명
- **면 적 :** 64,589㎢(한국의 약 2/3)
- **민족구성 :** 라트비아인(62%), 러시아인(25.4%), 벨라루스인(3.2%) 등
- **종 교 :** 루터교, 가톨릭교, 러시아정교회 등
- **언 어 :** 라트비아어(공용어, 인도-유럽어 계통으로 리투아니아어와 유사성), 러시아어, 영어
- **시 차 :** 우리시간 -7(서머타임 기간 -6)
- **1인당 GDP :** 17,191 미달러 ('17년 기준, 발표시점 환율적용)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 총교역 1.45억 미달러(수입 0.79억 미달러, 수출 0.66억 미달러)

2 문화적 특성

(1) 독립과 자유에 대한 깊은 열망

라트비아인들은 1918년 역사상 최초로 독립할 때까지, 독일, 폴란드, 스웨덴,

러시아 등 주변 외세의 지배를 받았고, 1918년~1940년의 짧은 기간 자유와 독립을 맛본 후, 다시 소련의 지배를 50년간 받는 많은 시련을 겪었다. 1991년 독립 후 라트비아 국민들은 폐허 위에 나라를 재건하고 자유와 독립을 유지, 발전시켜야 했다. 라트비아인들은 동서 간 충돌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와 인구구조 및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복잡한 공간을 점거하면서 생존해야 했다.

라트비아는 1991년 독립 후 국가재건과 서구편입을 적극 추진하여 2004년 NATO 및 EU 가입, 2014년 유로존 가입, 2015년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수임 등을 통해 EU 신규회원국에서 EU의 주요 회원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OECD에 가입하는 등 보다 개방적이고 자신감 있는 선진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2) 민속 문화 중심의 문화

민속 문화는 수세기동안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온 라트비아인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편이었다. 오랜 세월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아온 라트비아인들의 문화적 특징은 도시문화가 아닌 농촌의 민속 문화(village culture)라는 점이다. 라트비아에는 의상, 음식, 주택양식 등 면에서 지역마다 매우 다른 민속문화가 존재한다.

이는 지역별로 다른 외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인데, 라트비아 중부는 독일의 지배, 쿠르제메지역(Kurzeme)은 스웨덴의 지배, 라트갈레지역(Latgale)은 폴란드에 이어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으며, 지역 주민들은 타 지역과의 접촉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전통이 각기 다르게 발전되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라트비아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문자로 기록할 수가 없었고, 라트비아 문화는 고대 라트비아 조상들의 집단적 지혜와 신조들을 담은 민요를 통해서 보존되고 발현되었다.

예를 들어 라트비아의 음악(또는 시)의 전통적 형태인 다이나(daina, 또는 tautas dziesma라고도 함)는 라트비아의 신화와 함께 고난의 순간들과 민족적 정체성의 탐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이나가 문자화되어 제1집이 편찬된 것은 1894년에서 1915년 사이의 일이다. 라트비아의 민요를 체계화하고 라트비아의 20만여 다이나를 집대성한 크리쉬야니스 바론스는 '다이나의 아버지'로 불리운다.

또한 라트비아의 우화에서 비롯된 라치플레시스(Lāčplēsis:반곰반인)가 국민적 상징이자 영웅으로서 사랑받고 있다. 라치플레시스는 인간(남성)과 곰(여성)

사이에 탄생한 아들로서, 고대 토테미즘적 존재이며, 작가인 안드레이스 품푸르스는 '라치플레시스'라는 이름의 서사시를 발간함으로써 라트비아의 자유와 독립을 고취하려 한 바 있다.

(3) 노래와 무용의 나라(Singing and Dancing Nation)

마을마다 하나 이상의 합창단이 있고, 4년마다 각 주와 도시 단위로 합창 및 무용경연 대회가 열리며, 가장 우수한 합창단, 교향악단과 무용단은 전국축제에 참가하는데 총 참가인원은 약 4만 명을 넘어선다. 이러한 노래하는 국민으로서의 전통은 19세기 후반에 라트비아 민족의식의 발생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873년에 최초의 라트비아 합창축제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이 축제에는 수만 명의 합창단이 참가했는데, 1918년 독립으로부터 1940년까지 민족정체성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 음악축제는 50년간 소련의 지배 하에서도 민족적 행사이자 라트비아 문화의 보루로서 생존하였고, 1980년대 후반의 소위 '노래하는 혁명(Singing Revolution)'의 동력이 되었다. 1991년 라트비아의 독립을 가져온 정치·경제적 동력은 수세기동안 유지된 이러한 문화적 전통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러한 음악과 무용의 전통으로 인해 현재에도 라트비아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오페라 가수들을 많이 배출하는 등, 오페라와 연극 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리가오페라축제와 시굴다오페라축제에는 라트비아 국립오페라단과 세계의 유수한 오페라단 소속 연주자들이 참여한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라트비아의 일반인들은 전반적으로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라트비아인들은 한국과 관련하여 삼성, LG, 현대 등 기업을 떠올리고, 가수 중에서는 싸이를 거론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한국과 직접 교류한 경험이 있는 정부 인사들과 지식인들은 한국문화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관심을 갖고 있으며, 소수의 학생들은 특히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 등 최근 한류동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한편 태권도는 라트비아에 널리 보급되어 20개 정도의 도장과 1,000명 이상의 수련생이 있다. 대사관은 2013년 상주공관 개관 이래 한국-라트비아 우정의 밤, K-Club 친선행사, 태권도대회, 들소리 사물놀이공연, 공명 퓨젼국악공연, 뷰티풀마인드 자선클래식공연, 타고 전통음악 공연, 한국어말하기대회, 한국영화제 등을 개최하였고, 참석자들은 한국의 음식, 음악, 한국어 등에 대해 접할 기회를 가졌다.

(3) 한국문화를 잘 모르는 이유

라트비아인들은 1991년의 독립까지 소위 '철의 장막' 속에서 외부에서 고립되어 있었으며, 독립 후에 서구제국 및 미국과의 관계강화에는 주력해왔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아시아 국가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게다가 라트비아에 영구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별로 없다는 점과, 한국과의 지리적 거리(직항 노선 부재 등)도 한국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라트비아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증대와 한국인 관광객의 증대로 인적교류가 증가됨에 따라, 한류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사관은 라트비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어 보급과 한국학 진흥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 2016. 2월 라트비아대학에 한국학센터를 개설하였고(한국학중앙연구원 후원), 2016. 9월 리가공대에 세종학당이 개설되었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라트비아에서 한류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향후 한-라트비아 간 관광객의 증대, 한국어 보급 및 한국학 진흥, 문화 분야 협력사업 등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라트비아 일반국민의 한류에 대한 접촉이 늘어난다면, 한국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식과 관심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문화적 열정이 강한 라트비아인들은 이국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과 개방성을 갖

고 있어 향후 한류 관련 사업을 추진 시 참고할 수 있겠다. 최근 대사관 주최 행사시에 김치 등 한국음식과 사물놀이 등 이색적인 문화에 대한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긍정적이었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학생 및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한류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다.

6 최근 문화행사

(1) 태권도대회(2017.6.2.)

- 다우가브필스시 개최
- 라트비아 및 주변국 태권도인 및 가족 참석
- 한국문화 및 음식 홍보

(2) 한국어말하기대회(2017.11.29.)

- 학생, 일반인 등 40여 명 경연참석
- 한국제품, 한국문화 및 한국음식 홍보

(3) 평창동계올림픽 라트비아 대표단 출정식 개최(2018.1.29.)

- 라트비아 올림픽위원회와의 출정식 공동개최를 통해 라트비아 올림픽 대표단 격려 및 한국관련 홍보(음악, 음식 등)
- 베요니스 대통령 내외 등 라트비아 정제계 고위인사 및 라트비아 올림픽대표단 참석
- 한국제품, 한국음식 홍보

(4) 인천 잔치마당팀(6.20) 및 강릉단오제팀(7.3) 공연

- 라트비아 독립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리가에서 개최된 하지축제 및 리가시 축제에 한국전통음악팀 참석지원
- 각 팀별 2회 이상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실시

(5) K-Club 친선행사(2018.7.10.)

- 라트비아 외교부 인사 60여 명 및 외교단 40여 명 참가
- 친선 탁구경기 대회개최
- 한국제품, 한국음식 홍보

(6) 타고(TAGO) 국악그룹 공연(2018.8.18-19.)

- Riga City Festival, Baltic Drum Festival 행사에 한국 대표 공연단으로 참석, 축하공연 개최
- 주요인사, 외교단인사, 일반국민, 행사 방문외국인 등 2회에 걸쳐 총 2,000여 명 관람

(7) 김치 Master Class 행사(9.13)

- 라트비아 주재 외교단 대상(20여 명) 김치 담그기, 김치전 굽기 행사 개최
- 자틀러스 전대통령등 많은 고위인사들이 참석, 한국문화에 대한 큰 관심을 보임

(8) 라트비아 독립100주년 기념 한국 영화제(2018.10.15.-17)

- 〈관상〉, 〈메밀꽃필 무렵, 운수좋은날 그리고 봄봄〉, 〈끝까지 간다〉 상영

7 여행정보

(1) 비자 : 무비자 90일

(2) 안전정보

라트비아의 기본적인 치안상황은 안전한 편에 속한다. 하지만 여행자가 많은 관광지, 주요기차역 등에서는 소매치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여행자들을 노리는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들고 다니는 핸드백보다는 착용할 수 있는 배낭을 이용하고 현금 등 주요 소지품은 외부로 드러나는 주머니에 넣지 말고 내부 주머니에 나눠서 휴대하는 것이 좋다.

외출 시에는 가급적 귀중품을 휴대하지 말고 최소한의 현금소지와 간소한 차림이 좋다. 유일한 신분수단인 여권은 항시 지참하되 그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8 현지 연락처

(1) 긴급연락처

- 대표 긴급전화 : 112
- 경찰 : 110
- 앰뷸런스 요청 : 113
- 가스유출 : 114
- 콜센터 : 1188

(2) 대사관 연락처

- 대사관 주소 : Jura Alunāna iela(=street) 2, LV-1010, Rīga, Latvia
- 전화 : (+371) 6734274
- E-mail : koremb.lv@mofa.go.kr
-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처 : (+371) 25735627

■ 근무시간 : 월-금요일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9 기타

(1) 날씨

라트비아의 기후는 변화가 심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 봄 :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서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보며 라트비아 남쪽에서부터 3월 20일 경 시작된다. 5월은 강우량이 가장 적고 햇빛이 좋은 달이다. 하지만 북극기류의 영향 때문에 점차 상승하던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추워질 수도 있다.

■ 여름 : 6월 중순부터 시작하며 7, 8월이 가장 따뜻한데 평균기온이 23~25도이다. 고기압이 머무는 동안은 높고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며 일시적으로 30도가 넘을 수도 있다.

■ 가을 : 첫서리가 내리면 가을이 시작됐다고 보며 9월 초 라트비아 동북부에서부터 시작된다.

■ 겨울 : 겨울철이 상당히 긴 편이고(4-5개월), 평균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영상 5도-영하15도) 첫 눈은 라트비아 동북부에서 11월 중순에 내린다.

(2) 교통정보

1 일반사항(홈페이지: www.rigassatiksme.lv/en)

■ 전차(트램)와 세 종류의 버스(일반버스, 트롤리버스, 택시버스)가 있다.

■ 모든 대중교통은 배차간격 시스템이 아닌 미리 정해진 시간에 맞춰 도착하며 각 정류장에서 도착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도 시간표가 공지되어 있으니, 필요시 미리 확인하고 탑승계획을 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전차, 일반버스, 트롤리버스의 승차권은 주요역 앞 승차권기기, 편의점(Narvesen)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탑승 후 운전사에게서 직접 구입할 수도 있다.

* 2018년 9월 현재 리가(Riga)시 승차권 가격
: 탑승 전 승차권 구입 / 1회 1.15유로, 10회 10.90유로
탑승 후 운전사에게 구입 / 1회당 2유로

- 수시로 탑승권을 확인하는 검사원들이 탑승하여 표를 확인하니, 하차할 때까지 탑승권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한다.

2 택시

- 요금 결제 시 카드보다는 현금사용을 권장한다(일부택시 카드 사용불가).

- Hotel de Rome앞, Laima시계 근처, Radisson blu Latvija 앞, Opera house 근처와 구시가지 등지에서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콜택시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있다.

- 주요택시 정보

(1) 발틱택시(Baltic taxi, (+371) 20008500)
: 가격은 높지만 깔끔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특징이다. 또한 운전기사 대부분 영어사용이 가능하며, 모든 택시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2) 판다택시(Panda taxi, (+371) 25340123)
: 가격이 저렴하여 보통 현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며, 대부분 카드이용이 불가능하다.

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7. 러시아

1 개황

- **수 도 :** 모스크바(Moscow, 1,250만 명, 2018년)
- **인 구 :** 1억 4,690만 명(2018년)
- **면 적 :** 1,708만㎢(한반도의 78배, 미국의 1.8배)
- **민족구성 :** 러시아인(80%), 타타르인(4%), 우크라이나인(2%), 140여 소수민족(8.41%, 고려인 17만 명)
- **종 교 :** 러시아정교(75%), 이슬람교(5%),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 등
- **시 차 :** 우리시간 -6(모스크바 기준)
- **언 어 :** 러시아어(각 민족공화국은 고유어 상용 가능)
- **1인당 GDP('17년) :** 10,608미달러(IMF)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 총규모 189.6억 미달러(수출 69.1억 미달러, 수입 120.5억 미달러)

2 문화적 특성

(1)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나라, 러시아

'러시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광활한 영토와 혹한의 추위일 것

이다. 세계 최대 영토 보유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러시아는 북쪽으로 북극해, 동쪽으로는 태평양과 접하며 남쪽으로 북한·중국·몽골·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조지아 등 6개국, 서쪽으로는 우크라이나·벨라루스·라트비아·폴란드·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핀란드·노르웨이 등 8개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다.

지리적인 환경이 이러하니 인종 또한 다양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란 머리에 푸른 눈, 큰 코를 가진 이들만 러시아인이 아니다. 갈색머리, 까만 눈동자, 노란 피부색을 가진 이들도 러시아인이다. 서쪽에서 넘어온 슬라브족, 동쪽에서 넘어온 타타르족 외의 140여 개의 소수민족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넘어온 문화가 서로 뒤엉켜 러시아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드넓은 러시아 땅에 1년 내내 겨울만 있을 리가 없다. 시베리아 한복판의 겨울은 영하 40, 50도를 기록하고 5월이 되어야 비로소 강물이 녹아 흐르지만, 이와 반대로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소치의 경우, 겨울에도 눈이 쉬이 쌓이지 않는 온난한 지역 중 하나다. 로스토프-나-도누의 경우 5월 말이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더위가 시작되며, 7월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은 땡볕으로 뜨겁게 달궈진다. 비록 봄과 가을이 짧기는 해도 러시아에도 사계절은 엄연히 존재한다.

이렇듯 러시아인들은 동서양을 아우르는 지리적 환경 속에서 삶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복합적인 러시아 문화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렇게 천년이라는 긴 역사를 써내려왔다.

(2) 하나라는 이름으로 묶여진 나라

이처럼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러시아는 거대한 영토와 수많은 민족들로 구성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길고 길었던 칭기스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나 유럽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찬란한 러시아 황실의 문화를 일궈갔으며, 20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이상에 그쳤던 공산주의를 처음으로 현실화시키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를 호령하였다. 이렇게 러시아가 세계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 민족과 드넓은 영토를 '러시아'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오래 전 왕정시절부터 시작된 중앙집권적 군주제, 전제정치라 할 수 있다. 멀리 떨어진 현지의 사정도 중앙으로부터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광활한 영토를 하나로 통합하였

고, 이는 러시아가 동질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하였다.

전제정치가 러시아를 물리적으로 묶었다면, 정신적으로 묶은 것은 러시아정교다. 988년 블라디미르에 의해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내에는 원시신앙이 주를 이루었다. 원시신앙은 지역마다 특색이 달랐으며, 조상숭배나 영혼숭배 등 샤머니즘 성격이 강해 때로는 거칠고 야만적인 모습을 띄기도 했다. 러시아정교는 러시아인들에게 원시신앙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통일감과 목적의식을 부여하며 러시아인들을 하나로 묶었고, 지금까지도 민중의 삶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 외에도 러시아인들은 몽골-타타르족을 비롯한 외세들의 끊임없는 침략에 맞서 싸워 자신의 조국과 영토를 지켜냈으며, 그렇기에 조국에 대한 애국심도 남다르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진리와 정의가 함께 공존하는 세계,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세계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들의 열정은 혁명을 거듭하며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일당독재와 개인숭배, 인권문제와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했던 사회주의 체제는 90년대 개혁과 개방, 인권신장과 자유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막을 내렸다. 전환기를 겪은 21세기의 러시아인들은 진리와 정의, 자유와 의지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하고 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과 2018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러시아는 이제 동방으로의 정서적, 사회적 향진을 도모하고 있다. 2018년 9월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된 발다이클럽의 보고서 '대양을 향한 전진'에서 "러시아는 고향(아시아)로 돌아가는 것이며 많은 문명을 독창적이고 독자적으로 융합해낸 거대한 유라시아 강국으로서 고유한 문명화된 위상을 갖게 될 것" 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한 단어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하나라는 이름으로 묶여진 복합적인 나라, 러시아의 매력은 한마디로 무궁무진하다.

3 한류 현황

(1) 주러시아 한국문화원

한국문화원은 2006년 설립한 이래 러시아 등 CIS 지역에서 한국 문화이미지 확산과 양자 및 다자 문화스포츠 분야 교류협력,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 홍보 등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문화원의 주요 활동은 공연, 전시, 영화제, 스포츠, 출판문학, 한식, 도서관 행사 등 한국의 전통 및 현대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의 개최와 한-러 교류협력사업 기획 및 개최, 언론 분야 한-러 교류 및 한국 국가이미지와 주요 정책의 홍보 등 매우 광범위 하다. 또한 문화원은 한국어 강좌(세종학당), 영화상영회, 한국 인문사회 특강, 태권도, 전통한지공예(종이접기), K-Pop, 사물놀이 등 원내 온오프라인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와 학술교육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문화원은 한국어와 러시아어 홈페이지(russia.korean-culture.ru) 유튜브, SNS, 공동 발간 홍보매체(월간) 등을 통해 기능과 사업들을 소개한다.

연번	문화원 SNS	
1	유튜브	https://www.youtube.com/kculturerus
2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culturerus
3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culturerus
4	VK	https://vk.com/kculturerus

특히, 러시아 문화부, 스포츠부, 올림픽위원회, 영화인협회. 태권도연맹, 차이코프스키음악원, AST 출판사 등과 체결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춘계/추계 한국문화제, 도서·출판 교류전, 한국영화의 해, 대한민국 대사배 태권도대회 등 스포츠 행사, 한국 전통국악 특강과 공연, 겸임국 아르메니아 한국문화예술제 등을 매년 상시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18년 6월 한-러 문화부 장관이 서명한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교류의 해 MOU'에 따라 2020년 제9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문화포럼 한국 주빈국 참가, 한국 내 최초 러시아 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준비 중이다.

(2) 일반 현황

러시아의 한류는 1990년 중반 드라마에서 시작되어 2000년 이후에는 K-Pop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한국어, 영화, 식품, 뷰티, 관광 등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2014년부터 양국 간에 단기 비자면제협정이 발효되고 이를 기념하여 2014~2015년간 상호방문의 해가 추진되면서 방문객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15년에는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었고 2016년과 2017년 한국영화의해, 2017년부터 한-러 정부 간 협약에 따른 정기 한국문화제가 봄과 가을, 연 2회 개최되는 등 한국 문화콘텐츠가 체계적으로 소개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오도 더욱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까레이스카야 볼나'(한류를 의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2005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2005년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을 시작으로 〈건빵선생과 별사탕〉, 〈마이걸〉, 〈베토벤 바이러스〉 등 수많은 드라마가 인터넷을 통해 러시아인과 만나게 되었다. 방송국을 통한 공식적인 경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드라마 열풍은 자발적으로 생겨났다.

드라마와 K-Pop으로부터 시작된 러시아 내 한류는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대중적인 유행 현상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민족 국가이자 동서양 문화의 중앙에 위치한 러시아인들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며 각각의 문화에 대한 마니아층을 형성한다. 한류팬 역시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 문화를 지속적으로 즐기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마니아층이 형성되는 질적인 변화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 내 한류 팬들은 세계적인 영토대국이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여건에 맞게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CIS국가를 아우르는 온라인(SNS와 YouTube)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류한다. 이들 사이트 운영진들은 K-Pop 신곡 등 한류 소식을 신속하게 소개하고, 드라마 노어 자막 역시 조직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3) 분야별 현황

1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한국의 드라마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알려지기 시작한 뒤 2000년 이후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다. 초기에는 제대로 된 자막이 드물었으나 현재는

애호가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막이 일반화되었다. 이들 자막 제작팀들은 온라인 활동을 통해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 분야별로 자막을 신속하게 번역하여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드라마 〈도깨비〉, 〈옥탑방 왕세자〉, 〈드림하이 2〉, 〈주군의 태양〉, 〈태양의 후예〉, 〈프로듀사〉, 〈상속자〉와 배우 공유, 이민호, 김수현, 송중기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2 영화

영화 역시 온라인 상에서 러시아어 자막 처리된 영화를 쉽게 볼 수 있다. 러시아에서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한 한국 예술영화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다. 러시아에서는 김기덕, 박찬욱, 홍상수 감독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으며, 마니아층도 두텁다. 주러 한국문화원에서 매년 주최하는 K-Film 행사에도 현지인들이 매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러 한국대사관(문화원)은 러시아 정부가 2016년을 '러시아영화의 해'로 선정함에 발맞춰 러시아 영화인협회와 공동으로 '한국영화의 해'로 선포하고, 모스크바와 지방 도시에서 우수 한국영화를 매달 1편씩 무료로 상영하고, 현지 주요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2016년 한국영화의 해의 높은 호응으로 2017년에도 '유라시아 협력 조명 한국영화의 해'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 이어 모스크바 국제 영화제에도 한국영화의 날을 지정, 윤재균 감독 초청 특별프로그램 개최 등 한국영화 홍보를 지속했다. 이 같은 활동으로 러시아에 다양한 장르의 한국 영화를 소개해 한국 영화의 팬층을 넓히고 한국 영화산업의 진출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18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대기업 CJ CGV가 러시아 내 대표적인 상영관 체인망을 인수하여, 2019년부터 본격적인 러시아 영화산업시장에 진출한다.

3 K-Pop

특히 10~20대의 젊은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EXO, GOT7, 소녀시대, Big Bang, B2ST, SHINee의 인기가 매우 높다. K-Pop 가수들의 음반은 아직 러시아 음반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상태며, 방송국을 통한 방영도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지 팬들은 인터넷을 통해 K-Pop을 접하고, 자발적으로 동호회를 만들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후원하

는 K-Pop 행사 역시 이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항상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2016년과 2017년 한국에서 진행된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에서는 러시아 동호인들이 최종 우승하는 등 동호회 활동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기획한 자체 행사에 문화원이 후원을 하기도 한다. 올해 한국문화원은 2018년 러시아월드컵 및 한-러 정상회담 계기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필코리아(Feel Korea) 행사 등을 서울신문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4 한식

러시아에서 한국 식품(용기라면과 초코과자 등)은 대중화되어 있는 반면, 한식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못한 문화 콘텐츠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K-Pop과 드라마 등 한류의 확산, 한러 교류협력 증진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주러 한국문화원은 한식의 장점과 특징을 널리 알리면서 직접 맛을 체험하고 조리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춘계 한국문화제 계기 한-러 음식제'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한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지 언론들도 관심을 많이 보였으며 한국 음식의 다채로운 색깔과 맛에 놀라워했다.

또한, 2018년 5월 춘계 한국문화제에서는 조계종 비구니다인회와 러시아 정교회를 공동 초청하여 한국 불교 사찰음식과 러시아 정교회 음식을 같이 소개하는 콜라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러시아내 한국 전통음식을 홍보하고 한-러 종교간 대화와 교류를 증진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5 한국어

모스크바에는 '모스크바 세종학당(원광학교)'와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2곳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두 학당에서 매학기 3,500여 명의 현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운다.

학생들은 K-Pop, 드라마, 전통문화 등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러시아 대학생, 중고등학생, 직장인들로 이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자발적인 여가활동과 자기개발, 다양한 교류활동 차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한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은 모스크바 내 약 900여 명에 이른다. 모스크바국립대, 국립국제관계대, 국립외국어대, 고등경제대학 등 유수 대학에서 한국학(어)과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며, 매년 전공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고등

경제대학 등 2개 대학에 한국학과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러시아내 한국학(어)의 증진에 따라 한국으로 유학하는 러시아 학생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부터는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 문화원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전 세계 러시아어 구사자를 위한 온라인 한국어 강좌를 자체 제작하여 개설, 2018년 8월 현재 조회 수 40만여 회, 구독자 5만여 명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6 K-Classic

러시아는 예술을 사랑하고, 문화적 자긍심이 강한 나라이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외국의 예술일지라도 그 수준이 높으면 인정하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이들이 특히 사랑받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클래식이다. 한국이 IT기기, 자동차 같은 산업분야와 K-Pop같은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클래식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마련한 사업이 바로 K-Classic이다.

한국문화원은 차이코프스키음악원 등 러시아내 주요 음악기관과 공동으로 한-러 음악인 합동공연을 개최하여 쌍방향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양국간 문화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클래식 외에도 퓨전 국악, 타악 공연 등을 함께 선사하여 러시아인들에게 한국 전통의 소리를 소개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저명한 차이코프스키음악원에서 서양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는 현지 청년 음악도 대상 국악 특별강좌가 최초로 개설되어 매년 봄과 가을에 운영 중이다.

최근 한국 문화원이 주최한 주요 음악행사는 2015년 수교 25주년 기념 음악회, 2016년 9월 한국 청년 클래식 음악회. 2017년 2월 노름마치풍 퓨전 국악공연, 5월 한-러-고려인동포 합동음악회 및 11월의 한-러 성악의 밤,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 축하 한-러 클래식 음악회, 5월 국악공연, 6월 한-러 정상회담 축하 클래식 음악의 밤, 7월 예카린부르크 국제산업박람회(INNOPROM) 한국 파트너국 참여 축하 한국 클래식과 퓨전국악 공연, 9월 국립국악원의 모스크바 및 아르메니아 예레반 공연 등이다.

7 K-Sports

태권도는 대표적인 한민족 고유의 무술이자, 세계적으로도 널리 보급된 투기 스포츠이며 대한민국의 국기이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부터 세계인들의 이목을 더욱 더 끌었으며,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이와 같은 흐름에 동조하여 러시아 내 태권도 보급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에서는 태권도 수업 강좌를 개설하였다. 또한 2009년 부커 10년째 러시아 태권도연맹과 공동으로 러시아에서 대사배 태권도 대회를 최초 개최한 이후 매년 모스크바, 노보시비르스크, 카잔, 바르나울, 엘라부가, 나베레즈니예첼느이, 리페츠크, 카잔 등 주요 도시에서 순회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겸임국 아르메니아에서도 태권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8 K-Style

K-Pop이 인기를 끌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K-Pop 스타들의 세련된 패션이다. 스타들이 입는 옷, 착용하는 액세서리 하나하나에 팬들은 열광하고 있다. 그렇지만 K-Pop 스타들의 옷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스타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전통 한복이다. K-Pop으로 인해 한국을 알게 된 팬들은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을 보고 한 번 더 놀라며 감탄하고는 한다.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은 2010년 〈이상봉 패션쇼〉를 통해 한글과 패션의 조합, 그리고 한국 현대의 미를 소개하였으며, 2011년에 이어 2016년 10월에도 〈한복패션쇼〉를 개최하여 한국 전통복식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으며 2017년 10월 국경일 기념식에서는 문화원과 서울시 공동으로 한-러 현대패션쇼 '서울-모스크바 365 패션쇼'를 개최했다.

(4)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러시아 사람들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신비로운 이미지를 가져왔으며 한국 문화보다는 일본 문화를 더 먼저 그리고 많이 접해왔다. 한때 일본의 '초밥 문화'가 상류 사회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청소년들도 일본문화 따라잡기에 열을 올릴 때가 있었다. 여학생들은 일본의 화려한 헤어스타일을 모방했고 유명 애니메이션에 심취했다. 그런데 이 관심이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로 쏠리고 있다. 이국적 배경에서 일어나는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는 물론 역사, 가족, 코믹, 추리 등의 다양한 장르에서 재미있는 스토리와 섬세한 감정표현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는다. 러시아 누리꾼들은 "드라마 내용도 재미있지만 OST 마저 훌륭하다", "배우들이 아주 예쁘고 잘 생겼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한류 팬들은 "한국 가요는 흥이 절로 난다. 안무도 특이하고 멋지다. 한국은 다양한 그룹들과 가수들이 경쟁하면서 더 발전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국가가 교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서로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은 "빨리빨리"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반면, 한국인에 비해 러시아의 일처리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경우가 많다.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서로 보조를 맞춰줄 수 있는 배려와 소통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또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류는 K-Pop이나 K-Drama와 같은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지만 영역도 영화, 한국어, 전통문화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내면을 알릴 수 있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공감대를 키울 수 있는 지속적인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러시아 내 한류 동호회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러시아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CIS국가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망라되어 있다. 한국 문화 전반을 커버하는 동호회부터 K-Pop 동호회, 특정 가수별 팬클럽, 드라마 및 예능 동호회 등이 존재한다. 또한 한류 관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연대를 이뤄 함께 동참한다. 각 동호회는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특히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영화 등의 러시아어 자막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류 확산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2) 동호회별 현황

명칭	주소	회원 수
〈K-Pop(일반)〉	https://vk.com/fanatka_kpop	262,301
K-Pop ♛ SYNDROME	https://vk.com/kpop_syndrome	163,132
Корея окрыля-я-ет! Всё о K-Pop	https://vk.com/korea_wings	127,988
#deerzone | first vk K-Pop chart	https://vk.com/deerzone	71,528

명칭	주소	회원 수
Знаете ли Вы, что... (K-Pop version)	https://vk.com/kpop.version.facts	47,722
YesAsia - свежие новости K-Pop, J-Pop и C-Pop!	https://vk.com/yesasia	44,613
Секреты | K-Pop Version	https://vk.com/kpopsecret	35,702
K-Pop, сп, семья, друзья	https://vk.com/club52346666	35,452
ТИПИЧНЫЙ КЕЙ-ПОПЕР | ТИПИЧНЫЙ K-Pop	https://vk.com/typical_kpopfan	31,729
Dorama/K-Pop	https://vk.com/drama_kpop	28,896
K-Pop songs translations~	https://vk.com/lmn_trns	27,932
K-Pop TWITTER	https://vk.com/kpoptwitter	26,379
★ K-Pop family ★	https://vk.com/public_kpop_family	25,785
··•●Дорамы♥K-Pop♥Корейские актёры и актрисы●•··	https://vk.com/club35996220	22,811
K-Pop журнал ONNi Magazine	https://vk.com/onni.magazine	19,779
K-Pop DANCE	https://vk.com/kpopdance	16,896
Quote K-Pop	https://vk.com/kpop_quote	15,898
АНИМЕ+K pop	https://vk.com/club23972792	12,133

〈한국어〉	https://vk.com/koryaz	132,895
NEURU 느루 - 한국어 | Корейский язык | Korean	https://vk.com/neuru	82,895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для лентяев	https://vk.com/lazykorean	76,112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https://vk.com/mykorean	28,998
Обучение в Коре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https://vk.com/club48408013	27,023
Клуб люб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https://vk.com/korean_books	22,986

〈K-Pop(그룹별)〉		
EXO + EXO-L = ONE	https://vk.com/exokm	104,785
JYPE VK | GOT7	https://vk.com/got7_rus	85,855

명칭	주소	회원 수
●Official page Big Bang●	https://vk.com/yg_big_bang	77,398
Girls' Generation | SNSD | 소녀시대	https://vk.com/girlsgeneration	71,598
SHINee (샤이니)★SHAWOLS	https://vk.com/public_shinee	65,775
KoreanSpace	http://koreanspace.ru/index.php	57,896
SUPER JUNIOR ღ 슈퍼주니어 ♫ ღ	http://vkontakte.ru/superjunior	45,895
► VIXX | 빅스 | JellyFish Entertainment► ST★RLIGHT	https://vk.com/realvixx	42,129
BEAST•비스트•B2ST | Official Group	vkontakte.ru/official_beast	41,289
f(x) 에프엑스 ♡~	https://vk.com/fx_official_group	40,124
T-ARA | We are R-QUEEN'S	https://vk.com/official_tiara	30,584
JYPE VK ▪ 2PM	https://vk.com/official_2pm	31,895
JYPE VK ☃ TWICE ☃ 트와이스	https://vk.com/twice_jyp	32,285
CNBLUE | BOICE	http://vkontakte.ru/cnblue	29,352
TVXQ | DBSK | JYJ	http://vkontakte.ru/dbsk_jyj	26,521
~Korean Tv-Show ~ (KTS)	http://vkontakte.ru/korean_tv_show	23,752
We ❤ FTISLAND	http://vkontakte.ru/ftisland	17,124
Official Group ☆ JYJ ☆	http://vkontakte.ru/jyj_official	14,398
|★ SS501★ | ★Kim Hyun Joong★ |	http://vkontakte.ru/kimhyunjoong_club	8,128
• SM Town • SHINee in Russia, Moscow! •	http://vkontakte.ru/shinee_in_russia	6,785
SM Town RUSSIA	http://www.facebook.com/smtown.russia	7,155
˚★ 대한민국 ALL about KOREA ˚★	http://vkontakte.ru/club220078	5,525
러시아 E.L.F Forum	http://superjunior.ru/index.php	5,324
Aigoo Russia ✪ K-Pop Events ✪ K-Pop Мероприятия	http://vkontakte.ru/club14918660	4,478
K-Pop In Russia	http://vkontakte.ru/kpoprussia	2,358

〈한국의 미 - Beauty〉	https://vk.com/paradoks_korea	123,398
K-Pop stock	https://vk.com/kpop_stock	109,988
KoreanFashion|Корейская мода(K-Pop style)+Shop	https://vk.com/korean_fashon	67,587
Рецепты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https://vk.com/korean_cuisine	60,865

명칭	주소	회원 수
★BON-BON SHOP★ Корейская косметика!	https://vk.com/bon_bon_shop	55,147
KSS shop |Korean Style Shop|[K-Pop style]	https://vk.com/koreanstyleshop	34,754
Секрет K-Pop красоты	https://vk.com/koreainheart	32,675
Корейская косметика	https://vk.com/bbcream	25,896
Корейская кухня	https://vk.com/koreancuisine	17,785

〈한국영화 – 러시아어 자막 제공〉		
FSG CARDINALS	https://vk.com/fsgcardinals	114,752
Зиппер ◕_◕ ZIPPER	https://vk.com/ziptown	114,177
Фансаб – группа Bears	https://vk.com/fsg_bears	80,132
Фансаб-группа АЛЬЯНС представляет	https://vk.com/alliancefansub	54,758
Фансаб-группа • Big Boss •	https://vk.com/bigboss_sub	43,945
Дорамы / Корейские сериалы в Украине	https://vk.com/doramaua	34,742

6 2018년 문화·스포츠행사

(1) 평창올림픽 및 월드컵 계기 문화홍보행사 개최

- 평창올림픽(6) : ▲ 피아니스트 이루마 협연(1.18), ▲ 한-러 클래식의 밤(1.26), ▲ '2018 한국영화의해' 개막식(2.1) 및 스포츠영화제(2.1-3), ▲ 전통 민화전시회(2.2), ▲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일 톡톡 코리아(2.9), ▲ 국립어린이도서관 한국문화의 날(2.10)
- 러시아월드컵(5) : ▲ 불교사찰음식 및 러시아정교회 음식제와 다도회(5.29), ▲ 불교영화제(5.30-6.1), ▲ K-Pop 필코리아 공연(6.8), ▲ 한국 대표팀 예선전 개최 도시 사물놀이공연 및 응원전, 축구영 화제(6.14-20), ▲ 한-러 클래식 음악회(6.22)

(2) 제2회 러시아 내 춘계 및 추계 한국문화제 개최

- 춘계문화제(5) : ▲ 예음원 국악공연(5.22 및 5.25), ▲ 차이콥스키 음악원 국악공연과 특강(6.5-18), ▲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6.8), ▲ 한-러 친선대잔치(6.10)
- 추계문화제(10) : ▲ 한-러 문학의 밤 및 출판 MOU 체결(9.8), ▲ 국립국악원 공연(9.8-9), ▲ 한국미술협회 회화전(9.11-30), ▲ 러시아국립어린이도서관 한국문화제(9.16-18) ▲ 추석대잔치 및 한국장르(독립/다큐/애니/가족) 영화제(9.23-26), ▲ 국기원시범단 시연) 및 태권도영화제(9.25), ▲ 한글 서예전 및 말하기대회(10.9), ▲차이코프스키음악원 국악공연과 특강(11.6-20)

(3) 송년 문화홍보행사 개최(예정)

- ▲ 역사 영화제(12.7-9) ▲ 문화원 송년 리셉션 및 고려인 동포 예술제(12.19), ▲ 한-러 청년 예술제(12.21)

(4) 블라디보스톡 최근 주요 문화 행사

1 유즈노사할린 한국영화의 날

- 일시 및 장소 : 2018.4.13(금)-4.14(토), 유즈노사할린시 Samyi lutchi kinoteatr극장
- 주관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 행사내용 : 한인교포들이 다수 거주하는 유즈노사할린市에서 다양한 장르의 한국영화 상영을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 현대화된 생활상 등을 소개

2 제2회 아르쫌시 한국영화페스티벌

- 일시 및 장소 : 2018.4.24(화)-4.25(수), 아르쫌시 Shakhter 극장
- 주관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 행사 내용 :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히 모색되는 아르쫌市에서 영화상영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기술강국만이 아닌 문화강국 한국의 이미지 거양

3 제8회 블라디보스톡 한국영화주간

- 일시 및 장소 : 2018.5.16(수)-5.19(토), 블라디보스톡시 Okean 극장
- 주관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 행사 내용 : 매년 정기 영화상영행사를 통해 한국영화 마니아층 형성의 단초를 마련하고, 영화를 매개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주재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

4 한국어 연극제 '굿 닥터'

- 일시 및 장소 : 2018.5.15.(화), 극동연방대
- 주관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극동연방대 한국학과
- 행사내용 : 러시아 문호 안톤 체홉의 단편작품(미국 극작가 닐 사이먼 희곡 각색)을 극동연방대 한국학과 학생들이 출연하여 무대에 올림으로써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당지 젊은 세대에게 알리고, 극동대 한국학과 학생들이 '한국문화 알림이'로서 성취감을 느끼는 계기가 됨.

5 한국전통문화공연 '창극 춘향전'

- 일시 및 장소 : 2018.6.6(수), 마린스키 연해주무대 소극장
- 주관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국립민속국악원(남원 소재)
- 행사 내용 : 세계적인 문화브랜드인 러시아 마린스키극장(연해주무대)에서 당지 최초로 창극 '춘향전'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K-Pop뿐 아니라 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의 우리 음악(한류)을 주재국민에게 널리 알려 국가 이미지 제고

6 제3회 한국관광사진콘테스트 및 우수작 전시회 '나의 이야기, 한국'

- 일시 및 장소 : 2018.7.10(화)-7.21(토), 블라디보스톡 Arka 갤러리
- 주관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한국관광공사 블라디보스톡지사 공동주최
- 행사 내용 : 주재국민들이 직접 찍은 한국사진을 한국관광공사 블라디보스톡지사 페이스북을 통해 응모하고, 당지 사진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로 우수작을 선정, 전시회를 개최함. 금년은 총 1,868점이 접수되었는바, 동 행사에 대한 주재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괄목할 만큼 증대되었음을 반영

7 한국문화관광축제

- 일시 및 장소 : 2017.10.14(토)-10.15(일), 블라디보스톡 세단카시티(대형몰)
- 주관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한국관광공사블라디보스톡지사 공동주최
- 행사내용 : 우리 전문공연단 '쉐프'의 '비밥' 공연을 통해 우리 농식품 홍보 및 우리 문화관광축제를 통한 당지 오피니언리더 대상 한류 확산 도모

8 한-독 통일영화제

- 일시 및 장소 : 2017.10.6(금)-10.10(화), 블라디보스톡 Okean 극장
- 주관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주노보시비르스크독일총영사관 공동주최
- 행사내용 : 분단의 아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우리국민의 염원을 담은 우리영화 5편,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독일 영화 5편을 상영함. 분단이라는 경험을 공유하는 한국과 독일이 영화를 통해 분단과 통일은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 인류의 문제임을 환기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됨.

9 한국겨울관광사진전 "Winter in Korea"

- 일시 및 장소 : 2017.6.14(수)-6.27(화) 블라디보스톡 Arka 갤러리
- 주관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한국관광공사 블라디보스톡지사 공동주최
- 행사 내용 : 주재국민들이 직접 찍은 한국의 겨울 사진을 한국관광공사 블라디보스톡지사 페이스북을 통해 응모, 인기도 반영 및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우승작을 선정하여 전시하였음. 전시작품 중 역동적인 스포츠 장면이 많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효과 거양

10 이광하 화백 초대전 'Love Story in Vladivostok'

- 일시 및 장소 : 2017.5.26(금)-6.19(월), 연해주 주립미술관
- 주관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 행사 내용 : 산과 달, 솟대, 봉황 등 전통적인 상징과 색감을 통해 우리의 서정성을 표현하는 전후 세대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작가 이광하 화백의 작품을 통해 언어의 장벽이 없는 소통, 예술을 통한 한-러 양국간 문화적 소통의 장 마련

(5) 상트페테르부르크 최근 주요 문화 행사

1 한국주간행사(볼로그다주 한국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2018.3.24.(토) 볼로그다주 러시아의 집
- 주관 :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 행사내용 : 볼로그다주 부지사 등 관람객 약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영화 '건축학개론' 상영, 상트페테르부르크시 소재 한국청소년문화교육센터 '난'의 부채춤, 가야금산조,, 사물놀이 등 한국전통예술 공연, 바이올리니스트 류희윤의 연주 및 한국관광사진전 등을 개최하였음

2 제2회 총영사배 어린이 태권도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8.5.12.(토) 상트페테르부르크 교외 체육휴양시설
- 주관 :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 행사내용 :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공립 177학교와 공립 141학교의 학생들은 학부모, 교사 등 2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영사배 어린이태권도대회에 참가하여 품새 수련 및 겨루기를 하였으며, 한식을 맛보고, 한국관광사진전을 관람하였음.

3 박경리 동상 제막식

- 일시 및 장소 : 2018.6.20.(수),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내 조각공원
- 주관 :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한러대화 사무국
- 행사 내용 : 한러 양국의 문화부 장관, 상트페테르부르크시 주요 인사, 기자, 고려인, 교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러 문화교류와 우정의 새로운 상징물인 박경리 동상 제막식을 가짐.

4 한국주간행사(Korea Festival)

- 일시 및 장소 : 2018.10.13.(토)-14.(일) 상트페테르부르크시ARTPLAY
- 주관 :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 행사 내용 :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관계자, 일반 시민, 현지언론인, 교민, 고려인, 외교단, 우리기업인 등 연인원 18,0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으며, 전통악기와 현대음악이 접목된 유니파이 공연, 류필기 퓽류콘서트, '동주' 등

한국영화, 마당극 '심청전'의 노어 공연, K-Pop 댄스, 태권도 시범 등 공연 행사와 한식과 전통차를 시식 행사, 전통놀이 체험, 한국농수산식품/한국관광/한국기업 홍보전 등 다채로운 종합한국문화제 행사로 치루어짐.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문화원 주최 2018년 주요 문화행사

분야	행 사 명	일시/장소	프로그램 및 출연 등	한국측 후원
공연	이루마 피아노 협연	1.18(목) 19:00/ 돔뮤지키	• 이루마(피아노) 협연	문화체육 관광부
공연	* 평창올림픽 홍보 한-러 클래식 음악회	1.26(금) 19:00/ 돔뮤지키	• 조수미(소프라노), 김정원(피아노), 타타린체프(테너), 클리셰프(첼로)등과 러시아아카데미심포나 협연	문화체육 관광부 ㈜영산 /WCN
영화	* 평창올림픽 홍보 2018년 한국영화의 해 개막행사 및 한국 스포츠영화제	2.1(목)-4(일)/ 돔키노	• 2018년 러시아 내 한국영화의해 개막행사 및 평창올림픽 이벤트 • 한국 스포츠영화 4편 상영	영화진흥 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전시	* 평창올림픽 홍보 건축가 사바틴 한국 근대 건축물 사진전	2.7(수)-3.13(화)/ 현대미술관	•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 설계 서울시내 근대건축물 사진 전시회 • 평창동계올림픽 사진 전시회	문화체육 관광부
스포츠	* 평창올림픽 홍보 평창올림픽 리셉션 및 개막식 공동시청	2.9(금) 12:30/ 대사관 강당	• 평창동계올림픽 개막행사 공동시청, 음악회, 리셉션, 전시회 등	외교부
인문	* 평창올림픽 홍보 국립어린이도서관 한국의 날	2.10(토) 12:00/ 국립어린이 도서관	• 평창동계올림픽 퀴즈대회 및 PT • 한국 전통공연 및 민속놀이 체험 • 어린이 영화 상영 및 도서 기증	문화체육 관광부
인문	러시아 문학특강	2.28(수) 19:30/ 문화원	• 한국 대사의 러시아 문학 특강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	한-러 관광포럼 및 축하 리셉션	3.13(화) 18:30/ 대사관 강당	• 한-러 관광협력 포럼	한국 관광공사 외교부
관광	모스크바국제관광전 (MITT)	3.13(화)-15(목)/ 엑스포센터	• 모스크바국제관광박람회 및 전시회 한국 관광홍보부스 운영	한국 관광공사 문화체육 관광부

분야	행 사 명	일시/ 장소	프로그램 및 출연 등	한국측 후원
공연	세종솔로이스츠 공연	3.19(월) 19:00/ 차이콥스키콘 서트홀	• 강주미(바이올린), 레핀(바이올린) 세종솔로이스츠 오케스트라 협연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	로스토프나돈 한국영화 상영회	4.3(화)- 4(수)/로스톱 나돈 돔키노	• 한국 영화 2편 상영	외교부
공연	러시아 정교회 부활절 음악제 계기 첼로 협연	5.4(금) 19:00/ 차이콥스키콘 서트홀	• 우지연(첼로), 마린 오케스트라 협연	문화체육 관광부
공연	* 아르메니아 한국문화제 제1회 대한민국대사배 아르메니아 태권도대회	5.19(토) 10:00/ 예레반 디나모 체육관	• 대한민국대사배 아르메니아 전국 태권도 대회	문화체육 관광부 외교부
공연	* 아르메니아 한국문화제 제1회 아르메니아 K-Pop Cover Dance	5.19(토) 15:30/ 예레반 디나모 체육관	• 아르메니아 K-Pop Cover Dance Festival	서울신문 문화체육 관광부 외교부
영화	* 아르메니아 한국문화제 예레반 한국영화제	5.19(토) 17:00, 5.20(일) 11:00/ 예레반 모스크바 극장	• 2018년 아르메니아 한국 영화제 개막행사 및 한국 영화 2편 상영	영화진흥 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공연	* 아르메니아 한국문화제 한-아르메니아 합동 전통 음악 공연	5.19(토) 19:00/ 예레반 오페리발레극 장	• 김시연(가야금), 유선미(가야금), 박노상(대금), 오정석(정악) 한국 전통 국악 공연 • 아르메니아 전통음악과 무용공연	문화체육 관광부 외교부
공연	* 춘계 한국문화제 K-Pop 아이돌콘	5.20(일) 11:00/ 이즈베스 티야홀	• 모스크바 K-Pop 경연 대회	문화체육 관광부

분야	행 사 명	일시/ 장소	프로그램 및 출연 등	한국측 후원
공연	* 춘계 한국문화제 한국 전통 국악 공연	5.22(화) 19:00/ 차이콥스키음 악원 라흐마니 노프홀	• 김시연(가야금), 유선미(가야금), 박노상(대금), 오정석(정악) 한국 전통 국악 공연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	* 춘계 한국문화제 한국 불교 영화제	5.28(월), 5.31(목), 6.1(금)/ 돔키노	• 한국 불교 영화 3편 상영	영화진흥 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인문	* 춘계 한국문화제 한국 불교 사찰음식제 및 전통 다도회, 러시아정교회 음식축제	5.29(화) 19:00/ 롯데호텔	• 조계종 지견스님 한국전통 사찰 음식 강연 및 시식회(만찬) • 조계종 혜성스님 한국전통 불교 차문화 강연 및 다도회 • 러시아정교회 종교음식 및 홍차 문화 강연 및 시음회	문화체육관 광부
공연	* 춘계 한국문화제 필코리아 K-Pop 공연 K-Pop Cover Dance 태권도 시범	6.8(금) 15:00/ 메가스포츠	• 한국 K-Pop 그룹(4개팀) 공연 • 러시아 K-Pop Cover Dance Festival	국제문화 교류 진흥원 태권도진흥 재단 서울신문 문화체육 관광부 외교부
종합	* 춘계 한국문화제 원광학교 한-러 합동축제	6.12(화) 10:00/ 중앙체육관	• 모스크바원광학교와 문화원 공동 주관 한-러 합동축제	원불교재단 세종학당 재단 문화체육관 광부
영화	* 춘계 한국문화제 한국 축구 영화제	6.17(일) -22(금) 니즈니노브고 로드, 로스톱나돈	• 축구 소재 한국 영화 3편 상영	영화진흥 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공연	* 춘계 한국문화제 월드컵 개최지 전통공연 및 응원전	6.23(토) 로스톱나돈	• 사물놀이 및 전통 무용공연, 한국 대표팀 응원전	문화체육 관광부

분야	행 사 명	일시/ 장소	프로그램 및 출연 등	한국측 후원
공연	* 춘계 한국문화제 한-러 클래식 음악회	6.22(금) 17:00/ 차이콥스키음 악원 대공연장	• 조수미(소프라노), 강혜정(소프라노), 김정원(피아노), 바실리예프(테너), 밀류코프(바이올린), 러시아국립아카데미카펠니코프 심포니오케스트라 협연	문화체육 관광부
공연	* 춘계 한국문화제 한국 전통 국악 공연	6.28(목) 19:00/ 차이콥스키음 악원 라흐마니 노프홀	• 오석신(가야금), 이항윤(대금), 김용호(장구), 유소희(거문고) 한국 전통 국악 공연	문화체육 관광부
공연	* 예카테린부르크 한국문화관광축제 한-러 클래식 공연	7.6(금) 19:00/ 스베들로프 필하모니	• 정의근(테너), 남완(바리톤), 피경선(피아노), 박태영(지휘), 장사익, 예카테린부르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협연	외교부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	* 예카테린부르크 한국문화관광축제 예카테린부르크 한국영화제	7.7(토) 예카테린 부르크 돔키노	• 예카테린부르크 한국영화제 개막 행사 및 한국 영화 2편 상영	외교부 문화체육 관광부
공연	* 예카테린부르크 한국문화관광축제 한국 퓨전 국악 공연	7.7(토) 19:00/ 스베들로프필 하모니	• 노름마치풍(대표: 김주홍)	외교부 문화체육 관광부
공연	* 예카테린부르크 한국문화관광축제 이노프롬 축하리셉션 한국 퓨전 국악 공연	7.8(일) 17:00/ 코스모스홀	• 노름마치풍(대표: 김주홍) 한국 퓨전 국악 공연	외교부 문화체육 관광부
공연	* 예카테린부르크 한국문화관광축제 이노프롬 축하리셉션 한국 퓨전 국악 공연	7.9(월) 19:00/ 하야트호텔	• 노름마치풍(대표: 김주홍) 한국 퓨전 국악 공연	외교부 문화체육 관광부
종합	* 예카테린부르크 한국문화관광축제 한국문화관광관 운영	7.9(금)- 11(수)/ 예카엑스포	• 문화원 및 관관공사 공동 운영 이노프롬 한국문화관광관 행사	관광공사 외교부 문화체육 관광부

분야	행 사 명	일시/ 장소	프로그램 및 출연 등	한국측 후원
공연	* 예카테린부르크 한국문화관광축제 성악과 피아노 협연	7.14(토) 17:00/ 피의사원	• 남완(바리톤), 이주영(피아노)	외교부 문화체육 관광부
공연	* 제2회 아르메니아 한국문화제 한-아르메니아 합동 전통 공연	9.05(수) 19:00 예레반 콘서트홀 아람하차투랸	• 한국 국립국악원 국악 공연 • 아르메니아 국립공연단 전통 음악과 무용 공연	문화체육 관광부 외교부
스포츠	* 제2회 아르메니아 한국문화제 아르메니아 태권도 시범	9.05(수) 19:00 예레반 9.06(목) 15:00 모스크바	• 아르메니아 태권도 대표팀 태권도 시범	서울신문 문화체육 관광부 외교부
영화	* 제2회 아르메니아 한국문화제 예레반 한국영화제	9.06(목) 15:00 및 20:00 예레반 모스크바 극장	• 2018년 아르메니아 한국 영화제 개막식 및 한국 영화 상영	영화진흥 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인문	* 제2회 추계 한국문화제 모스크바국제도서전 문화원-AST 출판사 MOU 체결	9.8(토) 15:00 모스크바 베데엔하	• 모스크바국제도서전 계기 한국 문화원과 러시아 AST 출판사의 한국 도서콘텐츠 번역출판 협력 MOU 체결	문화체육관 광부
공연	* 제2회 추계 한국문화제 한국 국악 공연	9.8(토) 및 9(일) 19:00 모스크바 노바야 오페라	• 국립국악원, 안숙선(판소리) 창극 '심청전' 공연	문화체육 관광부
전시	* 제2회 추계 한국문화제 한국 회화 전시회	9.11(화)-10.07(일) 모스크바 미술아카데미 갤러리	• 대한미술협회 화가 30인 현대 회화작품 50점 전시	문화체육 관광부

분야	행 사 명	일시/ 장소	프로그램 및 출연 등	한국측 후원
인문	* 제2회 추계 한국문화제 국립어린이도서관 한국의 날	9.16(일) 12:00 모스크바 국립어린이 도서관	• 한국 소재 그림그리기 및 한국동요 따라 부르기, 민속 놀이, 한국 어린이 영화 상영 • 엄마나라 이야기 콘서트	문화체육 관광부
인문	* 제2회 추계 한국문화제 한-러 어린이도서관 포럼	9.18(화) 17:30 모스크바 국립어린이 도서관	• 한국 어린이 인문소양 배양정책 및 어린이도서관 소개와 리셉션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민속	* 제2회 추계 한국문화제 한국 장르 영화제 및 추석 문화제	9.23(일) 14:00 및 18:00 9.24(월) 19:00 9.25(화) 19:00 모스크바 돔키노	• 다큐, 애니메이션, 가족 등 장르별 한국 영화 상영 • 개막식 추석 체험	영화진흥 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스포츠	* 제2회 추계 한국문화제 국기원시범단 태권도 시연	9.25(화) 19:00 모스크바 돔키노	•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시연	국기원 영화진흥 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스포츠	* 제2회 추계 한국문화제 대한민국 대사배 태권도 대회 및 국기원 태권도 시연회	9.29(토) 종일 카잔 스포츠전당	• 10회 대한민국 대사배 전러시아 태권도 대회 및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시연	태권도진흥 재단 국기원 문화체육 관광부 외교부
영화	* 제2회 추계 한국문화제 한국 태권도 영화제	9.29(토) 16:30 9.30(일) 10:30 카잔 수바르 플라자	• 태권도 소재 한국 영화 상영	영화진흥 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분야	행 사 명	일시/ 장소	프로그램 및 출연 등	한국측 후원
공연	국경일 리셉션 계기 장사익 초청 공연	10.1(월) 19:00 롯데호텔	• 개천절 국경일 리셉션 계기 장사익 퓨전 국악 공연	문화체육 관광부 와교부
전시	* 제2회 추계 한국문화제 한글축제	10.9(화) 18:00 문화원	• 한글날 기념 김병기 서예전 및 마스터클래스 • 한국어 웅변대회, 백일장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	한국 역사 영화제	12.4(화) -6(목) 모스크바 돔키노	• 역사 소재 한국 영화 상영	영화진흥 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인문	세종학당 종강 행사, 한-러 협력 주제 특강	12.15(토) 11:00 모스크바 원광학교, 12.22(토) 11:00 문화원	• 모스크바 세종학당 학년말 종강 행사 및 부대행사 • '한-러 교류협력과 청년세대의 역할' 주제 한국 대사 특강	문화체육 관광부
공연	한-러 청년대학생 음악회	12.21(금) 19:00 모스크바 소브레맨닉 극장	• 차이콥스키음악원, 그네신음악원 재학 한-러 학생 공동 발표회	문화체육 관광부

7 여행정보

(1) 비자

1 일반여행객

국가명	사증필요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잔여유효기간	비고
러시아	• 외교관·관용 여권 – 사증면제협정 (90일) • 일반여권 – 사증면제협정 (60일) ※ 180일 이내 총 90일 초과 불가 ※ 근로·거주·유학 목적의 경우 사증 필요	•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 사증소지자 – 사증유효기간 + 6개월 이상 • 사증면제협정 대상 – 여권유효기간 내 체류가능	• 신여권 취득 시 구여권상의 사증을 반드시 신여권으로 옮겨야 함
아르메니아	• 외교관·관용·일반 여권 – 무비자 180일 체류가능	• 무비자로서 해당사항없음	• 여권유효기간 내 체류 가능	

2 공연비자

공관 초대 시 공연비자 발급은 불가능하다. 다만 현지 공연단체 및 주최 측 등 러시아 초청기관이 발급한 공문과 초청장을 제출하고 러시아 외무부의 심사 및 승인 후에는 비자수령이 가능하다.

3 주한러시아 대사관 연락처

- 주소 : 대한민국 서울시 중구 정동 34-16 (우) 100-120
- 전화번호 : (02) 318-2134-5, (02) 752-0630 *한국인 안내
- 업무시간 : 비자 09:30~12:30, 비자 외 업무(공증) 14:30~17:30

(2) 안전정보

1 여행경보단계 : 여행제한(일부)

북카프카즈 지역 : 체첸, 다게스탄, 북오세티아, 카바르티노-발카리야 공화국, 잉귀시, 까라차이- 체르케스, 아디게이

2 사건·사고의 현황

■ 테러, 인질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북카프카즈지역(다세스탄, 체첸, 잉구세티아, 세베로오세티아 등)에는 여행경보(철수권고, 3단계)가 발효 중으로 방문 시 주의해야 한다. 가급적 단독 외출이나, 늦은 시간 및 인적이 드문 장소에 출입을 자제하는 편이 좋다.

또한 외교부는 2016.7.29. 러시아와 북한의 접경지역(핫산군)에 여행유의 1단계를 발령하였다. 이는 북한 인근지역으로 우리국민 안전이 우려되고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범죄율 등으로 인해 취해진 조치이다.

■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스킨헤드들이 유색인종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발하였으나 이전에 비해 치안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관광객이 모스크바 시내를 혼자서 자유롭게 다닐 만큼 안전하지 못하므로, 혼자 관광하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하는 기간은 히틀러 생일인 4월 20일을 기점으로 5.1.(노동절), 5.9.(전승기념일)까지이다.

또한 관광객이 증가하는 4월 중순부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네프스키대로와 같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소매치기나 날치기 등 절도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에 주의가 필요하다.

3 유의해야 할 지역

밤에는 어느 지역이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기차역 근처, 지하철역 근처가 우범지대이다. 또한 극성 축구팬들이 많으므로, 축구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경기장 근처도 피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절도 및 소매치기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명한 관광지 근처에서는 더욱 조심해야한다.

8 현지 문화

(1) 이름 부르기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본인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가족의 성이 그 순서이다. 보통 러시아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성보다는 부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문에 상대방을 호칭하는 경우 이름과 부칭을 함께 부르는 것이 정중함을 갖춘 것이다.

(2) 비즈니스 관행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언을 삼가야 한다. 미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했던 러시아 국민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비즈니스 상담 시 구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의 혼란과 어려웠던 경제 상황 등과 같이 러시아를 폄하하는 말을 가볍게 한다면 바이어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오히려 높은 수준의 문화와 문학 등을 소재로 칭찬한다면 좋을 것이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러시아인에게는 대면접촉을 권장한다. 겉보기에는 차가운 외모를 가진 듯한 러시아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만큼 정이 많은 민족이다. 비즈니스 시작시 이메일과 팩스 연락보다는 직접 만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것이 성공의 가능성이 크며, 한번 좋은 관계를 맺으면 쉽게 거래선을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러시아 파트너와의 개인적인 인간관계 형성에도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우대 관습이 있다. 구 사회주의 국가는 여성의 지위와 사회 참여율이 매우 높았으며 현 러시아도 여성의 사회적 참여율과 경제적 비중이 매우 크다. 이러한 관습을 활용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갈 때 센스를 발휘한다면 비즈니스 상담은 한결 원만해질 것이다.

※ 출처 :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 보유자료

(3) 초대받았을 때

러시아인의 초대를 받고 그 집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꽃과 초콜릿 또는 디저트용 음식을 선물로 준비할 수 있다. 꽃을 선물할 때는 꽃송이를 홀수로 준비해야 한다(장례식이나 무덤에 놓을 꽃은 짝수로 준비).

9 현지 연락처

(1) 긴급 연락처

- 화재신고 : 01
- 경찰(범죄신고) : 02
- 구급차(앰뷸런스) : 03
- 가스서비스 : 04

(2) 의료기관 연락처

러시아에서는 의료기관이 양극화되어 있다. 가격이 낮은 경우 시설 및 의료서비스가 낙후되었고 시설 및 의료 서비스가 양호한 경우 진료비가 비싸므로 사전에 한국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1 종합병원

- 모스크바
  - EMC(European Medical Center) : 주로 프랑스 의료단이 진료하며 영어 사용 가능하다. 친절한 보조원의 개별 상담이 이뤄지며, 현지화(루블)와 카드 사용만 가능하다(Tel : +7 (495) 933-6655).
  - IMC(Intermedcentre) : www.intac.ru (Tel : +7 (495) 937-5757)
  - GMS(Global Medical System) : www.gmsclinic.ru (Tel : +7 (495) 781-5577 / +7 (800) 302-5577)
  - UPDK : 러시아 외무부에서 운영, 모든 과의 진료 가능, 러시아 의사가 진료하므로 영어 소통은 다소 불편하다(Tel : +7 (495) 933-8648 / +7 (495) 237-5395).
- 상트페테르부르크
  - 국립마린병원 : 종합병원(Tel :: +7 (812) 605-0303/+7 (812) 275-7385)
  - 유로메드 클리닉(Euromed Clinic) : 영어 소통 가능(Tel : +7 (812) 327-0301)
  - 아메리카 메디컬 클리닉(Американская Медицинская Клиника, AMC) : 영어 소통 가능(Tel : +7 (812) 740-2090)

2 치과

■ 모스크바

- EMC Dentistry Center : +7 (495) 933-6655
- German Dental Care : www.gdcare.ru +7 (495) 926-1520
- US Dental Care : +7 (495) 933-8686 / +7 (965) 150-5020
- 한러메디컬(한국인 치과의사) : www.drpositive.ru +7 (495) 652-0736
- Ortodont(한국어 통역 가능) : +7 (926) 464-9722

■ 상트페테르부르크

- German Family Dentisty : https://german.clinic/ +7 (812) 432 32 32,
- Swiss Implant Clinic : https://swissimplant.ru/ +7 (812) 629-64-28
- MEDI : https://medi.spb.ru/stomatologiya/ +7 (812) 777-00-00

3 한의원

■ 누가 한의원 : +7 (917) 567-9025

■ (상트)Amrita : +7 (812) 274-8361

(3) 대사관 연락처

1 주러시아대사관

■ 주소 : St. Plyushchikha 56 bldg 1, Moscow

■ 전화번호

- 대표전화 : +7 (495) 783-2727
- 비상전화 : +7 (903) 778-0780

■ 팩스 : +7 (495) 783-2777, +7 (495) 783-2716(영사과)

■ E-Mail : embru@mofa.go.kr

■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ru-ko/index.do

■ Facebook 주소 : www.facebook.com/KoreanEmbassyInRussia

■ 업무시간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30~14:00)

2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 주소 : 191014, ul. Nekrasov, 32A St. Petersburg

■ 전화번호
- 대표전화 : +7 (812) 448-1909
- 비상전화 : +7 (905) 255-5496

■ 팩스 : +7 (812) 448-9668, +7 (812) 448-1500(영사과)
■ E-Mail : korpb@mofa.go.kr
■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ru-stpetersburg-ko/index.do
■ Facebook 주소 : www.facebook.com/cgkorea
■ 업무시간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30~14:00)

10 기타

(1) 날씨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를 가진 만큼 다양한 기후가 있다. 대개 러시아 하면 추운 겨울을 떠올리지만 몇몇 지방도시의 경우는 눈이 내리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보통은 길고 추운 겨울과, 짧고 서늘한 여름을 가지는 전형적인 대륙성기후를 보인다(유럽의 동북부와 북극해 연안은 툰드라, 툰드라 남쪽부터 북위 57˚ 지역은 아한대, 중앙아시아 지역은 건조한 사막, 흑해 연안은 지중해성 기후).

북극해 도서지방은 0℃, 북극 해안은 5~10℃, 시베리아 일대는 15℃ 전후, 유럽러시아 지역은 20℃에 육박하는 기온분포를 보인다.

대서양에서 발달한 해양성 기단이 러시아 강수의 주요 원천이다. 강수량은 북위 60° 부근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갈수록 적어진다.

■ 모스크바

대륙성기후이고, 해마다 기후변동이 현저하다. 긴 겨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봄·가을이 짧으며 4월 말부터 기온이 올라가 서서히 여름에 들어선다. 7월이 가장 따뜻하며 이 기간에 비와 햇빛이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이기도 한다.
- 1월 평균기온 : -11℃
- 7월 평균기온 : 19℃
- 연평균 강수량 : 586mm

■ 상트-페테르부르크

해양성 기후이다. 남쪽의 모스크바보다 기온이 높다. 6~7월에는 백야(白夜)현상이 나타난다. 겨울에 네바강과 해안의 바다가 얼지만, 항로는 거의 연중 유지된다.

- 1월 평균기온 : -7.6℃
- 7월 평균기온 : 18.4℃
- 연평균 강수량 : 584mm

■ 블라디보스톡

봄, 여름은 일교차가 심하고 겨울은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가 날씨가 매우 춥다. 바람이 많이 불어 실제 온도보다 체감 온도가 더 낮은 편이다.

- 1월 평균기온 : -12℃
- 8월 평균기온 : 20.2℃
- 연평균 강수량 : 722mm

(2) 교통정보

1 대중교통

러시아 대도시에서는 지하철, 트롤레이부스, 트람바이, 버스, 마르슈르트까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몇 지방 도시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수단도 있다. 지하철은 구간 구분이 없고 한 번 표를 구매하면 지하철 내에서 길게 체류해도 제한이 없다. 여러 번 이용할 수 있는 표(5회권, 10회권. 20회권, 60회권)를 구매하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트롤레이부스, 트람바이, 버스의 이용방법은 같다. 운전사나 정류장의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할 수 있다. 마르슈르트까는 우리의 마을버스처럼 구석구석 다니는 교통수단인데 운전사에게 직접 지불하면 된다. 택시는 우리나라처럼 미터기가 달린 택시가 대부분이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콜택시 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택시는 얀덱스(Yandex), 우버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콜택시 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2 도로교통

도로교통 상황은 지역과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도로사정이 매우 혼잡한 편이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길이 막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큰 도로에서는 차선과 신호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아 직접 운전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3)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러시아 운전자들은 험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친절한 운전사들을 자주 만날 수도 있다. 모든 사고는 부주의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니 항상 주의해야 한다.

(4) 기타

1 전력사용

사용전압은 220V~250V으로 한국산 전자제품을 사용해도 된다.

2 환전

러시아의 화폐단위는 루블(Ru)이 사용된다. 곳곳에 환전소가 있어 환전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수수료를 지나치게 부과하는 곳이 있어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을 추천한다.

※ 환율 : US$ 1= 65.66루블(2018년 9월 기준)

3 통신

■ 우편

곳곳에 우체국이 있고 우편제도는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우편물이 자주 분실되는 경향이 있으며, 해외에서 발송된 우편물이 지연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많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국제전화

러시아에서는 일반 국내 전화와 휴대전화로 국제통화를 할 수 있으며, 요금은 현지화로 지불하며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 경우 8-10-82-한국지역번호(0제외)-해당전화번호 순으로 걸면 된다.

■ 휴대폰

러시아 도착 후 현지 이동통신사 판매점 등에서 심카드를 구입하면 개통할 수 있다.

8. 루마니아

1 개황

- **수 도 :** 부카레스트(Bucharest, 210만 명)
- **인 구('18년) :** 1,952만 명
- **면 적 :** 238,391㎢(한반도의 1.1배, 동서 720㎞, 남북 515㎞)
- **민족구성 :** 루마니아인(88.6%), 헝가리인(6.5%)
- **종 교 :** 루마니아정교(87%), 가톨릭(4.6%), 개신교(3.2%), 기타
- **시 차 :** 우리시간 -7(서머타임시 -6)
- **언 어 :** 루마니아어
- **1인당 GDP('17년) :** 약 12,575미달러
  * 2017년 구매력평가기준(PPP)은 24,508미달러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 총교역 8.83억 미달러(수출 약 4.32억 미달러, 수입 약 4.51억 미달러)

2 문화적 특성

(1) 한국과 루마니아의 유사성

발칸반도의 이름은 이곳을 정복한 오스만터키인들이 푸르른 녹음에 감탄하며

연발한 터키어 “푸르다”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이름에 걸맞게 발칸반도는 온화한 기후와 풍요로운 토지를 갖추고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의 길목에서 문화 교차로 역할까지 하고 있다. 특히 발칸반도를 거쳐 간 민족 중에 특유의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며 유일하게 생존에 성공한 라틴족이 세운 나라가 바로 루마니아이다.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등 슬라브족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루마니아는 가히 슬라브의 바다에 떠있는 외로운 라틴섬이라 불릴 만하다. 좋은 자연환경과 교통의 요지라는 이유로 이민족의 침략을 수없이 견뎌내며 살아왔다는 점에서 친근함을 느끼게 하는 루마니아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점을 공유하고 있다. 한반도의 1.1배 가량인 24만㎢의 국토를 가지고 있는 루마니아는, 우리가 자랑하는 높은 교육열과 강인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루마니아는 국제수학경시대회를 최초로 개최하였으며, 각종 국제수학경시대회에서 매번 5위권에 들 정도로 교육에 힘쓰고 있다. 또한 부족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에서 가장 많은 IT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는 국가이다. 양국의 문맹률이 거의 0%에 근접하다는 점도 한국과 루마니아가 얼마나 교육에 관심이 많은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우리와의 유사성은 단지 교육열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민주화 역사가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항쟁으로 시작되었듯이, 루마니아의 민주화 역시 차우세스쿠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스포츠계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탁월한 것도 우리와 루마니아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세계 양궁과 골프계를 석권하고 있는 것처럼 코마네치를 필두로 한 루마니아 여자 체조선수들은 발군의 실력으로 루마니아의 이름을 세계인에게 각인시켰다.

500여 년의 오스만터키 지배를 거치고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루마니아는 이제 민족 생존의 단계를 넘어 민족중흥을 도모하고 있다. 아직 1인당 GDP가 약 약 12,575 미달러 정도로 높다고 할 수 없지만 고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우수한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루마니아 경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루마니아의 한류는 2004년 〈트란실바니아국제영화제〉에 출품된 김기덕 감독의 〈섬〉 등을 통해 생겨난 한국영화 마니아층을 시작으로, 2009년 루마니아 국영방송을 통해 방영된 〈대장금〉의 공전의 히트 이후 다수 소개된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 중장년층으로 저변이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K-Pop의 인기가 고조되면서 루마니아 내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루마니아 내 한류동호회도 초기에는 한국영화나 한국 드라마 또는 슈퍼주니어, Big Bang, 2PM 등 특정 K-Pop 그룹의 팬 층을 중심으로 주로 인터넷상에서 활동하였으나, 최근에는 주루마니아대사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한국 문화 세미나', '한국 수공예품 전시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한국문화 홍보 행사를 직접 기획·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동호회로 발전해가고 있다.

루마니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류 인물은 단연 방탄소년단(BTS)으로, 팬클럽인 Bangtan Boys Romania의 경우 루마니아 내 한류동우회 중 최다수인 8,2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 밖에도 슈퍼주니어, 빅뱅, 위너 등 젊은 여성 팬들을 중심으로 K-Pop 밴드나 배우 공유, 김수현 등 현지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에 출연했던 남성 배우들의 인기가 높다.

(2) 분야별 현황

1 한국어

루마니아 국립 부카레스트 대학교에서는 1996년부터 한국어 강좌가 개설, 운영되어 왔으며, 2005년에는 한국어학과가 학부 및 석사 과정의 부전공학과로 승격되었다. 루마니아의 제2도시 클루지-나포카 소재 국립 바베쉬-볼여이 대학교에서는 1997년부터 한국어 강좌가 학부 및 석사 과정 재학생들의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다가 2008년부터 한국어학과가 학부생들의 전공학과로 승격되었다.

2018년 기준 부카레스트 대학교 한국어학과에는 75명이 재학 중이며, 바베쉬-볼여이 대학교 한국어학과에는 140여 명이 재학 중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부카레스트 대학교 및 바베쉬-

볼여이 대학교뿐만 아니라 RAU 대학교 내 '루마니아-한국 문화센터', Arirang Korean Academy 등 한류동호회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루마니아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9월에는 이아쉬 이온-쿠자 대학에서 한국학 센터가 새롭게 개소하였다. 한국학에 대한 높아지는 수요를 반영하여, 주루마니아대사관은 국립 바베쉬-볼여이 대학교 한국어학과와 2017년에 이어 '2018년 국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공동 주최하였다.

2 K-Pop

루마니아에서의 K-Pop 아티스트들의 인기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방탄소년단(BTS), 슈퍼주니어, 빅뱅 등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 K-Pop 댄스를 애호하는 루마니아 청소년과 대학생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Midnight Pearls, SKY 5, Seoul Beat, 2Storm, H.A.C.K Plus, Radical GNO 등 다수의 한류 댄스 동호회가 전용 연습장에서 정기적으로 연습하고, 주요 행사 계기에 공연을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주루마니아대사관이 2015.7.11. 개최한 〈K-Pop World Festival 루마니아 예선전〉에서는 루마니아 각지에서 응시한 총 24개 팀 80여 명 중에서 선발된 10개 팀 43명이 경연, 650여 명 청중의 열띤 호응과 환호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동 예선전에서 우승한 Seoul Beat는 2015.10.30. 창원에서 개최된 「K-Pop World Festival 2015」 본선 진출팀(14개 팀)의 일원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예선전 실황 등 루마니아 내 K-Pop 동호회의 활동 모습은 KBS World를 통해 전 세계 188개국에 방송되었다. 주루마니아대사관에서 2015년부터 연례 개최하는 K-Lovers Festival은 K-Pop 팬들이 가장 주목하는 행사로, 2017년에는 기존 K-Pop 댄스 동호회들의 공연에 더해 K-Pop 노래경연대회 및 댄스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K-Pop에 대한 루마니아 신세대들의 높은 관심과 열기에 따라 우리 K-Pop 아티스트들의 루마니아 공연이 점차 늘고 있는데, 2014.2.15. Led Apple의 부카레스트 공연을 필두로 2015.9.5. LUNAFLY, 2016.9.4. MY NAME, 2017.1.14. 24K, 2018.3.3. HALO 등 매년 최소 1회 이상의 콘서트가 개최되고 있다.

3 드라마

〈대장금〉이 당초의 부정적 전망을 극복하고 2009년 7월 최초로 루마니아 국영 TVR1(우리의 KBS1에 해당)의 전파를 타고 방송되어 최고 인기 드라마로 등극한 이래 〈이산〉, 〈선덕여왕〉, 〈허준〉, 〈김수로〉, 〈주몽〉, 〈동이〉 등 다수의 사극이 평일 황금시간대에 방송되었다. 이후 민영 방송사들도 점차 우리 드라마의 방영을 확대하였으며, 사극의 성공에 힘입어 〈도깨비〉, 〈해를 품은 달〉, 〈꽃보다 남자〉, 〈천만번 사랑해〉, 〈아이두 아이두〉 등 현대물도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최근에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를 거의 실시간으로 챙겨보는 팬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동호회 RKIA(Romania-Korea Intercultural Association)가 운영하는 koreafilm.ro 등 한국 최신 드라마와 영화를 소개하는 블로그와 웹사이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4 영화

루마니아의 주요 영화제인 '트란실바니아 국제영화제' 및 '부카레스트 국제영화제' 등에 김기덕, 박찬욱, 이창동 등 작가주의 감독들의 영화들이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루마니아 최초의 국제영화제이자 중부 및 동부 유럽 지역 최대 영화제인 트란실바니아 국제영화제는 2002년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제3회 영화제에 김기덕 감독의 〈섬〉, 〈해안선〉, 〈수취인불명〉,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 김지운 감독의 〈장화, 홍련〉,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 임상수 감독의 〈바람난 가족〉을 출품한 이래, 동 영화제에 매년 참가, 우리 영화를 소개하고 있다. 2018년에는 주루마니아대사관이 제17회 트란실바니아 국제영화제(2018.5.25.-6.3.)에 〈택시운전사〉, 〈악녀〉, 〈하루〉 등 최신 영화 3편을 루마니아어 자막본으로 성황리에 상영하였다.

한편 주루마니아대사관은 독자적으로 '2016 부카레스트 한국 영화의 밤' 행사와 '한국문화 릴레이 페스티벌' 행사에서 우리 영화 〈역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루마니아어 자막본으로 상영하는 등 한국영화 단독 행사를 다수 개최하여 루마니아 내 한국 영화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2018년에는 5.21.~22 동안 '제1회 통일영화제'를 개최하여 〈용의자〉, 〈공작〉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영화를, 10.15~18동안 '제2회 한국영화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부산행〉, 〈뷰티인사이드〉, 〈곡성〉 등 대중적인 호응도가 높은 한국 영화를 부카레스트와

이아쉬 멀티플렉스에서 상영하여 일반 대중에 한국영화를 널리 알렸다.

〈역대 「트란실바니아국제영화제」 출품 한국 영화〉

연도	출품작	감독	연도	출품작	감독
2018	택시운전사	장훈	2010	불신지옥	이용주
	악녀	정병길			
	하루	조선호			
2017	곡성	나홍진		똥파리	양익준
	밀정	김지운		카페 느와르	정성일
	부산행	연상호		마더	봉준호
	터널	김성훈		쌍화점	유하
2016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홍상수		박쥐	박찬욱
	하이힐	장진		워낭소리	이충렬
2015	간신	민규동	2009	추격자	나홍진
	해무	심성보		나무없는산	김소영
	끝까지 간다	김성훈	2008	기담	정식, 정범식
2014	뫼비우스	김기덕		극락도살인사건	김한민
	용의자	원신연	2007	프락치	황철민
	사이비	연상호		시간	김기덕
	설국열차	봉준호		핵분열가족	박재영, 박수영
	변호인	양우석		괴물	봉준호
2013	인류멸망보고서	김지운	2006	친절한금자씨	박찬욱
	피에타	김기덕	2005	올드보이	박찬욱
	신세계	박훈정		실미도	강우석
	가시꽃	이돈구		인형사	정용기
2012	황해	나홍진		살인의 추억	봉준호
	간증	박수민	2004	수취인불명	김기덕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변승욱		해안선	김기덕
	풍산개	전재홍		섬	김기덕
	블라인드	안상훈		복수는 나의 것	박찬욱
2011	시	이창동		오아시스	이창동
	악마를 보았다	김지운		장화, 홍련	김지운
	파란만장	박찬욱, 박찬경		바람난 가족	임상수

5 한식

한식에 대한 루마니아인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할 정도로 루마니아에서 한식은 매우 인기가 많다. 루마니아인들은 여느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불고기와 잡채를 좋아하지만, 맵고, 짜고, 신맛을 내는 전통 음식인 'Sarmale'를 즐겨 먹는 등 우리 식생활과 유사한 편으로 김치도 선호하고 있다.

주루마니아대사관은 2017년 △설날 문화체험 행사(1.27) △국경일 리셉션(10.16) △K-Lovers 페스티벌(12.08) 계기 한식체험 및 2018년 △전략적 동반자 수립 10주년 기념행사(9.10) 리셉션 및 한국 주류 시음행사 △한·루 우호콘서트(9.24) 계기 한식체험행사 등 지속적인 한식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6 태권도

루마니아에서 태권도는 유·청소년층에게 특히 권장되는 인기 있는 스포츠이며, 현재 60여 개의 태권도 도장에서 약 3천여 명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WTF)과 국제태권도연맹(ITF) 산하지부를 비롯하여 일부 도장들도 태권도 대회 등 행사를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주루마니아대사관은 1997년 제1회 한국대사배 태권도대회 이래로 2015 부카레스트 태권도한마당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태권도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18.8.2에도 2018 한국대사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

7 공연, 미술

K-Pop외 공연 및 음악 분야의 경우 루마니아 출신의 작곡가 겸 바이올리니스트인 조르지 에네스쿠(George Enescu)를 기념하여 1958년 시작된 조르지 에네스쿠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음악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 음악가 안종도(2009년, 피아노 부문 3위), 손정범(2011년, 피아노 부문 2위), 신아라(2009년, 바이올린 부문 2위), 배원희(2014년, 바이올린 부문 3위), 홍은선(2014년, 첼로 부문 1위), 김계희(2016년, 바이올린 부문 1위), 김동현(2016년, 바이올린 부문 2위), 남정훈(2018년, 작곡 부문 1위) 등이 동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8년에는 루마니아 아테네움에서 홍은선 첼리스트의 조르지 에네스쿠 탄생 100주년 기념 국제 콩쿠르 오프닝 공연(9.1)이 상연되었으며, 주루마니아대사관 초청으로 우리 퓨전 음악밴드 공명(9.10), 팝페라 밴드 유엔젤보이스 및 앙

상블 코스모폴리탄(9.24) 등이 루마니아 국립극장에서 콘서트를 가졌다.

미술 분야에서는 대사관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7.10.18부터 11.20까지 주루마니아대사관은 독도 사진·회화전 〈독도의 사계〉를 카롤 I 세 중앙도서관 및 부카레스트·브라쇼브 주요지에서 개최하고 한국 및 루마니아의 독도 관련 사진·회화 40여점을 소개하였다. 2018년에는 한국 석조각예술인협회와 루마니아 미술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5차 대한민국-루마니아 미술문화 교류전이 루마니아 국립도서관에서 2018.10.1부터 10.31까지 한달간 개최되었으며, 〈문자와 사인〉이라는 주제로 캘리그라피를 비롯한 한국의 미술작품을 소개하였다.

8 K-뷰티

한류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접하게 되는 광고를 통해 이니스프리, 미샤, 토니모리 등의 화장품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한류 팬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한국화장품 전반이 인기를 끌어, 세포라와 같은 매장에서 〈Korean Beauty〉라는 부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 정도이다. 다만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토니모리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단가도 국내의 3~4배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 주요 타깃층인 젊은 여성층이 쉽게 구매하고 사용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3) 루마니아인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루마니아에서의 한류 열풍은 여성 팬들을 중심으로 불고 있다. K-Pop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및 드라마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미디어에 노출된 K-Pop과 한국 드라마를 우연히 접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K-Pop 아티스트들을 접하거나 루마니아 국영채널에서 방영하는 한국 드라마를 우연히 시청한 후에, K-Pop, 드라마 OST, 출연 배우, 한국영화 등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현지 한류 팬들의 설명이다. 다만 루마니아에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대다수의 루마니아 한류 팬들은 한국영화제 및 K-Pop 콘서트와 같은 문화행사들이 더 활발히 개최되기를 바라고 있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루마니아인들은 우리와 많은 문화적 유사성을 보이는 한편 라틴족 특유의 낙천성을 갖추고 있어 교류에 큰 어려움이 없다.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고 외국인에게 친절하며, 대체로 영어에 능통한 편으로 접근과 대화가 쉽다. 풍요로운 농지와 목초지, 양질의 목재, 원유와 가스 생산능력 등 넉넉한 자원 덕에 인심도 후하다. 단, 여느 민족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는 필수이다. 드라큘라 전설과 같은 희화화된 접근보다는 사르말레, 쭈이꺼 등 전통음식 문화나 차우셰스쿠 시대를 비롯한 역사 전반, EU가입을 비롯한 최근의 정치·경제적 발전상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보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독실한 루마니아정교 신자인 만큼 종교에 대한 언급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주로 K-Pop을 즐기는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한국드라마 및 영화, 한국 화장품, 태권도 등 다양한 콘텐츠의 보급으로 최근에는 한류 팬들의 연령대 및 성별이 다양화하는 추세이다. 또한 삼성, LG 등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과 최근 남북 정세 변화 등 문화 외적인 측면에서 중장년 층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국적인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국민 전반적인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한식을 비롯하여 한국영화, 전통음악, 화장품, 생활용품 등 한국문화와 상품을 체험하고자 하는 루마니아인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루마니아 내 한류동호회는 2008년부터 K-Pop 아티스트들에 대한 팬클럽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의 활동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각 팬클럽은 정보 공유 등을 위해 2010년 연합체 성격인 루마니아 한류팬클럽(KFCR)을 결성, 주루마니아대사관과 유기적 협조 하에 2010년 8월 루마니아 전국 각지의 동호인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초의 K-Pop 행사인 〈코리아 팬미팅〉 행사를 성황리

에 개최하였다.

주루마니아대사관은 2014년 9월 20일 RAU 대학교에서 개최된 'Korean Cultural Day' 행사를 기획단계에서부터 한류동호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래, 2018년 '제3회 K-Lovers Festival' 등 계속해서 한류동호회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2) 동호회별 현황

1 Super Junior Romania

성격	슈퍼주니어 팬클럽
회원 수	약 300명
웹사이트	s6.zetaboards.com/supajunia/index/
세부 활동 현황	• 모든 팬미팅 참석, Facebook과 트위터를 활용한 실시간 정보 제공

2 Korean Cultural Club Romania

성격	종합 한류동호회
회원 수	5,264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pages/Korean-Cultural-Club/230673233654710 http://www.kccro.ro/
세부 활동 현황	• 한국어 프로그램 시작 • 팬미팅 참석

3 K-World Romania [KWR]

성격	종합 한류동호회
회원 수	4,659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KWorldRomania kworldromania.ro/
세부 활동 현황	• 한국문화 전파 • 매달 한류 온라인 매거진 발매

4 2PM Si Hottest Romania

성격	2PM 팬클럽
회원 수	1,072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pages/HottestRomania/205215559571522 https://2pmro.wordpress.com/
세부 활동 현황	• 주로 Facebook 페이지를 통해 활동

5 Bangtan Boys Romania

성격	방탄소년단 팬클럽
회원 수	8,157명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BTSRomaniaRo/ https://twitter.com/bts_romania?lang=en
세부 활동현황	• 방탄소년단 관련 소식 업데이트 • 루마니아 내 최대 규모의 K-Pop 팬클럽

6 RKIA-Romanian Korean Intercultural Association

설립연도	2008년
성격	종합 한류동호회 - 부카레스트, 크라이오바, 브라쇼브, 피테슈티, 이아쉬 등 지부 소재
회원 수	400여 명(오프라인회원) / 3,000여 명(웹사이트회원)
웹사이트	www.koreafilm.ro/blog/ www.facebook.com/pages/Asociata-Interculturala-Romano-Coreeana/163678620404261
세부 활동 현황	• 한국어말하기대회(브라쇼브, 크라이오바) • 한국문화여름학교(브라쇼브) • 한국 전통무용 및 음악 공연(부카레스트, 크라이오바) • Korean Symphonic Concert(크라이오바) • 한글의날 행사(부카레스트, 크라이오바, 브라쇼브) • 한식요리 교실(부카레스트, 브라쇼브) • 한국어교실(부카레스트, 브라쇼브)

7 "Nan Kibun" Romanian-Korean Cultural Association

성격	종합 한류동호회
회원 수	3,212명
웹사이트	acrchk.wordpress.com www.facebook.com/acrcnankibun/?fref=ts
세부 활동 현황	• K-Pop 소개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 홍보 활동 • 2014년 2월 Led Apple 루마니아 공연 준비 • 한국문화워크숍, 한국수공예품 전시회 등 다양한 한국문화 활동 개최 • Embassies Festival 등 주요 행사 계기 한국홍보부스설치

8 Sarang Hangug Community

성격	종합 한류동호회
회원 수	8,652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sarang.hangug.ro
세부 활동 현황	• 2014년 7월 LUNAFLY 루마니아 공연 준비 • Embassies Festival 등 주요 행사 계기 한국홍보부스설치 • 한국문화세미나, 한국문화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활동 개최 • Dana Baragan 설립회장, KF 해외유력인사초청사업으로 2015.4.26.-5.2 방한 • 루마니아 내 최대 규모의 한류동우회

9 The Romanian-Korean Studies Center(RAU 대학교)

설립연도	2012년
성격	종합 한국교육기관 겸 동우회
회원 수	7,293명
웹사이트	csrk.rau.ro www.facebook.com/CSRK.DSA/?fref=ts
세부 활동 현황	• 한국어강좌 운영 • 사물놀이동호회 '푸른나래' 운영 • RAU 대학교문화탐방단 2015.3.20.-4.6. 한국방문 • 주루마니아대사관과 공동주최로 2017 K-Lovers Festival, 2018 퀴즈온코리아 루마니아 예선전 등 주최

10 Taekwondo Lifestyle

설립연도	2013년
성격	태권도 동호회
회원 수	1,078명
웹사이트	www.tkdlifestyle.ro https://www.facebook.com/tkdlifestyle.tkdlifestyle?fref=ts
세부 활동 현황	• 태권도수업 운영 • 매년 루마니아 전국 규모의 "태권도페스티벌" 개최 • 주루마니아대사관 주최 "2015 태권도한마당" 후원

11 SHINee World Romania

성격	SHINee 팬클럽
회원 수	Facebook 페이지 2,001명, 홈페이지 91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SHINeeRomania/ http://shineeworldromania.forumz.ro/
세부 활동 현황	• 주로 Facebook 페이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활동

12 Highlight Romania

성격	Highlight 팬클럽
회원 수	Facebook 페이지 1,288명, 홈페이지 769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groups/166949146718253
세부 활동 현황	• 주로 Facebook 페이지와 비공개 그룹을 통해 활동

13 My Name Romania

설립연도	2012년
성격	My Name 팬클럽
회원 수	Facebook 페이지 997명, 홈페이지 52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ro.myname/?fref=ts http://ro-myname.wikiforum.ro/
세부 활동 현황	• 주로 Facebook 페이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활동 • My Name 부카레스트 공연 관람

14 24K Romania

설립연도	2015년
성격	24K 팬클럽
회원 수	Facebook 페이지 915명, 비공개그룹 94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24KOfficialRomania/ www.facebook.com/groups/515229425206382/
세부 활동 현황	• 주로 Facebook 페이지와 비공개그룹을 통해 활동

6 2018년 문화행사

(1) 대한민국 바로알기 웹진 콘테스트

- 일시 및 장소 : 2018.2-10월, 온라인
- 주최 : 주루마니아대사관
- 행사개요 : 〈대한민국 바로알기 웹진 콘테스트〉를 통해 선발한 기자단 6명의 대사관 SNS 기사 게재를 통해, 지역관광, 한식, 전통주, 전통설화, 국경일, 캠퍼스라이프 등 우리 문화의 다양한 면모 소개

(2) 제3회 국제 한국어 말하기대회

- 일시 및 장소 : 3.23, 클루지-나포카 바베쉬-볼여이 대학
- 주최 : 주루마니아대사관, 바베쉬-볼여이 대학
- 후원 : 헝가리 외트뵈시 로란드대학, 불가리아 소피아대학
- 행사개요 :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 3개국 4개 대학에서 참여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로 2018년은 〈환경보호〉를 주제로 진행

(3) 통일영화제

- 일시 및 장소 : 5.21-22, 부카레스트 그랜드시네마
- 주최 : 주루마니아대사관
- 후원 : 부카레스트 그랜드시네마

■ 행사내용 : 통일을 주제로 남북 관계 및 우리 정세에 대한 영화 2편(용의자, 공조) 상영

(4) 2018 퀴즈온코리아 - 루마니아 예선전

■ 일시 및 장소 : 5.26, 부카레스트 Romanian American University
■ 주관 : 주루마니아대사관
■ 후원 : Romanian American University
■ 행사내용 : 2018 퀴즈온코리아의 루마니아 예선전을 1차 예선(5.12), 2차 예선(5.26)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여 한국 결승 진출자를 선발하였으며, 동 진출자(Claudia Diana Toma)는 한국 결선에서 3위 입상

(5) 2018 트란실바니아 국제영화제 한국영화 특별전

■ 일시 및 장소 : 5.25.~6.11, 클루지나포카 시내 극장
■ 상영영화 : (루마니아어 자막) 〈택시운전사〉, 〈악녀〉, 〈하루〉

(6) 제2회 K-Pop Dance Cover Competition

■ 일시 및 장소 : 6.8, 이아쉬 루체아파룰 극장
■ 주관 : 주루마니아대사관, GISU Association
■ 후원 : 루체아파룰 극장
■ 행사내용 : 한국 K-Pop 댄스 동우회 및 개인간 커버댄스 경연

(7) 2018 대사배 태권도대회

■ 일시 및 장소 : 8.2, 에포리에 수드
■ 주관 : 주루마니아대사관, 세계태권도연맹 루마니아지부
■ 행사내용 : 세계태권도연맹 루마니아지부 개최 태권도클럽 워크숍 계기 대사배 태권도대회 개최

(8) 한-루 전략적동반자관계 10주년 기념 한-루 우호 콘서트

■ 일시 및 장소 : 9.10, 부카레스트 국립극장

- 주관 : 주루마니아대사관
- 후원 : 부카레스트 국립극장
- 공연단 : 공명, Alexandru Tomescu
- 행사내용 : 한-루 전략적동반자관계 10주년 계기 우리 음악가 초청 콘서트

(9) 한국 주류 시음행사

- 일시 및 장소 : 9.10, 부카레스트 국립극장
- 주관 : 주루마니아대사관, 외교부, 농림부, aT
- 후원 : 부카레스트 국립극장
- 전통주 소믈리에 : 소이앤라이스, MONIN
- 행사내용 : 우리 전통주 10여종 및 전통주 활용 칵테일 2종 소개

(10) 유엔젤보이스 &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콘서트

- 일시 및 장소 : 9.24, 부카레스트 국립극장
- 주관 : 주루마니아대사관
- 후원 : 부카레스트 국립극장
- 공연단 : 유엔젤보이스,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 행사내용 : 우리 팝페라 밴드 유엔젤보이스와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협연

(11) 제5차 한-루마니아 미술문화교류전

- 일시 및 장소 : 10.1-31, 부카레스트 국립도서관
- 주관 : 한국석조각협회, 루마니아 예술가협회
- 후원 : 주루마니아대사관
- 행사개요 : 한국과 루마니아 예술가들의 미술문화교류전으로, 격년으로 번갈아 한국과 루마니아에서 개최

(12) 제2회 한국영화주간

- 일시 및 장소 : 10.15-18, 부카레스트 그랜드시네마 / 이아쉬 아테네우
- 주관 : 주루마니아대사관, 영화진흥위원회

■ 후원 : 부카레스트 그랜드시네마 / 이아시 아테네우
■ 상영영화 : 〈부산행〉, 〈뷰티인사이드〉, 〈곡성〉

(13) K-Pop Cover Dance Contest Iasi

■ 일시 및 장소 : 10.19이아쉬 루체아파룰 극장
■ 주관 : 주루마니아대사관
■ 후원 : GISU Association, 루체아파룰 극장
■ 행사개요 : 한국 K-Pop 댄스 동우회 및 개인간 커버댄스 경연

(14) 제3회 K-Lovers 페스티벌

■ 일시 및 장소 : 11.18, 부카레스트 ROMEXPO
■ 주최 : 주루마니아대사관
■ 후원 : ASIA FEST, ROMEXPO
■ 행사개요 : 한류동우회 및 한류 팬들 중심 △K-Pop 노래 및 댄스 경연대회 결선 및 시상식, △한식 리셉션, △부채춤 공연

7 여행정보

(1) 비자

일반여행객 뿐 아니라 공연 목적의 방문 시에도 사증 면제협정으로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단 3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기한이 필요하다.

■ 주한루마니아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1-104
• 연락처 : 02-797-4924, 794-3114

(2) 안전정보

1 여행경보단계 : 미분류

2 사건·사고의 현황

치안은 상당히 좋은 편이나 시내지역 야간 외출은 자제해야 하며, 시내 상가 지역과 특히 기차역 앞에서의 소매치기를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복경찰을 사칭해 여권 및 소지품검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길거리에 들개가 많으니 조심해야 하며, 택시는 요금 과다 청구 사례가 있으므로 승차 전 미터기 작동 여부 확인 및 요금관계 합의 후 승차가 바람직하다. 일반택시보다는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8 현지 문화

(1) 루마니아인과 정교회

주변 동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루마니아인이 주로 믿는 종교는 정교(루마니아정교)이다. 루마니아 사람들에게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열에 아홉은 정교라고 대답한다.

루마니아 사람들은 대부분(86%) 정교회 신자들이지만 일상 속에서는 미신과 속신의 영향을 거부감 없이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들은 낳고 자라고 결혼하고 죽는 평생의 통과 의례뿐 아니라 매년의 세시 풍속을 거의 모두 정교와 연결시켜 놓은 동시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교도적인 풍습이나 사상도 완전히 배척하지 않고 일상 속에 접목시키고 있다. 때로는 정교 성인의 날과 원시 신앙의 축일이 혼합되어 명절로 지켜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민간의 전통을 포용하는 정교의 관대함으로 인해 민속의 보존이 용이했던 것이다.

(2) 루마니아 술

루마니아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겨먹는 술에는 포도주(Vin)와 쭈이꺼(Tuică)가 있다. 겨울에 마시는 루마니아 포도주의 시음 방법은 매우 인상적이다. 우리가 추운 겨울날 정종을 데워 마시듯이, 루마니아에서도 겨울 추위나 감기 등을 이기기 위해 적포도주를 뜨겁게 데워 마시기도 한다. 신맛의 적포도주에 기호에 따라 설탕이나 계피가루를 넣어 뜨겁게 한 번 끓인 후, 투박한 컵에 따라 마신다.

루마니아 전통 대중 술인 쭈이꺼는 통상 자두를 원료로 하는데, 지방에 따라 포도, 살구, 사과 등을 원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쭈이꺼를 만드는 방법은 가을에 수확한 자두를 설탕과 함께 큰 그릇에 담아 충분히 발효될 때까지 내버려 둔 후, 발효가 된 것을 증류하는 것이다. 이 때,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더욱 강한 도수의 쭈이꺼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40~60도의 도수를 나타내며 강한 자두 향과 깨끗한 뒷맛이 나는 것이 좋은 술이다. 대부분 시골의 각 가정에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지방 또는 가정마다 제각기 다른 맛과 향을 맛볼 수 있다.

9 현지 연락처

(1) 긴급 연락처

- 통합번호 : 112
- 경찰서 : 955
- 소방서 : 981
- 앰뷸런스 : 961
- 응급병원 : 230-0179

(2) 의료기관 연락처

루마니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2번으로 전화해 구급차를 부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전화 안내원이 루마니아어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이용하기는 어렵다. 비교적 높은 의료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영어가 가능한 병원은 서구나 북구계 clinic으로서 Medicover, Medilife, Medsana, Euroclinic 등이 대표적이며, 주간 전문의 상담은 40불 정도이다.

(3) 주루마니아대한민국대사관 연락처

- 주소 : Sky Tower Building S.R.L, Calea Floreasca, No.246C. Etaj 33, Sector 1, Bucarest, Romania
- 전화 : 40) 21-230-7198
- 팩스 : 40) 21-230-7629
- E-mail : romania@mofa.go.kr

- 홈페이지 : www.rou.mofa.go.kr
- 비상연락처 : 40) 723-540-233
- 업무시간
  - 월~금 : 09:00~17:00(점심시간 12:30~14:00)

10 기타

(1) 날씨

루마니아는 온대기후와 대륙성기후의 중간 기후대에 놓여 있다. 연평균 기온은 남쪽이 11℃, 북쪽이 7℃ 정도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남동부가 400㎜, 카르파티아 산맥이 1,400㎜를 기록하고 있다.

(2) 주요 기관 근무시간

- 관공서 : 08:00~16:00(월~금)
- 우체국 : 08:00~19:00(월~금) / 08:00~14:00(토)
- 일반상점 : 08:00~22:00(월~일)
- 대형상점 : 08:00~22:00(월~일)

(3) 사용 전압

220V, 50Hz

(4) 카드사용

대형매장, 호텔 등에서는 한국이나 제3국에서 발행된 카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현금만 받는 곳도 많다.

(5) 교통수단

- 버스, 지하철, 트램 등 대중 교통수단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 요금 : 버스 1.3Lei, 지하철 5Lei(왕복), 트램 1.3Lei

■ 콜택시

• 전화번호 : 9440, 9444, 9443

• 요금 : 1Km당 1,39~3.5RON

(6) 환전

■ 환율=1USD=3.96RON수준, 1EUR=4.66RON수준(2018년 9월 기준)

(7) 국제전화 사용법

■ 00+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누르면 된다.

• 서울 : 00+82+2+서울전화번호

• 휴대전화 : 00+82+10+전화번호

KOREA FOUNDATION KF
한국국제교류재단

9. 벨기에

1 개황

- **수 도 :** 브뤼셀(Brussels)
- **인 구 :** 11,358,952명(2017년 4월 1일 기준)
- **면 적 :** 30,528㎢(경상남북도 크기)
- **민족구성 :** 플래미시인(56%, 네덜란드어 사용), 왈로니인(41%, 프랑스어 사용), 기타(3%)
- **종 교 :** 로마 가톨릭 58%, 기독교 7%, 이슬람교 5%, 무교 및 무신론 27%, 기타 종교 3%
- **시 차 :** 우리시간 -8(썸머타임 적용 시 -7)
- **언 어 :** 네덜란드어(60%), 프랑스어(40%), 독일어(1% 미만)
  *브뤼셀: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공용 및 영어 사용
- **1인당 GDP('16년) :** 46,010 미 달러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 총 교역 40.71억 미 달러(수출 27.98억 미 달러, 수입 12.73억 미 달러)

2 문화적 특성

(1) 라틴 문화와 게르만 문화의 교차로

벨기에는 서유럽 중앙에 위치한 국가로서 라틴 문화와 게르만 문화의 교차로이며 15세기부터 유럽의 미술 및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많은 문화유산을 남겼다. 특히, 15세기 이후 무역·수공업의 중심지가 된 플랜더스 지방을 중심으로 예술의 중흥기를 구가하였다.

(2) 플랜더스 미술

15세기 초에서 17세기까지 네덜란드 남부와 벨기에에서 성행했던 화풍으로 중세 이후 플랜더스 지방이 새로운 상공업의 중심지로 번영하게 되면서 발전한 화풍이다. 초기 플랜더스 미술은 르네상스 미술에 속해 구분되지만, 고딕 양식을 지니고 있어 북유럽이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발전해 가는 과도기의 예술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후, 플랜더스 미술은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당시의 예술가들이 유화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 보다 실제적인 묘사에 탁월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화가로는 얀 반 에이크(Jan van Eyck, 1395~1441), 한스 멜링(Hans Memling, 약1435~94) 로히어르 반데르 베이덴(Rogier Van der Weyden, 약 1399~1464) 휴고 반데르 고스(Hugo Van der Goes, 약 1440~82), 제롬 보스(Jérôme Bosch, 약1450~1516), 대(大) 피터 브뤼겔(Pieter Brueghel l'Ancien, 약 1525~69)을 거쳐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 반 다이크(Sir Anthony Van Dyck, 1599~1641)에 이르기까지 오늘날까지도 잘 알려진 유화의 대가들이다.

(3) 아르누보 건축

'아르누보'는 프랑스어로 '새로운 미술'을 뜻하는 말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까지 유럽 에서 성행했던 미술 및 건축 양식을 일컫는다. 당시의 고전적 아카데미 예술 사조에 반대하며, 꽃, 나무, 곤충, 동물 등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미술에 생동감을 넣고자 하는 의지에서 탄생했다. 리듬, 다양한 색상, 장식적 특성을 갖고 개인의 취향을 우선하는 예술로, 이러한 양상은 미술에서 시작해 건축에 있어서도 뚜렷한 양식을 표현하며 빅토르 오르타(Victor Horta)와 헨리

반 데 벨데(Henry Clemens van de Velde)에 의해 벨기에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아르누보의 명칭은 반 데 벨데가 실내를 설계한 파리의 화랑 이름(Maison de l'Art Nouveau)에서 유래했으며 빅토르 오르타는 과거의 양식에서 탈피해 형태나 구조적 측면에서 철을 사용한 선형 장식을 즐겨 사용했다.

(4) 벨기에 패션

벨기에 패션은 앤트워프 왕립미술학교(Antwerp Royal Academy of Fine Arts) 출신 디자이너 월터 반 베이런동크(Walter Van Beirendonck), 앤 드윌미스터(Ann Demeulemeester), 드리스 반 노튼(Dries Van Noten), 더크 비켐버그(Dirk Bikkembergs), 마리나 이(Marina Yee) 등을 통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후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대적 감각과 개성을 중시하는 강한 느낌의 스타일을 선보이는 동시에 보다 현실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예술적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판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특징을 가진 벨기에 패션은 예술적인 동시에 실용적인 패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앤트워프 뿐 아니라 파리 및 밀라노 프레타포르테 패션쇼에서도 양적, 질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아시아 및 중동 지역과 달리 벨기에 한류는 K-Pop이나 한국 드라마가 아닌 클래식 음악, 한국 영화, 한국어, 태권도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지 드래곤 및 방탄소년단 등을 필두로 K-Pop, 뷰티, 한식 및 패션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한국문화에 대한 인기가 고조되고 있다. 2013년 11월 벨기에의 수도이자 유럽의 수도인 브뤼셀의 중심지에 한국문화원이 개원하면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벨기에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장르인 한국영화는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BIFFF)'에 매년 다수의 한국 영화가 출품되면서 관심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2015년부터 한국문화원이 공식 파트너 자격으로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BIFFF 영화제를 통해

소개되는 한국영화의 작품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 BIFFF 영화제에서 연상호 감독의 〈서울역〉과 김봉주 감독의 〈더 폰〉의 공동 은상 수상, 2017년 박찬욱 감독의 평생 공로상, '은까마귀상' 수상, 2018년 원신연 감독의 〈살인자의 기억법〉이 스릴러부문 대상을 수상하면서 브뤼셀은 한국 영화시장의 새로운 활력소로 떠오르고 있다. 또 이러한 한국영화의 인기는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하는 Korean Film Fridays(금요영화제)와 Korean Film Festival Brussels(KFFB, 브뤼셀 한국영화제)에 참여하는 관객 수 및 언론보도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 편, 2010년 2월 브뤼셀 세종학당이 개원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유럽 내 K-Pop 등 한류 확산,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및 한국의 국제적 위상신장 등으로 현지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브뤼셀 K-Pop 아카데미를 최초로 개최하면서, 새로운 한류 도약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였다. 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 또한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벨기에 태권도 인구는 약 1만 명(성인 3천명, 학생 3천명, 어린이 4천명)이며 특히, 한국문화원이 지원하고 벨기에 태권도 협회가 주최하는 '태권도 한마당' 이라는 대규모 행사를 통해 태권도의 저변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2018년부터는 한국문화원이 주관하는 '벨기에 태권도 교실' 개최를 통해 80여 명의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생활체육으로서의 태권도를 체험하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1 한국어

유럽 내 K-Pop, 영화, 한식 등을 필두로 한 다양한 한류의 확산,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한국의 국제적 위상 신장 등으로 인해 벨기에 내에서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2월부터 브뤼셀 세종 학당이 설립·운영되어 왔으며, 2013년 11월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 개원 이후부터는 문화원 정규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0개 반에 약 200명의 벨기에 학생과 직장인 및 EU 직원 등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유럽인들이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브뤼셀은 EU의 수도인 이유로 수강생들의 국적이 벨기에 뿐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전 유럽국가에 걸쳐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함께 문화체험학습, 한식 체험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폭넓게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 부여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벨기에 대학 중 유럽 내 최고 공립 대학으로 꼽히는 루벤 가톨릭 대학과 인천 송도 캠퍼스를 운영 중인 겐트 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마리 압스(Marie Haps) 사설 어학기관에도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또한 루벤 가톨릭 대학에는 2016년부터 한국학 연구소(Center for Korean Studies, 소장 아드리앙 카르보네 Adrien Carbonnet 교수)가 2016년 11월 창설되어 한국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음악

유럽에서 K-Pop은 어느덧 성숙기에 이르렀다. 유럽인들은 단지 K-Pop을 단순한 장르로 여기지 않고 한국의 중요한 문화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K-Pop을 성숙한 문화로 향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문화원은 매년 여름 K-Pop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여름 방학 기간 내 1달 동안 보컬 및 댄스 관련 수준별 강좌를 현지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8년에는 벨기에 주요도시인 리에주(프랑스어권 핵심도시)와 앤트워프(네덜란드어권 핵심도시) 광장에서 대규모 플래시몹 투어를 진행, 현지 유력 방송에서 다수 보도되는 등 벨기에 내에서의 K-Pop에 대한 관심 증가에 공헌하였다.

벨기에의 클래식 한류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2000년 이후 이 콩쿠르에서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벨기에와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폴란드의 〈쇼팽 콩쿠르〉, 러시아의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와 더불어 세계 3대 음악 콩쿠르로 알려져 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1937년 '이자이 콩쿠르(Ysaye Competition)'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으며, '퀸 엘리자베스'란 이름은 벨기에의 왕비Elisabeth von Wittelsbach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11년 소프라노 홍혜란이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동 콩쿠르 성악 부문에서 1등상을 수상했다는 점이다. 이는 70여년이 넘는 연륜을 지닌 이 콩쿠르에서 한국 음악인들의 역량과 재능을 다시 확인하는 전기가 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역량은 2014년 소프라노 황수미와 2015년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이 1등을 수상, 2016년 피아니스트 한지호가 4등, 그리고 2017년 최초로 개최된 첼로 부문에

서 한국계 미국인 브래넌 조가 6위를 수상함으로서 재확인되었다. 한편, 2012년 5월 19일 및 5월 27일 양일간 벨기에 프랑스어권 공영방송사 RTBF에서 티에리 로로(Thierry LOREAU)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한국 클래식 음악의 비결(Korean Music Mystery)〉을 방영, 한국 음악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를 집중 조명한 바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 음악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주요 요인으로서 첫째, 한국 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 및 지원, 둘째, 음악 영재들을 조기 발굴해서 육성하는 교육 시스템, 셋째, 한국인의 타고난 예술적 재능, 넷째, 치열한 경쟁, 다섯째, 유교적 전통으로 인한 부모와 스승에 대한 존경 및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높은 관심이 그 배경이라고 소개하였다.

〈2000년 이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한국인 수상자 현황〉

연도	부문	수상자
2000년	성악	임선혜(7위), 데이비드 동규 리(8위)
2001년	바이올린	백주영(7위)
2003년	피아노	박종경(9위), 손민수(11위)
2004년	성악	손혜수(11위)
2005년	바이올린	권혁주(6위)
2007년	피아노	임효선(5위), 이미연(10위), 윤홍천(12위)
2008년	성악	임창한(9위), 윤정난(12위)
2009년	바이올린	김수연(4위), 윤소영(6위), 최예은(9위), 박지윤(11위) 작곡 조은화(1위)
2010년	피아노	김태형(5위), 김다솔(6위), 김규연(8위), 박종해(10위), 선우예권(12위), 작곡 전민재(1위)
2011년	성악	홍혜란(1위), 이응광, 황인수(결선진출)
2012년	바이올린	신현수(3위), 에스더 유(4위, 한국계 미국인), 김다미(결선 진출)
2013년	피아노	김상영(결선진출)
2014년	성악	황수미(1위), 박혜상(5위), 김승직, 유한승(결선진출)
2015년	바이올린	임지영(1위), 김봄소리(결선진출), 이지윤(결선진출)
2016년	피아노	한지호(4위), 김윤지(결선진출), 서형민(결선진출)
2017년	첼로	브래넌 조(6위, 한국계 미국인), 강승민(결선진출), 이정현 크리스틴(결선진출)
2018년	성악	이수연(결선진출)

3 영화

벨기에에서의 한국영화는 현지 영화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 매년 한국 영화제 개최 및 한국문화원 금요영화상영회 등을 통해 꾸준히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2018년 37회를 맞이하며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BIFFF : Brussels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와의 협력은 주목할 만한데, 이 BIFFF 영화제는 스페인의 시체스 영화제, 포르투갈의 오포르토 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판타스틱영화제로 꼽히며 벨기에에서 개최되는 최고 명성의 국제영화제이기도 하다. 2001년에는 한국을 주빈국으로 선정해 한국영화를 집중 상영한 바 있으며, 김기덕 감독의 〈섬〉(2001년),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2004년), 김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2011년)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어서 2013년에는 정병길 감독의 〈나는 살인범이다〉가 최고 스릴러 상을, 2014년에는 민규동 감독의 〈무서운 이야기2〉가 4등상을 수상했다. 2015년부터 한국문화원이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BIFFF 영화제에서의 한국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며, 2016년 연상호 감독의 〈서울역〉과 김봉주 감독의 〈더 폰〉이 2등상을 공동수상을 한 바 있다. 2017년에는 한국영화의 거장 박찬욱 감독이 개막식에 초청되어 한국 감독으로는 최초로 BIFFF 영화제 평생 공로상인 〈은까마귀상〉을 수상했으며 2018년에는 원신연 감독의 〈살인자의 기억법〉이 스릴러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한편, 2013년부터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는 브뤼셀 한국영화제는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이 개최하고 보자르, 시네마 갤러리, 룩셈부르크 시네마테크 등이 협력하는 벨기에 내 단일국가 최대영화제로 자리를 잡아가며 베네룩스 내 현지 배급사에 의한 한국영화 공식 극장 개봉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하여 BIFFF 영화제 기간 내 특별 리셉션 및 한국영화 포스터 전시를 논의 중이며 한국 감독 중 한 명을 국제 스릴러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공식 초청할 계획이다.

2017년을 기점으로 한국문화원은 벨기에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영화제(Anima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Millenium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브뤼셀 단편 영화제 등)와의 협력을 통해 벨기에 국제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독립영화, 단편영화 등 다양한 한국영화의 면모들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발히 소개하고 있다. 벨기에 내 한국영화 배급현황은 아직 1년 기준 10편 이내이며 극장 개봉작은 3~4편에 불과하지만 4년 전 단 한편이 겨우 있을 정도였던 현지 상황

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괄목할만한 한국 영화의 선전을 가늠할 수 있다. 이처럼 점차 벨기에 내 영화계에서 한국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가는 추세이며 각종 영화제 및 VOD 서비스, DVD 및 BLURAY 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2016년에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와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이 극장에서 공식 개봉하였고 벨기에 언론 및 영화 팬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며 이는 프랑스 영화를 제외한 제 3세계 영화 흥행 순위에서 열 손가락에 드는 흥행성과를 이루었다. 2018년에는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공식 극장 개봉하며 다수의 언론에서 '2018년에 개봉하는 최고의 영화'로 소개하였으며 2019년 초에는 홍상수 감독의 〈그 후〉 및 〈클레어의 카메라〉 등이 개봉 될 예정이다.

4 한식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Korean Culinary Lab〉을 개최하여 유럽의 최고 요리사들이 한국음식 조리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한국음식을 홍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에는 세계적인 급식회사인 소덱소(Sodexo)와 협력하여 대규모로 다국적기업 종사자들에게 한식을 소개하며 한식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 문화원 개원 이후 한국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한식강좌가 매달 개최되며, 모든 강좌가 조기 마감되는 등 한식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 식당에 대한 수요도 날로 늘어가는 추세이며 한국인 입양인 요리사들을 중심으로 한식 푸트트럭, 케이터링 등도 현지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및 한류의 인기와 함께, 다수의 언론에서 한식을 건강 식단으로 소개하여 벨기에 현지 내 한국음식의 인기 및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확산된 웰빙 열풍으로 현지인들은 한국의 '발효음식', '사찰음식', '차 문화' 등 한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있으며, 2018년 9월에는 브뤼셀 시에서 매년 주최하는 'EAT! Brussels' 음식 축제에 서울시에서 공식 참여하여 한국의 젊은 요리사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는데 이는 한식의 맛을 대중적으로 현지에 알리는데 큰 공헌을 했다.

5 스포츠

벨기에 태권도 인구는 약 1만 명(성인 3,000명, 학생 3,000명, 어린이 4,000명)으로 태권도 인구의 저변은 비교적 탄탄한 편이다. 벨기에에는 약 240여 개

의 태권도 클럽이 활동 중에 있으며, 학생 대상 약 200여개의 태권도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앤트워프와 나뮈르 소재 체육고등학교에 태권도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잠재력을 지닌 벨기에 태권도 인재를 양성중이다. 그리고 30여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벨기에오픈태권도대회〉가 1979년부터 매년 열려 벨기에 태권도 인구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약 50개국 1,500명의 태권도선수가 참가하는 유럽 내 최대 태권도 대회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벨기에태권도협회는 약 15명으로 구성된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통해 〈벨기에 챔피언전〉 등 벨기에 내 주요 태권도 행사에서 겨루기, 격파, 품새 등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고 있으며 10여개의 벨기에 공립학교에 직접 강사를 파견해 태권도 교실 운영을 지원하는 등 벨기에 태권도 인구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왈로니 지역이 대회를 위한 선수 육성에 중점을 두는 엘리트 태권도를 지향하는 반면 플레미시 지역에서는 생활체육으로서의 태권도가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태권도 수련 인구가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태권도만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도장이 많지 않고 유도, 합기도 등과 함께 마샬 아트 스포츠로 구분되어 수련되고 있다. 2018년부터는 한국문화원이 최초로 벨기에 태권도 교실을 브뤼셀 시내에서 운영하면서 어린이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80여 명의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 참가자들이 생활 운동으로서의 태권도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벨기에와 한국 간 축구협회는 어느 때보다 끈끈하다. 벨기에 리그는 유럽의 4대 리그(EPL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La liga 스페인리그, 세리아A 이탈리아 리그, 분데스리가 독일리그)의 전초지로 유명하며, 벨기에의 황금세대를 낳은 벨기에 리그에 대한민국 기업 스포티즌이 2014년 8월 프록시무스 리그(2부 리그) 산하 AFC 튀비즈를 인수하면서, 한국과 벨기에의 축구 교류도 증가하고 있다.

6 뷰티

한국의 뷰티산업은 최근 2~3년 들어 유럽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누리고 있다. 유럽 사람들은 한국의 화장품 및 화장 방법 등을 통칭해 'K-뷰티(K-Beauty)라고 부른다. 한국만의 독특한 화장 문화로 탄생된 'BB 크림'은 한류화장품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한국의 뷰티 문화와 화장품에 대한 큰 관심은 현지 유력 언론 De Standaard(2018년 2월 27일)의 기사 '#인스타뷰티'가 잘 보여준다. 이 기사는 K-뷰티 중 특히 마스크 팩의 기능성이 뛰어나고 귀여운 포장을 통해 유행에 민감한 효과적 패션 소품이라 묘사되어 있다. 또한 5월 12일

De Standaard에 게재된 기사는 벨기에인들에게 한국 뷰티문화는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닌 한국으로부터 전파되어 온 주류 문화의 하나로써 한국 화장품은 이미 세계적으로 기능성과 트랜디함을 인정받은 상태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의 피부 관리법, '10 단계 매일매일 피부 관리법(10-step skin care routine)'이 화제가 되었으며 이때 사용하는 화장품의 특징은 모두 천연 재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한국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더욱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으며 2018년 한국 스킨케어 제품만을 판매하는 '허니수(Honeysu)'라는 첫 오프라인 매장이 브뤼셀에 문을 열기도 했다. 이렇듯 한국의 K-뷰티 문화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가고 있으며 이는 요즘 매우 인기있는 K-Pop 남자 아이돌들이 왜 화장품을 쓰는지를 설명하는 논리가 되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세계적 패션 브랜드, 샤넬이 최초로 남성 전용 화장품을 출시하는 곳으로 한국을 선정했으며, 한국 시장의 반응을 통해 향후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울 것이라 언론들은 보도하기도 했다. 벨기에의 대표적 한류사랑 동호회인 'K-Pop 벨지움 소사이어티'가 개최하는 한국문화 행사에는 매번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는 스탠드가 있고, 특히 K-Pop 아이돌들의 화장법 등을 따라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 현재 많은 언론 기사들이 한국의 패션과 뷰티에 대해 기사를 싣는데 거의 모든 기사들이 한국의 뷰티 산업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뷰티 문화가 얼마나 유명해졌으며 인정받고 있는지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

7 e-콘텐츠

한국의 게임업계로서는 유럽 진출문제가 어려운 과제의 하나로 남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 및 엑스박스와 같은 비디오 게임이 항상 강세를 이루는 시장이다. 이러한 배경의 원인으로는 유럽의 고질적인 저 품질 인터넷서비스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6년 전부터 이러한 게임 업계시장에 스마트폰이라는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유럽에서 폭발적인 스마트폰의 수요로 유럽의 업계는 인터넷 속도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시기와 맞물려 모바일 게임 강국인 한국에 유럽은기회의 땅으로 다가오고 있다. 2017년부터 한국의 게임 기업들은 국내뿐 아니라 현지 해외와 동시에 발매하는 등 발 빠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이번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시범종목 중 하나로 선정된 e-sports에서 한국의 선전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를 포맷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이 유럽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선풍적인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인 'LOL'(리그 오브 레전드)이 2015년 유럽에서 롤드컵을 개최하였으며, 이 대회에서 한국의 SK텔레콤 T1이 우승, 2017년까지 3년 연속 한국 팀이 우승하며{SK텔레콤 T1(2015, 2016), 삼성 (2017)} e-sports 종주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8 한국 전통문화

한국문화원 개원 이전부터 브뤼셀 지역 문화센터 중 하나인 Maison de la Création(메종 드라 크레아씨옹)을 중심으로 판소리 및 전통 타악 워크숍이 운영되고 있었다. 문화원 개설 후 다양한 한국 전통음악 공연들이 본격적으로 한국문화원에 의해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거문고 팩토리, 숨. 씽씽, 고래야 등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식의 창작국악을 연주하는 단체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되며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현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전통음악 단체들이 현지 공연장 및 축제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2015년 판소리 명창 안숙선, 세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창작국악 그룹 '거문고 팩토리', '숨'이 벨기에 대표 예술센터인 보자르에서 공연을 펼쳤으며, 판소리 명창 민혜성, 전통연희 단체 '진쇠', '유희' 등이〈Souffle Coréen(수플르 꼬레앙/한국의 숨결)〉, 〈Musiq'3 Festival(뮤직 트루아 음악축제)〉 등의 현지 축제에 공식 초청되어 공연을 갖은 바 있다.

아울러,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한국전통문화를 관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국악원 및 현지 문화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판소리 및 장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문화원 정규 프로그램으로 한글, 서예, 한지공예 수업을 학기제로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현지 초등학교 대상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인 스쿨 비지트(School Visit)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구, 한지, 서예 등 한국 전통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지 어린이들이 미래의 한국문화 애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9 무용

벨기에는 안느 테레사, 로사스 무용단과 같은 세계적 명성의 안무가와 무용단을 배출, 현대무용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 역시 최근 현대무용 공연 시장의 성장을 통해 한국 현대무용의 우수성이 알려지며 무용수이자 안무가인 김설진은 현재 현대무용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피핑톰'에서 활발하기 활동하고 있으며, 2016년 리에주 국립극장과 한국 국립현대무용단의 협력으로 벨기에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떠오르는 세계적 신예 안무가, 아엘렌 파롤린(Ayelen Parolin)이 안무하고 국립현대무용단 무용수들이 함께한 창작 무용 작품 〈NATIVOS(자생)〉를 전 세계 주요 현대무용 축제에서 선보였으며 언론과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 공연은 벨기에 및 프랑스 전국 투어 12회 공연을 모두 매진시키며 한국 현대 무용의 유럽 내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17년에는 브뤼셀 소재 현대무용극장 바리아(VARIA) 극장과의 협력을 통해 국립현대무용단의 〈IMMIXTURE(혼합)〉의 3회 공연 개최 및 전석 매진 사례를 기록하는 등 한국 현대무용 공연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9년 4월에도 바리아 극장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현대무용 공연을 소개할 예정이다.

10 만화

'만화'는 벨기에에서 하나의 예술 분야로 자리 잡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1840년에 발행된 인쇄 잡지 르 샤리바리(Le Charivari)에 삽화가 실리면서 최초로 벨기에 만화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만화가 시작된 것은 1920년대부터인데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만화가 에르제(Hergé)가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이 때이다. 1929년 에르제의 '틴틴(Tintin)'이 그려진 이 후, 벨기에에서는 스피루(Spirou), 뤼키 뤼끄(Luky Luck), 봅 앤 보베트(Bob and Bobette), 가스통 라갸프(Gaston Lagaffe) 등 오늘날에도 여전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화들이 다수 등장한다. 1940년 후반에 여러 신문사들의 등장은 만화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데, 특히 출판사 르 롬바르드(Le Lombarde)에서 발행한 만화 주간지 "Le Jounal de Tintin"이 큰 성공을 거둔 이 후, 출판사 레이몽(Raymond), 르블랑(Leblanc) 등과 같은 만화 전문 출판사들 역시 뒤따라 발전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벨기에에는 르 롬바르드 뿐 아니라, 뒤뷔(Dupuis), 카스테르만(Casterman)과 같은 만화 전문 대형 출판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

벨기에는 만화의 나라로 알려진 만큼 만화에 대한 수요와 수준이 상당히 높다. 2013년 이래 매년 한국문화원과 벨기에 만화의 성지인 '브뤼셀 만화박물관'의 주도로 한국·벨기에 만화교류 특별전이 개최되고 있다. 매년 교류전의 규모가 커지고, 작품 수준이 높아지면서 벨기에 내에서 한국만화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최근 벨기에의 만화시장은 한국만화의 강점으로 꼽히는 차세대 만화 포맷, '웹툰'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현지에서 프랑스어를 기반으로 하는 웹툰 전용 포털 인터넷 사이트 '델리툰' 사이트가 유럽 내 최초로 생겨나면서 벨기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만화에 대한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한류)를 좋아하는 이유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태권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문화를 접하면서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벨기에인들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최근 K-Pop의 인기와2013년 11월 한국문화원 개원 등을 계기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벨기에 유력 일간지들은 유럽 내 혹은 벨기에의 신 문화현상인 한류와 K-Pop을 집중 조명한바 있다.

프랑스어권 공영 방송사 RTBF(2018.02.07.)는 〈한국의 K-Pop 현상〉에 대해 집중 취재하며 "강남스타일의 열풍 이후 한국의 K-Pop이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K-Pop, 비즈니스와 외교적 무기 사이에서〉 특집 보도를 통해 "한국에서 대중음악 산업은 수익이 큰 산업의 하나이자 외교적 무기이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이 작은 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도구"라며 K-Pop을 상세하게 다뤘다. "비즈니스적인 면모와 치열한 경쟁을 견뎌야하는 예술가들이 존재"한다며 K-Pop 산업의 이면을 소개하기도 했다.

유력 매체 LA LIBRE와 VRT(2018.04.01.), DE STANDAARD(2018.05.31.)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K-Pop 스타들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진 경향을 집중 조명했다. 한편 전 세계적인 K-Pop 열풍과 더불어 "방탄소년단이 K-Pop 그룹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차트 1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RTBF(2018.05.31.)는 밝혔다.

RTBF 방송은 JT 13h 뉴스를 비롯하여, 연속 네 차례(2018.07.18/07.20(2)/7.24)에 걸쳐 한국문화원의 K-Pop 아카데미 개최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K-Pop 음악은 성공을 발판으로 한국 젊은 층을 매료시켰으며, 인터넷의 발달에 힘입어

세계적으로도 널리 이름을 알렸다. K-Pop은 오늘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K-Pop 뿐 아니라 드라마, 뷰티, 한식 등 한국 문화콘텐츠 전반의 인기를 심층 분석하는 기사도 볼 수 있다.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한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평양냉면, 닭갈비, 김치 등을 소개하는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었다. LA LIBRE지는 〈유행 중인 새로운 요리 K-food는 무엇인가?〉(2018.02.10.)에서 발효음식을 소개하며 한식을 "독보적인 맛을 지닌 음식!"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DE STANDAARD(2018.02.17.), METRO(2018.02.26.), RTBF(2018.02.27.) 등 각종 유력 매체에서는 〈#인스타뷰티〉, 〈한국 화장품, 유럽 시장 진출 도전〉, 〈한국 화장품, 유럽을 휩쓸다〉 등의 제목으로 유럽 내 한국산 화장품 열풍 현상을 집중 보도했다.

최근 한류에 대한 벨기에인들의 관심에 대해 벨기에 K-Pop 동호회 K-Pop Society Belgium 창립자 레나 쉬르스는, "K-Pop 행사에 고정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벨기에 사람들의 수가 천여 명을 웃돈다. 네덜란드, 프랑스에 비해 숫자는 적지만 꾸준히 한국문화행사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드라마, 음악, 버라이어티쇼 등을 보고 한국 아이돌이나 배우에 관심을 갖지만 차츰 음식, 패션, 전통 문화 등 한국 문화 전반으로 관심의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벨기에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비교적 시장이 작다는 점과 이 중 약 6백만 명이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며 약 4백만 명이 프랑스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작기 때문에 벨기에만을 대상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보다는 유럽의 다른 국가와 연계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개별적으로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벨기에 내 주요 국제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왈로니(프랑스어권) 지역이 클래식 음악, 연극, 영화, 만화 등의 전통과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예술이 주로 향유되는 반면 플랜더스(네덜란드어권) 지역에서는 현대무용, 일렉

트로닉 음악, 패션 등 실험적이고 현대적인 예술이 발달했다. 문화 행사 운영 및 홍보자료에 사용되는 언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 해당 행사가 개최되는 지역의 언어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영화 상영을 예로 들자면, 브뤼셀 및 네덜란드어권역(겐트, 앤트워프 등)에서는 영어자막으로도 상영이 가능하지만 프랑스어권역(리에쥬, 나뮈르 등)에서는 영어 자막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프랑스어가 제공되어야 한다. 실제로 벨기에 전역에서는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가 함께 사용되며,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브뤼셀의 경우, 영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등 3개 언어를 모두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5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벨기에에서 열린 한류 문화행사

2013년 11월에 한국문화원이 유럽의 수도인 브뤼셀에 개원한 이래, 한국 전통, 대중문화를 다양하게 소개하는 공연, 전시회 등이 본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최근 개최된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다.

1 브뤼셀 세계민속축제 '포클로리시모' 주빈국 참석

- 일시/장소 : 2017.9.16~17 / 브뤼셀 그랑플라스
- 주최/주관 : 한국대사관(문화원), 브뤼셀 시청, 오줌싸개 동상 협회 등
- 행사성과 : 2017년 9월 16일~17일 양일간 벨기에 최대 관광지 그랑플라스 내에서 개최된 세계민속문화축제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되어 참여, 한국의 전통문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브뤼셀 시청과의 대형 협력 행사를 최초로 개최하였다. 다양한 전통음악 공연,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비빔밥 시연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비롯하여 한국음식 체험, 한복 체험 및 평창 올림픽 홍보 스탠드 등을 운영하여 한국 문화의 이미지 제고 성과를 거두었다.

2 브뤼셀 왕립 시네마테크 협력 〈홍상수 감독 회고전〉 개최

- 일시/장소 : 2018.1.18~2.25 / 브뤼셀 왕립 시네마테크, 한국문화원
- 주최/주관 : 브뤼셀 왕립 시네마테크, 한국문화원

■ 행사성과 : 2018년 1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브뤼셀 왕립 시네마테크와의 협력을 통해 유럽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한국 감독 중 한 명인 홍상수 감독의 전 작품 회고전을 개최, 장·단편 23편, 홍상수 감독에게 영감을 주는 영화 2편 상영 및 마스터 클래스 1회, 홍상수 감독과 관객들의 질의응답 2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홍상수 감독의 영화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영화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던 관객들의 반응은 향후 시네마 갤러리에서 홍상수 감독의 최근 영화 5편을 배급하는 좋은 성과를 낳게 되었다.

3 메이드 인 아시아

■ 일시/장소 : 2018.3.16~18 / 브뤼셀 엑스포
■ 주최/주관 : 메이드 인 아시아, 한국문화원 등
■ 행사성과 : 매년 3월 브뤼셀 엑스포에서 베네룩스 최대 만화, 게임 캐릭터 박람회인 '메이드인 아시아'를 개최한다. 한국문화원은 한류커뮤니티 또는 K-Pop 노래 및 댄스 경연대회 등 한국관련 행사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한국문화원의 문화 사업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4 BIFFF(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 일시/장소 : 2018.4.3~15 / 보자르 아트센터
■ 주최/주관 : BIFFF 영화제, 브뤼셀 시청, 한국문화원 등
■ 행사성과 : 2015년부터 꾸준히 한국문화원과 협력하고 있는 BIFFF 영화제는 판타스틱, 스릴러 및 공포영화 등을 소개하는 세계적 장르 영화제로 2018년에는 김용화 감독의 '신과 함께-인과 연'을 비롯하여 한국영화 11편 소개 및 감독 및 프로듀서 3명 초청을 통해 한국영화의 발전적 위상을 확인하였다. 영화제 기간 중 '한국 영화의 밤' 특별 리셉션을 통해 전 세계 영화계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원 영화 사업을 소개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였다. 2018년 BIFFF 영화제 기간 중 총 5,000여 명의 관객이 한국 영화를 감상했으며 원신연 감독의 〈살인자의 기억법〉은 스릴러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5 제4회 브뤼셀 한국음악축제(모던 사운드 코리아 2018)

- 일시/장소 : 2018.4.17~5.5 / 한국문화원, 생 제리 홀, 악기박물관, 큐 팩토리(암스테르담)
- 주최/주관 : 한국문화원
- 행사성과 : 2015년 '브뤼셀 한국음악축제'로 시작된 본 행사는 전통음악에서부터 클래식, 인디음악까지 전 장르에 걸쳐 한국음악을 집중 소개해 오다 2017년 현재의 'Modern Sound Korea(모던사운드코리아)'로 개편, 창작국악 단체들과 인디 밴드들의 음악으로 주제를 좁혀 한국의 동시대 문화를 집중 소개해오고 있다. 2017년에는 잠비나이를 선두로 씽씽, 박지하, 권송희의 창작 국악 단체들과 인디밴드 김사월x김해원, DJ Soulscape를 소개했으며, 2018년에는 새소년, 최고은, 랜드오브피스, 박우재, 김지혜&김혜림의 공연을 선보였다.

6 KCC Classical Days 2018 (KCC 클래시컬 데이즈 2018)

- 일시/장소 : 2018.5.22~25 / 한국문화원
- 주최/주관 : 한국문화원,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퀸엘리자베스 뮤직 샤펠 등
- 행사성과 : 한국-EU 수교 55주년을 기념하여 2018년 새롭게 개최된 클래식 음악 전문 축제로 세계를 무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과 벨기에 및 유럽의 차세대 연주자들의 협력 공연을 선보였다.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진행된 본 행사는 이수연 소프라노를 포함한 2018년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성악부분 결승진출자들의 리사이틀,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소속 이지혜 바이올린 리사이틀, 한지호(피아노)/이정현(첼로)/햇님 Langely(바이올린) 트리오 콘서트 및 퀸엘리자베스 뮤직 샤펠 소속 연주자들의 공연으로 구성되었다.

7 국립국악원 정악단 〈풍류〉

- 일시/장소 : 2018.3.27 / 브뤼셀 왕립음악원
- 주최/주관 : 한국문화원, 국립국악원
- 행사성과 : 2018년 3월 27일 문화원은 한-EU 수교 55주년을 기념하여 브뤼셀 왕립음악원과 국립국악원의 협력을 통해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공연을 선보였다. 브뤼셀 왕립음악원의 1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

번 공연은 〈풍류〉를 주제로 해외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상령산, 도드리, 천년만세와 같은 정악 연주곡은 물론 가곡, 가사, 시조의 성악곡을 함께 선보여 현지 관객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전통음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8 제2회 정기 건축전(제 12차 ASEM 계기 행사)

- 일시/장소 : 2018.5.9.~6.9 / 한국문화원, 브뤼헤 트리엔날레
- 주최/주관 : 한국문화원, 브뤼헤 트리엔날레
- 행사성과 : 2017년부터 개최된 한-벨 건축전은 매년 테마 별 건축 전시를 현지 건축 관련 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전시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건축 예술을 통해 한국과 벨기에의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한 편, 전시 분야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2017년 제 1회 건축전에는 한국 건축가 '문훈'과 벨기에 건축사무소 '51N4E'의 작품을 합동 전시하였고, 2018년 제 2회 건축전에는 한국의 건축사무소 OBBA(Office for Beyond Boundaries Architecture)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특히, 제 2회 건축전은 브뤼헤 건축 트리엔날레와의 협력을 통해, OBBA의 작품이 브뤼헤 시내 운하에 실제로 설치 및 건축되어 5월~9월까지 전시되었으며, 아시아 작가로는 유일하게 초청받은 작품을 선보인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 건축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공헌하였다.

9 Musiq'3 Festival (뮤직트로와 음악축제)

- 일시/장소 : 2018.6.29.~7.1/ 플라제
- 주최/주관 : 뮤직트로와 음악축제, 플라제, 한국문화원 등
- 행사성과 : 벨기에 프랑스어권 공영방송국 RTBF의 음악전문채널 Musiq3에서 매년 여름 개최하는 음악전문 페스티벌로 2015년부터 한국문화원과의 협력으로 매년 한국 연주자들을 소개해오고 있다. 2015년 소프라노 황수미의 공연을 시작으로 2016년 전통연희 단체 '유희', 2017년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초청한 바 있다. 올해 2018년 페스티벌에는 독일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현악 쿼텟 에스메(Esmé) 콰르텟과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즈 연주자 허대욱 트리오가 초청되어 공연을 가졌다.

10 제3회 K-Pop 아카데미

- 일시/장소 : 2018.7.2.~28 / 스튜디오 바이브, 한국문화원, 보자르
- 주최/주관 : 한국문화원
- 행사성과 : 2016년부터 한류의 핵심 콘텐츠인 K-Pop을 현지 젊은이들이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진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1달 동안 K-Pop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K-Pop 뿐 아니라 탈춤강좌, 서예 및 태권도를 정규 수업에 편성하여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체험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2017년에는 브뤼셀 수도권 교통청(STIB)과의 협력을 통해 브뤼셀 최대 환승역 호지에(Rogier)역에서 플래시 몹 개최를 통해 언론 및 지하철 이용객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2018년에는 벨기에 주요도시인 리에주와 앤트워프 광장에서 대규모 플래시몹 투어를 진행, 현지 유력 방송에서 여러 차례 보도되는 등 벨기에 내에서의 K-Pop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참여 학생들의 성취감 고취를 위해 매년 학위 수여식에 이은 졸업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벨기에 최고 예술기관 보자르에서 졸업 공연을 개최, 여름철 브뤼셀 내 주요 대중문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11 제5회 한·벨 만화교류 특별전

- 일시/장소 : 2018.9.13.~11.3/ 한국문화원
- 주최/주관 : 한국문화원
- 행사성과 : 벨기에는 만화의 본고장이 만큼, 한국문화원에서는 2014년을 시작으로 한·벨만화교류 특별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5년 제 2회 한·벨 만화교류 특별전에서 소개되었던 한국 만화가 앙꼬의 작품〈나쁜 친구〉는 2016년 3월 벨기에만화박물관의 초청으로 직접 현지만화박물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최초의 한국 만화 작품이 되었다. 2016년 제3회 한·벨 만화교류전에서는 벨기에 만화작품과 나란히 한국 만화가 작품들이 소개되었고, 동시에 진행된2016 브뤼셀 국제만화축제 행사장 내 한국문화원 스탠드에서는 한국만화가들이 직접 드로잉 쇼를 선보여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17년 제 4회 전시에서는, '푸른색의 스펙트럼, 청년' 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만화가 최규석, 수신지, 류승희, 한혜연 등의 한국 만화 작가들이 벨기에에 소개되었고, 벨기에 작가로 프랑크 페, 도미니크 고블레, 콘즈 등의 작가가 소개되었

다. 또한 이 전시는 최초로 부천 만화축제와 협력으로 개최하여, 벨기에 만화가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관객을 직접 만나는 기회가 마련되어, 한국과 벨기에 간 만화를 통한 진정한 문화 교류행사로 발전되었다. 2018년 제5회 전시는 어린이 만화를 주제로 한국과 벨기에의 7개 만화 작품, 〈맹꽁이 서당〉, 〈비빔툰〉, 〈탐정 칸의 대단한 모험〉, 〈소년의 마음〉, 〈뤼도〉, 〈우르바누스의 모험〉, 〈토토의 장난〉 등이 소개되었으며, 특히 한국 만화 〈맹꽁이 서당〉의 윤승운 작가, 〈비빔툰〉의 홍승우 작가, 〈탐정 칸의 대단한 모험〉의 하민석 작가의 작품을 동시에 전시하여 한국 명랑 만화의 계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전시가 되었다.

12 6th Korean Film Festival Brussels(제6회 브뤼셀 한국영화제)

- 일시/장소 : 2018.11.17~23 / 시네마갤러리, 보자르, 룩셈부르크 시네마테크, 한국문화원
- 주최/주관 : 한국문화원, 보자르, 룩셈부르크 시네마테크, 시네마갤러리 등
- 행사성과 : 2018년 제6회를 맞이하는 브뤼셀 한국영화제는 내실을 중요시하는 영화제로한국의 작가주의 영화 및 다큐멘터리 영화들에 주안점을 두어, 한국 영화의 내적인 성장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대내외적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이후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및 아니마 애니메이션 영화제와의 협력은 물론 벨기에 내 최고 예술센터 보자르, 룩셈부르크 시네마테크 등의 세계적 영화 전문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유럽 내 대표적 예술영화 배급사 IMAGINE FILM과 이창동 감독의 〈버닝〉 극장 개봉 시사회를 협력 개최하는 등 한국영화제 개최 자체를 넘어 한국 영화 위상 강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 2019년부터 한국영화제 개최 시에는 네덜란드 내 한국영화 상영회를 포함하는 명실상부 베네룩스 한국영화제로 거듭날 예정이다.

13 한류웨이브(Hallyu Wave)

- 일시/장소 : 2018.9.29 / 앤트워프 로얄 아테네움
- 주최/주관 : K-Pop 벨지움 소사이어티, KOFICE, 한국문화원 등
- 행사성과 : 한류웨이브는 2016년 벨기에 현지인에 의해 창설된 한류커뮤니티인 K-Pop Belgium Society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이 지원하는 '종합 한

국문화 축제'로써 네덜란드어권 핵심도시인 앤트워프에서 매년 가을 개최되며 한국 전통문화부터 K-Pop, 한국영화 및 한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벨기에 내 최대 한국문화 축제이다. 2017년부터는 KOFICE가 지원하는 현지인에 의한 한류 축제로 선정되어 한층 더 성숙한 한류 콘텐츠를 선보이는 한국 문화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보통 한류 동호회들이 K-Pop, K-DRAMA 등의 대중문화에 집중하는 반면, 한류웨이브 축제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함께 어우른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한복 체험, 서예 및 태권도 워크숍, 투호, 제기차기 놀이 등의 전통 문화 체험부터 한국영화 상영회, K-Pop 댄스 경연대회, 한국 음식 체험까지 오직 한국문화만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14 제1회 벨기에 태권도 교실

- 일시/장소 : 2018.9.21.~12.1 / 스튜디오 바이브
- 주최/주관 : 태권도 진흥재단, 한국문화원
- 행사성과 : 한국문화원의 주도 아래 최초로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 1회 벨기에 태권도 교실은 어린이, 청년 및 장년 등 연령별 반 구성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생활체육으로서의 태권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태권도 수련 뿐 아니라 태권도가 가르치는 상대와 자신에 대한 예의, 인내 등의 정신 수련을 함께 교육하여 육체 뿐 아니라 정신 건강 역시 강조하여 참가자들이 한국의 전통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0주간 개최되며 마지막 주에는 우수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도록 성취감을 고취시켜줄 심사를 개최하여 벨기에 현지 태권도 보급화에 힘쓴다.

(2) 벨기에 주요 국제문화행사

행사명	개최지	시기	행사내용	개최 주기	웹사이트
ANIMA 애니메이션 영화제	브뤼셀	3월초 (10일)	국제 단편부분 최우수작품상은 아카데미상으로 직행하는 서유럽 주요 애니메이션 영화제	1년	www.animafestival.be/
밀레니엄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브뤼셀	3월 (10일)	UN과 EU가 지원하는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매년 약 70여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약 4만 명 관람	1년	www.festivalmillenium.org/
메이드 인 아시아	브뤼셀	3월초 (3일)	벨기에 최대 규모의 만화, 캐릭터, 게임콘텐츠박람회, K-Pop 노래/보컬 경연대회 등	1년	www.madeinasia.be/
클라라 음악축제	브뤼셀	3월초 (2주)	40년 이상 지속되어온 클래식, 현대음악 등 국제음악전문페스티벌. 매번 약 4만 명 관객	1년	www.klarafestival.be
퀸엘리자베스콩쿠르	브뤼셀	5월 (4주)	1937년 시작된 국제적 명성의 음악콩쿠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성악의 4개 부문 4년 주기 번갈아 개최	1년	www.cmireb.be
TRIENNALE BRUGGE	브뤼헤	5월~9월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건축 축제, 회마다 다른 주제 아래 세계 각국의 건축 예술가를 초청, 도시 전체에 작품 설치 및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3년	www.triennalebrugge.be/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BIFFF)	브뤼셀	4월 (2주)	판타스틱, 스릴러 및 공포영화 중심의 세계적 장르 영화제. 매년 약 100편 상영. 약 6만 명 관람	1년	www.bifff.net
쿤스텐 축제	브뤼셀	5월 (3주)	1994년 창설된 세계 최고권위의 현대예술축제로 매년 전 세계 아티스트들의 30여개 프로그램 개최	1년	www.kfda.be
투머로우랜드 음악축제	앤트워프	7월 (10일)	2003년 시작된 일렉트로닉 음악축제로 현재 세계 최고 명성 및 규모로 성장했으며 1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하며 표 판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것으로 유명함	1년	www.tomorrowland.com

행사명	개최지	시기	행사내용	개최 주기	웹사이트
브뤼셀 여름 음악축제	브뤼셀	8월 (1주)	브뤼셀의 대표적 관광지 Monts Des Arts(예술의 언덕)에서 개최되는 국제적 록 음악축제	1년	www.bsf.be/en
플라워 카펫	브뤼셀	8월 (3일)	1971년 시작된 플라워 카펫은 세계적 관광지 그랑플라스 1,800평방미터를 50만 개 이상의 꽃으로 장식하는 꽃 축제로 2년에 한 번 개최	2년	http://www.flowercarpet.be/
브뤼셀 국제 만화 축제	브뤼셀	9월 중순 (3일)	만화의 중심지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벨기에 대표만화축제. 2018년 250명이상 만화가, 40개 이상 대형출판사 참여, 12만 명 이상 관람	1년	www.fetedelabd.be
겐트 국제영화제	겐트	10월 (2주)	1974년 시작매년 10월 다양한 장르의 영화 약 100편 상영, 약 13만 명 관람	1년	www.filmfestival.be

6 한류 동호회 현황

벨기에의 한류 관련 동호회는 K-Pop을 중심으로 4개가 활발히 활동 중이다. K-Pop 동호회는 한류 가수들의 공연 정보 공유 및 K-Pop 관련 현지 행사 참여 등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초기 회원들의 연령대는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던 반면 한국문화원의 문화사업 확대 등으로 인한 한류 확산과 함께 K-Pop에 대한 관심이 전 연령층으로 퍼지면서, 현재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K-Pop 뿐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 영화, 한글, 한식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어 있다. 한류 동호회들은 동호회의 성격에 따라 메이드 인 아시아 축제 기간 내 K-Pop 경연대회, 한류 웨이브 한국문화 축제, K-Pop 아카데미 참여 등 한국문화원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현지인들에 의해 주도되는 한류 확산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1 K-Pop BELGIUM

성격	K-Pop 동호회
회원 수	약 2,000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KpopBelgium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한류 스타 공연 정보 교류 • (오프라인) 연 2~3회 모임

2 Hidden Power

성격	댄스 동호회
회원 수	약 400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kpopclassbelgium
세부 활동 현황	• (오프라인) K-Pop댄스 강연, 플래쉬몹

3 K-Pop BELGIUM SOCIETY

성격	K-Pop 동호회 및 한국 전통문화 팬클럽
회원 수	약 1,700명
세부 활동 현황	• 매년 오프라인으로 1-2회 공식 행사 개최

4 Belgotaku

성격	아시아 문화 및 K-Pop 동호회
회원 수	약 4,000명
웹사이트	www.belgotaku.be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한국(아시아) 만화 및 음악에 대한 정보 공유 • (오프라인) 연 2~3회 모임

7 여행정보

(1) 비자

벨기에는 사증면제협정으로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공연 비자를

신청하려면 사증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2매, 벨기에측 초청장과 입국목적 증빙서류(공연행사 등), 여행보험을 포함한 체류경비 지불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연락처

- 주소 : Chaussée da la Hulpe 173-175, 1170 Brussels, Belgum
- 전화 : 32(0)2 675-5777
- Fax : 32(0)2 675-5221
- E-mail : eukorea@mofa.go.kr

(2) 안전정보

1 여행경보단계

벨기에 정부는 2016년 3월 브뤼셀 공항 및 지하철역 테러사건 직후테러 경보를 최고단계인 4단계(매우 심각)로 일시 격상하였다가 3단계(심각)로 조정하여 약 2년간 유지해왔으며, 2018년 2월 2단계('보통')로 다시 하향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테러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테러 위험을 감안해 여행 경보 단계를 지정했는데, 브뤼셀은 여행자제(2단계), 브뤼셀을 제외한 벨기에 여타지역은 여행유의(1단계)로 지정,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또한, 테러 위험 외에 단순 절도와 도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여행할 때는 반드시 신변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 사건·사고 현황

주재국내 외국인 이민자 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약 12%(132만명, 201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북아프리카, 중동 출신의 난민들이 대거 유입(14,823명 난민신청, 2017년)되고 있어 이들에 의한 소매치기 등 경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이들은 2~3명이 1조를 이뤄 시내에서 걸어가는 외국인 여행객에 길을 묻는 척하며 옷에 물이나 동전을 뿌려 여행객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소지품을 탈취, 도주하거나 소매치기하는 범죄 수법을 주로 사용하며 주재국내 우리 재외국민 피해건수는 매년 약 60여건 발생하고 있다.

■ 테러, 인질 상황 및 정세(정무과)

벨기에 정치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정변, 국지적 분쟁에 따른 위험은 없다. 그러나 주재국은 테러의 일반적 위험지역이다. 2016.3.22. 브뤼셀

테러 이후, 벨기에 내 테러 모의범이 지속 체포되고 있어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상시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한편, 브뤼셀은 유럽연합(EU) 본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 등의 중요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각종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시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영사과)

브뤼셀은 유럽지역의 교통중심지이며 항공, 철도의 환적지로 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왕래하고 있다. 브뤼셀시내 중심의 기차역들은 유럽지역 각 국가와 연결되어 있는 철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미디역, 북역, 중앙역 등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절도 등 조직적인 범죄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 난민출신 상습불법 체류자들이 외국인 해외여행객 중 아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 절도, 금품 요구 등 범죄의 발생률이높다.

3 유의해야 할 지역(영사과) 및 장소

일반적으로 브뤼셀 시내 주요역 근처와 대표적인 관광지인 그랑플라스, 쇼핑지역인 뇌브가(Rue Neuve)에는 소매치기가 많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또한 북역(Gare du Nord/Noordstation과 중앙역(Gare de Bruxelles-Centrale/Station Brussel-Centraal), 미디역(Gare du Midi/Zuidstation) 등 주요 역은 안전을 위해 밤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중 분실사고가 가장 빈발하는 지역은 미디역(Midi Station)역이다. 미디역은 유럽의 주요 도시를 잇는 열차들이 정차하는 곳으로 사람이 많고, 복잡하여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호텔에서 체크인, 체크아웃 때나 조식 도중 및 인근국가로 이동 중인 열차 안에서도 선반이나 좌석에 놓아 둔 가방 등을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소지품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8 현지 문화

(1) 인사문화

벨기에 사람들의 인사 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처음 만나거나, 사업상 만나는 관계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 없이 악수를 교환하는 것이 일반

적이며, 악수는 두 손이 아닌한 손으로만 한다. 보다 친근한 사이에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서로 볼을 맞대며 입으로 '쪽' 소리를 내거나, 볼에 가벼운 입맞춤을 하는데, 이를 비즈(Bise)라고 한다. 그러나, 친근한 관계에서라도 남성들끼리의 경우, 악수로 인사를 대신하기도 한다.

(2) 벨기에 음식

1 맥주

벨기에는 맥주로 유명한 나라이다. 벨기에 맥주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코올 함량이 비교적 낮은 라거에는 스텔라 아르투아, 주필러 등이 있다. 그 외, 알코올 도수가 6~8% 가량인 애비 맥주(수도원식 맥주), 트라피스트(수도원 맥주), 흑맥주, 백맥주 등이 있다. 벨기에는 맥주를 만드는 제조방식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편으로, 다양한 레시피로 맥주를 생산한다. 맥아, 홉, 정제한 물 이외의 다른 재료는 쓰지 않는 독일 맥주에 비하여, 과일 맛을 더한 맥주 등 여러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벨기에 맥주의 큰 특징이다. 브뤼셀에 위치한 '딜리리엄 카페'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맥주를 파는 펍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다. 현재 3,100여 종 이상의 맥주를 판매하는 것을 보면, 벨기에가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생산하는 나라인지 실감할 수 있다.

2 요리

벨기에 요리는 프랑스 요리에 영향을 받은 왈롱 요리와, 프랑스 요리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룬 플랑드르 요리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를 기초로 하고 있어, 벨기에 음식은 프랑스 북부 지방의 요리와 흡사하다. 지역을 대표하는 몇 가지 요리를 살펴보면, 겐트 지방의 향토 음식 중 하나인 Le Waterzooï는 닭고기 또는 생선을 양파, 부추, 샐러리, 당근 등의 야채와 함께 끓여내는 음식이다. 국물에 크림이 더해 고소한 맛을 낸다. 다음으로 플랑드르 스튜는 플랑드르 지역의 대표적 음식으로, 큰 소고기 덩어리에 당근, 양파 등의 야채와 맥주를 넣고 익혀낸다. 비교적 오랫동안 가열해 익힌 고기는 한국의 장조림을 연상시키지만, 약간의 달콤한 맛이 가미되어 장조림과는 다른 맛이다. 벨기에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단연 홍합요리이다. 신선한 홍합을 다진 양파, 다진 샐러리와 함께 익힌 이 요리는, 화이트 와인이 가미되어 홍합에 풍미를 더한다. 홍합 요리에는 벨기에 음식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감자튀김이 함께 제공된다.

3 후식

벨기에 음식문화에서 디저트 종류를 빼 놓을 수 없는데, 특히 벨기에 하면 떠오르는 디저트는단연 초콜릿이라 할 수 있다. 벨기에에는 500개 이상의 초콜릿 제조업체와, 2,000개 이상의 초콜릿 상점이 있다. 연간 17만 톤 가량을 생산하고, 그 중 약 7만 톤은 벨기에 내에서 소비하며 그 외 생산량은 모두 수출하고 있다. 초콜릿의 종류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밀크초콜릿, 쌉쌀한 맛이 강한 다크초콜릿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 외, 과일향이나 아몬드가 더해진 초콜릿까지 더한다면, 그 종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초콜릿은 벨기에 영토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스페인인들에 의해 전해졌다. 초콜릿은 벨기에에 전해지자마자 고급스러운 선물로 인식되었다. 1840년 벨기에의 한 회사가 태블릿 모양, 동전모양 등 여러 모양의 초콜릿을 유통시키기 시작하였고, 19세기 후반부터 초콜릿 산업이 호황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벨기에의 콩고 지배는 아프리카 카카오 농장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했다. 벨기에 초콜릿으로 유명한 브랜드로는 노이하우스, 레오니다스, 고디바, 코르네, 다스칼리데스, 피에르 마르콜리니 등이 있다.

벨기에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와플이다. 브뤼셀 와플, 리에주 와플 등 지역마다 와플의 맛과 종류가 다른 것이 특징이다. 차갑게 또는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과일을 더하거나 생크림 또는 아이스크림을 곁들여 먹기도 하며, 슈거 파우더만 뿌려서 먹기도 한다.

9 기타

(1) 기후

벨기에 여름 기온은 25~30도까지 올라가지만 한국처럼 습도가 높지 않고 건조해 지내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겨울에는 독일, 룩셈부르크와 접한 국경 지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상 기온을 유지하며 겨울에도 섭씨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비록 겨울에 한국보다 평균 기온이 높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이 많으므로 체감온도는 조금 더 낮은 편이며, 맑은 날씨였다가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우산은 항상가지고

다니는 것을 권한다.

〈월평균 기온(단위: 섭씨, 2015년 2월 기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3	3.7	6.8	9.8	13.6	16.2	18.4	18.0	14.9	11.1	6.8	3.9

(2)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8시간으로 한국이 자정일 때 벨기에는 오후 4시이다. 서머타임(3월 마지막 일요일 새벽 2시에 3시로 변경) 동안에는 한국과의 시차가 7시간으로 평소보다 1시간 짧아져 한국이 자정일 때 벨기에는 오후 5시가 된다. 서머타임이 해제되면 시차는 다시 8시간으로 돌아간다.

(3) 교통

벨기에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출장, 여행 시 이동에 큰 어려움이 없다.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에는 지하철(메트로), 트램, 버스 등이 있으며, 지방에서도 버스나 트램을 이용할 수 있다.

1 철도

벨기에 철도청의 공식명칭은 NMBS/SNCB(네덜란드어명칭/프랑스어명칭)이며 다른 교통수단보다 각 도시 간 이동이 수월하고 빨라서 출장 시 도시이동이 있을 때 이용하면 편리하다. 벨기에는 지리적 특성상 서유럽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인접국가(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영국, 네덜란드)와 연결되는 고속열차(Thalys, TGV, ICE, Eurostar)를 타고 해당 국가 주요 도시로 이동할 수 있다. 기차표는 해당 역사 내에 위치한 매표소나 자동판매기에서 살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다. 도시 간 이동 시에는 고속열차나 일등석이 아닐 경우 자리 예약시스템이 없으므로, 미리 예매하지 않아도 가격차이가 나지 않으며 당일에 매표소나 자동판매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 기차표 인터넷 예약 사이트

구분	홈페이지
국내 이동(벨기에)	www.belgianrail.be/en
EU-벨기에 이동	www.b-europe.com/Travel

■ 벨기에 내 주요 기차역 정보

• 브뤼셀 중앙역(Brussel-Centraal/Bruxelles-Central)

주소	매표소 영업시간	짐 보관소	주차장	환승 교통수단
Carrefour De L'Europe 2, 1000 Bruxelles	06:15~22:00	O	X	버스, 지하철

• 브뤼셀 미디역(Brussel-Zuid/Gare de Bruxelles-Midi)

주소	매표소 영업시간	짐 보관소	주차장	환승 교통수단
Avenue Fonsny 47B, 1060 Brussel	06:15~22:00	O	O	버스, 지하철, 트램

• 브뤼셀 북역(Brussel-Noord/Bruxelles-Nord)

주소	매표소 영업시간	짐 보관소	주차장	환승 교통수단
Rue du Progrès 76, 1030 Schaerbeek	06:15~22:00	O	X	버스, 트램

2 지하철

브뤼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이다. 지하철은 매일 오전 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티켓은 1회권, 5회권, 10회권, 1일권 등 다양하다. 가격은 1회권 2.10유로, 왕복권 4.20유로, 5회권 8유로, 10회권 14유로, 1일권 7.5유로이다. 1일권 표로 브뤼셀 국제공항까지 가는 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표는 모든 역에서 구입가능하며, 큰 역에는 표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창구가 있지만 작은 역인 경우 자동판매기를 이용해서 구입해야 한다. 자동판매기의 경우 현금 지불이 불가능할 수 있어 비상시를 대비해 카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3 버스 및 트램

브뤼셀 외의 도시에서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버스나 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 버스 및 트램 회사는 크게 STIB, DE LIJN이 있는데 티켓은 버스나 트램 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반 표보다 조금 비싼 편이다. STIB의 일반 1회권 비용은 2.10 유로이나 버스 내 구입 시에는 2.5 유로이다. DE LIJN의 경우, 1시간 동안 유효한 티켓 가격은 3 유로이다.

버스회사	홈페이지
STIB	www.stib-mivb.be/index.htm?l=en
De Lijn	www.delijn.be/en/

4 택시

공항, 기차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택시를 이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전화나 인터넷으로 픽업을 예약해야 한다. 기본요금은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는 2.40유로, 그 외 시간에는 4.40유로이다. 또한 브뤼셀 시내는 1km당 1.80유로, 브뤼셀을 벗어나면 1km당 2.70유로의 요금이 발생한다.

픽업 서비스	관련 정보
Taxis Verts	- 홈페이지: www.taxisverts.be - 전화번호: 02-349-49-49

5 렌터카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 없는 곳을 가려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차량이용료는 하루에 약 120유로(Volkswagen GOLF 기준) 정도이다. 이용 전에 미리 홈페이지를 방문 또는 전화로 이용가능 차량, 가격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면허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보증금(일반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 후 반납 시 결제가 취소됨)을 내야할 수도 있으며, 유럽은 일반적으로 수동변속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동변속 차량은 수동변속 차량보다 좀 더 비싼 편이다.

■ 주요 렌터카 사이트

업체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Europcar	02-348-92-12	www.europcar.be
Hertz	02-513-28-86	www.hertz.be
Avis	02-730-62-11	www.avis.be
Rent a car	0800-99-999	www.rentacar.be

(4) 통신

출장 목적으로 벨기에를 방문한다면, 이용료가 조금 비싸도 한국 번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로밍(Roaming) 서비스를 신청하고 오는 것이 좋다. 현지에서 선불 SIM 카드를 구입하면 구입 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 간편하지만 이 경우 원래 쓰던 한국 번호가 아닌 현지 번호로 바뀌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한국에서 가져온 이동전화기가 최신기종이라면 바로 현지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아닌 경우 컨트리 락(Country Lock)을 해제하고 와야 한다.

■ 한국-벨기에 통화방법

- 한국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0082(한국 국가번호)+지역번호(앞자리 0은 제외)+해당 전화번호
- 벨기에로 전화를 거는 경우 001+32(벨기에 국가번호)+지역번호(앞자리 0은 제외)+해당 전화번호

(5) 환전 및 신용카드 사용

벨기에는 한국과 달리, 현금거래를 취급하지 않는 은행 지점이 많아서 시중은행에서 환전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리 환전을 해오거나 현지 환전소를 이용해야 하는데, 브뤼셀 시내에서는 그랑플라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반 상점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신용카드(마스터카드, 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식당 및 상점에서는 현금 거래만 하는 곳이 종종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근처의 현금지급기에서 인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6) 공휴일

2017년 벨기에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전날인 금요일이나 또는 다음날인 월요일을 휴일로 결정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날짜	공휴일(프랑스어/네덜란드어 표기)
1월 1일(목요일)	신정(Jour de l'an/Nieuwjaar)
3월 27일(일요일)	부활절(Pâques/Pasen)
5월 1일(금요일)	노동절(Fête du travail/Feest van de arbeid)
5월 5일(목요일)	예수승천일(Ascension/O.h.hemelvaart)
5월 15일(일요일)	오순절(Pentecôte/Pinksteren)
7월 21일(화요일)	독립기념일(Fête nationale/Nationale Feestdag)
8월 15일(토요일)	성모승천일(Assomption/O.l.v tenhemelopneming)
11월 1일(일요일)	만성절(Toussaint/Allerheiligen)
11월 11일(수요일)	1차대전 종전기념일(Armistice/Wapenstilstand 1918)
12월 25일(금요일)	크리스마스(Noël/Kerstmis)

(7) 기타

1 전기 규격

벨기에의 모든 전기플러그는 220V, 50Hz로 한국과 주파수는 약간 다르며 접지 플러그(가운데에 동그란 구멍이 있음)로 되어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용하던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멀티 탭을 따로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2 응급

대부분의 병원에는 응급실이 있으며 응급실로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번호인 100번을 전화를 걸면 구급차가 와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해준다. 다만, 현지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 치료비가 비교적 비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식수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할 수 있으나 석회가 비교적 많아 수돗물이 몸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통 미네랄워터를 구입해 식수로 마신다. 현지 식당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물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 싶을 때는 별도로 미네랄워터를 주문해야 한다. 500ml 용량의 경우 3유로, 1L 용량인 경우에는 6~7유로 선이다.

4 이발소, 미용실

이발이나 미용비가 아주 비싸고 이발 방식도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행 출발 전 한국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머리를 자르는 비용은 남성의 경우 20~30유로, 여성의 경우 30~40유로 가량 든다. 펌을 하는 경우에는 70~80유로 선이다.

5 여권소지

벨기에에 출장을 오는 한국인들은 여권분실을 우려해 숙소에 보관해두고 몸에 소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일 벨기에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여권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명서이므로 반드시 소지하는 것이 좋다.

6 비상 연락처

- 응급의료 서비스, 화재&범죄 신고 100
- 유럽 긴급구조대 102
- 약물, 식품중독 070 245 245
- 중화상 02 268 6200
- 교통사고 112(EU동일)

10. 벨라루스

1 개황

- **수 도 :** 민스크(Minsk, 인구 198만 명, 2018년 기준)
- **인 구 :** 945만 명(2018년 기준, 세계 93위)
- **면 적 :** 207,600㎢(한반도 면적과 유사)
- **민족구성** : 벨라루스인 (83.7%), 러시아인 (8.3%), 폴란드인(3.1%), 우크라이나인(1.7%), 기타(3.2%)
- **종 교 :** 러시아정교(83%), 가톨릭(9.5%), 기타(2%)
- **시 차 :** 한국 시간 -6
- **언 어 :** 벨라루스어(국어), 러시아어(국어)
- **1인당 GDP:** 6,300 미달러(2018년 기준, IMF)
- **우리나라와의 교역 :** 1억 59백만 달러(수출: 1억 18백만 달러, 수입 4,190만 달러(2017, 벨라루스통계청))

2 문화적 특성

(1) 국가명의 기원과 가설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 '백러시아(White Russia)'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나라이다. 벨라루스라는 이름 자체가 '백러시아'라는 뜻인데 그 기원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지만 몇가지 설이 있다.

① 흰 옷을 즐겨 입던 동슬라브족 거주지를 백러시아라고 불렀다는 설
② 13세기 몽골군의 침입시 몽골군의 침략을 받지 않은 지역을 백러시아라고 불렀다는 설
③ 리투아니아대공국의 동슬라브족 거주지역(Ruthenia) 중 일찍 기독교화된 슬라브족 거주지를 백루스(White Ruthenia), 기독교화되지 않은 슬라브족 거주지를 흑루스(Black Ruthenia)라고 불렀다는 설
④ 백러시아는 15세기에 모스크바대공국이 점령한 노브고로드 공국 지역을 지칭한다는 설

'백러시아'라는 명칭의 또 다른 요소인 '러시아'에 대해 위키피디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루스(Ruthenia 또는 Rus)라는 명칭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중세 이래 동슬라브족이 거주하던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이었는데, 모스크바 대공국이 이반 4세 이후 키에프루스의 후계자로 자처하면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로부터 동슬라브족 거주지역을 탈취하고 동슬라브지역의 종주권을 주장하기 위해 루스의 국가, 즉 '러시아'라고 자칭했다. 따라서 벨라 '루스'라는 명칭은 현재의 러시아와는 무관하며 영어명칭도 'White Rus'가 정확하겠으나 루스가 러시아로 변화된 관행에 따라 'White Russia'라고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벨라루스의 국명을 표기하는 방법도 백러시아, 벨로루시, 벨라루스 등으로 변화해 왔다.

(2) 유럽 역사의 전략적 요충지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벨라루스가 역사 기록상 등장하는 것은 6세기경으로 폴로츠크 공국 등 여러 공국들에 이어 오늘날 러시아의 기원이 된 키예프루스의 지배를 받았으나, 키예프루스가 몽골의 침략으로 붕괴된 이후 오늘날의 벨라루스에 해당되는 공국들은 대부분 리투아니아대공국에 병합되었고, 리투아니아대공국은 1410년 폴란드와 동맹하여 동유럽 북서부의 넓은 지역을 지배하기에 이른다.

리투아니아-폴란드연방은 15세기 말 이래 우크라이나 및 벨라루스 등을 겨냥한 러시아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어, 3차에 걸친 폴란드 분할을 통해 러시

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게 1795년에 최종적으로 분할되었다. 벨라루스는 이 때 대부분 러시아에 편입되었다. 벨라루스는 19세기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과 러시아의 반격 시 진격 루트가 되었고, 1차대전 시 독일군과 러시아 군의 격전지가 되었으며, 2차대전 시 독일군의 소련으로의 진격로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독일과 소련의 중심부로 진격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벨라루스가 입은 피해는 독일군이 마을 주민 전원을 학살한 하틴(Khatyn)의 추모 기념물이 말해주고 있다.

(3) 벨라루스의 현재

벨라루스는 2차 세계대전으로 3년간 20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입었고 산업시설의 80% 이상이 파괴되었으나, 전쟁 종료 후에 소련의 주도로 적극적인 전후복구와 산업부흥을 통해 소련 내 제조업 중심지로 발전하게 된다. 동서냉전에 이어 소련의 해체를 계기로 벨라루스는 1990년 공화국으로 독립하여 대통령제 헌법을 채택하고 알렉산더 루카센코가 1994년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최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2012년 벨라루스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과 함께 관세동맹을 체결하였고, 2015년 이 관세동맹을 확대하여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결성하였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이 크리미아 사태를 이유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자, 러시아와 통합경제권 형성을 추진하던 벨라루스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2015년부터 벨라루스 루블화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였으며, GDP를 비롯한 각종 명목 경제지표 역시 크게 악화되었다.

(4) 평화를 사랑하고 문화를 존중하는 숲과 호수의 나라

벨라루스인들은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 간의 전쟁에 휘말려 19세기 나폴레옹 전쟁, 1, 2차 세계대전을 겪어야 했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등 대형 사고에 시달렸음에도 평화를 사랑하고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온순한 국민성을 지니고 있다.

지하자원이 부족하지만 국민들의 교육열이 높고 근면하여 과거 소련시절부터 과학기술과 산업이 발전했다. 또한 벨라루스 비첩스크 출신인 마르크 샤갈을 비롯해 훌륭한 예술인들을 배출하였고, 높은 수준의 발레와 오페라 공연이 연중

이루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푸른 숲과 호수를 지닌 문화와 자연의 나라이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2010년경부터 벨라루스의 청소년, 대학생들이 K-Pop과 드라마를 인터넷으로 시청하는 등 한국 대중문화(한류)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현재 K-Pop 동아리를 중심으로 마니아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BTS(방탄소년단), EXO 등 남성그룹 인기가 높다. 최근에는 국내 대학과 벨라루스 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면서, 한국 생활을 경험해 본 유학생들이 늘어나 한류의 확산이 기대된다.

(2) 분야별 현황

1 드라마

2010년 벨라루스 공중파 8TV에서 〈바람의 화원〉이 방송되었고, 2012년 5월 28일부터 〈태양의 여자〉가 8TV에서 방영되었으며, 2013년 3월 〈대장금〉이 벨라루스의 유력 국영방송사인 BTRC 제1채널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2015년 가을에는 드라마 〈온에어〉가 방영되었다.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는 벨라루스 공중파 채널인 2TV에서 〈대장금〉이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2 영화

2007년 11월 제14회 민스크국제영화제에서 〈밀양〉이 작품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대사관에서 2008년 1월 한국영화제를 개최하여 〈내 머릿속의 지우개〉, 〈허브〉 2편을 소개하였으며, 2011년 11월 제18회 민스크국제영화제 초청으로 〈하녀〉가 상영되었다. 2014년 6월에는 민스크 시내 파베다극장에서 한국영화제를 개최하여 〈건축학 개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오늘〉 3 편을 상영하였고, 2014년 9월 개최된 한국 가을 문화축제에서는 〈피끊는 청춘〉, 〈오직 그대만〉 2편을 민스크언어대 대강당에서 상영한 바 있다. 2015년에는 처음으로 수도가 아닌 지방 그로드노에서 통일영화제를 개최했으며, 2015년 10월에는 한국영화제를 개최, 〈관상〉, 〈노브레싱〉,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상영

했다. 그밖에도 2015년 11월 민스크에서 개최된 「Listopad」 국제영화제에 진모영 감독의 〈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가 비경쟁부문에 출품, 상영되었다. 2016년 5월에는 한국영화제가 개최되어 〈전국노래자랑〉, 〈끝까지 간다〉, 〈역린〉 등 3편이 상영되었으며, 8월에는 민스크 아레나 시티에서 영화 〈아가씨〉가 러시아어로 개봉했고, 10월에는 영화 〈플랜맨〉, 〈캐치미〉,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가 민스크 한국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2016년에는 그로드노, 모길료프, 브레스트 등 지방에서도 한국 영화 상영 행사가 개최되었다.

2017년 5월에는, 한-벨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영화제가 개최되었다. 동 영화제는 민스크 시내 피오네르 극장에서 3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장수상회〉, 〈괴물〉, 〈도둑들〉, 〈완득이.〉, 〈약장수〉 5편이 상영되었다. 이어 6월에는 브레스트 시, 그리고 7월에는 비쳅스크 시에서 양국 수교 25주년 기념 영화 상영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9월에는 고멜시에서, 11월에는 모길료프에서 한국영화제가 개최되어 〈두레소리〉, 〈고지전〉, 〈족구왕〉이 상영되었다.

2018년에도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으로 민스크(3월, 10월), 그로드노(6월), 비쳅스크(7월), 고멜(10월), 브레스트(11월 예정) 등 다양한 지방에서 한국영화제가 개최되어 벨라루스 시민들이 다양한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3 K-Pop

벨라루스 내 K-Pop은 그 특성상 자주 소속 회원이 변경되고, 동호회도 오래 존속되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대사관 행사 참여를 기준을 하였을 때, 현재 약 30개 K-Pop 댄스 동호회에서 200여 명의 회원들이 자체 활동과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밖에도, 현지에서 활동 중인 동호회 및 그 회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 동호회원(현재 1,000여 명 회원)들이 페이스북과 유사한 러시아권의 'Vkontakte'를 통해 K-Pop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4 한식

벨라루스 내에는 현지 고려인식 샐러드를 판매하는 식당을 제외하고는 한식당이 전무하다. 또한 한국 라면을 비롯한 한국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곳도 드물다.

5 한국어

벨라루스에서 한국어 교육은 벨라루스 고려인 협회가 운영하는 한글학교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다. 고려인 한글학교는 고려인뿐 아니라 한국에 관심을 갖는 현지인들을 위해 한국어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 명의 수강생이 어린이반, 초급반, 중급반으로 나뉘어 수업 받고 있다. 강사는 현지 선생님과 우리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학교에서는 전통악기, 전통무용, 한복 체험 등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아리랑 가무단'을 창단해 함께 운영 중이다.

벨라루스 국립대에는 국제관계학부 동양어 및 동양학과에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운영 중이며, 2014년 동 대학 건물 내에 세종학당이 설립된 이래 한국어를 공부하는 벨라루스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지에서 한국어 공부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세종학당 모집이 조기 마감되는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세종학당은 한국어 교육과 문화수업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학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민스크국립언어대에서는 동양어학과에 한국어 제2전공 과정이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민스크 내 김나지움(12번, 14번)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설 학원도 생기는 등 벨라루스 내 한국어 학습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주 벨라루스 대사관은 매년 봄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추가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가을에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가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벨라루스 국립대 세종학당과 민스크국립언어대, 주 벨라루스 대사관 4층에는 '코리아코너'가 개설되어 현지인들에게 한국어 교재,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 자료, 한국 소설, 한국 영화, 한국 음악 CD등을 대여해주고 있으며, 한국 영화보기, 붓글씨 쓰기와 같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병행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돕고 있다.

6 기타 산업 파급효과

한류로 인한 한국제품(화장품 등)의 수요 및 판매가 늘어나고 있으며, 동호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K-Pop 가수들의 패션 등을 모방하고자 하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 현재 민스크 대형 쇼핑몰에 한국화장품 매장이 입점하였으며, 대형 마트

화장품 코너에서 한국산 마스크 팩 등이 개별 판매되고 있는 등 한국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벨라루스인, 특히 청소년층에게 한류는 과거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동양 문화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K-Pop은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도, 댄스 음악, 힙합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 역시 한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K-Pop에 대한 관심, 동양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많은 현지인들이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인상 깊었다고 답하는데, 이는 동양적인 분위기가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관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대부분의 구소련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벨라루스 또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관심이 없어서 결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촉하지 말고 차분히 의견을 교환하며 교류를 성사시키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벨라루스 내 한류 동호회는 주로 K-Pop 동호회로서 자체 활동과 연습을 통해 K-Pop을 즐기고 있으며, 주로 클럽을 활용하여 활동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층이 참가하고 있다.

(2) 동호회별 현황

1 K-Pop 동호회 현황(2018년 대사관 행사 참가 기준)

No.	동호회	웹사이트
1	K-19	https://vk.com/k19_cover_team
2	13 S Crew	x
3	Neverlend	https://vk.com/neverlend_dance_band
4	Billie Jean	x
5	Brutal Kek$i$	https://vk.com/brutalkeksisclub
6	Dirty Cake	x
7	DISU	x
8	EIGHT FIREWORKS	x
9	FDM	https://vk.com/public152409618
10	For a while	x
11	FullMoon	x
12	Gloria dance Studio	https://vk.com/club3242846
13	HiD	x
14	IMPS	x
15	JMLV	https://vk.com/juliasavitskaya
16	K-19	x
17	ML5	https://vk.com/ml5324
18	M.tit	x
19	O.K	https://vk.com/ok_danceteam
20	Plediki	x
21	Pinewood	x
22	q'Win's	x
23	SAVVY	x
24	Second Breath	https://vk.com/secondbreathcdt
25	Suavi Sol	https://vk.com/suavisol
26	TAIYO	https://vk.com/taiyothesunshine
27	TLS	x
28	Wiggle Crew	https://vk.com/wigglecrew

No.	동호회	웹사이트
29	YEHET	https://vk.com/cdbyehet
30	Бабко Екатерина	https://vk.com/id134353601
31	Светлячок Лу	https://vk.com/s.ustinenko
32	Atashi	x
33	ForEnds	https://vk.com/forever_friends_for_ends
34	RGGA	https://vk.com/rgga_1live2live

6 최근 문화행사

주벨라루스대사관에서는 최근 한류를 수도 이외의 지방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부터 매년 주요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영화제 및 한국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민스크 시, 고려인협회와 함께 민스크시 자유광장에서 한국여름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2018년 한국여름문화축제는 고려인아리랑 가무단의 전통무용공연, 태권도진흥재단 시범단의 공연, K-Pop 공연 등을 선보였다 . 부대행사로 한복체험, 서예체험, 전통놀이 체험, 교육상담회, 한국관광홍보전, 전통탈 만들기 등 시민들과 직접 상호소통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2016년부터 '한국 알기 연속 강좌'를 개최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친한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K-Beauty, 한국전문가초청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7 여행정보

(1) 비자

일반여행객은 입국하기 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한벨라루스대사관 및 영사관이 소재한 제3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로 공연 비자를 취득할 필요는 없다. 주한벨라루스대사관 또는 주벨라루스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무비자

30일 체류요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주한벨라루스대사관 연락처
- 영사과 업무시간(비자, 공증, 기타) : 09:30~12:00(월~금)
- 연락처 : (02) 2237-8171 (대표, 영사과), (02) 2237-8173 (상무과), (+82-2) 2237-8174 (팩스)
- 긴급문의 : 010-2568-2291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45길51
- 홈페이지 : korea.mfa.gov.by/ko/
- 이메일 : korea@mfa.gov.by (대표)
  korea.trade@mfa.gov.by (무역 및 투자 문의)
  korea.consul@mfa.gov.by (영사 문의)

(2) 안전정보

1 여행경보단계 : 미분류

2 사건·사고 현황 및 치안

외국인에 대한 테러, 인질사건 발생이 거의 없으며, 극우 민족주의 성향 세력에 대한 강한 통제정책으로 외국인에 대한 폭력사례는 매우 드문 편이다.

벨라루스 전 지역의 치안 상황은 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경범죄까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양호한 편이나,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소매치기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두고 내릴 경우 유리를 부수고 물건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3 자연재해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국가로서 원전 피해 지역(특히 고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의 섭취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 배수시설이 좋지 않아 대로가 침수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4 유의해야 할 지역

지하철이나 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잡한 곳에서 소매치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 늦은 시간 클럽 등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우발적인 구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적이 드문 외진 곳으로 혼자 통행을 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8 현지 문화

(1) 면담 및 복장

벨라루스 관계자와 사전에 면담을 약속했더라도 방문 전날 혹은 당일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약속을 재차 확인하며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성공적인 면담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벨라루스는 아직도 권위적인 구소련 시대의 분위기가 있으므로 면담을 할 때는 정장을 하는 것이 좋다.

(2) 언어 장벽

벨라루스 국민들은 구소련 시대에 영어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외국어 교육을 받은 젊은 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현지 여행사를 통해 영어 통역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

(3) 오만찬

Host측의 건배 제의를 시작으로 교대로 건배를 제안한다. 건배할 때는 가장 선임자나 연장자를 보고 일어나서 술잔을 들며 간단한 덕담을 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건배는 여성과 사랑에 대해 제안하며, 네 번째 건배는 여성이 제안하는 관습이 있다. 헤어질 때는 악수로 감사를 표시한다.

(4) 종교관련

벨라루스는 러시아정교 83%, 기타 종교(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단, 선교활동을 할 경우에는 체류에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무자격으로 선교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강제 추방될 수 있다.

(5) 팁 문화

소액의 경우에는 팁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나, 식대의 5~10% 수준에서 팁을 주고 있다. 반드시 가격의 10%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9 현지 연락처

(1) 의료기관 연락처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별로 높지 않은 편이다. 병원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예약이 필요하며, 장기체류하는 사람의 경우, 병원과의 계약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응급상황시 구급차(103)나 의사를 호출해 가정이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과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약(소화제, 감기약 등)을 구분해 판매하며, 약국(현지어 : 아쁘쩨까)은 시내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영업시간은 보통 09:00~20:00이고(간혹 21:00까지 여는 곳도 존재), 24시간 영업하는 약국은 '24'라는 표시가 있다. 병원이나 약국 대부분은 영어가 통하지 않으므로, 벨라루스 방문 전 미리 비상약(소화제, 설사약, 두통약, 파스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민스크 소재 주요 의료기관

■ 에코메드 서비스

- 주소 : Minsk, tolstogo, 4
- 연락처 : 207-7474(접수창구), 160(응급전화)
- 홈페이지 : http://ems.by/(영문검색 가능)

■ 로대 의학센터
- 주소 : Minsk, gikalo,1
- 연락처 : 80-29-638-3003/293-9800(소아과), 111(응급전화)
- 홈페이지 : www.lode.by/

■ 노르딘 의학센터
- 주소 : Minsk, surganova, 47b,
- 연락처 : 296-6272, 159(응급전화)
- 홈페이지 : https://nordin.by/

(2) 주 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 주소 : 220035, Minsk, Ave. Pobediteley 59, 5th floor
Victoria Hotel 바로 옆 건물(Business Center)에 위치,
영사과는 같은 건물 4층
■ 전화번호 : (375-17) 306-0147~9, 0155~6
■ 팩스 : (375-17) 306-0160(대표), 0157(영사과)
■ E-mail : belemb@mofa.go.kr
■ 홈페이지 : overseas.mofa.go.kr/by-ko
■ 비상시 연락처 : (375-29) 369-1320
■ 업무시간 : 월~금요일 09:00~17:30 (점심시간 12:30 ~ 14:00)
■ 대사관 휴무일 : 주재국 공휴일(대사관 홈페이지 참고)과 대한민국 4대 공휴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휴무

10 기타

(1) 날씨

온화한 대륙성 기후로 동계에는 기온이 영하 -20℃까지 달하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다습하나, 때로 여름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경우도 있다.

■ 평균기온 : 5~8℃(여름 : 17~19℃, 겨울 : -4~8℃),
■ 연 평균 강수량 : 560~660mm

(2) 교통정보

1 대중교통

벨라루스의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지하철, 버스, 트롤리버스, 트램과 미니 버스가 있으며, 승차권 구입은 정류소에 위치한 매표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회당 0.65 BYN(한화 약 500원)이다. 다만, 미리 표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전기사에게 구입할 수 있으며, 이때는 일반 요금보다 0.05 코페이카 비싼 0.70 BYN를 지불해야한다.

■ 열차

벨라루스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한 국가(러시아 제외)로 열차편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으며, 국경 통과시 출입국관리직원 및 세관원이 객실마다 방문해 여권과 수화물을 검사한다. 단,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벨라루스-러시아 구간 육로(열차, 버스 등) 이동 금지된다.

■ 지하철(메트로)

현재 민스크에는 2개의 노선이 남북의 방향으로 개통돼 운행중이며 25개의 역이 있고, 오전 5:30분부터 새벽 00:40까지 운행한다. 지하철역 내부의 매표소에서 제톤(동전 모양의 붉은 플라스틱 탑승권)을 구입한 후, 개찰구에 투입하고 통과하면 된다. 현재 지하철 3호선이 건설 중에 있다. 2014년 착공한 해당 노선은, 2020년까지 4개 역을 완공하여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버스, 트롤리버스, 트램

승차 후 승차권을 내부에 설치된 펀치로 뚫어 검표를 스스로 해야 하며, 만약 검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 택시

벨라루스 전 지역에 콜택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이용이 편리하며, 주요 콜택시 번호는 국번 없이 107, 135, 152, 7788 등이 있으며, 135와 7788이 가장 많은 택시를 보유하고 있어 기다리는 시간이 비교적 적다. 다른 CIS국가와 달리 자가용 영업택시는 거의 없으며, 콜택시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길거리에서 택시를 바로 잡기는 쉽지 않다. 택시를 바로 잡으면 오히려 요금이 더 비싸다. 대부분의 택시에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요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2월부터는 러시아 검색 엔진 얀덱스의 어플리케이션 기반 택시 이용 서비스인 얀덱스(Yandex) 택시가, 동년 11월부터는 미국의 어플리케이션 기반 택시 이용 서비스인 우버(Uber) 택시가 영업을 시작하였다. 어플리케이션 기반 택시들은 사용자가 해당 택시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은 후, 본인의 위치를 입력하면 그 장소로 택시가 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도로교통

횡단보도 표시판이 설치된 지역에서 신호등이 없을 경우 보행자가 우선이며, 트램 열차 정류소에서 트램이 정차시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선관계에 관해 특별 표지가 없는 한 로터리에서는 이미 진입한 차량이 진입하려는 차량보다 우선하며, 시내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고 고속도로는 80~100km 또는 120km이다. 차량 운전자와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3)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사고 발생시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차량을 사고 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임의로 차량 이동시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음). 신속히 교통경찰(전화번호 : 222-1717)에 신고한 후, 교통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뒤 차량 등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통경찰의 사고 조사 후 교통사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4) 기타

1 전력사용현황

컴퓨터, 오디오 제품 및 기타 모든 전자 제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전압이 220V이나 50Hz로 우리나라(60Hz)와의 차이가 있어 모터를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간혹 고장 나는 경우가 있다.

2 언어

러시아어, 벨라루스어가 국어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관공서의 문서는 주로 벨라루스어로 작성된다.

3 환전

2016년 7월 1일을 기해, 벨라루스 중앙은행은 통화 단위를 10000:1비율로 낮추는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을 시행하였다. 현재 1, 2, 5, 10, 20, 50 코페이카(100코페이카=1루블)와 1, 2루블 등 총 8종의 동전이 있으며, 지폐는 5, 10, 20, 50, 100, 200, 500 루블 등 7종이 유통되고 있다. 환전은 공항, 호텔 및 시중은행, 그리고 시내 곳곳에 설치된 환전소에서 손쉽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적당량씩 환전하는 것이 좋다.

※ 환율 : US$1 = 2.15BYN (2018년 9월 현재)
호텔이나 시내 유명 상점 또는 레스토랑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일반 상점에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계산시 일반적으로 점원이 결제수단을 물어보면 카드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VISA, MAESTRO 등 대부분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4 통신

■ 우편

국제우편이나 소포 등을 DHL, FEDEX, TNT, UPS 또는 벨라루스 중앙 우체국에 위치한 EMS를 통해 받거나 보낼 수 있으나, 다른 운송업체에서는 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소포를 찾으러 세관으로 가야한다. EMS 외의 화물은 별도 보관료 및 통관 수수료를 부담하므로 가급적 EMS 이용이 바람직하다.

■ 전화

※ 국내전화

- 일반전화 → 일반전화 : (000-0000 전화번호 : 7자리)
- 일반전화 → 휴대폰 : 8-0-(통신사코드 2자리)-000-0000
- 휴대폰 → 휴대폰 : +375-(통신사 코드 2자리)-000-0000
- 휴대폰 → 시내전화 : +375-17-000-0000 또는 #000-0000

■ 인터넷 사용 현황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다. By.fly라는 공용 무선인터넷은 우체국에서 Wifi 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1시간, 3시간, 1일, 3일, 5일권이 있으며, 가격은 1일권 2.55 BYN. 5일 권 4.75 BYN이다). 인터넷망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된 편이며, 택시나 장거리 버스에서 Wifi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Belcom, MTC 등의 통신사 매장을 방문하여 여행자용 심카드를 구입, 사용할 수 있다.

11. 불가리아

1 개황

- **수 도 :** 소피아(인구 127만 명)
- **인 구 :** 710만 명(2017년)
- **면 적 :** 11만㎢(한반도의 약 1/2)
- **민족구성 :** 불가리아인(84.8%), 터키계(8.8%), 집시(4.7%), 기타(러시아인, 그리스인, 마게도니아인 등 1.7%)
- **종 교 :** 동방 정교(82.6%), 이슬람교(12.2%), 천주교(1.7%), 개신교(1.6%), 무교 및 기타(1.9%)
- **시 차 :** 우리시간 -7(서머타임시 -6)
- **언 어 :** 불가리아어
- **1인당 GDP('17년, 명목) :** 20,409불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 총 교역 2.9억불(수출 1.4억불, 수입 1.5억불)

2 문화적 특성

불가리아는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에서 흑해를 접하고 있고, 바다, 산, 강, 호수, 동굴, 암석지대, 평야 등 사막을 제외한 모든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남한 면적과 거의 유사한 국토면적 등 우리와 많은 점이 닮은 나라이다. 지정학적으로 서유럽과 소아시아, 중동을 잇는 길목에 위치해 항상 주변 국가들의 침략에 시달렸으나, 언어, 문화 등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다는 점 역시 우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9세기에 창제되어 현재까지도 러시아 및 여타 동유럽 다수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키릴문자가 바로 불가리아에서 발명되었으며, 우리가 한글에 대해 가진 것처럼 불가리아 국민들은 고유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영어 구사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재국의 종교는 동방 정교가 80% 이상이며, 오스만제국 지배시기(1396~1878)에도 크고 작은 수도원들의 활동을 통해 불가리아의 문화, 전통, 역사, 학문 등을 지켜내고 발전시킴으로써 주재국의 역사와 함께해온 민족종교로 자리매김하였다.

불가리아인들은 교육을 특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문맹률은 1.6%에 그치고 있고, 음악에도 재능이 있어 피아니스트 알렉시스 바이센베르크, 소프라노 게나디미트로바, 테너 보리스 흐리스토프 등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음악인들을 다수 배출하였다.

음식문화도 우리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밀과 함께 쌀 소비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발효식품도 일반화되어 있다. 주로 섭취하는 배추, 호박, 가지, 감자는 우리와 다를 바 없으며, 서유럽과 달리 파, 마늘 소비도 많다. 매운 맛도 즐기는 편이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 수년간 세계적인 한류의 영향으로 청년층 사이에서는 K-Pop, 드라마 등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 자발적으로 한류팬 동호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소개 문화행사, K-Pop 플래시몹 등 자발적으로 이벤트를 수시 개최함으로써,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학 및 한국어 학습 수요도 함께 증가하여, 소피아대학은 2010년부터 한국학과를 독립학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외국어전문학교인 소피아 제18번 학교에는 현재 300명 이상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지방에 소재한 벨리꼬 타르노보대학이 2012년에, 플로브디프대학이 2014년에 각각 한국어강좌를 새로 개설하는 등 한국어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1 한국학 및 한국어

1995년 소피아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 한국학 전공이 개설되고 2010년에는 한국학과가 독립학과로 승격되었다. 같은 해 바르나 경제대학교에서는 1년간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2012년에는 벨리코타르노보 국립대학이, 2014년에는 플로브디프대학이 한국어를 교양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였고, 현재는 응용언어학과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다.

한편, 일반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소피아 소재 제18번 학교(윌리엄 글래드스톤)에서 2011년부터 중·고교 해당 학년에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채택한 교과과정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초등학교까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5년 1월부터는 바르나 소재 제8번 학교에서는 1학기간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어 주말반을 운영한 바 있으며, 바르나 소재 제1번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2016년 9월부터 한국어 수업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였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부르가스의 3개 학교(Professional High School in Computer Programming and Innovations, Alexander Kodjakafaliata, English School “Geo Milev”)에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 외 한류 전파의 영향으로 학생 및 직장인들을 포함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소피아, 바르나 등 주요 도시 사설 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요에 비해 전문 강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2 태권도

1976년 불가리아에 최초로 한국 태권도가 소개되었으며, 1994년 불가리아 태권도 협회 WTF(Bulgarian Taekwondo Federation)가 설립되었다.

1992년부터 우리 정부는 태권도 사범, 단기봉사단, 시범단 파견 등 지원을 해오고 있다. 2018년 현재 전국 약 40여개 도장에 등록된 태권도 수련 인구는 6,000여 명에 달한다. 2010년에는 한-불가리아 수교 20주년 기념 국기원 시범단 공연이, 그리고 2012·2017년에도 국기원 시범단 공연이 개최되었다. 2014년 11월에는 최초로 대사배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1월에는 제 5회 대사배 태권도 대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2017년 4월에는 우리 국기원과 불가리아태권도협회간 MOU를 체결하여 향후 불가리아에 태권도 센터 건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3 한식

한식은 불가리아인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다. 불가리아인들은 여느 외국인들처럼 불고기와 잡채도 좋아하지만, 맵고 짠 음식도 잘 먹기 때문에 김치나 매운 떡볶이, 제육볶음도 잘 먹는다.

2010년 한-불가리아 수교 20주년을 맞아 '한식 갈라 디너'를 개최하여 불고기, 김치, 해물파전 등을 소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2011년에는 불가리아 외교부와 국립문화원 주최 '아시아 음식의 향연' 행사에 대사관이 참가하여 한국 음식을 선보였다. 2014년에는 현지 유명 레스토랑 체인과 공공으로 한 달간 한식 메뉴 판촉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매년 국경일 리셉션과 주요 문화행사 계기 크고 작은 한식코너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한식 소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10월 국경일 행사 계기에 우리 전통 장류 및 홍보 주간을 지정하고 오피니언리더 만찬, Korean Food Week, 쿠킹클래스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불가리아에 한식 및 한국 농식품 수출을 적극 홍보하였다.

4 드라마

2011년 불가리아 BTV에서 〈아이리스〉를 상영하여 시청자 576,000명, 시청률 36%라는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불가리아에서는 터키 드라마가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역사적으로 불가리아를 500년이나 식민 지배한 터키의 드라마를 보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다. 아이리스를 계기로 한국드라마가 터키 드라마의 대안으로 떠올랐으며 그에 대한 담론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어 2011년 불가리아국립방송국 BNT에서 〈파스타〉를 상영했는데, 이 때 드라마 스토리와 함께 드라마 배경에 나오는 인테리어, 의상, 메이크업 등이 관

심사로 떠올랐다.

2012년에는 〈천만번 사랑해〉가 불가리아 3대 지상파 중 하나인 Nova TV에서 상영되었다. 2012년 말에는 불가리아 PD들을 초청하여 한국드라마와 기록영화를 소개하는 행사도 실시되었다. 2018년에는 불가리아 국립 텔레비전인 BNT에서 드라마 〈대장금〉이 방영되었고 23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낭만닥터 김사부〉, 〈태양의 후예〉도 방영될 예정이다.

5 영화

불가리아에서 개최되는 국제 영화제, 소피아국제영화제, 키노마니아영화제 등을 통하여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싸이보그지만 괜찮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피에타〉, 〈오늘〉, 〈그물〉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대사관은 매년 한국영화주간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관객수가 700여 명에서 2,000여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8년 영화제에서는 〈택시운전사〉, 〈수상한 그녀〉, 〈군도〉, 〈메밀꽃, 운수좋은날, 그리고 봄봄〉 등이 성황리에 상영되었다. 특히, 2015년에는 통일순회영화제가 더해져, 수도 소피아 외 주요지방 도시에서 〈국제시장〉 등의 영화를 상영,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수도 소피아 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 도시들에서 한국영화 상영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6 K-Pop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도 소피아, 바르나, 플로브디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그 인근 도시까지 K-Pop 애호가들이 확대되고 있다. K-Pop 콘테스트마다 열렬한 반응을 얻고 있으며 자생적으로 생겨난 K-Pop 플래시몹 공연 등도 개최되어 왔다.

한편, 현지 한인회는 대사관 후원으로 2013년부터 매년 K-Pop World Festival 불가리아 지역예선전을 개최하고 있는데, 불가리아 내 최대 K-Pop 행사인 동 대회는 매년 참가자 규모 및 수준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불가리아 K-Pop Festival 지역 예선에서 우승한 불가리아 참가팀들은 불가리아 한류팬들에게 한국의 아이돌 그룹 못지 않은 인기를 얻고 있다. 2018년에는 불가리아 예선전을 통해 커버댄스그룹 TOXIC이 창원에서 개최되는 K-Pop Festival 본선에 진출하였고 TOXIC의 한국 본선 진출을 계기로 불가리아 TV에 K-Pop이

많이 소개되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첫째, 민주화 이후 서유럽, 미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심이라기보다는 이미 변용을 시도하는 단계로 넘어가 있다.

둘째, 그러한 경향 하에 최근 수년간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셋째,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 한국은 경제 강국의 이미지가 강하여, 불가리아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 모델로서 인식되고 있어, 은연중의 문화모방 욕구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다양한 한국 문화행사가 불가리아 현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현지에서 불가리아 대중에게 영화, 전통춤, 태권도, 전시회 등을 통해 한국문화가 소개되면서 긍정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섯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현지 휴대폰 점유율 1위, 2위는 늘 노키아, 소니였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삼성, LG가 점차 그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2010년 초반부터는 안정적으로 1,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로서 그 만족도가 높아짐과 더불어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호감이 생겨났다.

여섯째, 그 전과는 달리 인터넷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정보 접근이 가능해져, 이로 인해 그 전에는 불가능했던 한류문화에 대한 접촉이 대량으로,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K-Pop Festival, Asian Festival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Youtube 채널을 통해 K-Pop을 비롯한 한류를 접하는 불가리아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스스로 한국문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즐기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일곱째, 한류스타들의 상업적으로 완벽하게 설정된 외모와 한국드라마에서 보이는 음식, 생활공간 등 그들과는 다른 새로운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류스타들의 인기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 화장품과 팩을 선두로 하는 K-beauty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수도 소피아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들에서도 다양한 한국문화 행사를 희망하는 수요가 있으므로 행사 장소 결정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불가리아에서 문화 행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불가리아 관계기관들과 협의 및 홍보를 진행해야 행사 준비에 어려움이 적을 것이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2010년에 아시아 드라마·영화 동호회 Eastern Spirit이 조직되면서 중국·일본과 더불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Eastern Spirit은 공식 등록회원이 3,500여 명이고 전국적인 실제 활동인구는 5,0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2012년 중반부터는 불가리아 최고 대학인 소피아 대학 언론방송학과 학생들을 주축으로, 매주 금요일 한국가요만 방송하는 온라인 라디오 방송 "Friday Chopsticks"도 생겨났다. 동 프로그램은 K-Pop 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인들에 대한 최근 소식을 현지 언어로 알려주면서 주로 대학생,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YouTube 채널을 신설하여 한국 관련 문화행사 또는 관련인사 인터뷰 등의 영상물을 게시함으로써 활동폭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최근까지도 "Friday Chopsticks"는 페이스북 상에서 3,400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ANIMES EXPO는 한국과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동호회로 K-Pop 및 애니메이션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웹사이트 일일방문자가 11,000명에 이르고 있다. 2012년 말에는 아리랑 TV가 전 세계 한류특집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불가리아 내 다양한 한류 동호회 활동을 취재하기도 하였다. 2018년에는 13번째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2014년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불가리아 학생들과 불가리아어를 전공하거나 불가리아에 유학중인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불가리아 대학생 우호친선협

회'를 설립하여 양국 유학생 간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 2월에는 5명의 한류팬 블로거가 모여 Korean Lovers BG라는 한류 전문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동호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들은 한류 관련 최신 소식을 현지어로 번역하여 공유하고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게시물들을 올리고 있다. 또한 '한류팬 야유회' 등 오프라인 모임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불가리아의 경우 기존에는 아시아를 위한 인터넷플랫폼들은 다수 있었지만, '한류'를 주제로 한 독립적인 사이트로는 동 사이트가 최초이다.

최근에는 K-Pop을 소개하는 온라인 라디오 "K-sound"가 등장하여 1,000명에 달하는 청취자를 보유하고 있다.

(2) 동호회별 현황

1 EASTERN SPIRIT

성격	동아시아 지역 문화, 영화, 드라마 및 문학작품 번역, 보급
웹사이트	www.easternspirit.org
세부 활동 현황	•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 번역, 자막, 세미나, 팬 페스티벌, 영화상영, 문화 행사 등

2 Radio Reaction "Friday Chopsticks"

성격	비상업성 온라인 라디오 방송
웹사이트	www.reakcia.net/
세부 활동 현황	• 매주 금요일 K-Pop 정기적 방송

3 Animes Expo

성격	한일 문화 동호회
웹사이트	www.animes-bg.com/main/
세부 활동 현황	•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 문화 행사

4 Korean Lovers BG

성격	한류 인터넷 플랫폼
웹사이트	http://koreanlovers-bg.eu/
세부 활동 현황	• 한류 관련 최신 소식 전달 및 공유, 오프라인 활동

5 K-sound

성격	K-Pop 라디오
웹사이트	www.ksoundbg.com
세부 활동 현황	• K-Pop 관련 최신 소식 전달, 불가리아 내 K-Pop 행사 홍보

6 여행정보

(1) 비자

사증면제협정으로 90일 이내 체류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 없다.

(2) 안전정보

유럽연합 가입 이후 전반적인 치안상황은 매우 호전되고 있고, 수도를 포함해 전국을 다니는데 특별한 위험요소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평화적이지만 국내정치적 이유로 대규모 시위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관광명소나 시내중심 쇼핑가에서는 소매치기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또한 주차된 차량에 있는 물건을 도난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7 현지 문화

(1) 불가리아인과 동방정교회

864년 보리스 1세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동방정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927년 콘스탄티노플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 불가리아 교구로 승격하였다. 현재 헌법에도 불가리아 국교는 동방정교로 명시되어 있으며, 2011년 조사에 의하면 전체인구의 60%가 동방정교라고 대답했다. 인구의 8~10%를 차지하는 터키계 소수민족은 무슬림이다.

1세기부터 기독교를 접해온 불가리아 기독교 전통은 현대 일상생활에도 매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관혼상제, 7성사 및 종교절기, 단식이 일반적으로 정교문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교의 특징인 아이콘, 비잔틴 성가도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배타적이지 않은 교리로 인해 상당히 폭넓게 토속, 민속적 요소도 가미되어 일반 대중에게 수용, 변용된 모습으로 일상 생활에서 쉽게 드러난다.

(2) 불가리아의 술, 음식, 초대

불가리아 현대 생활 속에서도 자주 즐겨 음용되는 전통주는 포도주와 라키야가 있다. 초대한 손님이 집에 도착해 테이블에 앉으면, 제일 먼저 라키야와 '숍스카' 샐러드를 차려준다. 라키야는 발칸반도의 과일 전통주라고 할 수 있다. 증류한 직후는 무색 투명하나, 지역, 계절에 따라 과실을 넣어 색상과 맛을 가미하기도 한다. 슬리벤, 숭굴라레 지역의 라키야가 가장 유명하다. 포도주 가운데는 백포도와 적포도를 섞어 만들어 분홍색 빛을 띄우는 '로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초대받은 식탁에서는 항상 라키야로 시작하여, 메인 요리에는 포도주, 디저트에는 맥주를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간요법으로 감기기운이 있을 때 라키야를 끓인 후 꿀을 넣어 식혀 마시기도 한다. 특히 겨울철에 포도주에 꿀과 허브를 넣어 데워서 마시기도 한다. 일상 식단으로 빵과 유제품을 들 수 있고, 특히 불가리아산 흰 치즈는 그 염도와 숙성도에 따라 이즈바라, 프레쉬 씨레네, 씨레네가 있고, 소보다는 염소 유제품을 더 고급으로 여기며, 물소 유제품이 가장 귀하다. 양배추 절임 및 다른 야채 절임도 일상 식단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아침식사 가운데 인기 있는 것은 '바니짜'로 불리는 페이스트리이다. 점심시간 메뉴에는 수프가 반드시 들어가며, 저녁식사에는 수프를 먹지 않는다. 육류는 닭고기, 돼지고기, 양고기가 가장 흔하다. 전통적으로 고기를 말려서 저장해서 먹는데, 그 방식에 따라 수죽, 루캉카, 파스터르마가 있다. 마늘 냄새 하면 한국 사람이 연상되는 것처럼, 불가리아 사람들은 루캉카 냄새가 나면 불가리아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로 불가리아 특유의 음식이라고 여긴다.

늦여름이 되면 집집마다, 'chushki'라고 불리는 피망과 토마토를 주재료로 볶아 페이스트를 대량으로, 보통 1년 치를 만들어서 유리병에 나누어 담아 저장해 놓으며 이를 '류테니짜'라고 부른다. 오스만 식민기간동안 음식문화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 케밥, 꼬치구이 등 현재 터키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음식도 많다.

부활절에는 달걀이 많이 들어간 '코즈낙' 빵과 어린 양고기를 먹고, 12월 6일은 성니콜라이의 날로 잉어를 요리해 먹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정교의 영향으로 7가지 채식 요리로 검소하게 식사한다. 불가리아인은 손님 접대를 즐겨하며 이에 대해 스스로 자랑스러워 한다. 초대를 받았을 때 선물로는 꽃, 와인, 또는 초콜렛 정도가 적당하다.

8 현지 연락처

■ 비상 전화

- 통합응급전화 : 112(테러, 범죄, 의료, 화재 등 모든 응급상황시 상담원이 필요한 기관에 연결해주는 응급콜센터)

■ 대사관 연락처

- 주소 : 36 Dragan Tsankov Blvd., Interpred, Fl, 7A, Sofia 1057
- 전화 : (359-2) 971-2181
- 팩스 : (359-2) 971-3388
- E-mail : korean-embassy@mofa.go.kr
- 홈페이지 : www.bgr.mofa.go.kr
- 근무시간 : 월~금, 09:00~12:30 / 14:00~17:30
- 긴급연락처(재외국민 보호 및 사건사고 발생시)
  : +359-888-917-445 / +359-887-503-270

■ 무역관(KOTRA Sofia Office)

- 전화 : (359-2) 969-5031
- 팩스 : (359-2) 969-5033

9 기타

(1) 날씨

기후는 한국과 비슷하며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추운 편이며(평균 영하 6~7도 정도,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음), 여름에는 덥고 건조하다(평균 영상 26도 이상으로 영상 4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음).

(2) 대중교통

시내 대중교통의 경우, 일반버스, 트롤리, 전차 등이 운행되고 있다. 택시도 저렴한 편이어서 외국인들은 이동시에 택시를 많이 이용한다.

(3) 환전

불가리아는 유럽연합에는 가입하였으나 유로존은 미가입한 상태로, 화폐단위로 레바(Leva)를 사용하고 있지만, 유로화에 1.95583 레바 환율로 고정되어 있다. 환전은 시중 일반은행 및 환전소에서 가능하다.

12. 세르비아

1 개황

- **수 도 :** 베오그라드(Beograd(White City를 의미))
- **인 구 :** 719만 명(베오그라드 166만 명)
- **면 적 :** 77,474km²(코소보 제외)
- **민족구성 :** 세르비아인(83.3%), 헝가리인(3.5%), 로마(2.1%), 보스니아인(2.0%) 등
- **종 교 :** 세르비아 정교(84.6%), 가톨릭(5.0%), 이슬람(3.1%), 개신교(1.0%) 등
- **시 차 :** 우리시간 -8(서머타임시 -7)
- **언 어 :** 세르비아어(보이보디나 자치주는 헝가리어 공용)
- **화 폐 :** 세르비아 디나르(RSD)
- **환 율 :** 1유로≒118디나르, 1미달러≒103디나르(2018년)
- **GDP('17년) :** 414억 유로
- **1인당 GDP('17년 기준) :** 5,238유로
- **실질 GDP 성장률('17년) :** +1.9%
- **한-세르비아 외교관계 수립 :** 1989년(구 유고슬라비아연방)

2 문화적 특성

(1) 세르비아의 음악

세르비아는 전통음악에서 아코디언을 많이 사용하며, 대표적인 춤으로는 콜로(Kolo)가 가장 유명하다. 세르비아 각종 행사의 부대 행사로 삽입되어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한다. 콜로는 활기 넘치는 민속춤으로서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춤추는 것이 특징이다. K-Pop 아이돌 그룹의 칼처럼 딱딱 떨어지는 군무를 선호하는 이유도 세르비아의 전통 콜로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중장년층에는 오페라나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이 많다면, 젊은 층은 빠른 비트와 화려한 무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2) 세르비아의 영화

동유럽에서 세르비아의 영화 수준은 매우 높아 주요 국제 영화제에서 많은 수상작을 냈다. 대표적인 영화감독은 〈돌리벨을 아시나요?〉(1981년 베네치아영화제 황금사자상), 〈아빠는 출장 중〉(1985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집시의 시간〉(1989년 칸영화제 감독상), 〈애리조나 드림〉(1993년 베를린 국제영화제 은곰상) 등으로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한 에미르 쿠스투리차(Emir Kusturica)이다. 세르비아에서는 매년 2회 국제영화제가 개최되고 있고, 2월에 개최되는 베오그라드 국제영화제에는 해마다 다수의 대한민국 작품도 출품되고 있다.

(3) 세르비아의 축제 문화

동유럽 최고의 락 페스티벌로 꼽히는 노비사드 EXIT 축제, 발칸의 최고 영화제 FEST와 발칸 최고의 도서박람회 Belgrade Book Fair, 전 세계 5대 기타축제 중 하나인 베오그라드 Guitar Art Festival,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Belgrade Music Festival (BEMUS) 등 연중 수준 높은 문화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입장권도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하여 남녀노소가 널리 즐길 수 있다. 연극, 음악, 조형예술, 무용, 영화, 재즈, 패션 등 축제의 장르도 다양하다. 세르비아의 축제 문화는 노비사드 도시가 2019년 유럽 청소년 도시(European Youth Capital), 2021년 유럽 문화 도시(European Capital of Culture) 등의 주요 문화행사를 비EU권 최초로 유치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세르비아 한류팬은 약 2천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꾸준한 팬덤과 커뮤니티들의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한류 확산 초기에는 인터넷 동호회를 통한 활동이 주로 이루고 있었으나, 대사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여러 한류 관련 행사들이 매개가 되어 한류 커뮤니티의 자각이 커지고 이제는 한류 애호가들 사이에서 자체적인 행사와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은 한식,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동반한다. 니쉬대학교 철학과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2016년 9월-2018년 6월간 진행되었으며, 베오그라드 대학교 및 노비사드 대학교에서도 선택과목으로 한국어 수업이 매학기 개설되고 있다. 2018년 8월부터는 국립국제교육원의 지원으로 한국어 교원 2인이 파견되어 베오그라드 및 노비사드 각 4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 중이다.

매년 한국문화축제 계기에 대사관 주최로 일반인을 위한 한국어 워크숍을 5회 정도 진행한 뒤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 4년간 참가자들의 실력이 꾸준히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현지인들의 연령대는 주로 10대서 20대 후반에 분포하고 있다. 한국 문화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능숙하고 호기심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많은 이유로 분석된다. 이들은 이제 K-Pop에 대한 관심에서 K-드라마, K-영화 등의 장르로 관심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한국의 역사, 정치, 문학 등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갖고 있다.

민간 차원의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양국 정부 간의 문화 협력도 활성화되고 있다. 양국은 2006년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2017년 양국 정부간 제1차 문화공동위를 개최하였다. 세르비아 문화부 차관보, 교육부 장·차관 등의 고위인사가 2016-2017년 기간 동안 방한하였으며, 2018년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이 세르비아를 방문하였다. 또한, 양국 국가기록원간 기록물 분야 협력 MOU가 2017년 9월 체결되었다.

(2) 분야별 현황

1 방송

현지에서는 김기덕 감독 '피에타', 봉준호 감독 '설국열차' 등의 영화가 도심 내 극장에서 상영된 적이 있으며, 케이블 TV를 통해 드라마 〈아이리스〉와 〈이산〉이 방영된 바 있다. 세르비아의 Barbara Walters라고 불리는 유명 언론인 Mira Adanja-Polak이 2016년 해외문화홍보원의 초청으로 방한한 후에 한국 관련 3부작을 제작하여 방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반인들 사이의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 세르비아 제1의 공영 방송국인 RTS사에서는 한국의 아리랑 TV의 '한국을 알리는 100가지 아이콘'을 방영한 적이 있으며, 향후 방송 프로그램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2 K-Pop

2015년 다뉴브 강가의 인기 클럽에서 개최된 Ambassador's K-Pop Party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세르비아 한류팬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구심점이 된 이래, 대사관에서는 매년 K-Pop World Festival과 Ambassador's K-Pop Party를 연계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이제는 세르비아내 대표 K-Pop 행사로 브랜드화 되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대사관 주최 행사에만 해마다 약 4-500명의 참석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르비아내 한류 커뮤니티도 꾸준히 성장하여 최근에는 한류 팬들이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파티, 노래방 행사가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아티스트 가운데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

3 한식

현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K-Pop에 대한 호감으로 시작하여, 점차 한국의 생활문화, 음식문화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현지에는 한국 식당 및 한국 식료품점이 없어 현지인들은 주로 유투브와 대사관 주최 행사를 통해 한국 음식을 접하고 있다. 이처럼 한식을 접할 기회가 매우 적기 때문에, 대사관 주최 문화행사 가운데 한식 행사는 매번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4 한국어

한류 애호가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지원 분야는 한국어 수업 제공이다. 1999년 베오그라드 대학교 인문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이 최초 도입되었으며, 2016년 9월-2018년 6월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니쉬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철학대학 학장 교체 이후 중단되었다. 2017년 11월부터는 대사관의 주선으로 노비사드 대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한국어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 한국어 교원 부족으로 그간 대사관 지원 하에 베오그라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특별활동 형태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전부였으나, 2018년 8월부터는 국립국제교육원 사업을 통해 한국어 교원 2인이 파견되어 베오그라드 및 노비사드 총 8개 고등학교에서 정식 한국어 수업을 진행 중이다.

5 태권도 보급 현황

2014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밀리차 만디치), 2016년 리우 올림픽 은메달(티야나 보그다노비치),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금메달(바냐 스탄코비치, 밀리차 만디치) 등 세르비아 태권도 선수들은 국제 대회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며 태권도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르비아 국민들 사이에 태권도의 인기가 높고,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 대한 관심도 부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주세르비아대사관 주최로 열린 'K-Tigers' 태권도 시범 공연에도 정계, 외교단, 사회 각계 인사 등 3천여 명이 참석하여 2회 공연에 걸쳐 만석을 이뤘다. 2017년에는 현지 대표 태권도 클럽인 Omega 대회 품새부문 우승자를 한국에 초청하기도 하였다. 세르비아내에서 자발적으로 국제대회 개최, 선수 훈련 등이 진행되고 있는바, 한국 측에는 전자 호구 등 고가의 훈련용품 위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세르비아 인들은 대체로 한국영화, K-Pop,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대중문화에서 시작하여 한국어, 전통문화, 순수예술, 음식 등으로 관심사를 넓혀간다. 이들은 한국 문화의 역동성과 오락성, 신선함에 매료가 된다고 하며, 기본적으로 경제발전, IT 강국 등 한국의 이미지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 현지의 높은 관심도에 비해 한국 문화 및 한국어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

회가 적은 편으로, 향후 한류 진출 확대의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세르비아는 남슬라브족과 세르비아 정교가 다수 민족과 종교를 점하고 있다. 서양과 동양의 교차로인 발칸반도에 위치하여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사회이다. 구 유고연방 분열 과정에서 붉어진 종교 간 갈등 소지가 잠재되어 있어 종교와 관련한 민감한 대화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르비아인들은 터키 지배 영향 등으로 서유럽에 비해 다소 보수적이다. 그리고 가족관계 중시, 가부장적 요소, 노인 공경, 체면 중시 등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과 유사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베오그라드를 방문한 한국인들은 양국의 문화가 비슷한 점 때문에 놀라곤 한다.

세르비아는 누적된 재적적자로 인한 경제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 2월 IMF와 대기성차관약정을 체결하고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을 이행 중이다. 이로 인해 문화계도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비상업적 공연은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경우가 많으며 서유럽에 비해 공연료도 낮은 수준으로 대중들의 문화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공연은 현지인들이 휴가를 길게 떠나는 여름철을 제외하고 일년내내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린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K-Pop Serbia

성격	K-Pop 동호회
회원 수	1,725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kpopsrbija/
세부활동 현황	• K-Pop에 대한 최근 소식과 정보 공유

2 Hangulija(한글리아)

성격	한국 문화 동호회
회원 수	410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Hangulija-532514546878013/
세부활동 현황	•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 공유

3 POD JEDNIM NEBOM(한 하늘 아래)

성격	한국 문화 동호회
회원 수	100명(베오그라드대 한국어 강좌 이수 학생 중심)
웹사이트	http://pod-jednim-nebom.blogspot.rs/
세부활동 현황	• 한국어 학습, 한국 비디오 상영회

6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2016년

- 기타아트페스티벌 박규희 연주가 공연(축제 및 당관 공동주관)(2016.3.11.)
- 제2회 한국어말하기대회(당관 및 베오그라드 대학교 공동주관)(2016.4.6.)
- Novi Sad Music Festival 개막식 손열음 피아니스트 독주회(당관 후원)(2016.4.15.)
- 한반도 현황 및 남북대화 관련 세미나(당관 및 통일부 주관)(2016.5.24.)
- K-Pop World Festival 및 Ambassador's K-Pop Party(당관 주관)(2016.7.26.)
- K-Tigers 태권도 시범공연(당관 주관)(2016.9.10.~11.)
- 윤소영 바이올리니스트 공연(당관 및 과르네리우스 공동주관)(2016.11.8.)
- 제2회 한국 관련 에세이 콘테스트(당관 및 현지 언론매체 공동주관)(2016.11.9.)
- 청년 방한 초청 사업(당관 주관)(2016.11.14.~20.)
- Korea Friends Night 한국영화 상영회(당관 주관)(2016.12.8.)

■ 한국현대예술 전시(베오그라드 프랑스문화원 및 당관 공동주관)
(2016.12.12.~2017.1.7.)
■ 한-세르비아 경제개발 경험 공유 전문가 포럼(당관 주관, KDI·KIEP 참여)
(2016.12.14.)

(2) 2017년 한국 문화 축제
(Days of Korean Culture – Hop into Korea!)

■ 주관 및 주최 : 주세르비아대사관
■ 행사내용 : 음악 행사, 전시회, 오페라, 한복 전시회, 한식 행사, 한국어 및 한국문화 특강, 한반도 정세 세미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K-Pop,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등 다양한 한국 문화 행사
- 세르비아 대규모 축제 '박물관의 밤' 주빈국 참여(5.20.)
- '이혜순' 디자이너의 한복 전시회(5.20.~31.) : 베오그라드 UK Parobrod 갤러리, 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
- 세르비아 과학진흥재단과 함께하는 한국 디지털예술가 신승백&김용훈 전시(5.26.~6.7.)
- 세르비아 출신 오광스님과 함께하는 한국 사찰 문화 강연(5.24.)
- 한국 문학 시 워크숍(5.27.)
- Korean Slava(한국의 잔치문화와 세르비아의 슬라바 비교 및 한식 체험)(5.27.)
- 한국 영화 연구·토론회(5.25., 5.30.)
- 제 3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5.28.)
- Korea All Day Long 축제(5.28.)
- Ambassador's K-Pop Party(5.29.)
- 한반도 정세 세미나(5.30.)
- 노비사드 대학교 한국문학 공개강좌(6.6.)
- Tago 퓨전 사물놀이 공연(6.14.)
- K-Pop World Festival Serbia 2017 대회 개최(6.17.)

(3) 2018년 한국 문화 축제
(Days of Korean Culture – Come Closer!)

■ 주관 및 주최 : 주세르비아대사관
■ 행사내용 : 2017년 제1회 한국 문화 축제에 이어 10월 한 달간 클래식, 재즈, 패션, 한국어, 영화, 음식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문화

행사 진행 / 베오그라드 음악축제(BEMUS), 베오그라드 패션위크, 베오그라드 재즈 페스티벌 등 현지 축제 주최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다 넓은 범위의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이 주요 특징

- TAGO 노비사드 공연(9.24)
- K-클래식 U Angel Voice 공연(9.28)
- 한국음식 행사 "Taste of Kimchi"(10.2)
- 베오그라드/노비사드 한국어 워크숍(10.9-10.25, 총 10회)
- October Salon 비엔날레 참여-Anicka Yi 작품 전시(10.15-10.29)
- BEMUS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 공연(10.12)
- 장학금 박람회 참여-GKS 홍보부스 운영 및 세미나 참여(10.16)
- 베오그라드 패션위크 디자이너 이승익 패션쇼(10.27)
- 한국 영화 상영회 "상의원"(10.19, 10.29)
- 한복 사진전 "Get Closer"(10.28-11.4)
- 베오그라드 재즈 페스티벌 나윤선 공연(10.28)
- 제4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10.30)
- 국경일 리셉션 계기 양태중 오페라 공연(10.31)

7 여행정보

(1) 비자정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은 관광, 업무 등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세르비아를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 세르비아 국민의 한국 방문도 동일하다.

한국대사관 주최 비영리 공연 참여를 위한 세르비아 방문에는 일반적으로 비자가 요구되지 않는다. 세르비아에서의 상업적 공연을 위한 비자 발급 문제는 서울시 한남동에 소재한 주한세르비아대사관(www.seoul.mfa.gov.rs)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안전정보

세르비아의 치안상태는 여타 유럽지역 국가에 비해서도 양호한 편이다. 세르비아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만, 시내에서 소매치기, 차량훼손, 마약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택시, 공공장소 등에서 소지품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 회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세르비아 경찰이 동양인을 검문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나, 요청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대사관에 즉시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현지 연락처

(1) 주세르비아 한국대사관

- 주소 : Miloša Savčića 4, 11040 Belgrade, Serbia
- 홈페이지 : http://srb.mofa.go.kr/
- 대표 전화 : +381-11-3674-225
- 대표 Fax : +381-11-3674-229
- E-mail : koreaemb.rs@mofa.go.kr
- 업무시간 : 평일 8:30~16:30(점심 12:30~13:30)
- 비상연락 : +381-63-125-0112, +381-63-214-565
  (업무시간 외 사건사고 처리 지원)

(2) 베오그라드 무역관(KOTRA 베오그라드 사무소)

- 주소 : VIG Plaza 7th Floor, Trešnjinog cveta 1, 11070 New Belgrade, Serbia
- 전화 : +381-11-311-0860/0644
- Fax : +381-11-311-1522

13. 스웨덴

1 개황

- **수 도 :** Stockholm(인구 약 94만 명, 위성도시 포함 약 230만 명)
- **인 구 :** 약 1,000만 명(2018년 6월 기준)
- **면 적 :** 450,000㎢(서유럽에서 3번째로 크며, 한반도의 2배)
- **민족구성 :** 스웨덴인(게르만족)(94.3%), 북구계(1.8%)
- **종 교 :** 루터교 전통이 강함(2000년까지 국교)
- **시 차 :** 우리시간 -8(3월 마지막 주말~10월 마지막 주말은 일광절약시간으로 7시간)
- **언 어 :** 스웨덴어
- **1인당 GDP('17년 기준) :** 53,442미달러(출처: 세계은행)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 총교역 26.5억 미달러(수출 약 8.9억 미달러, 수입 약 17.6억 미달러)

2 문화적 특성

(1) 스웨덴 사람들

스웨덴은 19세기 초반 나폴레옹 군대와의 전쟁 이후 200여 년간 전쟁을 직

접 겪지 않았는데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 모두 거국내각을 통해 중립을 지킴으로써 스웨덴 국민들이 전쟁의 참화를 비켜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전통은 스웨덴인들로 하여금 매사에 신중하고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게끔 했으며 자신의 생각을 쉽게 말하지 않고 감정 노출을 꺼리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스웨덴인은 깊이 사고하고 매사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반면 일상 생활에서 정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또한 스웨덴인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라곰(Lagom : 적당히)과 트뤼그헷(Trygghet : 안전 또는 안정)을 들 수 있는데, 두 단어는 중도를 지향하는 정책과 복지 제도의 근본 철학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생활태도는 매우 적극적으로 합리적이며 고도의 준법정신을 지니고 있어 불법-부정과는 타협하지 않는다. 또한 자주 정신이 강해 사회와 국가의 공동체 이익에 대해서는 단결하고 협력하나, 개인 생활에 있어서는 타인을 간섭하거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고 내성적인 성향이다.

(2) 문화예술

스웨덴 정부는 복지국가 추구를 목표로 사회보장 제도 마련과 함께 높은 수준의 문화적 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다. 특히, 표현의 자유, 문화 시설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균형 발전을 문화정책의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스웨덴 문학의 뿌리는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19세기에 들어 비로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August Strindberg는 소설과 연극으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스웨덴 문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추대되었다. Strindberg의 연극은 초현실적인 내용과 대담한 주제로 현대 드라마의 혁신에 기여하였다. 노벨상이 제정된 이후 스웨덴 최초의 노벨문학상은 Selma Lagerlöf(1909년, 대표작 '닐스의 모험')에게 돌아갔는데 그녀의 고향인 Värmland에서의 생활을 그린 소설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 미술-건축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조각가로는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Carl Milles가 있으며, 대표적인 화가로는 Carl Larsson, Anders Zorn 등이 있고, 스톡홀름 시청을 설계한 Ragnar Östberg가 이후 스칸디나비아의 현대 건축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스웨덴 출신의 유명한 영화감독으로는 Ingmar Bergman이 있다. 스웨덴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수입한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스웨덴의 영화 제작 및 상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 5회 이상 상영되는 영화의 입장료 수입 중 1%를 스웨덴 영화연구소에

영화 제작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 전국에 300여 개의 박물관과 지방 문화센터가 있으며 이 중 45개는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며, 국립박물관으로 역사박물관, 북구박물관, 민속 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동아시아박물관 등이 있다.

(3) 언론

스웨덴에는 전국적으로 약 170개의 일간지 및 3,000여 종의 정기간행물이 발간되고 있고 정부에서 광범위한 보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정지원에 그치며 언론에 대한 간섭은 배제되어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언론인은 엄격한 윤리강령에 따라 외부의 향응이나 협찬을 받지 않는다. 특히, 스웨덴이 1766년 헌법의 일부로 언론의 자유를 명문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주요 일간지로 Dagens Nyheter, Svenska Dagbladet, Expressen(석간), Aftonbladet(석간, 1830년 창간된 스웨덴 최초의 신문으로서 노조 기관지), Dagens Industri(경제 일간지) 등이 있다.

스웨덴 방송은 공영방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Sveriges Television(SVT : TV1, TV2), Sveriges Radio(SR) 및 산하 25개 지방방송이 있다. 스웨덴 최초의 민간TV인 TV4는 1992년부터 방송을 시작했다.

그밖에 스웨덴의 영문 뉴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신문 The Local지가 있다(www.thelocal.se).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스웨덴인들은 학교 역사시간에 한국에 대해 배울 기회가 거의 없으며 아시아 국가의 역사는 일본, 중국, 인도 등에 대해서만 간단히 배우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학교에서 접할 기회가 적다.

스웨덴의 한류 문화는 최초에는 태권도가 유일하였으나 차츰 입소문을 통해 K-Pop, 한국 영화,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팬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

는데 여기에는 대사관의 각종 문화행사, 신문이나 TV의 특집 보도, 한류 팬들을 중심으로 한 한류 행사 및 Facebook, YouTube 등 온라인을 통한 문화 확산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및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이유

1 한국드라마와 영화

스웨덴인들이 한국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플롯이 흥미롭고 등장인물의 연기가 뛰어나며 플롯 전개시의 유머 감각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 영화는 스토리 전개가 매우 탄탄하며 장면의 화려함보다 등장인물의 감정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스웨덴에서는 한국의 상업영화보다는 작품성 있는 예술영화가 영화 전문가와 팬들 사이에 더 잘 알려져 있는 편인데 특히 홍상수 감독과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K-Pop

스웨덴인들이 한국의 K-Pop을 좋아하는 이유는 유럽이나 미국의 팝송은 개별 가수들의 음악성이나 특성이 강조되는 반면 K-Pop의 경우 개별 가수보다 팀 전체의 조화를 더욱 강조하며, 각각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하나의 팀으로서의 일체감도 느낄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라고 한다.

가사의 내용이 폭력적이지 않고, 사랑이나 우정 등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인 것도 K-Pop이 스웨덴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아이돌 가수의 용모가 매우 뛰어나고 화려한 의상과 뛰어난 춤 솜씨로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점도 K-Pop의 매력이다. 비단, 그룹이 아닌 싸이와 같은 개인 가수의 노래나 율동을 다 함께 따라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데, 2012년 9월 22일(토) 스톡홀름 시내 세르겔광장(Sergelstorg)에서는 강남스타일 플래시 몹이 열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다양한 K-Pop 그룹들에 대한 스웨덴 젊은 층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K-Pop 월드페스티버 스웨덴 예선대회, 한국문화축제 등의 무대에서 현지 K-Pop 동호회들의 열띤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3 한국음식

스웨덴에서 한국 음식은 스톡홀름 소재 한국 식당들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이 유명하다. 스웨덴인들은 한국 음식이 살이 찌지 않고 건강에 이로운 요소가 많다고 하며, 한국 음식을 맛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한국 음식을 찾는 경향이 있다. 특히 비빔밥이나 김치 같은 경우 한국 식당뿐만 아니라 일본 식당이나 중국 식당 등에서도 심심찮게 찾을 수 있는 메뉴가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붐이 일고 있는 다양한 '먹방'이 현지에서 관심을 끌면서 YouTube를 통해 일부러 한국의 먹방을 시청하며 코멘트를 달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요리법을 찾아 한국음식을 직접 만들기도 하는 등 한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4 K-Beauty

스웨덴인들의 K-Pop과 한국드라마, 영화에 대한 관심은 한국 뷰티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올렌스(Åhléns)와 같은 대형 백화점 체인에 K-뷰티 상품 코너가 개설되었는데, 다양한 한국 뷰티제품 중에서도 사용이 쉽고 종류가 다양한 마스크팩이 단연 인기가 있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1) 충분한 시간

스웨덴인들은 신중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는 편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문화 교류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련 기관 방문의 경우에도 최소 2개월 전부터는 섭외를 추진하여 스웨덴인들로 하여금 회의 준비나 일정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스웨덴 기관과 업무협조 시 단기 성과나 일회성 행사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염두에 두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7~8월은 스웨덴인들이 장기간 하계휴가를 떠나므로 행사 개최가 쉽지 않고, 9월부터 문화 행사가 많아 공연장 대관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야 함.

(2) 문화적 자긍심

스웨덴은 우리나라처럼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북유럽의 맹주 국가로서 높은 경제 성장과 사회 보장 제도를 발달시켜왔으며 문화적 자긍심도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문화 교류 시에도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스웨덴인들의 문화적 취향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스웨덴인과 직접 접촉할 때는 이들의 높은 평등의식을 고려해야 하며 성-학력-지역-인종-종교 등의 소재를 토대로 차별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스웨덴을 비하하는 발언 등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

(3) 현지공관과 사전협의

한국에서 스웨덴 문화 단체와 행사 추진시 개별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지 대사관을 먼저 접촉하여 현지상황, 주요기관 정보 등 협조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한누리(Hannuri)

스웨덴 한류동호회의 총연합회 성격의 단체이며 각종 한류 관련 문화 행사를 기획하거나 대사관과 협조하여 한국 알리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SNS(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뉴스를 스웨덴어로 번역하여 한국의 소식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성격	한류 총연합회
회원 수	885명
웹사이트 주소	www.facebook.com/hannuriforening
세부활동현황	• 한류 관련 문화 소식, 행사 안내, 기획, 대사관 행사 협력

2 K-Pop Nonstop

K-Pop을 좋아하는 스웨덴 젊은이들의 모임으로 유럽에 한류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한국 '아이돌그룹의 춤'에 초점을 두어 자체적으로 'K-Pop Dance Class'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성격	스웨덴의 젊은 층들이 주도하는 한류전파모임
회원 수	8,952명
웹사이트 주소	ww.facebook.com/kpopnonstop, www.kpopnonstop.com
세부활동현황	• 한류 아이돌 댄스교실 운영, K-Pop 이벤트와 쇼케이스 개최

3 Project Chu

스톡홀름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십대 중심의 K-Pop 동호회이며, 매주 모여 한국 가요와 댄스 그룹의 안무를 연습하고 있다.

성격	10대 스웨덴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한류 비영리단체
회원 수	472명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pg/ProjectChu/
세부활동현황	• 매주 모임을 통해 주로 K-Pop 가요와 춤을 공유 및 전파

4 K-Pop Swedish Fan Page(Facebook 페이지)

한국 아이돌그룹에 관심이 많은 팬들을 중심으로 최신 K-Pop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Facebook 팬 페이지로 현재 약 2,000명의 회원들이 소식을 받아보고 있으며, K-Pop을 비롯하여 드라마, 영화, 음식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다루고 있다.

성격	K-Pop 아이돌을 중심으로 주로 소개하며 드라마, 영화, 음식 등을 영어로 다루는 한류 동호회
회원 수	1,883명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K-Pop-Swedish-Fan-Page-319055948138043/
세부활동현황	• K-Pop 아이돌 사진, 음악 및 각종 소식을 활발하게 공유

5 Sweden's K-Pop Chart(YouTube 채널)

지난 2015년 스웨덴의 K-Pop팬이 개설해 매달 스웨덴에서 인기 있는 K-Pop 목록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

성격	K-Pop 아이돌을 중심으로 스웨덴어로 K-Pop 정보를 공유
회원 수	326명
웹사이트 주소	www.youtube.com/channel/UCwVL-Esmh-YQB5mtzY9zDTQ/
세부활동현황	• 스웨덴내 K-Pop 차트를 구성해 인기 음악을 매달 전파

6 최근 주요 문화행사('16~'18)

(1) K-Pop 관련 행사

■ K-Pop Meetup
- 일시 및 장소 : '16.4.17.(일), Punkt Medis(스톡홀름 시내 청소년 도서관)
- 내용 : 한류팬클럽 'K-Pop Nonstop'과 함께 한국 민속놀이 체험 행사 진행

■ K-Pop World Festival 2016 스웨덴 지역예선전 개최
- 일시 및 장소 : '16.8.13.(토), Kungsträdgården(스톡홀름 시내 대형 공원)
- 참가 : 댄스 퍼포먼스와 보컬 등 16개 팀(26개 지원팀 중 선별)

■ K-Pop in the park 2016
- 일시 및 장소 : '16.8.14.(일), Rålambshovsparken(스톡홀름 시내 소재 공원)
- 내용 : 한류팬클럽 'HANNURI'와 함께 한국민속놀이체험, K-Pop 댄스 배우기 행사 진행

■ K-Pop World Festival 2017 스웨덴 지역예선전 개최
- 일시 및 장소 : '17.7.16.(일), 16:00, Debaser Strand(스톡홀름 시내 소재 극장)
- 참가 : 댄스 퍼포먼스와 보컬 등 18개 팀

■ K-Pop World Festival 2018 스웨덴 지역예선전 개최
- 일시 및 장소 : '18.6.9.(토), 16:00, Maxteatern(스톡홀름 시내 소재 극장)
- 참가 : 댄스 퍼포먼스와 보컬 등 14개 팀

(2) 한국음악, 무용, 퍼포먼스 공연

■ 강은일해금플러스 공연
- 일시 및 장소 : '16.4.29.(금), Berwaldhallen(스웨덴국영라디오 콘서트홀)
- 내용 : 강은일 교수의 해금연주를 중심으로 피아노, 더블베이스, 장구 등 한국의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을 접목한 퓨전 콘서트

■ Korean Jazz Night
- 일시 및 장소 : '16.11.22.(화), KMH(스톡홀름시 왕립음대)
- 내용 : 동방박사, 일렉트릭 밴드 오퍼스, 조응민 쿼텟, 이한얼 트리오 등 다양한 뮤지션들의 재즈 콘서트

■ 송년음악회 - Adieu 2016 Concert 공연
- 일시 및 장소: '16.12.11.(일), Musikaliska(스톡홀름시 콘서트홀)
- 내용 : 경기도립국악단 최상화 예술감독이 이끄는 2016년

■ 'Jump: Non-Verbal Comic Martial Arts performance'
- 일시 및 장소 : '17.6.15.(목), Maxim Theater
- 참가자 : 500명
- 내용 : Korean Culture Series 현지 회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태권도, 택견 등 한국 전통 무술의 매력을 소개하는 한국 현대 공연을 개최

■ 사물놀이 공연 - 김덕수 한울림 사물놀이
- 일시 및 장소 : '17.8.12(목), 스톡홀름 중심가 왕립공원 Kungstradgarden
- 참가자 : 2,500여 명(스톡홀름 한국문화축제 개막공연)

■ 전통무용 공연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무용원 '춤추리 무용단'
- 일시 및 장소 : '17.8.12(목), 스톡홀름 중심가 왕립공원 Kungstradgarden
- 참가자 : 2,500여 명(스톡홀름 한국문화축제 개막공연)

■ 전통무용 공연 - 경기도립무용단 '한국의 미(Beauty of Korea)'
- 일시 및 장소 : '17.11.9(목), 스톡홀름 시내 공연장 Musikaliska
- 참가자 : 500여 명

■ 전통음악과 무용 공연 - 신라앙상블(Shilla Ensemble)
- 일시 및 장소 : '18.8.25.(토), Kungsträdgården
- 방문객 : 약 2만 명 (* 한국문화축제 연계)

(3) 한식홍보

■ 한류세미나 2016
- 일시 및 장소 : '16.5.13.(금), Timmermansgården
- 내용 : 스웨덴에서 음식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Jens Linder가 자신이 경험한 한국음식에 대해 발표하고 세미나 참가자들과 토론

■ 한식요리 콘테스트
- 일시 및 장소 : '16.6.18.(토), 레스토랑 아카데미
- 내용 : 스웨덴 국적자 대상 한식 요리 경연대회 개최 및 한국음식 시식, 이와 별도로 한국 식재료 전시 및 판매 병행

■ 한식요리 교실
- 일시 및 장소 : '17.4.25.(화), Medborgarskolan
- 내용 : Korean Culture Series 회원가입을 한 스웨덴 현지 참가자들이 직접 찜닭과 해물파전을 요리하고 시식할 수 있는 한식 요리 교실 행사를 개최

■ 한식요리 교실
- 일시 및 장소 : '18.4.12.(목), 5.14.(월), Medborgarskolan
- 내용 : 스웨덴 현지 참가자들이 직접 닭강정과 잡채를 요리하고 시식할 수 있는 한식 요리 교실 행사를 개최

(4) 한국문화체험 행사

■ 한지공예교실
- 기간 및 장소 : '16.2.23.(화), 동아시아박물관
- 참가자 : 50명
- 내용 : 현지에서 한지공예작가로 활동 중인 박석희 작가의 진행으로 전통종이인 한지를 이용한 등(lamp) 만들기 체험행사 개최

■ 한지공예 워크샵
- 기간 및 장소 : '17.2.28.(화), 동아시아박물관
- 참가자 : 50명
- 내용 : 현지에서 한지공예작가로 활동 중인 박석희 작가의 진행으로 전통종이인 한지를 이용한 쟁반(Tray) 만들기 체험행사 개최

■ 매듭공예교실
- 기간 및 장소 : '17.3.29.(수)~30.(목), 동아시아박물관
- 참가자 : 40명
- 내용 : 현지 활동작가인 김현영 작가의 진행으로 매듭을 활용한 팔찌 및 미니 노리개 만들기 체험행사 개최

■ 한복 패션쇼 및 한복 전시회
- 일시 및 장소 : '17.10.2.(월), Konserthuset
- 참가자 : 400명
- 내용 : 국경일 계기 전통 한복 패션쇼와 행사장내 한복 작품 전시회 개최

(5) 한국영화 상영

■ 한국영화제
- 기간 및 장소 : '16.11.9.(수)~20.(일), Grand, Skandia, Victoria, Klara, Park, Sture, Zita
- 상영작 : 부산행, 서울역, 곡성, 터널, 널 기다리며,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아가씨
- 관객 : 3,000여 명

■ 공관영화제
- 일시 및 장소 : '16.1.27.(수), 대사관 회의실
- 상영작 : 국제시장
- 관객 : 40명

■ Korean Film Night
- 일시 및 장소 : '17.1.25.(수), 대사관 회의실
- 상영작 : 명량
- 관객 : 50명

■ Korean Directors in Stockholm Film Festival
- 일시 및 장소 : '17.11.8.(수)~19.(일), 스톡홀름 시내 다수 극장
- 참가자 : 700여 명
- 내용 : 스톡홀름 국제 영화제 연계, 한국영화 상영회 개최 및 한국감독-현지관객 간 대화 행사 개최('악녀' 정병길 감독, '하루' 조선호 감독, '능력소녀' 김수영 감독 참여)

■ 제주해녀 다큐멘터리 '물숨' 상영회 및 감독과의 대화
- 일시 및 장소 : '18.3.1.(목), 스톡홀름 대학교, Filmhuset
- 참가자 : 100여 명(50*2회)
- 내용 : 예테보리 해양박물관 해녀문화전 전시와 더불어 고희영 감독의 제주해녀 다큐 '물숨' 상영회 개최 및 감독-현지관객 간 대화 행사 개최

■ 한국영화 상영회
- 일시 및 장소 : '18.4.27.(금)~4.28.(토), 5.25.(금)~26.(토), 6.15.(금)~6.16.(토), Filmhuset
- 참가자 : 480여 명(40명*12작품)
- 내용 :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내 아내의 모든 것', '소중한 날의 꿈', '로망은 없다', '메밀꽃 필 무렵, 운수좋은 날, 그리고 봄봄', '말하는 건축가', '박수건달', '범죄와의 전쟁', '두레소리', '경주', '신이 보낸 사람', '고지전' 등 독립영화, 상업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영화 총 12편 상영

■ Korea Documentary's Current
- 일시 및 장소 : '18.9.27.(목)~9.28.(금), Filmhuset
- 참가자 : 120여 명(20명*6작품)
- 내용 : 한국의 최신 다큐 6작품의 상영회 및 감독-현지관객 간 대화행사 개최

(6) 한국문학 및 한국어 기반 확산

■ 2016년 한국어말하기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16.9.24.(토), 스톡홀름대학교
- 참가 : 9명(대회 참가자)

■ 2017년 한국어말하기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17.9.23.(토), 한국학교
- 참가 : 17명(대회 참가자)

■ 황선미 작가('마당을 나온 암탉' 등) 스톡홀름대학교 및 한국학교 낭독회 및 학생/독자와의 대화 행사 개최
- 일시 및 장소 : '17.11.16.(목), 스톡홀름대학교 아시아도서관,
  '17.11.25.(토), 한국학교 강의실
- 참가자 : 100여 명
- 내용 : 스톡홀름대학교 한국학과 및 스톡홀름 한국학교와 협력하여 황선미 작가 작품 낭독회 및 학생/독자와의 대화 행사 개최

■ 조용미 시인 스톡홀름대학교 및 한국학교 낭독회 및 학생/독자와의 대화 행사 개최

• 일시 및 장소 : '18.5.26.(토), 한국학교 강의실,
'18.6.12.(화), 스톡홀름대학교 세미나실
• 참가자 : 50여 명
• 내용 : 스톡홀름대학교 한국학과 및 스톡홀름 한국학교와 협력하여 조용미 시인 작품 낭독회 및 학생/독자와의 대화 행사 개최

■ 2018년 한국어말하기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18.9.22(토), 스톡홀름대학교
• 참가 : 10명(말하기부문 6명, 읽기부문 4명)

(7) 태권도 활성화

■ 2016년 대사배태권도 대회

• 일시 및 장소 : '16.10.8.~9., Botkyrkahallen
• 참가 : 겨루기 및 품새 등 500여 명

■ 2017년 대사배태권도 대회

• 일시 및 장소 : '17.9.30~10.1, Borlänge
'17.10.28~29, Göteborg
'17.11.25~26, Malmö

■ 2018년 대사배태권도 대회

• 일시 및 장소 : '18.9.22.(토), Lomma
'18.9.22.(토), Malmö
'18.10.6.(토), Habo
'18.10.13.(토), Borlänge
'18.10.27.(토), Borlänge
'18.11.17.(토), Göteborg
'18.12.8.(토), Helsingborg

(8) 한국문화축제

■ 2016 제1회 한국문화축제(Korean Culture Festival)
- 일시 및 장소 : '16.8.13.(토), Kungsträdgården
- 방문객 : 약 2만 명
- 내용 : 한국문화 종합소개 행사 개최
  - 사물놀이, 한국 전통춤, K-Pop 등 다양한 공연
  - 한지공예, 서예, 민속놀이, 한글 및 한식교실, 캐릭터 상품, 한복 등 문화 체험 부스
  - 비빔밥, 닭강정, 호떡 등 다양한 한식 판매 부스
  - 한국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상영

■ 2017 제2회 한국문화축제(Korean Culture Festival)
- 일시 및 장소 : '17.8.12.(토), Kungsträdgården
- 방문객 : 약 2만 명
- 내용 : 한국문화 종합소개 행사 개최
  - 사물놀이, 한국 전통춤, 태권도, K-Pop 등 다양한 공연
  - 한복, 태권도, 한지공예, 서예, 민속놀이, 한글 및 한식교실, 캐릭터 상품 등 문화 체험 부스
  - 비빔밥, 닭강정, 호떡 등 다양한 한식 판매 부스
  - 평창 동계올림픽 및 캐릭터 홍보

■ 2018 제3회 한국문화축제(Korean Culture Festival)
- 일시 및 장소 : '18.8.25.(토), Kungsträdgården
- 방문객 : 약 2만 명
- 내용 : 한국문화 종합소개 행사 개최
  - 한국전통음악, 한국 전통무용, 태권도, K-Pop, 한식요리시범, K-뷰티 시범 등 다양한 공연
  - 한복, 태권도, 한지공예, 서예, 민속놀이, 한글교실, K-Pop 댄스 교실 등 문 화 체험 부스
  - 불고기, 비빔밥, 치킨 등 다양한 한식 판매 부스
  - 한국 관광 홍보(한국관광공사 런던지사) 및 한식 홍보(aT 파리지사) 부스

■ 2018 예테보리 한국문화축제(Hallyu Korea Style GBG Plus Festival 2018)
- 일시 및 장소 : '18.11.3.(토), Ungdomens hus 1200 kvadrat
- 방문객 : 약 300명
- 내용 : 스웨덴 예테보리 지역에서의 청소년 중심 한국문화 소개 행사 개최
  - 한지공예교실, 한글서예교실, 한글노래교실, 태권도 워크샵, 한식 워크샵, 한복 입어보기, K-Pop 댄스 워크샵 등 체험 기회 제공
  - K-Pop 강연, 비빔밥 퍼포먼스, 토크쇼 등 다양한 한국문화 콘텐츠
- 협력기관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9) 기타 한국문화 홍보

■ Go! Go! PyeongChang, Korea
- 일시 및 장소 : '17.5.31.(수), Playhouse Theater
- 방문객 : 약 150명
- 내용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를 소개하고 주재국 국민들의 한국 관광 증진을 위한 홍보 행사를 개최
  - 강원도 음식 리셉션
  - 홍보 영상 상영 및 사진 전시회
  - 프레젠테이션(올림픽 전반 및 티켓 구매 방법, 개최도시 및 한국 관광, 한국 음식)
  - K-Pop 커버댄스 공연, 질의응답 및 퀴즈 등

■ 예테보리 해양박물관 '제주해녀문화전'
- 일시 및 장소 : '18.3.3.(토)~9.14.(금), 예테보리 해양박물관
- 방문객 : 1,000여 명(개막일 당일)
- 내용 : 제주의 해녀 문화를 주제로 한 김형선 사진작가의 작품 전시 및 고희영 감독의 제주해녀 다큐멘터리 '물숨(Breathing Underwater)' 상영

7 여행정보

(1) 자연경관

스웨덴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다. 스웨덴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사랑은 종교적이라 할 정도로 강렬한데 북부의 얼음 호텔, 태양이 영원히 지지 않는 백야와 오로라, 광대한 황야 라플란드, 동쪽 해안을 따라 펼쳐지는 독특한 자연경관, 아름다운 물의 도시 스톡홀름, 수만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된 베스테르빅 군도, 발트 해에 있는 두 개의 큰 섬 고틀란드와 욀란드, 낙엽수림과 모래 해변이 끝없이 펼쳐지는 남부 스코네에 이르기까지 스웨덴은 빼어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긴 겨울이 지나고 6월~8월까지는 스웨덴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스웨덴으로 몰려온다.

(2) 비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은 관광, 사업, 회의 참석,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스웨덴을 단기 방문할 때에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고, 쉥겐 협약국 체제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90일 이상을 체류하기 위해서는 주한국스웨덴대사관에서 미리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편, 공연을 목적으로 스웨덴 방문 시 인증된 공연기관의 초대장을 초대장을 받으면 무비자로 1년간 14일의 공연활동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공연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영사업무 개방시간은 월~금요일 9:00~ 11:30이며, 방문 사전 예약제 도입에 따라 미리 유선전화(02-3703-3700)를 통해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하다.

※ 주한스웨덴대사관 위치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20번지 단암빌딩 8층

(3) 환전

스웨덴은 EU 회원국이지만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 스웨덴 크로나화(SEK)를 사용한다. 스웨덴 내에서는 스웨덴 크로나화(SEK)를 사용해야 하며 한국의 외환은행 본점이나 인천 공항 등에서 환전할 수 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어느 상점에서나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현금은 일절 받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한 상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4) 관광카드

스웨덴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고, 수도인 스톡홀름 시내는 구시가지(Gamla Stan)를 중심으로 도보로도 관광을 할 수 있다. 체류 기간과 일정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비된 스톡홀름 카드를 구입하여 대중교통과 박물관 등을 함께 이용할 수도 있다.

※ 스톡홀름 여행 카드의 상세 정보는 홈페이지 참조
(www.visitstockholm.com/en/stockholmcard)

※ 스웨덴 또는 스톡홀름 여행을 위한 참고사이트
(www.sweden.se/eng/Home/Tourism/, www.visitstockholm.com/en/)

(5) 소매치기 유의 안내

최근 스웨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소매치기 범죄가 지난 15년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 스웨덴을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과 여행자가 늘면서 소매치기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 경찰에서 분석한 아래 4가지 소매치기와 절도 범죄 유형에 유념하여 여행 중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The Hug Trick : 낯선 사람이 다가와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껴안거나, 담뱃불을 빌리면서 주의를 빼앗는 사이 소매치기를 하는 수법
- The Spill Trick : 크림이나 케첩 등을 옷에 흘린 후 닦아주는 척하며 귀중품을 훔치는 수법
- The Note Trick : 식당이나 카페 등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휴대폰, 전화기 등 귀중품 위에 지도, 신문 등을 올려놓고 위치를 물어보는 등 도움을 청한 후, 피해자가 도움을 주기 위해 설명하는 동안 휴대폰 등 귀중품을 가져가는 수법
- The Code Trick : 가게의 계산대나 현금인출기 등에서 코드번호를 누르는 것을 옆에서 관찰한 후 기회를 엿보아 카드를 훔쳐서 도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

※ 만약 소매치기나 절도 등의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경찰(연락처 : 112 또는 11414)에 신고해 도움을 청하고, 여권을 분실해 임시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스웨덴대사관 홈페이지에 여권 및 비자란(여행 중 여권분실 시 대처방법)의 안내에 따라 여권용 사진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대사관을 방문하도록 한다(영사과 당직 전화 :+46 73 330 1616).

(6) 기타

스웨덴은 치안이 좋은 편이지만 여름철에는 많은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소매치기가 증가하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최근 몇 년 간은 난민 유입이 증가했는데 치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7년 4월 스톡홀름 시내에서 차량 테러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였다. 대형 쇼핑몰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테러 및 사건 사고에 연루되지 않도록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스웨덴인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므로 영어가 가능하다면 의사소통에는 큰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이 스웨덴 여행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8 현지 연락처

(1) 대사관 위치

스톡홀름 T-CENTRAL 역(올렌스(Åhléns) 백화점 쪽)에서 69번 버스를 타고 Berwaldhallen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2~3분 거리에 대사관이 있다. 스톡홀름 시내 Kungsträdgården에서 76번 버스를 타고 Berwaldhallen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방법도 있다.

(2)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Laboratoriegatan 10, 115 27 Stockholm, Sweden
- 대표전화 : (+46) (0)8 5458-9400
  - 영사업무 문의 : (+46) (0)8 5458-9432
- E-mail : koremb.sweden@mofa.go.kr
- 근무시간 외 비상 연락처
  - 전화(외교부 영사콜센터) : +82 (0)2 3210 0404
  - 휴대전화 : +46 (0)73 330 1616(사건, 사고 및 여행증명서)

14. 스위스

1 개황

- **수 도 :** 베른(Bern, 15만 명)
- **인 구 :** 약 824만 명
- **면 적 :** 41,285㎢(한반도의 약 1/5)
- **민족구성 :** 독일계(64%), 프랑스계(23%), 이탈리아계(8%), 로망슈계(0.5%), 기타(4.5%)
- **종 교 :** 가톨릭(38.6%), 개신교(28%), 이슬람교(4.5%), 기타 종교 및 무교(28.9%)
- **시 차 :** 우리나라 -8시간(서머타임시 -7시간)
- **언 어 :** 독일어(65.6%), 불어(22.8%), 이태리어(8.4%), 로망슈어(0.6%), 기타(2.6%)
- **1인당 GDP('17년 기준) :** 80,837미달러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기준) :** 총 교역 32억 미달러(수입 27.3억 미달러, 수출 4.87억 미달러)

2 문화적 특성

스위스는 지정학적으로 유럽대륙의 중앙에 위치해 주변의 외국문화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3대 문화권(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다채로운 문화가 형성되었다. 또한, 스위스는 종교개혁,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 양차 세계대전 등과 같은 동란의 시기에 자유와 양심의 도피처 역할을 하였다.

에라스무스(D. Erasmus)는 바젤에 거주하였고, 릴케(R.M. Rilke)는 스위스 남부에 살았으며, 나치에 쫓긴 아인슈타인(A. Einstein)은 취리히 연방공대에 적을 두었고, 토마스 만(Thomas Mann)도 만년에는 취리히에 정착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스위스는 유명한 예술가, 사상가, 과학자를 무수히 배출했으며, 노벨상 수상자가 27명에 이르는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제1회 노벨평화상 수상자 앙리 뒤낭(Henri Dunant), 3대에 걸쳐 8명의 수학자를 배출한 베르누이(Bernoulli) 집안, 광학·기계학·항해술의 오일러(L. Euler), 국제법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바텔(E. Vattel), 교육의 이념을 직접 실천한 스위스의 정신적인 지주 페르탈로찌(Pestalozzi),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그리스 문화사' 등의 저작으로 유명한 '부크하르트(J. Burckhardt)', '녹색의 하인리히'의 저자 켈러(G. Keller), '올림포스의 봄' 등 서사시를 쓴 스피틀러(C. Spitteler), '알프스 소녀 하이디'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여류작가 쉬피리(J. Spyri) 등이 유명하다. 음악, 미술 분야에서는 고전음악 작곡가인 호네커(A. Honegger)와 쇼에크(D. Schoeck), 지휘자인 앙제르밋(E. Ansermet), 뒤토와(C. Dutoit), 바메르트(M. Bamert), 화가로서는 스위스의 국민 화가 호들러(F. Hodler), 팅겔리(J. Tinguely), 쟈코메티 (A. Giacometti), 스위스 50프랑 지폐에 그려져 있는 쇼피 아르프(Sohie Arp), 근대 유럽미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게 된 파울 클레(Paul Klee) 등이 있다. 또한, 스위스에는 이러한 예술가들을 기리고 관련 작품을 전시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파울 클레(Paul Klee) 센터, 팅겔리 (Tinguely) 미술관, 바이엘러(Beyelr) 컬렉션, 국제적십자 박물관, 올림픽 박물관, 스위스 미니어처 등이 있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스위스의 한류는 아직 발아기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나 불어권 지역인 제네바 및 최대 경제도시인 취리히에도 K-Pop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아울러 K-Food, K-Drama, K-Movie 및 K-Cosmetic도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1 K-Pop

인터넷 YouTube를 통해 소개되고 공유되고 있으며 제네바 지역을 중심으로 2010년도에 발족한 동호회 'Fullmoon Entertainment'를 중심으로 여러 K-Pop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다. Fullmoon Entertainment의 경우 1년에 3-4차례 카페나 디스코텍을 임차해 K-Pop 나이트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200여 명의 회원들이 K-Pop을 즐기고 있다. 최근 취리히 지역을 중심으로 K-Pop 관련 동호회들이 결성되어 자체적으로 여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 가장 인기 있는 한류

K-Pop 그룹 방탄소년단(BTS), EXO, Big Bang, 트와이스가 유명하다. 당지 K-Pop 을 즐기는 연령층은 주로 18-26세에 몰려 있으며 이들은 한때 세계적으로 유행한 강남스타일이나 젠틀맨 류의 노래보다는 방탄소년단, EXO, Big Bang, 트와이스의 최신 히트곡을 즐겨 듣는 등 한국의 최신유행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3 한식과 한국문화

한식(불고기, 비빔밥, 잡채)등을 좋아하고 이에 따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에 관심이 있는 현지인들의 동호회 Asamco 혹은 개인적으로 토요한글학교 현지인반 등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K-Pop 동호회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 분위기가 일고 있다. 제네바의 K-Pop 동호인들은 스위스 내보다는 프랑스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최근 파리에서 유행하고 있는 K-Cosmetic 역시 제네바에서 서서히 인기를 끌고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한국 동영상, YouTube 및 한국 TV(불어 및 독어 자막)를 통해 지금껏 접하지 못한 새롭고 신선한 K-Pop 음악에 흥미를 느끼고 나아가 K-Pop에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스위스인들은 다양한 문화적 취향이 있고 상대국 문화에 대한 배려가 있으며, 문화 수준이 높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에 대해서는 중국 및 일본 문화에 편향되어 있어 여타 동아시아 국가의 문화는 중국 및 일본 문화의 아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 교류 시 에티켓 등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성격	K-Pop
회원 수	약 300
동호회명	Fullmoon Entertainment, Asamco 등
세부 활동 현황	• 1년에 3-4차례 200여 명이 오프라인 모임에서 K-Pop을 즐김

6 최근 주요 문화행사

■ 제 73회 광복절 기념음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8.8.18.(토)11:00/ 주스위스대사관 내 야외 가설무대
- 주최: 주스위스대사관
- 행사내용: 동 음악회는 재외예술인활용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제73회 광복절 기념 음악회로 개최되었고, 금번 음악회에는 주재국 정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인사, 친한 인사 및

당지 한인동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물놀이, 가야금, 대금 연주, 상모놀이 등 수준 높은 우리 국악 공연을 통해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냄

■ Charming Korea : 한국 가곡과 아리아의 밤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8.10.2.(화)17:30/ Zentrum Paul Klee 미술관 공연장
- 주최: 주스위스대사관
- 행사내용: 동 음악회는 Charming Korea 매력한국알리시 사업의 일환으로, 2018 국경일 리셉션 축하 및 주재국민에게 한국의 우수한 음악가와 한국가곡을 소개하여, 주재국민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리고자 개최되었으며, 주재국 정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인사, 친한 인사 및 당지 한인동포 등 300여 명이 참석, 한국의 전통적 리듬과 정서를 담은 가곡을 처음 접한 주재국민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음.

7 여행정보

(1) 주요 관광지

■ Bern

- 1848년 이래 행정수도로서 의회, 정부건물이 있으며, Aare 강이 둘러싼 중심지에 중세형 구도시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 구도시 중심에 있는 Münster 사원, 시계탑 및 쇼핑가(Kram-gasse) 중앙에서 있는 기사상, 삼손과 사자상, 법의 여신상 등이 유명하다.
- 베른이라는 지명은 곰(Bear)과 연관이 있으며, 곰동산(Bären-graben) 건너편의 장미공원(Rosengarten)에서 내려다 본 구시가의 전경은 유네스코 지정도시의 아름다움을 실감케 한다.

■ Jungfrau 지역

- Jungfrau봉(4,158m)은 Moench, Eiger봉과 연봉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스위스 만년설봉의 하나로서 Jungfraujoch(3,454m)까지 산악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동 정상에는 유럽 최고(最高)의 식당인 Top of the Europe을 비롯하여 얼음동굴, 스핑크스 전망대 등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Interlaken Ost역 출발, 견인차 등정, 관광 후 인터라켄 Ost(east라는 독어)로 돌아오는데 약 7시간 소요된다.

■ Matterhorn산 및 인근지역

- 스위스와 이태리 국경지대에 위치한 높이 4,478m의 스위스 최고봉으로서 Jungfrau가

여성적인 자태라면 Matterhorn('초지의 뿔'이라는 뜻)은 남성적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 특히 마테호른 기슭의 Zermatt 마을은 주변에 스위스 알프스 4,000m 이상 산 38곳 중 29곳이 집중된 세계적 등반지 이자 스키리조트로 알려져 있다.

■ Lugano 지방

- 이태리 접경지대의 Lugano 호반에 위치한 루가노는 각종 꽃들이 만개한 일 년 내내 온화한 도시로서 야자류 수목 등 남국정취를 느끼게 하며, 동 시에서 약 8분 거리에 위치한 Melide에는 스위스 관광명소 약 100여 곳을 실물의 25분의 1크기로 축소한 미니어처 전시관(Switzerland in Miniature)이 있어 유명하다.

■ Leman호 인근지역

- 레만호 지역은 광활한 호수를 배경으로 프랑스 알프스를 조망할 수 있으며, 그림엽서에서 흔히 보는 제네바 시가지는 Jean J. Rousseau 동상이 있는 몽블랑 다리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고 유엔 구주사무소 등 다수의 국제기구가 있다. 세계적인 요트시설로 유명한 Quchy 호안의 로잔느, 바이런의 시로 널리 알려진 시용성(Château de Chillon)이 있는 몽트뢰 등 관광명소가 많다.

■ 그뤼에르성

- 르네상스 및 바로크시대의 건축양식이 보존되어 있는 그뤼에르성(Château de Gruyères)에서는 Fribourg 인근 평야지대의 뛰어난 경치를 조망할 수 있으며, Le Chalet 등 스위스 전통식당에서의 치즈 요리도 일품이다.

■ Luzern 및 인근 지역

-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피어발트슈타트 호수의 아름다운 도시로 Little Paris라고 일컬어지며, 1333년 완공되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목재다리인 Kapellbrücke, 스위스 용병을 기념한 사자상, 교통박물관, 라하르트 바그너 박물관, 피카소 미술관 등 다수의 유적지가 있다.
- 루체른 호수 동남쪽에 위치한 Uri, Unterwalden, Schwyz는 1291년 스위스 연방의 시원인 3개주 산악동맹이 시작된 지역으로서 윌리엄 텔의 전설 등을 비롯 스위스 역사의 발원지이다.
- 루체른 호수 건너편의 Pilatus 산은 해발 2,120m이며, 북쪽의 Kriens에서 트롤리 버스 및 리프트로 가는 방법과 남쪽의 Alpnachstad에서 유람선 및 등산열차를 타는 방법이 있으며, 한나절의 관광으로 시간제약상 Jungfrau 등정이 어려운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 특히 피어발트슈타트 호수 동남쪽 방향의 국도를 계속 드라이브 할 경우, 알프스산과 호수의 경치가 조화를 이룬 Brunnen, Schwyz 등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다.

■ Zurich

- 스위스 상업 및 경제 중심지로서 취리히 호반에 있는 최대 도시이며, 스위스 연방공대(ETH), 취리히대학, Tonhalle 음악당, Kunstmuseum 등이 있다.
- 특히 가장 번화한 Bahnhofstrasse 주변에는 스위스 3대 은행 본부 외에도 유명상품점, James Joyce, 페스탈로치 등 문인, 철학가들이 소일했던 카페 및 식당 등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 Boden호(Constanz호) 주변

- 스위스 북동부에 위치한 독일 접경의 보덴호 지역에는 라인강의 보석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중세도시 Stein am Rhein, 괴테가 "대양의 시발"이라고 찬양한 라인폭포(Rheinfall) 등 아름다운 관광명소가 많다.

(2) 관광 시 유의사항

■ 스위스가 안전한 지역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는 치안과 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말이며, 대중장소(공항, 기차역, 기차 객실, 정거장, 레스토랑 및 호텔)에 서는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도난사고(소매치기)가 잦은 편이니 유의하는 것이 좋다.

※ 여권 등 분실 및 도난 사고의 70% 정도가 기차역과 객실에서 일어나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 수도물은 석회질을 다소 함유하고 있으나 음용수로 적합하다. 식당에서는 부득이 미네랄워터를 사서 마시게 된다.

■ 등산열차 및 케이블카 이용하여 높은 곳에 올라갈 때는 기압차 및 기온차가 크다는 점을 항상 유의가 필요하다.

■ 관광 도중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하여 문서에 서명할 경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내용에는 절대로 서명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명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사고 발생시 사고수습, 입원 및 치료 비용이 상당하므로 여행자 보험을 드는 것이 좋다.

8 현지 문화

자칫 한국식으로 양보 없이 행동하거나 적당히 행동하는 경우, 직접 면전에서 주의나 핀잔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서양식의 양보 정신 및 모든 면에

서 남을 먼저 생각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스위스는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높으므로(약 23.3%), 스위스인들보다는 경제력이 떨어지는 외국인 거주자의 이상행위에 대한 현지 주민의 감시, 불법 신고정신, 심지어 적대감까지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준법 정신이 더욱 요구된다.

9 현지 연락처

(1) 전화 이용안내

■ 전화이용 안내

- 스위스-한국 : 00-82-2-XXX-XXXX
- 스위스 지역번호: 베른(031), 취리히(044), 제네바(022), 바젤(061), 루체른(041)

※ 동일지역 내에서도 지역번호 눌러야 함

- 한국 직통전화(Korea Direct): 022-903-082-한국교환원 응대-통화신청-통화 연결
  - 한국에서 원화로 요금 후불, 호텔 이용 시 부가요금 무

■ 비상전화

- 각종안내 : 1811
- 화 재 : 118
- 경 찰 : 117
- 긴급의료지원 : 144
- 차량고장(견인서비스) : 140
- 기상(기후)안내 : 162
- 교통상황안내 : 163
- 국제전화안내 : 1159
- Key and Locks(SOS) : 031-312-2767

■ 공중전화

- 동전 : 스위스 전국 기본요금 50Rappen
- 카드 : 10프랑, 20프랑짜리

(2) 교통수단

■ 공 항
- 취리히 : 043) 816-8600
- 제네바 : 0900) 571-500
- 바 젤 : 061) 325-2512
- 베 른 : 031) 960-2111

■ 주요 항공사
- 대한항공 : 043) 443-6061~2, 816-3085
- Air France : 022) 827-8787
- British Airway : 0848) 845-845
- Lufthansa : 0900) 900-922
- Swiss Air : 084) 885-2000

■ 열 차(SBB-CFF)
- 안내(전국 공통) : 157-2222

■ 화폐단위
- 스위스 프랑(SFr), 2018년 9월 기준 1US$ = 0.97 SFr

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15. 스페인

1 개황

- **수 도 :** 마드리드(MADRID, 인구 318만 명)
- **인 구 :** 4,665만 명(2018.1.1기준)
- **면 적 :** 505,990㎢(한반도의 2.3배)
- **민족구성 :** 라틴족(유럽 3대 민족이 게르만족, 라틴족, 슬라브족)
- **종 교 :** 가톨릭(72.1%)
- **시 차 :** 본토 우리시간 -8(서머타임시 -7)
  카나리아 지역 -9(서머타임시 -8)
- **언 어 :** 스페인어(까스띠야 지방어(89%)가 표준어, 까딸루냐어(9%), 바스크어(1%), 갈리시아어(0.5%) 등을 해당지역 공용어로 사용)
- **1인당 GDP('17년 기준) :** 21,942 미달러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기준) :** 총 교역 47억 미달러
  (수출 28억 미달러, 수입 19억 미달러)
- **교민 수 :** 4,520명(본토 3,807명, 카나리아 지역 713명, 2017년 기준)

2 문화적 특성

■ 유럽 남서쪽 끝의 국가

이베리아 반도의 약 85%를 차지하는 스페인은 서쪽으로 포르투갈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북아프리카와 마주보고 있다. 한편 동북쪽으로는 피레네 산맥과 안도라 공국을 끼고 프랑스와 국경을 이룬다.

■ 다양한 문화의 융합

스페인의 주요 민족은 라틴계 스페인인이다. 원주민인 이베리아인, 로마인, 게르만인, 아랍인 등 다양한 종족이 혼혈된 스페인의 민족 구성은 스페인의 문화적 다양성 및 독창성의 근원이다. 스페인에는 플라멩코(flamenco)를 비롯한 많은 민속무용이 발달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아랍풍의 다양한 양식의 건축술이 발달했고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도 배출했다. 스페인은 역사적으로 로마, 아랍 지배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고 발전시켜온 독특한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원 후 711년~1492년간 아랍의 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이슬람 문화의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페인 사람들에게 한국은 태권도의 나라,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몇 년 전부터 K-Pop을 비롯해 영화, 드라마가 스페인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류 팬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은 K-Pop을 접하면서 점차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장년층 이상은 주로 한식, 전통음악, 영화 등에 큰 관심을 보인다. 아직까지 스페인 내 한류는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국 문화 팬 층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현지 언론 역시 K-Pop 등 한국 문화 관련 행사를 활발히 보도하는 등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으며, 지난 2018.4.26 남북정상회담 문화교류행사에 힘입어 K-Pop의 전방위적 영향력에 대한 특집기사가 주요 일간지에 실리기도 하였다.

1 한류의 상륙 시기

2004년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스페인에서 흥행한 것을 기점으로 스페인의 한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2011년 개최된 비스트와 JYJ의 공연을 시작으로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 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2년 전 세계를 강타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으로 한국 음악을 전혀 모르는 현지인들도 K-Pop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또한, 2017년 4월 K-Pop 그룹 24K의 공연으로 현지 K-Pop의 인지도 또한 높아졌으며, 이는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9월의 KARD 공연 성사로 이어졌다.

2 가장 인기 있는 한류

한류의 주 팬 층인 청소년층에서는 단연 K-Pop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음악 다음으로 한국 드라마, 영화, 한식 등으로 점차 관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3 한류 파워인물

- K-Pop : BTS, EXO, KARD 등
- 영화감독 : 박찬욱, 김기덕, 봉준호, 김지운, 홍상수
- 연예인 : 박서준, 이서진, 유재석

4 한류 콘텐츠를 접하는 방식

스페인 한류 팬들은 Facebook, Instagram과 같은 SNS를 통해 한류 스타들의 소식을 접하고, YouTube를 통해 K-Pop 음악을 듣는다. 스타의 생일 파티나 팬 미팅도 SNS를 통해 기획, 공지한다.

(2) 분야별 현황

1 한국어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말라가, 살라망카 등 스페인 전역에 걸쳐 대학기관, 세종학당 및 EOI(공립 외국어학원) 등에서 한국어 강좌가 실시되고 있다. 세종학당은 현재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및 라스 팔마스에 개설되어 있다.

-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수강 : 141명)
- 마드리드 꼼쁠루뗀세 대학교 어학센터(수강 : 42명)

- 바르셀로나 대학교 한국어(부전공)(학생 : 40명)
- 바르셀로나 세종학당(학생 : 100명)
- 바르셀로나 EOI(Escuela Oficial de Idiomas) (수강 : 80명)
- 말라가 대학교 한국학과(전공)(학생 : 156명)
- 살라망카 대학교 한국학과(전공)(학생 : 98명)
- 라스 팔마스 세종학당(수강 : 36명)
- 라스 팔마스 한글학교 외국인반(수강 : 30명)

2 음악

2011년 스페인에서 최초로 K-Pop 그룹 비스트와 JYJ의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 스페인 팬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강타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으로 K-Pop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012년부터는 수도 마드리드에서 K-Pop 커버 경연대회가 한국문화원 주관 하에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매 경연대회마다 참가 신청자들의 수가 지속 증가해 2018년에는 100팀이 넘는 참가자 수를 기록했다. 경연대회 관람객 역시 올해는 약 1,000여 명 이상의 사상 최대 관객이 몰려 스페인 내 K-Pop 팬들의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밖에 스페인 내 한국문화 동호회가 개최하는 여러 중·소규모의 경연대회 및 커버댄스에도 많은 참가자들이 모이는 등 계속해서 K-Pop과 한류 팬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3 방송

아직까지 스페인 정규 채널에 방송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은 없다. 그러나 2016년 처음으로 한국과 스페인 공동제작 프로그램인 "지구 반대편 낯선 여행가"(Dos extraños y un destino)가 한국과 스페인 케이블 채널에 방영되면서 호평을 받기도 했다. 또한 현지 Netflix 서비스를 통해 한국에서 방영한 TV 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되어 보다 수월하게 한국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현지 주요일간지 아베세(ABC)를 포함한 주요 언론에서 여러 차례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K-드라마에 대한 특집을 연이어 마련하는 등, 한국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한국문화원이 2018년 5월 스페인 현지시민 628명을 대상으로 한국드라마 시청동기 및 행태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드라마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시

청 요인으로 ①탄탄한 시나리오(49.2%) ②출연진(22.5%) ③장르(21.3%)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좋아하는 한국드라마 장르는 ①장르복합(33.3%), ②로맨스(30.1%), ③역사물(9.6%)라고 응답한 바 있다.

카를로스 3세 대학(Universidad Carlos III)의 콘셉시온 카스카호사(Conecepcion Carcajosa) 교수는 한국 TV 드라마의 성공 요인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정제되고 '건전한' 표현, 그리고 시즌제가 아닌 미니시리즈 형식으로 인한 수출의 용이성" 등을 꼽았다.

4 영화

스페인의 경우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에 1-2작품,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매년 10 작품 내외의 영화가 꾸준히 초청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제66회 산세바스티안 영화제에서 임순례 감독의 '리틀 포레스트', 김지운 감독의 '인랑'이 상영될 예정이며, 제51회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는 김용화 감독의 '신과함께' 2부작, 이창동 감독의 '버닝' 등 총 10개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바야돌리드, 빌바오, 히혼 등의 국제영화제에는 여러 편의 한국영화가 참여하는가 하면 한국 유명 감독의 회고전이 개최되기도 한다.

한편, 영상콘텐츠를 스트리밍으로 감상하는 Netflix, Filmin 등의 서비스가 확대되어 더욱 많은 한국영화와 드라마를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5 한식

스페인 본토의 경우 한국 식당이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 각각 20여 곳 정도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카나리아지역에도 일본 음식점을 포함해 6개 정도가 성황 중이다. 한식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은 편이나, 주스페인한국문화원에서는 특별 한식 행사 및 한식 강좌를 통해 한국의 맛을 지속적으로 전파 중에 있다.

일부 한국 식당은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추어 퓨전화되어 있기도 한데, 특히 올해 초 스페인 유명 레스토랑 엘불리(El Bulli), 무가리츠(Mugaritz)에서 총 7년의 견습 기간을 거친 한인 요리사 '루크 장'이 마드리드 시내 중심부에 한식 기반 퓨전 레스토랑 '소마 데 아란도(Soma de Arrando)'를 개업하여 스페인 미식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현지인들은 한식에 대해 중식 및 일식과 비슷한지 먼저 물어보거나 아니면 '맵다', '채소로 이루어져 있다' 등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식을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스페인과 다른 다양한 채소의 사용과 그 요리법에 '건강식이며 맛이 좋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6 스포츠

스페인에서 태권도의 관심과 인기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2 런던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스페인의 호엘 선수가 금메달을, 니콜라스, 브리히테 선수가 각각 은메달을 차지함으로써 올림픽 대회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던 스페인 현지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에바 칼보 선수가 은메달을, 호엘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스페인의 올림픽 효자 종목으로 거듭났다.

한편 스페인은 동계스포츠 저변이 넓지는 못하나 금번 2018 평창 올림픽에서 동계올림픽 역사상 26년만에 최초로 남자 피켜스케이트 및 스노보드 종목에서 각각 동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었다.

7 뷰티

스페인 사람들은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인 못지않게 뷰티에 관심이 많다. 특히 스페인 한류 팬들은 한국의 K-Pop 가수나 드라마, 영화 등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패션과 화장법에 관심이 많다. 한국문화원이 2018년 개최한 'K-Beauty 쇼케이스' 행사에 국내기업 20개사와 현지 화장품 바이어 및 유통업체 약 33개사의 참가를 비롯해, 일반 관객 200여 명이 몰리며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엘 문도(El Mundo) 및 엘 파이스(El Pais) 등 주재국 주요 언론은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해서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 △참신한 디자인 △천연 원료 사용 등의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스페인 화장품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전체 11위(비EU 국가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K-Pop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에 더불어, 동양인들이 더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한다는 유럽인들의 인식까지 합쳐져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세포라 등 일반 약국에서 한국 화장품 코너가 마련된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8 한국 전통문화

한국전통문화는 스페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인기가 많다. 전통음악 공연을 비롯해 문화강좌(한국화, 한지공예, 국악 등), 전통음식, 전통놀이, 한복 등 스페인 문화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매우 신기해하고 좋아한다. 특히 2018년 4월에는 우리 전통음악인 가곡과 스페인 전통음악인 플라멩코의 협연 연주가 개최되어 많은 스페인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었다.

9 공연, 미술 등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공연의 경우 전회차 평균 객석 점유율 90%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무를 즐기는 스페인의 특성상 K-Pop부터 인디밴드, 전통 공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르셀로나의 '라 메르세', 마드리드의 아동극 축제 '떼아뜨랄리아' 등 현지 주요 페스티벌의 한국 공연팀들에 대한 러브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편,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 중 하나가 미술사이며, 문화유산이 풍부한 스페인의 특성상 역사나 미술에 대한 관심도나 상식이 높은 편이다. 또한 공공미술이나 크고 작은 갤러리들이 많아 일상에서 예술작품과의 접촉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문화원을 찾는 많은 관람객들의 경우, 주로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예술품 자체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한다. 한 편, 폭발적 증가세에 있는 한국인 관광객들에 힘입어,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구엘 공원, 마드리드 프라도 박물관,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예정) 등 스페인 주요 문화유산에 한국어 가이드가 제공되고 있다.

10 만화

스페인 사람들 역시 만화를 매우 좋아하며, 특히 일본 망가와 미국 만화의 인기가 매우 높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 대도시에서는 상/하반기에 걸쳐 미국 만화를 테마로 한 Heroes Comic-con, 일본 망가를 주제로 한 Japan Weekend 등의 행사가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사 내에 들어선 한국 문화 관련 부스 혹은 한국 TV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 웹툰 등을 접하면서 한국 웹툰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 "먼저 스페인 음악과 매우 다르다. 스페인 가수들에 비해서 훨씬 자주 음반을 발표하며, 뮤직비디오의 질이 매우 높다. 아이돌 그룹 노래는 매우 신나고 빠른 비트를 사용하며 따라 하기 좋은 노래들이 많다. 또한 K-Pop이라고는 하지만 팝 뿐 아니라 밴드, 일렉트로닉 등 여러 장르가 있어서 다양한 부류의 음악 애호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Nuria Fuentes, Han-A 마드리드 회장)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스페인에서 한류팬 층이 점차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중화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스페인 진출 시 스페인 이벤트 회사나 문화예술가와 협력해 문화 교류행사를 추진해야 어느 정도 흥행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K-Pop의 경우 팬 층은 주로 10대~20대 여성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 영화, 한식, 전통음악의 경우 다양한 연령의 팬 층이 있지만 30, 40대 이상의 장년층이 주를 이룬다.

아직까지도 현지인들의 아시아인에 대한 인식은 중국이나 일본의 이미지가 강하므로, 스페인에 진출 시 한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현황

스페인 내 한류 동호회는 대부분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그룹별로 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K-Pop 아이돌 가수의 팬클럽이 주를 이룬다. 또한 한국의 음악뿐만 아니라 한식, 영화, 화장품 등을 소개하는 블로그들이 운영되고 있다. 회원들의 연령대는 주로 1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으로 파악된다.

(2) 동호회별 현황

1 Han-A

성격	스페인의 대표적인 한류 동호회
회원 수	30 명
웹사이트	han-association.com
세부 활동 현황	• 스페인의 유일한 한국문화 단일 주제 동호회. 한국문화 엑스포인 "Han-A 엑스포" 매년 개최하여 스페인에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음. 그밖에 여러 행사에 참가하여 K-Pop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관광, 한글 등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안달루시아, 빌바오에 걸쳐 활동 중

2 Asian Party

성격	한류 및 아시아 관련 행사 단체
웹사이트	asianparty.es
세부 활동 현황	• 주기적으로 클럽을 대관, 아시아 지역 팝 음악, 그 중에서도 K-Pop을 메인테마로 한 Djing 파티를 진행. • 주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알리칸테에서 활동.

4 가수별 K-Pop 팬클럽 현황 (2018년 9월 기준)

팬클럽 명	가수명	SNS 주소 (트위터)	팔로워 수
BTS Spain	방탄소년단	@BTS_Spain	56,900
BTS Madrid	방탄소년단	@BTS_Madrid	3,620
Inifinite Spain	인피니트	@INFINITE_Spain	54,300
EXOL Spain	EXO	@EXOLSpain	38,100
BAP Spain	BAP	@BAPSpain	29,500
NCTU Spain	NCT U	@NCTU_Spain	25,800
NCT127 Spain	NCT 127	@NCT127_Spain	12,100
NCT Dream Spain	NCT Dream	@NCTDream_Spain	533
GOT7 Spain	GOT7	@GOT7_Spain	22,900
GFriend Spain	여자친구	@gfriend_spain	18,700
Lovelyz SP	러블리즈	@LovelyzSP	12,200
Mamamoo Spain	마마무	@mamamooSpain_	11,900
WannaOne Spain	WannaOne	@WannaOneSpain	10,600

팬클럽 명	가수명	SNS 주소 (트위터)	팔로워 수
SeventeenSP17	세븐틴	@SeventeenSP17	9,670
CrossGene Spain	크로스진	@CrossGene_spain	9,608
Monbebe Spain	Monsta X	@MonbebeSpain	9,395
BorntoBeat Spain	B2B	@borntobeatSpain	8,572
KARD Spain	KARD	@KARD__SPAIN	4,174
SUJU Spain	슈퍼주니어	@suju__spain	4,342
Dreamcatcher SP	드림캐쳐	@DreamcatcherSp	3,177
HOTSHOT Spain	핫샷	@HOTSHOT_Spain	2,253
Red Velvet Spain	레드벨벳	@RedVelvet_Spain	1,593
Hyuna Spain	현아	@hyunaspain	1,316
BLACKPINK Spain	블랙핑크	@BLACKPINKSpain	860
MONT Spain	Mont	@MONT_Spain	781
ONF Spain	온앤오프	@onoff_spain	683
PRISTIN SPAIN	PRISTIN	@PristinSpain	671
VAV Spain	VAV	@VAVSpain	640
Vromance Spain	Vromance	@VROMANCE_Spain	568
Girlkind Spain	Girlkind	@girlkindspain	383
sunmi españa	선미	@sunmi_spain	368
IN2IT Spain	IN2IT	@IN2IT_Spain	341
Bi(Rain) Spain	비	@BiRain_Spain	180
총계		32개	356,728

6 2018년 문화행사

(1) 한국 전통 음악(가곡)과 플라멩코의 만남

- 일시 및 장소 : 2018.4.3.(화) 19:30, 마드리드 왕립 고등음악원
- 주관 및 주최 : 주스페인한국문화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마드리드 왕립 고등음악원
- 행사내용 : UNESCO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가곡' 스페인 '플라멩코'의 협연 공연.

(2) 한국현대공예디자인 전시회 "시간의 여정(Viaje del tiempo)"

- 일시 및 장소 : 2018.4.5.(목) - 6.24.(일), 스페인국립장식미술관
- 주관 및 주최 :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국 공예 디자인 문화 진흥원, 스페인 국립장식미술관
- 행사내용 :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공예디자인 작품을 '물질의 시간', '인간의 시간', '자연의 시간'으로 구성하여 한국 대표 공예 작가 27인의 작품 총 97점을 전시.

(3) K-Beauty Showcase

- 일시 및 장소 : 2018.6.7.(목)
- 주관 및 주최 : 주스페인한국문화원, KOTRA 마드리드
- 행사내용 : 수출상담회, 화장품 전시회, 메이크업 시연회 등을 진행. 토니모리, 미샤, 스킨79 등 20개사 유명 한국 브랜드를 비롯 스페인 주요 화장품 바이어 및 유통업체 33개사와 상담 진행. K-뷰티 시연회는 200여 명의 일반 관객들을 대상으로 진행, 현지 뷰티 인플루언서, 한인 뷰티 전문가 등이 한국 화장품의 특징과 한-서 코스메틱 문화의 차이 등을 소개.

(4) 제7회 스페인 K-Pop 경연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8.7.7.(토) 12:00, 루스 필립스 극장
- 주관 및 주최 : 주스페인한국문화원, 스페인 영상자료원
- 행사내용 : 스페인 전역에서 비디오 예선을 통해 선발된 10개팀과 대서양 카나리아 군도 라스 팔마스에서 진행된 '카나리아 K-Pop 경연대회' 우승팀 2개팀 등 총 12개팀을 대상으로 한 가창 및 춤 경연대회.

(5) 한국 클래식 음악인 소개를 위한 '한 여름의 콘서트'

- 일시 및 장소 : 2018.7.21.(토) 12:00, 산 페르난도 왕립 미술원
- 주관 및 주최 : 주스페인한국문화원, 산 페르난도 왕립미술원
- 행사내용 : 북미와 유럽을 주무대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소진과 피아니스트 김윤지의 듀오 공연으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18번 G장조, △라벨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장조,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번호 78 번 등 연주

(6) 제11회 스페인 한국영화제

- 일시 및 장소 : 2018.8.30.(목) - 9.2.(일), 팔라시오 데 라 프렌사
- 주관 및 주최 : 주스페인한국문화원, 스페인 영상자료원
- 행사내용 : '한국영화의 대표 장르: 스릴러', '대중의 사랑을 받은 천만관객작', '북미정상회담 기념 남북관계 영화' 총 세 섹션으로 나뉘어져 6편의 영화를 13회 상영.

(7) 가라치코 한국문화주간

- 일시 및 장소 : 2018.9.7.(금) - 9.9.(일)
  자유의 광장 외 가라치코 도심 곳곳
- 주관 및 주최 : 주스페인한국문화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가라치코 시청
- 행사내용 : 국내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 2 방영을 연계하여 한국문화와 전통예술을 소개하고자 윤명화무용단, 신승원 한글 캘리그라피 작품 전시, 한국영화상영회, '더욱 가까운 한국' 제하 한국문화 소개 강좌 등 3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행사 기간 내 가라치코 메인 광장 내 청사초롱 설치

(8) 나비데냐 인터내셔널 페어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2월 중, 마타데로
- 주관 및 주최 : 주스페인한국문화원
- 행사내용 : 마드리드 시에서 매년 크리스마스 경 진행하는 다문화 축제로, 행사장 내 한국 문화 부스 설치 혹은 전통/현대 공연 등을 통한 한국 문화 홍보 진행

7 여행정보

(1) 비자

1 일반 관광비자

쉥겐협정에 따라 EU에 소속된 국가 여행 시 각 국가별 체류 기간이 총 90일(3개월)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강제 출국이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2 공연비자

스페인 현지 공연 계약서, 공연허가서, 신청서를 주한스페인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며, 공연은 5일 연속, 혹은 6개월 내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출입국

유럽 내 관광지로 유명한 곳으로 출입국이 비교적 자유롭다.

(2) 안전정보

1 여행경보 단계 :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

2 사건·사고 현황

■ 테러, 인질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2017년 8월 발생한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에서 차량돌진 테러가 발생하여 13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한 사례가 있다. 앞서 2004년 3월 11일 발생한 마드리드 아토차역 열차 폭탄테러(사망 191명, 부상 1,857명)는 알카에다가 서방 사회에 저지른 3대 테러(미국 9/11, 영국 7/11 지하철테러)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아쿠아리우스 난민 구호선'으로 인해 EU 내에 대두된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스페인 내 130만 명 가량의 이슬람 이민사회, 북아프리카와의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인해 항시 테러 발생 우려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스페인 경찰도 항시 대비 테세를 갖추고 있다. 스페인도 테러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꼭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스페인의 일반적 치안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데, 2011년 인구 천 명당 범죄발생은 45.1건으로 EU 평균보다 낮은 상태이다. 그러나 연간 8천백만 명에 달하는 방문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경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외국인 여행객이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 관광지에서의 소매치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자연재해

세비야, 코르도바 등 스페인 남부지방은 7·8월에 50도에 가까운 폭염으로 한낮에 관광을 하는 경우에 주의를 요하고, 지역별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갈리시아 등 스페인 북부 지방은 겨울철 우기로 비가 많이 오고, 한파로 인해 고지대를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기도 한다. 북부지역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여행객들의 경우 겨울철(12월~3월)은 피하는 것을 권장한다.

■ 유의해야할 지역

아시아 관광객의 강·절도 피해 사건의 80% 이상이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주요 관광지와 공항·기차역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지 문화

(1) 미팅

미팅은 매우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팅신청은 2~3주의 여유를 두고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팅이 1주일 전에 확정이 되는 경우도 많아 신청자가 그때까지 다른 일정을 잡는 데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아울러 미팅 1~2일 전에 재확인하고, 파트너와 접촉하여 참석자 명단 및 직위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래 상담을 위한 회의는 보통 자신의 사무실에서 편안한 분위기 아래 진행하기를 희망한다. 면담장소에서는 간단한 악수 및 인사말 후에 Host측이 환영 인사하고, 이어 방문자측이 답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2) 스페인 이름 부르기

직함과 함께 부를 때는 "직함 +'이름' (예시 : Director Garcia)"와 같이 부르도록 한다. 통상 직함이 없을 때는 남성의 경우 세뇨르(Sr.=Mr.) Garcia, 여성의 경우 세뇨라(Sra.=Ms.) Garcia로 불러주는 것이 적절하다. 어느 정도 면식이 생기면 first name으로 불리기를 바라는데, 이 경우 대부분 스페인 측에서 먼저 first name으로 불러달라거나 서로 그렇게 부르자고 제안을 한다.

(3) 이름표기 방식

우리와 달리 이름과 성 순서대로 쓰는데, 이름이 2개(first name-second name순)인 경우도 많으며, 대부분 아버지성과 어머니성을 모두 사용한다. 그리고 기혼여성들의 경우에도 남성의 성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예) Juan Manuel Nadal Parera

(4) 첫 만남

스페인 사람들은 회사 로고가 찍힌 편지지에 인쇄된 회사 소개서와 제품 카탈로그를 보아야 상대 회사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1차 접촉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회사 로고가 찍힌 편지지에 회사 소개서를 작성하고 제품 카탈로그와 가격리스트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컬러 스캔본)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료를 검토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자료 수신 및 검토 여부를 물어보아야 한다.

아울러 스페인 기업은 일반적으로 담당자가 없으면 아무리 멀리 한국에서 출장을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원이 대신 만나주는 일이 없으므로 출장기간을 정하기 전에 담당직원이 휴가 중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원 간에 업무구분이 엄격하기 때문에 부재 중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하지 않으며 휴가 중 업무 인수인계도 없다. 스페인의 주요 연휴는 연말연시 장기연휴, 부활절 연휴 및 여름휴가(7-8월)이다.

(5) 비즈니스 관계형성

스페인 사람들은 재촉당하는 것을 싫어하므로 너무 재촉을 하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으므로, 요령껏 재촉하며 꾸준히 확인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6) 선임자 체면 세워주기 및 명함 수수

선임자의 체면을 세워주고 적절한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임자에 대한 우대적 표시는 정부기관, 국영기업 접촉 시 더욱 중요하다. 첫 면담 시 선임자에게 더 좋은 선물 제공하도록 하며, Host 측에서 좌석을 선임자 순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명함은 선임자 순으로 모든 참석자들에게 제공한다. 우리는 명함을 주거나 받을 때 양손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이지만 스페인에서는 한손으로 건네는 것이 일반적이다. 손보다 중요한 것이 눈이므로, 명함을 주고받을 때 적당한 표정으로 상대방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도록 한다. 명함은 주의 깊게 읽어 존중을 표시하며, 받은 명함을 호주머니에 넣는 행위는 금물이다. 대규모 대표단의 경우 우선 선임자만 교환하고, 여타 참석자들은 면담 후에 교환하도록 한다.

(7) 오만찬

스페인 측에서 오만찬을 대접할 경우 반드시 감사의 표시로 리턴초대하는 것이 예의이다. 집으로 초대받을 경우, 초청자에 대한 가장 적당한 선물은 와인이다. Host측의 건배 제의를 시작으로 상호 건배를 제안한다. Host측이 건배를 제의할 때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과 가볍게 잔을 마주치고 멀리 앉아있는 사람들과도 일일이 시선을 교환하면서 약 1-2cm 정도 가볍게 잔을 들어 보인다. 식사 중 음식칭찬을 잊지 말고, 대화의 주제는 가능한 일과 관련된 내용은 피하고 가벼운 내용으로 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헤어질 때는 모든 스페인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감사를 표시하도록 하며, 먼저 자리를 뜰 때도 적어도 Host에게만은 사의를 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양식 식사매너를 숙지하도록 한다.

(8) 종교 관련

스페인 국민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가톨릭이다. 대다수의 스페인인은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결혼하며, 성당 묘지에 묻힌다. 스페인 개신교 교파 중 전통적으로 우세했던 형제단교회와 복음주의침례교회는 수많은 신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밖에 여호와의 증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모르몬교 등이 20세기 중반에 급격히 교세를 확장했다.

(9) 팁 문화

팁은 필수는 아니지만, 통상 70~80유로 이상 계산의 경우 5유로 정도 또는 지불금액의 5%내 지불하며, 단체 식사 시에도 최대 20유로를 넘지 않는다.

9 현지 연락처

(1) 긴급 연락처

- 범죄신고 : 091
- 화재신고 : 080
- 응급환자(앰뷸런스) : 061, 112
- 스페인 이민국 : +34 91 363 2330
- 스페인 경찰서 : 091
- Korea Clinic : 없음
- SOS International 병원 : +34 387 5000

(2) 의료기관

여권만 소지하고 있으면 어느 병원의 응급실이든 이용 가능하다. 다만, 진료비는 공립 또는 사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은 기본적인 영어 사용이 가능하며 접수처에서는 통역 전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동네마다 한 곳은 24시간 영업하는 약국이 있고 기본 약품들은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다.

(3)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

- 주소 : C/ González Amigo, 15. 28033 Madrid, España
- 전화번호
  - 대사관 대표 : +34 91-353-2000
- 팩스
  - 대사관 대표 : +34 91-353-2001
- E-mail : embspain.adm@mofa.go.kr
- 홈페이지 : esp.mofa.go.kr
-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처
  - 당직 : +34 648-924-695
  - 사건·사고 : +34 91-353-2009
  - 일반민원 : +34 91-353-2000
- 민원시간(영사과)
  - 월~금요일 09:00-14:00

(4) 주라스팔마스분관

- 주소 : C/ Luis Doreste Silva 60. 1ª P, 35004 Las Palmas de G.C.
- 전화번호 : +34 928-230-699
- 팩스 : +34 928-24-3881
- E-mail : laspalmas@mofa.go.kr
- 홈페이지 : esp-las.mofa.go.kr
-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처
  - 당직 : +34 629-155-134
  - 일반민원 : +34 690-701-509
- 민원시간
  - 월~금요일 08:30-17:00

10 기타

(1) 날씨

스페인은 기후에 따라 크게 3지역으로 구분된다. 해양성기후인 대서양과 지중해 연안지역에 평균기온은 겨울에 9℃, 여름에 18℃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965mm이다. 중앙 고원지역은 대륙성기후로 평균기온은 겨울에 4℃, 여름에 24℃, 연평균강우량은 380mm 이하이다. 2,750m 이상의 산악지대는 겨울에 0℃ 이하, 여름에 11℃ 이하의 평균기온과 1,150mm 이상의 연평균 강우량을 보인다.

(2) 교통정보

1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

마드리드의 경우, 2018년 상반기에 도입된 Multicard를 활용해야만 버스와 지하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버스의 경우에만 현금 승차 가능). 이 카드는 지하철역 자판기에서 2.5유로로 구매 가능하다. 여행자 패스의 경우에도 Multicard를 구매해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며, 근거리 열차(Cercanias)의 경우 Multicard가 아닌 별도 이용권을 구매해야 한다.

마드리드 기준으로 버스/지하철의 1회권 요금은 1.5유로이며, 10회권 구매시 12.20유로이다. 다만 한국과 달리 스페인 전역에서 통용되는 교통카드는 없으므로 마드리드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요금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아직 마드리드를 제외한 지역(바르셀로나 포함)에서는 지하철 정기권을 제외하면 충전식 교통카드 서비스는 도입되지 않았다.

마드리드 공항과 시내 사이를 이동 시 지하철의 경우 3유로의 별도 Suplemento를 충전해야 하며, 공항버스의 경우 5유로 현금 지불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 택시

시내 곳곳의 택시 정류장이나 대로변은 아무 곳에서나 한국처럼 손으로 택시를 잡을 수 있다. 택시지붕 위에 초록색불이 들어와 있거나 앞 유리에 'LIBRE'

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는 택시가 이용 가능하다. 요금은 한국과 같이 미터기로 산출되는 요금만 지불하며, 팁은 줄 필요없다(단, 뒤 트렁크에 짐 실을 때에 짐 1개당 1유로 추가). 택시 기본요금은 3유로 내외이다. 버스터미널, 기차역에서 탈 경우 3유로를 추가로 내야하며, 호텔 등에서 픽업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5유로를 추가로 내야 한다. 공항에서 마드리드 시내까지는 30유로 정액이며, 공항에서 10km 미만까지는 20유로 정액제로 내야한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와 신년 이브에는 할증 요금이 적용된다.

■ 기타

주요 도시나 지방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열차(고속열차 포함)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 도시 간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

2 도로교통

공항 및 주요 고속열차역 부근에서 렌터카 대여가 용이하며, 내비게이션과 함께 대여할 수 있다. 출퇴근시간 시내교통은 복잡한 편이나 서울과 비교하면 원활한 수준이며, 도시와 지방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및 시외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운전이 수월한 편이다.

(3)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속도제한, 신호 등 교통도로 법규 준수가 요망되며,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으면 철저히 보행자 우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1차선이 추월차선이며, 현지인들은 매우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차 안의 물건은 절도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차 안에 물건이나 가방, 내비게이션 등을 두고 주차하면 안 되며, 중요한 물건은 트렁크 안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4) 기타

1 전력사용현황

사용전압은 F타입 230V이나 50Hz(※ 전기 시스템 : 220V/50Hz)

2 환전

1EURO유로 = 1.17USD 미불(2018년 9월 기준)

3 통신

■ 우편

우편물은 국내우편 및 국제우편물을 막론하고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며, 우편물을 수령할 때 편지는 주소지까지 배달이 되나 소포는 직접 우체국에 가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령해야 한다. 최근 소포물의 가치가 40유로 이상이거나, 부피가 클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화장품, 음식물 등은 구성 성분이 스페인어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반입이 금지된다.

※ 마드리드-서울 간 우편배달 소요 일수

- 일반국제우편 : 약 7일
- DHL : 약 3일
- EMS(Express Mail Service) : 약 5일

■ 인터넷

마드리드 관광지에 무료 Wi-Fi존이 여러 곳 있으며, 전화선 또는 전용회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및 호텔, 공항 등에서의 Wi-Fi 이용이 가능하다. 레스토랑에도 Wi-Fi가 가능한 곳이 있다. 인터넷 속도는 한국에 비해 빠른 편은 아니며, 마드리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4G 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현지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휴대폰 로밍을 하거나, 통신사의 선불 유심칩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된다.


KOREA
FOUNDATION
KF
한국국제교류재단

16. 슬로바키아

1 개황

- **수 도 :**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인구 42.9만 명)
- **인 구 :** 544만 명
- **면 적 :** 49,035㎢(한반도의 1/4)
- **민족구성 :** 슬로바키아인(80.7%), 헝가리인(8.5%), 집시(2%), 기타(8.8%)
- **종 교 :** 가톨릭(63%), 개신교(8.2%), 그리스정교(3.8%), 무교 또는 기타(25.9%)
- **시 차 :** 우리시간 -8(서머타임 시 -7)
- **언 어 :** 슬로바키아어
- **1인당 GDP('17년) :** 약 15,630 유로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 총교역 29.5억 미달러(수출 27.73억 미달러, 수입 1.77억 미달러), 대슬투자('17.9월 누계, 신고기준) 13.6억 미달러 (405건)

2 문화적 특성

슬로바키아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중동부 유럽에 속한 나라이다.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이 되는 연유로 프랑스나 영국 등의 서유럽이나,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스페인과 같은 남부유럽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다. 종교적으로는 서유럽의 가톨릭을 비방하는 개신교회들의 종교개혁이 일찍이 일어났으며, 가톨릭 인구가 과반수를 차지하지만, 여타 서유럽의 다른 나라와 같이 일요일에도 상점들이 문을 열고 식당도 장사를 한다. 이처럼 종교적인 색깔이 겉으로 유난스럽게 드러나지 않는다.

고대유럽의 역사에서부터 게르만, 켈트, 슬라브, 마자르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족들의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던 동유럽은 비단 유럽뿐만이 아닌 소아시아, 러시아 등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다. 로마시대 이후에는 비잔틴제국의 동로마와 이슬람제국, 합스부르크제국과 터키,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과 러시아의 전쟁 사이에서 각국의 억압을 반복적으로 수차례 받으며 유럽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에서 다소 소외되어왔다. 국력이 약한 동유럽의 한 국가로 지내온 역사는 슬로바키아인들이 강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띄는 배경이 되었다. 슬로바키아의 민족주의적 특성은 체코와 폴란드 등과 같은 동유럽의 민족주의처럼 자신들의 집단에 대한 귀속성을 중시하는 것, 즉 '우리'와 '그들'을 서로 나눠 자신들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슬로바키아는 현재 전형적인 동유럽, 과거 공산주의 정권이 지배하던 문화적 색깔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1989년 공산주의 정권에서 탈피한 이래, 1993년 체코와 분리되면서 더 진보한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고, 2004년 유로화 도입으로 친서유럽적인 모습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이 배경에는 슬로바키아의 수도이며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브라티슬라바와 가장 인접한 오스트리아의 빈의 영향이 크다. 두 도시는 '트윈씨티'라는 동반성장을 목표로 두 도시를 잇는 전용 기차노선을 운행 중이며, 브라티슬라바의 젊은이들은 선진도시인 빈의 패션이나 문화 경향들을 공유한다.

또한 슬로바키아 민족은 예로부터 음악적인 성향이 강했다. 서양음악의 중심지인 오스트리아의 빈과 가까운 것이 슬로바키아 민족이 전통음악과 더불어 서양음악을 항상 생활 속에서 접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슬로바키아의 가장 대표적인 오케스트라인 '슬로바키아 필하모니'는 서유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화려한 프라하의 체코필이나 오스트리아의 빈필보다는 소박한 느낌을 주는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슬로바키아 국민들은 음악뿐만 아니라 스포츠에도 열광한다. 대표적인 인기 스포츠는 아이스하키이며, 그 외에도 축구, 테니스, 스키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긴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슬로바키아 내에서의 한류에서 K-Pop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밖에 대사관에서 개최하는 〈김치시연회〉, 〈대사배태권도대회〉, 〈한-슬 친선음악회〉 등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단계이다.

(2) 분야별 현황

1 한국어

수도 브라티슬라바에 위치한 코메니우스 대학 동아시아학부에는 지난 2012년 한국학 전공 학사과정이 정식 개설되었으며, 2016년에는 최초로 한국학 석사과정이 개설되었다. 전체 학생 수는 35명이다. 이는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해 배우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하는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어 주재국 내의 한류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대중음악

K-Pop 가수로는 VIXX, B.A.P, BTS, 슈퍼주니어, 2PM, Black Pink, 4 Minute 등의 아이돌이 인기가 많으며, 이들의 음반을 구하기 위해 대사관으로 구입처를 묻는 경우도 있다. 이에 주슬로바키아대사관에서는 인터넷 구입처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리가수들의 음반이나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기념품 등을 상품으로 수여하기도 한다.

3 영화

중동부 유럽에서 인지도가 높은 김기덕 감독의 작품 중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빈집〉 등과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등이 알려져 있다.

4 한식

수도 브라티슬라바, 트르나바, 질리나 등의 도시에 한국식당 및 한국식품점이 운영되고 있어 슬로바키아인들이 한식 재료를 구해 한국음식을 요리하거나 한국식당에서 한식을 접해볼 기회가 다양해지고 있다. 대사관에서도 매년 한식을 알리기 위한 한식요리경연대회, 김치시연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5 뷰티

최근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듯 한국 화장품 미샤의 슬로바키아 첫 대리점이 2014년 질리나시에 오픈되었다. 화장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Notino에서는 "합리적 가격에 높은 품질이 보장되는 한국 화장품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 화장품 코너를 운영, 판매하고 있다.

6 클래식 공연

우리 성악가 2인(테너 김경호, 바리톤 레오안)이 슬로바키아 국립극장 오페라 공연에 주연으로 고정 출연하면서 실력을 인정받고 슬로바키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슬로바키아인들은 대부분 YouTube 동영상을 통해 한국음악을 접한 것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부 한국 여행 중 한국 사람이나 도시에 대한 좋은 인상을 느낀 것이 계기가 된 경우도 있다. 부드러운 억양을 가진 한국어를 좋아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나, 한국 연예인을 좋아해서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가진 경우도 있다. K-Pop의 선진적 음악 트렌드나, 격렬한 안무에서 느껴지는 열정을 좋아한다고 한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중동부 유럽에 속해 있는 슬로바키아는 서유럽에 비해 외국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직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무조건 큰 규모의 마케팅이나, 주입식의 문화홍보는 지양해야 한다. 현재 젊은 세대 중에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이국적인 문화를 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단순 음악적인 교류나 드라마, 영화 등의 미디어적인 측면만의 교류보다는 여행이나 국가, 역사 등을 먼저 홍보하는 것이 슬로바키아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좋을 것이다. 슬로바키아 내에서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여타 중유럽국가에 비하여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K-Pop이나 한류에 대한 관심은 서유럽의 나라들에 비하여 적은 편이므로 아시아에서 하듯이 한국드라마를 방영하는 방법보다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먼저 유입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슬로바키아 내 한류 관련 동호회는 주로 특정가수(그룹의 경우 각 멤버)별 팬클럽이 대부분이며, 주로 한류 스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관련된 동호회는 존재하지 않지만, 체코의 동호회인 Asian style에서 활동하는 슬로바키아 한류팬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동호회별 현황

1 BTS~Czech&Slovak ARMYs

성격	K-Pop 동호회
회원 수	4,555명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한국 가수 B.A.P 관련 정보 공유

2 B.A.P Czech Slovak Fanclub

성격	K-Pop 동호회
회원 수	1,000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BAP-Czech-Slovak-fanclub-315932538443664/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한국 가수 B.A.P 관련 정보 공유

3 K-Pop Czech&Slovak subbed

성격	K-Pop 가사 번역 및 공유
회원 수	1,130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pages/KpopCZ.SKsubbed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체코와 슬로바키아 한류팬들이 한국 대중음악 가사 번역하여 공유

4 DJ Ondro K-Pop Weekend

성격	K-Pop 동호회
회원 수	약 662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groups/677394405628329/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K-Pop 정보 공유 • (오프라인) K-Pop DJ Ondrej Varga가 주최하는 K-Pop Party 연 4~5회

6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2017년

- K-Pop World Festival 슬로바키아 예선전(6월)
- 한국 대사배 태권도 대회(6월)
- 허회태 작가 초청 한국 서예 전시회 - “허회태 이모그래피”
- 한-슬 친선음악회(9월)

(2) 2018년

- K-Pop World Festival 슬로바키아 예선전(3월)
- 한국 대사배 태권도 대회(6월)
- 한-슬 수교 25주년 기념 친선음악회(9월)
- 김치 시연회(9월)

7 여행 정보

(1) 비자

사증 면제 협정(쉥겐협약법)으로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입국 후 호텔 등의 숙박시설이 아닌 개인집 등에 체류하는 경우, 도착 후 3일(근무일) 이내에 경찰서를 방문해 체류예정기간과 장소 등을 신고해야 한다(호텔 등 숙박시설의 경우, 시설 운영자가 5일 이내 신고).

입국 후에 체류허가(Residence Permit)를 신청하는 경우, 여권 유효기간보다 3개월 짧은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2) 출입국 안내

우리나라는 슬로바키아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으므로, 관광 등 비영리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증 없이 3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 슬로바키아는 2008년 쉥겐협정(26개국)에 가입했으므로, 항공편으로 쉥겐협정 가입국에서 입국하거나 육로로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주변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여권검사 등 별도의 국경통제가 없다.

(3) 안전 정보

구시가지, 기차역, 버스, 식당 등 혼잡한 장소에서 소매치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소지품 관리에 주의해야 하며, 주차 시 차량 안에 가방이나 휴대품을 두고 내리지 않는 것이 좋다.

8 현지 문화

(1) 팁 문화

식당, 카페 등에서는 10% 정도를 팁으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예술행사

1 공연 문화

슬로바키아의 극장은 4개의 국립극장과 22개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극장이 있으며, 40여개의 기업이 운영하는 극장이 있다. 국립극장(SND)은 현재 수도 브라티슬라바에 2곳이 위치해 있으며, 1920년에 건립된 구 국립극장은 슬로바키아를 상징하는 건물이기도 하며, 신 국립극장은 약 20년간의 공사 이후 2007년에 건립되었다. 이외에도 코시체, 반스카 비스프리차 등 지방 극장들에서도 다양한 공연과 음악회가 개최된다.

2 전통 민속예술

슬로바키아 국민은 전통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음악의 기원은 슬라브족과 유럽인들의 민속음악이며 15~16세기 종교음악의 기원인 모라비아 왕국의 예배식에서 전례를 찾을 수 있다. 음악은 종교음악과 실내악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민속음악은 헝가리 통치하에서 슬로바키아 언어를 보존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전통악기로는 목관피리 종류인 푸야라(Fujara), 백파이프인 가이디(Gajdy), 양치기 플루트인 콘코우카(Konkovka) 등이 있다. 목공예, 도자기공예, 유리공예 등 전통 민속예술 중 특히 14세기부터 모드라지역의 'Majolika' 도자기공예가 유명하다. 부드러운 곡선과 노란색, 파란색을 이용해 생활필수품을 만든다. 또한 목재 교회 건축물은 슬로바키아만의 독특한 건축양식이다. 전국 각지에서 민속 음악가들과 무용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통축제인 비호드나 민속 축제(Východná Folklore Festival), 폴라냐 민속 축제(Folklórne Slávnosti pod Poľanou)는 7~8월경에 열린다.

3 음악

대도시마다 자체의 오케스트라와 오페라극장을 가지고 있다.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뛰어난 오케스트라는 1949년 창립한 슬로바키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이며, 코시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보단 바르할(Bohdan Warchal)의 국립실내합주단 또한 유명하다. 얀 훔멜(Jan Hummel)은 슬로바키아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작곡가, 지휘자로 활발히 활동한 음악가로서 최고의 피아노 거장으로 존경받았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피아노 독주곡 〈마음에 드는 론도 op.11〉, 〈트럼펫 협주곡〉, 〈클라리넷 협주곡〉 등이 있다.

슬로바키아를 대표하는 성악가로는 루찌아 뽑뽀바(Lucia Poppová), 베떼르 드보르스키(Peter Dvorský), 에디따 그루베로바(Edita Gruberová) 등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더불어 1946년에 시작하여 매년 9월 개최되는 〈브라티슬라바 음악 페스티벌〉은 주변 유럽 국가들의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축제로, 해당 축제를 통해 젊은 음악도를 배출 및 양성하고 있다.

한여름에는 오케스트라, 오페라, 발레 등 공연이 없는 대신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여름음악축제 〈Viva Musica!〉가 개최된다. 매년 7월 트렌친 공항에서 열리는 〈Pohoda〉는 멀티 장르의 음악 축제로 자유로운 분위기의 축제를 선호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매년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9 현지 연락처

(1) 긴급 연락처

- 범죄신고 : 158
- 화재신고 : 150
- 응급환자(앰뷸런스) : 155
- 구조연락 : 112
- Information : 1181

(2) 의료기관 연락처

[브라티슬라바]

■ Procare
- 웹사이트 : www.procare.sk
- 전화번호 : 0850 888 999

■ Nemocnica Staré Mesto
- 주소 : Mickiewiczova 811 07 Staré mesto
- 웹사이트 : www.unb.sk/nemocnica-stare-mesto/
- 전화번호 : +421 21529-234-80

■ 갈란타 : NsP Sv. Lukáša
- 주소 : Hodská 373/ 38, 924 01 Galanta
- 웹사이트 : www.nemocnica-galanta.sk/
- 전화번호 : +421 55/327-77-77

■ 질리나 : Fakultná nemocnica s poliklinikou Žilina
- 주소 : 012 07 Žilina
- 웹사이트 : www.fnspza.sk
- 전화번호 : +421 41/500-13-90

■ 코시체 : Univerzitná nemocnica L. Pasteura
- 주소 : Trieda SNP 1 040 11 Košice, Trieda SNP 457/1, 040 11 Košice
- 웹사이트 : www.fnlp.sk/
- 전화번호 : +421 55/615-3111

(3) 대사관 연락처

■ 주소 : Štúrova 16, 811 02 Bratislava, Slovakia

■ 전화번호
- 전화 : +421 (0) 2-3307-0711
- 팩스 : +421 (0) 2-3307-0730/31

■ E-mail : slovakia@mofa.go.kr

■ 홈페이지 : svk.mofa.go.kr

■ 비상연락처 : +421 (0) 904-934-053
■ 업무시간 : 월~금요일 9:00~12:00, 14:00~16:00

10 기타

(1) 날씨

기후는 4계절 대륙성 기후로써 여름은 낮에는 고온건조하나 아침·저녁으로 서늘하며, 겨울은 춥고 강설량이 많고 봄·가을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기간이 짧다. 여름철 낮에는 햇빛이 강하고 고온 건조하므로 선글라스와 자외선 차단제 등을 바르고, 아침·저녁에는 서늘하므로 얇고 긴 옷가지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태풍, 지진 등 특별한 자연재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겨울에는 북부 산악지 역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교통이 통제되기도 하므로 스키여행이나 겨울 산행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 교통정보

1 교통 일반

슬로바키아에서는 지상경전철(Tram), 버스 및 트롤리버스를 일반적인 대중교통으로 이용한다. 대중교통 노선은 www.imhd.sk에서 슬로바키아어 및 영어로 검색이 가능하며, 노선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시~22시까지 운행하며 새벽에 한 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야간 버스도 있다. 대중교통 승차권은 정거장 부근에 설치된 자동발권기 또는 가판대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승차권 요금은 사용시간별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른 교통수단 및 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승차권 요금은 15분권(0.7유로), 30분권(0.9유로), 60분권(1.2유로), 1일권(3.5 유로), 3일권(8유로), 7일권(11.4유로) 등으로 나뉘므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구입하면 되고, 배낭을 제외한 짐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티켓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차량 승차 이후에는 개찰기에 승차권을 삽입해 탑승시간을 표시해야 하며 개찰하지 않은 채로 검표를 받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한다.

2 철도

브라티슬라바의 중앙역(Hlavná stanica)을 이용하여 지방 및 인접국가로의 여행이 가능하며,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는 1시간 정도, 체코 프라하까지는 5시간 정도 소요된다. 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승차권을 구입한 후 예약창구에서 좌석예약권을 받아야 한다. 영어를 구사하는 창구직원이 많지 않으므로, 종이에 적은 목적지와 출발시간 등을 창구 직원에게 보여주는 편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버스

브라티슬라바 버스터미널(Autobusová stanica)에서는 지방도시 및 비엔나, 부다페스트, 프라하 등 인접국의 도시로 이동하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장 큰 버스회사로는 Slovak Lines가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slovaklines. sk)를 통해 티켓을 예매하거나 터미널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다.

4 항공

브라티슬라바 공항(M.R. Štefánik Airport)은 주로 저가항공의 단거리 비행편을 이용하기에 적합한 작은 규모의 공항이다. 공항에서 도심까지는 61번 버스 및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콜택시 요금은 10유로 정도 부과된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항의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브라티슬라바 도심까지 1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Flixbus사(www.flixbus.sk), Regiojet사(regiojet.com)와 Slovak lines사(www.slovaklines.sk)에서 운행하는 직행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저렴하게 브라티슬라바 도심까지 이동할 수 있다.

5 택시

다양한 콜택시 회사가 있으나 영어가 가능한 오퍼레이터를 찾기 힘들다. 한국어로도 이용 가능한 Hopin.sk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편리하다. 거리에 세워진 택시를 이용할 경우 콜택시 비용의 2~3배까지 청구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행선지를 알려주고 비용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6 운전

브라티슬라바 도심은 차선이 희미하고 노면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일방통행 도로와 지상경전철 노선이 많은 관계로 운전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와 달리 별도 신호가 필요 없는 우회전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호를 받아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사람이 우선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한속도는 일반적으로 도심 50Km/h, 고속도로의 경우 시내는 90Km/h, 시외는 130Km/h로 규정하며 제한속도가 별도로 설정된 경우에는 도로 우측에 제한속도 표지판에 표기 된다.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유효기간 1년)을 소지해도 동 운전면허증으로 실제로 90일간만 운전이 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유효기간 1년)으로 슬로바키아에 입국한 경우 슬로바키아 체류허가를 받은 후에는 즉시 슬로바키아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받아야 한다(주재국 체류허가를 획득한 경우에도 입국일로부터 최장 245일간만 운전 가능).

주변국에서 슬로바키아에 자동차로 입국할 경우 국경에 인접한 주유소(또는 고속도로 티켓 판매소)에서 고속도로 통행 티켓을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 티켓 없이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될 경우 상당 금액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기타

1 전력 사용

전기는 230V/50 Hz, 안전핀이 있는 E형 플러그를 사용하며, 텔레비전 등 관련제품은 PAL 방식을 사용한다.

2 환전

미화를 유로화(2009.1 유로존 가입)로 환전하는 경우, 은행 또는 사설 환전소를 이용할 수 있다. 사설환전소는 공항 또는 도심 내부(Old Town)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환전을 할 경우에 별도 환전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은행 개점시간은 일반적으로 월~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Aupark, Eurovea, Central 등 대형 백화점에 위치한 은행은 주말에도 개점한다.

3 통신

인터넷은 호텔 객실 및 비즈니스센터에서 사용가능하다. 공중전화의 경우 동전 또는 전화카드를 이용하여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일부 대형마트나 도심 또는 대학가에서만 공중전화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구입한 선불전화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비싼 요금으로 호텔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국제전화 사용법

슬로바키아에서 한국 → 00+82+지역번호·전화번호

한국에서 슬로바키아 → 국제전화사업자번호-421-지역·전화번호

17. 아일랜드

1 개황

- **수 도 :** 더블린(Dublin, 인구 약 135만 명)
- **인 구 :** 501만 명(2017년)
- **민족구성 :** 켈트족
- **면 적 :** 70,282㎢(한반도의 약 1/3, 남한의 약 82%)
- **종 교 :** 가톨릭 78%, 무교 10%, 기타 12%
- **시 차 :** 우리시간 -9[서머타임(4~10월)시 -8]
- **언 어 :** 영어, 게일릭어
- **GDP('17년) :** 3,340억 미불
- **1인당 GDP('17년) :** 70,000미달러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 총 교역 18억 미달러(수출 7억 미달러, 수입 11억 미달러)

2 문화적 특성

(1) 세계적 명성의 문화적 전통

아일랜드의 풍부한 문화적 전통과 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끼친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들을 빼놓고는 영문학을 논할 수가 없는데, 「걸리버 여행기」의 조나단 스위프트(1667-1745), 「심연으로부터」「도리안 그레이의 초상」등으로 알려진 오스카 와일드(1854-1900), 현대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조이스(1882-1941) 등이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아일랜드는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1865-1939), 조지 버나드 쇼(1856-1950), 사무엘 베켓(1906-1989), 셰이무스 히니(1939-2013) 등 지금까지 4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아일랜드 소설은 근래에도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2007년 앤 엔라이트, 2005년 죤 반빌, 1993년 로디 도일 등이 맨부커상을 수상하였으며, 매년 아일랜드 출신 작가들의 작품이 맨부커상의 후보로 추천되고 있다.

또한, 축제와 장례식에서 연주와 노래가 빠지지 않았던 전통으로부터 전 세계의 아일랜드 교민 사회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춤에 이르기까지 아일랜드 문화에서 음악과 춤은 항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18세기에 더블린은 매우 중요한 음악 중심 도시 중 하나였고 헨델이 1742년 그의 작품 '메시아'를 초연한 곳도 더블린이었다. 최근에도 아일랜드의 '리버댄스(탭댄스의 일종)'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으며, 밴 모리슨, 시나드 오코너, 엔야와 같은 가수와 함께 'U2'와 같은 인기 밴드가 국내외 뮤직 차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성 패트릭 축제(St. Patrick's Day) 등 크고 작은 축제가 연중 내내 개최되고 있고 길거리 공연이 성행하고 있다.

(2) 친절하고 포용력이 큰 국민성

영국의 오랜 식민지배 속에서도 세계적 예술가들을 다수 배출한 아일랜드인의 민족적 자긍심 및 문화적 자부심은 대단하며, 타 문화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관대한 편이다. 또한, 유럽연합 가입과 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점차 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특히 2017년 6월 총선 결과 인도계 이민 2세인 Leo Varadkar가 현 총리로 선출되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고, 비영미권 문화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한편, 같은 영어권인 미국과 영국의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들 나라로부터 수입된 TV 드라마와 영화가 자국 콘텐츠보다 널리 방영되고 있으며, 반대로 아일랜드 출신의 영화배우나 극작가가 미국 및 영국에서 대활약하기도 한다.

여러 관광책자가 아일랜드를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나라로 묘사할 정도로 아일랜드 사람들은 대체로 사교적이며 인간적 유대를 중시한다. 이런 측면은 '정'을 강조하는 한국 문화와도 유사하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아일랜드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기업 및 브랜드 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한류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K-Pop을 좋아하는 일부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층들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 한국드라마, 영화, 음악 등을 찾아 즐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한류 팬클럽을 결성하여 매해 소규모 K-Pop 콘테스트, 플래시몹, 한국 문화 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 음반, 포스터 등을 취급하는 소규모 레코드점도 생겼다. 2014년 8월 한국대사관 주관으로 개최된 K-Pop 콘테스트에는 무려 40팀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본 대회 우승자인 GGC Crew가 한국에서 개최된 K-Pop World Festival 본선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8년 7월 한국대사관 주관으로 개최된 K-Pop 콘테스트 결과, 2017년에는 독자적으로 공연했던 참가자들이 올해는 2명에서 많게는 13명까지 그룹을 결성하여 공연하였으며, K-Pop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한류 팬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Pop 팬 외에도 영화 애호가들 사이에 한국 영화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영어교사로 한국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 아일랜드 청년 등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트리니티대학, 코크대학, 더블린 공과대학(DIT) 등에 한국학 및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한국문화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2)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K-Pop 또는 한국드라마의 대중적 흡입력, 오락성 등이 아일랜드 한류 팬이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로 꼽힌다. 기본적으로 팝음악에 친숙한 아일랜드인은 K-Pop의 화려한 군무가 신선하다고 평가한다. 점차 한국 영화, 음식 등으로 관심영역을 넓혀 한국어를 배우기도 한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아일랜드 대중의 아시아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기초적인 수준이나 생소한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포용력을 갖고 있으므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영화나 드라마 등 한 장르에 국한되기보다 한식, 애니메이션, 문학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다방면에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K-Pop 팬들의 경우, 하루속히 K-Pop 스타의 현지 방문 공연이 있기를 고대하고 있어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아일랜드는 영어사용 국가로 영역본이 준비된 문화 콘텐츠의 경우 바로 현지 소개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축제와 공연이 연중 개최되고 있어 유명 공연장은 1년 전에 중요 프로그램이 결정되어 대관이 쉽지 않으므로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현지인들의 문화적 소양이 전반적으로 높고 문화행사가 자주 개최되기 때문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이질성('아시아문화 체험' 등)에 의존하기보다는 우수한 작품성 등으로 명성을 쌓아가야 할 것이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트리니티대학 한국동호회(Trinity College Dublin Korean Society)

성격	최고 명문 대학인 트리니티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한국 동호회
회원 수	400여 명(졸업생 포함)
웹사이트	www.facebook.com/Korean.Society
세부 활동 현황	• 일차적으로 K-Pop, 영화, 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상호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나, 한복과 한국 음식 등 문화 전반으로 관심 영역 확장 추세
	• 정기 회동(매달 1~2회)시 한국 영화 상영회, 한식 체험 및 조리 교습 등 개최
	• 온라인상 한국드라마, 영화, K-Pop 등에 대한 감상평과 한복, 한식 등 한국 문화에 대한 활발한 정보 공유

2 K-Pop Ireland

성격	아일랜드의 청소년(대다수가 10대)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한국 동호회
회원 수	1,400여 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kpopireland, twitter.com/#1/kpop_ireland
세부 활동 현황	• 일차적으로 K-Pop, 한국 영화, 한국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및 열정을 상호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나, 한복, 한국 음식 등 한국문화 전반으로 관심 영역 확장 추세
	• 한식 체험 행사, K-Pop 음악 및 댄스 연습, K-Pop 플래시몹 등 실시
	• Facebook,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드라마, 영화, K-Pop 등에 대한 감상평 및 공연 관련 정보 공유

3 코크대학 한국동호회(UCC Korean Society)

성격	코크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한국동호회 (코크대학은 아일랜드 내 유일한 한국학 연구소 설립)
회원 수	400여 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ucckoreansociety
세부 활동 현황	• K-Pop, 한국영화, 한국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 및 상호 공유하고 한국의 제반분야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공유

4 Japako 잡지사

성격	한류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결성한 한국 및 일본 대중문화 관련 잡지사(아일랜드 코크 소재)
웹사이트	japakomusic.com
세부 활동 현황	• 한류 및 일본 대중문화 관련 잡지 정기 발행 • 한국 연예기획사와 협력, 신인 한류가수의 유럽 방문 공연 및 팬미팅 등 추진

6 2018년 문화행사

(1) 한국문화행사

- 일시 및 장소 : 5.27.(일), Smock Alley Theatre
- 주관 및 주최 : 주아일랜드대사관, 한국문학번역원
- 행사 내용 : 더블린문학축제 계기 한국 문학 소개 코너를 운영하여 올해의 초청작가 배수아의 작품 낭독, 대담 및 사인회를 통해 우리 문학을 홍보함.

(2) 한국영화제

- 일시 및 장소 : 6.7.(목)-6.9.(토), Light House Cinema
- 주관 및 주최 : 주아일랜드대사관(영화진흥위원회 후원)
- 행사 내용 : 정관계, 경제계, 문화계 인사 및 외교단을 비롯한 현지 관객 400여 명을 초청하여, 3일간 다양한 장르의 우리 영화 5편을 무료로 상영함.

(3) K-Pop Festival

- 일시 및 장소 : 7.17.(화), Smock Alley Theatre
- 주관 및 주최 : 주아일랜드대사관
- 행사 내용 : 총 16팀이 K-Pop 노래 및 춤을 공연했으며, 약 200명의 관객이 모여 공연을 관람하고 K-Pop 파티 및 한식 리셉션을 개최해 한국 문화의 다채로움을 선보임.

(4) 대사배태권도대회

- 일시 및 장소 : 12.1(토)-12.2(일), Gormanston Park
- 주관 및 주최 : 주아일랜드대사관
- 행사 내용 : 아일랜드 및 주변국 태권도 선수들을 결집해 겨루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나라 태권도를 널리 알리고 선수들을 격려하는 한편, 지속적인 기량 강화를 도모함.

7 여행정보

(1) 비자

단순방문 또는 관광목적으로 90일 이하 체류 시, 사전에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아일랜드에 입국할 수 있다. 단, 체류목적에 해당하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입국심사관의 권한으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단순 관광 목적이 아닌 유학, 취업 또는 업무 목적으로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주한아일랜드대사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입국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단기 공연비자(Visa for Performers)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주한아일랜드 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www.inis.gov.ie 참고).

- 신청서한(별지에 여행목적·기간, 재아일랜드 가족관계, 귀국서약 등 작성하여 첨부)
- 아일랜드 행사 주최자의 청장/확인서한 및 공연계획안(일정 등 포함)
-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2장
-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 비행일정, 숙박 등 여행관련 정보
- 거주국(한국) 고용주/단체의 확인서한 및 지난 공연기록
- 경비 확보내역
- 지난 해외공연 기록 등

(2) 주한아일랜드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3 13층(수송동, 이마빌딩)
- 전화 : 02-721-7200

(3) 안전정보

1 여행경보단계 : 해당 없음

2 사건사고 현황

- 경제위기 이후 관광객이나 유학생을 상대로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 MP3 등의 고가품 날치기 사건과 노상강도 사건이 빈번해졌으며, 특히 연말 등 특수기에는 붐비는 백화점이나 공항에서 가방, 여권 등의 절도 사건이 종종 발생한 바 있다.
- 또한, 취업난을 틈타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주겠다고 한 후 수수료를 챙긴 취업사기사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몰래 복제하여 현금을 인출해가는 은행 관련사고,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피해사건도 발생했다.

3 주의해야 할 지역

- 오코넬거리(O'Connell St.)는 관광객으로 항상 붐비는 지역으로 휴대폰 사용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날치기가 종종 발생하니 가급적 거리에서는 고가의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 Dublin 1과 Dublin 7 지역은 빈민 영세아파트가 위치해 있어 외국인, 불량청소년이나 마약중독자에 의한 각종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야간이나 축구, 럭비 등의 경기 후에 특히 유의하도록 한다.
- 템플바 주변은 관광객이 많이 몰리며 특히 취객도 많아 행인들이 정신없는 틈에 소매치기를 당하는 일이 빈발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8 현지 문화

(1) 일반 문화

인사로는 악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처음 만난 사람들과는 주로 날씨에 관한 가벼운 이야기를 한다.

(2) 종교 관련

3월 17일 성 패트릭 데이(St. Patrick's Day)는 아일랜드 최대 기념일로 패트릭 성인을 기념하는 날이며 매년 세계 곳곳에서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뤄진다.

(3) 팁 문화

식당이나 펍(Pub)에서 계산서에 봉사료(10% 정도)가 포함된 경우 별도의 팁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봉사료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종업원에게 확인해 이용금액의 5~10%를 지불한다. 택시기사에게는 요금의 약 5~10%, 물품 보관 시 짐 1개당 1유로 정도, 포터에게는 약 2유로의 팁을 주면 된다.

9 현지 연락처

(1) 긴급연락처(아일랜드 국가번호 +353)

- 경찰 : 999 또는 112
- 화재 : 999 또는 112
- 응급의료 : 999 또는 112
- 전화번호안내 : 11811

(2) 의료기관 연락처(아일랜드 국가번호 +353)

- Mater Misericordiae 대학병원 : Eccles St., Dublin 7(T. 01-803-2200)
- St. Vincent's 대학병원 : Elm Park, Dublin 4(T. 01-277-4000)

(3) 대사관 연락처

- 주소 : 15 Clyde Road, Ballsbridge, Dublin 4
- 홈페이지 : http://irl.mofa.go.kr
- E-mail : irekoremb@mofa.go.kr
- 전화번호 : +353 (0) 1-660-8800
- 비상연락망 : +353 (0) 87-234-9226
- 팩스번호 : +353 (0) 1-660-8716
- 업무시간 : 월~금 09:00~17:00(아일랜드 공휴일 휴무)
- SNS : www.facebook.com/korembassy

18. 아제르바이잔

1 개황

- **수 도 :** 바쿠(Baku, 인구 222만 명)
- **인 구 :** 약 990만 명
- **면 적 :** 86,600㎢(한반도의 40%)
- **민 족 :** 아제르바이잔인(91.6%), 레즈기인(2%), 러시아인(1.3%) 등
- **종 교 :** 이슬람교 96%(시아파 85%, 수니파15%), 러시아 정교 2.5% 등
- **시 차 :** 우리시간 -5
- **언 어 :** 아제르바이잔어(공용어), 일부 러시아어 통용
- **1인당 GDP(2017년도)**: 4,186불
- **우리나라와의 교역(2017년도) :** 5,419만불
  - 수출(한국→아제르바이잔) : 5,330만불 (승용차, 밸브, 철구조물 등)
  - 수입(아제르바이잔→한국) : 88만불 (음료, 카페트, 위생용품 등)

2 문화적 특성

■ '겉은 서양인, 속은 동양인'의 아제르바이잔인

아제르바이잔은 조지아, 아르메니아와 함께 남 코카서스 지역에 속한 나라이다. 코카서스 지역은 중앙아시아와 함께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다양한 종교와 민족이 혼재하는 곳이어서 아제르바이잔도 기본적으로 다민족 다문화 국가이다. 아제르바이잔에는 20 여 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아제르인들이 전체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아제르 민족이외에 주요 민족으로는 러시아인, 다게스탄인, 페르시아인, 아르메니아인, 유대인 등이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의 종교적 기반과 다양한 문화가 이합 집산하여 온 역사적 전통으로 인해 종교와 문화적으로 매우 관용적인 곳이다. 타 문화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비단길을 따라 위치하는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지만 유목 문화의 전통과 장기간 소련의 일부분이었던 사실도 이들의 타 문화에 대한 관용적 태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다문화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아제르바이잔이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라는 점이다. 아제르바이잔 이슬람이 많이 세속화되어 있기는 하나 이슬람 교리는 이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문화에 기본적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19세기 이래 석유 거래를 중심으로 한 서구와의 긴밀한 교류와 제정러시아 및 소련의 장기간에 걸친 영향으로 자신들을 유럽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관계나 예식의 형태를 들여다보면 연장자 존경, 체면과 계급 존중 등 동양적인 전통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공동체를 향한 응집력과 자국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데 이는 외국 문화의 수용성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겠다.

우리 한류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아제르바이잔의 문화적 특성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제르바이잔 언어가 터키계 언어로서 알타이어계 언어에 속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언어적 특성은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우리 한민족과 높은 문화 상관성을 가진다는 의미로서 이러한 특성은 향후 아제르바이잔과의 협력 전반, 특히 문화 분야 협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한류 현황

(1) 일반현황

아제르바이잔에서 한류는 젊은층 중심의 자생조직을 통해 소개되었다. 일부 대학생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류드라마, 음악, K-Pop 등을 접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류에 매력을 느낀 학생들을 중심으로 2011년 최초의 한류 동호회인 '한사모'가 조직되었으며, 주요회원 150여 명 이외에도 한사모 페이스북을 통해 한류에 관심을 보이는 인원은 아제르바이잔 전역에 약 2,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 4월에는 새로운 한류 동호회 Belivers가 결성되어 기존의 '한사모'와 협력하면서 한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6월 한국-아제르바이잔 수교 20주년 문화행사를 개최한 이래 매년 한-아제르바이잔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9월 및 11월 한-아제르바이잔 수교 25주년 문화행사 개최에 이어 2018년 6월에는 아제르바이잔 건국 100주년 기념 대규모의 문화교류행사가 바쿠의 최대 극장인 '헤이다르 알리예프 사라이' 및 지방도시 등에서 개최되었는데, 한사모를 중심으로 한 젊은 관람객들은 우리의 전통국악 및 퓨전국악과 비보이, 비트박스의 공연에 열광적인 호응을 보냈다. 아제르바이잔은 자국 문화유산 보호와 자국 국민의 정신적, 윤리적 가치 보호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아제르바이잔어로 더빙된 해외 드라마만 방영하도록 하여 드라마를 통한 한류확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분야별 현황

1 현지 한류의 특징

① 한류의 상륙 시기

2006년 드라마 〈불새〉를 시작으로 한국드라마의 방영은 시작되었으나 한류의 움직임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한류드라마, 음악, K-Pop 등을 접한 일부 대학생들로부터 2011년경 시작되었다.

② 가장 인기 있는 한류

- K-Pop : 방탄소년단(BTS), EXO, 빅뱅 등
- 드라마 : 태양의 후예 등

2 작성 분야

① 한국어

1994년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한국학과 개설, 2007년 국립바쿠대학교 한국학과 개설에 이어 최근 나흐치반 대학교에 한국센터(Korea Center)가 개설되었다. 한국기업의 아제르바이잔 진출로 인해 한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증가했으며, KOICA 연수프로그램, 정부초청장학생, 정부초청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한국어를 접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류 동호단체인 한사모를 중심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은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한국어 능력시험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② 음악 (K-Pop)

아제르바이잔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K-Pop을 접할 수 없고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등 웹사이트를 통해서 K-Pop 정보를 얻고 페이스북 등으로 이를 공유하고 있어서, 이미 K- POP이 문화코드로 자리 잡은 동남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아제르바이잔의 K-Pop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한류동호회 '한사모'와 'Believers'와 같은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한국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등 K-Pop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③ 방송 (드라마, 예능 등)

아제르바이잔의 공중파 LIDER TV에서 2006년 〈불새〉, i-TV에서 〈다모〉 방영을 시작으로 Xazar TV에서 〈내조의 여왕〉, 〈종합병원〉, 〈나쁜 여자 착한여자〉, 〈에어시티〉, 〈일지매〉, 〈뉴하트〉, 〈히트〉 등 7편을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 까지 방영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아제르바이잔에서 해외 드라마를 방영할 때는 반드시 아제르바이잔어로 더빙하도록 하는 법령이 시행되면서 드라마를 통한 한류확산에는 어려움이 있다.

④ 영화

우리 대사관은 2011년 1월 〈한국영화의 날〉을 지정하여 간자시에서 한국영화 5편, 다큐 1편을 상영하는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14년 11월에는 바쿠시 니자미극장에서 아제르바이잔어 자막을 넣은 한국영화 10편을 상영하는 한국영화제를 개최하여 관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2015년에

는 7월 6일부터 8월 6일까지 한달여간 아제르바이잔 5개 도시를 순회하며 한국 영화 10편을 상영해 2만여 명이 넘는 관객이 관람하여 한국영화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2016년 11월 및 2018년 6월에도 바쿠에서 한국영화제를 개최했다.

⑤ 한식

아제르바이잔에는 한식당이 없고 아제르바이잔인들이 한식을 접하기 쉽지 않아서 한식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한국 연수 경험 등을 통해 혹은 대사관이 주최하는 한식 행사를 통해 한식을 맛본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김밥, 부침개, 잡채, 불고기 등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2016년 6월에 우리 대사관이 개최한 '아제르바이잔 한식 축제'에 400여 명이 참석, 2018년 6월 '아제르바이잔 한식행사'에 9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전문 조리사들이 선보인 다양한 전통음식과 전통주를 즐겼다.

⑥ 태권도

아제르바이잔 내에서 태권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다. 아제르바이잔은 2016년 리우 올림픽의 태권도에서 금메달 하나와 동메달 두 개를 땄으며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아제르바이잔은 우리 태권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켜 왔으며, 우리 대사관은 아제르바이잔 태권도 연맹과 협력하여 매년 대사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한류)를 좋아하는 이유

사극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접하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는 아제르바이잔 문화와 많이 닮아있다. 어른을 존경하는 문화나 가정의 모습은 인근 터키보다 더 한국드라마에서 유사점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K-Pop의 음악 스타일은 세계 다른 나라와는 다른 한국만의 음악적 특징이 있어 아제르바이잔 젊은이들이 더 큰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4 한류 동호회 현황

아제르바이잔의 한류동호회는 '한사모'가 있으며, 한국의 역사, 문화, K-Pop,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모임을 가진다. 회원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파악된다.

1 한사모(Korea-Fans Azerbaijan)

성격	종합적 한류 동호회
회원 수	정회원 150명(팔로워 수: 약 2,000명)
웹사이트 주소	http://ko-kr.facebook.com/pages/korea-fans-Azerbaijan- official/344372578935318
세부활동 현황	• (온라인) 페이스북을 통해 정보 교환 • (오프라인) 한 달에 한번 모임 • 한국어, 한국역사, 문화, 음식 등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함께 공부 • K-Pop, 한국드라마, 영화 관련 정보 공유 • 2102.5.26., 한사모 주최로 "한국문화의 날" 행사 개최 • 2014.5.4., 배우 '이준기'를 위한 불우이웃 쌀 기부 행사 • 2015.6.5., 'Korean Art Day' 개최 • 2015.11.29., K-Pop 행사 개최 • 2016.8.30., K-Pop 행사 개최 • 2018.4.29 K-Pop 지역예선 대사관과 공동주최

2 한사모(Korea-Fans Azerbaijan)

성격	종합적 한류동호회
회원 수	정회원 13명
웹사이트 주소	-
세부활동 현황	• 한국 문화, 음식 등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함께 공부 • K-Pop, 한국드라마, 영화 관련 정보 공유 • 한국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자발적 설립 • 2018.7.8. "Korea Party"(소규모)(한국드라마 상영, 한국노래 및 댄스 경연대회, 한국음식 시식) • 2018.9.2. "Believers Koreafest 2018"(한국노래 및 댄스 공연, 한국 관련 내용 연극 공연, 한국 관련 그림 전시)

6 대사관 주최 문화행사

일시	행사명
2017.4.29	2017 K-Pop Festival 아제르바이잔 지역예선
2017.5.12	2017 아제르바이잔 Quiz on Korea
2017.9.17	한-아제르바이잔 수교 25주년 기념 문화행사
2017.9.16.-17	대사배 태권도 대회
2017.11.5	전통연희공연
2017.11.11	MIKTA 아웃리치 활동 음악회
2018.4.29.	2018 K-Pop Festival 아제르바이잔 지역예선
2018.6.2	아제르바이잔 건국 100주년 기념 문화행사

7 여행정보

(1) 비자

1 일반여행객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 유효기간	입국 후 거주등록
1. 사증면제협정(30일) : 외교관, 관용 2. 일반여권 : 사증 필요 (바쿠국제공항에서 도착비자 발급 가능)	1. 확정된 티켓 소지, 최종 도착국가 사증 소지,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2. 공항 환승구역 내 체류 3. 통과사증 - 차항지 비자 및 항공권 소지 시 발급가능 - 기간은 5일	체류 예정기간 (최소 3개월)	1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 후 10일 이내에 아제르바이잔 이민국에 거주지를 등록해야 함 (www.migration.gov.az/index.php?section=012&subsection=111&lang=en&pageid=999)

※ 도착비자 안내

2016.2.1.부터 시행하게 된 도착비자는 바쿠(헤이다르 알리예브)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서 1회 최대 체류기간 30일 단수 도착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도착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사증발급신청서, 수수료 USD 20이다.

선박이나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도착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니, 입국 전에 사증 취득이 필수이다.

※ 주재국 e-visa 안내
2017.1.10.부터 주재국 대통령 산하 민원 서비스청(ASAN)은 한국 등 총 81개의 국가(해당거주난민 포함)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1회 최대 체류기간 30일 단수 도착사증 발급 서비스가 시행되었다. 발급 수수료는 USD 20이며, 사증 발급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 3일이다. 2017.8.30.부터 급행(Urgent) e-visa 서비스도 시행되었는데, 체류기간은 동일하며 수수료 USD 50, 사증 발급 소요기간은 보통 3시간(휴일/명절에도 가능)이다.

2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45길 63(우 04399)
- 전화 : (02) 797-1765~6
- 팩스 : (02) 797-1767
- E-mail : azembseoul@gmail.com
- 홈페이지 : seoul.mofa.gov.az

(2) 안전정보

1 여행경보단계 :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지역에 대해서는 3단계 철수권고

2 사건·사고의 현황

■ 테러, 인질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아제르바이잔은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인식되나, 2016년 4월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지역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2015년 11월 이슬람 신정국가를 건설하려는 무장단체(Muslim Unity) 체포, 테러사건('07년 미대사관 테러기도사건, '08년 모스크 수류탄 투척사건, 이스라엘 대사관 차량폭탄테러 기도사건, 변전소 폭발사건, '09년 오일 아카데미 총기 난사사건, '18년 민게체비르 화력발전소 폭발로 인한 정전, 무장괴한의 겐자시장 총격사건) 등이 발생했다.

■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아제르바이잔은 주변국에 비해 치안이 안전한 편에 속하지만 야간 보행은 위험할 수 있다. 재래시장, 출퇴근 시간 버스, 지하철 등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는 소매치기가 있으며 외국인은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귀중품 등을 눈에 띄게 휴대하고 다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제외한 곳은 여행 위험 지역은 아니나, 지방의 경

우 범죄관련 통계나 정보가 거의 없으므로, 지방 여행 때에는 지인에게 자신의 연락처와 방문지를 반드시 통보하기를 권장한다.

■ 자연재해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 빈발지역은 아니나 비가 올 경우 배수시설이 부족하여 강우량이 많지 않아도 차량 운행이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경우가 많아서 보행시 위험물이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

■ 유의해야할 지역

아제르바이잔 서남부에 위치한 나고르노-카라바흐와 주변 7개 지역(Fizuli, Agdam, Jabrayil, Zangilan, Gubadly, lachin, Kelbajar)은 아르메니아와의 분쟁 지역으로 현재에도 군사적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이 지방은 여행할 수 없는 지역이다.

버스, 재래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는 소매치기가 있을 수 있으니 돈,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다닐 때 주의가 필요하다.

8 현지 문화

(1) 아제르바이잔 인사 이름 부르기

처음 소개 시 직함과 이름을 알려준다. 남자에게 직함만 부를 때는 〈Cenab (제납) + 직함〉 와 같이 부르고 직함이 없을 때는 〈Cenab + full name〉 으로 부른다. 여자에게는 〈직함 + Xanim(하늠) + full name〉으로 부른다.

(2) 이름 표기 방식

일반적으로 이름 먼저 쓰고 성을 쓴다. 성의 경우에 끝이 'v'로 끝나면 남성이고 'va'로 끝나면 여성의 성을 뜻한다. 〈이름 +아버지의 이름 + 성〉으 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3) 종교관련

이슬람 국가로서 외국인의 선교 활동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자신의 종교를 들어내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4) 팁 문화

팁 문화가 보편적이진 않으나 호텔이나 외국인이 자주 찾는 식당의 경우 필요하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일부 식당은 계산서에 음식 값의 5~10%를 서비스 요금으로 표시하여 청구하기도 한다.

- 호텔 수화물 운반, 객실 청소 서비스 지불(1~2 AZN)

9 현지 연락처

(1) 긴급 연락처

- 경찰, 범죄신고 : 102
- 화재신고 : 112
- 응급환자(앰뷸런스) : 103
- Central Clinical Hospital : 105
- 아제르바이잔 이민국 : 919

(2) 의료기관 연락처

아제르바이잔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103으로 연락하면 되지만 아제르어나 러시아어로 소통이 되기에 현지어를 모르는 외국인에게는 불편함이 있다.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의사면허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있어 의료기관 이용 시 주의가 요망된다. 의료보험 체계가 없어 의료비가 상당히 비싸며 지정된 의료비 이외에 담당의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아제르바이잔 내에 특이한 전염병이나 풍토병은 없다.

시내에서는 쉽게 약국을 찾을 수 있어 약품 구입은 어렵지 않으나 러시아 의약품이 많아 복용법이 러시아어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비교적 양호

한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병원은 아래와 같다.

※ 바쿠 시내 종합 병원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International SOS Clinic	Yusif Safarov St., Baku	+994-12-489-5471, +994-50-212-6921(Mob)
Central Clinical Hospital Baku	76 Parliament Ave., Baku, AZ1006	+994-12-490-1092
SEBA- Oriental Hospital of Azerbaijan(Korean)	Neftchilar avenue, Baku, AZ1095, Azerbaijan	+994-12-437-1810/1825

* 자세한 정보는 대사관 홈페이지 안전여행/생활정보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3) 대사관 연락처

- 대사관 주소 : Hasan Aliyev str., Cross1, House12, Az1078, Baku
- 대사관 전화번호
  - 대사관 대표 : 994)12-596-7901~3
- 팩스
  - 대사관 대표 : 994)12-596-7904
  - E-mail : azeremb@mofa.go.kr
  - 홈페이지 : http://aze.mofa.go.kr
-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처
  - 당직 : 994)51-877-9607
- 민원업무시간
  - 월~금요일 09:00~17:30 (중식시간제외 12:30-14:00)

10 기타

(1) 날씨

아제르바이잔은 한국보다 작으나 기후는 다양하다. 저지대에서의 여름 기온

은 섭씨 45도까지 올라가며 산악지역에서 의 겨울 기온은 영하 45도를 기록한다. 건조한 준사막지대인 압셰론 반도에서 서쪽으로 가면 초원지대, 산악지대, 숲 등을 만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중서부는 건조 기후, 남부는 아열대 기후, 북부는 대륙성 기후에 속한다.

아제르바이잔은 전 세계 13개 기후대중 9개 기후대가 존재하여 기후전시장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다. 바쿠의 평균 기온은 겨울(12~2월)에는 8~10도, 여름(6~8월)에는 24~25도이다.

(2) 교통정보

1 대중교통

아제르바이잔의 지하철은 2개의 노선이 있으며 요금은 0.30AZN($0.18) 이다. 오전 6시부터 밤12시까지 운행하며 이용 인구가 많아 출퇴근 시간에는 혼잡한 편이다. 시내버스는 노선이 다양하고 요금은 0.30AZN($0.18)이다. 최근에는 최신 저상버스를 바쿠 시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요 도시나 지방을 연결하는 시외버스가 있으며 일부 구간은 소형 미니버스로 시설이 낙후되어 불편함이 있다.

택시는 "런던택시(바듬잔 택시)"만이 미터기를 사용하며, 개인차량으로 택시 표시만 부착된 대부분의 택시는 미터 요금제가 아니므로 탑승 때 목적지를 설명하고 요금을 흥정해야 한다. Uber택시 및 콜택시가 대체로 잘 운용되고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여 이용하기 편리하다.

- Uber 택시 : 앱 설치 후 이용 가능
- 189 택시 : 189(앱으로도 이용 가능) http://189taxi.az
- City 택시 : *8844(앱으로도 이용 가능) http://cititaxi.az

2 도로교통

최근에는 부를 축적한 개인 소유차량이 급증하고 있고 도로 곳곳의 보수 공사와 도시개발로 인해 도로교통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다.

(3)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아제르바이잔은 이란, 조지아, 러시아, 아르메니아, 터키와 국경을 접하고 있

고 국경 지역 까지 도로가 이어져 있으나 포장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가 있다. 과속, 역주행, 후진주행, 중앙선 침범, 보행자 무단횡단이 빈번하므로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지인이 지나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즉시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타

1 전력사용현황

전기시스템은 220V이며 50Hz이다. 전압차가 심하고 단전이 잦으므로 전 기제품 보호를 위해서는 정압기(Stabilizer)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국내 에서 사용하는 60Hz용 국산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전압 차에 민감한 가전제품은 손상될 우려가 많다.

2 화폐 및 환전

1 USD = 1.7 AZN (`18.9월) 수준이며, 공항, 은행 및 호텔에서 환전 가능하다. 일반상점 등에서는 현지 화폐인 아제르바이잔 마나트(AZN)만 통용된다.

3 통신

■ 우편

우편물은 국내우편 및 국제우편물을 막론하고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며, 우편물을 수령할 때 편지는 주소지까지 배달이 되나 소포물인 경우 직접 우체국에 가서 수수료 지불 후 수령하여야 한다.

• 서울-아제르바이잔간 우편배달 소요 일수
- 일반국제우편 : 10~20일
- DHL : 약 4~6일 정도
- EMS(Express Mail Service) : 약 5~7일 정도

• 서울-아제르바이잔간 우편요금
- 항공우편 : 편지(10g) 660원, 소포(0.5kg) 20,600원
- DHL : 서류(0.3kg) 53,430원, 소포(0.5kg) 142,560원
- EMS : 서류(0.3kg) 18,100원, 소포(0.5kg) 25,100원

■ 전화

여권을 지참하여 가까운 대리점에서 USIM칩을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다양), 매장에서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충전을 하거나 마트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충전 가능하다. 아제르바이잔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구입한 휴대폰을 장기간 사용 할 예정이라면 우체국에 휴대폰을 등록해야 1개월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여권 지참)

19. 영국

1 개황

- **수 도 :** 런던(London, 인구 817만 명)
- **인 구 :** 6,318만 명(2011년)
  잉글랜드 5,301만 명, 스코틀랜드 530만 명, 웨일스 306만 명, 북아일랜드 181만 명
- **면 적 :** 244,820㎢(한반도의 1.1배)
- **민족구성 :** 앵글로색슨족(Anglo-Saxons), 켈트족(Celts)
- **종 교 :** 기독교(59.3%), 이슬람교(4.8%), 힌두교(1.5%), 무교(25.1%), 기타 종교(2.1%), 무응답(7.2%)
- **시 차 :** 우리시간 -9(서머타임시 -8)

2 문화적 특성

(1) 영국의 음식 문화

영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이지만 음식에 있어서만큼은 유독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맛없다는 평을 들으며, 대표 음식이라 할 만한 것이 적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영국의 기후가 일조량이 적고 기온도 낮아

농작물이나 각종 음식 재료들을 키우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18세기의 산업 혁명으로 도시 노동자들이 늘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통 음식을 만들 시간이 부족해져 전통적인 조리 방법이 많이 사라졌으며,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요리가 더욱 간소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영국의 음식이 볼품없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아침 식사 때문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점심 식사가 간소하고 식사 시간도 짧은 영국에서는 대신 아침을 든든히 먹기 때문에 아침의 양이나 메뉴가 풍성하다. 영국인이 가장 즐겨먹는 음식으로는 샌드위치와 피쉬앤칩스를 들 수 있다. 카드놀이를 좋아한 샌드위치 백작이 카드놀이를 하면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고안해 냈다는 샌드위치는 영국인의 일반적인 점심 메뉴이다. 피쉬앤칩스는 흰 생선 튀김에 감자튀김을 곁들인 것으로,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다.

(2) 영국의 차 문화

영국을 말하는 데 있어 차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존재이다. 17세기 초 중국에서 유럽으로 유입된 차는 1750년대에는 온 국민이 마실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차 문화가 발달한 것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차 재배지였던 영향이 크며, 지금도 인도와 실론 지방의 차를 가장 널리 마신다. 아삼, 다즐링, 우바, 얼그레이, 오렌지페코 등의 차에 우유를 넣어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전 영국에는 하루 여섯 번, 이른 아침, 오전 11시와 점심 직후, 오후 3~4시와 5시, 저녁 티타임이 있었다. 지금에도 오전 11시와 오후 3~4시경의 차는 일상화되어 있을 정도이며 샌드위치나 케이크, 잼을 바른 스콘 등을 곁들여 식사를 대신하기도 한다.

(3) 영국의 언론 매체

1 신문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영국의 신문은, 영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로 인정받고 있다. 19세기에 이미 전국에 놓인 철로를 통해 빠르게 배송될 수 있었고, 신문 구독률 또한 높아 영국 신문은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었다. 고급지와 대중지가 철저히 구분되며, 보수나 진보 등 신문의 성향이 분명히 드러나기도 한다. 영국의 3대 일간지로는 〈더 타임스〉, 〈가디언〉, 〈데일리 텔레그래프〉를 들 수 있다. 이 신문들은 수준 높은 편집과 객관성 있는 보도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2 영국 공영 방송 BBC

영국 방송의 약자인 BBC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하는 공영 방송이다. 수신료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업 광고로 수익을 내기 위해 시청률에 매달리는 타 방송과는 달리 교육이나 문화,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또한 보도의 객관성과 예리함 역시 높이 평가되며, 시사 문제 및 공공 정책 문제에 관한 견해나 논쟁을 다룰 때는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왕실 칙허장을 통해 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는 10년마다 갱신된다.

(4) 영국의 박물관과 미술관

영국에는 영국박물관을 비롯한 주요 국립박물관과 600여 곳의 독립박물관을 비롯해,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만 1,800곳에 이른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부분 입장료를 받지 않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기부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술품과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은 영국 문화의 강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대중음악의 대표, 비틀스

뛰어난 음악성과 대중성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비틀스는, 영국뿐 아니라 1960년 이후 전 세계 대중음악의 역사를 바꿔 놓았다는 평을 받는 영국의 4인조 록 그룹이다. 존 레논, 폴 매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네 사람으로 구성된 비틀스는 1963년 발표한 〈플리즈 플리즈 미〉 앨범의 성공 이후 영국과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어, 대영 제국 훈장까지 받게 된다. 대표곡으로는 〈예스터데이〉, 〈헤이 주드〉, 〈옐로우 서브머린〉 등이 있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영국 내 한류는 아직 시작단계로 2000년대 초반 한국영화가 영국에 소개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까지의 최고 흥행작은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다. 참고로 영

국관객은 감독주의 성향이 있으며, 우리나라 감독 중 임권택, 박찬욱, 김기덕, 봉준호, 김지운 감독 등이 알려져 있다. K-Pop의 경우 온라인상에서의 동호회를 중심으로 알려지다가 2011년 SHINee 공연, 유나이티드큐브 공연(B2ST, 지나, 4Minute)을 시작으로 매년 K-Pop 공연이 영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또한 한국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친구들〉이 영국에 수출, 공중파 방송에서 방영되어 영국 어린아이들 사이에 상당한 인기를 끌기도 했다.

(2) 분야별 현황

1 드라마

아직까지 한국드라마가 영국에서 방영된 사례는 없다. 참고로 한 영국인 블로거가 BBC에 아시아를 강타한 〈대장금〉을 상영해 달라는 청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2 영화

많은 한국영화 판권이 현지에 판매되고 있으나, 정식으로 극장에 개봉되는 것은 1년에 1~2편 정도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10여 편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은 DVD로 출시되고 있다.

3 K-Pop

온라인에서 활동하던 K-Pop 팬들이 2011년 런던한국영화제 개막공연 〈SHINee 인 런던〉(전석 매진)을 계기로 오프라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유나이티드큐브 공연(약 3,500여 명 참석), 제1회 런던 코리안 페스티벌(2015년, 약 40,000명), 제2회 런던 코리안 페스티벌(2017년, 약 12,000명)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4 한국어

소아스대, 킹스컬리지 등 런던의 주요대학 여섯 곳에서 한국어강좌가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5 한식

영국인들은 불고기 등의 바베큐를 주로 즐기며, 김치를 포함한 한식을 건강식

이라고 인식해 한식을 즐기는 저변인구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2015년에 발간된 영문 한식요리책이 올해의 요리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6 기타 산업 파급효과

한국영화 DVD, K-Pop 음반, 한국 캐릭터 상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팝음악에 익숙한 영국인들은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K-Pop을 받아들이고 있다. K-Pop의 다양한 시도와 스타일리시한 패션 및 뮤직비디오 그리고 그룹의 군무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영국은 전 세계 관광객이 뮤지컬,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할 정도로 이미 문화산업에서는 선진국이다. 대부분의 극장 및 공연장은 이미 2~3년 전에 중요 프로그램들이 결정이 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는 공연에는 대관조차 해주지 않는 실정이다. 영국에서 공연을 추진 시 상당한 기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공연단 비자문제, 공연 시 안전사고 문제 등 공연에 따른 허가 문제, 홍보 및 한국과의 다른 환경 등을 고려해 공연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영국 내 한류 관련 동호회는 주로 특정가수 혹은 그룹별 팬클럽이 대부분이며, 주로 한류 스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다. 회원들의 연령대는 주로 1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파악된다.

영국 내 K-Pop 열풍은 온라인 동호회를 중심으로 확산되다가 '11년 영국 최

대 음반판매회사 HMV의 K-Pop CD 판매 등 오프라인으로 확장되어 왔다. 하지만 영국 내 한류 콘텐츠 및 접촉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영국 내 한류에 대한 지지는 K-Pop을 좋아하는 10대, 여성, 마니아층 등 소수에 국한된다.

※ 현재 영국 내 자생적으로 K-Pop 및 드라마 관련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오프라인 동호회는 3-4개 정도로 파악됨

(2) 동호회별 현황

1 London Korean Drama Club

성격	K-드라마 클럽
회원 수	489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londonkoreandramaclub
세부 활동 현황	• 한국 드라마 관련 정규 클럽 멤버 모임 및 다양한 이벤트 개최

2 London K-Pop Dance Workshop(LoKo)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3,580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LondonKPopDanceWorkshop
세부 활동 현황	• 2011년 창단 이래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 중인 현지 최대 K-Pop 댄스 커뮤니티

3 UK Korean Lovers Meetup Group

성격	온라인 기반 한류 커뮤니티
회원 수	3,126명
웹사이트	www.meetup.com/Korea-Meetup/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시작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동하는 한류 커뮤니티 그룹 • 댄스 워크숍 및 한국어-영어 언어교류, 문화이벤트까지 다양한 활동 범위로 활동 중

4 Korean Class Massive(KMC)

성격	온라인 한류 커뮤니티
회원 수	3,991명
웹사이트	koreanclassmassive.com/
세부 활동 현황	• 2011년 Facebook 페이지로 시작한 KCM은 현재 트위터, 텀블러와 같은 다양한 SNS 패널을 운영할 뿐 아니라, "Korean.net"에서 공식 지정한 한류 관련 홈페이지로 발전 • K-Pop 뿐만 아니라 한식, 여행, 공연 정보 등 광범위하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커뮤니티로 활동 중

5 United K-Pop

성격	K-Pop 동호회
회원 수	7,924명
웹사이트	www.unitedkpop.com
세부 활동 현황	• 정기 E-magazine으로 소식 전달

6 K-Spazzing

성격	한류 YouTube 채널
회원 수	101,208명
웹사이트	www.youtube.com/user/KSpazzing
세부 활동 현황	• 2012년 오픈한 YouTube 페이지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온라인 커뮤니티 • 최신 K-Pop 뮤직 비디오 공유 및 영국 내 한류 커뮤니티들의 이벤트 및 행사 영상 업로드 등 온라인 한류 홍보 채널 중 하나

7 JaK Wave

성격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수	820명
웹사이트	jakwave.co.uk/
세부 활동 현황	• K-Pop뿐만 아니라 K-뷰티, 음악, 문학, 영화 등 다양한 한국문화에 대한 정보 공유 활동 중

8 DGC

성격	K-Pop 댄스 워크숍 커뮤니티
회원 수	741명
웹사이트	www.dgcdance.com/kpop-dance-classes/
세부 활동 현황	• 2011년부터 K-Pop 커버댄스 클래스를 운영 중이고 현재 주 1회 K-Pop 댄스 워크숍 운영

9 Margarita YouTube Channal

성격	YouTube 채널
회원 수	122,597명
웹사이트	www.youtube.com/channel/UCh7GCHY16gK7JRnXItqFDmw
세부 활동 현황	• 2012년 오픈한 Margarita YouTube 채널은 K-Pop 커버,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음

6 2017년 문화행사

(1) 공연

- 하우스 콘서트, 연중 10회, 주영한국문화원
- 코리안 사운드, 4월~10월 중 4회, 〈동서양의 만남〉, 킹스플레이스
- K-뮤직 쇼케이스 및 컨퍼런스, 5월 22일~23일, 메트로폴리스/보더라인
- 그리니치+도크랜드 인터내셔널페스티벌 코리안 포커스
  - 숨비, 6월 23일~24일, 그리니치 파크힐
  - CCOT, 6월 24일~25일, 그리니치 파크힐
  - 피플인백팩, 6월 24일~25일, 그리니치 파크힐
  - 모던테이블, 7월 1일, 카나리 와프
- 한영상호교류의 해 개막행사 〈런던코리안페스티벌〉, 7월 8일, 올림피아 런던
  - 타고, 국기원 태권도시범단, 드리프트 크루, K-Pop(하이라이트, EXID, 크나큰, 스누퍼)
- K-Pop 월드 페스티벌 예선, 7월 8일, 올림피아 런던
-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런던 쇼케이스, 7월 27일, 새들러스 웰즈
-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한국공연, 8월 중, 에든버러 공연장

- 제4회 K-Music 페스티벌
  - 블랙스트링&캐서린 티켈, 9월 15일, 유니온채플
  - 이희문&프리루드, 9월 24일, 로열알버트홀 엘가룸
  - 전재덕&박주원, 9월 27일, 피자익스프레스 재즈클럽
  - 김혜림&알리스 자와드스키, 10월 2일, 보텍스
  - 박우재, 10월 9일, 리치믹스
  - 억스, 10월 15일, 리치믹스
  - 킹스턴루디에스카, 10월 23일, 보더라인
  - 박지하, 10월 25일, 킹스플레이스
- 양산 프로젝트 〈팩토리걸〉, 9월 28일~10월 13일, 판함 몰팅스 등
- 댄스 엄브렐라 〈안은미 댄스 컴퍼니〉, 10월 24일~25일, 더플레이스
- 댄스 엄브렐라 스튜디오 토요일 〈김경신 안무가〉, 10월 21일, 28일, 람버트
- K'Arts 댄스 컴퍼니, 11월 16일, 라일리씨어터

(2) 영화

- 제12회 런던한국영화제, 10월 26일~11월 19일, 픽쳐하우스 센트럴 등
- 한국영화의 밤, 2월~10월 중 6회씩 3텀, 목요일, 주영한국문화원
- 찾아가는 한국영화, 2월~12월 매월1~2회, SOAS 대학, 영국왕립예술학교 등
- LGBT 런던영화제에 〈연애담〉 출품, 3월 17일~18일, BFI
- 런던한국영화제 티저상영회, 4월~9월, 픽처하우스센트럴, 리젠트스트릿시네마

(3) 전시

- 재영한국예술인협회 전시 〈I, Kids〉, 1월 16일~27일, 주영한국문화원
- KCCUK 오픈콜 1 〈Children Shouldn't Play With Dead Things〉, 2월 27일~3월 18일, 주영한국문화원
- KCCUK 오픈콜 2 〈1:60〉, 4월 3일~4월 22일, 주영한국문화원
- 한국공예전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2017-한국도자의 정중동〉, 5월 3일~6월 3일, 주영한국문화원
- 포토 런던 2017 배병우&노순탁 작가 〈Dual Reality〉, 5월 18일~5월 21일, 포토 런던 2017
- 홍영인 작가 〈영국 프리미어 5100: 펜타곤〉, 6월 4일, RAA

- 한국아방가르드퍼포먼스 〈리허설〉, 6월 26일~8월 19일, 주영한국문화원
- 아트나잇 런던 서도호 작가, 7월 1일, 크라이스처치 스피탈필드
- 2017 KCC 올해의 작가 : 김용익, 9월 25일~11월 4일, 주영한국문화원
- 델피나 파운데이션 정금형 작가, 9월 28일~11월 11일, 델피나 파운데이션

(4) 문학

- 한국 문학의 밤, 2월~11월 매달 마지막 수요일, 주영한국문화원
- 시 번역 패널 토크 〈김민정, 황유원, 성기완, 스티븐 파울러, 한나 실바〉, 6월 2일, 주영한국문화원
- 영국 기자출신 마이클 블린의 저서 〈The New Koreans〉 발간계기 북 토크, 6월 12일, 주영한국문화원
- 한유주 작가 영국내 도서출간 〈불가능한 동화〉 관련 토크, 7월 10일, 프리워드센터
- 황석영 작가 에든버러 국제문학페스티벌 참가 토크 진행, 8월 16일, 에든버러 베일리기포드코너 씨어터
- 황석영 작가 영국내 도서출간 〈낯익은 세상〉 관련 토크, 8월 17일, 아시아하우스

(5) 한식

- K-컬쳐 워크숍 '한식', 1월 23일~4월 3일, 킹스턴성인교육원

(6) 한국어

- 한국어말하기 대회 '말' 영국 예선, 6월 10일, 주영한국문화원
- 퀴즈온코리아 영국 예선, 7월 15일, 주영한국문화원

7 여행정보

(1) 비자

1 일반여행객

사증면제협정 체결 통상 6개월 미만의 체류기간을 제공한다.

2 공연비자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15일 내에 비자신청이 처리된다.

3 단기 취업비자 - Tier 5(Temporary Worker-creative and sporting visa)

영국내 회사에서 스포츠 또는 예술(연기, 댄스, 음악, 촬영) 관련 12개월 미만의 단기 직업을 구했을 경우, Tier 5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스포츠 관련 종사자일 경우

a. 영국 내에서 스포츠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야 함
b. 스폰서십 증서 번호
c. 은행 잔고 945파운드(비자 신청 90일 전 본인 명의 계좌에 있어야 하며 비자 신청자가 체류기간의 유지비 증명시 면제)

■ 예술 관련 종사자일 경우

a. 영국 노동 시장 내 특수한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함(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작업의 연속성을 위해 신청자가 그 일에 필요할 경우)
b. 스폰서십 증서 번호
c. 영국 예술인 협회,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연합 등이 정하는 최저 임금을 받아야 함(모델, 음악, 써커스 직종 제외)
d. 은행 잔고 945파운드(비자 신청자가 체류기간의 유지비 증명시 면제)

■ 제출서류

- 비자 신청서(VAF9 및 Appendix 6)
- 현재 여권(또는 여행증명서)
- 구여권
- 여권용 사진 1매(45mm X 35mm) (모자나 안경 착용 안 됨)
- 비자 신청일의 지난 90일간 지속적으로 945파운드가 본인명의 계좌에 있었다는 은행잔고 증명서(비자 신청자가 체류기간의 유지비 증명시 면제)
  * 잔고 증명서의 포함사항은 영국 이민국 웹사이트의 Guide to supporting documents를 참고
- 결핵 테스트 결과서(결핵테스트가 필수인 국가 출신일 경우)
- 스포츠 종사자 또는 코치일 경우, 해당 스포츠 기구 또는 회사의 스폰서십 증서

〈참고사항〉

- 비자발급을 위해 여권 내 양쪽 면이 모두 빈 페이지가 있어야 함
- 제출 서류가 영어나 웨일즈어가 아닐 경우 번역본을 제출해야 함(번역 날짜, 번역자의 이름 및 서명, 연락처를 명시)

•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비자 신청 소요기간 : 영국에서의 근무시작일 전 최대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음. 통상 비자에 대한 결정은 3주 안에 내려짐

■ 비용 : 230파운드(신청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스폰서십 증서(Certificate of sponsorship)

Tier 5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국 정부가 인가한 스폰서(회사 또는 단체)가 필요하다. 스폰서십 증서는 비자 신청자의 (영국에서의) 직업과 개인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번호로, 실제의 증서가 아니다.

■ 체류가능 기간 : 1)최대 12개월 또는 2)스폰서십 증서에 나타난 시간+28일 중 더 짧은 기간

자세한 신청 방법은 비자지원센터 홈페이지(www.vfsglobal.co.uk/southkorea)를 참조하고, 기타 Exceptional Talent - Tier 1 및 Skilled Workers - Tier 2 (General)가 있으니 영국 이민국 홈페이지(www.gov.uk/browse/visas-immigration)를 참고해 입국에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도록 한다.

4 주한영국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19길 24 100-120
■ 전화 : 02-3210-5500

(2) 안전정보

1 여행경보단계 : 미지정

■ 테러 등 위협

영국 본토(Great Britain) 및 북아일랜드 지역의 테러 위협수준은 심각(Severe)한 수준으로 지정되어 있다.

■ 소매치기 및 절도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 등 유명관광지에서 소매치기들이 주로 동양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복경찰을 사칭하여 몸수색을 요구하거나 소지품을 보여 달라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 또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옆에 놓아둔 짐이나 재킷의 지갑을 훔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버킹엄궁, 빅벤, 의사당, 웨스트민스터 사원 등 런던 최고의 관광지인 Westminster 지역은 소매치기 최다 발생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런던의 Camden, Lambeth 지역도 소매치기 빈발 지역이다.

■ 유흥업소 바가지 및 밤거리 여행 조심

런던시내 일부 유흥업소에서 바가지요금을 덮어씌우고 돈을 내지 않을 경우나 험악한 인상의 종업들이 협박하는 사례, 펍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낯선 사람이 건네준 음료수(수면제가 든)를 마시고 피해를 당한 사례, 야간에 거리를 배회하다가 지역 불량배들로부터 소지품을 강취당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경범죄 처벌 주의

영국경찰청은 각종 경범죄를 Antisocial Behavior로 규정하여 50~80파운드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공장소에서 주취(Public Drunkenness) 등이 심할 경우 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소란, 시설파괴, 낙서, 노상쓰레기 투기, 거리에서의 음주, 지나친 야간소음, 거리에서의 매춘, 약물거래, 공격적인 구걸 등). 또한 검문하거나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거칠게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 등 죄가 추가될 수 있다.

8 현지 문화

(1) 영국인의 특징

일반적으로 영국인들을 일컬어 외향적이면서 보수적이라고 평가한다. 외향성은 진취적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 한 때 이른바 대영제국 건설과 관련된 것이며, 현재에도 많은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즐기는 것에서 그 특징을 찾는다. 보수성은

전통과 연속성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이로 인해 박물관이 발달하고, 골동품 수집을 좋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한다(세계적으로 유명한 런던의 소더비나 크리스티 경매장은 골동품 거래의 메카다). 이와 함께 영국인은 혁명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선호하며 인내심이 강하고, 침착·냉정·과묵한 편이다.

또한 영국인들은 예술적 소양을 높게 평가하는 편이며, 특히 문학 분야에서의 자국의 기여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영국 사람의 집은 성'이라고 부를 만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편이다.

(2) 줄서기(Queue)

영국에서의 줄서기는 중요하다. 상점·은행·슈퍼·지하철 등 어딜 가나 'Please queue here' 표시가 있으며, 없더라도 다들 알아서 서기 때문에 줄을 서있는 건지 알 수 없을 때에는 "Are you queuing?"이라고 물어본 뒤 줄을 서도록 한다.

(3) 팁(Tip)

호텔 포터나 객실 청소부에게 1회당 1파운드 정도를 직접 건네거나 객실의 사이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된다. 레스토랑에서는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음식 값의 10~15% 정도의 팁을 요금과 함께 지불한다.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요금의 10~15% 정도의 팁이 보통이다.

9 현지 연락처

(1) 긴급 연락처

- 범죄신고, 화재신고, 응급환자(앰뷸런스) : 999로 동일(사안에 따라 적합한 부서로 연결시켜 줌)
- 전화번호 문의 : 118 500/118 111/ 118 247
- 국제전화번호 문의 : 118 505

(2) 의료기관 연락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병원에 방문해야 하며,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 전화로 구급차를 요청해야 한다. 단기 여행객은 사고 및 응급(Accident & Emergency)시 일부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치료를 권리로 주장할 수는 없고 사고·응급 여부에 해당하는 지는 의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

진료비 청구 규정이 각 병원마다 상이하며, 여행객이 병원을 이용할 때에는 진료비만으로도 200파운드(40만원) 이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의료비가 포함되는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대규모 기차역 등에 설치된 NHS Walk-in Centre는 예약 없이도 진료가 가능하다.

- 응급의료안내(NHS 111) : 111(무료, 24시간 운영)
- 응급 약국 : Zafash Pharmacy: 020 7373 2798(233-235 Old Brompton Road, London SW5 0EA, 24시간 영업)

(3) 주영국대사관 연락처

- 주소 :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
- 대표 전화 : 020) 7227 5500, 5505~7(영사), 긴급연락처: 078 7650 6895
- 팩스 : 020) 7227 5503~4
- E-mail : koreanembinuk@mofa.go.kr
- 홈페이지 : gbr.mofa.go.kr
- 업무시간
  - 일반 : 월-금 09:00~12:00, 4:00~17:30
  - 영사 : 월-금 09:00~12:00, 14:00~16:00

* 비자 업무는 10:00~12:00 / 14:00~16:00 오후에는 방문접수가 불가능하며 전화 상담만 가능

10 기타

(1) 날씨

일반적으로 온화한 해양성기후이며, 겨울에도 비가 잦고 하루에도 날씨 변화가 심하나 여름은 맑고 덥지 않은 청명한 날이 많아 가장 좋은 계절이다(연평균 강우량은 1,126mm 정도). 우기가 따로 없고 연중 내내 비가 내리며, 매우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이므로 우산과 우의를 포함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2) 교통정보

1 지하철

1863년 세계 최초로 지하철이 만들어진 이래 현재 12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런던시를 6개 지역(Zone)으로 나누어 04:30부터 심야까지 운행되며, 6개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요금이 책정된다. 편도 요금은 £4.90(Zone1내)이며, 체류기간에 따라 1일/7일/1달 Travel Card를 구입하면 할인요금이 적용된다. 영국의 지하철은 Tube와 Underground라는 영국식 명칭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의.

2 시내버스

런던에는 빨간 2층 버스나 두 칸이 연결된 긴 버스들이 운행되며, 2층 버스는 전망이 좋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편도 기본요금은 £1.50이며, 버스에서 현금 지불이 불가능하다. 대신, Oyster card, 무선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또는 1일 버스패스(오이스터카드 또는 무선지불카드 이용 시 £4.50, 종이티켓 구입 시 £5)를 이용해야 한다. 1회 탑승 요금(£1.50)으로 한 시간에 두 대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Oyster Card : 지하철, 시내버스, 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대중교통 카드로 낱장 티켓을 사는 것보다 오이스터 카드에 충전해서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다. 히드로공항 및 각 지하철역, 뉴스가판대를 비롯해 일부 지정 상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하루, 일주일, 1개월 단위로 구입하거나 무제한 선불카드(Pay as you go)를 구입할 수도 있고, 구입 시 £5의 보증금을 지불하는데 카드를 반납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

3 택시

일반적으로 'Black Cap'이라고 불리는 일반택시와 일종의 Call Taxi인 Mini Cap이 있다. 일반택시는 5명까지 승차가 가능하고, 택시요금은 탑승자 수·수하물 개수·심야시간대 할증 등이 적용된다. 미니캡은 미터기가 따로 없고 거리에 따라 사전 합의한 요금을 지불한다. 대개 Black Cap보다 저렴하다.

(3) 기타

1 전력사용현황

영국의 표준전압은 250V/50Hz로, 한국 전자제품 사용은 가능하지만 네모난 핀 3개가 달린 어댑터 플러그가 필요하다.

2 환전

다른 유로국가와 달리 유로가 아닌 파운드(£)화를 사용한다. 시중에서 외국통화는 받지 않으므로 항상 파운드화를 소지해야 한다. 1파운드는 100펜스이며, 지폐는 5, 10, 20, 50 파운드가 있고, 동전은 1, 2, 5, 10, 20, 50 펜스 및 1, 2 파운드가 있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대략 1파운드=1.33달러, 1.18유로, 1,470원 가량이다.

3 전화 거는 법

- 런던→서울 : 00-82-(앞자리 0을 생략한 전화번호 : 지역번호 포함) 한국통신 수신자부담 전화 : 0800(또는 0500) +89+0082+한국교환원
- 서울→런던 : (통신회사번호)-44-(앞자리 0을 생략한 전화번호 : 지역번호 포함)

4 공중전화

10펜스, 20펜스, 50펜스, 1파운드 주화 사용(시내 기본통화료 67펜스)


KOREA
FOUNDATION
KF
한국국제교류재단

20. 오스트리아

1 개황

- **수 도 :** 비엔나/빈(Vienna/Wien, 인구 183만 명)
- **인 구 :** 약 870만 명
- **면 적 :** 83,878㎢(한반도의 약 2/5)
- **민족구성 :** 오스트리아계(73%), 슬라브계(8.2%), 터키계(2.5%), 독일계(2.3%)
- **종 교 :** 가톨릭(64%), 개신교(5%), 이슬람교(8%) 등
- **시 차 :** 우리시간 -8(서머타임시 -7)
- **언 어 :** 독일어(99%)
- **1인당 GDP('17년) :** 48,588유로

2 문화적 특성

(1) 고전음악의 메카

오스트리아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브루크너, 리스트 등 유수한 세계적 음악가들의 출생지 또는 활동 무대로 유명하며, 고전 음악에

있어서는 세계적 메카라 불릴 만큼 찬란한 유산 및 전통을 지니고 있다. 매년 6월의 빈 음악제, 7~8월의 잘츠부르크와 브레겐츠 음악제, 8월의 레흐, 9월의 린츠 브루크너 음악제 등 전국 각지에서 연중 음악제가 개최된다.

오페라는 Staatsoper, Volksoper, Burgtheater를 중심으로 한 빈 음악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Staatsoper는 Franz Josef 1세에 의해 1869년 개관된 유럽 3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로 좌석 2,500여 석, 연중 300여 작품이 공연되며 종사 인원도 5천여 명에 이른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페라 연주를 담당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구스타프 말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으로 이어지면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자리 잡았다. 이 밖에도 세계 제일의 미성을 자랑하는 합창단으로 1498년 Maximilian 1세에 의해 조직된 빈 소년 합창단이 있다. 4개 코러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매년 1개 코러스가 해외 공연을 통해 음악을 전파하고 있고 16세기 교회음악과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작품 및 왈츠 음악이 주요 곡목이다.

(2) 풍부한 문화유산

한편 회화 및 건축 분야에서는 클림트, 쉴레, 코코슈카와 같은 화가와 오토 바그너, 아돌프 루스, 훈더르트 바서가 유명하며, 세기말 분리주의 운동의 중심지로서 유명한 작품과 건물들이 산재해 있어 현대 미술과 건축 예술 분야에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오스트리아의 한류는 K-Pop 및 한국 영화를 시작으로 약 10년 전부터 일어났으며, 소수의 젊은 층에 국한된 현상으로 평가된다. 공중파에서 한국 드라마가 상영된 적은 없다. 오스트리아의 한류는 새로운 외래문화를 좋아하는 일부 애호가 층이 인터넷을 통해 체험하는 수준으로, 여타 유럽 지역에 비해서는 한류 확산이 다소 더딘 편이다. 2010년경 YouTube를 통해 K-Pop이 전파되기 시작한 후 이를 기초로 동호회가 결성되었다. 인기 아이돌은 EXO, Big Bang,

SHINee, BTS, Red Velvet, Blackpink 등이다. 오스트리아 한류의 핵심은 K-Pop이나, 최근에는 인터넷상으로 한국드라마 및 영화를 시청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한국 문화에 특정된 것이라기보다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2) 분야별 현황

1 K-Pop

오스트리아 음악시장에서 K-Pop은 비주류 음악으로 분류되며 Österreich3 등의 정규 음악방송에서 소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2012년 10월 12일 Österreich3에서 1위에 오르는 등 K-Pop이 YouTube 등 인터넷을 통해 소개되고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 BTS가 오스트리아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K-Pop 열풍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2018년 라디오 방송국 FM4는 대사관 주최 K-Pop 월드페스티벌 오스트리아 지역 예선을 보도하면서 K-Pop 음악으로 1시간 특집방송을 편성하기도 했다.

2 한식

한식은 한류 상륙 훨씬 이전부터 비엔나에 정착되기 시작해 현재 약 20여 개의 식당이 교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불고기와 한국 양념치킨은 웬만한 젊은이들 사이에 알려진 음식이 되었다. 초기에는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최근 일부 식당은 현지인 손님들 중심으로 한식당이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다.

3 한국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경제적 성장과 중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 전반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한류의 상륙 이전부터 학문 및 어학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비엔나대학에는 2004년 한국학과가 설치되었고, 인스부르크대학에도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K-Pop 동호회원들 사이에 한글 가사를 따라 부르는 노력 등을 통해 한글이 보다 친숙해짐과 동시에 학습 동기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

4 K-스포츠 및 태권도

2018년 8월까지 황희찬 축구선수가 2017-2018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1위 팀인 잘츠부르크 팀에서 주전선수로 활약하여 현지인들에게도 잘 알려졌다.

세계태권도연맹(WTF) 회원인 오스트리아 태권도 협회에 등록된 태권도장은 113개이며, 태권도 수련인구는 약 7,000명이다.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2014년부터 매년 태권도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한국 가요에 관심을 가진 현지인들은 대부분 K-Pop이 비주류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일률적인 주류 음악에서 벗어나 신선하고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면서 K-Pop과 같은 비주류 음악을 듣고 이해함으로서 자신들도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비엔나대학교 성상연 교수가 실시한 K-Pop 관련 조사에 따르면, 현지 K-Pop 팬들은 K-Pop 스타들의 예의바름과 팬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한국과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과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일부 현지 팬들의 경우 K-Pop을 좋아함에 따라 내성적인 성격이 바뀌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인생을 더 행복하고 밝게 만드는데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오스트리아는 문화 선진국답게 다양한 문화적 취향과 이에 대한 배려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취향이 공존하고 경쟁하면서 대중문화가 특정 문화에 편중되지 않는다. 특히 한류는 현지에서 일부 마니아층의 컬트 문화의 한 유형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K-Pop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도 비주류 음악에 대한 신선함과 자신의 차별성으로 인한 만족감을 획득하려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조급한 한류 확산 시도보다는 우리 콘텐츠의 신선함과 질적 차별성으로 그 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하다. 특히 문화적 수요가 고전 음악, 건축, 미술 등에 치우쳐져 있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를 적절히 감안해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만하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오스트리아 내 한류 동호회에는 민들레가 있다. 주로 오스트리아 10-20대로 구성되어 있으나 헝가리, 폴란드 등 가까운 중유럽지역 학생도 일부 참여하고 있다. 회원들의 연령대는 주로 20~30대 젊은 층으로 파악된다.

(2) 동호회별 현황

1 민들레

성격	과거 K-Pop 동호회로 알려졌었으나, 동호회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K-Pop 팬들 대상 행사 안내 플랫폼으로서 활용되고 있음(관리자 : Anja Hillebrand)
페이스북 팔로워 수	약 300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Mindeullae
세부 활동 현황	• K-Pop 마당(2013년) • K-Pop 퀴즈 대회(2013년) • K-Pop World Festival(2014-2018년) • K-Pop 퀴즈대회(2014년) • '한류야 놀자'(2015년)

6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대사관 주최 행사

- 행사명 : K-Pop 월드페스티벌 오스트리아 지역예선
- 일시 및 장소 : 2018.6.16.(토), 빈 Stadthalle
- 주관 및 주최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및 민들레
- 행사내용 :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표적 오스트리아 K-Pop경연대회로 관객 900여 명 참석

- 행사명 : 한국 전통주 칵테일 소개 행사
- 일시 및 장소 : 2018.10.10.(수), 빈 Börse
- 주관 및 주최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 행사내용 : 국경일 리셉션 계기 한국 농식품 홍보 일환으로 개최한 행사로 오스트리아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을 소개

- 행사명 : 제20회 한-오스트리아 필하모니 연주회
- 일시 및 장소 : 2018.11.8.(목)-13(화), 빈 Musikverein, 쇤부른 궁전극장, 잘츠부르크 Mozartheum, 그라츠 List 문화재단 홀
- 주관 및 주최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 행사내용 : 1999년 창립된 한국과 오스트리아간 대표적 문화협력사업으로 양국 음악도로 구성되며, 2018년 20회 공연을 기념하여 3개 도시에서 연주

- 행사명 : 2018 태권도 문화축제
- 일시 및 장소 : 2018.11.17.(토), 빈 Sporthalle Brigittenau
- 주관 및 주최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 행사내용 : 2014년에 시작된 대사배 태권도대회로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이 참가하며, 태권도, 합기도 시범단 및 K-Pop 커버댄스 등 공연

(2) 기타 한국 소개 행사

- 비엔나 한인 신년음악회 : 2018.2.3., 빈 Muth 콘서트홀
-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연주회 : 2018.4.26., 비엔나국제센터,
  2018.5.1., 빈 Musikverein

- 〈마리안느와 마가렛〉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 : 2018.4.26., 빈 Urania
-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 2018.6.16.-18, 빈 Theater an der Wien
- 울산시향 연주회 : 2018.6.19., 빈 Konzerthaus
- 대한민국 휠체어합창단 연주회 : 2018.7.1., 빈 한인문화회관
- 가을맞이 가곡의 밤 : 2018.9.23., 빈 Muth 콘서트홀
- K-Classic 코스모폴리탄 앙상블 : 2018.9.29. 빈 한인문화회관

7 여행정보

(1) 비자

1 일반여행객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 관광 및 통과 목적의 90일간의 사증[1]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단, 쉥겐 협약법이 2006년 10월 1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EU 회원국 및 쉥겐조약 당사국 내에서는 180일 중 90일만 체류가 가능하다. 입국 심사 시 질문을 받았을 때 입국목적이 관광임을 명확히 신고하여 입국수속이 지연되거나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관광목적이 아닌 유학, 취업 등을 위해서는 입국하기 전에 주한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18세~30세의 청년의 경우 학업, 취업, 관광을 병행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체류기간은 12개월(2017.12.1 이후 신청자 기준)이며 주한오스트리아 대사관, 주슬로베니아·주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대사관, 주뮌헨 오스트리아 총영사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이지만 유학 등 장기체류를 위한 체류증[2] 취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3개월 내에 사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다시 출국해야 하므로 장기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에서 단기사증(6개월)을 취득한 후에 입국할 것을 권고한다.

오스트리아는 여행증명서를 출국 시에만 인정하고 있으며, 여행 중 여권을 분

1) 사증 : "비자"를 일컫는 말로 오스트리아 비자는 최장 6개월(Visa D)까지 발급 됨 - 단기 체류
2) 체류증 : 오스트리아에 입국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을 초과하여 오스트리아에 체류할 목적인 경우 신청 가능. 그 목적에 따라 법으로 체류증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실한 경우 최소한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오스트리아에 입국해야 한다.

2 공연비자

오스트리아에서 유료공연이나 공연에 대한 보수를 받는 공연을 할 경우 비자 취득이 필요하다. 무료공연이거나 보수(사례금)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3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교보빌딩 21층(우편번호:03154)
- 전화번호 : 732-9071~2, 팩스 : 732-9486
- E-mail : seoul-ob@bmeia.gv.at

(2) 안전정보

1 여행경보단계 : 해당 없음

2 사건·사고 현황

■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오스트리아에는 정변이나 국지적 분쟁요소는 없다. 3차산업이 70.4%를 차지하는 오스트리아에서 관광객들의 안전은 중요한 문제이며, 치안도 좋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난민 및 불법체류자들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불량 외국인들에 의한 절도, 소매치기, 날치기 등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복잡한 기차내·기차역이나 유명 관광지, 쇼핑가, 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 식당가, 카페테리아 등의 지역에서 소매치기, 날치기와 같은 경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여행 시 소지품 관리 및 신변에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피해자의 약 60% 정도가 당하는 가장 흔한 수법으로 2~3인이 한 조가 되어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소지품을 땅에 내려놓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 사이에 소지품을 잽싸게 날치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오스트리아인은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하지만, 상대 자동차에 대해 양보 없이 운행하는 경우도 있어 위험할 때가 있다. 아울러, 비보호 좌회전 및 우회전이 가

능하므로 직진 차량 및 교차로를 건너는 보행자에 주의해야 한다. 트램 정거장을 지나는 경우 트램이 들어올 때 일단 정지하고, 승객의 탑승/하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보행자 속도(시속 3~4km)로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다.

■ 렌터카

렌터카를 하는 경우 반드시 여권,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세 가지 모두를 소지하여야 한다. 여행 중 유럽내 어디에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제적인 렌터카사를 이용하되 반드시 차량종합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

■ 조류독감, 구제역 및 신종 인플루엔자

오스트리아는 신종인플루엔자 다발 감염지역이 아니지만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 주의해야 할 지역

여행객들이 많이 경유하는 비엔나 시내 2개의 환승 기차역(중앙역, 서역, 마이들링역), 시내중심가 슈테판 성당 앞 광장 등 유명 관광지, 쇼핑가, 식당(호텔 식당 포함)에서 날치기 및 소매치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 여행자는 소지품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8 현지 연락처

(1) 긴급 연락처

- 화재신고 : 122
- 범죄신고 : 133
- 응급환자(앰뷸런스) : 144
- 독극물 응급전화 : 04) 406 43 43
- 자동차고장 긴급전화(AMTC) : 120
- 자동차고장 긴급전화(ARB) : 123

(2) 의료기관 연락처

오스트리아나 EU 의료보험이 없는 여행자는 진료비가 비싸므로 여행 전에 여행자보험(의료보험 포함)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종합병원의 응급실(Ambulanz)은 24시간 근무하므로 언제든지 방문가능하나 가정의(Hausarzt, Praktischer Arzt)의 경우 정해진 진료시간에만 진료를 하고 미리 예약을 하여야 하며 의사가 응급치료가 바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긴급진료를 한다.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생명이 위독하지 않은 한 약 3시간 정도를 대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행객의 진료비는 최소 150유로이며 입원 등 수술비용은 최소 1500유로에서 시작함을 감안하여야 한다.

1 비엔나

■ AKH(대학병원)
- 주소 : Währinger Gürtel 18-20, 1090 Wien
- 전화 : 404-000

■ Wilhelminenspital(시립종합병원)
- 주소 : Wienpäoh, Montleartstraβe 37, 1160 Vienna
- 전화 : 476-150

■ St. Anna Kinderspital(어린이병원)
- 주소 : Kinderspitalgasse 6, 1090 Wien-Alsergrund
- 전화 : 401-700

■ Rudolfstiftung(종합병원)
- 주소 : Juchgasse 25, 1030 Wien
- 전화 : 711-65

2 잘츠부르크

■ Landesklinik Salzburg(대학병원)
- 주소 : Müllner Haupstraβe. 48
- 전화 : 57-2550

■ Unfallkrakenhaus(교통사고병원)
- 주소 : Dr. Franz Rehrl-Pl 5, 5010 Salzburg
- 전화 : 59-3934-4000

3 인스브루크

■ Landeskrankenhaus Innsbruck(대학병원)
- 주소 : Anichstraβe 35, 6020 Innsbruck
- 전화 : 50-5040

4 그라츠

■ Landeskrankenhaus Graz(대학병원)
- 주소 : Auenbruggerplatz 1, 8036 Graz
- 전화 : 316-3850

5 린츠

■ Allgemeines Krankenhaus Linz(시립병원)
- 주소 : Krankenhausstraβe. 9, 4020 Linz
- 전화 : 57-680-830

6 약국

■ 개점시간 : 월~금 08:00~18:00, 토 08:00~12:00

■ 감기, 두통 등에 대한 가벼운 증세를 치료하기 위한 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하다.

■ 야간 및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Apotheke)
- 감기, 두통 등 가벼운 증세 이외의 약을 구입하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약국은 각 구마다 2~4곳이 돌아가며 영업하며, 휴일에는 모든 약국마다 출입문 옆에 가장 가까운 야간 및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해 놓는다.

  ※ 오스트리아 약국 앱 : Apotheken

(3)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연락처

■ 주소 : Gregor-Mendel-Strasse 25, 1180 Wien, Austria

■ 전화번호
- 대표 : 01) 478-1991
- 영사과 : 01) 478-1991-66 또는 68

■ 팩스
- 대표 : 01) 478-1013
- 영사과 직통 : 01) 478-1004

■ E-mail : austria@mofa.go.kr
■ 홈페이지 : aut.mofa.go.kr
■ 비상연락처 : (0) 664-527-0743
■ 업무시간
- 영사과 : 월~금요일 09:00~12:00, 14:00~16:00
- 타부서 : 월~금요일 09:00~12:30, 14:00~17:00

9 기타

(1) 날씨

4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로 동부는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서부는 대서양 기후의 영향을 받는 과도 기후다. 연평균 기온은 7~9℃이며, 강우량은 700~2,000mm이다. 비엔나는 오스트리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온난한 편이다. 여름 평균 최고기온 24~33℃를, 겨울 평균 온도는 0℃ 내외를 보이고 있다.

(2) 교통정보

1 대중교통

비엔나가 최근 6년간 컨설팅회사 Mercer 선정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택된 데에는 잘 계획된 대중교통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시내버스·장거리버스·지하철·광역철도·시내전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시설이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모든 역 엘리베이터 설치)와 함께 촘촘히 짜여 있으며, 노선 정보 안내 또한 정류장, 지하철역,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으로 다양

하게 제공되고 있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거의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연/월/주/8일/3일/2일 등 다양한 정액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비엔나시 대중교통 정보 앱 : quando, WienMobil

택시의 기본요금은 3.80유로(야간 4.30유로)이며, 지하철역이나 양로원, 병원 등에 택시 정류장이 별도로 있으나 대개 콜택시로 운영되고 있다(콜택시 추가 비용 2.8유로).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빈 공항-시내 비용은 평균 40~60유로 정도이다.

2 도로교통

쉥겐 조약 이후 국경이 개방되면서 최근 주변국으로부터의 오스트리아 차량 유입이 급증했다. 시내 도로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정체가 빈번하나, 고속도로의 경우 휴가철에도 평균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려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도로 상황이 좋은 편이다. 고속도로 이용 시 요금을 직접 지불하는 톨게이트 대신, 시내교통 이용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이용도 정액권(Vignette)제로 운영하고 있다. 정액권(Vignette: 비넷) 스티커는 각 주유소, Trafik(잡지/담배 가게), ÖAMTC 또는 ARBÖ 지점에서 구입할 수도 있으나, 2018년부터는 디지털 비넷제도 실시중이다.

※ 정액권 : 일반 승용차 10일-9유로, 2개월-26.20유로, 1년-87.30유로

※ 오스트리아 도로공사 앱 : Asfinag

(3) 기타

1 전력 사용

플러그의 형태가 한국과 동일해 사용하는 데 무리는 없으나, 사용전압이 230V로 220V인 한국보다 높아 고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

2 환전

오스트리아의 화폐단위는 유로로, 2018년 9월 현재 1유로=1.16 $이다.

3 통신

■ 우편

국내 및 근접 유럽 국가(예: 독일)의 경우 2일이 소요되며, 국제 우편물의 경우 우체국 혹은 UPS/DHL 등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등기물 혹은 소포를 받을 수령인이 없을 경우 배송회사 또는 우체국에서 남긴 증명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지점이나 우체국으로 가서 수령해야 한다.

※ 비엔나-서울 간 우편배달 소요 일수
- 일반국제우편 : 10~14일
- DHL : 약 2~3일 정도
- EMS(Express Mail Service) : 약 4~5일 정도

※ 비엔나-서울 간 우편/소포 요금
- 일반우편 : 20g-1.80유로, 75g-2.75유로, 2Kg-12.25/24.20유로(크기별)
- 소포 : 2Kg-31.47유로, 4Kg-49.97유로, 10Kg-102.52유로, 20Kg-195.22유로, 31.5Kg-609.46유로
- EMS : 1Kg까지 51.46유로(추가 1Kg 당 18유로)

■ 전화

공중전화는 동전 또는 카드로 이용할 수 있으나 공중전화 시설이 크게 줄어 큰 도시가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다. 여행 시에는 반드시 로밍 가능한 휴대폰을 소지할 것을 권장한다.

■ 인터넷 사용 현황

유럽의 타 국가보다 인터넷 사용이 용이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대규모 쇼핑센터나 비엔나 국제공항, 열차내 등에서 무료 Wif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ifi 서비스는 민박, 에어비엔비, 4성급 호텔에서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5성급 이상의 호텔에서는 이용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속도는 한국보다 느린 편이다.

21. 우즈베키스탄

1 개황

- **수 도 :** 타슈켄트(Tashkent, 인구 250만 명)
- **인 구 :** 3,290만 명(2018년)
- **면 적 :** 447,400㎢(한반도의 약 2배)
- **민족구성 :** 우즈베키스탄(81%), 러시아인(5.5%), 타지크인(5%), 카자흐인(3%), 카라칼팍인(2.5%), 고려인(0.6%, 약 18만 명) 등
- **종 교 :** 이슬람교 88%(수니파 70%), 러시아정교 9%, 기타 3%
- **시 차 :** 우리시간 -4
- **언 어 :** 우즈베키스탄어(공용), 러시아어(통용)
- **1인당 GDP('17년) :** 1,496미달러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 총교역 12억 미달러(수출 11억 8천만 미달러, 수입 2천만 미달러)

2 문화적 특성

(1)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

우즈베키스탄은 리히텐슈타인과 더불어 세계에서 유일한 이중 내륙국가로서,

행정구역은 타슈켄트시 및 12개의 주와 1개의 자치공화국으로 나뉘어 있다. 북쪽으로는 키질쿰사막을 경계로 카자흐스탄과 접해있고, 남서쪽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 남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남동쪽으로 타지키스탄, 동으로 키르기즈스탄과 접경한다.

중앙아시아 다른 국가에 비해 풍부한 수자원과 다수의 오아시스가 존재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으며, 독립 이후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현재에는 중앙아시아 교통의 중심지이자 역사, 문화,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기존 이슬람문화 위에 유럽과 러시아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생활양식 및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전통 회교문화가 복원되고 터키, 이란 등 외부 이슬람 세계와의 교류확대로 중앙아시아 회교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2) 실크로드의 심장, 사마르칸트

사마르칸트는 사마르칸트주의 주도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다. 일명 "푸른 도시"로 불리며 14세기 말~15세기 중엽 번성했던 티무르 제국의 수도이기도 하다. 인구 65만 명이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제2의 도시로 수도 타슈켄트에서 약 300㎞ 떨어져 있으며 평균고도는 해발 725m이다.

1994년 세계관광기구(WTO)는 사마르칸트를 '실크로드의 심장'이라고 발표했으며, "동방의 로마", "동방 회교 세계의 진주"라고도 불린다. 2001년에는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최근에는 징기즈칸의 군대에 의해 폐허가 된 구시가의 발굴이 이루어져, 아랍 침공(8세기) 이전의 궁전터와 화려한 벽화 등이 출토되었다.

(3) 중앙아시아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

우즈베키스탄은 고대에 조로아스터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8~9세기 아랍의 침략 이후 이슬람화 되었다. 구소련 독립 초기에는 이슬람 부흥 운동이 일어나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 등지에서 자발적 이슬람 교육과 여성들의 베일 착용이 늘어나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인의 88%가 무슬림(수니파 70%, 시아파 20%)이지만 정부는 인접 타지키스탄이나 아프간으로부터 과격 시아파 원리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

하고 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국민에게 타종교를 포교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와 함께 카리모프 초대 대통령은 철저한 정교분리정책으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정치 불안 요소를 원칙적으로 배제했으며,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종교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선교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추방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4) 예술을 사랑하는 민족

우즈베키스탄인은 시와 노래를 즐겨 "시와 노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격언도 있을 정도로 예술을 사랑하는 민족이다. 우즈베키스탄 민요(3/4 박자)와 전통춤인 페르가나 춤과 호레즘 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주요 가무이다. 국경일에는 봄축제, 면화추수감사축제, 종교적 명절 등이 있으며, 명절에는 전통의상 '차반'을 입고 노래와 춤을 향유한다.

3 한류 현황

(1) 일반현황

한류의 시초는 2000년대 초 〈겨울연가〉가 60%라는 기록적인 시청률을 기록한 후, 연이어 〈대장금〉, 〈주몽〉, 〈올인〉 등 한국드라마가 우즈베키스탄 공중파 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며 우즈베키스탄 내 초기 한류 붐을 이끌었다.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한류를 주도하는 그룹은 고려인 동포, 한국교육원·세종학당·한글학교·초중고대학교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한국어 학습인구 약 17,000명, CIS 국가 중 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고 돌아온 청년층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청소년층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코리안 드림 열기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K-Pop과 드라마 검색 데이터로 본 한류의 현주소' 보고서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프랑스, 영국 등을 한류 도입국으로 분류했다. 한류의 시발점이었던 일본과 중국의 경우 한류가 이미 정체기에 들어섰다고 평가되지만,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이제 막 한류가 확산되기 시작하는 도입국가에 속해있다.

(2) 분야별 현황

1 드라마

드라마는 우즈베키스탄 내 초기 한류 붐을 촉진했는데, 삼성과 LG 등이 홍보 전략의 하나로 방송국 광고비 대신에 드라마 방영권을 우즈베키스탄 방송국 측에 제공함으로써 한류 열풍 확산에 일조한 면이 있다. 드라마 〈겨울연가〉가 시청률 60%를 기록하면서 최고 시청률 기록을 경신한 이래, 〈별은 내 가슴에〉, 〈이브의 모든 것〉, 〈주몽〉, 〈대장금〉, 〈미남이시네요〉, 〈상속자〉, 〈닥터스〉, 〈푸른 바다의 전설〉 등이 연달아 상당한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한국드라마가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2 영화

우즈베키스탄 공중파TV 방영으로 큰 인기를 얻은 한국드라마와는 달리 영화의 경우에는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일부 마니아층이 형성된 정도이다. 그러나 대사관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국 영화제의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한국적인 정서와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영화를 매우 좋아하므로, 영화 분야도 한류의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 K-Pop

K-Pop은 우즈베키스탄 내 한류 열풍을 사실상 견인하고 있으며 인피니트, Miss A, B2ST, EXO, 에일리 등의 K-Pop 스타가 그 주역이다. 특히, 한국어를 공부하는 10~20대 초중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K-Pop의 열기가 대단하다. 2013년 전 세계 50여국이 참가한 K-Pop 월드페스티벌에서 우즈베키스탄 대표팀 'Aladdin(5인조 여성그룹)'이 퍼포먼스 부분 대상을 차지했는데, 이들 입상자들은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도 인기인으로 부상하고 더불어 우즈베키스탄 청소년들의 한국 문화행사에 대한 관심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18년도에는 'Monstar(5인조 혼성그룹)'팀이 창원 본선에 진출했다.

4 한식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오랜 기간 고려인(현재 약 18만 명 거주)과 함께 살아온 영향으로 한식에 대한 친근감을 갖고 있으며, 드라마 〈대장금〉과 영화 〈식

객〉 등을 통해 한식이 널리 소개되면서 한식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3년 전주에서 개최된 한식경연대회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대학생 참가자가 최종 3위에 올랐으며, 2018년에도 Korea Festival 행사 일환으로 한식요리경연대회(주제 :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비빔밥)와 한식마스터 클래스(9.27.)가 개최되어 많은 우즈벡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5 한국어

2018년 9월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 96개 초·중고교, 대학교 및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타슈켄트 세종학당, 한글학교 등을 통해 약 25,800명(CIS 국가 중 최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으며, 연 2회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연 약 4~6천명의 우즈베키스탄 국민이 응시하는 등 열기가 높다.

또한 동방대, 니자미사범대, 세계언어대, 사마르칸트 외국어대, 세계경제외교대 등의 주요 명문대가 한국어학과를 개설하거나 제2외국어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 높은 인기를 보유하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동방대학교 한국학 단과대학이 개설되어 한국어문학과, 한국역사문화학과, 한국경제정치학과 등 3개 학과가 운영중에 있다.

6 산업 파급효과

한국의 문화 콘텐츠, 상품, 음식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한류의 영향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등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매우 높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의 우즈베키스탄 가전 시장 점유율은 80%를 상회하고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어른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효, 가족 중시 등 우리와 정서적,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크며, 오랜 기간 고려인(현재 약 18만 명 거주)과 함께 살아온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친밀감과 이해도가 높다. 고려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감, 또한,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 과정에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은 한국에 대한 신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스럽게 한국인 및 한국 전반에 대한 우호적인 관심으로 연결되고 있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문화 우월주의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 교류나 내실이 없는 한탕주의식 행사는 금물이며,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동포에게만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의지하기보다는 우즈베키스탄 국민과 고려인들 모두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국 문화행사는 대부분 대사관이 주최하는 무료공연이며, 민간 차원에서 연극, 미술, 전시 등 개별 분야에서 친선교류 차원의 단발성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우즈베키스탄인들의 자생적인 수요와 요구에 의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진출, 공연 기획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은 외국 문화의 자국 내 유입(공연 등)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이며, 방송, 공연, 취재 허가, 출입국 등 제반 규정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우즈베키스탄 내에는 아시아권 국가들이나 최근 프랑스·미국 등처럼 조직화되어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한류 동호회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현지의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한국학 개설 주요 대학 등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수업의 일부로서, 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소규모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2) 동호회별 현황

1 자체적으로 운영

명칭	K-lovers in Uz 동아리
회원 수	약 800명
웹사이트	Facebook/K-lovers in Uz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Facebook을 통해 정보 교류

명칭	나보이 speaking club
회원 수	20명
웹사이트	없음
세부 활동 현황	• (오프라인) 주 1~2회 나보이국립도서관에서 모임

2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성격	댄스반/K-Pop 댄스
회원 수	29명
웹사이트	없음
세부 활동 현황	• (오프라인) 주 2회 교육원에서 한국어수업 이후 모임

성격	사물놀이반/전통문화
회원 수	13명
웹사이트	없음
세부 활동 현황	• (오프라인) 주 2회 교육원에서 한국어수업 이후 모임

성격	전통무용반/전통문화
회원 수	10명
웹사이트	없음
세부 활동 현황	• (오프라인) 주 2회 교육원에서 한국어수업 이후 모임

3 세종학당

성격	한식 요리 교실/요리
회원 수	70명
웹사이트	없음
세부 활동 현황	• (오프라인) 월 4회 진행하는 한식요리 교실

4 동방대학교

성격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초급)
회원 수	25명
웹사이트	없음
세부 활동 현황	• (오프라인) 방과 후 주 2회 모임

성격	번역 동아리
회원 수	20명
웹사이트	없음
세부 활동 현황	• (오프라인) 방과 후 주 1회 모임

성격	연극 동아리/문학
회원 수	15명
웹사이트	없음
세부 활동 현황	• (오프라인) 동방대 학생들 간 자체 동아리 모임

5 사마르칸트 외국어대학교

성격	사물놀이반/전통문화
회원 수	10명
웹사이트	없음
세부 활동 현황	• (오프라인) 방과 후 주 1회 모임

성격	번역/TOPIK 준비반
회원 수	20명
웹사이트	없음
세부 활동 현황	• (오프라인) 방과 후 주 2회 모임

6 세계언어대

성격	한국 유학, TOPIK 준비반
회원 수	40명(초급 20명, 고급 20명)
웹사이트	없음
세부 활동 현황	• (오프라인) 방과 후 주 2회 모임

성격	K-Lover's Group(백일장, 말하기대회 연습반)
회원 수	10명
웹사이트	없음
세부 활동 현황	• (오프라인)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간 정보 교류

6 2018년 문화행사

2018년은 대사관을 중심으로 한인회, 고려문화협회,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었다.

2018 Quiz on Korea 대회 지역예선(6월)이 개최되어 수도인 타슈켄트시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약 100명이 학생들이 참가하여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배움의 열의와 열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K-Pop World Festival 2018 지역예선(6월)에는 5월 예선(총 77팀, 약 180명)을 거쳐 12팀이 참여하여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특히 9월 22일~10월 6일에는 타슈켄트/지작/카르쉬 등 3개 도시에서 한국 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Korea Festival 2018 종합문화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제17회 우즈벡 대사배 주니어 태권도대회(9.22.-23.)
- 국경일 리셉션(9.25.)
- 한식 요리 경연대회 및 한식 마스터 클래스(9.27.)
- 한국영화제(9.28.-30.)
- 뮤지컬 'JUMP'(10.2.)
- 지작 문화행사(10.3.~5.)
- 카르쉬 문화행사(10.4.~6.)

7 여행정보

(1) 비자

2018.2.10.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관광목적 등을 위해 우즈벡에 입국하는 한국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허가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별도 우즈벡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30일을 초과하거나 관광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입국 이후 3일 이내 체류하는 곳에 거주등록을 해야하며, 위반시 약 3천불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할 수 있다. 체류비자 관련 상세한 사항은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국 시 출국 항공권과 최종 도착국가 사증을 소지해야 하며 24시간 이내 출국 시 환승구역 내에서 체류해야 한다. 여권 잔여 기한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11길 27
- 전화 : (02) 574-6554, 577-3660, 팩스 : (02) 578-0576

(2) 안전정보

1 여행경보단계 : 우즈베키스탄에 발령된 여행 경보 없음

2 사건·사고의 현황

■ 테러, 인질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교민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타슈켄트시(인구 300만)에는 교차로를 중심으로 곳곳에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으나,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MU), 이슬람자유당(HUT) 등이 이슬람 국가 건설을 표방하며 은밀하게 활동 중에 있고 남쪽에 아프가니스탄을 비롯, 주변 5개국에 둘러싸인 내륙국가로 항시 테러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1999년 8월에는 무장세력 약 7백 명이 키르기즈스탄 인접 국경 4개 마을을 점령하고 수도 진입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카리모프 전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을 비롯하여, 경찰관 등을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2004년 3월, 47명 사망)와 미국, 이스라엘 대사관 테러(2004년 7월, 7명 사망) 등 수 건의 테러가 발생한 적이 있으며, 2009년 5월 26일 우즈베키스탄 동부 안디잔주 하나바드시에서 무장 세력이 국가안보부 및 경찰서 등을 상대로 폭탄테러를 자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상해협력기구(SCO) 대테러센터를 타슈켄트에 유치(2004년)하는 등 테러대응을 위한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3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경제적 곤란, 실업자 급증 등으로 금품을 노리는 절도, 폭행, 강도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호텔 내의 도난사건, 대중교통 안의 소매치기와 금품 요구, 강도사건이 다소 발생하고 있다. 타슈켄트 시내 이면도로에는 가로등이 희미한 곳이 많아 외국인들이 범죄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심야에 혼자 다니지 않는 것이 좋

다. 우즈베키스탄은 공식적으로 범죄통계를 공개하지 않으나, 마을마다 우리나라 동장과 같은 마할라 제도가 있어 주민들의 동향을 자세히 파악하여 경찰, 출입국, 국가안보부 등에 보고하고 있어 범인 검거율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근대적 수사기법, 과학수사 인력, 장비 부족, 범죄데이터 공유 미흡 등으로 해결되지 않는 미제사건이 다소 있다.

4 자연재해

중앙아시아는 크고 작은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으로, 대중이 모이는 곳이나 고층 건물 등에서 지진발생을 대비한 요령을 숙지하고 행동해야 한다. 1966년 대지진 발생 시에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어 구소련 전역에서 노동자들이 파견되어 도시를 재건하였으며, 최근에도 소규모 지진이 우즈베키스탄 전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5 유의해야 할 지역

타슈켄트 시내 미라바드구, 야카사라이구 특히 가스피탈르이 시장과 그랜드 미르 호텔 인접지역에서 절도 및 강도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거주 등록법 위반으로 강제추방 당하거나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타슈켄트 공항 입출국 시 외화를 신고하지 않아 압수당하거나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2005년 5월 안디잔 사태가 발생한 우즈베키스탄 동부 국경지방(안디잔, 나망간, 페르가나)은 2010년 6월 이웃 키르기즈스탄 남부 국경마을 오쉬에서 시작된 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 민족 간 대규모 유혈충돌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여 다수의 난민들이 우즈베키스탄 국경을 넘어 들어와 큰 혼란이 벌어진 지역으로, 여행유의지역 지정에서 해제되었지만 여행 시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국경 상황 관련 우즈베키스탄 남부 도시인 테르미즈 및 인접 접경지역은 여행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웃 타지키스탄으로 입국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육로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할 경우 반드시 경유비자를 받아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한 후 다시 타지키스탄으로 들어가야 한다.

6 단체여행자

단체 여행자들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내자의 인솔 하에 여행하는 것이 좋다. 관광지역 내 사진촬영은 가능하나 국가 주요시설(국가기관, 군부대, 지하철) 등에서 사진촬영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8 현지 문화

우즈베키스탄인은 자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 문화 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예로부터 중앙아시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오고 있으므로 인근 국가와 경제수준을 비교하거나 이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1) 인사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항상 악수를 한다(문지방 등 경계선 위에서 악수하는 것은 결례). 인사할 때는 왼쪽 손을 가슴에 대고 오른손으로 악수하면서 우즈베키스탄어로 '아살람 말레꿈'이라고 인사한다. 가까운 사이면 볼과 볼을 맞대며 키스하는데, 이것은 정중한 인사법이다. '아살람 말레꿈'이라는 인사의 뜻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목례로 간단히 인사를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악수를 하며 인사말을 상당히 길게 한다. 한국과는 달리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서슴없이 악수를 청하며, 한손 악수는 사악한 마음이 없음을, 양손 악수는 서로의 정이 깊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감사인사를 할 때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리며 '라흐맛'이라 말한다. 남녀 내외풍습의 잔재로, 여성과의 인사는 가볍게 하고, 베일을 쓴 여성과 악수 이외의 신체접촉은 삼가야 한다.

(2) 손님 접대

집에 손님이 가득한 것을 축복으로 여겨 가난한 사람도 여행객들에게 음식과 생필품을 후하게 제공한다. 손님이 오면 온 가족이 손님접대에 집중하며, 낮은 테이블(혹은 매트 위의 천)에 음식을 가득 차려내고 3~4시간 동안 담소하면서 식사한다. 접대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기도 : 손님이 들어오면 이슬람식으로 기도
② 차이(차) : 주인은 차에 물을 붓고 따라내기를 세 번 한 후 차례로 차를 대접
③ 빵 : 주인이 '리뵤쉬카'라고 불리는 빵을 찢는 것이 식사의 시작
④ 주요리 : 모든 음식은 공동으로 먹으며 순서대로 돌림
⑤ 마무리 : 차와 기도로 식사를 정리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방문하게 될 경우 이슬람 전통 문화에 따라 손님에 대해 극진하게 대접하나 이들은 손님들에 대해 이러한 극진한 대접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만약 이런 점이 부담된다면 가정집 초대 등은 완곡히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음식문화

회교도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대신 양고기를 많이 먹으며, 대표적 음식인 쁠롭(볶음밥의 일종)은 주인이 직접 손님에게 만들어 접대한다.

- 리뵤쉬카 : 진흙 가마에서 구운 둥글고 넓적한 빵
- 쌈사 : 밀가루 반죽에 고기 및 양파 다진 것을 넣고 세모나 둥근 모양으로 화덕에 구운 빵
- 쁠롭 : 쌀을 양파, 당근, 양고기, 건포도 등과 함께 양기름에 끓여 만든 것으로 볶음밥과 유사
- 쇼르바 : 양고기, 감자, 양배추를 넣은 맑은 스프
- 라그만 : 국수에 야채, 고기 등을 넣고 만들어 짬뽕과 유사
- 코존카봅(케밥의 일종) : 고기, 야채, 마늘, 향신료 등을 항아리에 넣고 약한 불에 익힌 요리
- 샤슬릭 : 양고기,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소간을 재로로 한 쇠꼬치구이

(4) 결혼문화

우즈베키스탄의 결혼 문화는 '소브치(souvuch, 중매쟁이)' 문화로, 최근 젊은 층에서는 연애결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연애결혼이라 하더라도 소브치를 통해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 정식으로 결혼 승낙을 받는 것이 전통이다. 결혼식은 더위를 피해 주로 밤에 성대한 음식과 음악을 겸한 피로연을 개최한다.

(5) 우즈베키스탄의 색다른 풍습

우즈베키스탄은 머리를 신성시하는 풍습이 있다. 그래서 귀엽다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된다. 또 문턱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는 것은 결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념일 등에 여성에게 꽃을 줄 때는 반드시 홀수로 준비한다.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짝수는 죽은 자에게 바치는 것으로 여겨 금기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앞니를 금니로 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우즈베키스탄의 물에는 석회질이 많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소금물로 인하여 치아가 잘 나빠지기 때문이다. 금니를 미인의 상징으로 여기는 문화 또한 하나의 이유이다. 1980년대 초 금니가 크게 유행하기도 했다. 당시 멀쩡한 치아를 빼고 금으로 갈아 넣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9 현지 연락처

(1) 긴급 연락처

- 화재 : 101
- 경찰 : 102
- 구급 : 103
- 전화안내 : 109

(2) 의료기관 연락처

일반적으로 의료시설 및 의료기술은 우리나라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며, 여행이나 체재 시에는 해외여행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상해, 발병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수속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수술은 주로 국립응급센터(구 16번 병원)에서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간단한 진료 및 치료는 UN병원이나 MDS종합병원을 주로 이용한다.

- 국립응급센터(구 16번 병원)
  - 주소 : 2 Farhad st., Chilanzar Tashkent
  - 전화 : 998-71) 150-4600

■ UN병원(Tashkent International Clinic)

- 주소 : Talimarjon st., Tashkent
- 전화 : (371) 291-0142, 291-0726
- 홈페이지 : www.tashclinic.org
- 참고 : 원칙적으로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영어로 진료가능하다. 입원시설은 없고 출산, 외과수술 등은 할 수 없으며, 백신 접종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MDS종합병원

- 주소 : 110, Botkin st., Tashkent
- 전화 : 998-71) 140-0080, 269-7085, (구급차)1080
- 참고 : 사립병원이며 러시아어 또는 우즈베키스탄어를 사용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103번으로 응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으나 출동이 매우 늦은 편이며 유로 서비스인 1080(MDS)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 MRI, CT, 내시경 등 검사기재는 준비되어 있다.

■ 국립 제2병원 한의진료센터(구 한우친선한방병원)

- 주소 : 62 Olimlar st., Hamza, Mirzo Ulugbek, Tashkent
- 전화 : 998-71) 262-5758
- 참고 :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파견된 한국인 한의사가 진료한다.

(3) 주요 연락처

1 공공기관

■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7 Afrosiab st., Tashkent, Uzbekistan
- 대표번호 : 998-71) 252-3151~3
- 당직번호 : 998-91) 192-1595
- Fax : 998-71) 140-0248(대표), 998-71) 252-7173(영사과)
- E-mail : uzkoremb@mofa.go.kr

■ 타슈켄트 한국 교육원

- 998-71) 291-8182~3 / Fax : 998-71) 140-6434

■ KOICA(한국국제협력단)

- 998-71) 252-3561 / Fax : 998-71) 140-0648

■ KOTRA(타슈켄트 한국무역관)
• 998-71) 140-0215~6 / Fax : 998-71) 140-0217

2 주요 기관

■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 998-71) 291-7460

■ 사마르칸트 영사 협력원(유인영)
• 998-91) 558-2017 / Fax : 998-66) 231-0188

■ 누쿠스 영사 협력원(남상기)
• 998-91) 376-9950/ Fax : 998-61) 223-3187

■ 고려문화협회
• 998-71) 283-3682

10 기타

(1) 날씨

우즈베키스탄은 사막형 대륙성 기후로 매우 건조하며 일교차가 커서 감기, 기관지염 등에 쉽게 걸릴 수 있으므로 평소 수분섭취를 자주 해줘야 한다. 여름은 평균 40도로 고온 건조하여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 반면, 겨울은 우기로 눈과 비가 자주 내려 비교적 습도가 높고 강수량이 많은 편이며,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나 평균적으로 영하 1도 내외이다. 우즈베키스탄을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봄과 가을로 3월부터 6월 초와 9월부터 11월 초순까지다.

(2) 교통

1 대중교통

현지인들은 버스,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나, 외국인은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택시의 경우, CAP 택시와 일반 자가용 택시가 있으며, 일반 자가용의

경우 요금은 기준요금이 아닌 흥정을 통해서 결정한다.

- 버스는 다양한 노선으로 시내 곳곳을 운행한다. 녹색의 벤츠버스와 함께 10~20년 이상 된 버스이다. 가끔 한국 중고 버스도 볼 수 있다. 버스마다 요금을 받는 차장이 있어 버스 안에서 혹은 내릴 때 계산하면 된다.
- '뜨람바이'는 도로 중앙의 철길을 따라 전선을 타고 느린 속도로 운행하는 노면 전차로서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었으나 현재 타슈켄트시내에는 전면 철거되었으며 사마르칸트에 1개 노선이 운영 중
- 지하철(메트로)는 타슈켄트에는 구소련 시절인 1977년 처음 개통된 이후 현재 3개의 노선, 29개의 역으로 되어 있다. 일반 국민들의 지하철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선마다 약 5~6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지하철역 구내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동전 모양 승차권을 구입 후 개찰구에 넣고 들어가면 된다.
- 택시는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이다. 최근 전문택시업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전화/모바일 어플 등을 이용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요금(8,000숨(약 1$))으로 시내 이동에 충분하다. 일반적인 택시의 개념과 달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자가용으로 택시영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도로를 지나는 차를 세운 후 목적지를 밝히고 요금을 미리 흥정한 후 탑승한다(단, 차내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운전사의 인상착의와 차량 앞/뒤 번호판의 여부 등을 살핀 후에 탑승). 안전을 위해 가능하면 자가용택시보다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택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정해진 노선을 왕복하는 노선택시(마르쉬루트카)도 있다. 이 택시는 10명 정도 탑승할 수 있는 미니버스 형태로 정해진 노선대로 운행하고 정류장에서 세워주지만 내릴 장소에서 운전기사에게 내려달라고 할 수 있다. 요금은 버스나 지하철 요금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2 기차 및 항공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열차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 중 하나이다. 구소련 시대부터 각 지역에 철도를 설치하여 사마르칸트, 부하라, 누쿠스 등의 국내뿐만 아니라 CIS 국가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기차를 탈 수 있다. 특히, 2012년 12월부터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구간에 한국의 KTX와 같은 고속열차(Aforsiab)가 매일 운행되고 있으며, 2016년 9월부터 타슈켄트~사마르칸트~부하라간 상

기 고속열차가 운행되어, 편리함과 시간 단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항공교통의 경우 타슈켄트1공항(국내선)과 2공항(국제선)이 있으며, 국내선 공항 신청사는 국제공항에서 대략 10km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국내선의 경우, 운항하는 항공기가 다양해서 기종에 따라 소요 시간이 제각각이다.

※ 주요 관광지인 사마르칸트로 가기 위해서는 기차, 비행기,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개통된 고속열차를 이용할 경우 2시간 10분, 차는 약 5시간 소요

3 자동차

2015년에 양국 간 운전면허상호협정이 발효되어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우즈베키스탄 내 거주등록의 되어 있는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 사본에 대한 공증 및 우리나라 법무부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아, 현지에서 우즈베키스탄어로 공증을 받으면, 현지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단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차량검문이 심하므로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필요 서류를 늘 소지해야 한다.

타슈켄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잘 구획돼 있으나 관리상태가 특히 불량해(포장상태, 도로 표지판, 신호등 등) 시내 주행 시에는 과속(제한속도 70Km/h), 안전벨트 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주요 교차로에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교통경찰관들이 도로에서 직접 교통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낙후한 교통 신호체계,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는 차량, 보도와 차도의 구분 없음, 난폭한 운전습관 등으로 인해 항상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3) 전압

사용전압은 220V, 50Hz이며, 한국의 가전제품은 별도의 변압장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4) 환전

우즈베키스탄의 화폐단위는 숨(sum)이며, 모든 물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료는 현지화로 지불해야 한다. 대형 호텔을 제외하고는 식당, 슈퍼마켓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환전은 은행 및 호텔 환전소 등에서 가능하며 다만 현지화에서 달러로의 역환전시 애초의 달러에서 현지화로의 환전 영수증을 제출

하여야 하므로 환전 영수증 보관이 필요하다.

시장 등에서 무허가 환전상에게 환전하다 적발되는 경우 엄벌에 처해지므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 2018년 9월 기준 환율 : $1=8,100숨

(5) 우편 및 통신

우편물은 중앙우체국이나 각 구역의 지점에서 직접 편지를 보낸다. 항공소포와 기차소포의 소요기간이 다르다. 기차소포는 무게에 비해 요금이 저렴해 학생들이 책을 한국으로 보낼 때 유용하다. 5kg 미만의 작은 화물은 택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타슈켄트-서울 간 우편배달 소요 일수(근무일 기준)

- 일반국제우편 : 약 15일
- DHL : 약 3~5일 정도
- EMS(Express Mail Service) : 약 3~5일 정도
- FEDEX : 약 4~6일

■ 국제전화

현지에서 선불로 심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저렴하다.

■ 인터넷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나, 기간인터넷망의 용량이 적어 인터넷속도가 느린 편이다.

(6) 팁 문화

팁은 관례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조금씩(약 5,000숨) 주는 편이다. 보통 현지 식당에서는 미리 봉사료를 10~20% 계산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팁을 주지 않아도 무관하다. 단, 한국식당에서는 대부분 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업원들에게 조금씩 주면 좋다. 현지에서의 팁의 강제성은 없으나, 외국인 출입이 많은 호텔의 종업원들은 손님으로부터 약간의 팁을 기대하고 있다.

KOREA FOUNDATION KF
한국국제교류재단

22. 우크라이나

1 개황

- **수 도 :** 키예프(284만 명)
- **인 구 :** 4,222만 명(2018년)
- **면 적 :** 603,500㎢(한반도의 약 3.5배)
- **민족구성 :** 우크라이나계 78%, 러시아계 17%, 기타(벨라루스계, 몰도바계 등) 4.9%
- **종 교 :** 우크라이나정교, 가톨릭 등
- **시 차 :** 우리나라 -7(서머타임시(11월~3월) -6)
- **언 어 :** 우크라이나어(공용어), 러시아어(통용)
- **1인당 GDP('17년) :** 2,639미달러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기준) :** 총 교역 7.98억 미달러

2 문화적 특성

(1) 동슬라브 문명의 대표 나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벨라루스와 함께 9세기경 성립된 동슬라브 최초의 도시국가인 '키예프 루스'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는 동슬

라브의 문화,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이라는 의미에서 동슬라브의 어머니로 불려왔다.

'키예프 루스'는 13세기 몽골-타타르족의 침략을 시작으로 여러 세력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 독립 국가를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코자크'라는 집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16세기 폴란드의 지배를 받던 농민들이 과중한 세금과 노동에서 벗어나 드니프로 강 유역과 동남쪽의 초원지대에서 결성한 자율적인 군사공동체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하게 되었으며 지난 1960년대 초 '율 브리너'가 열연했던 영화 '대장 불리바'에서 우크라이나의 코자크 민족들이 소개된 바 있다.

(2) 동서로 위치한 러시아와 유럽

우크라이나는 크게 '동'과 '서'로 나뉜다. 여기에서 '동'은 동방 정교의 세계와 비잔틴 문화 그리고 유라시아 유목민의 문화를 의미하고 '서'는 유럽을 의미한다.

현대 우크라이나에서는 '동'과 '서'의 의미가 다소 변화되었는데 '동'은 동방 정교의 문화적, 정치적 전통을 계승한 러시아를 의미하고 '서'는 서방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과 '서'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정치·문화적으로 동과 서가 확연히 구분되어 서부지역이 주로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고 친서방적이라면 동부지역은 러시아어가 통용되며 친러 성향이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아직까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3) 흑토의 백의민족

국토 대부분이 비옥한 흑토 지대인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렸는바, 이처럼 천혜의 풍요로움이 있기에 그 어느 민족보다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있다. 전통적인 손님맞이 행사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러시아 등 다른 동슬라브 지역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공식 환영식이나 전통 혼례식에서 귀한 손님이나 행사의 주인공을 맞이하기 위해 빵과 소금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전통술(보드카)을 준비하고, 대문 앞이나 현관에서 의례를 치른다. 손님은 전통 의상을 정성껏 차려 입은 여인들이 주는 빵과 소금을 먹고 술을 마시는데, 빵과 소금 그리고 술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농경사회의 필수품으로서 손님을 환대한

다는 의미로 통용이 된다.

우크라이나의 전통 가옥이나 시골집의 벽들은 대부분 흰색이며, 남녀노소가 즐겨 입는 전통의상은 흰색 바탕에 자수가 놓여 있어 '중유럽의 백의민족'이라고 불린다. 또한 음주와 가무를 좋아하는 점과 지정학적으로 여러 문명의 길목에 위치해있어 무수한 외세의 침입을 받았으면서도 평화를 애호하고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계승·발전시켜온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과 닮은 점이 많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국제무대에서 어떠한 갈등요소 없이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최근에는 정치·경제 등 다방면 분야에서 협력을 증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이 각 분야에서 선두기업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이미지와 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사관이 중심이 되어 개최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음악회·영화제 등)와 2010년 이후 자생적으로 발생한 K-Pop의 지속적인 인기 상승 등으로 우크라이나 내의 한류는 양적·질적으로 팽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분야별 현황

1 K-Pop

현재 우크라이나 내 K-Pop은 한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10년 이후 매년 1-2회 'K-Pop의 밤'의 행사, 플래시몹 행사 등이 지속 개최되고 있다. 또한 K-Pop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이 매년 주최하는 'K-Pop World Festival' 지역예선에 수도 키예프뿐만 아니라 오데사, 니콜라예프, 하리코프 등 우크라이나 전국 각지에서 적극 참여해 대회규모가 매년 확대 개최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지역예선 우승팀이 창원에서 개최되는 본선 경연에 최종 진출하는 등 양적, 질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2 드라마

2008년 이후 주재국 KIEV-TV를 통해 〈슬픈연가〉, 〈대장금〉, 〈다모〉, 〈태양의 여자〉 등을 방영,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이래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커지면서, 2017년에는 우크라이나 주요 방송사에서 한국 드라마 5편의 포맷을 수입하여, 현지에서 리메이크 하여 방영하였고 동시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얻었다. 러시아와 미국 드라마가 중심인 주재국에서 한국 드라마 방영은 우리 문화를 알리고 이미지를 높이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 영화

우크라이나 내에서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영화의 관심이 매우 늘었으며 2008년 이후 거의 매년 수도 키예프에서 한국영화제를 열고 있는바, 2016년에 키예프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탈북민을 소재로 한 한국감독의 다큐멘터리가 우크라이나 언론의 큰 관심을 받으면서 초청작으로 상영되기도 하였다. 이미 한국 높은 영화제작 수준은 우크라이나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문화산업의 저력을 알리고 있다.

4 한국어

우크라이나 셰브첸코 국립대 및 키예프 외대內 1998년에 신설된 한국어학과가 있으며, 꾸준한 한국어의 인기 증대로 학과 신설 20년이 되는 2017년 한국어학과 신입생을 2배 늘리기도 했다. 2017년 3월 키예프에 한국교육원이 개설되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어 교육 보급과 발전에 더욱 큰 파급력이 실리고 있다. 2018년 9월에 우크라이나 간업의 중심도시인 드니프로시 국립세관대학에도 한국어과가 신설되는 등 한국어 교육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5 한식

우크라이나에는 고려인들이 3만여 명 이상 거주하고 있어 한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보유한 계층이 존재, 우크라이나 내 한식의 보편화 가능성도 크다.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은 2017년 '한국의 맛'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바 있으며,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문화행사에서 한식 프레젠테이션 등을 진행하는 등 한식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키예프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식당이 3곳, 현지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이 1곳이 있고 인터넷으로 우리 김치 등

반찬을 배달 판매하는 업체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한류)를 좋아하는 이유

우크라이나인들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부흥한 나라로 우뚝 일어선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류 팬의 증가, 한국어의 인기 상승으로 한국 문화에서 대한 관심도 크게 늘고 있어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내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로 한국 기업,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매우 크며, 한국인은 부지런하고 믿을만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동북아 나라 중 한국은 좋은 상품으로 우크라이나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어 이들로부터의 영향력에 자유롭지는 못하나, 우크라이나인(코자크의 후예, 문화민족)라는 자존심이 강해 사회·문화적인 자존심을 세워주는 문화 교류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 위치하지만 동양적인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편이어서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러시아와의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정서에도 깊은 반러시아 감정이 자리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우크라이나어 사용 강화, 러시아어 도로명 변경과 같이 脫소비에트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공식적인 행사시에는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우크라이나 내의 한류 동호회는 주로 K-Pop 동호회이며, 2010년 이후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회원들의 연령대는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며, 약 70여개의 K-Pop 동호회가 SNS와 인터넷을 통해 한류 스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최대 K-Pop 동호회는 BTS(방탄소년단) 팬클럽으로 약 3,000명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또한

한국 드라마 및 영화를 자국어로 번역하여 공유하는 번역동호회가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2018년 문화행사

(1)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리셉션 및 개막식 문화행사 (2018.2.9.)

-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우크라이나 주요인사, 언론 초청 리셉션 개최.
- 우크라이나 국영방송국이자 올림픽 중계방송사인 UATV 스튜디오에서 올림픽기간(2.9-25) 동안 서예 마스터클래스, 한국문학 강의 등 한국문화와 체육, 관광을 소재로 한 전시와 특강을 진행

(2) 2018 대사배태권도대회 개최(2018.5.19-20)

- 2018년 대사배 태권도 대회에는 우크라이나 전국으로부터 약 600명의 선수와 코치단이 참가, 우크라이나 선수 뿐 아니라 인접국인 벨로루스, 몰도바, 아제르바이젠 등 출신 선수들의 참여도 늘어가는 추세로 우크라이나내에서 동 대회가 국제대회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확인

(3) 2018 K-Pop World Festival 지역예선(2018.6.17)

- 총 88개 팀 참여, 지역예선전에서 27개 팀이 경연하였으며, 약 600여 명이 관람. 금번 대회 지역예선 우승팀은 최초로 창원 본선 페스티벌에 우크라이나 대표로 진출

(4) 디지털 공공외교 'Privyt Korea' (2018.9.17)

-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 청소년층의 관심을 독려하기 위하여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공모전인 'Privyt korea'를 최초로 진행. 동영상, 사진, 디자인 부문에 약 70명의 참가자들이 참여, 동 참가자들은 시상식에서 금번 공모전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고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7 여행정보

(1) 비자

1 일반 여행객

한-우크라이나 양국의 비자 관련 협정으로 우리 국민은 무비자 입국 90일 체류 가능하다. 입국시점부터 180일 이내에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며, 국경수비대는 전산망을 통해 외국인 개인별 입출국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2 공연 비자 : 별도로 없다.

(2) 안전 정보

과거 인종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외국인에 대한 인종 범죄는 많이 사라졌으며,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 대체로 안전한 편이다. 하지만 시위 현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밤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현지 경찰의 불시검문에 대비하여 여권을 상시 소지해야 한다.

(3) 기 후

- 봄(3월-5월) : 청명 온화한 날씨. 의복은 춘추복, 스웨터 및 바바리코트 등 필요
- 여름(6-8월) : 건조하고 맑은 날이 대부분이고 해가 매우 뜨거우므로 선글라스 필요
  - 의복은 한국의 여름옷이 필요하나, 간혹 비 오고 스산한 날도 있으므로 겉옷도 필요
- 가을 (9월-11월) : 점점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아짐
- 겨울 (12월-2월) : 거의 흐리고 폭설이 자주 옴, 일조량이 적고 습도가 높아 혹한에 체감온도는 더 낮음

(4) 환 전

공항, 기차역, 은행, 사설환전소 등에서 쉽게 환전할 수 있다.

(5) 팁 제도

봉사료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보통 현지화로 약간의 정성을 표시하면 된다. 식당의 경우 음식 값의 7~10% 선이 적당하다.

(6)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지하철, 버스, 전차, 전동버스 4종류가 있으며 교통비는 한국에 비해 아주 저렴(1회 승차요금 : 약 350원)한 편이다. 택시 승차는 시내요금 약 $5, 시내에서 국제공항까지 $30 정도이다.

8 현지 연락처

(1) 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관

- 주소 : 12, Striletska 01001, Kyiv, Ubraine
- 전화 : (+380-44) 246-3759~61
- FAX : (+380-44) 246-3757

(2) KOTRA

- 주소 : 4th Fl. 19a, Khreschatik st., 01001, Kyiv
- 전화 : (+380-44) 495-2978~9
- FAX : (+380-44) 495-2950

(3) 한국교육원

- 주소 : 8, Khreschatik st., 01001, Kyiv
- 전화 : (+380-44) 300-1078

(4) 우크라이나內 긴급 연락처

- 화재 101 / 경찰 102 / 구급차 103
- 보리스 병원 : (+380-44) 238-0000
- 아메리칸 메디컬 센터 : (+380-44) 490-7600.

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23. 이탈리아

1 개황

- **수 도 :** 로마(인구 약 287만 명, 2016년)
- **인 구 :** 약 6,066만 명(세계 23위)
- **면 적 :** 301,336㎢(한반도의 1.3배)
- **민족구성 :** 이탈리아인(북부 프랑스계, 오스트리아계, 슬라브계/남부 알바니아계, 그리스계 등)
- **종 교 :** 가톨릭(87.8%) 등
- **시 차 :** 우리나라 -8[섬머타임기간(3월~10월) -7]
- **언 어 :** 이탈리아어
- **1인당 GDP('17년) :** 31,952 미달러
-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17년) :** 총 94억 5,400만불 (수출 37억 5,800만불, 수입 56억 9,600만불)

2 문화적 특성

이탈리아는 유럽남부에 위치한 장화 모양의 반도국으로 뛰어난 자연 경관과 수많은 건축유산들로 이전부터 아름다운 나라(Bel Paese)라 불려왔다. 이탈리아

인들은 인위적인 것을 싫어하며, 자연미와 실용성을 중시하고 세계 최고의 예술성과 장인정신, 염색기술,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는 이탈리아가 패션, 예술, 디자인, 정밀산업, 관광, 음식 등의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누리는 바탕이 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서방선진 G7의 일원으로서 상당한 경제력과 외교력을 갖고 있으며, 국가브랜드 지수는(2017년) 세계 7위로 문화·국민 친근감 분야 세계 3위, 관광분야 세계 1위에 오를 정도로 역사·문화적 전통과 자연환경, 관광자원을 자랑하는 국가이다. 또한, 슬로우푸드 운동의 발상지답게 여가와 전통 음식문화를 통해 삶의 여유를 즐기고, 대화를 중시하고 개방적이며 박애정신이 강한 민족성을 지니고 있다.

(1) 서구문명의 원류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르네상스를 통해 단테, 복카치오, 레오나르도다빈치, 미켈란젤로 등을 배출, 18세기까지 서양문명의 주류를 형성했다. 오늘날에도 문학, 철학, 건축, 미술, 조각, 음악, 패션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세계문화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현대 이탈리아 문화의 구조적 특성은 분권적 다원주의로 로마,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 나폴리 등이 각기 문화적 분권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정치, 경제, 사회도 공통된 역사의 소산이다.

이탈리아 문화는 자유스러운 표현방식으로 진보적 색채가 강하나 한편으로는 가톨릭 종주국으로서의 강한 보수성도 내재되어 있다. 1939년 문화재보존관리법 제정, 1974년 이를 관장하는 문화환경부 설치, 1998년 1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재관리, 문화예술·관광을 총괄하는 문화유산관광부를 설치하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2018년 7월 정부 조직개편에 의해 농림식품관광정책부로 넘어간 관광을 제외하고 문화재관리,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문화유산활동부 설치.

(2) 유네스코 문화유산

이탈리아는 예술의 본고장, 세계문화의 수도, 열린 박물관 등 역사와 문화가 전국 곳곳에 남아 있어 말 그대로 '전 국토가 문화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54개가 등재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문화유산의 5%를 차

지하는 방대한 양으로 단연 세계 1위이다.

전 세계에서 드물게 국가의 문화유산 보호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베네치아, 피렌체, 페라라, 아씨시, 티볼리의 빌라 데스테, 시에나 같은 곳은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2년에는 시칠리아섬 남동쪽에 소재하는 후기 바로크 시대의 도시, 2013년 에트나 화산, 2014년 피에몬테주 랑게-로에로와 몬페라토 와인산지, 2015 팔레르모시 아랍-노르만 문화유산 체팔루 대성당과 몬레알레 대성당, 2018년 토리노시 이브레아 산업지구 등이 등재되었다.

(3) 스포츠와 축구

이탈리아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 스키, 수영, 테니스, 배구, 농구, 사이클, 자동차경주 등이며, 축구는 단연 최고의 스포츠이다. 축구는 이탈리아인들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지역적 충성심의 표출을 넘어 국민적 열정으로까지 승화된다. 빗장 수비로 유명한 이탈리아는 2006년 독일 월드컵을 포함, 통산 4번의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전통의 축구 강국이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리그는 수준별로 1부(세리에 A), 2부(세리에 B), 3·4부(세리에 C1·C2)로 구성되며, 세리에 A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 독일의 분데스리가와 함께 세계 4대 리그 중의 하나이다. 이탈리아 축구 클럽은 약 7만 개, 등록 선수는 110만여 명에 이르며, 클럽 간 평준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름에는 수영·요트 등 수상 스포츠와 사이클이 인기 있으며 겨울철에는 알프스 주변 유럽 최고의 리조트에서 즐기는 스키가 국민 스포츠로 인기 있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이탈리아에서 한국의 이름이 각인되기 시작한 해는 2002년이었다. 이탈리아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인 축구, 그것도 월드컵에서 한국이 이탈리아를 격파하면서 한국이 이탈리아인의 뇌리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한국의 활약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고 한류의 태동은 한국영화로 부터였다. 2002년 이창동 감독의 베니스영화제 특별감독상, 2004년 김기덕 감독의 베니스영화제 감독상 수상과 2002년에 시작된 피렌체한국영화제 등을 통해 한국영화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이후 우디네극동영화제, 로마영화제 등을 통해 한국영화가 꾸준히 알려지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2012년에는 최초로 한국애니메이션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이 이탈리아에서 극장 개봉하기도 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문학작품으로 이어져 다수의 한국작품이 이탈리아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2005년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외 4편, 2006년 황석영 '손님들'을 필두로 2016년 한강의 '채식주의자'까지 총 30여 편의 한국문학작품이 이탈리아어로 번역 소개되었다. 2009년에는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돼 문학에서 한류를 형성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로마, 나폴리대학,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 한국학과 학생들과 일본 애니메이션, J-Pop 등을 통해 아시아문화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던 젊은이들이 YouTube, Facebook 등을 통해 K-Pop. K-Drama 등을 접하면서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이탈리아 내 한류인구는 약 1만 명 정도로 파악되며, 10대보다는 20대 초반 여성들을 중심으로 K-Pop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한국어, K-뷰티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며, 2015년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의 성공적 운영을 바탕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한류를 소비하는 연령층이 폭넓어지고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분야별 현황

1 드라마

2013년 이탈리아의 지상파 TV채널 'SUPER'에서 KBS-TV 드라마 〈드림하이〉를 최초 방영했다. 2013년 9월 1일 첫 방영 이후 1회분 65분의 원래 길이를 30분 에피소드로 분할해 방영했으며 드라마 시리즈 공식 YouTube 채널에서도 매주 3개의 에피소드로 소개했다. 이탈리아 TV채널 'SUPER'에서는 2015년 6월 15일부터 〈드림하이〉를 재방송하였다. 2016년에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판권이 이탈리아에도 판매되었다.

2 영화

영화는 이탈리아 내에 한국을 소개한 한류의 시초로서 베니스영화제에서 2002년 이창동 감독, 2004년 김기덕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현재 주요서점에 김기덕 영화 DVD 섹션이 별도로 있을 정도이다. 또한 2002년에 피렌체한국영화제가 출범하여 매년 한국영화 20~30편을 소개하고 있으며 2012년 제10회 피렌체한국영화제에는 송강호 특별전 및 전주영화제와 함께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도 열렸다. 2012년에는 최초로 한국애니메이션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이 이탈리아 70여 개 극장에 개봉하기도 했다.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뒤 현지에서 한국영화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증대되었으며, 2012년 8월 로마에서 베니스영화제 특별전을, 2012년 10월 볼로냐 영화재단에서 한국영화특별전을 개최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13년 제11회 피렌체 한국영화제에서는 50여 편의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한편, 배우 전도연 및 홍상수, 추창민 등 감독들을 초청해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14년은 한-이탈리아 수교 130주년을 맞아 피렌체 한국영화제에서 다양한 수교기념행사가 열렸으며, 2015년 제13회 피렌체 한국영화제에는 약 52편의 한국영화가 상영되고 배우 안성기가 관객과의 만남을 가졌다, 2016년 제14회 피렌체 영화제에서는 '류승완 감독 회고전' 등이 마련되었으며, 로마 아시아티카 영화제에서는 이재용 감독의 〈죽여주는 여자〉가 작품상을 수상했다. 2017년 제15회 피렌체한국영화제에서는 43편의 한국영화가 상영되고 '박찬욱' 감독의 특별전이 마련되었고 감독 박찬욱은 관객과의 만남을 가졌다. 그 외에도 김지운, 김성훈, 이재용, 이계벽 감독들을 초청해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18년 제16회 피렌체한국영화제에서는 51편의 한국영화가 상영되었으며, 배우 '하정우' 회고전이 있었고 배우 하정우은 피렌체 시민과 영화학도들을 상대로 마스터클래스를 열었다. 그 외에도 황동혁, 김용화, 정병길 감독 등이 초청되었다.

3 K-Pop

나폴리 동양학대학, 로마 사피엔차대학, 베네치아 카포스카리대학 동양학부 등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K-Pop이 알려지기 시작했

다. 로마대학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동호회 '소녀시대'를 구성, 일반대중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공연을 하고 있으며, SNS를 통해 밀라노, 나폴리, 베네치아 등지의 학생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런 K-Pop의 인기를 바탕으로 2012년 5월에는 이탈리아 MTV Award에서 Big Bang이 베스트팬 부문 최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수 싸이 열풍은 이탈리아도 예외도 아니어서 밀라노, 사르데냐, 시칠리 등 주요도시에서 '강남스타일' 플래시몹이 연이어 열렸으며, 2012년 11월에는 로마 포폴로광장에서 3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플래시몹이 열려 언론의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온라인잡지 'Top Girl'에도 K-Pop 고정코너가 생기는 등 K-Pop이 한류 인기의 중심이 되었다. K-Pop 스타 BTS, EXO, Big Bang, SHINee, 몬스터엑스, GOT 7, 트와이스, 블랙핑크 등의 인기가 높다.

2015년 6월에는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K-Pop 월드 페스티벌 이탈리아 지역예선이 밀라노 산 페델레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되었으며, 2016년 6월 25일에는 밀라노 시내의 Teatro Elfo Puccini에서 제2회 K-Pop World Festival 이탈리아 지역예선이 약 500여 명의 K-Pop팬과 관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동 지역예선에서 우승한 카르마는 이탈리아 대표로 2016년 9월 30일 창원에서 개최된 2016 K-Pop World Festival 본선에 진출, 보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16년 11월 밀라노에서는 한국 R&B 가수 '크러쉬'가 공연을 가졌고 티켓 판매 오픈 직후 전석 매진을 이루어낼 정도의 관심을 받았다. 2017년 4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힙합 아티스트 '키스 에이프'(Keith Ape)의 공연이 로마와 밀라노에서 열렸고, 5월에는 로마에서 여성 보컬그룹 '바버렛츠' (The Barberettes)의 라이브 공연이 열렸다.

2018년 K-Pop World Festival 이탈리아 지역예선은 6.24(토) 밀라노 시내 중심에 위치한 Teatro Elfo Puccini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11개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이중 댄스팀 M2Br가 Monsta X의 "Dramarama"를 선보여 우승하였다.

4 한식

한식은 아직 이탈리아 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K-Pop 팬들을 중심으로 점차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012년 11월 이탈리아 요리채널 '감베로로쏘'는 한식관련 특별프로그램 4부작을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2013년 9월 배우 이영애

와 이탈리아 명품브랜드 구찌의 공동프로젝트로 피렌체 구찌박물관에서 한식 만찬을 공동 주최하여 주요 인사들에게 한식문화를 소개했으며, 만찬 준비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SBS 스페셜 설날특집 2부작 '이영애의 만찬'이 2014년 2월에 한국에서 방영되었다.

2015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의 '한식, 미래를 향한 제안: 음식이 곧 생명이다' 행사의 주제전시와 한국관의 한식당이 선보인 6가지 특별 메뉴가 큰 호응을 얻었다.

2016년 7월 3일에는 밀라노 시내 요리학교(L'Arte del Convivio)에서 최초로 이탈리아인을 대상으로 한식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미슐랭 스타쉐프를 비롯한 수준 높은 전문가들도 참여했는데, 이탈리아인들의 한식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탈리아인 대상 한식요리 콘테스트는 매년 개최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2018년 7월 14일 밀라노에서 제3회 한식 요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2017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2017 밀라노 세계 식품박람회(TuttoFood)에 한국관이 설치되어 한국 식품과 문화를 연계해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되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의 일환으로 강원도 전통음식이 소개 되었고, 현지 유명 요리사의 한국음식 쿠킹쇼와 현장 시식 행사 그리고 서예가의 한글이름 써주기 행사 등이 열려 다양한 홍보 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현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문화원에서는 68회에 걸친 한식강좌가 개최되었고, 10월 한국주간 행사기간 동안 한-이 유명셰프가 참가하는 한국쿠킹쇼, 11월 주요 블로거 초청 한식 특강, 12월 페루자에 위치한 사포리요리학교 수강생 대상 요리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한국문화원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총 3학기에 걸쳐 11개 반의 한식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총 94명의 학생이 수강하였다. 또한 국립로마호텔조리고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8주간의 한식특강을 진행하고 한식경연대회를 펼쳤다. 9월 17일~20일은 전통주 홍보를 위한 특강주간을 마련하여 총 50명의 현지인을 대상으로 막걸리 빚기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2018년 5월 밀라노 한국주간의 일환으로 밀라노 명품거리 몬테나폴레오네의 한 식당에서는 한식 쿠킹쇼가 열렸으며 밀라노 음식 담당 기자단 등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이 행사에는 이탈리아 최고의 스타요리사로 꼽히는 까를로 끄라꼬가 참석하였다. 그밖에도 푸드트럭을 동원해 밀라노 중심가에서 한식 시식행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9월 21일~24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슬로푸드 박람회인 '2018 살로네 델 구스토 - 테라마드레'에서는 장류, 김치, 식혜 등 발효식품을 소개하는 자리와 정관 스님이 함께 하는 '발우공양' 시연 및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다.

한국주간을 계기로 마련된 우리 한식과 한식 식자재 소개, 양국 음식문화 교류를 위한 쿠킹쇼가 11월 28,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주재국 주요인사들과 요리전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미슐랭 스타 셰프인 한국의 권우중 총괄 요리사, 이탈리아 디 자친토 리까르도 요리사가 송로버섯을 곁들인 콩국수, 감귤 티라미수 등 6가지 퓨전코스요리를 선보였다. 각 요리에 맞추어 전통주와 포도주가 제공되었으며 이외 전통주갤러리에서 한국 전통주와 이탈리아 대표주로 만들어낸 칵테일을 환영드링크로 제공하였다

5 한국어

영화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은 문학작품으로 이어져 다수의 한국작품이 이탈리아로 번역 출간되었다. 2005년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을 비롯한 4편, 2006년 황석영 '손님들'을 포함한 4편, 2007년 3편이 출판되었다. 중견작가 신경숙의 작품은 '엄마를 부탁해(2011년)'와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2014년)'가 인기를 끌었으며, 김영하의 소설 '빛의 제국(2013년)',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2014년)'도 출간되었다. 2016년 9월 한강의 '채식주의자', 2017년 '소년이 온다'까지 지금까지 총 30여 편의 한국문학이 이탈리아어로 번역 소개되었다.

나폴리 동양학대학, 로마 사피엔차대학, 베네치아 카포스카리대학 동양학부에는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약 6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한국어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11년부터 베네치아와 로마에서 매년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말에는 베네치아 카포스카리대학에 최초로 세종학당이 설치되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로마 소재 한국문화원 내에 세종학당이 신설 운영 중이다.

6 한지

한지는 복원 관련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그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먼저 이탈리아 문화재 복원에 일본의 화지가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2014년부터 이탈리아 및 유럽 문화재 복원 분야에 한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 결과 우리 한지의 우수성이 이탈리아 및 유럽 문화재 복원계에 전파되고 있다.

2014년 10월 15일 한국의 문화재청과 이탈리아 문화유산활동부의 MOU체결 후속조치로 시작된 한지프로젝트(Hanji in Europe)의 일환으로 이탈리아 문화유산 복원재료로서의 가능성 확인을 위해 2015년 한지 인증시험이 실시되었다. 이에 2016년 12월 검증용으로 기증한 '의령 신현세 전통한지(2종)이 문화재 복원재료로서의 적합성을 인증 받게 되었다. 이후 2018년 7월, 총 8종의 한지를 2차 검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10월 16일 8종 중 1종(의령 신현세 전통한지)이 최종 인증을 받았으며 남은 7종은 현재까지 인증시험이 진행 중이다(2019년 7월 내 모든 한지에 대한 인증시험완료 예정). 한지인증시험으로 교류가 활발해져 현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이탈리아 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간의 인적교류프로그램, 즉 연구원교환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복원과 관련하여 현재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에서 2016년부터 한지를 이용하여 성 프란체스코의 카르툴라 기도문을 포함한 총 7종의 문화재를 복원하였으며 바티칸 박물관은 로마 카타콤베 벽화 복제화 등 총 6점의 문화재를 복원하였다. 2017년 4월 28일 이탈리아 베르가모 인근 소도시 Sotto Il Monte Giovanni XXIII시에서는 는 사설복원가 넬라 포지가 교황 요한 23세 지구본 복원 결과 발표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한지로 복원된 교황 23세 지구본은 교황 요한 23세 박물관에 소장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다.

또한 한지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 2016년 6월 문화재 복원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지워크숍에 큰 인상을 받은 국립로마미술대학의 종이연구소장 라우라 살비교수와 한국문화원의 아이디어로 다음해 한지의 제작과정에서 영감을 받은 국립로마미술대학의 그래픽과의 교수 3명과, 8명의 재학생들, 8명의 미술가가 '한지 세계로의 여정' 공동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전시는 한국문화원의 주재도시인 로마를 시작으로 6월 나폴리 한국주간을 맞아 역사 깊은 카스텔 누오보 성에서 2차 전시, 그리고 10월 밀라노총영사관에서 3차 전시회를 가졌다. 이후 2018년 6월 그래픽과의 교수 1명과 석사 졸업 예정생 5명 "한지, 종이 위의 예술" 2차 공동협력전시가 개최되었다.

2018년 11월 16일에는 기존 순수미술과 복원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었던 주재국 내 한지 응용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국립로마산업미술대학교(ISIA)에 한국에서 한지디자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한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소개 및 한지와 알루미늄, 석고를 섞어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 보고, 의상에 쓰일 수 있는 줌치를 만드는 등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 날 워크숍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총 120명이 참가했으며 마시밀리아노 다티 학장과 한지프로젝트 담당교수 루이지 쿠포네가 당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7 K-beauty

독일, 프랑스, 영국과 함께 유럽 4대 화장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탈리아에 최근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의 피부 관리와 피부결 표현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한 관심은 2016년 대비 260%의 급증을 보인 이탈리아의 한국 화장품 수입 수치로 증명된다.

2017년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세계적인 코스메틱 박람회인 볼로냐 국제미용박람회(Cosmoprof)에는 총 163개의 한국업체가 참가하였으며 한국관에는 61개의 업체가 참가하여 1,600건에 달하는 바이어 상담을 가졌다. 한국 화장품이 이탈리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주된 이유로는 합리적인 가격에 혁신적이고 우수한 기능,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패키징이 꼽혔다.

한편, 글로벌 화장품 유통사 세포라 이탈리아 매장은 한국 브랜드 입점과 함께 Korean Beauty를 키워드로 내건 온·오프라인 한국화장품 섹션 별도 설치 등으로 한국 화장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K-beauty 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현지인이 운영하는 한국화장품 판매 온라인 숍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특히 마스크팩, BB크림, 쿠션 등이 큰 인기를 끄는 가운데 관심이 점차 전 제품으로 확장되고 있다.

3월 15일 ~18일까지 진행된 업계 세계 최대규모의 볼로냐 국제미용박람회에서는 한국문화원과 협업하여 박성희 메이크업아티스트를 초청, 한국식 피부관리와 화장법을 보여주는 메이크업쇼를 진행하였으며 같은 주제의 행사를 로마에 위치한 한국문화원에서도 진행하였다.

8 태권도

이탈리아 공립학교 내의 체육교육은 주로 실내 체육관에서 이루어지며, 특별한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배구 또는 체조 종목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관습을 따르는 학교 분위기에 맞춰서 체육 시간에도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공립학교들은 재정지원이 부족하여 매트와 미트, 도복, 헬멧 등의 도구를 요하는 태권도 교육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학교들은 주로 동 스포츠에 대한 애정을 가진 체육 선생님들의 강력한 추천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태권도는 독립적인 도장을 운영하기보다 다른 종목을 가르치는 도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립성이 부족하며, 각종 도구가 없어 교육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별로 태권도협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동 협회들이 태권도 교육 외에도 한국 관련 행사 진행시 퍼포먼스 지원 등을 통해서 태권도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탈리아 태권도 국가대표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첫 출전에 이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자 -80kg급에서 첫 은메달을 획득에 성공했다. 그 이후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남자 +80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이탈리아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탈리아 내 태권도 보급 확대와 홍보를 위해 이탈리아 공립학교 및 도장 태권도 용품을 기증하고 있다. 2014년 팔레르모, 롬바르디아 지방 공립학교와 기관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겸임국 몰타 그리고 2016년에는 피렌체 인근 공립학교와 겸임국 산마리노에 태권도 용품을 기증했다.

아울러, 2014년부터 북부 이탈리아지역 태권도 발전을 위해 주밀라노총영사배 태권도 대회를 지속 개최해 오고 있으며, 2018년 5월 5일에는 프리울리-베네치아 줄리아(Friuli-Venezia Giulia)주 우디네시 중심광장에서 “태권도와 함께하는 한국의 날”을 개최하여 태권도 시범 등을 선보였으며, 이를 통해 태권도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8년5월29일 밀라노 셈피오네 공원에 위치한 부리 극장과 5월 30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이 공연을 선보여 현지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18년 6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2018 세계태권도연맹 월드 태권도 그랑프리’가 개최되었다.

9 최근 주요 행사

2016년 10월 26일 수도 로마에 한국문화원이 설립되었다. 2017년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은 피렌체, 나폴리, 로마 등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 한국주간행사 ‘Korea Week’를 개최하여 각종 전시, 공연, 한식리셉션, 한복체험, 한지체

험, 영화상영 등을 통해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였다. 주요 도시 외에도 피에트라산타, 파도바 등의 이탈리아 소도시에서도 '한국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2018년 주밀라노총영사관은 토리노, 베네치아, 카스틸리오네 올로나, 안도라 등 북부 이탈리아 도시에서 한국주간행사 "Cultura Coreana in Movimento"를 개최하였으며, 각종 전시, 공연, 한식리셉션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10월31일 밀라노 시내에 위치한 유서깊은 장소인 Istituto dei Ciechi에서 '2018 밀라노 한국의 밤'이 개최되어 한지공예품 전시 및 거문고, 대금, 해금 등 전통악기공연을 선보였으며 이탈리아 스타 쉐프와 협업, 한국 발효식품인 장류를 활용한 한식을 선보여 한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018년 한국문화원은 밀라노와 로마에서 한국주간행사 'Korea Week'를 개최하였다. 밀라노 한국주간 (2018.05.28.~06.01.)동안 각종 전시, 태권도 시범, 드로잉쇼, 전통공연, 한복패션쇼, 한식 쿠킹쇼, 한국영화상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한식, 공예체험, K-Beauty 부스를 설치 운영하여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도 소개하였다.

로마 한국주간(2018.11.26.~11.30.) 동안 외교포럼, 각종 전시, 전통공연, 재즈공연, 한식쿠킹쇼, 등을 통해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였다. 주요 도시 외에도 이탈리아 소도시 포쟈에서도 '한국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문화원은 외부행사 외에도 문화원 내 전시, 공연, 영화상영 진행하고 있고 한국어, 한식, 한국전통무용, 태권도 강좌 등을 통해 이탈리아인들에게 더 직접적인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이탈리아는 서구문명의 요람이라고 불릴 만큼 자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외국문화를 수용하는데 보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유사한 유럽 국가들의 문화보다 이국적인 동양문화에 대한 관심 또한 적지 않다. 기존 중국과 일본문화는 비교적 많이 알려진데 비해 한국문화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 새로운 느낌과 멋을 전해주어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즐기고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김기덕 감독과 같은 색다른 시각의 영화, 한국 젊은 세대의 역동적인 문화와 K-Pop은 할리우드와 다른 신선한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인터넷에 능숙하고 호기심 많은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계기가 되었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이탈리아는 EU국가 중 우리의 다섯 번째 교역국가로서 양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향후 교역규모가 증가할 여지가 크다. 특히 이탈리아는 지중해 연안의 반도국가로서 지중해 시장의 진출거점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지만 시장구조의 복잡성과 언어장벽 등이 장애요인이다.

경제적 교역과 더불어 문화교류도 증대될 여지가 많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자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이다. 영어가 통용되지 않고 양국 언어에 능통한 인력이 풍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외국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자막보다 대부분 더빙 판을 상영한다. 2013년 드라마 〈드림하이〉가 더빙된 이후 새로운 한국드라마가 방영되지 않고 있으나 이는 경쟁력의 문제보다 한국드라마를 즐기는 젊은 층이 더빙을 선호하지 않고 양국 언어의 차이로 더빙이 맞지 않는 측면도 존재한다. 향후 한국드라마가 자막으로 방영되면 훨씬 더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남북 간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 도시국가의 전통으로 인한 지역별 독특한 문화로 인해 일반적인 접근보다는 지역별, 대상별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각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들이 연중 열리고 있으며 오페라의 본고장답게 지역 유명극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축제가 발달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문화교류 전략도 유용하다. 한편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대한 재정지원이 축소되고 있어 이를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문화예술관련 한국유학생이 2천여 명 있는 점은 문화교류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국립음악원과 국립미술대학을 중심으로 음악관련 유학생과 미술관련 유학생이 다수 있어 현지 유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협력 프로그램이 유용할 것이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이탈리아 내 한류 관련 동호회는 K-Pop 팬클럽이 대부분이며, 주로 한류스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다. 회원들의 연령대는 주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여성들로 파악되지만 이탈리아 내 K-Pop 및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팬들의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있다. K-Pop을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한국음식, 한국어, K-뷰티, 영화 및 드라마 등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 동호회별 현황

1 K-Pop Italia

성격	한류문화 및 활동소개
회원 수	15,372명(Facebook 페이지 팔로워)
웹사이트	www.facebook.com/KpopItalia www.youtube.com/KpopItalia twitter.com/kpopitalia
세부활동 현황	• (온라인) 한류문화 및 활동 소개, 트위터, Facebook, YouTube을 통한 팬클럽 결성 • (오프라인) K-Pop 가수 초청 콘서트 개최

2 Kaido Italia / KPOP Contest Italia

성격	K-Pop 소개 및 K-Pop Contest 개최
회원 수	5,382명(Kaido Italia Facebook 페이지 팔로워) 4,213명(KPOP Contest Italia Facebook 페이지 팔로워)
웹사이트	www.facebook.com/kaido.italia www.instagram.com/kaido_italia/ twitter.com/kaido_italia www.facebook.com/kpopcontestitalia
세부활동 현황	• (온라인) K-Pop 가수 및 활동 소개 • (오프라인) K-Pop Contest 개최, K-Pop 관련 상품 유통

3 Norimakers

성격	한류 및 한국문화 전반 소개
회원 수	974명(Facebook 페이지 팔로워)
웹사이트	www.facebook.com/norimakers www.norimakers.com/home/ twitter.com/norimakers
세부활동 현황	• (온라인) K-Pop, 한식, 한국어, K-뷰티 소개 • (오프라인) 한국어강좌, 한식쿠킹클래스, K-Beauty 클래스 및 메이크업 콘테스트, K-Pop 콘테스트 개최

4 Mugunghwa Dream

성격	한국 영화, 문화 소개
회원 수	1,256명(Facebook 페이지 팔로워)
웹사이트	http://www.mugunghwadream.com/ www.facebook.com/MugunghwaDream/ www.youtube.com/user/MugunghwaDreamVideo www.instagram.com/mugunghwadream/
세부활동 현황	• (온라인) 한국영화, K-Pop 정보 소개

5 Persi in Corea

성격	한국 문화, 여행, 유학 정보 소개
회원 수	12,627명(Facebook 페이지 팔로워) 24,756명(Youtube 페이지 팔로워)
웹사이트	www.persiincorea.com www.facebook.com/PersiinCorea/ twitter.com/persiincorea www.youtube.com/persiincorea
세부활동 현황	• (온라인) 한국문화전반, 한국관광, 한국유학 및 노동 정보 소개

6 Kimchi & Basilico

성격	한식 소개
회원 수	1,545명(Kimchi & Basilico Facebook 페이지 팔로워)
웹사이트	www.kimchiebasilico.it www.facebook.com/KimchiandBasil/ twitter.com/kimchiandbasil www.instagram.com/kimchiebasilico/
세부활동 현황	• (온라인) Twitter, Facebook, YouTube를 통해 한국음식 및 이탈리아 내 한국문화 행사 소개

7 Ciao Kpop

성격	한류문화 및 활동 소개
회원 수	4,758명(Facebook 페이지 팔로워)
웹사이트	www.ciaokpop.com www.facebook.com/ciaokpop/ www.instagram.com/ciaokpop/
세부활동 현황	• (온라인) Facebook을 통해 K-Pop, 한국 드라마, 한국영화, 한국방송 등을 소개

8 Italy Loves K-Pop

성격	한류문화 및 활동 소개
회원 수	10,886명(Facebook 페이지 팔로워)
웹사이트	www.facebook.com/ItalyLovesKPop/
세부활동 현황	• (온라인) Facebook을 통해 K-Pop, 한국 드라마, 한국영화, 한국방송 등을 소개

6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민준홍 개인전

- 일시 및 장소 : 2016.1.28.(목)~2.21.(일), 밀라노, 주밀라노총영사관 청사 갤러리
- 내용 : 한국화가 민준홍 작품전

2 Golden Lotus 전시회

- 일시 및 장소 : 2016.1.29.(금)~3.28.(월), 로마 성실베스트로 광장 야외전시
- 내용 : 설치작가 최정화 작품 '골든 로투스' 로마 최중심지광장 내 야외전시

3 제14회 피렌체한국영화제

- 일시 및 장소 : 2016.3.10.(목)~3.18.(금), 피렌체 Odeon 극장
- 내용 : 한국영화 52편 상영, 감독 '류승완 회고전' 등 감독과의 만남 등 개최

4 2016 밀라노 트리엔날레 국제전람회 'Making is thinking is making'

- 일시 및 장소 : 2016.4.2.(토)~9.12.(월), 밀라노 트리엔날레 전시관
- 내용 : 세계 최고의 디자인 경연장 '밀라노 디자인위크' 기간에 전통공예 전시

5 밀라노 디자인 위크 계기 계원창작상단 디자인 작품 및 한지공예 전시회

- 일시 및 장소 : 2016.4.12.(화)~4.20.(수)(밀라노 디자인위크), 밀라노, 주밀라노총영사관 청사 갤러리
- 내용 : 계원예술대학교 계원창단상단의 디자인 작품 및 한지 공예품 전시

6 닥나무에서 피어난 꿈 한지공예 작품 전시회

- 일시 및 장소 : 2016.5.5.(목)~5.23.(월), 밀라노, 주밀라노총영사관 청사 갤러리
- 내용 : 김마리 작가의 한지 공예 작품 전시

7 재이한인청년음악인연합 제1회 정기연주회

- 일시 및 장소 : 2016.5.16.(월), 로마 군인회관 뮤직홀

■ 내용 : 재인청년음악인연합 창단기념 정기연주회

8 2016 K-Pop World Festival 이탈리아 지역예선

■ 일시 및 장소 : 2016.6.25.(토), 밀라노 Teatro Elfo Puccini
■ 내용 : 이탈리아인들의 K-Pop경연대회

9 한국문화원 개원기념 KBS 교향악단 축하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6.9.13.(화), 로마 오디토리움 산타체칠리아홀
■ 내용 : KBS 교향악단의 문화원 개원기념 축하공연

10 한국전통공예작가 단체전

■ 일시 및 장소 : 2016.9.22.(목)~10.12.(수), 밀라노, 주밀라노총영사관 청사 갤러리
■ 내용 : 홍광희, 이지혜, 박신영, 한미경, 홍지연 등 한국 작가의 공예품 전시

11 베네치아 카포스카리대학 'Two Korea Days'

■ 일시 및 장소 : 2016.10.5.(수)~10.6.(목), 베네치아대학 일원
■ 내용 : 한식리셉션, 전통음악 및 무용 공연, 대사특강, 도전! 골든벨, 농수산식품 홍보 등

12 한이청년오케스트라 문화원 개원기념 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6.10.16.(일)~11.6.(일), (8회 공연), 로마 Teatro Italia 및 로마3대학 강당
■ 내용 : 한이문화교류 및 문화원 개원기념 양국 청년음악인의 오케스트라 공연

13 2016 밀라노 한국의 밤

■ 일시 및 장소 : 2016.10.24.(월), 18:00~22:30
■ 내용 : 한국 예술작품 전시, 한-이탈리아 성악가들의 합동 공연, K-Pop공연, 한식 리셉션, 기아자동차, 대한항공 등 우리기업 홍보 부스 설치 등 종합적 한국 홍보행사

14 2016 총영사배 태권도 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6.11.13.(일), Gallarate시, Palagadda체육관
- 내용 : 북부이탈리아 지역 태권도 협회 소속 10세~18세 태권도 선수들의 연령별 태권도 대회

15 한광우 개인전

- 일시 및 장소 : 2016.10.20.(목)~11.9.(수), 밀라노, 주밀라노총영사관 청사 갤러리
- 내용 : 한광우 작가의 조각작품 전시

16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 개원식

- 일시 및 장소 : 2016.10.26.(수),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개원기념 공연 : 사인놀이, B-boy, 비트박스 등
- 개원기념 전시 : 박은선 초대전, 밀라노 공예트리엔날레 작품전

17 한지 의상전

- 일시 및 장소 : 2016.11.10.(목)~11.30.(수), 밀라노, 주밀라노총영사관 청사 갤러리
- 내용 : 이경진 작가의 한지 작품 및 사진전

18 설날 체험행사

- 일시 및 장소 : 2016.01.26.(목),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 설날 예절 배우기, 한복체험, 설날 전통놀이 체험, 설날 전통음식 시식

19 한국 전통 규방 공예 "만남과 수다" 전시회

- 일시 및 장소 : 2016.02.09.(금).~03.01.(수), 밀라노, 주밀라노총영사관 갤러리
- 주최 및 주관 : 주밀라노총영사관
- 내용 : 최미경 작가의 규방 공예품(예단보, 조각보 등) 전시

20 서공임 민화전

- 일시 및 장소 : 2016.2.15.(수)~3.8.(수).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전시관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한국화가 서공임 작품전

21 뷰티풀 마인드 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7.2.22.(수), 로마, 빌라 글로리 에이즈 환자 요양시설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 '뷰티풀 마인드' 문화외교 자선단체 음악 공연

22 재 이탈리아한인음악인협회 콘서트

- 일시 및 장소 : 2017.3.3.(금),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재 이탈리아음악인협회
- 내용 : 재 이탈리아음악인협회 창단기념 정기연주회

23 재 이탈리아 한국미술가 협회(ARCOI) 전시회

- 일시 및 장소 : 2017.03.23.(목)~04.12.(수),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재 이탈리아한국미술가협회(ARCOI)
- 내용 : 이탈리아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작가 조각, 서양화, 한국화, 사진 직물 공예, 디자인, 설치미술 작품 전시

24 제15회 피렌체한국영화제

- 일시 및 장소 : 2017.03.23.(목)~03.31.(금), 피렌체, 라 콤파니아 영화관
- 주최 및 주관 : 태극기토스카나한국협회,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 한국영화 43편 상영, 감독 '박찬욱 특별전' 등 감독과의 만남 개최

25 피렌체 한국주간

- 일시 및 장소 : 2017.03.23.(목)~03.31.(금), 피렌체, 토스카나주의회 전시실, 라 콤파니아 영화관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 민화 전시, 한지 공예품 만들기 체험, 한복체험, 한국전통무용 공연, 태권도 시범

26 아름다운 한국무용 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7.03.29.(수)~04.04.(화),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피렌체 베르디 극장,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 파도바 피콜로 극장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 한국 전통 음악 및 무용 공연

27 한국사진 작가 오승환 개인전

- 일시 및 장소 : 2017.03.29.(수)~4.12.(수), 밀라노, 주밀라노총영사관 갤러리
- 주최 및 주관 : 주밀라노총영사관
- 내용 : 오승환 작가의 사진전시

28 한-이 협업 프로젝트 "Two Ethos" 전시

- 일시 및 장소 : 2017.04.13.(목)~4.21.(금), 밀라노, 주밀라노총영사관 갤러리
- 주최 및 주관 : 주밀라노총영사관, 유럽디자인학교(IED)
- 내용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한국 전통 재료를 제공, 이탈리아 디자인 전문교육기관인 유럽디자인학교(IED)의 교수와 학생들이 디자인하고 제작한 작품(가방, 의상 등) 전시

29 태권도와 함께하는 한국의 날

- 일시 및 장소 : 2017.05.06.(토), 우디네, La Loggia del Linello
- 주최 및 주관 : 주밀라노총영사관
- 내용 : 태권도 시범, 한복전시, 한지 공예품 전시, K-Pop 공연, 한인 성악가의 우리가곡 공연, 한식 시식 등 우디네시에서 최초로 개최된 종합 한국 소개 행사

30 한국 전통 혼례강연 및 한국 전통 의상 전시회

- 일시 및 장소 : 2017.05.09.(화), 밀라노 대학교, 외국어 및 국제문화과학과 대강당
- 주최 및 주관 : 주밀라노총영사관, 밀라노 대학교
- 내용 : 태권도 시범, 한복전시, 한지 공예품 전시, K-Pop 공연, 한인 성악가의 우리가곡 공연, 한식 시식 등 우디네시에서 최초로 개최된 종합적 한국 소개 행사

31 2017 밀라노 세계 식품박람회 공동 참여

- 일시 및 장소 : 2017.05.09.(화)~05.11.(목), 밀라노, Fiera di Milano
- 주최 및 주관 : 주밀라노총영사관, 밀라노 세계 식품박람회
- 내용 : 한-이 셰프들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탄생한 한식 요리 시식, 서예로 한글이름 써주기 등 한식과 한국문화

32 한국 전통 의복 강연 및 전시회

- 일시 및 장소 : 2017.05.11.(목),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 강당
- 주최 및 주관 : 주밀라노총영사관
- 내용 : 카포스카리 대학교 학생 대상 한국 전통 의복 강연 및 전시

33 한-이 협력 프로젝트 '한지 세계로의 여정' 전시회

- 일시 및 장소 : 2017.05.17.(수)~6.23.(금), 로마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 국립로마미술대학 교수 및 재학생·졸업 전업작가들의 한지 작품 전시회

34 한국주간행사 「Cultura Coreana in Movimento」(카스틸리오네 올로나)

- 일시 및 장소 : 2017.05.20.(토), 카스틸리오나 올로나시, Palazzo Branda Castilioni
- 주최 및 주관 : 주밀라노총영사관
- 내용 : 가야금, 대금 합동 공연, 한인 성악가들의 퓨전 사물놀이 및 우리 민요 공연, 김밥 만들기 체험행사, 김인옥 작가의 민화전, 신상원 작가의 현대수묵화전으로 구성된 카스틸리오네 올로나시에서 최초로 개최된 종합적 한국 주간 행사

35 바버렛츠 '라이브 인 롬' K-Rock 콘서트

- 일시 및 장소 : 2017.05.24.(수), 로마, 퀴리네타 극장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 한국 K-Rock 그룹 바버렛츠 공연

36 한국주간행사 「Cultura Coreana in Movimento」(볼로냐)

- 일시 및 장소 : 2017.05.25.(목)~5.27.(토), 볼로냐, Biblioteca Renzo Renzi 등 볼로냐 일대

- 주최 및 주관 : 주밀라노총영사관
- 내용 : 가야금/첼로 합동 연주, 한식 환영리셉션, 한국영화(민우씨 오는날, 끝까지 간다) 상영, K-Pop공연, 서예 퍼포먼스, 김밥 만들기 체험행사, 한국 남성피아니스트 4인으로 구성된 "앙상블 클라비어" 피아노 공연 등으로 구성된 볼로냐 지역 최초 한국 주간 행사

37 앙상블 클라비어 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7.05.26.(금),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 피아니스트 방기수, 조영훈, 신영주, 이선호 피아노 연주

38 그란 갈라 콘서트

- 일시 및 장소 : 2017.05.31.(수), 로마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 재 이탈리아음악인협회 갈라 콘서트

39 나폴리 한국주간

- 일시 및 장소 : 2017.06.05.(월)~06.08.(목), 나폴리, Maschio Angioino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 한지 전시, 한국영화 상영, 한지 공예품 만들기 체험, 한복체험, 성악 공연, 태권도 시범, 점프 공연

40 한국 전통 민화전 및 현대수묵화전

- 일시 및 장소 : 2017.06.15.(목)~07.03.(월), 밀라노, 주밀라노총영사관 갤러리
- 주최 및 주관 : 주밀라노총영사관
- 내용 : 김인옥 작가의 민화전, 신상원 작가의 현대 수묵화 전시

41 한국 단편영화의 밤

- 일시 및 장소 : 2017.06.16.(금), 로마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 한국 단편영화 4편 상영, 감독과의 만남 개최

42 2017 K-Pop World Festival 이탈리아 지역 예선

- 일시 및 장소 : 2017.06.24.(토), 밀라노, Teatro Elfo Puccini
- 주최 및 주관 : 주밀라노총영사관
- 내용 : 이탈리아 K-Pop그룹(보컬 3개팀, 퍼포먼스 8개팀) K-Pop 경연대회

43 필라르모니카 로마나 여름 음악 축제 개막 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7.06.26.(월), 로마, Filarmonica Romana Auditorium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Accademia Filarmonica Romana
- 내용 : 한식 리셉션, MOKO MUSIK 퓨전 음악 공연

44 한국주간행사 Cultura Coreana in Movimento(베네치아)

- 일시 및 장소 : 2017.07.07.(금), 베네치아
- 주최 및 주관 : 주밀라노총영사관
- 내용 : 포스코-ITPC 이탈리아인 직원 대상 한국 가곡 및 K-Pop 공연으로 구성된 한국 주간 행사

45 한국영화의 밤

- 일시 및 장소 : 2017.07.07.(금), 로마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 영화 '왕이 된 남자, 광해' 상영

46 한국주간행사 Cultura Coreana in Movimento(안도라)

- 일시 및 장소 : 2017.07.07.(금)~7.31.(월), 안도라, Palazzo Tagliaferro
- 주최 및 주관 : 주밀라노총영사관
- 내용 : 안도라시에서 최초로 개최된 한국주간행사로 김인옥·신상원·최방실 3인의 작품 전시 및 한식 리셉션으로 구성

47 앙상블 프로젝트

- 일시 및 장소 : 2017.07.28.(금),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 한-이 퓨전음악 공연

48 신한류축제 - 한지를 느끼다

- 일시 및 장소 : 2017.07.26.(수)~7.27.(목),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로마 포폴로 광장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 한지 공예품 만들기 체험, 한복체험, 한국음식 시식, 국악 공연, K-Pop 댄스 공연

49 한국영화의 밤

- 일시 및 장소 : 2017.08.04.(금),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 영화 "국가대표" 상영

50 피에트라산타 '한국의 날'

- 일시 및 장소 : 2017.08.14.(월), 피에트라산타, 키오스트로 디 산타고스티노, 두오모 광장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 한국 사진전, 한복체험, 서예 시범, 김덕수 사물놀이 공연 등 피에트라산타에서 최초로 개최된 종합적 한국 소개 행사

51 천년의 빛, 나전과 옻칠

- 일시 및 장소: 2017.09.07.(목)-10.11.(금),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한국공예를 대표하는 나전과 옻칠계 최고의 장인 33인 다양한 작품 전시

52 한국의 향기

- 일시 및 장소: 2017.10.3.(화)-10.11.(금), 로마, 아르젠티나 극장/ 모데나, 이탈리아 육군 사관학교/ 산마리노, 크루살 컨벤션 센터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아르젠티나 로마국립극장
- 공연단 : 한국의 향기
- 내용: 한국의 유명한 명인, 명무 급의 예술가들의 전통공연

53 한국영화의 밤

- 일시 및 장소: 2017.10.06.(금)-10.11.(금),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영화 '럭키' 상영

54 로마 한국주간

- 일시 및 장소 : 2017.10.21.(토)-10.27.(금),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 K-Pop(10.21.), K-Economy(10.24.), K-Music(10.25.), K-Fashion & Food(10.26.), K-Beauty(10.27.)

55 한국영화의 밤

- 일시 및 장소: 2017.11.03.(금),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영화 '뷰티 인사이드' 상영

56 재즈 코리아

- 일시 및 장소: 2017.11.13.(월)-11.15.(수),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포쟈, 조르다노 극장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포쟈 재즈 페스티벌
- 공연단: HG Funktronic
- 내용: 포쟈 재즈 페스티벌 한국 재즈그룹 공연

57 이미징 코리아

- 일시 및 장소: 2017.11.23.(월)-12.21.(수),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 7명이 한국의 전통과 문화, 자연, 사람들의 삶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포착한 사진들을 소개하는 전시회

58 2018 평창 평화올림픽

- 일시 및 장소: 2017.11.23.(월)-12.21.(수),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로마 리페타 미술고등학교
- 내용: '평화올림픽'이라는 주제로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과 로마 국립미술고등학교와의 협업사업으로 진행된 공모전시회

59 한국영화의 밤

- 일시 및 장소: 2017.12.1.(금),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영화 '7번 방의 선물' 상영

60 KoreART 콘서트

- 일시 및 장소: 2017.12.13.(수),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공연단: Korean Global Musician
- 내용: Korean Global Musician Group 클래식 음악 콘서트

61 한국영화의 밤

- 일시 및 장소: 2018.02.02.(금),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영화 '국가대표 2' 상영

62 이탈리아 입양인 단체 대상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행사

- 일시 및 장소 : 2018.2.10.(토), 토리노 성프란체스코 다 파올라 교구
- 내용 :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동영상 상영, 한식리셉션

63 평창의 꿈

- 일시 및 장소: 2018.02.09.(수),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공연단: 재 이탈리아한인음악인협회
- 내용: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축하 공연

64 설날 체험행사

- 일시 및 장소 : 2018.02.16.(금),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 설날 예절 배우기, 한복체험, 설날 전통놀이 체험, 설날 전통음식 시식

65 서예, 붓의 춤, 먹의 울림

- 일시 및 장소: 2018.02.21.(수)-03.21(수),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김병기 한글서예전과 세계전북비엔날레 이탈리아 작가 초청전

66 Kimchi Day

- 일시 및 장소: 2018.02.21.(수)-03.21(수),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이탈리아한인차세대협회(KING)
- 내용: 현지인들과 함께 하는 김치 담그기 행사

67 한국영화의 밤

- 일시 및 장소: 2018.03.02.(금),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영화 '건축학개론' 상영

68 K-Beauty Make up Trend Show

- 일시 및 장소: 2018.03.19.(금),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박성희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한국식 메이크업쇼

69 3월 문화가 있는 날 '울림'

- 일시 및 장소: 2018.03.28.(수),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공연단: 울림
- 내용: 울림 공연단의 전통 음악과 춤 공연

70 한인입양인협회 초청 한국알리기 행사

- 일시 및 장소 : 2018.3.27.(화), 주밀라노총영사관저
- 내용 : 한국 홍보 동영상 상영, 한국 전통 공예작품 및 한지공예품 전시, 한식 만찬

71 한국영화의 밤

- 일시 및 장소: 2018.04.06.(금),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영화 '청년경차' 상영

72 밀라노 트리엔날레 '2018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 일시 및 장소 : 2018.4.17.(화), 밀라노 트리엔날레 전시관
- 내용 : 세계 최고의 디자인 경연장 '밀라노 디자인위크' 기간에 전통공예 전시

73 정환영 작가 사진전 'Atmosfere sospese: Operated Reality'

- 일시 및 장소 : 2018.4.19.(목)~5.9.(수)밀라노, 주밀라노총영사관 갤러리
- 내용 : 정환영 작가의 사진 작품 전시

74 기획 전시 백로산책

- 일시 및 장소: 2018.04.26.(목)-05.30(수),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백색과 한지를 주제로 제작된 이탈리아 및 한국 예술인 작품 전시

75 4월 문화가 있는 날 '한국-이탈리아 음악으로 하나 되다'

- 일시 및 장소: 2018.04.27.(금), 로마,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아카데미카 홀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로마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 공연단: 로마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한인 재학생 (오찬영, 안지영, 류승완, 이승훈. 김준영, 오형택 등 12명)
- 내용: 로마 산타체칠리아 음악원과의 협력 콘서트

76 2018 Cultura Coreana in Movimento (파도바)

- 일시 및 장소 : 2018.5.4.(금), 파도바 Piazzetta Pedrocchi
- 내용 : 한복 패션쇼, 풍물 공연, 태권도 시범, 전통 다도 시연

77 한국영화의 밤

- 일시 및 장소: 2018.05.04.(금),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영화 '과속스캔들' 상영

78 5월 5일 토요일, 80일 간의 세계일주

- 일시 및 장소: 2018.05.05.(토), 로마, Casa dei Bimbi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로마
- 내용: 주재국 어린이들에게 한국문화 소개(프레젠테이션, 한복체험, 공예체험, 한식 시식)

79 우디네 태권도와 함께하는 한국의 날

- 일시 및 장소 : 2018.5.7.(월), 우디네 Loggia del Lionello
- 내용 : 전통태권도 시범, 풍물공연, 한복 패션쇼, 전통 다도 시연

80 2018 Cultura Coreana in Movimento (베네치아)

- 일시 및 장소 : 2018.5.8.(화), 베네치아 Auditorium Santa Margherita
- 내용 : 한복 패션쇼, 풍물 공연, 한국 전통복식 강연

81 러브 액츄얼리 인 클래식

- 일시 및 장소: 2018.05.11.(금),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공연단: 재이탈리아한인음악인협회
- 내용: 성악 공연

82 2018 Cultura Coreana in Movimento (Castilgione Olona)

- 일시 및 장소 : 2018.5.19.(토), Castilgione Olona, Cortile del Pio Luogo

■ 내용 : 한국 고전무용 및 가곡 공연, 한식 시식 행사, 한지 및 한국전통공예 전시

83 밀라노 한국주간

■ 일시 및 장소 : 2018.05.28.(월)-06.01.(금), 밀라노, 클레리치 궁전, 셈피오네 공원, 부리극장, 노마 극장, 오베르단 극장, 밀라노총영사관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 주밀라노총영사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 K-Union(05.28.), K-Taekwondo(05.29.), K-Dance & Fashion(05.30.), K-Experience(05.29.-05.30.), K-Modern Performance(05.30.-05.31.), K-Calligraphy(06.01.-06.11.), K-Movie(06.01.), K-Food(06.01.)

84 2018 Cultura Coreana in Movimento (토리노)

■ 일시 및 장소 : 2018.6.14.(목), 토리노 Museo d'Arte Orientale
■ 내용 : 한식 요리 시연 및 체험, 전다운, 손빛나 작가 작품 전시

85 한지 종이 위의 예술(Hanji - OPERE IN CARTA)

■ 일시 및 장소: 2018.06.14.(목)-07.31(화),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로마미술대학교
■ 내용: 로마미술대학교 석사 졸업예정생 한지작품 전시

86 박길주 작가 개인전

■ 일시 및 장소 : 2018.6.15.(금)~6.20.(수), 주밀라노총영사관 청사 갤러리
■ 내용 : 박길주 작가의 유화 작품 전시

87 한지공예작가 단체전 '생활 속의 한지 - 마음을 담은 선물展'

■ 일시 및 장소 : 2018.6.22.(금)~6.28.(목), 밀라노, 주밀라노총영사관 청사 갤러리
■ 내용 : 정계화, 박양선, 박수진, 홍미경, 전미주, 김소영, 최문선, 윤옥자 등 한국 작가의 한지공예품 전시

88 6월 문화가 있는 날 'Rossiniana'

- 일시 및 장소: 2018.06.27.(수),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움브리아 앙상블
- 공연단: 움브리아 앙상블
- 내용: 움브리아 앙상블 클래식 콘서트 공연

89 김승호 작가 개인전

- 일시 및 장소 : 2018.6.29.(금)~7.9.(월), 주밀라노총영사관 청사 갤러리
- 내용 : 김승호 작가의 유화 및 설치미술 작품 전시

90 한국영화의 밤

- 일시 및 장소: 2018.07.06.(금),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영화 '상의원' 상영

91 필라르모니카 로마나 여름 음악 축제 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7.07.07.(토), 로마, Filarmonica Romana Auditorium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Accademia Filarmonica Romana
- 공연단 : DTM2
- 내용 : DTM2 창작 멀티미디어 공연

92 2018 K-Pop World Festival 이탈리아 지역예선

- 일시 및 장소 : 2018.7.7.(토), 밀라노 Teatro Elfo Puccini
- 내용 : 이탈리아인들의 K-Pop경연대회

93 한식요리콘테스트 2018 Gara di Cucina Coreana

- 일시 및 장소 : 2018.7.14.(토), 밀라노 Farm 65
- 내용 : 한식요리경연대회, 한식쿠킹쇼, 한국 주요 발효식품(김치, 장류, 주류) 홍보부스, 발효식품 활용 한식 시식 및 주류 시음행사

94 7월 문화가 있는 날 창작오페라 'Lupa'

- 일시 및 장소: 2018.07.25.(수),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공연단: Lupa
- 내용: 로마건국신화와 구미호전설을 연결시킨 내용의 현대음악 작품의 창작 오페라

95 2018 Cultura Coreana in Movimento (안도라)

- 일시 및 장소 : 2018.7.25.(수), 안도라 Palazza Tagliaferro
- 내용 : 이양실 작가 조각 작품, 김승

96 한국영화의 밤

- 일시 및 장소: 2018.08.03.(금),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영화 '터널' 상영

97 한국영화의 밤

- 일시 및 장소: 2018.09.07.(금),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영화 '곡성' 상영

98 화산섬 제주도와 바다의 여인 해녀

- 일시 및 장소: 2018.09.20.(목)- 2018.10.31.(수)
- 주최 및 주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제주 자연경관과 제주해녀의 일상을 담은 사진 40여점과 제주올레 간세인형 전시

99 로마 한국주간

- 일시 및 장소 : 2018.11.26.(월)-12.02.(일), 로마, Palazzo Rondinini, Torlonia 극장, India 극장,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최 및 주관 : 주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내용 : K-Forum(11.26.), K-Traditional(11.27.), K-Jazz(11.28.), K-Art(11.29.), K-Theatre(12.01/12.02)

7 여행정보

(1) 정정 상황(전쟁, 내란, 테러 등)

1970년대 초 극좌 테러 조직인 '붉은 여단'에 의한 테러행위나 마피아 조직에 의한 정부요인 테러행위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단체에 의한 테러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중동 지역의 불안한 정황 및 극단 이슬람테러집단(ISIL)의 위협에 대비하여 이탈리아 내부적으로 테러 예방책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조심스러운 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밀려드는 난민 관련 문제로 인하여 이탈리아인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간혹 인종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2) 치안상황(일반범죄 등)

외국인이 여행 중에 살인, 강도, 납치 등 신체 및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등 강력범죄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소매치기 및 절도 등의 단순범죄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 소매치기, 날치기, 퍽들치기 등의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이다. 늦은 밤·심야, 이른 새벽·아침시간에 뒤따라오는 외국인에 의해 퍽치기를 당하거나 위협당하여 귀중품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친절히 접근하는 남성이나 야간 또는 으슥한 지역을 여성 혼자서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피해야 한다.

렌터카 여행자들은 차량털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차량 내 좌석에 배낭이나 옷가지 등을 두고 내려서는 안된다.

※ 주이탈리아한국대사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의 '정보마당 →안전여행 및 체류정보'에서 "이탈리아 체류정착 및 생활안내" 책자를 다운로드하거나 구글 플레이북에서 동 책자를 다운로드하여 살펴보면 더욱 자세한 생활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3) 자연재해

아펜니노 산맥을 따라 중·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연간 4만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2009년 라퀼라(아브루쪼주, 로마에서 115km 위치)시에서 진도 5.8의 강진이 발생했고, 2012년에 북부 모데나 인근에서 진도 5~6 사이의 강진이 세 차례 발생했다. 2016년 8월 25일 라치오, 움브리아, 마르케 주의 경계인 아펜니노 산맥 산간지역에서 진도 6~5의 강진이고 있으므로 지진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리구리아 주 등 알프스 인근 지역에서는 가을과 겨울철에 갑작스런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폭우 소식이 있을 경우 주의 깊게 행동하여야 한다.

(4) 유의해야할 지역

명품 시계와 가방, 옷 등을 착용하고 다니거나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현금을 내보이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되도록 휴대를 자제하여야 한다. 현지 경찰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여행객은 털리는 일이 없다고 조언한다.

저가의 숙박시설이 많이 몰려 있는 로마 떼르미니역, 밀라노 중앙역 등 대도시 기차역 주변은 여행객들을 표적으로 삼는 범죄자들과 부랑자들이 많으므로 가급적 야간에 외출하는 것을 삼가고,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지역을 여행할 때는 다른 지역보다 더 안전에 신경 써야 하며, 특히 나폴리 지역은 치안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여행객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피렌체나 피사 등 중부 지역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 이 두 지역에서도 소매치기 및 날치기를 당한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다. 이탈리아 북부는 타 지역보다 비교적 치안이 좋은 편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 절도 등의 사건·사고는 빈번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베네치아의 경우 관광객 밀집 지역인 산마르코 광장 또는 산타루치아역 근처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한다.

8 현지 문화

관공서, 은행, 레스토랑, 상점 등에서 일처리가 한국에 비해 매우 느리기 때

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비스 분야에는 팁 관행이 있으며 분야별 팁 액수는 호텔 포터에게 2유로, 객실 청소 1유로, 식당 혹은 미용실 5~10%, 택시를 탔을 경우 거스름돈의 잔돈 정도이다.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은 유료로 70센트~1유로 정도를 낸다.

성당의 경우 짧은 반바지 등 몸을 많이 드러내는 옷을 입고 입장하는 것을 삼가야 하며, 복장문제로 출입을 제한하는 성당이 있다(베드로 성당, 밀라노 두우모 성당 등).

피의자의 인권이 존중되며 강력범죄 피의자가 아닌 경우 대부분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임의동행의 경우 48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다. 마약 및 조직범죄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절도, 소매치기 등의 경범죄는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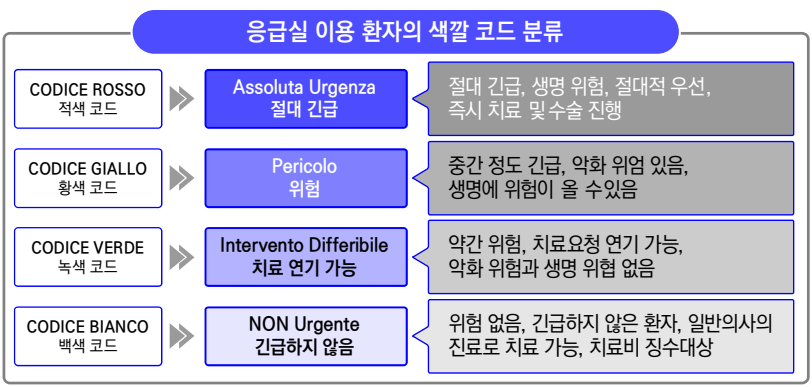
9 현지연락처

(1) 긴급 연락처

- 경찰(Polizia) 긴급전화 : 113
  ※ 2016년부터 로마·밀라노 등 지역부터 '112'번으로 신고전화 통합운영 중
- 헌병경찰(Carabinieri-범죄신고 접수) 긴급전화 : 112
- 응급환자 구급차 : 118
- 화재 : 115
- 교통경찰(Polizia Stradale)
  - 로마 : (06) 5577905
  - 밀라노 : (02) 72281
  - 피렌체 : (055) 3283333
  - 페루자 : (075) 5775353
- 자동차 견인(ACI) : 803 116
- 긴급전화 : 197+전화번호(상대방이 통화중일 때는 긴급전화가 걸려온 사실을 알려줌)
  ※ 경찰, 구급차, 소방차 등이 필요한 긴급상황 발생시 밀라노와 로마는 통합신고번호 118번을 운영함.

(2) 의료기관 연락처

국립 병원에서는 외국인(관광객 포함)이 응급 상황 시에 병원 응급실(Pronto Soccorso)을 찾아가면 무료로 응급조치를 해준다. 이때 치료 필요의 긴급도에 따라 Rosso(적색), Giallo(황색) Verde(녹색), Bianco(백색) 티켓을 부여받게 되는데 녹색이나 백색의 경우 최소 4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추후 정밀검사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치료비가 사후 청구되므로 미리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원 의사의 경우 대부분 간단한 영어 소통은 가능하나, 간호사들이나 행정직원은 대부분 영어 소통이 어렵다. 공관에서는 긴급한 경우, 전화 통역이 가능하다

※ 한국인 통역사는 주이탈리아한국대사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고, 주밀라노총영사관을 통해서도 통역사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응급실이 있는 지역별 주요 병원은 다음과 같다.

■ 로마

- San Pietro(산 삐에트로 병원)
  - 전화 : (06) 33581, - 주소 : Via Cassia 600
- Gemelli(제멜리 병원)
  - 전화 : (06) 30154036, - 주소 : Largo Agostino Gemelli 8
- San Filippo Neri(산 휠리뽀 네리 병원)
  - 전화 : (06) 33061, - 주소 : Via Giovanni Martinotti 20
- Policlinico Umberto I (뽈리끄리니꼬 움베르또 쁘리모 병원)
  - 전화 : (06) 49971, - 주소 : Vialedel Policlinico 155

• Bambino Gesù(밤비노 제수 병원) 소아과 전문병원
- 전화 : (06) 68591, - 주소 : Piazza Sant'Onofrio 4
• Sandro Pertini(산드로 페르띠니 병원)
- 전화 : (06) 41431, - 주소 : Via dei Monti Tiburtini 385
• San Camillo(산 까밀로 병원)
- 전화 : (06) 58701, - 주소 : Circonvallazione Gianicolense, 87
• Calvary(깔바리 병원)
- 전화 : (06) 77054265, - 주소 : Via Santo Stefano Rotondo 6
• Salvator Mundi(살바또르 문디 병원)
- 전화 : (06) 588961, - 주소 : Viale delle Mura Gianicolensi 67
• Rome American Hospital
- 전화 : (06) 22551, - 주소 : Via Emilio Longoni 690

■ 나폴리
• Ospedale Loreto Mare(로레토마레 병원)
- 전화 : 081-254-2111, - 주소 : Via Amerigo Vespucci 15

■ 피렌체
• Careggi(까레찌 병원)
- 전화 : (055) 7947235, - 주소 : Viale Pieraccini, 17
• Santa Maria Nuova(산타 마리아 누오바 병원)
- 전화 : (055) 27581, - 주소 : Piazza Santa Maria Nuova, 1
• Santa Maria Annunziata(산타 마리아 안눈치아따 병원)
- 전화 : (055) 24961, - 주소 : Via dell'Antella, 58

■ 페루지아
• Santa Maria della Misericordia(산타 마리아 델라 미세리꼬르디아 병원)
- 전화 : (075) 075 5783936, - 주소 : Localita'S. Andrea delle Fratte 1

■ 밀라노
• Ospedale Niguarda(니과르다 병원)
- 전화 : (02) 6444.1, - 주소 : Piazza Ospedale Maggiore 3
• Ospedale Fatebenefratelli(파떼베네 병원)
- 전화 : (02) 6363.1, - 주소 : Corso di Porta Nuova 25
• Ospedale Maggiore Policlinico(마죠레 폴리클리니꼬 병원)
- 전화 : (02) 5503.1, - 주소 : Via Santa Barnaba 8

• Ospedale San Carlo Borromeo(싼 까를로 보로메오 병원)
  - 전화 : (02) 81844250, - 주소 : Via Pio II 3
• Ospedale San Raffaele(싼 라파엘레 병원)
  - 전화 : (02) 26431, - 주소 : via Olgettina 60
• Ospedale San Giuseppe(싼 주셉뻬 병원)
  - 전화 : (02) 85991, - 주소 : Via San Vittore 12
• Ospedale Buzzi(부찌 병원) - 소아과 전문 병원
  - 전화 : (02) 57991, - 주소 : Via Lodovico Castelvetro 32
• Clinica Mangiagalli(만쟈갈리 병원)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센터 운영
  - 전화 : (02) 55032489, - 주소 : via della Commenda 12

■ 베네치아

• Ospedale Civile di Venezia(베네치아 병원)
  - 전화 : (041) 5294111, - 주소 : Campo SS. Giovanni e Paolo
• Ospedale al Mare Lido di Venezia(알 마레 리도 디 베네치아 병원)
  - 전화 : (041) 5294111, - 주소 : Lungomare d'Anunzio 1
• Ospedale dell'Angello Mestre(안젤로 종합병원)
  - 전화 : (041) 9657111, - 주소 : Via Paccagnello 11, Mestre
• Ospedale Class. Fatebenefratelli(파떼베네 병원)
  - 전화 : (041) 783111, - 주소 : Cannaregio 3458
• Ospedale Class. Villa Salus di Mestre(빌라 살루스 병원)
  - 전화 : (041) 2906411, - 주소 : Via Terraglio 114
• Ospedale Class. S. Camillo(싼 까밀로 병원)
  - 전화 : (041) 2207111, - 주소 : Via Alberoni 70

약국에서 일반적인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알러지약 등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보통 09:00~13:00, 16:00~20:00이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쉰다. 야간과 휴일에는 구역별로 순번제 영업 또는 특정약국만 영업하며, 호텔 리셉션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으로 'farmacia 24 ore'를 검색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로마의 야간 및 휴일 영업 약국

• Farmacia della Stazione
  - 전화 : (06) 4880019, - 주소 : Piazza Cinquecento 51
• Internazionale
  - 전화 : (06) 4825456, - 주소 : Piazza Barberini 49

• Piram
  - 전화 : (06) 4880754, - 주소 : Via Nazionale 228
• Cola di Rienzo
  - 전화 : (06) 3243130, - 주소 : Via Cola di Rienzo 213

■ 밀라노 야간 및 휴일 영업 약국
• Farmacia Stazione Centrale(밀라노 중앙역 내)
  - 전화 : (02) 6690735, - 주소 : Stazione Centrale
• Farmacia Lorenteggio
  - 전화 : (02) 4121851, - 주소 : Via Lorenteggio 208
• Farmacia Ferrarini
  - 전화 : (02) 55194867, - 주소 : Via Cinque Giornate 6
• Farmacia Ambreck(24시간 영업)
  - 전화 : (02) 29526966, - 주소 : Via Antonio Stradivari 1

■ 피렌체 야간 및 휴일 영업 약국
• Farmacia Comunale 13
  - 전화 : 055 288737, 055 2323150, 055 289435, 055 216761
  - 주소 : Piazza Della Stazione Snc,
• Farmacia della Scala
  - 전화 : 055 215612, 055 2382358 - 주소 : Via Della Scala 61
• Farmacia della Nave
  - 전화 : 055 573717 - 주소 : P. Cure 2/R
• Farmacia all'Insegna del Moro
  - 전화 : 055 211343 - 주소 : Piazza San Giovanni 20/R
• Farmacia Comunale 5
  - 전화 : 055 710688, 055 710293 - 주소 : Piazza Dell' Isolotto, 10
• Farmacia Comunale 6
  - 전화 : 055 608427, 055 600945 - 주소 : Viale Calatafimi 6/R

(3) 대사관 연락처

■ 주소 : Via Barnaba Oriani 30, 00197 Roma, Italia
■ 대표 전화·E-mail : (+39) 06 802461 / koremb-it@mofa.go.kr
■ 비상전화 : (+39) 335 1850383

• 사건 사고 발생시

※ 여권 분실·도난시, 분실·도난신고서, 여권사진 2매, 수수료 13.5유로를 제출하면 단수여권 재발급 가능(1시간 정도소요)

■ 휴일 당직전화 : (+39) 335 1850499

* 이탈리아 내에서는 반드시 지역번호(06)와 전화번호(802461)를 눌러야 한다.

■ 팩스 : (+39) 06 80246259(대표)

■ 영사과 민원실

• 민원 업무 시간 : 월~금, 09:30~12:00/ 14:00~16:30
(주말 및 공휴일은 업무를 하지 않음)

• 영사과 팩스 80246262(영사과) / 영사과 E-mail: consul-it@mofa.go.kr

(4) 주 밀라노 총영사관 연락처

■ 주소 : Piazza Cavour 3, 20121, Milano, Italia

■ 대표 전화 : (+39) 02 29062641

■ 비상 전화 : (+39) 331 9557463

■ 팩스 : (+39) 02 62911704

■ e-mail : milano@mofa.go.kr

■ 민원시간 : 월~금, 09:00~11:30/ 14:00~16:30

10 기타

(1) 날씨

대체로 여름철에 고온건조, 겨울철에 온화하고 비가 내리는 지중해성 기후이나, 국토가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온도차이가 크며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지중해성 기후, 연평균 15.6℃).

■ 중·남부지방 : 여름에 매우 덥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평균기온은 7~8℃ 정도이나 습도가 높고 체감온도가 낮다.

■ 북부지방 : 여름엔 중·남부처럼 덥지만 남쪽보다 비가 많으며 겨울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덜 춥다.

(2) 교통정보

1 대중교통

■ 시내 교통수단

승차권으로 지하철, 버스, 전차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승차권은 Tabacchi 가게(구멍가게에 해당)나 신문가판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승차 후에는 반드시 승차권을 개찰기계(노란색)에 넣어 개찰해야 한다. 실수로 개찰하지 않았더라도 검표원에게 적발되면 무임승차 벌금(50유로~80유로)을 물어야 한다.

로마에서는 승차권(1장 1.50유로)으로 100분 내에 환승시 버스와 전차는 제한 없이 여러 번 사용 가능하지만, 지하철은 1회 사용만 가능하다. 정기권은 24H(7유로), 48H(12.50유로), 72H(18유로), 1주일권(24유로), 한 달권(35유로) 외에 1년 정기권(250유로)도 판매한다.

밀라노의 경우, 승차권(1장 1.50유로)으로 90분 내에 환승시 버스와 전차는 제한 없이 사용하며, 지하철은 환승시간에 관계없이 1회 사용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1일권(4.50유로), 2일권(8.25유로), 10회권(13.80유로), 저녁권(20시 이후부터 무제한 사용, 3유로) 등이 있다. 한 달, 일 년 정기권은 밀라노 교통국에 10유로를 내고 발급 신청(신분증, 사진 필요)해야 하며, 1개월 권은 35유로, 일 년 권은 330유로이다. 버스, 지하철, 전차 등에서 소매치기가 많이 일어나므로 항상 소지품에 주의해야 한다.

■ 택시

택시(하얀색 표시)는 미터기가 부착되어 있고 시간·거리 병산제가 적용되며, 모두 콜택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로 호출할 수 있으며, 시내 곳곳의 택시 승강장에서도 탑승할 수 있다. 일부 택시 운전원은 화폐단위를 속여 거스름돈을 적게 주는 경우가 있으니 요금 정산 시 거스름돈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콜택시로 부른 경우, 택시가 호출을 받아 출발한 곳에서부터 요금 미터기가 작동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기차

기차로 이탈리아 주요 지역이 연결되며, 승객용 철도 서비스는 유럽 타 국가에 비해 수준이 떨어지며 연착과 지연이 잦은 편이다. 탑승 전에 표를 구입하고 기차역 플랫폼에 있는 개찰기(노란색)에서 개찰 후에 탑승해야 한다. 표를 개찰하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된다. 침대칸이 필요한 경우 매표

소나 여행사를 통해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문의 및 구매 : 이탈리아 철도청 콜센터 892021 연결 후 2번). 또한 열차 탑승 플랫폼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표를 구매한 후에도 열차안내판을 확인해야 한다.

■ 항공

한국과 이탈리아 간 직항은 인천↔로마구간은 대한항공KAL 주 6회(수요일 없음), ASIANA 주 5회(일, 월 없음), ALITALIA 주 3회(목, 토, 일), 인천↔밀라노 직항은 대한항공이 주 3회 운행하고 있으나, 계절별로 달라지므로 운항스케줄은 사전에 항공사에 문의해야 한다. 이탈리아 주요 도시의 연결편은 Alitalia와 Air One 등 다수의 항공사가 제공하고 있다. 항공기 탑승 직전에 탑승구가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탑승구역에 도착하면 안내판에서 탑승구를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한다.

• 로마 거점

로마의 경우 주요 국제선과 국내선 여객기들이 이용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다른 이름은 Fiumicino(피우미치노) 공항임)과 대부분 저가 항공사들이 이용하는 Ciampino(참피노) 공항이 있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 로마 테르미니 중앙역 28번 플랫폼에서 Leonardo Express 직행기차 운행 (편도 14유로)
  - 로마 테르미니 중앙역 광장에서 Terravision 공항버스 운행(편도 5유로)
- 참피노 공항 : 로마 테르미니 중앙역 광장에서 Terravision 공항버스 운행(편도 5유로)

• 밀라노 거점

밀라노의 국제공항은 말펜사(Malpensa) 공항이며 주로 저가항공 및 유럽 내 도시에 취항하는 리나테(Linate) 국제공항과 인근 베르가모에 위치한 오리오 알 세리오(Orio al Serio) 국제공항이 있다.

- 말펜사 공항 : 밀라노 중앙역 인근에서 Terravision 공항버스가 운행(요금은 편도 8유로, 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분, 매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기차역에서 탑승이 가능한 말펜사 익스프레스(요금은 편도 12유로, 40~50분 소요, 30분 간격 운행)는 중앙역, 포르타 가리발디역, 까도르나역에서 탑승 가능
- 리나테 공항 : 지하철 1호선 산바빌라역 인근 꼬르소 에우로파(Corso Europa) 리나테행 시내버스가 운행돼 일반 승차권으로 탑승이 가능하고, 택시는 미터기로 운행(시내에서 약 20유로)
- 오리오 알 세리오 공항 : 밀라노 중앙역 인근에서 셔틀버스 운행(요금은 편도 5유로, 약 1시간~1시간 30분 소요)

2 선박

Ferry 노선은 이탈리아의 대표 섬인 사르데냐와 시칠리아는 물론, 프랑스의 코르시카 섬, 동유럽의 알바니아 또는 크로아티아, 남유럽의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아프리카의 튀니지아와 모로코까지 연결된다.

3 도로교통

도로사정은 좋은 편이며 고속도로와 국도로 전국이 연결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시내 주행속도는 50km 이내로 제한된다. 주요 관광지와 도심 밀집지역은 진입제한구역(Zona Traffico Limitato: Z.T.L.)인 경우가 많으며, 진입 시 과태료(80유로~335유로)가 부과될 수 있으며, 렌트카로 진입한 경우, 렌트카 회사에서 신용카드로 행정비용 청구 등 될 수 있다. 로마, 밀라노, 피렌체 등 대도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편이다. 주차공간은 흰색 주차 선은 무료 주차구역, 청색은 유료 주차구역, 노란색은 장애인 전용, 외교차량 전용, 해당지역 거주자 전용 또는 버스 정거장을 의미한다.

운전질서를 잘 지키지 않고 난폭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오토바이들이 차선을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접촉사고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차된 차 안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 안에 짐을 절대 두지 않아야 하며, 운전 중에 사고발생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차를 세운 후에 소지품을 훔치는 소매치기단이 있으니, 자동차를 세워야 할 때는 차문이 잠겨있는지 확인하고 주위를 경계해야 한다.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일반적으로 110~130km이다.

4 렌트카

렌트카 서비스 주요업체는 AVIS, Europcar, Hertz, Budget, Maggiore 등이 있다.

렌트카 이용시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유효한 국내운전면허증을 필히 소지하고 있어야 차량대여가 가능하다(국제운전면허증 + 국내운전면허증).

렌트카 사용 전, 필히 차량 외관상태 및 작동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하며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렌트카 회사에 동 사실을 지적하여 '렌트카회사의 차량상태확인서'에 이 사실을 적시하거나, 차량 교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차량내 물품도난에 따른 유리창 파손 또는 악천후로 인한 차량 파손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예: 우박으로 인하여 차량 앞 유리 파손 등) 이용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 주차하여 렌트카 회사에 연락하여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추가로 렌트카를 상대로 한 차량 내 물품 절도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차량 내에는 가방 등 짐을 두지 않아야 하며, 렌트카 주차도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대로변 또는 주차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에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방책이다.

렌터카 내에 옷가지나 짐을 두는 행위는 차량털이 범죄자에게 차량을 털어가라고 하는 것과 같다.

(3) 출입국 관련 정보

1 비자정보

무사증 입국 후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며 이탈리아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한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2 출입국 심사

출입국시 입국 및 출국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심사 시 출입국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2018년 7월부터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서는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자동출입국심사제(E-gates)'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면 보다 빨리 출입국심사절차를 마칠 수 있다.

※ 이용시간(07:00~14:00/17:00~20:00) 제한이 있으므로 공항에서 확인이 필요하고 출입국 스탬프는 E-gates 통과 후 바로 앞에 있는 심사관에게 여권을 제출하면 바로 찍어준다.

모르는 외국인의 입국 심사를 도울 경우 본의 아니게 밀입국 동행 혐의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왕복항공권 (특히, 귀국항공권) 미소지, 여행경비 부족, 호텔 등 숙박장소 미정, 타인명의 신용카드 소지한 경우에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면세 한도는 포도주 4리터 또는 맥주 16리터, 22도 이상 주류 1병(1ℓ), 담배 200개피(궐연), 향수 등은 면세한도 금액 내에서 제한없이 반입가능하다. 공항이나 항만에서는 430유로 까지, 육로로는 300유로까지 면세 가능하며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150유로이다. 현금은 1만 유로까지 반입 및 반출 가능하며,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고양식을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시 초과금

액 일부를 압류하고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마약으로 위장 가능한 고춧가루는 반입이 불가능하며 진공 포장된 가공식품은 반입 가능하다. 의약품은 개인용 의약품일지라도 30일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처방전 및 의사소견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육류 및 그 부산물, 우유, 총기, 무기류 등은 반입 불허 물품이다.

24. 체코

1 개황

- **수 도 :** 프라하(Praha, 인구 129만 명)
- **인 구 :** 1,061만 명(2018년 3월 기준)
- **면 적 :** 78,864㎢(한반도의 ⅓)
- **민족구성 :** 체코인(95.5%), 우크라이나인(1.1%), 슬로바키아인(0.8%), 베트남인(0.6%), 러시아인(0.3%), 독일인(0.2%) 등
- **종 교 :** 무교(40%), 가톨릭(39.2%), 기독교(6.2%), 기타(11.2%)
- **시 차 :** 우리시간 -8시간(10월 말~3월 말), 서머타임시 우리시간 -7시간(3월 말~10월 말)
- **언 어 :** 체코어
- **1인당 GDP('17년) :** 20,152 US$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 총교역 29.28억 US$(수출 7.16억 US$, 수입 22.12억 US$)

2 문화적 특성

(1) 예술의 나라

'체코인이면 음악인이다(Co Čech, to muzikant)'라는 체코속담처럼 체코인들은 음악을 사랑하는 민족이다. 세계적인 음악가 스메타나, 드보르작, 야나체크 등을 배출한 체코는 '유럽의 음악학원'으로 불리며 음악이 끊이지 않는 나라이다. 매년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는 체코 민족음악의 창시자로 꼽히는 스메타나의 기일인 5월 12일에 맞추어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축제(Prague Spr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가 화려한 막을 연다.

체코 문학은 슬라브 문학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학으로서, 슬라브인들의 최초 문어인 고대교회 슬라브어가 9세기 후반 대모라비아제국 하의 체코 땅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로숨의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작품을 통해 '로봇'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카렐 차페크가 있으며, 야로슬라프 사이페르트는 198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농담〉, 〈불멸〉 등의 작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밀란 쿤데라도 체코 출신 작가이다. 비록 유대계 독일인 작가이기는 하나 〈변신〉, 〈소송〉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프란츠 카프카도 작품 속에 체코인의 정신을 담아낸 체코 출신 작가이다.

(2) 맥주의 나라

체코는 전 세계에서 1인당 맥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2017년에 1인당 맥주 소비량이 138ℓ이었다. 예술을 사랑하는 체코인들에게는 맥주가 "흐르는 빵"으로 불린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주로는 필스너 우르켈, 부드바르(미국 버드와이저의 원조), 감부리누스, 코젤, 스타로프라멘 등이 있다.

(3) 유네스코가 사랑한 나라

체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자그마치 12곳(Brno, Český Krumlov, Holasovice, Kroměříž, Kutná Hora, Lednice-Valtice, Litomyšl, Olomouc, Praha, Telc, Třebíč, Žďár nad Sázavou)이 등재된 '유네스코 초강대국'임을 자부한다.

특히 수도인 프라하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며, 조각가 로댕이 "북쪽의 작은 로마"라고 칭송하였고, "건축의 박물관", "백탑의 도시" 등의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할리우드 영화들의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체코의 민족 정체성을 지켜온 마리오네트 역시 2016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2005년 12월 〈제1회 아시아영화제〉에서 우리나라 영화 22편이 소개된 이래로 체코인들 사이에서 예술성이 뛰어난 영화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현재 체코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류로는 K-Pop과 한국영화, 태권도, 한국어가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음악시장에서 우리나라 음악을 접한 후 K-Pop 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현재 8천명 이상의 K-Pop 팬들이 팬클럽을 형성하여 우리나라 음악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이창동, 김기덕 감독 작품이 카를로비바리 국제영화제 비경쟁부분 작품으로 초청받았으며 현지 영화인들은 우리 영화를 예술성이 풍부한 영화로 인식하고 있다.

체코에서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한류 콘텐츠를 접한다. Youtube를 통해서 한국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무대 동영상 등을 찾아보며, 이를 SNS를 통해 팬들과 공유한다. 최근에는 체코 방송국에서 직접 한국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을 방송하기도 하였다.

(2) 분야별 현황

1 한국어

K-Pop과 한국영화 등 한류가 체코인들에게 소개되면서 더불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에 격년제로 신입생을 선발하였던 체코 프라하 소재 찰스대학교 한국학과는 현재 매년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지원자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국어 교습 학원이 운영되는 등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체코 동부지역 소재 팔라츠키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신설되어 신입생을 선발했다.

2 K-Pop

주로 중·고등학생 중심의 마니아층이 K-Pop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EXO, 트와이스, 레드벨벳, Got7, BTS, Monsta X, VIXX 등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국 가요계의 최신 흐름을 빠르게 접하고 있다. 체코 최대 음반 판매점인 Bonton에서 우리나라 K-Pop 음악 CD를 구입할 수 있다.

체코 내 K-Pop 인기에 힘입어 체코에서는 K-Pop 컨테스트 참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참가 팀은 한국 본선에서 입상하기도 하였다. 2012년 8월 12일에는 주체코대사관 후원으로 "K-Pop World Festival 2012" 지역예선이 개최되었고 동 대회 1위 수상팀(O.M.G.)이 한국 본선에서 커버댄스 부분 1위에 올랐다. 2013년에는 "K-Pop World Festival" 지역예선 1위 수상팀 '식스 오브 어카인드' (S.O.A.K)이 한국 본선에서 커버댄스 부분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4년에는 EFFE(X)TION이 한국 본선에서 커버댄스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2015년 12월 4일 SHINee, 레드벨벳, 팝핀현준 등이 참여한 체코 첫 K-Pop 공연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2018년 7월 22일 프라하 국립회관에서 제8회 K-Pop World Festival 체코 지역 예선이 개최되었으며, 체코 라디오(Radio Wave) 및 I-klik 음악 전문매체 동 언론사에서 동 행사 개최 소식을 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3 방송

TV 드라마는 2015년 NOVA 방송국 Cinema 채널에서 〈프라하의 연인〉이 방영되었다. 또한 2016년 4월에서부터 7월까지 Česká televize방송국의 해외기행 시리즈(Postřehy odjinud)에서 '페트르 볼단의 눈으로 본 한국(Korea očima Petra Voldána)'이라는 제목의 13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도 했다.

4 영화

체코 국영 방송국 채널 CT2에서는 "Film Club"이라는 프로그램에서 2005년 12월과 2007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김기덕 감독의 작품 〈섬〉을 방영했으며 2009년 9월에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활〉, 〈사마리아〉, 〈빈집〉, 〈시간〉을 방영하였다. 2010년 4~5월에는 2009년에 방영되었던 김기덕 감독의 작품 4편 외에도 〈숨〉을 추가해 총 5편을 방영하였다.

체코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세계적인 〈카를로비바리 영화제〉에도 매년 우리나라 영화와 영화감독들이 초대되고 있다. 특히 2016년 7월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제51회 카를로비바리 영화제에 초청되었으며, 프라하와 브르노 내 극장에서 상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체코인들은 이처럼 인간 내면의 세계를 잘 묘사한 예술성 높은 한국 영화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2012년 6월 봉준호 감독은 체코에서 〈설국열차〉를 촬영했으며 2013년에는 윤제균 감독의 〈국제시장〉, 2015년 개봉한 백종열 감독의 〈뷰티 인사이드〉가 체코에서 촬영된 바 있다. 한국 영화제는 2005년부터 프라하에서 매년 12월 첫 주에 개최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작품 '택시운전사', '남한산성', 'VIP', '악녀', '클레어의 카메라', '군함도'가 상영되었다.

5 한식

프라하에는 2018년 15개 내외의 한식당이 운영중이며, 급증하는 관광객 수에 따라 최근 신규 식당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체코어로 된 한식 요리 책이 발간되었고, K-Pop 팬클럽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식이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한편, 주체코대사관에서는 체코에서 한식 붐 조성을 위해 2017년 10월 요리학원에서 '김치를 재료로 하는 요리'를 주제로 한식요리 콘테스트를 개최하였으며, 대사관 관저에서 부대행사로 김치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당지 주재 외교단 부인회와 주재국 국민을 대상으로 김치를 활용한 한식을 소개하고 김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8년 5월에는 프라하 6구역 소재 대사관 축제(Festival of Embassies)에 참여, 한국 외식프랜차이즈 그룹인 ㈜ 제네시스 BBQ 그룹 및 당지 한국식품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한국치킨과 식품을 홍보하였다. 아울러, 제20회 프라하 트로야와인축제에 최초로 참여, 한식 시식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시식 후 와인과 어울리는 한식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6 태권도

1992년에 체코 태권도협회(WTF)가 조직되었으며, 태권도 인구는 4,500여 명 정도이다. 2013년부터 프라하 오픈 국제태권도 대회가 대한민국 대사배와 연계하여 개최되고 있으며, 참가자(중동부유럽 10개국, 약 500여 명 이상)가 증가하고 인지도도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연재 사범이 체코태권도 국가대표팀 품새 감독으로 맡고 있다.

7 뷰티

체코 내에서 K-Pop의 인기와 더불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 역시 상승하는 추세이며, 한국 화장품 브랜드인 미샤(MISSHA)가 체코 브르노와 프라하에 각각 입점해있다. 한국 화장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7년 9월 25일 프라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K-Beauty in Prague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동 행사에서 우리 화장품 업체 15개사가 유럽 유통기업과 B2B 상담회를 가졌다. 2018년 3월에는 대사관 관저에서 주재국 최대 화장품 유통업체인 FAnn이 주최한 한국 SM사의 화장품(Cremor lab) 프로모션 행사가 개최되었다.

8 e-콘텐츠

체코 내의 한류 관련 e-콘텐츠는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한류 동호회 회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에 더 가깝다. 이와 관련하여 체코 한류단체인 Czech Hallyu Wave가 블로그와 Facebook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체코 최대 아시아 문화 포털인 AsianStyle이 최근 개봉 한국 영화 등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며, 한국문화 콘텐츠를 인터넷 상에서 공유하고 있다. 이 외에 Czech-Korean Production, K-Pop Czech & Slovak subbed, K-Pop & K-Dramas CZECH, K-Pop Czech/SK Fans 등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다.

9 한국 전통문화

2006년부터 매년 체코에서 '한국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이는 체코-코리아협회가 개최하는 행사로 프라하와 오스트라바에서 각각 열리며, 체코인과 한국인이 함께 한국 전통문화를 즐긴다. 2017년 11월 제11회 모라비아-실레지아 한국의 날 행사 계기, 창원시립무용단을 초청하여 오스트라바 안토닌 드보르작 극장에서 '응답하라 2017 덤' 공연을 선보였다. 2018년 10월에는 프라하 조핀 궁전에서 김혜순 한복 패션쇼가 개최되었으며, 11월에는 프라하응용미술박물관에서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건국 100주년 기념 한지 전시회, 워크숍,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0 공연, 미술

2015년 12월 2일 박근혜 대통령 체코 방문 계기에 프라하 마리오네트 인형극장에서 '다락에서' 인형극을 선보였다. '다락에서'는 한-체코 양국 예술인의 콜라보 작품으로, 한국 판소리 '수궁가'를 체코 전통인형극인 마리오네트와 결합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 공연에서 국립체코심포니오케스트라와 국립국악원이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와 한국의 '아리랑' 연곡을 협연했다.

2017년 7월 4일에는 클래식 음악을 통해 동해와 독도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는 라 메르 에 릴(La Mer et L'Ile)이 프라하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독도 오감도(五感圖)', '독도, 영원히' 등의 곡을 통해 생황과 가야금의 선율을 기존 서양 클래식과 결합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9월 2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의 공연이 개최되었으며, 12월 17일 소프라노 조수미의 공연이 프라하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2018년 4월 프라하 시민회관 스메타나 홀에서 대전 시립연정국악원의 공연이 개최되었다. 이밖에도 울산시립교향악단은 6월 야나체크 국제음악제의 폐막공연에 초청되어 야나체크 출생지인 후크발디에서 연주회를 개최했으며, 특히 KBS 교향악단은 2018년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여 11월 체코 프라하 루돌피눔 및 즐린 콩그레스 센터에서 공연을 개최하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11 만화

2017년 5월 체코 트제본(Třeboň)에서 개최된 Anifilm에 주빈국으로 참가하여, 애니메이션 분야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Korean Day Reception을 주최하였다. 2018년 5월 Anifilm 행사에서 이용선 감독의 〈반도의 살어리랏다〉가 장편 부문 최우수작(best film for grown-ups)으로 선정되었다.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주로 어린이용 상업 애니메이션에 집중되어 있으나, 체코 및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주로 예술성을 기반으로 한 단편 애니메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한류)를 좋아하는 이유

한국문화(한류)를 좋아하는 체코인들은 주로 10~20대에 분포되어 있으며, 한국영화가 지닌 예술성, K-Pop의 높은 완성도와 대중성을 높이 평가하고, 자국

의 대중문화와는 다른 문화 스타일에 대해 신선한 매력을 느낀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오랜 문화유산을 지닌 체코인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한 반면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시 사실이다. 따라서 국외(특히 유럽)에서 검증을 받은 우리 영화나 K-Pop 중심으로 체코 국민들에게 서서히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주도하는 한류가 아니라 체코인들이 주도하는 한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측면 지원함으로써 체코인 주도 한류가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코의 K-Pop 팬들은 인터넷, YouTube 등을 통해 음악파일이나 MTV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시청하며 팬 카페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 체코 사람들은 즉흥적이지 않으며 상당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계획을 세워 신중히 일을 진행하는 관행이 있는 점을 감안, 우리문화 진출에 있어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현황

체코 내 K-Pop 팬들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음악이나 MTV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시청하고 있으며, 주로 자신이 좋아하는 K-Pop 스타의 블로그를 중심으로 서로 한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현재 이베이를 통해 K-Pop 관련 CD나 기타 물품 등을 구입하고 있다.

(2) 동호회별 현황

1 Czech Hallyu Wave

성격	• K-Pop 동호회 • 주로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연령대로 대부분 체코인이며 일부는 체코 국적 베트남인과 슬로바키아인이 참여하는 모임
회원 수	2,275명 (2018년 기준)
웹사이트	http://czechhallyuwave.com
세부 활동 현황	(온라인) - 최신 K-Pop 정보 교환 - 한류(K-Pop, 한국어 등) 관련 행사 안내 - 한류 관련 워크숍 안내 - K-Pop World Festival 2018 체코 예선전 관련 안내 (오프라인) (2012.11.7) 제1회 한국어 말하기대회 참가 (2012.11.16~17) 제 6회 체·한 친선의 날 행사 참가 (2013.8.11) K-Pop World Festival 2013 체코 예선 개최 (2014.8.10) K-Pop World Festival 2014 체코 예선 개최 (2015.7.19) K-Pop World Festival 2015 체코 예선 개최 (2016.7.24) K-Pop World Festival 2016 체코 예선 개최 (2017.7.16) K-Pop World Festival 2017 체코 예선 개최 (2018.7.22) K-Pop World Festival 2018 체코 예선 개최

2 Asian Style

성격	• 아시아 전반의 음악, 영화, 문화 관련 동호회 •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연령대, 체코와 슬로바키아인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아시아인으로 구성 • 체코에서 가장 큰 아시아 관련 웹사이트
회원 수	13,601명 (2018년 기준)
웹사이트	www.asianstyle.cz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 최신 아시아 음악, 영화, 문화 등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 - 음악, 영화 외에 아시아 패션, 음식, 건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오프라인) - 아시아 음악 파티 개최 - 아시아 음식 요리법 강의 및 뷔페 행사 진행 - 영화, 다큐멘터리 상영회

6 2018년 문화행사

- 2018.1.9.(화): 차펙 문학상 시상식
- 2018.2.9.(금)-2.25.(일): 오스트라바, 브르노 평창 동계올림픽 공원행사
- 2018.3.10.(토): 경남합창단 공연
- 2018.3.23.(금): 김치배틀 대사배
- 2018.4.4.(수): 재외예술인 관저행사
- 2018.4.14.(토): 박지하 공연 (Jazz Dock)
- 2018.4.21.(토): 체코 양로원 방문 문화공연
- 2018.4.21.(토)-4.22.(일): 대사배 바둑대회
- 2018.4.26.(목)-4.27.(금): AAU 대학교 정전협정 65주년 사진전
- 2018.4.27.(금): 통일골든벨
- 2018.4.29.(일): 대전국악원 공연
- 2018.5.1.(화)-5.6.(토): 2018 Anifilm 참가, 한국 애니메이션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 2018.5.5.(토): 한-체코 차세대 음악회
- 2018.5.11.(금): 프라하 치맥 행사
- 2018.5.12.(토): Festival Embasad 국가별 전통음식축제 부스 참가
- 2018.5.12.(토)-6.3.(일):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제
- 2018.6.29.(금)-7.7(토): 까를로비 바리 국제영화제
- 2018.5.19.(토): K-Pop 브르노 지역 예선전
- 2018.5.25.(금): 퀴즈온 코리아
- 2018.5.25.(금): 제54회 베토벤 국제음악제 (백건우 피아노)
- 2018.5.26.(토): K-Pop 프라하 지역 예선전
- 2018.6.16.(토): 울산시향 후크발디 공연
- 2018.6.23.(토)-6.24.(일): 프라하 현대무용축제, 안은미 현대무용가 공연
- 2018.6.21.(목): 냉면 행사
- 2018.6.29.(금) - 7.7(토): 까를로비 바리 국제영화제
- 2018.7.23.(월): 앙상블 클라비어 프라하 공연
- 2018.7.20.(금): 체스키 크룸로프 국제음악제, 김수연 소프라노 공연
- 2018.7.21.(토): 한류워크숍 개최

- 2018.7.22.(일): K-Pop World Festival 2018 체코 지역 예선전
- 2018.9.8.(토): 제20회 트로야 와인축제, 한식 홍보 행사
- 2018.9.14.(금): 사라장 프라하성 공연
- 2018.9.19.(수): 한국어말하기 대회
- 2018.9.28.(토): 한-체코 체육대회 개최
- 2018.10.3.(수): 김혜순 한복 패션쇼
- 2018.10.4.(목): 구시가지 광장 한복 퍼레이드
- 2018.10.5.(금): 전통주 시음회
- 2018.10.11.(목): 팔라츠키 대학교 한국영화제
- 2018.10.16.(화): 비빕밥 행사
- 2018.10.17.(수): 한식 강좌
- 2018.10.31.(수): 동영상 콘테스트
- 2018.11.3.(토)-11.4.(일): 대사배 태권도대회
- 2018.11.6.(화)-11.8.(목): 한지 행사
- 2018.11.25.(일): KBS 교향악단 프라하 공연
- 2018.11.27.(화): KBS 교향악단 즐린 공연
- 2018.12.6.(목): 한국영화제 개최 (예정)

7 여행정보

(1) 비자

- 일반여행객

  사증면제협정국으로 무비자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 장기 비자(유학, 취업, 기타 장기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 : www.mzv.cz/visaform
  - 사진 2장 : 흰색 바탕, 3.5x4.5cm 여권용 사진
  - 여권, 여권사본 : 본인 서명 필수, 여권 유효기간 확인
  - 경제 지불책 입증서류 : 본인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해당 계좌의 최근 6개월 간 입출금 내역서, 신용카드 사본
  - 거주 목적 입증서류

a. 학생 : 체코 내 학교에서 발급한 체코어 입학 허가서 원본
b. 취업 : 2014년 6월 24일부터 Employee card로 변경(자세한 사항은 www.mvcr.cz 에서 확인)
c. 사업 : 무역허가서, 사업허가서, 상업등기부등본, 회사설립에 관한 계약 또는 합의서 중 택 1

- 가족 동반 시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확인서
- 거주지 입증서류 : 아파트 임대/구입 증명 서류, 기숙사 발급 서류 등
- 해외여행자 보험증
- 범죄경력 증명서
- 체코행 비행기 티켓 예약 내역서

※ 장기비자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한체코대사관 홈페이지(www.mzv.cz/seoul) 참조

(2) 주한체코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 전화번호 : (+82) 2-725-6765~6, 720-6453
- 팩스 : (+82) 2 734 6452
- E-mail : seoul@embassy.mzv.cz / consulate_seoul@mzv.cz (영사부)
- 홈페이지 : http://www.mzv.cz/seoul
- 비상연락처 : (+82) 10 7445 6765
- 업무시간 : (월/금) 09:00~17:00 (12:00~13:00 점심시간)

(3) 안전정보

1 여행 경보단계

- 전체지역

단계	색깔	영어	체코어
1	흰색	No Specific travel advice	특별한 권고조치 없음
2	파랑색	Caution	체류 시 유의 당부
3	보라색	Exercise extreme caution	체류 시 각별유의 당부
4	주황색	Avoid non-essential travel	긴급한 용무에 한해서만 여행하도록 당부
5	빨간색	Avoid travel completely	여행회피
6	검은색	Leave immediately	여행회피 및 즉시철수

■ 특정 지역

단계	색깔	영어	체코어
1	노란색	Some areas may be dangerous	특정지역에 대해 위험고조 주의
2	갈색	Avoid non-essential travel to certain areas	특정지역을 긴급한 용무에 한해서만 여행하도록 당부
3	분홍색	Avoid all travel to certain areas	특정지역 여행을 권장하지 않음

2 사건·사고의 현황

■ 테러, 인질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체코는 테러, 인질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 국가에 속한다.

■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체코는 해마다 관광 성수기가 되면 프라하 및 주요 관광도시에서 소매치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사람이 많이 붐비고 주의가 다른 곳에 집중되는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과 프라하성 주변, 중앙역, 식당 등지에서 많이 발생한다. 또한 사복차림을 한 가짜 경찰이 외국인 여행객들의 여권과 지갑을 검사하면 서 소지품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 자연재해

체코는 전국적으로 큰 비가 내리는 여름철이 되면 간혹 홍수피해가 발생하나, 홍수예방시설이 비교적 잘되어 있다. 프라하시는 홍수대비 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홍수범람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유의해야 할 지역

체코는 안전상 특별히 유의해야 할 지역이 없다. 다만, 여름철이 되면 틱이라 불리는 진드기로 인한 풍토병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틱은 뇌염이나 라임병(진드기가 옮기는 세균에 의한 전염병)을 유발하는 진드기로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이나 물가에 서식하며 아침·저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틱이 머리를 살 속에 파묻고 있을 경우, 손으로 잡아떼지 말고 jodisol이라는 소독약을 솜에 듬뿍 묻혀 틱을 눌러 죽인 후 떼어 내야 한다. 틱이 손으로 떼어낼 수 없을 만큼 깊이 들어간 경우, 오일을 틱 주변에 1~2방울

떨어뜨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제거할 수 있다. 틱을 제거하는 핀셋이나 특별 제작된 카드 모양의 제거 도구와 소독 성분이 함유된 기름은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8 현지 문화

(1) 코를 시원하게 푸는 것이 예의

체코인들은 콧물이 날 경우 훌쩍거리는 것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대방 앞에서 코를 푸는 일을 전혀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

(2) 일처리는 천천히, 여유롭게

한국인들은 일처리를 빨리 하는데 반해 체코인들은 비교적 천천히, 여유롭게 일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진행 중에 있는 일을 재촉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3) 겉으로는 무뚝뚝한 체코인들

과거 공산주의 시절을 겪었던 체코인들은 보통 낯선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처음에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계산 시 돈을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대방을 무시해서가 아니므로 불친절하다고 언짢아할 필요가 없다.

(4) 팁 문화

체코에서는 식당 등지에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는 의미로 팁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개 직원이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테이블 위에 놓고 가는데, 나중에 돌아오면 영수증에 적혀있는 금액만큼만 지불하고 테이블 위에 팁을 남겨두거나 계산할 때 영수증에 적힌 금액에 팁을 합해서 계산하면 된다. 팁은 전체 금액의 5% 수준이면 적당하다.

9 현지 연락처

(1) 긴급 연락처

- 경찰 : 158
- 화재신고 : 150
- 응급환자 : 155
- 응급의사 : 14123
- 응급약 : 15124
- 자동차 고장신고 : 1230
- 자동차 사고신고 : 1240

(2) 의료기관 연락처

아래 두 병원은 모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리셉션을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 구사가 가능한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리셉션 안내에 따라 등록을 마치면 해당 전문의 혹은 가정의학의를 만나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등록비 및 보증금 요청을 받을 수 있는데, 등록비는 통상 300크라운 내외이며 보증금은 1,500크라운 정도이다. 체코 내에서 유효한 보험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자가 부담으로 의료비를 결제할 수 있다.

- Nemocnice v Motole
  - 주소 : V úvalu 84, 150 06 Praha 5
  - 대표 사이트 : www.fnmotol.cz/uk.html
  - 전화번호 : (+420) 224 431 111(응급실), (+420) 224 433 682 (외국인)
  - 업무시간 : (월~금)07:00~21:00, (토~일)08:00~21:00
  - 외국인 대상 리셉션 위치 : 파란색 빌딩(Blue Building) 1층(Ground Floor)
- Nemocnice na Homolce
  - 주소 : Roentgenova 2/37, 150 30 Praha 5
  - 대표사이트 : www.homolka.cz/en-CZ/home.html
  - 전화번호 : (+420)257 271 111
  - 업무시간 : (월~금)07:30~16:30, (토~일)7:00~19:00
  - 외국인 대상 리셉션 위치 : 건물 5층
  - 상기 병원 외에도 외국인이 주로 찾는 병원으로는 CMC, UNICARE 등이 있다.

■ Canadian Medical Care(CMC)
- 주소 : Veleslavínská 1, Praha-Praha 6
- 대표사이트 : www.cmcpraha.com/
- 전화번호 : (+420)235 360 133

■ UNICARE
- 주소 : Na Dlouhé m Lánu 11, 16000 Prague 6
- 대표사이트 : www.unicare.cz/index.htm
- 전화번호 : (+420)235 356 553

(3) 대한민국대사관 연락처

■ 주소 : Slavickova 5, 160 00 Praha 6-Bubenec, Czech Republic
■ 전화번호 : (+420)234 090 411
■ 팩스 : (+420)234 090 450
■ E-mail : czech@mofa.go.kr
■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cz-ko/index.do
■ 비상연락처 : (+420)725 352 420

10 기타

(1) 날씨

중부유럽에 위치한 체코는 대륙성 기후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존재한다. 여름철에는 홍수피해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가끔씩 발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홍수예방시설이 비교적 잘 되어있다.

(2) 교통정보

1 대중교통

체코 대중교통은 트램, 버스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으며 지하철은 수도 프라하에만 있다. 체코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회용 교통티켓을 구매해야 하는데 반드시 최초 승차하는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개찰기를 통해 승

차시점을 기록해야 한다. 개찰은 최초로 승차하는 곳에서 한번만 하는데 동일한 교통티켓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개찰할 경우, 무효 티켓으로 처리된다. 개찰기는 보통 트램과 버스의 경우 차량 내부에 있으며 지하철은 승강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다.

일회용 승차권은 각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나 신문판매소(tabak),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다. 모든 티켓은 환승이 가능하며 금액별로 정해진 시간 내에서 승차 횟수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 프라하 시내 대중교통 요금 예시
성인기준 일회용 승차권
- 30분-24 크라운
- 90분-32 크라운
- 24시간-110 크라운
- 72시간-310 크라운

2 도로교통

체코의 기본 운송규정은 다음과 같다.

- 우측운행
- 운행 중 안전벨트 의무착용
- 연중 전조등 점등
- 150cm 이하 아동은 반드시 아동용 시트에 착석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조수석 착석 금지
- 최대 허용속도 : 고속도로 130km/h, 교외 90km/h, 주거지 50km/h
- 횡단보도의 보행인에게 절대 우선권이 있음
-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금하며 반드시 핸즈프리를 사용한 통화만 허용됨
- 허용 혈중 알코올 농도 0.0%
- 운전면허증, 신분증, 차량 관련 서류(차량등록증, 의무보험증서, 그린카드) 항시 지참
- 고속도로 통행 시 전면 유리에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을 증명하는 고속도로 통행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고속도로통행 스티커는 모든 주유소에서 구매 가능

(3)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체코에서는 교통사고지 운송을 포함하여 관련 차량들의 피해가 100,000 크라운을 초과하지 않고,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이를 인정할 경우 경찰을 부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보험사가 제공한 교통사고에 관한 유럽통일 양식에 교통사고 내역을 기록한 후 양 당사자는 반드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만약 피해액이 100,000 크라운을 초과하거나 부상자가 발생했거나 제3자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을 불러야 한다. 또한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 장소를 표시해야 한다.

(4) 기타

1 전력 현황

체코는 230V, 50Hz의 유럽형 소켓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자제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2 환전 관련

■ 통화

체코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아직 유럽 단일통화에 가입하지 않아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체코 통화단위는 코루나(Koruna)이며 약명은 Kč 이다. 동전으로는 1, 2, 5, 10, 20, 50 크라운이 있으며 지폐로는 100, 200, 500, 1000, 2000, 5000이 있다. 실시간 환율은 체코중앙은행 홈페이지(www.cnb.cz)에서 확인 가능하다.

■ 환전

은행, 호텔, 환전소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은행 환율은 비교적 좋으나 보통 저녁시간과 주말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호텔 환율은 좋지 않으나 적은 금액도 언제든지 환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환전소 환율은 환전소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일부 환전소에서는 환전 수수료가 없으나 불리한 환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전에 앞서 미리 얼마를 수령하게 될지 확인이 필요하다. 국제현금카드가 있을 경우, 현금자동 인출기에서 체코화로 바로 출금이 가능하다. 시내 상점, 관광지 등지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자유로우며 외화는 큰 상점이나 관광 상품을 파는 곳을 제외하고는 잘 받지 않는다. 외화를 직접 받는다고 하더

라도 그다지 환율이 좋지 않다. 환전 사기꾼이 길거리에 많으므로 환전소보다는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좋다.

3 통신

■ 우편

우편요금은 체코우체국 홈페이지(www.ceskaposta.cz)에서 확인 가능하다.

■ 전화

공중전화 기본요금은 15 Kč이며 콜렉트 콜은 800-001-182로 호출하면 된다. 체코에서 서울로 전화할 경우 00-82-2-지역번호를 뺀 나머지 전화번호를 누른다. 대부분 호텔방에서 직접 국제전화를 걸 수 있지만, 국제전화요금이 상당히 비싼 편이므로 공중전화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휴대폰은 GSM 방식이며 체코의 국가식별번호는 +420이다. 인터넷(http://en.zlatestranky.cz)이나 전화(1188)로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슬로바키아어로 이용할 수 있다. 800으로 시작하는 안내전화는 발신자에게 통화료 부과하지 않는다.

■ 인터넷 사용 현황

체코는 브로드밴드, ADSL 등 고속인터넷 서비스가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식당, 커피숍, 호텔, 기타 많은 장소에서 Wi-Fi 무선연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KOREA
FOUNDATION
KF
한국국제교류재단

25. 카자흐스탄

1 개황

- **수 도 :** 아스타나(인구 100만 명)
- **인 구 :** 1,817만 명(2018년 2월)
- **민족구성 :** 카자흐인(63%), 러시아인(23.7%), 우즈벡인(2.9%), 우크라이나인(2.1%), 위구르인(1.4%), 타타르인(1.3%), 독일인(1.1%), 고려인(0.6%, 약 10만 명)
- **면 적 :** 272만㎢(한반도의 약 12배)
- **종 교 :** 이슬람교(70%), 러시아정교(23%), 개신교(2%), 기타(5%)
- **시 차 :** 우리나라 -3
- **언 어 :** 카자흐어(공용어), 러시아어(통용)
- **1인당 GDP('17년) :** 8,837미달러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 총 교역 15.3억 미달러 (수출 5.3억 미달러/수입 10억 미달러)

2 문화적 특성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남으로는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 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카스피해에 연하고 있어 바다를

통해 아제르바이잔, 이란과 연결된다. 실크로드의 북쪽 루트인 카자흐스탄 서북쪽의 우랄스크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카자흐스탄은 130여 민족이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 카자흐인이 약 60%, 러시아인이 약 24%, 그리고 우즈벡인, 우크라이나인, 위구르인, 타타르인, 독일인 등이 있으며, 고려인은 약 1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0.6%를 차지하고 있다.

많은 카자흐인들은 스스로를 무슬림으로 생각하지만 이슬람에 대한 지식과 실천은 미약한 편이며, 이슬람은 종교적 기능보다는 생활 규범이자 전통문화로서의 의미가 크다. 지역적, 민족적 특성상 카자흐스탄 문화에는 유럽과 동양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으며, 기독 명절과 이슬람 명절 등 각종 종교명절도 공존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경제적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발판으로 중앙아시아 연합 구성을 주창하며 중앙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2010년 CIS 국가로는 최초로 OSCE 의장직을 수임하여 2010년 12월 OSCE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가위상을 제고하였다. 이외에도 카자흐스탄은 세계 종교, 문명 간의 갈등 해소와 이해 진작을 위해 주도한 '세계 전통종교 지도자회의'를 2003년부터 매 3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17-2018년 UN 비상임이사국으로 지정되어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문필가로는 철학·과학·수학에 관한 수많은 저술을 남긴 작가 아부 나스르 알 파라비(10세기)와 카자흐어가 문어로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아바이 이브라김 쿠난바예프(1845~1904)가 있다. 아바이는 권위주의적이고 전제주의적 권력자들을 비판했고, 힘으로 약소민족을 정복하려는 러시아어의 제국주의에 반발했다. 아바이는 러시아의 푸쉬킨, 레르몬토프 등의 작품뿐만 아니라 이슬람과 페르시아 문학 작품을 카자흐어로 번역했고 서양철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인본주의적 가치를 담은 그의 시와 에세이 형식의 잠언 집은 지금도 카자흐인의 정신적 양식이 되고 있으며, 아바이는 카자흐에서 민족시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현대 작가로는 시인 잠불 자바예프와 극작가 무흐타르 아우에조프를 꼽을 수 있다. 서사적인 민요시와 서정시를 낭송하는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 많은 예술·연극 학교가 있으며 알마티에는 국립 미술관이 있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체제 전환 이후 민족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외국문화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 민족 간에는 외모상 크게 구별되지 않아 친근감이 있고, 관계 중심적이고 경로사상을 존중하는 문화적 유사성이 있다.

한류는 1998년 이후 〈주몽〉 등 수십 편의 드라마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으며, 2011년 〈꽃보다 남자〉 등이 젊은 층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켰다. 우리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 공중파 TV에서 동시에 4~5편이 동시 방영되기도 하였다. 카자흐인들은 우리 드라마를 재미있어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녹아 있는 어른 공경사상, 가족애 등을 높이 평가한다. 2005년 이후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K-Pop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한류가 확산되고 카자흐에 진출한 한국 제품의 우수성과 한국의 발전상이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양국 관계 확대에 기반을 두어 한국과 카자흐스탄에서 다양한 문화교류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2010년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카자흐스탄에 한국문화원을 개설하여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등에서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6월~9월에는 미래 에너지로 여는 스마트 라이프를 주제로 아스타나에서 엑스포를 개최하였으며, 전체 방문객 약 400만 명 중 한국관이 55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인기관으로 주목받았다.

2018년에는 아스타나 천도 20주년 기념 아스타나 K-Pop 파티 등 한국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한류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1 드라마

1998년 이후 우리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특히 〈주몽〉은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시청률 70~80%를 기록할 정도였다. 그 후 〈허준〉, 〈선덕여왕〉, 〈대장금〉, 〈동이〉 등 역사물의 인기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그밖에도 〈첫사

랑〉, 〈가을동화〉, 〈겨울연가〉, 〈올인〉, 〈부자의 탄생〉, 〈미안하다 사랑한다〉, 〈바람의 화원〉, 〈천추태후〉, 〈로비스트〉, 〈꽃보다 남자〉 등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2013년에도 〈최고의 사랑〉, 〈광개토대왕〉, 〈여인의 향기〉, 〈넝쿨째 굴러온 당신〉 등 10여 편의 드라마가 지상파 방송을 통해 방영되었다. 현지에서 이민호, 장근석의 인기가 높다. 한편, 2014년 들어 한국드라마가 카자흐스탄 TV에 너무 많이 방송되어 자체 방송 제작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드라마 방영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다. 현재는 카자흐스탄TV, 하바르 24에서는 한국드라마를 방영하지 않고 있으며 channel 31에서만 방영되고 있다.

2 영화

한류 확산과 더불어 한국 영화에 대한 인기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영화가 일반 영화관에서 상업적 기반으로 상영되는 경우는 없다. 아스타나의 한국 문화원에서 연례행사로 한국 영화 상영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매년 주요 지방도시에서 찾아가는 한국 영화 상영회를 개최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으로의 한국 영화 진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러시아어 자막 번역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 젊은 층들은 상당수가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최신 한국 영화를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3 K-Pop

우리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는 2000년 이후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인기 SNS인 브칸딱쩨(VK) 등을 통해 우리 가요를 실시간으로 접한 청소년들에 의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류 팬클럽이 생겨나 관련 정보를 소개하고 공유하면서 카자흐스탄에 K-Pop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돌 샤이니, 빅뱅, 2PM, AOA, 방탄소년단 등의 인기가 높으나 한류가 상업적 베이스에서 확산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못해 현지 기획사가 높은 비용을 들여 한류가수나 배우를 초청하는 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 일본, 중국과 달리 비행기 편이나 비행거리 등이 상대적으로 불편하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 음반도 카자흐 음반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카자흐스탄 국력(GDP)의 지속적 발전으로 한류 수요자들의 구매력이 커지고 있고, 팬클럽 활동이 활성화되는 등 한류 토대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업적 베이스의 한류 진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 시장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음반 판매, 영화 상영, K-Pop 스타 공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한식

카자흐스탄에는 고려인들이 약 10만여 명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인 음식이 널리 퍼져있다. 고려인 음식은 현대 한국 음식과는 차이가 많은 편이지만, 카자흐스탄인들은 김치, 국수, 찰떡 등 고려인 음식으로 인해 한식에 친근감을 갖고 있다. 또한 한국드라마의 인기로 한국 음식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치, 잡채, 불고기, 파전 등을 좋아하며, 종교적(이슬람) 영향으로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은 대중적으로 전파되기 어렵다.

알마티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 식당이 한국인뿐만 아니라 현지인을 대상으로 수십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스타나에는 고려인 식당을 포함한 한식당이 4~5개 정도 운영 중에 있다.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전문 조리학원, 조리대학, 조리사 연합회 등에서도 한식 조리법을 배우려는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아스타나 메리어트 호텔에서 닭강정과 삼계탕, 잡채 등을 메뉴로 채택하였으며 아스타나 조리학교에서는 한식을 정식 교육과정으로 채택하는 등 한식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5 한국어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 증진, 한류 확산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는 카자흐스탄인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알파라비 국립대학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등 카자흐스탄 전역 총 13개 대학에서 한국어학과가 개설·운영되고 있으며 그밖에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약 1,5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알마티에 위치한 한국교육원은 연간 1,500명 이상의 고려인, 카자흐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도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1년 9월 유라시아대학에 한국학과가 개설되었으며, 2018년 아스

타나 나자르바예프 영재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였다. 한국문화원에서도 연간 약 900여 명의 카자흐스탄 학생들이 한국어 강좌를 듣고 있다.

6 최근 주요 행사

■ 한국문화축제(2016.10.7.~8., 알마티)
- 주관 및 주최 : 주알마티총영사관, 한국교육원
- 행사 내용 : K-Pop 그룹 공연 및 한국영화가 상영되었으며, 투호놀이, 제기차기, 줄넘기 등의 한국전통놀이 체험과 한국음식 먹거리 장터가 열림. 많은 알마티 시민과 학생들이 축제에 참여하여 한국문화를 체험함.

■ 한국영화제(2017.3.17.~18., 알마티)
- 주관 및 주최 : 주알마티총영사관, 한국국제교류재단
- 행사 내용 : 〈부산행〉, 〈노브레싱〉 등의 영화를 600여 명의 관람객 앞에서 상영하여 한국 영화의 우수성과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K-Pop Star Kazakhstan(2017.5.14., 알마티)
- 주관 및 주최 :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
- 행사 내용 : 2016년부터 매년 알마티에서 개최된 대회로 과거 2009년, 2013년, 2014년에는 알마티고려문화중앙,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 고려인청년협회 등 고려인 단체 주관으로 알마티 시 차원의 행사로 개최되었으나, 2016년부터 카자흐스탄 전국 규모 행사로 확대하여 개최됨. 고려인 및 현지인을 포함하여 약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컬 및 댄스 팀이 한국 노래와 춤으로 실력을 겨룸.

■ 코리아 소셜 미디어 콘테스트(2017.3.20.~5.24., 알마티)
- 주관 및 주최 : 주알마티총영사관
- 행사 내용 :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디지털 컨텐츠 제작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참가자들이 직접 한국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함.

■ 한국문화의 날(2017.6.5~6, 2017.12.13, 2018.2.26-27, 2018.9.24-25, 타라즈, 탈디코르간 등 카자흐스탄 내 주요도시)
- 주관 및 주최 : 주알마티총영사관
- 행사 내용 : 대도시인 알마티와 아스타나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국 문화 관련 축제를 지방 도시로 확대하여 K-Pop 및 사물놀이 공연, 총영사 특강, 한국퀴즈대회 등을 진행함

■ 한국문화축제(2017.11.2~4, 2018.5.25~26, 알마티)

• 주관 및 주최 : 주알마티총영사관

• 행사 내용 : 한국교육원 및 알마티 주요 대학과 연계한 한국문화축제로 총영사 특강, 한국 퀴즈대회, 한국음식체험, 전통놀이체험 등을 진행함

■ 평창 문화올림픽 홍보 소나기 프로젝트 공연(2017.3.3.-10. 아스타나 등 4개 도시)

• 주최/주관: 한국문화원

• 행사내용: 〈소나기 프로젝트〉를 초청하여 카자흐스탄 4개 도시(아스타나, 코스타나이, 카라간다, 세메이) 순회공연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고 현지 지역민과 동포를 위한 한국전통음악 향유 기회 제공 및 전통문화의 이미지 제고

■ 한-중앙아 수교25주년 문화공연(2017.3.31., 아스타나)

• 주최/주관: 한국·카자흐스탄 문화부, 한국문화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립국악원

• 행사내용: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무용단, 비보잉, 사자춤, 카자흐스탄 공연팀과의 합동공연을 선보이고 한국 전통·현대예술의 정수를 선보임

■ 아스타나 엑스포 계기 문화공연 〈천년의 소리, 천년의 몸짓〉 (2017.7.21., 아스타나)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원

• 행사내용: 아스타나 엑스포 계기를 활용한 문화행사 개최 및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연계 활동으로 국립민속국악원의 사랑가, 살풀이, 문굿, 오고무 공연을 통해 한국전통문화의 진수를 선보임

■ 고려인 정주80주년 계기 갈라콘서트(2017.9.21., 알마티)

• 주최/주관: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한국문화원, 고려인협회, 고려극장

• 행사내용: 서울시 국악 관현악단과 한국문화원, 고려극장이 꾸민 한-카 문화교류 특별공연을 통해 양국간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문화교류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함

■ 이미징 코리아(2017.9.27.-10.18., 아스타나)

• 주최/주관: 한국문화원

• 행사내용: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와 사회적 현상 등 한국을 대표하는 7인의 사진작가의 다큐멘터리 사진전 개최

■ 한국문화축제 〈난타〉 (2017.10.1., 아스타나)
- 주최/주관: 한국문화원
- 행사내용: 세계적인 넌버벌 퍼포먼스 난타 공연을 통해 현지에 한국 공연 한류를 선도

■ 고려인 정주80주년 기념 사진전(2017.10.25.-11.8., 아스타나)
- 주최/주관: 한국문화원
- 행사내용: 고려인 정주80주년을 맞아 크즐오르다, 우슈토베, 알마티, 아스타나 4개도시를 중심으로 고려인들의 역사와 그들의 삶을 담은 사진전시회 개최

■ 2017 재즈코리아(2017.11.17., 아스타나)
- 주최/주관: 한국문화원
- 행사내용: 한국의 다양한 음악장르를 소개하고 한국재즈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소개

■ 한-카 수교 25주년 기념 음악회 〈국립합창단〉 공연(2017.11.7.-9., 아스타나, 파블로다르)
- 주최/주관: 한국문화원, 국립합창단
- 행사내용: 한-카 수교25주년 계기 카자흐스탄 2개 도시 순회공연을 통해 클래식, 한국민요, 오페라 등 현지에 한국 합창단의 수준높은 역량을 선보임

■ 한-카 수교 25주년 피날레 문화공연(2017.12.3., 아스타나)
- 주최/주관: 주카자흐스탄대사관, 한국문화원
- 행사내용: 서울시 무용단, 한예종 전통예술원, KBS 국악관현악단 단원 등을 초청하여 한량무, 도라지, 풍전산곡, 북청사자놀이 등 한국 전통문화의 진수와 현대문화(리베르 탱고, 연가 등)를 선보임으로서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림

■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발 예선전(2018.4.28., 아스타나)
- 주최/주관: 한국문화원
- 행사내용: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발의 카자흐스탄 예선전 개최

■ 한국영화제(2018.5.20.-6.2., 타라즈, 페트로파블, 세메이)
- 주최/주관: 한국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 행사내용: 지방도시 중심의 찾아가는 최신한국영화상영회를 통해 한국 문화전파 및 한류 홍보

■ 민화전시회(2018.6.13.-8.12., 아스타나)
- 주최/주관: 한국문화원, 한국민화뮤지엄, 대통령 박물관
- 행사내용: 한국민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한국 현대 민화 특별전시회 개최

■ 아스타나 K-Pop 파티(2018.7.13., 아스타나)
- 주최/주관: 한국문화원
- 행사내용: K-Pop 아이돌 초청공연 및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발 예선전 수상 팀들의 커버댄스 공연 개최

■ 넌버벌 퍼포먼스 〈파이어맨〉 (2018.7.20.-7.21., 아스타나)
- 주최/주관: 한국문화원
- 행사내용: 넌버벌 퍼포먼스 '파이어맨' 공연을 통해 현지에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고 공연 한류를 선도

■ 한국 전통혼례 및 성년례(2018.8.11., 아스타나)
- 주최/주관: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한국문화원, 도산우리예절원
- 행사내용: 한국의 전통혼례와 성년례 재연행사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진수를 선보임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서양문화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늘어났다. 그 중에서도 카자흐인들은 역사적, 문화적 유사성을 지닌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편이다. 카자흐인들은 한국드라마가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지 않고 대신 경로사상, 가족중심, 사랑 등의 카자흐인들이 좋아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녹아 있어 친근감을 느끼고, 재미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지난 25년 동안 양국 간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증진되고 인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것도 카자흐인들이 우리 문화를 좋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일방적으로 우리 문화의 우월성을 내세우거나, 현지의 다양한 층의 시각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사 진행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게 된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정부는 양방향 문화교류를 지향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방향에서 행사나 교류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 카자흐 현지 기관 및 관계 인사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공동 개최, 참여, 후원 등의 형식

으로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자흐스탄 문화에는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종교적(이슬람) 영향 등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카자흐스탄 내 한류 동호회는 2010년 이후 결성되어 회원 수가 증가하고, 활동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회원들의 연령대는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한류 스타(아이돌 그룹), K-Pop 및 드라마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다. 2011년 이후 플래시몹, 송년파티 등의 off-line 활동을 가시화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원과 한인단체가 주관하는 K-Pop 대회 및 한류 페스티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현지 한국문화 전파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2) 동호회 현황

1 K-Pop Kazakhstan Fans United

회원 수	2,723명
주요 활동	K-Pop 팬클럽
웹사이트	vk.com/kpopkfu

2 KAZAKHSTAN K-Pop GENERATION

회원 수	15,520명
주요 활동	K-Pop 팬클럽
웹사이트	vk.com/kpopinkz

3 Клуб Любителей Корейских Сериалов и K-Pop

회원 수	8,927명명
주요 활동	K-Pop, K-drama 팬클럽
웹사이트	vk.com/koreandramasfanclub

6 최근 문화행사

(1) 2016년

사업명	기간	장소	내용
순회상영회	4~5월	5대 주요도시	〈나의 파바로티〉, 〈그대를 사랑합니다〉 등의 4편의 영화 상영
한국가곡 부르기 경연대회	4월 23~25일	알마티	카자흐스탄 전국의 국립음악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초 가곡경연 개최
Korea Festival	5.13.	국립유라시아대학	'한국학 렉처'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특별 강의
	5.30.		재즈공연(말로, 박주원 출연)
	6.6.		퓨전전통공연('해금 플러스' 출연)
제1회 K-Pop Star Kazakhstan	5.15.	알마티	약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컬 5개 팀과 댄스 10개 팀이 한국 노래와 춤으로 실력을 겨루었다.
Feel Korea in Kazakhstan	9.23.-25.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최초 대규모 KPOP 콘서트 (서강준, 빅스, 김태우, 달샤벳 등 총 8팀 참가)
제7회 한국영화제	10.2.-11.5.	우랄스크, 코스타나이, 타라즈, 탈티코르간, 쉼켄트, 세메이, 파블로다르, 악타우, 카라간다, 아스타나	〈역린〉,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등의 6편의 영화 상영
한국문화축제	10.7.~8.	알마티 (한국교육원)	K-Pop공연, 한국영화 상영, 전통놀이, 한국음식 체험 등 문화 축제 개최

(2) 2017년

사업명	기간	장소	내용
평창올림픽 홍보	1.28.~12.31	아스타나 및 주요지방도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동계 패럴림픽 홍보
한국영화제	3.17.~18.	알마티	〈부산행〉, 〈노브레싱〉 등 2편의 영화 상영
코리아소셜미디어 콘테스트	4~5월	알마티	한국관련 디지털 컨텐츠 제작 콘테스트

사업명	기간	장소	내용
제2회 K-Pop Star Kazakhstan	5.14.	알마티	약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컬 7개 팀과 댄스 9개 팀이 한국 노래와 춤으로 실력을 겨룸
한국 문화의날	6.5.~6.	타라즈	K-Pop 및 사물놀이 공연, 총영사 특강, 한국퀴즈대회 등 진행
	12.13	크즐오르다	
아스타나 엑스포 계기 문화공연	7.21.	아스타나	아스타나 엑스포 계기를 활용한 문화행사 개최 및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연계 활동으로 국립민속국악원의 사랑가, 살풀이, 문굿, 오고무 공연을 통해 한국전통문화의 진수를 선보임
고려인 정주80주년 계기 갈라콘서트	9.21.	알마티	서울시 국악 관현악단과 고려극장, 한국문화원이 공동개최한 한-카 문화교류 특별공연을 통해 양국 간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문화교류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
한국문화축제 〈난타〉	10.1.	아스타나	세계적인 넌버벌 퍼포먼스 난타 공연을 통해 현지에 한국공연 한류를 선도
제8회 한국영화제	10.7.-11.10. 7.-11.10	오스케멘, 악토베, 아트라우, 아스타나, 코스타나이	〈부산행〉, 〈두근두근 내 인생〉, 〈군도〉 등의 3편의 영화 상영
고려인 정주80주년 기념 사진전	10.25.-1.24	아스타나 및 주요지방도시	고려인 정주80주년을 맞아 크즐오르다, 우슈토베, 알마티, 아스타나 4개 도시를 중심으로 고려인들의 역사와 그들의 삶을 담은 사진전시회 개최
한국문화축제	11.2~4	한국교육원/ 투란대학교	총영사 특강, 한국퀴즈대회, 한국문화체험행사 등
2017 재즈코리아	11.17.	아스타나	한국의 다양한 음악장르를 소개하고 한국재즈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소개
한-카 수교 25주년 기념 국립합창단 음악회	11.7.-11.9.	아스타나, 파블로다르	한-카 수교25주년 계기 카자흐스탄 2개 도시 순회공연을 통해 클래식, 한국민요, 오페라 등 현지에 한국 합창단의 수준 높은 역량을 선보임
한-카 수교 25주년 피날레 문화공연	12.3.	아스타나	서울시 무용단, 한예종 전통예술원, KBS 국악관현악단 단원 등을 초청하여 한국 전통문화의 진수를 선보임

(3) 2018년

사업명	기간	장소	내용
창원 K-Pop 페스티발 예선전	4.28.	아스타나	창원 K-Pop페스티발 카자흐스탄 예선전 개최
제9회 한국영화제	5.20.~6.2.	타라즈, 페트로파블, 세메이	〈조선 명탐정〉, 〈미쓰와이프〉 등 지방도시 중심의 찾아가는 최신한국영화 상영회 개최
한국 민화 특별전	6.13.~8.12.	아스타나	한국민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현대 민화 특별전시회 개최
아스타나 K-Pop 파티	7.13.	아스타나	K-Pop 아이돌 초청공연 및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발 예선전 수상 팀들의 커버댄스 공연 개최
넌버벌 퍼포먼스 '파이어맨'	7.20.~7.21.	아스타나	넌버벌 퍼포먼스 '파이어맨' 공연을 통해 현지에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고 공연 한류를 선도
한국 전통혼례 및 성년례	8.11.	아스타나	한국의 전통혼례와 성년례 재연행사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진수를 선보임
코리아소셜미디어 콘테스트	4~5월	알마티	한국관련 디지털 컨텐츠 제작 콘테스트
제3회 K-Pop Star Kazakhstan	5.13	알마티	약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컬 7개 팀과 댄스 9개 팀이 한국 노래와 춤으로 실력을 겨룸
한국문화축제	5.25~26	한국교육원/ 투란대학교	한국영화제, 한국음식체험, 한국전통놀이체험 행사 등
한국문화의날	2.26~27	탈디코르간	K-Pop 및 사물놀이 공연, 총영사 특강, 한국퀴즈대회 등
	9.24~25	쉼켄트	

7 여행정보

(1) 비자

일반여행객은 3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며 별도의 공연 비자는 없다.

■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1-48
- 전화 : 02-391-8906
- 홈페이지 : www.kazembassy.org

(2) 안전 정보

시내 중심지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외곽지역은 치안상태가 불안정하다. 외출 시 가급적 2인 이상 이동하는 것이 좋다. 현지 경찰의 불시검문에 대비해 가급적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안내자와 동행하며 여권은 늘 소지하도록 한다.

8 현지 문화

(1) 미팅

카자흐스탄 정부 고위측 대상 면담 신청은 최소 2주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정부 인사들과의 면담이나 행사 참석은 며칠 전에야 확답을 주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다. 거래 상담을 위한 회의는 보통 자기 사무실에서 편안한 분위기 아래 진행하기를 희망한다. 면담 장소에서는 간단한 악수 및 인사말 후에 Host측이 환영 인사하고, 이어 방문자측이 답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2) 카자흐 인사, 이름 부르기

카자흐인의 성명은 이름-중간 이름(부칭)-성으로 구성된다. 중간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만든다. 윗사람을 부를 때나 회의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군가를 호칭할 때는 이름과 부칭을 이어 부르면 된다. 직함을 함께 부를 때는 〈직함+Full name(부칭 생략 가능) : Chairman 'Roza Mixailovna Dulshat'〉와 같이 부르도록 한다.

아래 사람이나 친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만을 부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이름에는 몇 가지의 애칭형(지소형)이 있어서 그 중의 하나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미하일'이라는 이름만으로 부를 경우, '미샤'라는 애칭형으로 부를 수 있다.

(3) 식탁문화와 손님맞이

카자흐 민족은 친척이나 친구들이 방문하길 좋아하며, 또한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를 복된 일이라고 여긴다. 카자흐인들은 모든 손님은 신이 보내셨다고 생각하기에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일지라도 기꺼이 자신의 집에 들여 풍성하게 음식을 대접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특별한 손님이나 행사 때에는 항상 고기요리를 준비하는데, 특히 말고기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전통음식으로는 '베스바르막'(다섯 손가락이라는 뜻)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요리는 양고기, 말고기의 여러 부위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이며 넓적한 밀가루 빵을 곁들여 먹는다. 중앙아시아 유목 민족들은 손으로 식사를 하던 전통이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이러한 문화가 유지되어 특별한 민족행사 때 손을 사용해 베스바르막이라는 전통 음식을 먹곤 한다.

(4) 종교 관련

130여 민족이 공존하는 카자흐스탄에는 종교 또한 다양하다. 이슬람, 러시아 정교, 가톨릭 등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그중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종교는 역시 이슬람교이다. 카자흐인들은 스스로를 무슬림으로 생각하지만 이슬람에 대한 지식과 실천은 상당히 미약한 편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이슬람은 종교적 기능보다는 생활규범이자 전통문화의 중요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5) 고려인 이주와 정착

1937년 9월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약 17만의 극동지역 거주 한인 이주민을 실은 열차가 최초로 카자흐스탄 남동부에 위치하는 우슈토베에 도착하였다. 당시 불모지 벌판이었던 우슈토베는 고려인들이 이주하면서 마을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약 10만 명의 고려인들이 바로 이 한인 이주자들의 후손이다.

당시 카자흐인들은 강제 이주되어 온 한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현재도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카자흐인들이 보여준 당시의 환대와 친절을 잊지 않고 있다. 초기 정착 시 고려인들은 주로 벼농사에 종사하여 카자흐스탄에 최초로 논농사를 도입한 민족이 되었고, 이는 카자흐스탄이 소련 공화국 중 3번째로 넓은 논을 가진 나라가 되는데 기여하였다.

(6) 팁 문화

팁 문화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계산서에 봉사비가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로 팁을 주지 않아도 된다.

9 현지 연락처

(1) 긴급 연락처

- 화재 : 101
- 경찰 : 102
- 응급차 : 103
- 가스신고 : 104
- 전화번호 안내 : 105

(2) 보건 의료

1 일반 보건상황

카자흐스탄은 일교차가 매우 심하고, 습도와 기압이 낮아 항상 건강에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스타나와 알마티 이외의 지역은 수도 시설이 좋지 않아 청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여름 7, 8월 일몰 시간은 22:00경, 겨울에는 17:00경이다. 겨울에는 매우 건조하므로 피부 건강에 주의해야 하며 여름에는 강한 햇빛과 자외선으로 모자와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크림이 필수적이다.

2 보건 상 주의사항

수돗물에는 석회성분이 많고 수질이 좋지 않으므로 식수는 생수를 구입하여 마시는 것을 권장한다. 지방의 경우 수도 시설이 없는 집도 많고 급수사정도 나쁘나 아스타나나 알마티는 큰 문제가 없는 편이다.

우유와 유제품은 시장이나 길에서 사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규모가 작은 상점에서는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고 사야 한다. 특히 께피르(카자흐스탄 현지인들이 많이 마시는 발효유), 스메타나(발효크림), 아이스크림 등은 특히 주의 필요하다.

특별한 풍토병이 없으나 열악한 의료 환경이나 위생 상태를 감안하여 간염 백신, 독감, 파상풍 등 예방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

(3) 대사관 연락처

1 대사관(아스타나)

- 주소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Kazakhstan Presidential Plaza business-centre(Renco) 12th floor, Kosmonavtov St.62, Astana, 010000 Kazakhstan
- 전화 : 8(한국에서는 +7)-7172-970-490~1
- 팩스 : 8-7172-790-492
- 비상연락처 : 8-705-757-9922
- 일반영사업무 및 사증업무 문의 : (8-7172) 790-490

2 주알마티 총영사관

- 주소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lmaty, Kaldayakov St. 66A, Bogenbai Batyr St. Corner Almaty, Kazakhstan
- 전화 : 8-727-291-0490, 0049
- 팩스 : 8-727-291-0399
- 영사(비상시) : 8-777-705-6634

3 한국문화원

- 주소 : Korean Cultural Center 13 Imanov St.(Nursaulet Business Center #2) Astana, 010000, Kazakhstan
- 전화 : 8-7172-901-113~115
- 팩스 : 8-7172-901-116
- E-mail : koreanculture@mail.ru

4 한국교육원 : 8-727-392-9120

5 한국석유공사(아스타나) : 8-7172-790-429

6 한국석유공사(알마티) : 8-727-311-1521

7 KOTRA : 8-727-245-9493

10 기타

(1) 날씨

대륙성 기후로 계절 간 온도차와 일교차가 크다. 1월 평균기온은 북부는 -18℃, 남부는 -5℃이고, 7월 평균기온은 북부는 19℃, 남부는 28℃이다.

(2) 근무시간

- 관공서 : 09:00~18:00(토, 일요일 휴무)
- 은행 : 09:00~18:00(일부 대형상점 입주 지점은 토, 일요일 근무)
- 백화점 : 10:00~20:00(토, 일요일 정상영업)
- 슈퍼마켓 : 10:00~22:00(토, 일요일 정상영업)
- 재래시장 : 09:00~18:00(통상 매주 월요일 휴무)

(3) 환전

환전은 호텔, 은행, 환전소에서 가능하며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항상 현지화를 소지하도록 한다.

- 카자흐스탄 화폐단위 : 텡게(Tenge, KZT)

(4) 출입국 시 외화신고

카자흐스탄은 외화 반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미화 10,000불 이상 외화를 소지하고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총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출국 시 신고한 금액보다 외화 소지액이 많을 경우, 소지외환 압수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공

식적인 해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전압

220V, 50Hz

(6) 교통

1 항공

■ 아스타나(나자르바예프) 국제공항

아스타나 시내에서 차량으로 약 20분 소요된다. 주로 국내선이 취항하며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이스탄불, 두바이, 아부다비, 타쉬켄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선은 알마티 국제공항에서 취항하고 있으나 우리 항공기는 취항하지 않고 있다. 아스타나-인천 노선은 에어아스타나 항공이 주 2회 운항하고 있다.

■ 알마티 국제공항

알마티 시내에서 차량으로 약 30분 거리에 있다. 인천-알마티 간 아시아나, Air Astana 항공이 취항하고 있으며, 알마티-인천 노선은 에어아스타나 항공이 주 4회, 아시아나 항공이 수요에 따라 주 3~4회 운항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우즈베키스탄, 터키, 러시아, 태국, 인도 등 국가와 일부 유럽 주요 도시(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런던 등) 노선을 운항한다.

2 버스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있으나, 노선확인이나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외국인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3 택시

'택시' 표시를 부착하고 공식적으로 영업을 하는 영업용 택시가 있으나 수가 적어 도로변에서 택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거리에는 부수입을 목적으로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차량 이용 시 사전에 가격을 흥정한 후 탑승한다. 최근에는 UBER, YANDEX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

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4 기차

특급, 일반 등 등급별 선택이 가능하나 상태가 노후한 차량들은 양호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2016년부터 교체하고 있는 신차량들을 기준으로 서비스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7) 전화

1 국제전화

-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걸 때 : 8-10-82(국가번호)-2(서울 지역번호)-전화번호 순
-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걸 때 : +7(국가번호)—(지역번호)

호텔에서 국제전화 사용 시, 사용료는 분당 4달러 정도로 높으므로 가급적 전화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휴대폰은 한국에서 미리 국제전화 로밍 서비스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나 요금이 매우 비싼 편이다. 휴대폰 임대 서비스는 없으며, 휴대폰을 구입하고 SIM카드 삽입 후 사용할 수 있다.

2 시내전화

시내전화는 기본요금 외의 추가 비용 없이 사용 가능하다. 호텔에서 거는 경우, 호텔 측이 지정한 번호를 누르거나, 시내 전화번호를 바로 누르면 된다. 단,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경우 8번(해외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7번)을 누르고 전화번호를 누른다.

3 시외전화

전화번호 앞에 8번과 지역번호를 누른다.

※ 카자흐스탄 주요도시 지역번호

- 아스타나 : 7172
- 알마티 : 727
- 카라간다 : 7212
- 침켄트 : 7252

(8) 인터넷

인터넷은 한국보다 느리고 비싸지만 현지 업체(Beeline, Kcell, Altel, 카작텔레콤 등)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카자흐스탄의 전화선 자체가 불안정해 자주 끊기거나 접속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나, 차츰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고 요금도 내리는 추세이다.

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26. 크로아티아

1 개황

- **수 도 :** 자그레브(Zagreb, 약 80만 명)
- **인 구 :** 425만 명
- **면 적 :** 56,594㎢(한반도의 1/4)
- **민족구성 :** 크로아티아인(89.6%), 세르비아인(4.5%), 기타
- **종 교 :** 가톨릭(86.3%), 세르비아정교(4.4%), 회교(1.5%), 기타(7.8%)
- **시 차 :** 우리시간 -8(GMT +1, 서머타임시 -7)
- **언 어 :** 크로아티아어(공용어, 슬라브계 언어로 라틴문자 사용)
- **1인당 GDP('17년) :** 12,862미달러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 총교역 3억 4,359만 미달러(수출 3억 2,760만 미달러, 수입 1,599만 미달러)
- **재외국민('18년 9월 현재) :** 180명

2 문화적 특성

(1) 서유럽 및 남동유럽, 지중해의 교차로

크로아티아는 유럽과 지중해, 남동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국가로의 육로 및 해상 이동이 용이하다. 또한 크로아티아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수도 자그레브를 중심으로 동서로 길게, 아드리아 해안을 따라 남동쪽으로 길게 뻗어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유럽 문화와 남동유럽, 지중해 문화의 특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전통문화는 이 지역에 14세기 이전부터 정착된 로마 가톨릭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했고, 민속 풍습 및 의식들이 가톨릭 성일 등과 밀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대 일리리아, 그리스, 로마제국 및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며 다양한 사회 문화적 생활방식에 영향을 받았으며,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등 다양한 시대별 유물이 혼재한다.

지역별로는 내륙지역은 주로 중유럽의 영향, 해안지역은 이태리와 그리스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건축, 미술, 음악, 식문화 등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한 주변 강대국들의 압력에도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으며, 복잡한 역사·사회·정치·문화·환경 속에서도 전통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아울러 독창적인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창조해 오고 있다(3명의 노벨수상자를 비롯해 수많은 발명가와 예술가들이 배출됨).

(2) 발칸지역에서 가장 높은 문화수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음악 또는 체육교육을 받아야 하며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수시로 있어 문화생활을 할 기회가 많아 국민들의 문화수준이 매우 높다.

또한 크로아티아에서 시작된 나이브(Naive) 예술은 크로아티아적 특색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거울을 이용해 유리의 한쪽 면에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다른 면을 통해 그림을 바라볼 수 있게 그려지며, 19세기 중 유럽과 오토만 제국 등에서 유행하였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크로아티아에 처음으로 소개된 한국문화는 태권도라고 할 수 있다. 태권도는 1968년 처음으로 크로아티아에 도입된 이후 매우 인기 있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전국 140여개의 태권도 클럽에서 약 15,000명이 수련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인들은 한국과 관련하여 삼성, LG, 현대 등 기업을 우선 떠올리고, 최근에는 한국영화, 한국음식, 뷰티, K-Pop 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13년 한국에서 방영된 한 TV 프로그램으로 인해 크로아티아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크로아티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K-Pop의 경우 주로 10대에서 2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2011년 12월 첫 모임을 자그레브에서 가진 후, 수시로 모임을 갖고 있다. 그 전까지 일부 팬들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관심을 보였으나 K-Pop 동호회가 결성된 이후 보다 체계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상호 정보교환은 Facebook을 통해 하고 있다.

(2) 동호회 현황

1 K-Pop Town

성격	K-Pop 동호회
회원 수	약 200명
세부활동 현황	• Facebook을 통해 정보교환 • (오프라인) 주기적으로 모임(자그레브)

4 최근 문화행사

(1) 2017년 문화행사

■ [한국주간행사] 한식 페스티벌 개최(5.2.)

- [한국주간행사] 한식교육 및 시연회 개최(5.3.)
- [한국주간행사] 김형규 피아노 독주회 개최(5.3.)
- 제4회 K-Pop 노래 및 댄스경연대회(5.6.)
- 한-크 스트리트 댄스 합동공연(Dance Connection) 개최(5.6.)
- 제7회 한국영화주간(10.23.~10.29.)
- 2017년도 한국대사배 야스트렙 태권도 대회(11.26.)

(2) 2018년 문화행사

- 한국 전통음악·무용 공연(4.22)
- 한국고전영화주간(5.17-23)
- 제5회 K-Pop 노래 및 댄스 경연대회(7.7)
- 제8회 한국영화주간(10.22-28)
- 2018년 한국대사배 야스트렙 태권도 대회 및 국기원 태권도 시범(11.25)

5 여행정보

(1) 비자

1 일반여행객

사증면제협정으로 90일까지 무사증 체류가 가능하며 입국시 출국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이 필요하다.

2 공연비자

크로아티아 현지 공연을 위한 방문시 공연의 성격에 따라 비자 또는 체류 허가의 필요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크로아티아 외교부 또는 내무부에 문의가 필요하다.

3 주한크로아티아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 고려대연각타워 13층 1302호
- E-mail : igor.prelovsek@mvep.hr

■ 팩스 : +81 3 5469 3015
■ 홈페이지: jp.mvep.hr
■ E-mail : croemb.tokyo@mvep.hr
※ 2018년 10월 주한크로아티아 상주대사관 개관 예정

(2) 안전정보

1 여행경보단계 : 미분류

2 사건·사고 현황

크로아티아는 연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국가로서 관광 성수기인 여름철에 국경출입국 사무소, 공항만, 열차, 버스터미널 등에서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권 또는 소지품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관광객 사건·사고의 유형으로는 부주의로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드물게 버스 정거장이나 철도역에서 소지품을 도난당하는 경우도 있다.

3 자연재해

크로아티아는 태풍이나 허리케인과 같은 재해는 없으나, 지중해 대륙붕 지역의 지각변동 영향을 받아 해안지역의 경우 간헐적인 지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겨울철 내륙 산간 지역에서는 돌발적인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으며, 해안지역에서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강풍의 영향을 받아 고속도로의 통행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4 유의해야할 지역

크로아티아 국민들은 외국인에게 친절한 편이며 야간에도 주요 도시에서 보행이 자유로운 정도이나, 사람들의 보행이 많지 않은 곳이나 Bar 등 클럽에서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예방 차원에서 다니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6 현지연락처

(1) 긴급 연락처

- 비상시(종합 비상대응 센터) : 112
- 경찰서 : 192
- 소방서 : 193
- 응급환자(앰뷸런스) : 194

(2) 의료기관 연락처

- 자그레브 종합병원(KBC Zagreb : Klinicki Bolnicki Centar Zagreb)
  - 주소 : Kispaticeva 12, 10000, Zagreb
  - 연락처 : (01) 2388-888(한국에서 걸 때 : +385-1-2388-888)

(3) 주크로아티아대사관 연락처

- 주소 : Ksaverska Cesta 111/A-B, 10000 Zagreb, Croatia
- 전화번호 : (+385) 01 4821 282
- 팩스 : (+385) 01 4821 274
  - 영사과 상동
- E-mail : croatia@mofa.go.kr, koreaembassy@net.hr
- 홈페이지 : overseas.mofa.go.kr/hr-ko/index.do
- 비상연락처
  - 당직 : (+385) 091-2200-325
  - 사건·사고 : (+385) 091-2200-325
  - 일반민원 : (+385) 091-2200-325
- 업무시간 : 월~금요일 08:30~17:00

7 기타

(1) 날씨

크로아티아는 남북으로 긴 국토를 가진 국가로 남부 해안 지역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는 반면 북부 내륙 지역은 대륙성 기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남부 및 해안지대는 여름철에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는 비교적 온난한 기후를 보이나, 수도 자그레브를 중심으로 한 북부내륙지역은 무더운 여름과 춥고 눈이 많은 겨울 날씨를 지니고 있다.

■ 내륙지방
- 봄·가을 : 0℃~15℃
- 여름 : 19℃~39℃
- 겨울 : -10℃~5℃

■ 해안지방
- 봄·가을 : 10℃~20℃
- 여름 : 21℃~39℃
- 겨울 : 6℃~11℃

■ 평균 강수량 : 940mm

■ 날씨정보사이트 : www.meteo.hr

(2) 교통정보

자그레브와 주요 도시는 전차와 시내버스 노선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고 대부분의 도시는 간선도로를 따라 시내버스가 정시 운행되고 있어 대중교통이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자가 운전시 수도 자그레브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도로는 여타 유럽 도시와 마찬가지로 일방통행이 많으며, 노변 주차가 일반적이므로 다소 복잡하고 불편하게 생각될 수 있다. 또한 각종 도로 표지판이 크로아티아어로만 표기되어 있고 지상으로 운행하는 전차 옆을 운전해야 하므로 도로 및 지형에 충분한 사전 지식이 없는 초행길에는 지형 식별이 쉽지 않다.

(3)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으나, 여름철 등 관광 성수기에는 해안가 물놀이 안전사고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기타

1 전력사용현황

사용전압은 220V이나 50Hz로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있다. 현지 TV 및 Video는 PAL 방식이다.

2 환전

크로아티아에서는 현지화인 쿠나(KUNA)가 통용되므로, 달러화나 유로화를 쿠나로 환전해야 한다. 주요 은행과 시내 환전소에서 환전할 수 있으며, 1달러에 6.1쿠나, 1유로에 7.3쿠나(2017.기준) 정도이다. 관광 성수기에 일부 관광지에서 숙박비 등을 유로로 지불할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상점이나 식당 등에서는 쿠나가 통용된다.

3 통신

■ 전화

공중전화는 시내요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제 전화의 경우는 우체국 내의 전화를 사용하거나 국제전화카드 사용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 국내장거리 전화 : 지역번호+전화번호
- 국제전화 : 00+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

■ 우편

엽서나 편지를 발송할 때는, 트램역 등 시내 곳곳에 있는 Tisak에서 우표(marka)를 구입하여 도처에 있는 노란색 우편함에 넣으면 되며, 한국까지 도착은 1주에서 2주가량 소요된다. DHL 등 속달우편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인터넷 사용 현황

크로아티아 전역에서 전화선 또는 전용회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인터넷 속도가 빠른 편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자그레브 주요 호텔 등 시내 곳곳에서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이 증가하고 있다.


KOREA
FOUNDATION
KF
한국국제교류재단

27. 키르기즈스탄

1 개황

- **수 도 :** 비쉬켁(Bishkek, 인구 약 100만 명)
- **인 구 :** 626만 명(2017년 기준)
- **면 적 :** 198,500㎢(세계 87위)
- **기 후 :** 대륙성 기후
- **위치 및 지형 :** 북위 39°~43° 중앙아시아 중앙의 내륙국으로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중국과 접경, 국토의 80%가 해발 2,000m 이상으로, 국토의 7~8%만이 경작가능지역
- **시 차 :** 우리시간 -3(GMT+6)
- **언 어 :** 키르기즈어(공식어), 러시아어(공용어)
- **1인당 GDP('17년) :** 1,206달러(총 GDP 71.7억 달러)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 총 8,548만 미달러(수출 8,502만 미달러, 수입 46만 미달러)

2 문화적 특성

키르기즈스탄은 중앙아시아 전통문화와 러시아 문화가 혼합된 특징을 보인다. 중앙아 유목민족의 전통과 풍습이 남아 있어 친족주의, 가부장적 가족형태

그리고 손님을 환대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노인 공경과 효도, 윗사람 존중 등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유사한 면도 있다. 또한 80년 동안 구소련의 공화국으로서 러시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근래에는 외국문화의 영향으로 키르기즈스탄의 문화가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한국의 위상은 대체로 높으며 K-Pop, 드라마, 영화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또한 높은 편이다. 이는 키르기즈스탄 내 삼성, LG, 현대 등 우리 기업의 약진을 비롯한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구소련 시절부터 거주해온 고려인들의 성실한 이미지 덕분이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한국드라마 '꽃보다 남자'를 시작으로 한류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으며, 극중 인물인 '구준표(이민호 분)'가 현지의 여심을 사로잡았고 배우 이민호의 인기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드라마, 영화로 시작된 한류는 현재 K-Pop까지 이어져 아이돌 댄스 그룹, 솔로 여성 가수의 인기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 'BTS'의 인기가 10~20대 여성들 사이에서 매우 높다.

한류 초기 방송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접하던 한류 팬들은 현재 YouTube 등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드라마, 영화, K-Pop 등을 접하고 있으며, 특히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해외 콘텐츠 포털사이트 이용률이 매우 높다. 러시아, CIS 지역에서 유포되는 해적판 CD(러시아어판)들도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합법적인 한국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사관 주도로 국립중앙도서관 내 설치한 한국센터(2013년 10월 개소)에서는 한국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2) 분야별 현황

1 한국어

2001년 한국교육원 설립을 시작으로 초중고 통합교육기관 및 대학교 한국어 강의를 통해 연 평균 8,700여 명 이상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한국어 실력을

보유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한국 유학과 한국기업 취업 등 다분야에서 활동하며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15년 한국에서 열린 '퀴즈 온 코리아' 결승전에서 키르기즈스탄 참가자가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2 K-Pop

한국어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전파되던 K-Pop은 최신 아이돌 그룹 등의 영향으로 저변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등 유행곡들이 대대적인 열풍을 일으켰다. 또한 2013년부터 매년 대사관이 주최하고 있는 'World K-Pop Festival 지역예선'에는 매년 400~500여 명이 참가하여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3,000여 명의 관람객들이 지역예선을 관람하는 등 K-Pop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방송

2009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방송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현지 영화 〈구준표와 결혼하는 법〉이 제작되고, 배우 이민호가 출연한 후속 드라마 〈시티헌터〉, 〈상속자들〉이 모두 인기를 얻었다. 또한 한류 드라마 열풍으로 국영방송사(KTRK)에서 〈대장금〉이 방영되는 등 한국드라마가 인기 해외드라마로 자리매김하였으며 2017년에는 주재국 주요 방송사인 NTS가 〈빅맨〉을 정규 편성하여 방영하였다. 현재 대사관은 주요 방송사인 NTS 및 KTRK와 2019년도 주재국내 한국 드라마 방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4 영화

2009년부터 매년 한국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2~3일간 매일 2편씩 상영하며 누적관객 수는 평균 3천명 이상이다. 인기장르인 액션, 멜로의 경우에는 영화관 좌석의 제한으로 거의 만석을 이루는 등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또한 2017년부터는 주재국 제2의 도시인 오쉬에서도 한국영화제를 개최함으로써 한국 영화 컨텐츠 접근이 어려운 지방에 사는 주재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오고 있다.

5 한식

드라마와 영화에서 소개된 잡채, 불고기, 비빔밥, 김밥 등이 인기 있는 편이

며, 비쉬켁 시내 한식당과 한국 식료품점에도 현지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 주재국에 거주하는 약 1만 7천여 명의 고려인의 영향으로 고려인 음식도 한식으로 일부 대중화되어 있다. 특히, 2016년부터 대사관에서 개최해오고 있는 '한국의 맛(한식 시연·시식 및 한국 식재료 전시·판매)'에는 현지인 1,0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한식에 대한 주재국민의 관심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6 태권도

당지에는 키르기즈태권도협회와 일반 태권도장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서 태권도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국대사배 태권도대회가 가장 권위 있는 행사로 지난 7년간 이어져 왔다. 특히, 2014년에는 대회가 키르기즈스탄 대통령배로 많은 관심 속에 치러졌고, 2018년에는 총리배로 개최되는 등 주재국 고위인사들이 태권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7 뷰티

한국 드라마 및 영화의 인기로 인해 현지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과 패션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일반 화장품 매장에서 한국 화장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 화장품 전문 판매점도 비쉬켁에 다수 문을 열었다. 화장품뿐 아니라 한국 헤어제품(샴푸, 린스, 에센스, 오일)도 현지인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한국과 같은 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는 현지인들은 양국의 문화적 친연성과 동양적인 정서가 담긴 한국 드라마, 영화를 친근하게 받아들인다. 전체 인구 평균 나이가 27세로 젊은 세대 위주의 문화 및 여가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한국 K-Pop 아이돌, 드라마 속 한국인(청년)들의 삶과 생활 등에 대한 동경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 한국 유학, 취업 및 화장품 등 한국제품을 선호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문화 전반에 접근하고 있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키르기즈스탄은 세속 이슬람국가이므로 이슬람 종교와 이슬람권 민족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콘텐츠가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 한국에 비해 미디어에서 성(性)에 관한 노출이 적고 수위가 낮은 편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 역사에 대한 존중 없이 주재국의 경제적인 수준, 국제 사회 내 비중만으로 일방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한류동호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K-Pop 학원 등 한류 관련 자생적인 단체가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6 2018년 문화행사

(1) 비쉬켁 시

1 K-Pop World Festival 키르기즈스탄 지역 예선 본심

- 일시 및 장소 : 5.23(수), 스포츠 궁전
- 주최/주관: 주키르기즈대사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키르기즈공화국 지회
- 행사 내용 : 1차·2차 예선 심사를 거쳐 21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공연장 최대수용 인원(3,000명)을 초과하는 많은 관객이 몰리는 등 행사가 성황을 이룸.

2 제10회 비쉬켁한국영화제

- 일시 및 장소: 5.14(월), 5.16(수), 아시아몰 브로드웨이 극장
- 주최/주관: 주키르기즈대사관
- 행사 내용: 올해 10회째를 맞는 비쉬켁 한국영화제는 2일간 총 2편의 영화를 4회에 걸쳐 상영함.

3 한국의 맛

- 일시 및 장소: 5.10(목), 골든드래곤 호텔
- 주최/주관: 주키르기즈대사관
- 행사 내용: 한국 음식 시연·시식, 식재료 전시·판매로 이루어진 “한국의 맛”에 800여 명의 현지인이 참석함. 비쉬켁 내 8개 한식당이 참여하여 한국 음식을 시연하고 시식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2개의 한국 식재료 판매점이 참여하여 주재국민들에게 한국 식재료를 판매함.

4 키르기즈공화국 총리배 태권도대회

- 일시 및 장소: 2.18(토), 국립 필하르모니 극장
- 주최/주관: 주키르기즈대사관/ 키르기즈 세계태권도협회
- 행사 내용: 총 8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1,200여 명의 관람객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대회는 겨루기로 진행되었으며, 특별히 한국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도 함께 진행함. 주재국 총리배로 개최된 금번 대회를 주재국 언론이 대거 취재하여 보도함으로써 홍보 효과가 높았음.

5 한국어말하기대회

- 일시 및 장소: 10.10(수), 키르기즈 기술대 한-키 정보접근센터
- 주최/주관: 주키르기즈대사관, 비쉬켁 한국교육원
- 행사 내용: 초중고 및 대학부로 나뉘어 각 10여 명 정도의 학생이 참가하였으며, 전공자는 물론 비전공자들도 상당한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보유하는 등 나날이 실력이 향상되고 있음.

(2) 오쉬 시

1 오쉬 한국영화제

- 일시 및 장소: 4.24(화).~25(수), 오쉬 세메테이 극장
- 주최/주관: 주키르기즈대사관, 오쉬 세종학당
- 행사 내용: 올해 두번째로 주재국 제2의 도시 오쉬에서 진행된 한국 영화제는 2일간 총 2편의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관람객 대부분이 영화 상영 내내 박수를 치거나 탄성을 내뱉는 등 적극적인 관람 태도를 보임. 또한 준비된 좌

석(160)이 부족하여 2좌석에 3명이 앉거나 계단에 앉아서 관람할 정도로 한국 영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줌.

2 제3회 한국어말하기대회(5.16.)

- 일시 및 장소: 5.10(목), 오쉬 기술대 대강당
- 주최/주관: 주키르기즈대사관, 오쉬 세종학당
- 행사 내용: 초중고 및 대학부로 나뉘어 총 20여 명 정도의 학생이 한국에 관해 발표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재국 내 제2의 도시인 오쉬에서의 높은 한국어 수준과 학습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음.

7 여행정보

(1) 비자

2012년 1월부터 60일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60일 이상 체류 시에는 주한키르기즈대사관 또는 비쉬켁 마나스공항에서 거주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한다.

(2) 안전정보

2010년 일부 국경 부근 국가와의 분쟁 등으로 키르기즈 남부지역(오쉬주, 잘랄아바드주, 바트켄주)는 여행자제 지역이었다가 2018년 초 여행제한을 해제하였다. 심야 시간대에는 외국인이나 취객을 대상으로 한 절도·강도 사건, 대중이 운집한 곳에서 소매치기도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 현지 문화

키르기즈 문화는 키르기즈 전통문화와 러시아 문화가 혼합된 양상을 보인다.

(1) 인사

남성 간에는 주로 악수, 여성 간에는 볼 키스 인사가 일반적이며, 인사말에는 '살라맡스스브?(안녕하십니까?)', '코슈 겔링이스(환영합니다)', '총 라흐맛(대단히 감사합니다.)' 등이 있다.

(2) 음식

'리표쉬카(또는 난)'라는 평평하고 둥글게 구운 화덕구이 빵과 '보오르속'이라는 튀김빵 등이 주식이며, 양고기를 잘게 썰어 야채와 함께 끓인 '쇼르포' 수프, 양고기와 국수를 함께 먹는 '베쉬바르막'이 대표적인 전통음식이다. 또한 말젖을 발효하여 만든 '쿠므스' 및 곡물 발효 음료를 즐겨 마신다. 이외에도 유럽 및 러시아식 음식이 대중적이며, 식사 후 이슬람식 기도로 양손을 얼굴 쪽에 갖다 대고 내리면서 '오민'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산품으로는 꿀, 견과류, 건과일 등이 있다.

9 현지 연락처

(1) 주키르기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전화 : (+996) 312-579-771~3
- 팩스 : (+996) 312-579-774
- 주소 : 35 Akhunbaev Str., Bishkek, Kyrgyz Republic
- E-mail : korea.kg@mofa.go.kr

10 기타

(1) 날씨

대체로 건조한 대륙성 기후이며 기온은 평균적으로 여름에는 영상 30~40도, 겨울에는 영하 0~15도. 우기인 봄 외에는 대체로 강우량이 적은 편이다.

(2) 전압

220V, 50Hz로 정전이 빈번해 모터 사용 제품에는 전압 안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3) 교통

대중교통으로는 미니버스(마르쉬루트카), 전기버스(트랄레이부스), 일반버스, 택시가 있다. 교통 시스템은 대체로 한국과 비슷하나 대체로 직진 신호시 좌회전, 우회전이 모두 가능하다. 난폭 운전이 빈번하므로 운전 및 보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

(4) 화폐

화폐단위는 '솜(KGS)'으로 '18.9월 기준 약 1미달러=69KGS이다.

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28. 타지키스탄

1 개황

- **수 도 :** 두샨베(Dushanbe, 인구 80만 명)
- **인 구 :** 893만 명(2017년 기준)
- **면 적 :** 14만 3,100㎢(한반도의 약 2/3)
- **지 형 :** 북부의 트란스알레이 산맥과 남부의 파미르 고원을 중심으로 하는 산악지형, 국토가 해발 300m 이상에 위치하며 93%가 산악지역
- **시 차 :** 우리시간 -4시간
- **언 어 :** 타직어(공식어), 러시아어(공용어), 우즈벡어(약 25% 사용)
  ※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투르크어가 아닌 페르시아어 계통의 타직어를 사용
- **기 후 :** 온화한 대륙성 기후로 무더운 여름과 온화한 겨울이 특징이며, 반건조 기후부터 극지성 기후까지 다양
- **1인당 GDP :** 812달러(총 GDP 72억 달러, '17년. 월드뱅크)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 총 2,239만 미달러(수출 1,594만 미달러/ 수입 645만 미달러)

2 문화적 특성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문화의 영향으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집으로 초대하거나 접대하는 것을 즐기며 외국인에게 친절한 편이다.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중시하며 스승을 부모처럼 섬긴다. 구소련에 속해 있었으나 지형적으로는 중앙아시아, 페르시아와 인접하고 있어 동양적 정서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의 영향으로 가부장적이고 남아를 선호하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 낮은 편이다. 대체로 온화하고 낙천적인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한-타지키스탄 양국은 동양적 가치관과 실크로드의 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문화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구소련 시절 타지키스탄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의 성실한 이미지와 삼성, LG 등 우리 전자제품의 약진, 한국 드라마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대체로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3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한류 콘텐츠에 외국인을 비하하거나, 이슬람권 민족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된 내용은 없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소재도 피하는 것이 좋다.

일례로 개도국 '드라마 무상배급 사업'시 주재국 방송국측은 해당 영상물에 자극적인 요소는 없는지, 살인이나 사극의 전쟁 장면이 잔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은지, 성적인 묘사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한 바 있다.

또한 여성 상품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므로 K-Pop 진출 시 선정적인 안무가 포함된 작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당지 K-Pop 문화 행사 출전팀 중, 한국 가수의 선정적인 안무를 순화해 공연한 팀도 있었다.

4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주재국에는 2007년 한국드라마 〈대장금〉이 시청률 70%를 기록하며 5차례 재방영되었으며, 〈대장금〉의 인기로 대중교통인 미니버스가 현지인들 사이에서 '당겜(장금이)'이라고 불리지는 등 현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이후, 현지 방송에서 한국 드라마 〈다모〉, 〈온에어〉, 〈일지매〉 등 K-드라마가 다수 방영되었다.

한국 문화 전파는 자생적 한류보다는 대사관이 중심이 되어 개최하는 문화행사를 통해 주로 이뤄지고 있다. 당지는 진출 아국기업이 전무하고 거주 교민 수도 적으며(약 100여 명), '92년~'97년 내전으로 많은 고려인이 타지키스탄을 떠나 한류 유입 경로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한류의 자생적 성장이 미미하고 한류의 저변도 인근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12년 한-타직 수교 20주년 기념사업으로 대사관에서 개최한 각종 문화행사(한-타 합동문화공연, 한국영화제, 퀴즈온코리아 등)에 평소 한류를 자주 접하지 못했던 주재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였으며 이듬해인 2013년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인 타지키스탄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한국관이 개관('13.12월)한 후 주재국 내에서 우리 문화 행사에 대한 참여도와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한국어과 학생 및 한국어 학습자 등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 제6차 한-중앙아 카라반 문화행사가 두샨베 필하모니 극장에서 1,000명 이상의 타직 국민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2017년 한-타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우리나라 대규모 문화공연이 두샨베 오페라 발레극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행사에서는 전통무용, 퓨전국악, 비보잉, 사물놀이, 타악기 연주 등 한국 예술의 과거와 현재를 망라하는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소개되어 타지키스탄 국민들에게 큰 갈채를 받았다.

또한 한국의 날(Korea Day 2017) 행사를 통해 서예 퍼포먼스, 한복 입어 보기, 연 만들기, 태극기 그리기 등 타직인들이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2) 분야별 현황

한류 유입의 제한적인 환경으로 인해 초창기 한류는 주로 대사관이 개최한 문화 행사와 타직국립외대 한국어과를 통해 보급되었다. 2007년 드라마 〈대장금〉의 인기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한국어학과, 코리아코너, 세종학당 등을 통해 한류 저변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대사관 주최 공공외교 문화행사를 통하여 일반인 사이에서도 한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1 한국어

타직국립외국어대학교에 한국어과(2004년 9월~)가 운영 중이며 타직국립사범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복수전공으로 교육하고 있다. 세종학당(2011.3.1 개설) 두샨베 분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 타직 국립중앙도서관에 개설된 코리아코너(한국관)에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문화 수업이 시행되고 있다. 동 코리아코너는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대기자가 8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주재국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K-Pop 등 한국 문화 수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타직 슬라뱐 대학 신축 캠퍼스에 한국어 센터가 2016년 9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방 도시로는 하틀론주 쿠르간투베시 No.2 소수민족학교에서 2014년부터 정규 교과 과정으로 전 학년 대상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주재국에서 개최된 제1회 'Quiz on Korea' 지역예선 수상자 타직국립외대 한국어과 화르조나 조교가 서울 KBS홀에서 열린 'Quiz on Korea' 세계 대회 본선에서 준우승을 수상하였다.

두샨베 세종학당 학생인 미르조알리예프후쉬누드가 2017년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한 제 9회 중앙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에서 1등으로 입상하였고 2018년에는 경희대학교와 연합뉴스가 공동 개최한 제21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입상하였다.

2 K-Pop

현지 K-Pop은 주로 한국어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2년 싸이 '강남스타일'의 세계적 열풍으로 타지키스탄에서도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으나 현지 방송보다는 위성 혹은 인

터넷을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았고 폭발적인 수준은 아니었다.

2015년 K-Pop 월드페스티벌 지역 예선인 '제1회 타지키스탄 K-Pop 페스티벌' 및 2016년 한-중앙아 카라반 문화행사 계기, '제2회 타지키스탄 K-Pop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으며 당시 출연한 M-fect, 갬블러크루 등 아이돌 그룹과 비보이에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다. 이후, 타직국립외대 한국어과를 중심으로 하는 K-Pop 동호회가 소규모로 운영 중이다.

3 드라마

2007년 타직에서 방영된 〈대장금〉이 시청률 70%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으며, '한국=대장금'을 떠올릴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후, 〈다모〉가 현지 방송에서 3차례 재방영되었고, 우즈벡어 혹은 페르시아어로 더빙된 〈가을동화〉, 〈겨울연가〉, 〈올인〉, 〈꽃보다 남자〉 등 불법 DVD가 현지시장에서 일부 유통되었으나, 〈대장금〉만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2015년 우리 드라마 무상 배급 사업으로 '일지매'와 '온에어'를 현지 방송에서 상영하였다. 2018년 〈장옥정, 사랑에 살다〉가 방영되고 있다. 가족들이 모여 차와 담소를 나누며 TV를 보는 것을 즐기는 문화여서 우리 드라마 배급을 통한 한류 전파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4 영화

2012년 9월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아 제1회 한국영화제를 개최한 이후, 2015년 제2회 한국영화제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격년으로 개최되었다. 동 한국영화제에서는 편당 약 200~300여 명이 관람, 약 1,800여 명이 우리 영화를 관람하였다. 폭력적이지 않고 가족애를 중시하는 한국영화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영화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나,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2017년 두샨베에 위치한 코히나부르즈극장과 국립도서관 내 코리아코너에서 제 5회 한국영화제가 개최되었으며 총 8편의 영화를 상영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5 한식

2014년 두샨베의 위성도시인 루다끼군에서 김치 페스티벌을 개최한바 있다. 현지 무기농 농장에서 재배한 우리 배추로 만든 김치를 지역 주민에게 소개하는

행사로 지역 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타지키스탄 3대 도시 중 하나인 쿠르간 투베에서도 지역 한국어 교육자 및 고려인 협회를 중심으로 매년 한국음식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다. 2016년 동 행사에서는 부채춤, 사물놀이, K-Pop 댄스, 한국어 시낭송 등 지역 중고생들의 축하공연과 떡방아 절구 찧기, 비빔밥 비비기 퍼포먼스 등을 선보였으며, 지방 정부 공무원 및 교육부 관계자 등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017년에도 동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6 스포츠

타지키스탄 전국태권도대회가 2013년 제1회를 시작으로 현재는 주재국 최대 연례 스포츠행사 중 하나가 되었다. 타지키스탄 전국태권도대회는 당지 유일의 태권도 전국 대회로 현지 주요 언론에서도 동 대회를 매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2018년도 제 6회 대회에서는 주재국 선수단을 포함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인국 국가 선수들을 포함해 약 700여 명의 성인 및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했다. 또한 약 1,3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해 스포츠인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친목을 다지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7 전통문화

코리아코너 및 한국어과(외대, 사대)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가 소개되고 있다. 코리아코너 내의 문화 홍보관에서 온돌, 한복, 다도, 전통공예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매주 1회 문화교실을 열어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타지키스탄은 구소련권 국가지만 지리적으로는 페르시아권에 가깝고, 문화와 정서는 유럽보다는 동양권에 가깝다. 실크로드의 영향으로 타문화에 대체로 개방적이며 영미권, 소비에트 문화보다 우리 문화를 더욱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 문화에 내포되어 있는 가족중심 가치관과 동양관, 우호적인 한국 이미지가 주재국 국민에게 친근하게 어필하는 것으로 보이며, 드라마 〈대장금〉의 경우, 한국의 사회상과 예절, 음식문화 등을 담고 있어 주재국에서 많은 인기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의 영향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주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치게 선정적인 여성 아이돌의 안무나, B급 정서 혹은 너무 잔인한 영화 등은 주재국에 한류를 수출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타지키스탄은 다른 구소련 지역과 마찬가지로 태권도와 복싱, 레슬링, 유도 등 격투 스포츠에 강하고 관심이 많으며, 열정적인 민족성을 보유하고 있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과거 K-Pop 페스티벌 전·후로 대회 출전자들이 연습 모임을 가졌으나, 정기적 모임을 갖는 동아리는 아니었으며, 2016년 한-중앙아 카라반 문화행사 계기, '제2회 타지키스탄 K-Pop 페스티벌' 당시 찬조 출연한 M-fect, 갬블러크루 등 아이돌 그룹과 비보이의 공연 이후, 타직국립외대 한국어과를 중심으로 하는 K-Pop 동아리가 소규모로 운영 중이다.

6 최근 문화행사

(1) 제6회 타지키스탄 전국태권도대회

- 일시 및 장소: 2018.06.30.(토)-07.08.(월) / 타직 국립대학교 실내체육관
- 주최/주관: 주타지키스탄대사관
- 행사 내용: 타지키스탄 문화/스포츠 관계자 및 선수단 700명, 관람객 1,300명 등 약 2,000여 명이 대회에 참석

(2) 행사명: 한국-타지키스탄 우호의 밤

- 일시 및 장소: 2017.09.28.(목)
- 주최/주관: 주타지키스탄대사관, 대한민국 외교부
- 행사 내용: 전통무용, 퓨전국악, 비보잉, 사물놀이, 타악기 연주 등 한국 예술의 과거와 현재를 망라하는 다채로운 장르의 문화 공연을 타지키스탄 국민들에게 소개

(3) 행사명: 한국의 날

- 일시 및 장소: 2017.11.11.(토)
- 주최/주관: 주타지키스탄대사관
- 행사 내용: 서예 퍼포먼스, 한복 입어 보기, 연 만들기, 태극기 그리기, 전통 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공연과 문화 부스를 설치하여 타직인들이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짐

(4) 행사명: 제 3회 타지키스탄 한국영화제

- 일시 및 장소: 2017.11.11.(토)-11.16.(목) / 코히나브루즈 극장, 국립도서관 코리아코너
- 주최/주관: 주타지키스탄대사관, 한국국제교류재단(KF)
- 행사 내용: 타지키스탄 문화 관계자, 주재 주요국 대사 및 차석, 한국어과 재학생 등이 참석하여 한국 영화를 관람

7 여행정보

(1) 비자

2015년 4월 주한타지키스탄대사관이 개설되었으며 2017.1.부터 인터넷을 통한 사증 신청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외교관·관용 여권소지자의 경우는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 인터넷 상으로만 사증발급 신청서를 접수
- 사이트 주소 : http://www.visa.gov.tj
- 기타 : 사증 신청 후, 담당 영사가 필요시 구비 서류나 인터뷰 관련 내용을 이메일로 신청자에게 안내

(2) 안전정보

치안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야간의 단독 외출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으며 주재국 의 모든 외국인은 여권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2018년 7월 29일 하틀론(Khatlon)주 당가라(Danghara) 지역에서 외국인 자전거 여행자들을 차로 친 후 살해한 테러가 발생하여 외국인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타지키스탄 여행 시 주변 상황을 숙지하시고,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8 현지 문화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나 정부는 종교단체가 정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교 활동을 항시 감시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장소 등에서 기독교 등 타종교의 예배와 선교 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들에 대한 종교 교육 및 교리 전파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관공서, 레스토랑, 상점 등에서 일 처리가 한국에 비해 매우 느리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으며, 관공서에서도 서류가 분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중요한 서류들은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돈이나 물건 등을 건내거나 악수할 때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실례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진 촬영을 좋아하나, 사전 허락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9 현지 연락처

(1) 주타지키스탄 대사관

- 전화번호 : +992 44) 600 2114(대표), 9116(영사업무)
- 팩스 : +992 37) 221 2423
- 주소 : Shotemur 65, Dushanbe, Republic of Tajikistan
- E-mail : 정치/경제/문화 관련 문의 : tajik@mofa.go.kr
  영사/민원 관련 문의 : jyahn@mofa.go.kr

10 기타

(1) 교통

1 대중교통

시내 대중교통은 버스와 택시가 있으며, 버스 요금은 1소모니 정도이다. 6~15인승 소형 버스도 노선별 운행을 하고 있으며 가격은 1~2소모니 정도(구간 택시는 4소모니)이다.

일부 택시에만 요금 미터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미터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탑승 전 가격을 미리 정하고 타는 것이 좋다. 시내 택시요금은 보통 30소모니(약 5불) 내외이나, 야간에는 주간의 두세배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승객용 철도는 있으나 철로가 노후화되어 여행 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2 도로교통

타지키스탄의 도로망은 대부분 구소련시절 건설된 것으로 최근 두샨베-후잔드 간 도로를 비롯하여 도로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타 주요 도시들을 잇는 도로는 포장도로로서 비교적 도로 사정은 좋은 편이나, 유지, 보수가 잘 되지 않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마약의 주된 유통로로 이용되고 있어 경찰이 지방도로 곳곳 및 시내에서 불시 검문검색을 하고 있으며 차량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별도의 허가증을 따라 받아야만 운전을 할 수 있음

운전 중 차량끼리 사고를 낸 경우에는 차를 움직이지 말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경찰만이 과실 여부를 판단)

3 항공교통

한국과의 연결 편은 타슈켄트 경유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우즈베키스탄항공이 있으며, 알마티를 경유하는 경우 아시아나항공, 아스타나항공이 있다.

CIS권 국가들을 연결하는 항공편은 노후 된 비행기, 점검 부실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비행사들이 대부분 구소련당시 훈련받은 조종사들로서 안전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한다.

두샨베에 취항하는 항공사 중에는 터키항공과 러시아항공이 신뢰할만하고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2) 의료체계

1 병원

두샨베 시내의 국립병원이나 일반병원들은 많이 있으나 시설이 낙후되어 이용에 불편한 곳이 많다.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은 아래와 같다.

- 이스티클롤병원 : 2016년 개원한 종합병원으로 시설이 양호한 편이다.
- 타직 국립의대병원(카라볼로) : 러시아대사관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타지키스탄 내에서 가장 크지만 시설은 다소 열악
- 타직 국립의대병원(메드가르독) : 타직 내 두번째 규모 병원
- 이븐시노병원 : 이란계 병원으로 가격이 합리적이며, 클리닉 내 약국이 있음
- 유로치과 : 치과 전문병원

2 약국

약국에서는 러시아에서 수입된 약품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으며, 약품 구입 시 처방전이 필요하나, 일반적인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알레르기약 등은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수도 이외의 지역에서 의료시설 및 약국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여행 시 비상약을 항시 휴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전기

전기 시스템이 220V, 50Hz방식이며, 전압이 매우 불안정하므로 전압에 민감한 전자제품은 전압안정기(AVR)가 필요하다.

동계기간에는 전력이 부족하여 지방의 경우 단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두샨베 시내의 경우도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KOREA FOUNDATION KF
한국국제교류재단

29. 터키

1 개황

- **수 도 :** 앙카라(인구 약 550만 명)
- **인 구 :** 8,081만 명(2017년)
- **면 적 :** 783,562㎢(한반도의 3.5배)
- **민족구성 :** 터키족, 쿠르드족, 아랍인 등
- **종 교 :** 전 국민의 99% 이슬람교 (수니파 다수, 시아파 소수), 기독교, 유태교, 그리스정교 등 (헌법상 정치와 종교 분리)
- **시 차 :** 우리시간 -6
- **언 어 :** 터키어
- **1인당 GDP('17년) :** 10,579 미달러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 총 교역 69억 미달러(수출 61.5억 미달러, 수입 7.8억 미달러)

2 문화적 특성

(1) 터키의 기원

터키 민족의 조상은 중국 고전에 나오는 훈족(혹은 돌궐족)으로, 기원전 220년에 수립된 테오만 야그부 왕국을 중국 사람들은 "흉노"라고 불렀다. 터키 민족은 중앙아시아 동남부에서 서서히 서쪽으로 이동해 서기 11세기부터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했다. 터키 민족은 서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아랍문자를 도입, 사용하였으나 조상 전래의 자연숭배 사상과 풍습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풍습과 근본적으로 비슷한 면이 적지 않다. 터키어는 한국어와 같은 알타이어계에 속하여 문장구조순서, 모음조화, 어미활용 등에서 같은 원칙을 따르고 있다.

(2) 근대 터키의 역사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발된 오스만제국의 해체로 인해 터키의 정치권력은 국민당 당수 케말파샤가 이끄는 민족독립운동에 귀속되었다. 케말파샤는 1920년 4월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920~1922년간 해방전쟁에서 승리해 그리스군을 이즈밀과 트레이스 반도에서 축출한 후 1922년 11월 군주제를 폐지하고 1923년 10월 29일 터키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공화국 선포 후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된 케말파샤는 해방전쟁에 참가한 2개의 항쟁조직을 결합해 공화인민당을 창설하고 공화제, 민주주의, 다원주의 등 종래의 이슬람 전통을 크게 탈피한 서구식 근대화 개혁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가의 세속화, 이슬람식 종교 재판 및 종교 교육 폐지, 정교분리, 여성해방, 일부다처제 금지와 서양력 채택, 라틴 철자법 도입 등 서구제도를 도입하였다.

(3) 동서양의 특징이 조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터키인들은 수세기에 걸쳐 유럽과 아시아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왔으며 동서양의 특징을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에 적용해 왔다.

터키인들은 민족의식이 매우 강하며 위계질서를 중요시하고 개인이나 국가의 명예를 중시하며 무사 기질을 존중한다. 한국인들 삶의 곳곳에 유교의 영향이

녹아 있듯이, 터키인들 삶의 곳곳에 이슬람교의 영향이 진하게 남아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터키인구의 99%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지만 각자의 신앙에 따라 생활양식이 개방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터키에서 한류를 주도하는 콘텐츠는 'K-Pop'과 'K-Drama'이다. 2005년 국영방송 TRT에서 방영된 드라마 〈해신〉으로 터키의 한류가 시작되었다. 이후 사극 드라마의 인기가 현대극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K-Pop의 열기가 뜨겁다. 10대, 20대 한류팬 사이에서 K-Pop 가수와 한국 배우 팬클럽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TV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를 통해 주부를 비롯한 가족 단위의 한류팬도 늘어나고 있다. 요즘 10대~30대 한류팬들은 이미 제작 및 종영된 드라마만 방영하는 국영방송 및 민영방송의 한국 드라마보다 현재 한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최신 드라마를 인터넷으로 더 많이 접하고 있다. 한국에서 방영된 후 2~3일 내로 제작된 영어 자막 방송을 터키어로 번역하여 시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에는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한국 드라마를 본 터키 팬들도 많다.

또한, 2011년 주터키한국문화원이 수도 앙카라에 개원한 이래 문화원의 다채로운 문화행사 및 활동을 통해 K-Pop과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K-클래식, 전통음악, 전통무용, 한국어, 서예, 한식, 태권도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문화를 접하고 이를 사랑하는 한류팬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런 모습은 한-터 수교 60주년 기념해인 2017년에 많은 한국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한 이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2) 분야별 현황

1 한국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치러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하는 이들의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는 그 끝을 알 수가 없을 정도이다. 앙카라(1개소), 이스탄불(2개소), 이즈밀(1개소), 부르사(1개소)에

서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고(4개 도시 5개소), 국립 앙카라대학교와 에르지예스대학교 및 이스탄불대학교에 한국어문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스탄불 보아지치대학교, 아이든 대학교, 앙카라 빌켄트 대학교, 하제테페 대학교, 아틀름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2 K-Pop

현지에서 BTS, EXO, Big Bang, SHINee, CNBLUE의 인기가 높다. 매년 주터키대사관(한국문화원)과 주이스탄불총영사관이 번갈아 주관하는 K-Pop World Festival 터키 예선전에 대한 한류팬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어 2016년 8월6일 앙카라, 2017년 7월8일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터키 예선 대회에 1,000여 명의 관람객들이 찾아왔고, 2018년 7월21일 앙카라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1,500여 명의 관람객으로 객석이 가득 차는 등 K-Pop 행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K-Pop 행사에 대해 현지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었다. 예선전 1위 팀도 재심사를 거쳐 한국 본선에 진출하도록 경연 방식이 변경된 후 2016년도까지 터키 1위팀이 3년 연속으로 한국 본선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자 예선전에 지원하는 팀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7년 K-Pop World Festival 대회 2등 수상자(보컬 1등)가 한국 본선에 진출하여 입상을 하고, 2017년 10월에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K-Pop 그룹 FT아일랜드의 공연과 2018년 10월 그룹 M-FECT의 공연을 계기로 터키내 K-Pop 열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3 드라마

국영방송 TRT에서 〈해신〉, 〈대장금〉, 〈주몽〉, 〈이산〉, 〈상도〉, 〈대조영〉, 〈동이〉, 〈선덕여왕〉 〈무사 백동수〉, 〈궁S〉 〈서동요〉, 〈마이〉 등 주로 역사물이 많이 방영되었으며, 2012년에는 청소년 드라마 〈드림하이〉, 2013년에는 〈꽃보다 남자〉 등의 현대극이 방영되었다. 외국 드라마의 방영이 드문, 보수적인 터키의 문화로 미루어 볼 때 한국 드라마가 이룬 성과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민영 방송국 Kanal D에서는 〈겨울연가〉, Meltem TV에서는 〈홍길동〉, 〈공주의 남자〉,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추노〉, Olay TV에서 〈대왕세종〉이 방영되었으며 배우 이민호, 장근석, 김수현, 유승호, 송중기의 인기가 높다.

4 영화

이스탄불 영화제, 앙카라 영화제 등 터키의 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초대를 받으며 대중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 김기덕 감독, 박찬욱 감독, 홍상수 감독 등이 알려져 있으며 〈사마리아〉, 〈올드보이〉, 〈빈집〉, 〈당신자신과 당신의 것〉 등 영화가 인기를 끌었다. TV에서 방영된 한국드라마로 시작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인터넷을 통해 영화로까지 확산되어 많은 한국 영화 마니아들이 있다. 2016년 한국의 CGV가 터키 최대 영화관 체인 사업자인 Cinemaximum을 인수해 터키의 일반 상영관에서도 한국 영화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아가씨', '부산행', '그물', '밀정' 등이 상영되었다. 또한 주터키한국문화원에서 매달 실시하는 정기영화상영회와 2015년부터 진행한 카라반 한국영화의 날 행사를 통해 매년 주재국 내 3-9개 도시를 순회하며 최신작 및 다양한 장르의 한국영화 및 애니메이션 등을 상영함으로써 현지인들이 한국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5 한식

국영 TRT TV에서 방영된 〈대장금〉의 인기로 터키인들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2010년 트라브존 및 앙카라에서 개최된 한식 홍보 행사를 통해 터키인들에게 눈으로만 보던 한국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관람하며 터키 음식과는 다른 상차림과 재료를 사용하는 한식을 접하고 가까운 한국식당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한류팬들도 있다.

현재 한국문화원에서 진행 중인 한식 강좌의 신청자가 많아 수강신청서를 받은 후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강좌 확대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한식에 대한 열기는 2014년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한식경연대회로 이어졌다. 예선에 터키 전역에서 약 200여 명이 참가하여 한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 5월에도 앙카라에서 2016 'Taste of Korea' 한식경연대회가 개최되었고, 부대행사로 한국 농식품 전시회도 열려 한식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터키내 한식 저변 확대를 위하여 2017년 5월에는 한국문화원이 2주 동안 한국에서 2명의 한식 전문가를 초빙하여 문화원 한식 강사 및 앙카라 소재 국립 가지대학교 조리학과 교수진 대상으로 한식문화교육 사업을 실시하였고, 한국 한식재단의 지원으로 가지대학교 조리학과에 2017년 9월부터 한식 강좌가 개설,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8년 10월에는 앙카라 힐튼호텔과

협력으로 부산힐튼호텔 셰프 2인을 초청하여 한식주간행사 및 Cooking Class를 개최하였으며, 주터키 대사관 주최 국경일 리셉션에 한식 코너를 설치하여 한식을 제공함으로써 참석 600여 명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음.

6 태권도

터키 전역에 2,612개 도장이 있으며, 활동하는 사범의 수는 3,440명에 이른다. 약 50만 명 정도의 태권도 수련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태권도가 축구 다음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로 거론될 정도로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다. 터키는 2012년 런던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1개씩, 2016 리우올림픽에서는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태권도에 대한 수준 및 관심이 높다. 터키인 사범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이 이즈미르 등 대도시는 물론 터키 내 각 지역에 있어 관심 있는 10대 청소년들이 태권도를 배울 수 있다. 현재 한국문화원에서 매달 성인반, 초·중등반 태권도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8월에는 태권도 여름캠프도 진행하여,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 전파에 힘쓰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의 글로벌 태권도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동남부지역 공립학교에 태권도 수업이 개설된 바 있고, 2016년 하반기부터 흑해지역 공립학교 및 터키 여러 지역의 경찰학교에서 태권도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7 공연

2013년에 열린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특별행사의 일환으로 터키에서는 처음으로 K-Pop 페스티벌('뮤직뱅크 인 이스탄불')이 개최되어 엠블랙, 에일리, FT아일랜드, 미쓰에이, B2ST, 슈퍼주니어 등 한국을 대표하는 K-Pop 스타들이 무대에 올라 9천여 명의 한류팬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2015년 10월에는 'ABU TV Song Festival in ISTANBUL'에 씨엔블루가 참가했는데, 다른 나라 가수들보다 더 큰 환호를 받았다.

또한, 주터키한국문화원이 주관하는 카라반 한국문화의 날 행사(터키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영화상영, 세미나, 전통놀이, 한복입기 체험, 전통음악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통해 한류팬들에게 국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 2016년 4월에는 카라반 한국문화의 날 행사에서 타악그룹 '진명'의 공연이 5개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안탈야 2016 엑스포 한국의 날 행사에서 국립국악원이 전통가락과 춤을 선보여

현지 많은 관람객과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한-터 수교 60주년 기념해인 2017년에는 전통음악공연에 더하여 한-터 우정의 클래식 콘서트(6.7), 세계음악의 날 한국-이태리-터키 합동 오페라연주회(6.11) 등 클래식 공연과 복합문화공연(9.22, 태권도, 전통음악 및 무용, 전통의상 패션쇼, K-Pop 공연 등), 그룹 'FT 아일랜드'의 K-Pop 콘서트(10.29), 한국의 향기(월드뮤직앙상블 '이도'-퓨전국악, 12.8, 12.10) 등 여러 장르의 공연이 개최되었고, 2018년에는 전통국악 정가악회-노닐다(10.1~10.3)공연과 아이돌 그룹 M-FECT의 K-Pop 콘서트(10.26), 플루티스트 최나경의 클래식 공연(11.3)이 있었고, 송하철 콰르텟 및 바림 트리오의 재즈콘서트(11.20, 11.23)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8 뷰티

젊은 한류팬들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가하고 있기에, 최근에는 한국 화장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매장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미샤와 홀리카홀리카, 비욘드, 스킨푸드, 더페이스샵 제품이 진출하여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한류)를 좋아하는 이유

터키 현지인들이 한류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주이스탄불총영사관에서 설문을 실시했다. 총영사관 홈페이지와 Facebook을 통해 관련 팬클럽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총 14개 팬클럽에서 응답했으며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좋아하는 가수 혹은 연예인이 살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과 "문화적으로 터키와 비슷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국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터키 음악과는 다른 리듬을 사용해서", "여러 장르의 음악을 하나의 노래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각적으로 멋진 무대 장치 및 디자인, 무대 의상, '칼군무'를 추는 멤버들"을 꼽았다.

한국 드라마의 경우 "전체 드라마 횟수가 터키 드라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결론을 빨리 볼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있었다. 한국 음식은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할 때 "보기에 예뻐 보여서", "한국 음식 자체가 건강해 보여서" 선호했으나, 응답자들이 실제로 먹어보니 양념(특히 마늘)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많았다. 라면을 먹어보고 싶다는 대답이 많았으나,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

기름이 들어가지 않은 라면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한류팬들은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의 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답했으며 단순히 취미로 혹은 "한국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서", "언젠가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배운다고 답한 사람도 있었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할 점

현지 공연을 기획할 경우, 한류팬의 상당수가 10-20대임을 감안해 입장료를 최대한 낮춰야 많은 한류팬들이 참가할 수 있다. 대규모의 한국 가수들이 직접 터키에 왔었던 '2013년도 뮤직뱅크 인 이스탄불'의 입장료가 4만원부터 20만원까지였기에, 경제적 압박 때문에 참가하지 못한 한류팬들이 상당히 많았다.

한류팬들은 터키내에서 한류 관련 상품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 K-Pop CD나 DVD 등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한국 가수 및 배우들의 사인회가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식당이나 한국 식재료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터키 전역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갖고 있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10~20대 터키 팬들의 수는 집계가 불가할 정도로 많고 특히 K-Pop과 K-Drama에 열광하는 팬들의 숫자와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다.

(2) 동호회별 현황

1 EXO Planet Turkey

성격	K-Pop 동호회 (EXO팬클럽)
회원 수	87,105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EXO.Planet.Turkey www.twitter.com/exoplaneturkey
세부 활동 현황	• EXO 관련 동향, 동영상 등 정보 제공 및 회원 교류

2 Big Bang / VIP TURKISH OFFICIAL

성격	K-Pop 동호회 (Big Bang 팬클럽)
회원 수	43,213명
웹사이트	tr-tr.facebook.com/BIGBANGVIPTURKISHOFFICIAL/bigbang-turkey.com
세부 활동 현황	• Big Bang 관련 동향, 동영상 등 정보 제공 및 회원 교류

3 Song Joong ki Turkey

성격	K-drama 동호회 (송중기 팬클럽)
회원 수	31,428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SJKTRKY/
세부 활동 현황	• 송중기 관련 동향, 동영상 등 정보 제공 및 회원 교류

4 SHINee World Turkey

성격	K-Pop 동호회 (SHINee 팬클럽)
회원 수	20,616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SHINeeWORLDTURKIYE/
세부 활동 현황	• SHINee 관련 동향, 동영상 등 정보 제공 및 회원 교류

5 JANG KEUN SUK TURKEY FAN “TURKISH EELS”

성격	K-drama 동호회 (장근석 팬클럽)
회원 수	225,979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OfficalTurkishEels/
세부 활동 현황	• 장근석 관련 동향, 동영상 등 정보 제공 및 회원 교류

6 Kim Soo Hyun Turkey

성격	K-drama 동호회 (김수현 팬클럽)
회원 수	24,557명
웹사이트	tr-tr.facebook.com/soohyunturkey/
세부 활동 현황	• 김수현 관련 동향, 동영상 등 정보 제공 및 회원 교류

7 CNBLUE Turkey

성격	K-Pop 동호회 (씨엔블루 팬클럽)
회원 수	23,473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cnbturkey/ www.cnblueturkey.com/
세부 활동 현황	• 씨엔블루 관련 동향, 동영상 등 정보 제공 및 회원 교류

8 Minoz Turkey

성격	이민호 팬클럽
회원 수	18,891명
웹사이트	www.minozturkey.com/ tr-tr.facebook.com/minozturkey/
세부 활동 현황	• 이민호 관련 동향, 동영상 등 정보 제공 및 회원 교류

9 Koreanturk.com

성격	한국드라마 및 영화 동호회
회원 수	78,895명
웹사이트	www.koreanturk.com/ www.facebook.com/koreanturkofficial/
세부 활동 현황	• 한국드라마 및 영화를 터키어로 번역해 공유

10 Turk-Kore Kultur Iletisim(터-한 문화교류)(이스탄불 지역)

성격	터키-한국 양국 간 문화 교류를 위해 당지 한인동포가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터-한 문화교류협회 소속으로 2007년도에 결성
회원 수	약 1,000명 • 동 회원들은 한국문화와 한국어 학습에 관심이 많으며 주요 구성원들은 20~30대의 현지인들로서 20대는 대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대개 한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희망하고 있음
웹사이트	www.koredernek.org
세부 활동 현황	• 동 동호회 회원들은 터한문화교류협회가 주최하거나 협력하는 행사 참여와 아울러 이스탄불총영사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도 자원봉사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만나 조식을 함께 하면서 한국 관련 정보 및 문화 활동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음

11 Yoo Seung Ho [유승호]

성격	K-Drama 동호회 (유승호 팬클럽)
회원 수	297,927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YSH.fanpage?fref=ts
연락처	이름: Ezgi Bayramoğlu E-mail: ezgibyrmgl@hotmail.com
세부 활동 현황	• 유승호 관련 동향, 동영상 등 정보 제공 및 회원 교류

12 BTS Turkey

성격	K-Pop 동호회 (BTS 팬클럽)
회원 수	24,233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BTSTurkey btsturkey.blogspot.com.tr/
연락처	이름: Imran KURT E-mail: btsbangtanturkey@gmail.com
세부 활동 현황	• BTS 관련 동향, 동영상 등 정보 제공 및 회원 교류

13 Super Junior Turkey

성격	K-Pop 동호회 (슈퍼주니어 팬클럽)
회원 수	31,659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SJELF005
세부 활동 현황	• 슈퍼주니어 관련 동향, 동영상 등 정보 제공 및 회원 교류

14 ShinhwaTurkey

성격	K-Pop 동호회 (신화 팬클럽)
회원 수	8,352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ShinhwaTurkey
연락처	이름: Zeynep HALICI, E-mail: ddtoxx@hotmail.com
세부 활동 현황	• 신화 관련 동향, 동영상 등 정보 제공 및 회원 교류

15 Gong Yoo Turkish Yoomiso Fanpage

성격	K-Drama 동호회 (공유 팬클럽)
회원 수	13,195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gongyooturkishyoomiso/
세부 활동 현황	• 공유 관련 동향, 동영상 등 정보 제공 및 회원간 교류

16 kore sevenler

성격	한국 문화 동호회
회원 수	25,485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groups/koresevenler/
연락처	이름: Pelin KOCAMAN E-mail: pelin_0412@hotmail.com
세부 활동 현황	• 한국 문화 관련 동향, 동영상 등 정보 제공 및 회원 교류

17 hallimece ile Korece

성격	한국어 교육, 문화
회원 수	4,627명
웹사이트	turkcekorece.blogspot.com.tr/ www.facebook.com/turkceKorece
연락처	이름: Halime Oral E-mail: halime1985@gmail.com
세부 활동 현황	• 한국어 및 문화 관련 동향, 동영상 등 정보 제공 및 회원 교류

6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문화원 정기영화상영회

- 일시 및 장소 : 매월, 앙카라(한국문화원)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
- 행사 내용 : 주재국내 한국영화 관심 제고를 위해 문화원 공연장에서 매월 우수 한국영화 상영

2 한국대학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월~6월, 앙카라(한국문화원)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
- 행사 내용 : 주재국내 한국 유학 관심자들에게 한국 대학 관련 정보 제공, 2월~6월 기간 동안 매월 1회 총 5회에 걸쳐 국내 주요 대학의 유학 설명회 개최

3 바둑 세미나

- 일시 및 장소 : 2.3(토), 앙카라(한국문화원)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 터키바둑협회
- 행사 내용 : 터키바둑협회와 공동으로 바둑 세미나 개최(바둑 설명 및 바둑 관련 다큐멘터리 관람)

4 2018 골든벨을 울려라

- 일시 및 장소 : 2.24(토), 앙카라대학교 실내체육관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
- 행사 내용 : 한국관련 지식 경연대회를 '골든벨을 울려라'형식으로 개최. 한류팬 100여 명 경연자로 참가, 관람객 포함 250명 규모

5 실내악 연주회

- 일시 및 장소 : 3.10(토)/ 앙카라(한국문화원)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
- 주재국내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원 회원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클래식 연주자 초청 실내악 연주회 개최

6 2018 한-터 우정의 볼링대회

- 일시 및 장소 : 4.20(금), 앙카라 소재 볼링장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
- 행사 내용 : 양국민간 우호 증진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터 우정의 볼링대회 개최

7 어린이 한국문화축제

- 일시 및 장소 : 5.5(토), 앙카라(한국문화원)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
- 행사 내용 : 구연동화(한국 전래동화), 한복 입기 및 전통놀이 체험, 전통 공예품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재국 어린이 대상 한국문화축제 행사 개최

8 한국 전통 공연

- 일시 및 장소 : 6.23(토), 6.25(월), 앙카라(한국문화원 및 에티레르 군인의 집)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
- 행사 내용 :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음악회 공연단의 한국 전통음악 및 무용 공연, 문화원 사물놀이 공연팀의 사물놀이 공연 개최, 부대행사로 한식 시식행사 진행

9 2018 K-Pop World Festival 터키 예선

- 일시 및 장소 : 7.21(토), 앙카라(나즘히크멧 예술센터 공연장)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
- 행사 내용 : 창원에서 열리는 2018 K-Pop World Festival의 터키 예선 대회 개최. 터키 전국에서 지원한 263개팀 중 예선(동영상 심사)를 통과한 보컬 10팀, 퍼포먼스 12팀이 출연. 초청가수 K-Pop 남성 아이돌 그룹 뉴키드의 콘서트 및 한식, 한복 체험, 페이스페인팅, 세종학당 홍보 부스, 바자회 등 부대행사 진행. 한류팬 등 1,500여 명 참석

10 한국 전통혼례 시연 행사

- 일시 및 장소 : 7.22(일), 앙카라(한국문화원)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
- 행사 내용: 조선시대 민간인들의 혼례를 재현, 한국의 전통혼례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 개최, 주재국내 외교단 및 문화계 인사 등 200여 명 참석

11 2018 한식 경연대회

- 일시 및 장소 : 8.4(토), 앙카라(한국문화원)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
- 행사 내용: 주재국민을 대상으로 예선을 거쳐 선발된 12명의 참가자들이 '삼첩반상'을 주제로 경합을 벌인 한식 경연대회 개최

12 한복 발표회

- 일시 및 장소 : 8.14(화), 앙카라(한국문화원)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
- 행사 내용 : 한복전문가를 초청하여 4주 동안 한복 만들기 강좌 진행 후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한복 작품 발표회 개최

13 Korean Cuisine Week

- 일시 및 장소 : 9.25(화)~9.29(토), 앙카라 힐튼호텔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 앙카라 힐튼호텔
- 행사 내용 : 주재국내 한식을 홍보하기 위해 부산 힐튼호텔 셰프 2인을 초청하여 한식주간 행사 개최. 참가자들에게 한식 뷔페 제공

14 Cooking Class

- 일시 및 장소 : 9.26(수)~9.27(목), 앙카라 힐튼호텔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 앙카라 힐튼호텔
- 행사 내용 : 구절판, 편수, 불고기 등 3가지 한식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는 한식 강좌 진행(강사: 부산 힐튼호텔 셰프 2인)

15 2018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정가악회-노닐다" 공연

- 일시 및 장소 : 10.1(월)~10.3(수), 에스키셰히르(시청 예술문화의 전당), 앙카라(힐튼호텔 및 중동공과대학교 공연장)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 에스키셰히르 시청, 중동공과대학교
- 행사 내용 : 2018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사업의 일환으로 국악그룹 정가악회를 초청, 2개 도시(에스키셰히르, 앙카라)에서 3회 공연 개최

16 2018 한국어 말하기대회 및 백일장

- 일시 및 장소 : 10.6(토), 앙카라(한국문화원)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
- 행사 내용 : 572돌을 맞은 한글날을 기념하여 주재국내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대회 및 백일장 행사 개최

17 문화원 개원 7주년 기념행사

- 일시 및 장소 : 10.9(화)~10.13(토), 앙카라(한국문화원)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
- 문화원 개원 7주년을 기념하여 '한-터 우정의 재즈콘서트'(10.9), '제2회 한국게임의 날'(10.10, 한국 게임 넷마블사와 공동으로 e스포츠 경기대회 개최), '한국영화 상영회'(10.11, 피아니스트 김선욱 주연의 독립예술영화-황제 상영), '2018 한-터 우정의 노래자랑'(10.12), '문화원 개원 7주년 기념 축하행사'(10.13, K-Pop 공연, 태권도 시범, 사물놀이 및 부채춤 공연, 한식 리셉션 등)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 개최

18 2018 카라반 한국문화의 날

- 일시 및 장소 : (1차) 10.15~10.19, 4개 도시(크륵라렐리, 에디르네, 발르케시르, 퀴타흐야) / (2차) 11.26~11.30, 3개 도시(악사라이, 니데, 네브셰히르) / (3차) 12.10~12.14, 3개 도시(예정: 크륵칼레, 초룸, 요즈가트)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 광주시청, 광주문화재단, 크륵라렐리 대학교, 트라키야 대학교, 발르케시르 시청 및 발크케시르 대학교, 퀴타흐야 시청 및 퀴타흐야 듐루프나르 대학교, 악사라이 대학교, 니데 외메르 할리스데미르 대학교, 네브셰히르 하즈 벡타쉬 벨이 대학교, 크륵칼레 대학교, 초룸 히티트

대학교, 요즈가트 보족 대학교

- 행사 내용 : 한국문화행사 개최 실적이 없는 주재국내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카라반 한국문화의 날 행사를 3차에 걸쳐 총 10개 도시에서 개최. 한국영화상영, 한-터 관계 세미나, 한국어 소개 특강, 한국유학 세미나, 한복입기 체험, 전통음악 및 무용 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19 M-FECT K-Pop 콘서트

- 일시 및 장소 : 10.26(금), 이스탄불(제말 레시트 레이 공연장)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이스탄불 지사
- 행사 내용 : K-Pop 남성 아이돌 그룹 M-FECT의 K-Pop 콘서트 개최

20 2018 IEFT 이스탄불 국제교육박람회 한국관 참가

- 일시 및 장소 : 10.27(토)~10.28(일), 이스탄불(컨벤션 센터)
- 주관 및 주최 : 국립국제교육원, IEFT국제교육박람회
- 행사 내용 : 제34회 IEFT 이스탄불 국제교육박람회에 극립국제교육원 및 한국외대, 전북대, 서울과기대, 울산과기원, 경상대, 창원대 등 6개 국내 대학과 함께 한국문화원이 참가하여 한국 교육시스템 및 정부초청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관련 소개, 각 대학별 유학 정보 제공

21 한-터 우정의 콘서트 '플루티스트 최나경&빌켄트심포니오케스트라'

- 일시 및 장소 : 11.3(토), 앙카라(빌켄트 콘서트홀)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주헝가리한국문화원과 권역별 협업사업), 빌켄트 심포니오케스트라
- 행사 내용 : 플루티스트 최나경과 빌켄트 심포니오케스트라의 협연 공연

22 플루티스트 최나경 마스터 클래스

- 일시 및 장소 : 11.4(일), 앙카라(하제테페 대학교 앙카라 국립음악원 콘서트홀)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주헝가리한국문화원과 권역별 협업사업), 하제테페 국립음악원
- 행사 내용 : 주재국내 플루트 전공자 대상으로 플루티스트 최나경의 마스터 클래스 개최. 하제테페 국립음악원생 및 빌켄트 대학교 음대생 등 참가

23 제4회 카라반 한국영화의 날

- 일시 및 장소 : 11.6(화)~12.2(일), 3개 도시 상영관(이스탄불, 메르신, 아다나)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AKBANK SANAT
- 행사 내용 : 이스탄불, 메르신, 아다나 등 3개 도시를 순회하며 택시운전사, 리틀 포레스트, 마녀, 살아남은 아이, 동주 등 최신 우수 한국영화 5편 상영 행사 개최

24 한국문학주간

- 일시 및 장소 : 11.12(월)~11.17(토), 카리세리(에르지예스 대학교), 앙카라(앙카라대학교, 한국문화원)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대사관, 앙카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에르지예스대학교 한국어문학과
- 행사 내용 : 황석영, 안도현 작가를 초청하여 작가와의 만남, 사인회 등 진행 및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시낭송 등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개최. 주재국내 한-터 문학 교류 증진 및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 제고

25 2018 JAZZ KOREA 송하철 콰르텟 콘서트/ 바림 트리오 콘서트

- 일시 및 장소 : 11.20(화), 이스탄불(AKBANK SANAT): 송화철 콰르텟 콘서트, 11.23(금), 앙카라(하제테페대학교 콘서트홀): 바림 트리오 콘서트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주독일한국문화원과 권역별 협업사업), AKBANK SANAT, 앙카라 재즈협회, 하제테페 국립음악원
- 행사 내용 : 주재국 현지인 및 교민들에게 한국 재즈 및 아티스트를 소개하기 위해 재즈 콘서트 개최

26 송년 전통민속한마당

- 일시 및 장소 : 12.25(화), 앙카라(한국문화원)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
- 행사 내용 : 한국인과 터키인을 한 조로 편성하여 조별대항 윷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공기놀이 등 한국 전통놀이 대결을 통해 양국민간 우호 및 교류 증진 행사 개최

27 한-터 역사 세미나

- 일시 및 장소 : (1차) 4.5~4.6 에르주룸 / (2차) 5.31~6.1 샨르우르파 / (3차) 12.19~12.20(예정) 하타이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대사관
- 행사 내용 : 터키 고교 역사, 사회 교사 및 대학생 대상 한국과 터키의 관계 및 역사를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양국 협력관계 홍보 및 발전을 위한 저변 확대

28 한국문화가 있는 날

- 일시 및 장소 : 매월 / 앙카라(한국문화원)
- 주관 및 주최 : 주터키한국문화원
- 행사 내용 : 주재국내 정례화된 한국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써 한국문화의 주재국내 홍보를 목적으로 전통 공연, 한국어, 문학, 태권도, 한국문화 관련 특강, 한복 발표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매월 1회 한국문화가 있는 날 행사 개최

29 각종 예술작품 전시회

- 일시 및 장소 : 연중 계속/ 앙카라 문화원 및 전시장
- 주관 및 주최: 주터키한국문화원
- 행사 내용: 회화, 서화, 세라믹, 전통 수공예, 현대미술, 그래픽 디자인, 한국 관광사진, 막사발 등 다양한 예술 작품 전시회 개최

7 여행정보

(1) 비자

터키의 경우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일반 여권 소지자가 관광 목적으로 터키에 입국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90일간(90일 포함한 180일 내 재입국 불가) 체류가 가능하다. 단, 교육·취업·공연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에 미리 주한터키대사관에서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2) 안전정보

1 여행경보단계

흑색경보 (여행금지)	-
적색경보 (철수권고)	가지안테프, 디야르바커, 마르딘, 반, 바트만, 비트리스, 빙골, 산리우르파, 시르낙, 시르트, 엘라지, 킬리스, 툰셀리, 하카리, 시리아의 국경 10km 이내 지역(히타이)
황색경보 (여행자제)	-
남색경보 (여행유의)	황색경보, 적색경보 해당지역을 제외한 터키 전역

남색경보 지역은 신변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황색경보 지역은 여행을 자제하거나 연기하도록 권고한다. 적색경보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토록 권고하며 흑색경보 지역은 여행이 금지되어 있다.

2 사건·사고의 현황

■ 테러, 인질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터키는 그동안 성장하는 경제와 안정적인 정치체제 하에서 비교적 양호한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5년과 2016년에 수차례 발생한 ISIS에 의한 폭탄테러, PKK와의 충돌 등으로 인해 최근 테러 위험도가 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2016년 7월 15일 군사쿠데타가 발생, 실패한 이후로 현재 3개월간의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있다. 7.15. 터키 사태 이후 대한민국 외교부는 터키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 그 후 대규모 집회 종결 등 전반적인 치안상황이 회복된 점을 감안해, 특별여행주의보를 8.31. 해제하였다.

■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터키의 치안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으며 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률이 낮은 수준인데, 최근 좀도둑 등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관광지 주변에는 소매치기 혹은 호객행위 등이 많은 편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이스탄불 등 대도시는 비교적 치안이 안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을 상대로 지나친 친절을 베풀면서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인 후 돈, 여권 및 중요한 소지품을 훔쳐 도주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특히 외국인 비

즈니스맨이 주로 투숙하는 이스탄불 최대의 번화가 탁심 지역에서는 외국인에게 수입상인 것처럼 접근하여 인근 술집으로 데려가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는 일도 있다. 일단 당한 후에는 경찰을 불러도 소용없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 경우에 따라 상담이 필요한 경우 호텔 로비나 식당에서 하는 것이 좋다.

3 자연재해

이스탄불을 포함한 터키 일부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1999년 이즈밋(Izmit)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8,000여 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반, 페티예, 보드룸 등의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또한 우기에는 이스탄불을 비롯한 마르마라해 지역과 에게지역, 흑해지역에서 집중강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발생한다. 지중해 지역에서는 겨울철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풍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4 유의해야 할 지역

최근 테러 발생현황, 일반 사건·사고 발생현황 등을 감안해 우리 여행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5년 하반기 이후, 수도 앙카라, 이스탄불 등지에서 연이어 폭탄테러가 일어났다. 현재에도 이스탄불, 앙카라 등의 대도시와 동남부 지역은 테러 위험도가 높은 상태이다.

이스탄불 등 주요 관광지는 절도, 소매치기 등 강력범죄 발생위험에 관해 계속적으로 유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여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위험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스탄불 이외 지중해 지역 주요관광지에서의 PKK의 테러 활동은 최근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나, 동 지역에서의 테러 위험성과 성폭행 등 여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강력사건 발생 위험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8 현지 문화

(1) 인샬라!

터키인들이 약속을 정할 때나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말할 때 답변으로 종종 사용하는 말이며, 직역하면 '신의 뜻이 있다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단어는 중동의 시간개념이 터키에 들어온 것을 보여주며, 약속에 약간 늦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변명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2) 윤리관

터키에서는 이슬람교가 전통적 윤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구화된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계층 간 윤리관의 차이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으며, 대도시의 평범한 시민들보다는 촌락 및 보수적인 소도시의 거주민들이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케말 아타튀르크 초대 대통령은 세속화 개혁 정책을 통해 터키인들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가치가 여전히 터키인들의 사고방식을 좌우하고 있다.

(3) 용사(Gazi)

터키인들은 그들이 '용사'라고 일컫고 있는 가지(Gazi)의 정신을 윤리의 주요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지의 자세는 군인 및 개척자, 신앙의 수호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정신이며, 이와 더불어 절제 및 용맹, 충성심, 과감성을 함께 지녀야 한다. 이런 가지(Gazi) 정신은 터키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윤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슬람의 정의구현에 있어서도 필수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4) 관습 및 예절

대부분의 터키인은 집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기 때문에 초대를 받았을 경우, 손님은 문 쪽에 신을 벗어 놓고 슬리퍼를 신으면 된다. 그러나 주인은 신발을 벗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경우라도 역시 신발은 벗는 편이 좋다.

터키인을 방문할 경우 사탕이나 과일, 꽃을 선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터키인들은 손님 접대를 정성껏 하는 편이며, 손님 접대 시 꽃, 터키 차나 커피를 융숭하게 대접한다. 터키인들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차를 권하며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5) 세속주의 이슬람교

터키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세속국가로서 1923년 헌법에서 이를 선언했으나 전체 국민의 약 99%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다. 터키의 법률이나 사회기구가 이슬람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의 전통과 관행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종교적 영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터키는 1961년 헌법을 개정해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터키는 다른 이슬람 국가보다는 여러 면에서 관대하다. 그러나 세속화의 정도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이슬람사원 방문 시에는 적절한 예의(반바지, 짧은 치마, 모자착용 등 금지)를 항상 지켜야 한다.

(6) 언어

터키 인구의 약 90% 이상이 터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다. 시골 및 동부, 남부의 이주민들 사이에서는 쿠르드어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인구의 약 7%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인구의 약 1%가 아랍어를 쓰고 있으며 주로 동남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밖에 이스탄불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극소수의 주민들에 의해 그리스어, 아르메니아어 등이 사용되고 있다. 외교부, 경제부 등의 관청, 일류 호텔, 일부 상점 등을 제외하고는 영어가 통용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7) 교육

터키의 교육여건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터키인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으로서, 도시와 지방 간 교육시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23년 터키공화국이 건국된 당시에는 10명 중 1명만이 아랍어 표기에 의한 책을 읽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국민의 약 90% 이상

이 라틴문자 표기에 의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터키에서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무료이며 남녀공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서는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을 치른 후 합격해야 진학할 수 있으며 터키에는 206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 중 가장 오래된 대학은 1453년에 설립된 이스탄불대학이다.

(8) 관광

터키에는 히타이트 유적을 비롯하여 고대 그리스, 로마, 비잔틴, 셀주크 및 오스만제국 등 동서양 문명의 유적이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으며, 지중해성 기후 조건 등 관광지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지 개발 및 외국 관광객 유치 정책으로, 지중해 연안에 리조트 관광지가 많이 개발되었으며, 비교적 저렴한 관광비용 때문에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터키에는 이스탄불, 사프란볼루, 보아즈쿄이, 트로이, 파묵칼레 등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문화유산이 17곳 있으며, 2014년에는 터키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3,600만 명에 이르는 등 관광 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수차례 발생한 테러와 2016년 7.15사태 등의 여파로 2016년 총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 다시 회복 추세를 보여 2017년 터키 방문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27.84% 증가한 3,241만 명이었다. 2018년 1월~6월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29% 증가하여 1,891만 명의 관광객이 터키를 찾았다.

(9) 인사

터키 사람들은 프랑스식의 인사와 같이 볼을 맞대는 인사를 하며 먼저 오른손을 뻗어 악수를 한 뒤 서로의 볼을 맞대어 인사를 하고, 프랑스식 인사와 조금 다른 점은 먼저 오른쪽의 볼을 서로 맞대지 않고 왼편의 볼을 먼저 맞댄 후 오른편의 볼을 맞대며, 이성 간에는 친밀한 관계, 친지 및 가족이 아닌 이상 볼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10) 차 문화

터키 사람들은 홍차와 비슷한 차를 하루에 수도 없이 마시며 생활한다. 터키 동북부 흑해지역에서 나는 차가 터키에서 가장 고급으로 인정을 받는데, 흑해 지역은 비가 많이 오고 여름기간 동안 햇볕이 아주 강해 찻잎이 자라기에 최고의 조건이다. 굴곡진 투명한 유리잔을 사용하며 한 잔에 각설탕 2~3개를 넣을 정도로 달게 먹는 것을 선호한다. 정부 부처 기관 중 설탕 수급 및 판매가격을 규제하는 규제기관(Şeker Kurumu)을 두고 있다.

9 현지 연락처

(1) 긴급 연락처

- 경찰 긴급시 : 155
- Ambulance : 112
- 화재신고 : 110
- 긴급 의료지원(언어소통 문제로 인해, 공관원 또는 현지직원의 지원 필요)
  - 긴급의료기관 요청 전화
    - Cankaya 병원(앙카라, 전화 : 0312-426-1450)
    - Guven 병원(앙카라, 전화 : 0312-468-7220)
    - American 병원(이스탄불, 전화 : 0212-311-2929)
  - 야간 의사 문의 : 상기 종합병원 등에 요청
  - 야간 약국(공휴일 포함) : 휴일에는 약국마다 공휴일 근무 약국 표시
- 차량수리 : 시내 외곽 정비소 단지에 차량 종별 정비소 소재
- 전화고장시 : 우체국(PTT)에 고장신고(121)
- 수도, 전기 등 고장시 : 187(가스), 418 0622(전기), 185(수도)
- 열쇠를 두고 잠근 경우 : 열쇠가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실에서 마스터키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2) 의료기관 연락처

고급 사립 병원을 제외하고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의사가 많지 않으므로 공관원 또는 현지 직원의 통역 지원이 필요하다. 앙카라 Çankaya 병원 및 Güven 병원, 이스탄불 American 병원에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므로 타병원에 비해 진료가 수월하지만 비싼 진료비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 진료비는 약 10만원, 각종 검사비가 약 40만원 정도이므로 터키에 오기 전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에 방문을 추천한다. 진료 후 병원비를 영문 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다.

일부약품(감기약, 지사제 등)은 처방전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나 전문적인 치료약의 경우에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의료 수준이 한국에 비교해 볼 때 낮은 편은 아니나 의료 서비스 체계는 미비한 편이라 장시간 대기, 검사결과가 늦게 나오고 언어상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3) 대사관 연락처

- 주소 : Farabi Sok, No.27, Cankaya, Ankara 06690, Turkey
- 전화번호 : +90-312-468-4822
- Fax(대표) : +90-312-468-2279
- 영사업무Fax : +90-312-426-7872
- E-mail : turkey@mofa.go.kr
- 비상연락처(사건사고 등) : +90-533-203-6535

※ 한국문화원
- 주소 : Paris Cad. No. 74, Kavaklidere, Cankaya, Ankara
- 전화번호 : +90-312-468-3050
- Fax : +90-312-468-2059
- 홈페이지 : tr.korean-culutre.org

※ 주이스탄불총영사관
- 주소 : Askerocagi Cad. Suzer Plaza, No:6, Kat:4, 34367, Elmadag/Sisli, Istanbul
- 전화 : +90-212-368-8368
- Fax : +90-212-320-7413
- Email : istanbul@mofa.go.kr
- 비상 연락처 : + 90-534-053-3849

10 기타

(1) 날씨

내륙지방은 대륙성 기후이며 해안지방은 해양성 기후이다. 지중해 및 에게해 연안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서 여름은 대체로 고온 건조하며 겨울은 온화하고 습하다(연평균 기온 18~20℃).

흑해연안은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서 연중 고른 분포의 강우량(연평균 2,500mm)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온의 월교차가 거의 없다(연평균 22~24℃). 북동부 및 아나톨리아 고원지대는 대륙성 기후를 보이고 있어서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며,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 1~2월이 가장 추운데 겨울철 평균기온은 0~10℃이다.

(2)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터키의 운전문화는 거칠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시내에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가 많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항상 보행에 조심해야 한다. 방향표시 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바꾸거나 차량 간 안전거리를 무시한 채 달리는 차량 또한 많으므로 보행 및 운전에 매우 유의하여 운전해야 한다.

(3) 환전

호텔 및 고급레스토랑 이외에는 달러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어려우며, 시내 곳곳에서 DOVIZ라고 불리는 환전소 또는 은행지점에서 환전을 할 수 있다.


KOREA
FOUNDATION
KF
한국국제교류재단

30. 포르투갈

1 개황

- **수 도 :** 리스본(수도권 약 283만 명)
- **인 구 :** 1,029만 명(2017년)
- **면 적 :** 92,225.61㎢(한반도의 약 2/5)
- **민족구성 :** 이베리아족, 켈트족, 라틴족, 게르만족, 무어족 등의 혼혈
- **종 교 :** 가톨릭 90% 이상
- **시 차 :** 우리시간 -9(썸머타임시 -8, 3월 말~10월 말)
- **언 어 :** 포르투갈어
- **1인당 GDP('17년) :** 18,737유로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 총교역 7.29억 미달러
  (수출 4.59억 미달러, 수입 2.7억 미달러)

2 문화적 특성

포르투갈 문화는 역사적으로 켈트·이베리아·게르만·로마·아랍 등 여러 문명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특히 포르투갈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15~16세기 대항해시대에 동양, 아프리카, 남미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여러 문명의 문화

가 건축 민속·음악·예술·문학·음식 등 다방면에서 유입되어 현재까지 이런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타문화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는 오늘날 포르투갈을 찾는 이민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포르투갈 국민들의 우호적인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 건축 : 마누엘 양식

포르투갈의 건축은 유럽의 일반적인 건축양식 외에 15세기 대항해시대에 나타난 포르투갈만의 독창적인 건축양식인 마누엘(Manuel) 양식을 가지고 있다. 마누엘 양식은 후기 고딕양식에서 르네상스 양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신대륙 발견에서 영감을 얻어 해양을 주제로 한 장식 모티브가 특징이며 리스본의 벨렝탑, 제로니무스 수도원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 문화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랍 건축양식에서 영향을 받은 타일(아줄레주, Azulejo)은 많은 성당 건물의 내 외부와 주요 유적지들을 장식하고 있는 포트루갈 대표적인 문화예술작품 중 하나이다.

(2) 음악 : 파두(Fado)

파두는 '운명'을 뜻하는 라틴어 'fatum'에 어원을 두었으며, 검은 의상을 입은 가수가 포르투갈 고유의 기타(guitarra) 반주에 맞춰 부르는 전통가요이다. 서민들의 사랑, 슬픔, 그리움, 격정 등의 감정을 포르투갈 특유의 멜로디에 실은 것으로 20세기 들어 아말리아 호드리게스(Amália Rodrigues, 1921-1999)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현재는 신세대 대표적인 파두가수 마리자(Mariza), 까르미뉴(Carminho), 아나 모우라(Ana Moura), 지젤라 주앙(Gigela João), 까마네(Camané) 등이 세계무대를 누비며 Fado를 전파하고 있다. 파두는 2011년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3) 이국적인 음식문화

포르투갈의 음식은 지중해와 대서양의 영향을 받아 빵, 올리브유, 포도주, 야채와 생선이 주류를 이룬다. 대항해시대를 거치며 향료와 이국적인 재료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동양, 아프리카, 남미 요리가 포르투갈 요리에 영향을 끼쳐 매운 음식도 많고 마늘과 쌀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한다.

3 한류 현황

(1) 일반현황

한류의 구체적인 상륙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2007년경부터 K-Pop 위주로 한류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시작되었다. 포르투갈의 한류 팬들은 K-Pop 동호회를 중심으로 커버 댄스, 가사 외우기, 소규모 미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K-Pop 그룹 팬클럽 활동이 SNS를 통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K-Pop에서 시작된 동호회의 관심이 점차 한국어, 한식, 한국문화에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2013. 2월부터 포르투갈 양대 케이블 및 위성방송 공급회사 NOS와 M EO사가 KBS 월드, 2018년 1월부터 Vodafone사 Arirang TV를 방영함에 따라 포르투갈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되어 한류팬과 한국문화 애호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가장 인기 있는 한류

- K-Pop : BTS, EXO, Block B, VIXX, IKON, 트와이스, 몬스타엑스, Big Bang, SHINee, Red Velvet, 비투비, 갓세븐, 여자친구, 마마무, 블릭핑크
- 영화 : 홍상수 감독, 박찬욱 감독, 김기덕 감독, 봉준호 감독, 임권택 감독, 이창동 감독
- 배우 : 서종국, 송중기, 김수현, 이민호, 공유, 서인국, 장근석, 이종석, 김우빈, 이준기, 박보검, 박신혜, 배두나 등

(2) 분야별 현황

1 드라마

2013년 2월부터 포르투갈의 양대 케이블 및 위성방송 회사 Zon과 Meo사가 KBS 월드를 방영함에 따라 포르투갈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되었다.

2 영화

2001년 영화 〈쉬리〉가 우리 영화 최초로 개봉된 이후, 현재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취화선", "실미도", "마더", "시", "설국열차" 등 총 30여 편 이상의 영화가 상영되었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밀정"과 "아가씨"가 상영되었다.

주재국 내에서 홍상수 감독, 박찬욱감독, 봉준호 감독의 인지도가 특히 높은 편이다.

특히, 포르투갈 최대 국제영화제인 Fantasporto를 통해 우리 영화가 2001년부터 거의 매년 소개되어 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참가작들이 수상을 한 바 있다.

2016년에는 공포영화제 MOTELX에서 나홍진 감독의 "곡성(The Wailing)"과 독립영화제 IndieLisboa에서 김강민 감독의 "사슴꽃(Deer Flower)", 다큐영화제 DocLisboa에서 정성일 감독의 "천당의 밤과 안개(Night and Fog in Zona)"가 소개된 바 있고 올해 공포영화제 MotelX에서 "부산행"이 2017년 일반 극장에서 "밀정"과 "아가씨"가 상영되었다.

3 K-Pop

포르투갈에 확산되고 있는 한류는 K-Pop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점차 한국어, 음식 등 한국문화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2014년 7월 포르투갈의 열성 K-Pop팬 7명에 의해 Lunafly의 K-Pop 공연이 최초로 성사되었다. 2016년 9월과 Myname의 리스본 공연이 있었으며 2017년 1월 24K와 2월 BlockB 공연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9월초 Kard도 리스본에서 공연을 개최했다. 금년 1월에는 Dreamcatcher, 3월 Hallo, 8월 24k의 리스본 공연도 개최되었다.

2017년부터 서점 및 음반 전문매장 프낙(FNAC)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방탄소년단(BTS)과 엑소(EXO) 등 유명 K-Pop 그룹의 음반이 판매되기 시작해 주재국내 K-Pop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4 한식

K-Pop 팬 증가 및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에 따라 한식에 호기심을 갖는 현지인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포르투갈에는 한국음식점이 전무해 아쉬움이 크다. 다만, 리스본 시내 2~3곳의 아시아 요리 전문식당 메뉴에 비빔밥과 불고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 및 아시아 식품점에서 한국 과자, 라면 및 장류를 판매하고 있다. 주포르투갈대한민국대사관은 리스본대 아시아학과 주관 "한국의 날"에 한식 시식행사 지원을 통해 한식을 홍보해 오고 있으며 2017년 9.30.~10.5.간 리스본 Epic Sana Hotel에서 한식주간 행사를 한식재단과 함께 개최하였다.

5 한국어

K-Pop, K-Drama, K-Film, K-Food 등 한류팬들의 증가와 편승해 많은 한류팬들의 한국어 학습열기도 고조되고 있어 한국어 교육기관도 늘어나 현재 4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리스본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 Lisbon)
- 리스본대학교 아시아학과 한국어 과정
  * 2017 신학년도부터 국제교류재단에서 한국어교수가 파견되어 주재국 대학내 최초로 한국어 정규과정 개설
- 신리스본대학교 어학당(ILNOVA)
- 포르투대학교 문과대학(비정규과정)
- 한인회 한국어학교

6 화장품

2017년 3월부터 화장품 전문매장 세포라(Sephora) 매장에서 스킨푸드, 토니모리, 투쿨포스쿨, 닥터 자르트, 빌리프 등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포르투갈 한류 팬은 10대와 20대의 젊은 K-Pop 팬이 주를 이뤄 자칫 한국문화를 K-Pop으로 등치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K-Pop을 배출한 우리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소개하여 이들의 관심을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대시키고 연령대를 초월한 저변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유럽인들처럼 포르투갈 사람들도 자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약간 더디고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인내심을 갖고 사전 충분한 시간을 두면서 작은 디테일도 챙기며 철저한 기획하에 행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현황

포르투갈 내 한류 관련 동호회는 주로 K-Pop을 중심으로 하는 동호회이며 온라인에서는 주로 가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오프라인에서는 플래시몹, 댄스경연 등의 행사를 통해 회원들 간 교류하고 있다. 회원들의 연령대는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다.

(2) 동호회별 현황

1 보자기 동호회

성격	한국문화 친목 도모회
결성년도	2014년 9월
회원 수	8명
세부 활동 현황	• 월 2회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간단한 보자기 기법을 배우고 모시, 비단 등을 이용해 보자기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음 • 2016년 11월 보자기 전시회 개최

2 한지공예 동호회

성격	한국문화 친목 도모회
결성년도	2017년 1월
회원 수	10명
세부 활동 현황	• 월 1회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한지 전통공예품을 만들어 가고 있음

3 KPOPT

성격	한국문화 및 K-Pop 홍보
결성년도	2012년
회원 수	694명 (Facebook)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groups/kpopt/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K-Pop 관련 공연소식,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회원 간 교류

4 BTS Portugal

성격	방탄소년단 포르투갈 팬클럽)
결성년도	2013년
회원 수	4,915명 (Facebook)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groups/btsportugal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BTS 관련 동향, 사진, 동영상 등 정보 제공 및 회원 간 교류 • (오프라인) 회원간 미팅 추진

5 Block B Portugal

성격	블락비 포르투갈 팬클럽
결성년도	2016년
회원 수	724명 (Facebook)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blockbportugal/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블락비 관련 동향, 사진, 동영상 등 정보 제공 및 회원 간 교류

6 Lullaby Kpop(포르투갈-한국)

성격	B2ST 팬클럽
결성년도	2016년
회원 수	943명 (Facebook)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groups/LullabyKpop/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K-Pop관련 동향, 사진, 동영상 등 정보 제공 및 회원 간 교류

7 Portugal-Coreia do Sul(포르투갈-한국)

성격	SHINee 팬클럽
결성년도	2016년
회원 수	908명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groups/244202495918516/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K-Pop등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회원간 교류

8 Lullaby Kpop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홍보
결성년도	2017년 3월
회원 수	1,992명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groups/LullabyKpop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K-Pop 그룹의 정보 공유, 업데이트 및 한국문화 홍보

9 KPOP PT 2.0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팬클럽
결성년도	2016년
회원 수	357명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groups/244202495918516/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K-Pop 콘서트 및 한국문화관련 행사 소식 홍보와 관련 이벤트 주최, 정보 제공 및 회원간 교류

10 KPOP EVOLUTION PORTUGAL

성격	K-Pop 및 한국의 팝문화 팬클럽
결성년도	2017년 11월
회원 수	5,770명 (Facebook)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groups/LullabyKpop/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K-Pop관련 동향, 사진, 동영상 등 정보 제공, 회원 간 교류 및 팬들을 위한 행사 개최

6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Santo Andre 문화센터 주관 한국의 달

- 기간 및 장소 : 2017.1.28.-2.28. Santo Andre 문화센터
- 프로그램 : 한복 및 전통놀이용품 전시, 설날 및 한국의 세시풍속 홍보 DVD 상영, 한글 및 한지공예 워크샵 개최

2 리스본대 아시아학과 한국의 날 개최

- 기간 및 장소 : 2017.3.16, 리스본대학교 문과대
- 프로그램 :한식 시식, 전통놀이, 한지공예워크샵, 강연(포르투갈인과 한국인의 첫 접촉), 부채춤, 퀴즈온 코리아, 노래방, 전통놀이 체험 행사

3 퀴즈 온 코리아 개최

- 기간 및 장소 : 2017.5.20 마카오 과학문화센터
- 프로그램 :22명의 참가자가 경합을 벌였으며 참가자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식 체험 및 미니 퀴즈쇼도 개최함.

* 우승자 Carolina Janela는 9.15일 서울 KBS 홀에서 열린 한국본선에 참가해 우정상을 수상함.

4 K-Pop World Festival 포르투갈 지역예선전 개최

- 기간 및 장소 : 2017.7.29. 동양박물관
- 프로그램 :1차 비디오 심사를 통과한 13팀이 참가해 경합을 벌였으며 가창부문 우승자 Matheus Paraizo가 최종 본선에서 탈락

* 주재국 주요일간지 Diário de Notícias지 2회 기사 보도, 주간지 Expresso 보도, 포르투갈 최대 포털 싸이트 Sapo 예선전 심층 보도

5 한식주간 행사

- 기간 및 장소 : 2017.9.30.~10.3, EPIC Sana Hotel
- 프로그램 : EPIC Sana Hotel에서 1주일간 한식 홍보행사 개최

* 주재국 양대 일간지중 하나인 Diario de Noticias지 및 유명주간지인 Time Out지에 동행사 정보 게재됨.

6 한국문화주간

- 기간 및 장소 : 2017.10.15.~10.20., 동양박물관
- 프로그램 : 프랑스거주 한인 예술단 “울림”의 개막공연 “리진”, 한복패션쇼, 전통음악무용 워크숍(부채춤, 탈춤, 강강술래, 난타북, 단소. 판소리), 보자기, 한지공예, 태권도, 한글서예, 한글워크숍, K-Pop댄스 및 한복체험 행사

7 한국영화제

- 기간 및 장소 : 2017.11.17.-18 Cinema El Corte Inglés
- 프로그램 공연단 소리개의 전통음악 개막공연, 고산자 대통여지도, 장수상회 및 터널 상영

8 리스본대 아시아학과 한국의 날 개최

- 기간 및 장소 : 2018.3.15, 리스본대학교 문과대
- 프로그램 :한식 시식, 한글이름 써주기, K-Beauty 체험, 한복패션쇼, 서예워크샵, 강연등 개최

9 한마당 행사

- 기간 및 장소 : 2018.4.19. 리스본 카톨릭대 강당
- 프로그램 :한국예총 울산광역시 연합회 소속 예술공연단의 태평무, 진쇄춤 공연, 가야금 병창 및 가곡등

10 K-Music Festival

- 기간 및 장소 : 2018.7.1., Lisboa ao Vivo
- 프로그램 :1차 비디오 심사를 통과한 10팀이 참가해 경합을 벌인 K-Pop World Festival 포르투갈 지역예선전, 재즈그룹 웅산밴드 공연 및 농식품 시식행사가 개최됨.

7 여행정보

(1) 비자

1 일반여행객

우리국민은 외교관, 관용, 일반여권에 상관 없이 180일 중에 90일 상화주의에 의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함.

2 주한포르투갈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71 원서빌딩 2층
- 전화 : 02-3675-2251
- 근무시간 :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점심 12시~1시)
- 홈페이지 및 E-mail : www.portugalseoul.com, embport@chol.com

(2) 안전정보

1 여행경보단계 :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사건·사고 현황

포르투갈에는 아직까지 테러가 발생한 적이 없다. 그러나 포르투갈 정부는 테러대응을 위해 총리직속보안정보국(SIS)을 두고 있으며, 대테러공동대응 차원에서 유럽연합(EU)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포르투갈의 치안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Lisbon, Porto, Faro 등 주요 관광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날치기, 소매치기 등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붐비는 주요 관광지와 주요관광지를 운행하는 버스와 전차 내에서 소매치기범죄가 많이 발생하므로 소지품 간수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현금 인출 시, 모르는 사람이 친절한 어조와 행동으로 접근해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절도 또는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이 보이는 경우 유리창을 깨고 이를 훔쳐가는 사건이 빈발하므로, 귀중품과 소지품을 출발 전 또는 도착 전 휴게소에서 트렁크 내에 보관하도록 하고 카메라, 핸드백, 내비게이션 등은 하차 시 가급적 소지하거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좌석 밑에 두는 것이 좋다. 대중교통 승하차시 가방 및 소지품을 꼭 앞쪽으로 메고 잘 잡고 있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주요 방문도시 중 안전 유의 지역

- Lisbon시

  Santa Apolónia, Entrecampos, Oriente 등 기차역, Rossio, Baixa, Alfama, Belém 등 주요 관광지(주요 관광지 순회 28번 Tram 전차 포함)내 소매치기 다발 지역, Intendente 및 MartimMoniz 등 매춘 및 마약밀매지역

• Porto 시
Bairro de São João de Deus, Bairro de Pinheiro Torres, Bairro da Pasteleira, Bairro do Aleixo 등 마약 밀매지역
• Fatima 성지 : 순례객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성당 내부 및 광장

3 자연재해

포르투갈에는 태풍, 지진, 해일 등의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2010년 2월 말 마데이라섬(대서양에 위치)에서 강풍과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고, 2010년 12월 중부 Tomar지역을 토네이도가 강타했다. 2014년 1월에는 전국에 걸쳐 대서양 연안 지역에 강풍과 해일성 파도가 발생하는 기상이변이 있기도 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본토에서 1,500Km 떨어진 아쏘레스 군도에서 진도 2~5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7년 6월 및 10월 포르투갈 중부지역에서의 산불로 110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8 현지 문화

(1) 단체 여행자

포르투갈의 치안법령은 선진국 수준이며 안전한 편이다. 현지에서 외국인 단체여행객의 관광지 방문 시 공인가이드가 필히 동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된다. 포르투갈은 가톨릭 국가로 전국에 걸쳐 유적지에 성당이 많으므로 성당에 방문할 때는 짧은 반바지나 몸을 많이 드러내는 옷, 모자 착용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일 처리가 한국에 비해 시간이 걸리므로 인내심을 갖는 등 느긋한 자세가 필요하다.

(2) 대인관계

포르투갈인들은 잘 아는 사이인 경우, 만나서 인사할 때 여성끼리 또는 남녀간은 볼에 입맞춤을 하고,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악수를 한다. 또한 상대방과 말할 때 몸을 건드리거나 접촉하는 것을 예의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간

주한다. 포르투갈인들은 “고맙습니다(Obrigada), 미안합니다(Desculpe), 안녕하세요?(Bom dia, Boa tarde, Boa noite 등)”이 몸에 배어있으므로 호의를 받았거나 결례를 끼쳤을 때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상황에 맞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적으로도 아랍, 아프리카, 동양권 국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했고, 1970년대 초반 구 식민지국가로부터 대거 역이민이 행해져 리스본시내에 이민자들을 위해 설립된 무슬림 사원, 힌두사원도 있으며 종교차별이나 큰 갈등 없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3) 포르투갈 이름 읽기

영미 식으로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뒤에 쓰는데, 이름+어머니 성+아버지 성 순서대로 쓰므로 이름과 성이 각각 여러 개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주로 이름은 제일 앞에 오는 것을 부르고, 성은 제일 끝 1개나 끝의 2개를 함께 부른다(예 : Paulo(이름) Lopes Pinheiro(성)).

(4) 호칭

호칭은 일반적으로 남성은 Senhor, 여성은 Senhora 인데, 남성의 경우, “Senhor+성”을 사용하나, 여성의 경우 “Senhora+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호칭은,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에게는 Dr.(남)/Dra.(여)를 사용하고, 대학교수의 경우에는 Professor(남)/Professora(여)를 사용하며, 박사학위 소지자에게는 대학에서의 강의 여부와 상관없이 Prof. Doutor(남)/Prof. Doutora(여)를 사용한다.

(5) 팁 문화

의무적인 팁 문화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팁이 반드시 음식 값이나 서비스 요금의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손님이 만족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지불하면 되고, 또한 팁을 지불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9 현지 연락처

(1) 긴급 연락처

포르투갈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긴급 상황 통합대응센터(112)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교통사고·화재·응급환자·재해 등 상황 발생시 112로 신고하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하면 국가경찰(PSP)이 1차 접수 후 직접 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연결해 처리한다.

(2) 의료기관 연락처

포르투갈의 의료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검진, 검사, 수술 등 시술을 받는데 대기시간이 길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진료를 원할 경우, 일반진료의 경우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진료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예약 시 영어가 가능한 의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급환자는 예약 없이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도시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리스본	Hospital Santa Maria (국립)	Av. Prof. Egas Monis, 1649-035 Lisboa	21 780 5000
	Hospital da Luz (사립)	Av. Lusíada 100, 1500-650 Lisboa	217 710 4400
	Hospital CUF Descobertas(사립)	Rua Mario Botas, 1998-018 Lisboa	21 002 5200
	Hospital dos Lusíadas (사립)	Rua Abílio Mendes 12, 1500-461 Lisboa	800 201 000
	Hospital de Sao Joao (국립)	Alameda Prof. Hernâni Monteiro, 4200-319 Porto	22 551 2100

단기 여행객의 경우 소화제, 진통제, 연고 등의 비상상비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약국은 통상 09:00~20:00까지 운영하며,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한다. 항생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감기약, 소화제 등은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하다. 야간, 휴일은 구역별로 당직 약국을 24시간 운영한다. 약국 정문에 게시될 뿐만 아니라, www.farmaciasdeservico.net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3) 주포르투갈대한민국대사관 연락처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Av. Miguel Bombarda 36, 7 1051-802 Lisboa Portugal
- 전화 : + 351 21 793 7200
- 팩스 : + 351 21 797 7176
- E-mail : embpt@mofa.go.kr
- 홈페이지 : prt.mofa.go.kr
- 근무시간 : 9:00~12:30/14:00~17:30(점심 12:30~14:00)
- 비상 연락처 : + 351(국가번호) 91 079 5055

10 기타

(1) 날씨

포르투갈의 기후는 대서양, 지중해 및 대륙성 혼합기후이며 하계 건기(5~10월)와 동계 우기(11~4월)로 구분된다. 계절별로 봄·가을은 15~20℃, 여름은 27~37℃, 겨울은 2~10℃의 기온을 보인다. 아침과 저녁 일교차가 큰 편이다. 7~8월에는 햇빛이 매우 강하므로 여행 시 자외선 차단크림과 챙이 넓은 모자 및 선글라스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2) 교통정보

1 대중교통

- 항공

국제선, 국내선 연발착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며 공항이 시내에서 근접해 있다. 출국을 위해서는 2시간 전 공항에 도착하는 편이 좋다. 터미널 T1과 T2가 있고 터미널 2는 Easyjet, Ryanair 등과 같은 저가항공사 터미널이다. 참고로 리스본 공항버스는 공항과 시내 Cais do Sodré 기차역간을 운행하는 Aerobus와 공항과 Oriente역-Sete Rios 시외버스 터미널 간을 운행하는 Aeroshuttle 두 종류가 있으며 매일 7시~23시까지 매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 철도

철도는 포르투갈 철도청(www.cp.pt)에서 관장하는 안전한 교통수단이다. 리스본에서 타 도시로 이동시 Santa Apolonia역(중앙역) 및 Oriente역(동역)을 이용하면 된다.

- 국제선
  - Celta : 뽀르뚜(Porto) – 스페인 비고(Vigo) 간 운행
  - Sud Express : 리스본(St. Apolonia 역) – 랑스프 Hendaye 간 운행
  - Lusitânia Comboio Hotel : 리스본 – 스페인 마드리드 간 운행
- 국내선 : 열차 서비스의 질, 운행속도, 요금에 따라 3 종류로 나뉨
  - Alfa Pendular(특급열차) : Braga, Porto, Coimbra, Lisboa, Faro 등 주요 5개 도시 운행
  - Intercidades : 전국 주요 9개 도시 간 운행
  - Regional : 전국 19개 도시 간 운행되는 완행열차

■ 지하철(Metro)

리스본 시내에는 4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고 1~2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대사관은 황색 또는 적색라인의 Saldanha역 하차, 도보 5분 거리에 위치)

■ Eléctrico(일렉뜨리꾸 : 리스본 전차/트램)

리스본 시내 총 5개 노선(번호: 12, 15, 18, 25, 28 번)이 운행되고 있으며, 노선 수는 버스에 비해 훨씬 적지만 모든 노선이 중심가나 관광지를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운치가 있어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다. 승차권은 리스본 시내 버스표와 동일하며, 사전구입 또는 탑승 후 기사로부터도 구입 가능하다. 지하철 매표소에서 1일권을 구매하면 탑승순간부터 24시간 이내 버스, 지하철, 전차 등 모든 공공 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 버스 및 지하철 일일권 : 6.30유로, 기본요금 : 1.45유로, 탑승해 기사에게서 직접 구입시 1.85유로, Bica, Glória 와 Lavra 전차 (2회까지 사용가능) 5.15유로 Bilhete diário (24h)

전차는 또한 리스본시내 구시가지 또는 전통지구 언덕길의 승강기로도 사용되며 총 4개가 운행되고 있다(괄호 안은 운행구간). 사전구입시 2.90유로

Elevadorde Santa Justa(Ruado Ouro - Largodo Carmo)

※ 5.15유로 (2최까지 사용 가능)

Ascensor da Gloria(Praca dos Restauradores - Bairro Alto)

※ 3.70유로 (2최까지 사용 가능)

Ascensorda Bica(Ruade Sao Paulo - Largode Calhariz.)
※ 3.70유로 (2회까지 사용 가능)

Ascensor do Lavra(Largo da Anunciada - Rua Camara Pestana)
※ 3.70유로 (2회까지 사용 가능)

■ 택시

리스본의 택시는 대체로 낡았지만 요금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리스본시내 각 지역별로 택시 정류장(남색 푯말에 Taxi라고 표기)에 대기중인 빈 택시를 이용하거나 콜택시(Radio Taxis ☎ 21-811-9000, Taxiking Phone ☎ 218-598-693, Autocoope ☎ 21-793-2756) 이용 시에는 호텔 또는 커피숍에 호출을 부탁하는 것이 편리하다(기본요금 : 3.25유로).

최근에는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인 '우버(Uber)' 이용객이 늘고 있다. 우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후 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바로 콜택시처럼 이용 가능하다, 단,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 도로교통

포르투갈의 도로망은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으나 각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교통 표지판이 잘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간혹 애를 먹을 수도 있다. 시내 주행 시 제한속도는 시속 50km로 제한되어 있고 도심 여러 군데에 속도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 속도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120km이다.

운전자들이 과속, 급한 차선 변경, 방향 전환 신호 없는 운전 등 교통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방어운전이 필요하며 특히 보행자들의 무단횡단도 빈번하므로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반면 보행자들이 보도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 의무적인 차량의 정지는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운전 중 가벼운 접촉 사고 시에도 자신의 명백한 과실도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도 많고, 특히 과실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통 혼잡 초래에도 개의치 않으며 사고위치에 그대로 차를 세워두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운전자들이 많다.

또한 교차로 대신 로터리가 설치된 곳이 많으며 로터리에 있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진입 시 주의하고,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으니 특히 커브길 및 교차로 진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3) 기타

1 전력사용 현황

사용전압은 220V/50Hz 로 우리나라(220V/60Hz)와 차이가 있으므로 모터를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핸드폰과 노트북 배터리 충전에는 문제가 없다.

2 화폐

유로화 사용

31. 폴란드

1 개황

- **수 도 :** 바르샤바(Warszawa, 인구 174만 명)
- **인 구 :** 3,843만 명
- **면 적 :** 312,683㎢(한반도의 1.4배)
- **민족구성 :** 폴란드인(98.7%), 독일,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유태인 등
- **종 교 :** 가톨릭(95%), 기타 개신교 및 러시아정교 등 5%
- **시 차 :** 우리시간 -8(서머타임 시 -7)
- **언 어 :** 폴란드어(Polish)
- **GDP('16년) :** 5,235억 미달러(1인당 13,625미달러)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 총교역 37.5억 미달러
  (수출 31.2억 미달러, 수입 6.3억 미달러)

2 문화적 특성

과거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100년 이상 나라를 상실한 경험(1795~1918년)이 있으며 독립을 위해 외세지배에 지속적으로 항거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민족적 자긍심이 높으

며, 국민의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로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존경심이 매우 높아 역사 문제, 종교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 태도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많은 갈등관계를 빚어온 러시아(구 소련)에 대한 반감이 다소 있으며 폴란드의 지리적 위치를 '동유럽'으로 언급하는 것보다는 '중부유럽(Central Europe)'으로 호칭하는 것을 선호한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폴란드에서 가장 먼저 소개된 한류 콘텐츠는 영화이다. 한국영화가 2004년 〈에라 뉴호라이즌 국제영화제(현 폴란드 뉴호라이즌 국제영화제) 〉에서 소개되면서 홍콩, 일본 영화의 아류작으로 취급되었던 한국영화가 중·동부 유럽 영화 비평가와 관객들의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유지되어 왔고, 폴란드 내 주요 영화제에서 한국영화의 수상 소식이 들려오곤 한다. 2004년 국제 영화제를 통해 얻은 한국영화에 대한 명성이 한류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중·동유럽 영화강국으로서 자존심이 높은 폴란드 관객들에게 한국영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다.

K-Pop의 상륙 시기는 슈퍼주니어 팬클럽과 Big Bang 팬클럽의 폴란드 창단시기인 2008년경으로 추정된다. 이후로 2010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폴란드 케이블 방송사에서 한국드라마가 방영이 되었고, 폴란드 유아채널 미니미니에서는 〈뽀로로〉가 방영된 바 있다. 한국문학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출판사가 생겨나 매년 꾸준히 한국문학 및 한국 관련 정보 책자가 발간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한류는 폴란드에 자리하고 있다. 물론, 동남아시아에 비해 중·동부 유럽, 폴란드에서의 한류는 확산 정도에서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K-Pop 콘테스트〉와 K-Pop팬들이 자체적으로 주최한 한국가수 성공 기원 플래시몹, 폴란드 유력 주간지의 한류 특집 기사 등을 통해 폴란드에도 분명한 한류가 존재하고 있고, 미디어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문화(예컨대 중국, 일본 등)

를 좋아하는 팬들에 비해 한류 팬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보인다. 겨울이 길고 엔터테인먼트적 놀이 문화 요소가 적은 폴란드 문화적 환경에서 미국과 영국의 록 음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폴란드 음반 시장, 다소 호흡이 길고 느린 폴란드 드라마에 지친 폴란드 한류팬(10~20대 중반)들에게 한류 콘텐츠는 일종의 즐거운 취미이자, 다른 나라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인 것이다.

(2) 분야별 현황

1 드라마

현재까지 폴란드에서 케이블 방송사(Tele 5)를 통해 방영된 한국드라마는 3편이다. 2010년 10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추노〉가 방영되어 한류 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이듬해 5월에서 7월까지 〈아이리스〉가 방영되었다. 또한, 공중파 채널 TVP2에서 〈기황후〉가 2015년 11월 9일부터 2016년 2월 25일까지 방영되었다. 한편, 2012년 3월부터 한국 애니메이션(뽀로로)가 폴란드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채널(Minimini)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현지 케이블 방송사가 적극적으로 한국드라마를 처음으로 수입해 방영했다는 점과 한국드라마 모두 케이블 방송사로서는 긍정적인 시청률과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추후 지속적인 한국드라마 방영을 계획 중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케이블 방송사의 한계점(예산, 미디어의 관심도 등)과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큰 문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폴란드어 자막문제, 너무 많은 등장인물로 인해 스토리 전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중파 방영은 좀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 내 한국드라마 방영 현황〉

제 목	추 노	아이리스	기황후
방송사	Tele 5	Tele 5	TVP2
방영일시	2010.10.4.~11.24.	2011.5.9.~7.18.	2015.11.9.~2016.2.2.

폴란드 미디어의 다소 저조한 한국드라마 관심도와는 달리 한류 팬들 사이에서 점차적으로 한국드라마의 인기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여느 팬들과 다름없이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 팬들은 자체적으로

소규모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직접 한국드라마를 폴란드어 자막으로 번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를 시청한다는 한계가 있다. 드라마 방영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폴란드 내 한국 드라마 관심도와 한계 등을 타파할 수 있는 행사의 일환으로 바르샤바 센터 중심부에 위치한 영화관에서 MBC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이 상영되었다. 200석 규모의 상영관을 가득 메운 현장에는 기존 한류 팬뿐만 아니라 한국문화를 전혀 모르는 일반 관객들 또한 참여하였는데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좋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2018년 6월말부터 7월초까지 드라마 '내 뒤에 테리우스(극본 오지영, 연출 박상훈)'의 폴란드 로케이션 촬영이 있었고, 폴란드 최초 한국 드라마 촬영에 Polsat(tv채널), Polskie Radio(국영 라디오), Rzeczypospolita(신문) 등 현지 언론이 제작진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2 영화

한국영화는 영화강국인 폴란드에서 한류 콘텐츠 중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부문이다. 한국영화 소개 및 대중적 관심은 2004년 현지 국제 영화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중·동유럽에서 내실 있는 영화제로 손꼽히는 1)〈뉴호라이즌 국제영화제〉[1]에서 폴란드 우츠 국립 영화학교 한국 유학생들의 우수작품 단편선 〈한국의 발견〉이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많은 관객들과 영화 평론가들은 '아시아의 작은 용'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전까지만 해도 홍콩, 일본 영화의 아류작으로 평가받았던 한국영화에 대한 평가와 이미지가 180도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고 폴란드 영화 시장은 한국영화의 시장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져 2009년 〈바르샤바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 특집이라고 불릴 만큼 가장 많은 편수의 한국영화가 소개되었다. 같은 해, 아시아 영화 전문 비평가인 피오트르 클레토브스키(Piotr Kletowski) 교수가 책 『아시아의 영화(Kino Dalekiego Wschodu)』에서 한국영화의 개괄적인 역사와 김기덕, 박찬욱 감독을 집중 소개했으며, 이후 폴란드 영화잡지에는 꾸준히 새로운 한국영화에 대한 기사도 종종 엿볼 수 있다.

1) 뉴호라이즌 국제 영화제(New horizon international film festival)는 바르샤바 국제영화제(Warsaw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그디니아 영화제(Gdynia Film Festival), 촬영 감독들을 위한 카메르이미지 국제영화제(Camerimage International Film Festival)와 더불어 폴란드를 대표하는 국제영화제 중 하나이다.

2011년 4월에는 〈오프플러스 국제 독립영화제 〉에서 박정범 감독의 〈무산일기〉가 대상을 수상하였고, 그해 6월에 개최된 〈뉴호라이즌 국제영화제〉 에서 김기덕 감독의 〈아리랑〉이 예술 영화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2012년 6월, 뉴호라이즌 국제영화제에 또 한편의 한국영화(김경묵 감독, 〈줄탁동시〉)가 경쟁부문에 진출해 영화팬들의 이목을 끌었고, 9월에는 바르샤바 국제영화제에서 김진만 감독의 〈오목어〉가 애니메이션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한국 애니메이션의 저력을 보여준바 있다.

2014년 10월 바르샤바 국제영화제에 김경묵 감독의 〈이것의 우리의 끝이다〉가 경쟁부문에 출품되었고, 11월 바르샤바 아시아 영화제에서는 장진 감독의 〈하이힐〉이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매진사례 속에 관객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최근 2015년 10월 제31회 바르샤바 국제영화제에서는 이진우 감독의 〈울보〉, 안국진 감독의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가 각각 경쟁부문에 출품되는 등 한국 영화에 대한 현지 관객들의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 12월 포즈난에서 열린 폴란드 국제 청소년 영화제에서 김성호 감독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 심사위원 대상인 황금염소상과 선생님 심사위원상 등 3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2015년부터 바르샤바 한국영화제가 주폴란드 한국문화원 주최로 개최되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영화제를 찾는 관람객이 증가하는 등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바르샤바 한국 영화제는 신작 한국영화, 예술·독립 영화 회고전,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주재국 내 한국 영화를 알리고 한·폴 영화예술 분야 교류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현지 배급사의 한국영화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는데,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폴란드 7개 도시(크라쿠프, 포즈난, 우츠 등)에서 프리미엄 상영회를 가졌으며, 11월 4일, 전역에 개봉된 것을 시작으로 12월 나홍진 감독의 〈곡성〉, 2017년 1월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 7월 김지운 감독의 〈밀정〉, 11월 김성훈 감독의 〈터널〉 등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들이 연이어 폴란드 관객들을 찾았다. 2018년에는 변성현 감독의 〈불한당(4월)〉, 조선호 감독의 〈하루(4월)〉, 원신연 감독의 〈살인자의 기억법(7월)〉 등이 개봉했고, 류승완 감독의 〈군함도〉, 추창민 감독의 〈7년의 밤〉, 이창동 감독의 〈버닝〉 등이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작가주의 영화를 선호하는 현지 관람객의 특성상 영화배우보다는 감독(홍상수, 김기덕, 박찬욱 등)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문화를 종합적으로 접하는

다수의 한류 팬들은 주로 로맨틱 코미디와 멜로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3 K-Pop

폴란드 K-Pop 팬들은 K-Pop을 알게 된 경로가 2가지로 나뉜다. 이미 철저히 현지화 된 일본문화를 즐기던 젊은 층들이 우연찮게 K-Pop을 접하게 되어 일본문화팬에서 한류팬으로 바뀌게 된 일종의 Brand Switch가 된 경우와 YouTube를 통해 접한 화려한 K-Pop 영상에 매료되어 K-Pop을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된 경우이다. 여타 다른 아시아 문화를 향유하는 팬들 중에서 K-Pop 팬들이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보인다. 2011년 7월 30일에는 바르샤바의 상징인 문화과학궁전에서 한국 가수의 폴란드 공연을 기원하는 플래시몹이 K-Pop 팬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개최되어 중·동부 유럽에서도 한류 열기가 뜨겁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로 크고 작은 플래시몹이 바르샤바 및 폴란드 지방에서 개최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YouTube 영상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2012년 1월에는 현지 유력 주간지 브프로스트(Wprost)에서 '한류'라는 제목으로 세계적인 한류 현상(K-Pop 위주의)이 한국 기획사의 체계적인 시스템, 다른 나라 가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가수의 팬서비스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한류를 집중 소개하였다. 이처럼 폴란드 언론에서도 점차 K-Pop 및 한류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2014년에는 그동안의 K-Pop 인기에 힘입어 중동부 유럽에서 최초로 K-Pop 가수 상업 콘서트가 바르샤바(프로그레시아 공연장)에서 연이어 2회 개최되었다. 8월 30일 남성 아이돌 그룹 '레드애플(Led Apple)' 공연에 이어서 9월 14일 '빅스(VIXX)' 공연이 열리는 등 중동부 유럽 내에서 상업콘서트의 잠재력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2015년 3월에는 아이돌 그룹 '블락비(Block B)'의 공연이 만원사례를 이루며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7월 말에는 '보이프렌드(Boyfriend)'가 1,800여 명의 관객을 동원, 10월 초에는 '인피니트(Infinite)'가 800여 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콘서트를 진행하는 등 K-Pop 콘서트가 연이어 열려 한국 음악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 잡지 〈브라보(Bravo)〉 2015년 10월호에 'K-Pop에 대한 7가지 상식'이라는 글이 실리면서 메인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고, 폴란드 국영라디오채널4에서는 2015년 10월 22일부터 매주 1시간 동안 '지금은 K-Pop(Teraz K-Pop(현재 매주 목요일 20시 방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

국 음악 소개는 물론, K-Pop 가수들의 근황 등을 다루는 내용이 전파를 타고 있다.

2017년 8월에는 중유럽 K-콘텐츠 엑스포를 계기로 에이핑크, 틴 탑, 에디킴, 박재정, 빅톤, 투포케이가 무대에 올라 K-Pop Night in Warsaw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공연의 티켓은 예약 시작 9분 만에 3,500석 전량이 매진되며 폴란드 속 K-Pop의 인기를 입증해 주었다. 이어 9월과 10월에는 각각 정준영 밴드 콘서트, 에프티아일랜드의 콘서트가 바르샤바에서 개최되어 K-Pop 열기가 꾸준히 이어졌다. 2018년에는 드림캐쳐(2월), 헤일로·브이에이브이(3월), 투포케이(8월), 업텐션(9월), 블락비 멤버 지코(10월) 등 보다 많은 한국 가수들이 폴란드를 찾았다.

2018년 8월 기준, 1만명 이상 팬클럽 회원을 보유한 K-Pop 동호회는 샤이니, 방탄소년단, EXO 동호회 등이며, 30여개의 크고 작은 K-Pop 동호회에 151,149명이 회원으로 집계되었다.

4 문학

폴란드에서 한국문학을 전문적으로 번역해 출판하는 '동양의 꽃' 출판사 및 DIALOG, Wydawnictwo Entliczek 출판사 등을 통해 한국 문학이 현지에서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한국문학 및 한국에 대한 정보, 전문 서적 등이 폴란드어로 총 49권[2] 출판되었으며(2017년말 기준), 다양한 한국 문학 소개 행사도 개최되고 있다.

특히, 2011년 6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또한 폴란드어로 번역 출간되어 직접 작가가 폴란드를 방문해 바르샤바와 크라쿠프에서 〈작가와의 만남〉 행사가 진행되었다. 〈엄마를 부탁해〉는 폴란드의 가장 큰 대형 서점인 엠픽(Empik)에서 베스트셀러 20위권 내에 진입하기도 하였으며, 현지 문학잡지에 우수 외국 문학상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하였다.

---

2) 한국인의 의식구조(이규태), 홀(편혜영), 식물들의 사생활(이승우), 재와 빨강(편혜영), 검은 꽃(김영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박태원), 김영하 단편소설전, 김치 먹을까요?(레나 시비아텍), 새(오정희), 오정희 단편소설전, 빛의 제국(김영하), 엄마를 부탁해(신경숙), 검은새(이수지), 클라라와 하은이(이현경),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 한국의 브로드밴드(콘라드 고들레브스키), 한국에서(안나 사빈스카),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신경숙), 통일된 한국-기능성인가 유토피아인가?(안제이 보베르), 채식주의자(한강), 한국 유교사상의 역사(금장태), 한국 사람과 손잡고(안나 사빈스카), 사람의 아들(이문열), 고은시집(고은) 등

이 외에도 2012년 5월에 번역 출간된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은 현지 문학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가 주관한 '2012년 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고, 2016년 5월 김영하 작가의 인기소설 '검은 꽃'의 폴란드어 출간을 계기로 주폴란드 한국문화원과 '동양의 꽃' 출판사 공동 초청으로 바르샤바 대학교 한국학과 학생들과 만남을 가졌다.

2017년 1월에는 폴란드의 대표적인 문학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인 그라니차(Granice.pl)가 실시한 독자 투표와 전문가 심사 결과 편혜영 작가의 〈재와 빨강〉이 성인도서 부문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며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아진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를 계기로 2017년 5월 편혜영 작가와 바르샤바 대학교 한국학과 40여 명이 작가와 만나기도 하였다. 또한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김애란 작가(2017년), 이성아 작가(2018년) 등이 폴란드를 방문하여 연계행사가 진행되는 등 양국간 문학 교류 및 한국 문학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5 한국어

주재국 내 한국 기업의 진출 및 투자 확대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어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 상반기폴란드 내 세종학당은 총 3개로, 바르샤바 한국문화원과 포즈난 아담미츠키 에비츠 대학교, 크라쿠프 야기엘로니안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가장 최근 신설된 크라쿠프 야기엘로니안 대학교 세종학당은 2016년 10월 임시 개원 후 2017년 3월 극동아시아연구소에 정식 개원하였다.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은 2010년부터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 여름학기까지 1,607여 명(누적 수강생 수)이 참가하였으며, 특히 2018년 봄학기부터는 기존 18시간 모형에서 36시간 모형으로 학제를 개편하여 보다 심도 있는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바르샤바대학교, 포즈난대학교, 크라쿠프대학교에 한국학과가 개설되어 매년 50~80명 가량의 학생이 입학하고 있고, 브로츠와프 대학교에도 한국학 전공으로 50여 명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 바르샤바 대학교 내 한국학과는 기존에 동양학부 내에 일본학과와 통합 운영되고 있었으나, 2015년 하반기부터 별도의 독립학과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폴란드에서는 시행되지 않았던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2015년

11월 한국 국립국제교육원과 크라쿠프 야겔로니안대학 간 MOU를 토대로 2016년 하반기부터 연 1회씩 시행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응시자는 77명으로 2016년 28명 대비 175% 증가하여 한국어 공인 성적에 대한 현지의 수요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폴란드에서는 쇼비즈니스 사업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나 미비한 상태임과 동시에 엔터테인먼트적 놀이문화 요소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처럼 폴란드 음반시장에서는 자국 가수의 음반보다 대부분 영국 및 미국의 록 음악이 가장 높은 차트에 올라있고, 드라마 또한 자국 드라마보다는 미국·영국 드라마가 가장 많이 방영되고 있다.

이러한 자국의 대중문화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하고 화려한 K-Pop, 드라마 등을 접한 폴란드의 한류 팬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은 '질리지가 않는다, 다양하다'이다. 더불어 '서비스'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폴란드인들에게 한국 가수들이 보여주는 '팬서비스'는 그들로 하여금 한류에 대한 충성도를 더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다.

영화의 경우는 폴란드 국민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폴란드인이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폴란드 아시아 영화제 위원장 야쿱 크룰리코브스키씨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엿볼 수 있다. '폴란드인들이 왜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3] "폴란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 영화에서 보이는 인간 감정의 표현 방법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임과 동시에 그러한 요소를 통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아닐까. 이것이 바로 폴란드인이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폴란드에서 또한 한류가 급속도로 퍼질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SNS 사용 증가량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엔터테인먼트적 놀이 요소가 부족한 주재국 문화 환경 탓에 남녀노소 불문,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주재 국민들은 YouTube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 심지어 바르샤바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66세 노년의 택시 기사 또한 스마트폰으로 YouTube를 시청하

3) 2011 다섯가지 맛, 아시아 영화제(Five Flavors, Asian Film Festival) - 한국 특별 섹션 중 직접 인터뷰

는데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채널을 검색하던 도중 한국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의 포맷이나 주재국 또는 전 세계적으로 방영되고 있는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의 정형화된 포맷은 똑같으나, 더 다양하고 풍부한 스토리텔링, 관객 반응, 화면에서 보이는 무대 효과, 자막 효과 등이 눈과 귀를 사로잡아 그 후로 오디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또한 시청하게 되었다고 했다. 노년의 택시 기사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폴란드는 다소 정적이고 보수적인 풍토의 TV 프로그램으로부터 더 새로운 것을 찾고자하는 문화 수용자들이 많다.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는 한국 문화, 또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더 많이 찾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문학 및 클래식 음악의 수준은 여느 유럽에 못지않게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만큼 폴란드인들은 자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 전통 및 클래식 공연에 대한 수용자들의 입맛은 수준 높고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게다가 문화 수용자들의 기호에서 세대 간의 격차가 커서 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필요하다. 이를 감안했을 때, 폴란드 한류 팬들을 제외한 전 대중을 대상으로 폴란드에 한류 콘텐츠를 소개하고 진출할 때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 서술한, 자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에서 주목할 만한 문화적 특수성은 타문화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개방적이라는 점이다. 점차적으로 여러 국제 행사가 개최되고, 공공기관에서부터 상업 영화관에 이르기까지 타문화 관련 행사에 대한 현지 관계자들의 마인드는 매우 열려 있는 편이다. 그러나 여느 다른 유럽과 마찬가지로 대관 행사 진행시 최소 1년 전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서면 계약을 중요시하는 폴란드 관행상 작은 것 하나까지도 계약서를 쓰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개방적인 문화 수용 태도와 문화·예술적으로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분위기와는 달리 한류가 침투 가능한 문화산업 인프라는 다소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폴란드에서는 한류가 상업적 성공을 거두기에는 시기상조이며, 향후 몇 년간 한류 팬 및 일반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한류콘텐츠를 노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 현황

폴란드 내 한류 관련 동호회는 대부분 K-Pop 가수들의 팬클럽으로, 2008~9년에 생겨났다. 회원 대부분은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소수의 베트남인들이 함께 활동하기도 한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으로 K-Pop 회원수가 2012년 초 통계 대비 약 2배가량 상승한 이래,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등 한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한류팬들은 Facebook과 같은 사회통신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티스트별 페이지뿐만 아니라 K-Pop 통합 페이지들이 생겨나며 활발한 정보 교류와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K-Pop 외에도 2015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내 사물놀이 동아리가 만들어져 코리아페스티벌 등 한국 문화 관련 행사에서 공연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포즈난 아담미츠키에비츠 대학교 한국학과 학생들은 부채춤 동아리, 트로트 동아리 등을 창설하여 주재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2) 동호회별 현황('17.08월 기준)

1 SHINee POLAND

성격	샤이니 팬클럽
회원 수	41,333명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replayteam
세부 활동 현황	• 해당 그룹 활동 및 K-Pop 관련 정보교류, 지역 동호회 활성화, 소규모 K-Pop 파티 진행 등

2 BANGTAN BOYS POLAND

성격	방탄소년단 팬클럽
회원 수	25,557명
웹사이트	• https://www.facebook.com/BTSPolandOfficial/
세부 활동 현황	• K-Pop 관련 정보교류, 지역 동호회 활성화, 소규모 K-Pop 파티 진행 등 • 지역 동호회 개최, 공식 팬레터 및 동영상 제작, 방탄소년단 티셔츠 공동 구입

3 K-Pop Poland

성격	K-Pop 폴란드 동호회
회원 수	19,122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groups/kp0pp0land/
세부 활동 현황	• 주로 SNS를 통해 활발한 정보 교류, 동영상 업데이트 및 실시간 댓글 활성화 • Big Bang, 슈퍼주니어, 엠블랙, 동방신기 등 서브 그룹으로 나누어 3개월에 한 번씩 지역 정모개최 • 방학을 이용하여 전국 정기 모임 개최

4 EXO POLAND

성격	EXO 동호회
회원 수	12,253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exopl
세부 활동 현황	• K-Pop 관련 정보교류, 지역 동호회 활성화, 소규모 K-Pop 파티 진행 등 • 지역별 모임 개최, 공식 팬레터 및 선물 공동 준비

※ 이밖에도 B.A.P, GOT7, 24K, VIXX, 2NE1, Block B 등 다수 팬클럽이 활동 중

6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바르샤바 민속박물관 한국실 개관

- 일시 : 2018.2.22.(목)
- 장소 : 바르샤바 민속박물관 내 전시실
- 참석자 : 주재국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200여 명 및 주재국민 200여 명
- 내용 : 중동부 유럽 박물관 최초 한국실 개관 관련, 축하 공연 및 전시 관람, 한식 리셉션 등

(2) 한국 인형극 특별 초청 공연 '달래 이야기'

- 일시 : 2018.3.2.(금) ~ 3.3.(토)
- 장소 : 바르샤바 문화과학궁전 내 랄카 극장(Teatr Lalka)

■ 참석자 : 주재국 문화예술 관계자 및 바르샤바 거주 한인, 주재국 시민 등 720여 명
■ 내용 : '아트스테이지 산(ArtStage SAN)' 초청 공연으로 한국전쟁을 겪는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낸 비언어극

(3) 뜻밖의 만남(Unexpected Encounter) 전시

■ 일시 : 2018.3.16.(금) ~ 5.20.(일)
■ 장소 : 국립미술관 자헹타 프로젝트홀
■ 참석자 : 현지 문화예술 관계자 및 시민 등 1,230여 명 관람
■ 내용 : 한국(원성원 / 사진 콜라주 및 드로잉)과 폴란드(Anna Panek / 대규모 페인팅 및 드로잉) 작가의 개별 작품 및 공동 작업물 전시

(4) 쇼팽음대와 함께하는 봄맞이 한-폴 우정의 음악회

■ 일시 : 2018.4.13.(금) 19:00~20:00
■ 장소 : 주폴란드 한국문화원
■ 참석자 : 쇼팽음대 관계자 및 클래식 음악 애호가, 한인 유학생 및 교민, 일반 시민 등 150여 명
■ 내용 : 국립쇼팽음대와 협력, 한-폴 연주자가 함께 하는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음악 공연 (현악 오케스트라 앙상블, 플루트 및 바이올린 독주, 성악, 한-폴 어린이 합창 등)

(5) 쇼 머스트 고 온(The Show Must Go On) 전시 및 토크 프로그램

■ 일시 : 2018.4.17.(화) ~ 5.19.(토)
■ 장소 : 주폴란드 한국문화원, 국립 우야즈도브스키성 현대예술센터
■ 참석자 : 주재국 일반 시민 350여 명 관람
■ 내용 : 한국 시각예술 작가(10인)의 포트폴리오와 작품이 담긴 수트 케이스 전시 및 전문가 토크 프로그램 진행

(6) 2018 폴란드 박물관의 밤 계기 한국문화의 밤

- 일시 : 2018.5.19.(토), 11:00~19:00
- 장소 : 주폴란드 한국문화원
- 참석자 : 현지 문화예술관계자, 바르샤바 거주 한인 및 주재국 시민 등 500여 명
- 내용 : 한국 시각예술 전시 및 관련 대담 프로그램, 한국 현대미술 다큐멘터리 상영 / 한국문화특강 및 체험(한국 전통 주거문화 및 미술), 익선관 모형 만들기, 부채 꾸미기, 한복 체험 등

(7) 제7회 Korea Festival

- 일시 : 2018.6.9.(토), 11:00~19:00
- 장소 : 바르샤바 아그리콜라 공원
- 참석자 : 주재국 각계인사 및 외교단, 바르샤바 시민 및 한인 동포 등 16,000여 명
- 내용
  - 문화체험(한복, 판화 및 서예, 전통놀이 및 전통악기, 태권도 등) 및 한식체험, 기업 전시관 운영
  - K-Pop, 설장구 등 식전 공연 및 본공연('노름마치'팀)
  - 한국 관광사진전 및 한국 영화 상영회 등

(8) 2018 K-Pop World Festival

- 일시 : 2018.6.21.(목), 14:00~17:00
- 장소 : 주폴란드 한국문화원
- 참석자 : 한류 애호가 및 K-Pop 팬 등 120여 명
- 내용 : KBS World 주최 폴란드 지역 예선(댄스 및 보컬 10개 팀) 공연

(9) 폴란드 독립 100주년 기념 공연

- 기간 : 2018.9.4.(화) 19:00~20:00
- 장소 : 바르샤바 국립극장
- 참석자 : 주재국 외교단 및 바르샤바 시민 등 400여 명
- 내용 : 폴란드 독립 100주년 기념 청주시립무용단 초청 전통 무용 공연

(10) 제25회 폴리쉬오픈 태권도 대회

- 일시 : 2018.9.15.(토)~9.16.(일)
- 장소 : 바르샤바 토르바르(Torwar) 실내 경기장
- 참석자 : 60여개국 대회 참가 선수단 및 일반인 관람객 1,000여 명
- 내용 : 태권도 피크닉 운영(한국문화 체험부스 운영 등)

(11) 제4회 바르샤바 한국영화제

- 일시 : 2018.11.5.(월)~9.(금)
- 장소 : 바르샤바 키노 쿨투라(Kino Kultura) 극장
- 참석자 : 정부, 문화예술계 주요인사, 언론인 및 일반 관객 등 연인원 1,700여 명
- 내용 : 개막식(11.5), 한국 영화 사영 및 초청 관계자 토크 및 세미나 등

(12) 한국재즈팀 초청 공연

- 일시 : 2018.11.26.(월)
- 장소 : 주폴란드 한국문화원
- 참석자 : 문화예술계 관계자 및 일반 관객 등 연인원 150여 명
- 내용 : 한솔잎, 송하철 콰르텟 등 한국재즈팀 초청 공연

7 여행 정보

(1) 비자

1 비자

한국은 폴란드와 비자 면제 협정(1993.12.24. 발효)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 없이 폴란드에 입국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90일 내) 방문의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

단, 한-폴 비자 면제 협정은 현지 취업과 같은 영리 목적의 입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취업, 주재원 파견 등 영리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90일 이상 체류할 때는 적절한 비자와 임시 거주 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공연비자

사례금을 받는 상업적 공연의 경우 공연비자가 필요하나, 별도 사례금이 없이 문화교류 차원의 공연을 위한 입국 시 공연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주한폴란드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사간동 70번지
- 전화 : 02-723-9681
- 홈페이지 : www.seul.polemb.net

(2) 안전정보

1 여행경보단계 : 안전

2 사건·사고의 현황

- 테러, 인질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폴란드는 안정적인 정치체제 하에서 정상적인 공권력이 작용하는 국가로 양호한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테러 가능성은 적은 편이나, 나토 회원국으로서 아프가니스탄 파병중인 관계로 테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역, 공항, 도심 등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의 절도, 소매치기, 폭행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나, 강력범죄 발생률은 높지 않은 편이며 비교적 치안이 안전한 국가로 분류된다. 관광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소매치기와 절도가 있을 수 있으며, 외국인이 많이 묵는 호텔 주변에서의 호객행위에 의한 바가지요금과 택시 운전사들의 고의적인 돌아가기 등을 유의해야 한다.

3 자연재해

지진, 쓰나미 등 대규모 자연재해는 없다.

4 유의해야할 지역

주로 외국인과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유명 관광지·쇼핑지역 등에서의 절도, 소매치기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 바르샤바의 경우 도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비스와 강 동쪽 편은 범죄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여름 관광 철에는 도시 간 야간열차에서 승객이 잠이 든 틈을 타서 가방, 지갑 등을 훔치는 범죄가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8 현지 연락처

(1) 주폴란드 대사관(청사)

- 주소 : ul. Szwolezerow 6, 00-464 Warsaw
- 전화 : +48 22 559 2900
- e-메일 : koremb_waw@mofa.go.kr
- 홈페이지 : http://pol.mofa.go.kr
- 긴급전화
  - 사건사고업무 : +48 601 165 600
  - 일반영사업무 : +48 601 328 893

(2) 주폴란드 한국문화원

- 주소 : ul. Zbigniewa Herberta 8, 00-380 Warsaw
- 전화 : +48 22 525 0930
- e-메일 : kulturakoreanska@gmail.com
- 홈페이지 : http://pl.korean-culture.org


KOREA
FOUNDATION
KF
한국국제교류재단

32. 프랑스

1 개황

- **수 도 :** 파리(Paris, 인구 223만 명)
- **인 구 :** 6,720만 명
- **면 적 :** 672,360㎢(속령포함, 한반도의 6.7배)
- **종 교 :** 가톨릭(64%), 이슬람교(7.5%), 유대교 등
- **시 차 :** 우리시간 -8 (서머타임시 -7)
- **언 어 :** 프랑스어
- **1인당 GDP('17년) :** 38,476 미달러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 총교역 8,739백만달러 (수출 2,994백만달러, 수입 5,745백만달러)

2 문화적 특성

(1) 풍부한 문화유산과 발달한 문화관광산업

프랑스에는 다수의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과 다양한 박물관이 소재하고 있다. 약 4만 3천개 건축물과 유적지 중 41개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또한, 100여 개 국립박물관을 비롯하여 약 1천2백 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해마다 230만 개의 오페라, 발레, 음악극 등 공연이 열리고 있다. 그 밖에 3천4백 개의 공원과 정원이 있다. 프랑스는 이러한 풍부한 문화유산과 더불어 세계 1위 관광 대국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내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관광객 수가 감소(8,450만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8,300만 명, 2017년에는 8,69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이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해외 관광객 방문국 순위 1위를 기록했다.

※ 주요 통계
- 문화산업 : 총 일자리 수는 67만여 개, 연간 580억 유로의 부가가치, 130만여 명 고용
- 관광산업 : 총 일자리 수는 30만여 개, 연간 590억 유로의 부가가치, 98만여 명 고용

(2) 국민들의 높은 문화수준과 수요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문화정책을 중시해 왔다. 파리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으며, 파리 가을 축제, 아비뇽 국제 연극 축제, 앙굴렘 국제 만화 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프랑스 전역에서 연중 개최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문화의 지방 분산화 정책으로 수도인 파리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의 문화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다. 특히 공연 분야의 지방 분산화가 잘 정착되어 있다. 지방에는 파리에 집중된 국립극장을 대신하여 지역 내 공연예술창작과 확산을 책임지는 38개의 국립드라마센터(Centre dramatique national)를 설립하여 지역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는 프랑스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다. 정부는 문화예술향유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문화예술 교육을 의무화하고 기초교육은 물론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한 특별 편성반도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범위는 음악, 미술, 공연예술, 예술사 등 고급문화에서부터 건축, 실용예술, 디자인, 영화, 디지털 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다른 한편, 프랑스는 지중해, 대서양에 접한 지정학적 위치, 과거 해외 식민지 지배 등으로 오래전부터 외국문물이 활발히 수입되었으며, 외국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긍정적 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3) 문화다양성

프랑스의 문화정책상 중요한 가치는 '문화다양성'이다. 프랑스는 유네스코(UNESCO)의 문화다양성 협약을 주도하고, 문화적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영화,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대자본을 앞세운 미국의 독점에 저항하고, 프랑스 문화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이민자들이 많은 프랑스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사회의 안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프랑스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주제는 영화의 주요 소재가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다. 2014년에 개봉한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소재로 한 영화 〈컬러풀 웨딩즈(Qu'est qu'on fait au Bon Dieu?)는 천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예외를 고수하는 프랑스 문화콘텐츠 업계도 미국 문화산업과의 자유 경쟁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프랑스 텔레비전 채널에서는 주로 미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넷플릭스 등을 통한 미국대중문화 수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4) 프랑스 연간 대표 문화행사

- 멀티미디어 시청각 축제(FIPA, Festival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Audiovisuels)
  - 매년 1~2월경, Biarritz, 주관기관 FIPA
  - 웹사이트 : http://www.fipa.tv
- 국제 디지털 아트 축제(Festival international des arts numeriques)
  - 매년 6월 중순, Enghien-les-bains, 주관 Centre des arts Enghien-les- bains
  - 웹사이트 : www.bainsnumeriques.fr
- 앙굴렘 국제만화 축제(Festival International de la Bande Dessinee)
  - 매년 1~2월경, Angouleme 주관 : FIBD 협회
  - 웹사이트 : www.bdangouleme.com
- 음악축제 (Fête de la musique)
  - 매년 6월 21일, 프랑스전역
  - 웹사이트 : https://fetedelamusique.culturecommunication.gouv.fr/

■ 몽펠리에 무용축제(Festival Montpellier Danse)
- 매년 6월 말경, Montpellier, 주관 Montpellier Danse A l'agora,
- 웹사이트 : www.montpellierdanse.com

■ 리용 무용비엔날레 (Biennale de la Danse)
- 짝수년 하반기(격년제), Lyon, 주관 les Biennales de Lyon
- 웹사이트 : www.biennale-de-lyon.org

■ 아비뇽 연극 축제(Festival d'Avignon)
- 매년 7월, Avignon, 주관 Bureau du Festival d'Avignon,
- 웹사이트 : www.festival-avignon.com

■ 브장송 세계음악축제(Festival International de Musique Besancon Franche Comte)
- 매년 9~10월, Besancon
- 웹사이트 : www.festival-besancon.com

■ 랭스 재즈 페스티벌 (Reims Jazz Festival)
- 매년 11월, Reims, 주관 Reims Jazz Festival
- 웹사이트 : www.djaz51.com

■ 국제현대미술전(Foire Internationale d'Art Contemporain)
- 매년 10월경, Grand Palais, Paris, 주관 FIAC(Foire Internationale d'Art Contemporain)
- 웹사이트 : www.fiac.com

■ 아를 국제사진축제(Rencontres Internationales de la Photographie)
- 매년 7~9월, Arles, 주관 Maison des Rencontres
- 웹사이트 : www.rencontres-arles.com

■ 칸국제영화제(Festival de Cannes)
- 매년 5월, Cannes, 주관 Festival International du Film
- 웹사이트 : www.festival-cannes.com

■ 클레르몽페랑 국제단편영화제(Festival International du Court Metrage)
- 매년 1월~2월, Clermont-Ferand 주관 La Jetee
- 웹사이트 : www.clermont-filmfest.com

■ 브줄 국제아시아 영화제(Festival International des Cinemas d'Asie)
- 매년 2월, Vesoul, 주관 Festival International des Cinemas d'Asie
- 웹사이트 : www.cinemas-asie.com

■ 낭트 3대륙 영화제(Festival des Trois Continents)
- 매년 11월, Nantes, 주관 les 3 continents
- 웹사이트 : www.3continents.com

3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프랑스 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지난 몇 년간 한류콘텐츠 소비 확산과 정보산업기술의 발달 등으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 도발,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다. 문화부분에서는 특정 한국 애호가층들이 한국 전통 문화 및 한국 문화 일반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 왔고, 2000년대부터 생겨난 한류팬들로 인해 한국 대중문화 중심으로 한국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개최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프랑스 내 한국 의 해〉를 통해 프랑스 내 한국의 전통, 현대 문화예술을 다양하게 소개, 한국의 이미지가 격상되었다. 프랑스 내에서만 총 245개의 행사(문화예술 227개, 교육 및 경제 18개)가 개최되고 1,153건의 기사가 현지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한국의 역량 있는 아티스트들이 대거 소개되고, 우수한 문화예술이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한-불 상호교류의 해 일환으로 개최된 수많은 한국 공연 및 전시가 프랑스 대표 문화예술기관들의 자체 프로그램으로 기획 되어 프랑스 문화예술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확대에도 좋은 계기가 되어 프랑스 일반인 뿐 아니라 문화전문인들 또한 한국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6-2017 글로벌한류실태조사〉내 한국연상 이미지 조사에서 '14년 이래 '한국전쟁' 및 '북한(분단국가)'과 같은 전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나, '16년 조사에서는 문화/관광 관련 이미지 연상이 상승한 바와 같이 이번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계기, 문화예술 사업을 통한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하였고, 향후 한국 문화예술 적극적인 진출에 발판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한류 콘텐츠의 경우, 프랑스내 K-Pop 공연 기획 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프랑스 내 K-Pop 팬들의 경우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학생들로 구성되므로 낮은 구매력을 고려, 현지 기획시, 공연 티켓 가격을 현 실정에 맞추어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 기획사 선정 시 공연기획과 홍보 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기획사나 전문가를 통한 현지시장조사를 먼저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를 방문한 한국 매체들과 인터뷰를 했던 현지 관계자들과 한류 팬들은 한국 매체의 태도에 부정적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대다수의 매체가 의도적이고 유도적인 질문을 하였고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듣고자 취재하는 모습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토로한다. 지속적인 한류열풍을 위하여 인터뷰와 취재 시 현지인들이 느끼는 감정을 반영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시간으로 국내 뉴스와 K-Pop 소식이 현지 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4 한류 현황

(1) 일반현황

프랑스 내 한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된다. 한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한류 1기(상륙)는 2000년대 초이며, 영화를 중심으로 확장되었다. 2000년은 한류 1기의 신호탄이 된 해로, '제53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이 한국영화 최초로 장편 경쟁 부문 후보작으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3편의 한국영화가 최초로 프랑스 상영관에서 개봉하였다. 프랑스 전문 영화인들이 주요 팬층을 형성하며 대중성보다는 작가주의 성향의 예술영화로 호평을 받았다. 프랑스 상영관 내 한국영화 개봉은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총 11편) 잠시 주춤하였으나 프랑스 영화계에서 호평을 받으며 전문 관객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최근에는 〈부산행〉, 〈버닝〉 등이 크게 흥행하면서 한국 블록버스터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프랑스 내 인터넷이 보급률이 높아진 2000년대 중반, 만화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 소비가 점차 확산되면서 프랑스 내 한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프랑스 한류 2기의 중심에는 영화, 만화와 함께 드라마와 K-Pop이 있다. 2000년대 초·중반 번역된 한국만화의 출판이 증가하였고 일본 대중문

화 팬들이 인터넷을 통해 한국드라마와 K-Pop을 향유하는 중심축으로 대거 이동하며 확장해 나갔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YouTube, Facebook 등 소셜 네트워크의 확산, 프랑스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사용자 수 증가는 한류 3기를 탄생시켰다. 이 시기는 K-Pop 열풍이라고 불릴 만큼 K-Pop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여 본격적인 한류열풍을 만들어냈다. 대다수 한류 3기 팬들은 2008년 무렵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2011년 SM타운 파리콘서트를 계기로 가시화되었으며 최근에는 BTS, 블랙핑크 등의 아이돌 그룹이 큰 인기를 끌면서 K-Pop이 소수 매니아 층을 넘어 더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추세이다.

프랑스 한류는 현지 팬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겨났고 또래 집단의 활동을 통해 확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류 2기 팬들의 경우 일본문화를 즐기던 젊은이들이 한류 팬으로 이동하면서 형성되었다면, 한류 3기 팬들은 일본문화와는 상관없이 또래 집단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생성되었다. 현재 한류 팬의 주요 연령은 10대 청소년으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또래집단 뿐 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한국문화를 알림으로써 프랑스 사회 전반에 한국문화가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6-2017 글로벌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 중 프랑스에서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은 영화로, 현재 80.7%가 경험하였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가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식'은 일반적 인기가 많고 이용 경험이 높은 편이다. 한류 콘텐츠별 소비현황은 K-Pop, 드라마, 영화, 전통문화, 만화, 게임 순이다. 여성 팬은 남성 팬보다 드라마의 소비가 높으며, 남성 팬은 상대적으로 게임 콘텐츠의 소비가 더 높다.

한류 콘텐츠 소비는 더욱 넓은 계층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소비의 양과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프랑스 한류 팬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에 따르면 한국드라마를 시청하는 중년여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자녀와 함께 한류콘텐츠를 소비하기도 한다. 또한, K-Pop에 대한 10대들의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10대들의 경우, K-Pop 그룹별 팬클럽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지하는 그룹이 해체할 경우,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소비도 함께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2) 분야별 현황

1 한국어

프랑스 내 한류열풍과 함께 파리7대학교, 국립동양어대학교(INALCO), 라로셸 대학교, 리옹 3대학교 등 프랑스 대학 내 한국어 전공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2017년 프랑스 대학입학 국가 자격고시인 바칼로레아(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에 한국어 과목이 공식 포함되었다. 하지만 중도 포기하는 학생의 수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수업 수강생의 경우, 과거보다 연령이 어려지고 직업을 가진 성인보다 학생들이 많아졌다. 2018년 한국어 수업 수강생은 402명에 달한다. 초급반이 312명, 중급반이 90명으로 초급반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파리에 이어 2015년에는 경희대학교, 라로셸 대학 및 라로셸 지자체가 공동으로 라로셸 시 세종학당을 개원하여 공동운영하고 있다. 몽펠리에 교육청과 주프랑스 한국교육원의 후원 및 협력으로 올 3월부터 두 개의 공립중학교(퐁카라드 중학교(Collège Fontcarrade), 아르튀르 랭보 중학교(Collège Arthur Rimbaud))에서 한국 아틀리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두 중학교는 물론 쥘 게드(Jules Guesde) 국제고등학교와 장모네(Jean-Monnet)고등학교에서 내년 9월부터 한국어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교습자와 학습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슈페르프로프(Superprof)에는 약 60명의 한국어 개인 교습자가 등록되어 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독학하는 경우, 주로 영어로 된 콘텐츠를 이용한다. 한편,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드라마와 K-Pop 가사 이해, 한국여행, 한국에 있는 대학진학, 한국기업 취업, 한국 거주 등 다양하다.

2 전통문화

한국전통문화는 1979년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설립 이래 문화원서 공연, 전시 등을 통해 꾸준히 소개되어왔다. 또한, 세계문화의집, 국립기메동양박물관, 깨브랑리 등 프랑스 주요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으로 전시와 공연을 개최, 한국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기관협력 외, 파리 가을 축제 및 지방 한국문화축제(낭트, 몽펠리에, 옹플뢰르) 등 축제를 통해서도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프랑스 내 한국 전통 음악 협회가 창설, 대표적으로 풍물협회(얼쑤)와 우리소리협회(K-Vox) 등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 전통문화 중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판소리와 사물놀이로 2008년부터 문화

원내 판소리 강좌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내 유수의 문화기관에서 안숙선, 이자람 등 전통/현대 판소리 공연이 소개되고 있으며, 아마추어 판소리꾼들을 위한 무대도 마련되고 있다.

한편, 한류열풍 이후, 프랑스 젊은 층의 한국 전통문화 향유가 증가하였다. 한류 팬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3%가 한국전통문화를 향유한 경험이 있으며 여성 팬의 전통문화 향유율이 더 높다. 그 중 2기 한류 팬의 한국 전통문화 향유율이 가장 높았다.

3 공연, 미술

미술 분야의 경우, 프랑스 내 재불 한인작가 중심으로 프랑스 화단계에 한국 아티스트의 입지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소나무 재불중견한인 작가협회와 청년 작가협회 AJAC(Association des jeunes artistes coreens)를 중심으로 한국작가들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파트릭 보두앙 갤러리, 프랑수와즈 리비넥, 마리아룬드, 갤러리 RX 등 프랑스 갤러리 소속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한국작가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한-불 상호교류의 해'였던 2015-2016년도에는 국립기메동양박물관에서 '조선시대 한국화 특별전', 국립장식미술관에서 '한국공예패션디자인전', Art Paris Art Fair 미술박람회 '한국주빈국' 등의 대규모 전시가 개최된 바 있다. 최근에는 퐁피두, 팔레드도쿄, 그랑팔레 등 프랑스 내 명성 높은 미술관에서 한국 신진작가들이 활약하고 있다. 2016년에는 현대설치미술작가 양혜규전이 퐁피두 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되고, 2017년에는 세르누치 박물관과 퐁피두센터에서 '이응노'회고전이 개최, 팔레드도쿄에서는 신진작가상을 수상한 권하윤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 바 있다.

공연 및 음악 분야의 경우, 클래식 분야에서는 지휘자 정명훈,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피아니스트 백건우, 김선욱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16년 2월 9일에 르피가로지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을 배출한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적인 명문 음악원으로 잘 알려진 파리 국립 고등 음악원(CNSMD)의 한국인 음악영재들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한국인 최초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의 경우도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 수학, 파리 필하모니와 파리국립고등음악원 순회연주를 개최하는 등 프랑스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10 재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보컬부분 최고 아티스트로 선정된 나윤선의 앨범은 프랑스 재즈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프랑스에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외에 '예지', '크러쉬', '바버레츠', '단편선과 선원들' 등의 한국 아티스트들이 파리에서 공연을 개최하면서 한국 음악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현대 무용의 경우, 2013년 〈파리 여름축제〉 일환으로 개최된 〈안은미 바리- 이승편〉 공연 이후, 2015년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로 프랑스 무용계를 뒤흔든 안은미 안무가는 2019년 2월 프랑스 파리 유명 극장 '테아트르 드 라빌' 시즌 프로그램으로 〈안은미-북한춤〉을 선보일 예정으로 프랑스에서 지속적으로 공연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4 영화(K-CINEMA)

영화는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알려진 한류 콘텐츠이다. 1993년 퐁피두센터 임권택 회고전을 필두로 1990년대부터 한국영화가 본격적으로 소개되었고 2018년 상반기까지 한국영화 백여편이 프랑스 상영관에서 개봉되었다. 또한 한국 영화가 '칸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여타 프랑스 영화제들에 많이 초대되고 있다. 올해 8월 말에는 국립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에서 이창동 감독의 단독 회고전이 열리는 등 프랑스 영화계에서 한국 영화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감독 중에서는 봉준호, 박찬욱, 홍상수의 팬층이 두터우며 이 감독들의 신작은 물론 예전 영화들도 극장에서 재개봉을 하거나 DVD로 출시될 정도로 인기다. 최근에는 한국 블록버스터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면서 한국 영화의 소비층이 보다 넓어지고 있다.

2006년 한불 영상문화 교류협회 1886의 주최로 시작된 파리한국영화제는 올해로 13회째를 맞으며 매회 꾸준히 많은 관객을 동원하고 있다.

한국 영화 개봉 시 르몽드, 르피가로, 리베라시옹 등 현지 주요언론에서 자세한 영화평을 보도한다. 프랑스예술영화협회는 한국영화를 예술영화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영화의 주요 향유자는 25~35세의 아시아 영화를 즐기는 시네필이다. 한국영화 향유자는 다른 한류 콘텐츠와 달리 영화만을 소비할 뿐 대다수가 드라마, K-Pop, 한국어, 공연예술 등 다른 장르의 한국문화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한편, 2000년대 후반, K-Pop, 한국 드라마 등을 즐기는 청소년들이 한국영화의 새로운 관객으로 유입되었다. 이들 한류 팬들은 기존 한국영화 관객층과 달리 아이돌 스타가 출연한 영화,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중심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팬들 사이에서의 공유 속도가 매우 빠르다.

5 K-Pop

지난 2008년부터 K-Pop 관련 콘텐츠의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에서 소녀시대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K-Pop 음반 판매량이 증가하였고 2011년 SM타운 파리 공연 이후 최근 2018년 10월 BTS 공연까지 K-Pop 공연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K-Pop 팬의 대부분은 10대 소녀들이다. K-Pop 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 수년 전부터 한류 팬들은 자체적으로 K-Pop 댄스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으며 2016년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 운영한 K-Pop 아카데미 프로그램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현재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팬클럽 수는 800여 개에 달한다. 한류열풍 초기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은 Big Bang과 2NE1 등이었으나 현재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한 그룹은 BTS, 블랙핑크, 아이콘, B.A.P, EXO, SHINee, 레드벨벳 등이다. 또한 프랑스 내 30여개 K-Pop 댄스 동호회가 생겼으며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직접 제작한 뮤직 비디오를 올리기도 한다. 인기가 많은 K-Pop 동호회 동영상 조회 수는 약 3천만 회에 달하며 K-Pop 댄스 동호회들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6 드라마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한 한국 드라마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드라마의 주요 향유 층은 18~30세이며 40대 이상은 5~10%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한국드라마 VOD 서비스를 시작한 유료 플랫폼 '드라마 빠씨옹(Dramapassion)'의 콘텐츠 조회 수는 월 3백만 뷰에 달한다. 2016년 1월 프랑스 최대 규모의 민영 방송의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MyTF1에서 방송한 한국드라마 4편은 인기콘텐츠 TOP10에 올랐다. 방송 콘텐츠는 주로 비키(Viki), 드라마빠씨옹을 통해서 접하며 대다수가 프랑스어 자막이 제공되지만 영어자막 콘텐츠 이용에도 큰 불편함이 없다. 일부 한류 팬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국 드라마의 프랑스어 자막을 제공한다.

이러한 드라마 열풍에 힘입어 한국문화애호협회 봉주르 꼬레가 2013년부터 파리를 거점으로 드라마 파티 축제를 개설, 이후, 렌느, 낭트, 낭시 등 프랑스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7 한식(K-FOOD)

한류열풍과 함께 한식을 찾는 프랑스인이 증가하고 있다. 대중적인 측면에서 영화다음으로 현지인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인기 있는 한류 콘텐츠로 남녀노소 모두 즐긴다. 프랑스에 있는 한식당의 수는 약 125개(2016년)이며, 현지인의 한식당 이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한류 팬들을 중심으로 한식 조리법도 공유되고 있어 한국 식품점을 찾는 현지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는 매달 1회 실시하는 한식문화교육아틀리에를 운영하여 꾸준히 프랑스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문화원은 2017년부터 '한국관광문화대전 테이스트 코리아(Taste Korea!)' 사업을 통해 지역음식과 관광문화를 중점적으로 홍보한다(2017년 평창올림픽식-스페셜 강원, 2018년 스페셜 전주). 본 행사의 일환으로 2017년의 경우, 프랑스 외교부 문화담당국 레스토랑에서 '강원음식 한식주간'을 선보였으며 2018년에는 프랑스인들이 직접 한식을 만들어 보면서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는 케이푸드 아카데미를 개최한 바 있다.

8 스포츠(K-SPORTS)

프랑스에 알려진 한국 스포츠로는 태권도, 합기도, 택견 등이 있다. 1978년에 창립한 프랑스 태권도 연맹에는 총 963개 클럽의 5만 4천 명이 가입되어 있다. 2009년부터 매해 '주불 한국대사배 태권도 대회'가 프랑스태권도연맹(FFTDA)과 공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2017년에는 프랑스 내 태권도 수련인 기량 확대 및 태권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프랑스 태권도 전문단을 구성, 프랑스 내 15개 권역의 태권도 클럽 순회방문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총 35회)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 대상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 태권도 보급 일선 현장인 지방 태권도 클럽에 대한 최고 전문가 교육 수혜 기회를 제공하여 현지 태권도 수련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 대학의 스포츠 센터에서도 태권도 강좌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대중화되었다.

그 밖에 합기도와 택견 등은 현지인들이 주축이 되어 협회를 설립하고 현지 확산에 힘쓰고 있다. 택견의 경우, 매주 1회 문화원에서 택견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 택견협회는 다른 유럽국가에 택견 보급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9 뷰티/패션

프랑스 내 K-뷰티에 대한 관심과 소비는 다른 콘텐츠보다 프랑스 사회에서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 화장품 매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 10월에는 한국 BB크림이 르피가로지를 통해서 소개되었고 다양한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에서 BB크림이 출시되었다. 파리 중심의 오페라 거리에 위치한 에르보리앙(Erborian) 매장에서는 한국 여성들의 화장법을 프랑스 현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 큰 성공을 거둔 비비크림, 블러 크림, 촉촉한 마스크 팩 등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프랑스에서 큰 성공을 거둔 화장품들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힘입어 프랑스 대형 화장품 전문 매장 세포라(Sephora)는 2015년 가을 시즌부터 한국산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새로운 텍스처는 현지에서도 높이 평가받는다. 크림과 세럼 등을 여러 겹 바르는 한국의 레이어링과 클렌징법도 프랑스에서 유행하고 있다. 특히 가성비 좋은 한국 화장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소비도 넓게 확산되는 추세로, 2015년에는 투쿨포스쿨이, 2017년에는 설화수가 라파예트 백화점에 입점하면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이에 주프랑스한국문화원은 2018년 8월 제 1회 K-뷰티 행사를 진행, 한국 메이크업 수업 실시, K-뷰티의 밤 행사를 통해 프랑스 젊은이들의 K-뷰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고양시켰다.

한편, K-패션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관심도 한류 팬을 넘어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남성복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 예로, 한국 남성복 브랜드 우영미 브랜드가 파리 봉마르셰 백화점에 이어 2017년 프랑스 대표 백화점 쁘렝땅 백화점에 입점하였다. 또한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계기로 장식미술관에서 개최된 'Korea Now' 의 패션 전시와 2017년 한국패션 디자이너 100명이 참가한 한국패션 문화협회 전시의 경우,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 주르날 드뤽스, 리비에라 매거진 등에서 일제히 보도하는 등, 프랑스 패션업계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류 팬의 경우, 10대들은 아이돌 스타의 패션, 드라마 속 패션 트렌트와 스타일링에 관심이 많으며 20대 직장인 여성들은 한국의 패션 트렌트와 드라마 속 패션 등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패션에 대한 관심이 많다.

10 만화

프랑스에서 가장 처음으로 출판된 만화는 1997년 이현세 작가의 '블루엔젤' 시리즈이다. 이후, 2003년 일본망가와 함께 프랑스 만화시장 점유율은 30%(521종 출판)에 달했으며 같은 해 "앙굴렘 국제 만화 축제"에서 '한국만화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다양한 국적의 만화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려 발행하는 '씨베데(SEEBD)'사는 2003년 '도깨비(Tokebi)'라는 브랜드를 출범시켜 본격적으로 한국만화를 프랑스 시장에 유통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리니지〉, 신일숙', '〈모델〉, 이소영', '〈오디션〉, 천계영', '〈용잡이〉, 서홍석', '〈프리스트〉, 형민우'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쏠레이(Soleil), '다르고(Dargaud)' 등의 출판사들도 한국만화를 출판을 담당하는 '카나(Kana)', '한국(Hanguk)' 등의 브랜드를 런칭했다. 2006년까지 출판물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신간만화 3,195종 중에서 259종이 한국만화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한국만화의 번역과 출판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 신간 3,811종 중 한국만화는 106종이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부에서는 프랑스 출판사들이 고정 독자들을 중심으로 한 고가격 명품화 전략을 위해 한국 만화의 발행 수를 축소한 것으로 보기도 했다. 한국만화는 현지 언론에 꾸준히 노출되고 있으며 한국만화의 번역뿐만 아니라 한국을 소재로 한 프랑스 만화가 등장하기도 했다. 2016년 3월에는 한국으로 간 한류 팬들이 겪는 한국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낸 만화 〈K-Shock〉가 발행되었다.

11 e-콘텐츠

2012년 프랑스 한류 팬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한류 팬 중 본인이 즐기는 게임이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라고 인지하는 비율은 9.7%이다. 게임콘텐츠의 경우, 남성 팬의 수요가 더 높으며 남성 한류 팬 중 23.1%가 한국 게임 콘텐츠를 즐기고 있으며 여성 팬의 경우 9.7%이다.

한국 웹툰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도 크다. 2013년 개최된 '앙굴렘 국제 만화 축제'에서는 한국 웹툰이 현지인들의 주목을 끌었다. 현지 언론은 한국 웹툰에 관해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한국 웹툰은 현재 세계 1위다. 다음과 네이버가 웹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양길을 걸었던 만화시장이 새롭게 급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2016년 '앙굴렘 국제 만화 축제'에서는 한국 웹툰 기획전시가 열렸다. 프랑스는 한국형 웹툰 서비스 사례와 운영 모델을 수용하고 있다.

카스테르만(Casterman) 출판사는 유럽권 최초의 디지털 만화 플랫폼인 '델리툰(Delitoon)'을 론칭하면서 다수의 한국 웹툰을 소개하였다. 한류 팬들은 프랑스어 한국 웹툰 이외에도 영어(LINE WEBTOON, TAPASTIC 등)로 번역된 웹툰을 소비하는 팬들이 생성되고 있으며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작품을 시도하기도 한다. 또한 2018년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웹툰, 평창특별전〉을 개최, 전선욱 작가 등 한국 유명 웹툰 작가들을 초청하여 프랑스 내 웹툰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프랑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수용의 연장선상에서 향유되어 왔던 한국문화는 2000년대 중반 드라마, K-Pop 등 특정 콘텐츠에 대한 향유가 증가하면서 소비재 형태로 변화되었고 소비 목적도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 한류 콘텐츠는 프랑스 젊은이들의 자아 정체성 형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자 하나의 놀이문화로 정착하여 성장하였다. 그들은 팬클럽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놀이문화를 형성하여 소속감을 고취하고 정서적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이러한 이유로 K-Pop 팬클럽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프랑스 한류 팬은 대부분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10~20대들로 '온라인-오프라인-온라인-오프라인'상 놀이의 순환 구조를 통해 확장해 나간다. 온라인 공간에서 친구를 사귀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나 함께 드라마를 보고 스타들의 미용을 따라 하고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는다. 웹사이트를 통해 K-Pop,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함께 K-Pop 댄스를 연습하고 함께 촬영한 동영상을 YouTube에 올리고 콘서트가 개최되면 함께 보러 간다. K-Pop 콘서트장에서 단체복을 입고 같은 플랜카드, 형광스틱 등을 흔들며 스타들을 응원한다. 팬들은 이것이 프랑스 콘서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K-Pop만의 특별함이라고 평가한다.

지난 2012년 프랑스 한류 팬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팬들은 K-Pop의 매력요인으로 예술적 완성도, 기존 대중가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선함, 아이돌 스타들의 패션 및 외모, 또래와 쉽게 공유 가능의 순으로 답했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K-Pop의 성공 요인으로 뛰어난 무대장치 기술과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정책과 방송시스템 등을 꼽는다.

한편, K-Pop 음반은 가격과 제품 경쟁력 모두를 가지고 있다. 정규 앨범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미니 앨범 발매로 가격경쟁의 우위를 가지며 음반의 독특한 디자인과 부록은 K-Pop 음반의 판매량 증가에 크게 기여한다.

그 외 한국드라마를 즐겨보는 중장년층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생활양식 등 한국사회에서 보여주는 현대와 전통의 공존을 가장 큰 매력으로 꼽는다.

이러한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한국거주, 한국기업 취업, 한국소재 대학 진학 등으로 이어지고 이를 위해 다시 한국어 학습과 다양한 한류 콘텐츠 소비로 연결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보여주기도 한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협회

1 Bonjour Corée

성격	한국문화
회원 수	15명(운영진) / 6,946명(Facebook)
웹사이트	www.bonjour-coree.org www.facebook.com/BonjourCoree
세부 활동 현황	• 2013년부터 매해 문화원과 공동으로 드라마파티 행사 개최 • 2013년 7월부터 여름방학 한국어 특별강좌 진행 • 문화원 주최 K-Pop World Festival을 비롯하여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문화 행사 협조 및 지원 • 창립 : 2013년

2 Kachi to Korea

성격	한국문화
회원 수	20명(운영진) / 1,054명(Facebook)
웹사이트	www.facebook.com/KachiToKorea
세부 활동 현황	• 2012. 1주일간 가치투위크 행사 개최(4월) 한복디자인 경연대회(12월)를 개최, 수상 작품은 직접 제작, 문화원내 시상 및 전시회 개최 • 창립 : 2011년 / 회장 : Kwala ABED

3 NABI

성격	한국문화
회원 수	10명(운영진) / 201명(Facebook)
웹사이트	www.facebook.com/NABI-Challenge-Transformation-129682390527763/
세부 활동 현황	• 2015년 5월 16일 한식 조리 수업 • 2013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초청 한국어강좌 여름학기 프랑스학생 교류 • 창립 : 2012년 11월 / 회장 : Hannah LOGAN

4 Olala Korea

성격	한국문화
회원 수	10명(운영진) / 1,774명(Facebook)
웹사이트	www.facebook.com/OlalaKorea/
세부 활동 현황	• 2013년 11월 3일, olala day 개최 • 2013년 3월 15일, after work 개최(바에서 열린 k-Pop관련 소모임 행사) • INALCO에서 진행된(2012.11) 아시아문화행사 파트너로 참석 • K-Pop 등 대중문화 중심의 활동. 협회 홈페이지에서 문화원 행사 등 한국문화관련 이벤트 및 문화교실 홍보 협력 • 창립 : 2012년 4월

5 Kore@nantes

성격	한국문화
회원 수	10명(운영진) / 1,361명(Facebook)
웹사이트	https://fr-fr.facebook.com/koreanantes/
세부 활동 현황	• 2014년부터 매해 낭트에서 문화원과 공동으로 드라마파티 행사 개최 • 한국문화 관련 행사개최

6 Kora Breizh

성격	한국문화
회원 수	5명(운영진) / 300명
웹사이트	http://www.koreabreizh.fr/
세부 활동 현황	• 2015년부터 매해 렌시에서 문화원과 공동으로 드라마파티 행사 개최 • 한국문화 관련 행사개최 • 한국어 강좌 운영

7 Kuwabara (K-24)

성격	한국문화
회원 수	10명(운영진) / 951명(Facebook)
웹사이트	https://fr-fr.facebook.com/AssociationKuwabara/
세부 활동 현황	• 2016년부터 매해 낭시에서 문화원과 공동으로 드라마파티 행사 개최 • 한국문화 관련 행사개최

(2) K-Pop 동호회

1 Big Bang France-Page francaise

성격	Big Bang 팬클럽
회원 수	24,900명(트위터 팔로잉)
웹사이트	https://bigbangfrench.wordpress.com https://twitter.com/BigBangPageFr
세부 활동 현황	•트위터, 데일리모션 등 각종 SNS 사이트를 통하여 공연정보 및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공유 • K-Pop 관련 최신 정보 제공

2 United French VIP

성격	Big Bang 팬클럽
회원 수	4,537명(Facebook) / 7,762명(트위터)
웹사이트	http://unitedfrenchvip.net twitter.com/UnitedFrenchVIP www.facebook.com/UnitedFrenchVIP
세부 활동 현황	• Big Bang 관련 최신 정보 제공 (기사, 사진, 동영상) • 포럼을 통해 Big Bang, K-Pop 가수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팬클럽 회원 간 의견 교류가 활발히 진행

3 2NE1 France

성격	2NE1 팬클럽
회원 수	15,619명(Facebook) / 2,366명(트위터)
웹사이트	http://2ne1france.wordpress.com https://www.facebook.com/2ne1.fr.france https://twitter.com/2NE1France_FR www.dailymotion.com/2ne1-France
세부 활동 현황	• 프랑스 내 2NE1 공식 팬 사이트로 Facebook, 트위터, YouTube 등 다양한 SNS 사이트를 활용하여 공연소식,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 제공

4 Tablo & Epik High France

성격	에픽하이 팬클럽
회원 수	364명(Facebook)
웹사이트	http://tabloepikhighfr.wordpress.com www.facebook.com/TabloFrance
세부 활동 현황	• 프랑스에서 첫 번째로 개설된 타블로와 에픽하이 멤버들의 팬 사이트로서 Facebook, 트위터, YouTube 등 다양한 SNS 사이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 (공연소식, 사진, 동영상 등)

5 YG Family concert in France

성격	와이지 패밀리 팬클럽
회원 수	14명(트위터)
웹사이트	http://ygconcert.wordpress.com https://twitter.com/YGFamily_France
세부 활동 현황	• 프랑스에서 첫 번째로 개설된 와이지 패밀리 팬 사이트로서 공연정보, 음악,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각종 이벤트를 기획

6 B1A4 France

성격	B1A4 팬클럽
회원 수	3.561명(Facebook)
웹사이트	www.facebook.com/pages/B1A4-France/222636221085821
세부 활동 현황	• Facebook, 트위터, 포럼 등의 SNS 사이트를 통해 비원에이포 멤버들의 최근 소식 전달, 다양한 자료 공유

7 MYNAME France

성격	마이네임 팬클럽
회원 수	2,771명(Facebook)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MYNAMEFrance/?fref=ts
세부 활동 현황	• 마이네임의 팬포럼 사이트로서 회원들 간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8 French E.L.F Line

성격	슈퍼주니어 팬클럽
회원 수	3,385명(Facebook)
웹사이트	http://frenchelfline.bbfr.net www.facebook.com/FrenchElfLine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 Facebook, 트위터, YouTube 등의 SNS 사이트를 활용하여 회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팬 포럼을 통한 의견교류 활발 • 오프라인 : 팬레터, 선물 전달, 현수막 제작. 동영상 촬영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

9 SNSD Europe

성격	소녀시대 팬클럽
회원 수	505,192명(Facebook)
웹사이트	https://fr-fr.facebook.com/girlsgenerationfrance
세부 활동 현황	• 소녀시대 팬 페이지로서 멤버들의 최근 소식 및 사진,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공유

10 F(x) france

성격	에프엑스 팬클럽
회원 수	3,527명(Facebook)
웹사이트	www.facebook.com/FxFrance
세부 활동 현황	• 에프엑스 팬 포럼 사이트로 회원 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11 SHINee France

성격	SHINee 팬클럽
회원 수	76,120명(Facebook) / 13,085명(트위터)
웹사이트	www.shineefrance.net www.shineefrance.com twitter.com/SHINeeFrance www.facebook.com/shinee.france
세부 활동 현황	• 온라인 : Facebook, 트위터 등 SNS 사이트를 통하여 공연소식, 사진, 동영상 자료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오프라인 : 멤버들에게 펜레터, 선물 전달, 티셔츠 제작, 팬 미팅 개최 등 활발한 활동 진행

12 EXO France

성격	EXO 팬클럽
회원 수	187,305명(Facebook), 15,635명(트위터)
웹사이트	http://exofrance.net/forum www.facebook.com/EXOFrance twitter.com/EXOFrance www.youtube.com/user/EXOFrance www.facebook.com/groups/357567464269939 www.dailymotion.com/EXOFrance
세부 활동 현황	• 프랑스 내 EXO 공식 팬 사이트로서 Facebook, 트위터, YouTube 등 다양한 SNS 사이트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포럼을 통해 회원들의 비공식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음

13 France BoA Kwon

성격	보아 팬클럽
회원 수	881명(Facebook)
웹사이트	www.facebook.com/BoaKwonFrance
세부 활동 현황	• 보아의 팬 페이지로서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

14 TVXQ France

성격	동방신기 팬클럽
회원 수	10,937명(Facebook)
웹사이트	www.tvxqfrance.com www.facebook.com/TvxqFrance
세부 활동 현황	• 동방신기 팬 포럼 사이트로서 회원들간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15 ZE:A'style FR

성격	제국의 아이들 팬클럽
회원 수	1,026명(Facebook)
웹사이트	www.facebook.com/Ze.aFrance/
세부 활동 현황	• 5명의 소녀가 운영하는 제국의 아이들 팬 포럼 사이트로서 운영진이 직접 각종 소식을 번역하여 회원들에게 공유하며,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16 FrenchTreasure / FTIslandFR

성격	FTIsland 팬클럽
회원 수	2,592명(Facebook)
웹사이트 주소	www.facebook.com/FTIslandFrancefr
세부 활동 현황	• 애프티아일랜드의 팬 포럼 사이트로서 회원들에게 멤버정보, 공연소식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

17 Boyfriend France

성격	보이프렌드 팬클럽
회원 수	235,757명(Facebook), 3,482명(트위터)
웹사이트	www.facebook.com/BoyfriendFrance twitter.com/BoyfriendFrance www.youtube.com/user/BoyfriendFrance
세부 활동 현황	• 프랑스 내 보이프렌드 공식 팬 사이트로서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팬클럽 회원들의 오프라인 활동이 활발

18 Infinite France

성격	인피니트 팬클럽
회원 수	14,274명(Facebook), 6,685명(트위터)
웹사이트	http://infinite-france.com www.facebook.com/InFiniteFrance twitter.com/Infinite_France
세부 활동 현황	• 프랑스 내 인피니트 공식 팬 사이트로서 Facebook, 트위터, 포럼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팬클럽 회원들의 오프라인 활동이 활발

19 Shinhwa Changjo France

성격	신화 팬클럽
회원 수	8,120명(Facebook), 1,767명(트위터)
웹사이트	https://fr-fr.facebook.com/ShinhwaChangjoFrance twitter.com/SHCJ_FRANCE
세부 활동 현황	• 프랑스 내 신화 공식 팬 사이트로서 Facebook, 트위터를 통해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20 AOA France

성격	AOA팬클럽
회원 수	1,127(Facebook), 1,197명(트위터)
웹사이트	www.facebook.com/AOAFrance twitter.com/AOA_FR
세부 활동 현황	• 프랑스 내 AOA공식 팬 사이트로서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

21 B.A.P France

성격	B.A.P 팬클럽
회원 수	64,212(Facebook), 3,054명(트위터)
웹사이트	http://bapfrance-intl.fr/ https://www.facebook.com/BAPFranceInternational twitter.com/_BAPFrance
세부 활동 현황	• 프랑스 내 AOA공식 팬 사이트로서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오프라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함

22 BANGTAN France

성격	BTS 팬클럽
회원 수	60,310(Facebook)
웹사이트	www.facebook.com/BangtanFrance http://bangtanfrance.fr/
세부 활동 현황	• 프랑스 내 BTS 팬클럽으로서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오프라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함

23 Jang Keun Suk France

성격	장근석 팬클럽
회원 수	18,751(Facebook) / 1,254명(트위터)
웹사이트	https://jangkeunsukfrance.wordpress.com www.facebook.com/jksfrance https://twitter.com/JangKeunSukFR
세부 활동 현황	• 프랑스 내 장근석 팬 사이트로서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

(3) 매거진

1 K-PHENOMEN

성격	한국문화
회원 수	5명(운영진) / 4,056명(Facebook)
웹사이트	http://k-phenomen.com/qui-sommes-nous https://www.facebook.com/kphenomen https://twitter.com/kphenomen
세부 활동 현황	• 2011년 12월 16일, '한국 패션 TOP5' 기사 작성 • 2017년 8월 15일, '한국 대규모 축제' 기사 작성 • 2017년 7월 27일, '2017.9.30 파리 한국 축제' 홍보 기사 작성 • 창립 : 2011년 / 회장 : Gouny

6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故 이응노 회고전 '군상' 일환, 박인경 이융세전

- 일시/장소: 2017년 9월19일 ~ 2018년 1월7일 / 세르누치 아시아 미술관 (Musée Cernuschi)
- 주관/주최: 세르누치 아시아 미술관, 문화원
- 아티스트: 박인경, 이융세
- 행사 내용: 프랑스 대표 아시아 미술관인 파리 세르누치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고 이응노 헌정 전시의 일환으로, 가족인 박인경, 이융세의 작품 전시.

(2)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강원도의 발견" 전시 (테이스트 코리아)

- 일시/장소: 2017년 11월8일 ~ 2018년 1월3일
- 주관/주최: 문화원
- 행사 내용: 평창올림픽 및 강원지역 홍보를 위한 전시 프로그램으로, 올림픽 사진전시, 비디오 설치 및 지역배경 애니메이션이 상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여러 시대를 걸쳐 발전된 음식문화와 강원스포츠 소개.

(3) 2018"웹툰, 스페셜 평창"특별전시

- 일시/장소: 1월19일 ~ 2월28일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행사 내용: 한국문화원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공동 개최하는 프랑스 최초 웹툰 전시. 새로운 예술양식인 웹툰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특징들을 소개하고 동시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주제로 한 40여점의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웹툰 작품들을 소개.

(4) K-서포터즈의 밤

- 일시/장소: 1월31일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행사 내용: 프랑스 내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해온 각계의 프랑스인들 초대, 신규서포터즈를 위촉하는 K-서포터즈의 밤 문화원에서 개최.

(5) '드라마 속 한국문화' 컨퍼런스

- 일시/장소: 2월21일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행사 내용: 드라마 시청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드라마파시옹'과 협업으로 '드라마 속 한국문화'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 K-서포터즈이자 아시아전문 인터넷 방송 Gong TV 제시카 코헨과 프랑스 드라마 전문가 제니퍼 루스 마르케스의 발제로 강연을 진행. 컨퍼런스가 온라인 생방송으로도 중계되어 채팅창을 통해 질의응답 시간 가짐.

(6) 한지희 개인전 « SUPERFLUX »

- 일시/장소: 3월7일 ~ 4월18일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아티스트: 한지희
- 행사 내용: 2018년 문화원 공모전에서 선정된 재불 현대회화 작가 한지희의 개인전 개최. 빙산, 돌, 절벽 등 자연풍경을 작가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해석, 표현한 회화작품 20여점 전시.

(7) 앵발리드 국립군사박물관 실내악 콘서트 시리즈 'Joutes instrumentales'

- 일시/장소: 3월5일, 3월16일, 3월26일 / 앵발리드 국립군사박물관
- 주관/주최: 앵발리드 국립군사박물관, 문화원
- 아티스트: 강동석, 조영창, 이화윤, 재스민 최, 박지윤
- 행사 내용: 강동석(바이올린), 조영창(첼로)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뮤직 알프 음악캠프협회가 앵발리드에서 실내악 콘서트 시리즈를 개최. 올 해 "겨울의 바람"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관악기 곡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며 특히 올 해부터 젊은 한국연주자들의 참여가 돋보임. 3월 5일 이화윤(비올라), 3월 16일 재스민 최(플룻), 3월 26일 박지윤(바이올린) 참여.

(8) '리옹 3대학 한국의 해'

- 일시/장소: 3월13일, 3월 15일 / 문화원
- 주관/주최: 리옹 3대학, 문화원
- 행사 내용: 리옹 3 대학 언어학부가 17-18 '한국의 해'로 선정하고, 문화·사회·경제 등 다방면으로 한국을 프랑스에 알리고자 문학상, 문학 컨퍼런스, 작가와의 만남, 미술전시, 공연, 영화상영, 전통무술 시연, 음식시연, 낭독회, 명사 초청, 기업 포럼 등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 3월 13일 아페로 네트워킹, 15일 한국영화 상영회 개최.

(9) 민속악회 수리 « 별신악&수리성 » 공연

- 일시/장소: 3월28일, 3월 30일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아티스트: 수리
- 행사 내용: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실력있는 아티스트들을 프랑스에 소개하고자 마련된 주프랑스한국문화원 2018 공모 공연 시리즈 〈20 Boetie〉 일환 첫 콘서트 개최. 소리꾼과 전통음악 연주자들이 함께 만든 민속악회 수리는 한국민속음악을 국내외에서 꾸준히 소개하고 있는 젊은 그룹.

(10) 들꽃처럼 별들처럼 » 전시

- 일시/장소: 4월4일 ~ 4월10일 / UNESCO
- 주관/주최: UNESCO, 문화원
- 아티스트: 김근태
- 행사 내용: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을 계기, 김근태 작가와 5대륙 9개국에서 온 장애아동들의 회화작품을 선보이는 전시

(11) 앙상블 라보떼 콘서트 « 그리움이 머물던 자리, 마음의 노래 »

- 일시/장소: 4월 4일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아티스트: 앙상블 라보떼
- 행사 내용: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이 실력있는 재불 젊은 한국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Jeuns Talents 콘서트 시리즈의 일환으로 소프라노 서예은, 바리톤 남기준, 피아니스트 김정원으로 구성된 '앙상블 라 보떼' 공연을 선보임

(12) 한국문화가 있는 날 - 어린이 대상 사물놀이 교육공연

- 일시/장소: 4월 25일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아티스트: 마튜 흐쇼바르제
- 행사 내용: 프랑스 방과 후 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물놀이 교육공연 개최. 마튜 흐쇼바르제를 초청, 사물놀이 악기를 한국의 설화에 접목시켜 재미있고 쉽게 사물놀이의 악기와 소리 및 특징을 익힐 수 있는 수업을 진행

(13) 이철수 판화전 « 우리들의 길 »

- 일시/장소: 4월25일 ~ 5월30일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아티스트: 이철수
- 행사 내용: 1980년대부터 판화작품을 통해 당대의 사회 문제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표현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중미술가이자 판화가 이철수의 1990년

부터 2017년까지의 작품 30여점을 전시. 개막행사당일 작가 인터뷰 영상 상영회 및 현지인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전각 도장 파기' 아틀리에와 판화 원본 동판을 활용한 판화 찍기 시연행사를 진행.

(14) 한식문화교육 〈K-Food〉 아카데미

- 일시/장소: 5월 4일, 12일, 18일, 26일 6월 2일 / 라파틀리에 (L'Appartelier)
- 주관/주최: 문화원
- 행사 내용: :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식강사 초청, K-Food 요리강좌 개최. 프랑스인들이 밥짓기부터 한상차림까지 이론과 실재를 통해 한국음식의 맛과 멋을 체험하는 기회 제공. 특히, 올 해는 〈제 3회 Taste Korea! 전주 스페셜〉과 연계하여 선정 강좌 진행.

(15) 한국어 말하기 대회

- 일시/장소: 5월 18일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행사 내용: 문화원 주최 〈세종학당 한국어말하기대회〉 개최. '나를 심쿵하게 만든 한국의 색다른 문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본 대회에 총 17명의 문화원내외 한국어 학습자들이 참가 (초급 6명/중급 6명/고급 5명)

(16) 소설가 공지영 작가와의 만남

- 일시/장소: 5월 23일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아티스트: 공지영
- 행사 내용: 공지영 작가의 소설 『봉순이 언니』의 프랑스 출간 기념, 문화원에서 작가초청 '문학의 밤'행사 개최. '문화가 있는 날' 일환으로 소개되는 이번 행사는 『봉순이 언니』 출판사대표인 필립 피키에(Philippe Picquier), 문학평론가 션 제임스 로즈(Sean James Rose)가 진행.

(17) 〈나만의 비빔밥 대회〉

- 일시/장소: 5월 14일 ~ 6월10일 / 6월21일 결선, 코르동 블루
- 주관/주최: 문화원
- 행사 내용: "Taste Korea! 전주 스페셜" 의 디지털 캠페인 일환으로 한달여간 온라인 비빔밥 대회 개최. 107명의 참가자가 직접 만든 비빔밥 사진과 레시피를 웹상으로 공유. 6월 21일, 최종 10명을 선정하여 파리 요리학교 르코르동블루에서 직접 요리경연을 펼칠 예정. 최종 우승자에게는 한국방문 기회 제공.

(18) 〈한국문화잡지〉 디지털 웹진 발간 기념 온라인 이벤트

- 일시/장소: 5월 31일
- 주관/주최: 문화원
- 행사 내용: 1981년 첫 회 발행을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프랑스 내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꾸준히 기여해온 '한국문화잡지' 96호 (연 2회 /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발간)의 디지털 웹진을 문화원 홈페이지 상 런칭. 올 해 Taste Korea!의 테마인 '전주'의 문화와 관광, 음식 등을 주제로 한 기사 시리즈를 5월 31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4회) 선보일 계획이며, 각 기사에 따른 디지털 기반 퀴즈 이벤트도 진행, 홍보 예정. 이벤트 참여자 중 4인을 선발하여 한국문화박스 증정.

(19) 낭트 한국문화축제 〈한국의 봄〉

- 일시/장소: 6월 7일 ~ 14일 / 낭트 및 낭트 메트로폴
- 주관/주최: 낭트 〈한국의 봄〉협회, 문화원
- 행사 내용: 낭트(Nantes) 한국의 봄 축제 조직위원회(한국의 봄 협회)와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신설한 한국문화축제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해 5-6월 낭트 시 및 낭트 메트로폴에서 축제를 개최, "영화와 음악"을 주제로 실력 있는 젊은 한국 감독들의 작품들을 선정(장·단편, 애니메이션), 낭트시내 및 메트로폴 내 주요 상영관에서 소개. 문화행사한국영화를 배경으로 한 프랑스 음악가의 시네콘서트와 유럽에서 활동하는 여류 음악가들의 전통음악 공연에 이어 이들을 주제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

(20) 한불 문화상 시상식

- 일시/장소: 6월 4일 / 대사관
- 주관/주최: 문화원
- 행사 내용: 1999년부터 주프랑스한국대사 주재, 프랑스 내 문화예술을 알리는데 공헌한 기관 및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18회를 맞아 주프랑스한국대사관에서 진행. 프랑스 내 주요 문화예술계 인사 총 90여 명을 초청, 한불문화상 심사위원인 아녜스 베나이에, 셰리프 카즈나다르, 마크 오랑쥬가 각 수상자 소개, 수상 진행 후 리셉션 진행.

※ 2017 한불문화상 수상자 : 낭트 3대륙 영화제, 몽펠리에 한국문화예술 축제〈코레디씨〉, 최옥경 교수

(21) 색소폰 사중주단 〈멜로즈〉

- 일시/장소: 6월 6일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아티스트: 이준목, 원희선, 이현정, 이준우
- 행사 내용: 실력 있는 재불 젊은 한국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의 Jeuns Talents 콘서트시리즈 일환으로 구성된 본 공연은, 이준목 (소프라노 색소폰), 원희선 (알토 색소폰), 이현정 (테너 색소폰), 이준우 (바리톤 색소폰)로 구성된 색소폰 사중주단 '멜로즈'의 공연.

(22) 재불청년작가협회(AJAC) « Hors jeu (규정을 벗어난)» 전시

- 일시/장소: 6월7일 ~ 7월11일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아티스트: 재불청년작가협회(AJAC)
- 행사 내용: 1983년 창설된 재불청년작가협회(AJAC)의 그룹 정기전으로 올해 35회를 맞이, 〈Hors Jeu : 규정을 벗어난〉을 주제로 설치·조각·회화·비디오 등 작품들(그룹 작품 1, 개인작품 2점씩, 총 30여점)을 전시. 기존의 작업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작품을 재해석한 작품 소개.

(23) 판소리·민요 강좌

- 일시/장소: 6월11일 ~ 22일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아티스트: 민혜성
- 행사 내용: 주프랑스 한국문화원과 국악원이 공동 개최하는 판소리-민요 강좌로 소리꾼 민혜성을 초청, 판소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판소리, 민요 수업 진행. 특히 올해 Taste Korea! 전주 스페셜 일환으로 〈뱃노래〉와 〈숙영낭자가〉 〈강강술래〉 등을 수업에서 진행.

(24) Boetie - 클랜타몽 그룹 콘서트

- 일시/장소: 6월 15일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아티스트: 클랜타몽
- 행사 내용: 2018 문화원공연공모인 20Boetie에 선정된 그룹 클랜타몽 초청 공연 개최. 클랜타몽은 무속음악, 현대음악, 전통 춤을 접목한 창의적인 공연을 선보이는 그룹이며 네 명의 젊은 국악인으로 구성, 한국 전통 무악 및 춤을 자메이카 랩 음악에서 파생된 덥(dub)음악과 클럽문화에 담아냄.

(25) "Taste Korea! 전주 스페셜" 〈전주: 김치와 막걸리〉 컨퍼런스

- 일시/장소: 6월 18일 / 르 코르동 블루(Le Cordon Bleu)
- 주관/주최: 문화원
- 행사 내용: "Taste Korea! 전주 스페셜" 행사의 일환으로, 프랑스 일반인 대상 전주식 김치와 막걸리를 소개하는 컨퍼런스 개최. 그리고 전주 우순덕 쉐프가 김치를, 그리고 전주술박물관 임현아 학예실장이 막걸리를 직접 시연하고 시식하는 행사.

(26) "Taste Korea! 전주 스페셜" 〈한지〉 아틀리에

- 일시/장소: 6월 20일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행사 내용: "Taste Korea! 전주 스페셜" 행사의 일환인 본 아틀리에 는 한국에서 온 한지 체험강사하 현지 어린이들을 상대로 부채, 컵받침 등 전주 한지를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27) "Taste Korea! 전주 스페셜" 〈전주 한지〉 컨퍼런스

- 일시/장소: 6월 20일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행사 내용: 현재 프랑스에서 각광받고 있는 전주 한지 관련 컨퍼런스 개최. '17년 루브르 박물관 유물복원에 전주 한지가 사용된 바, 향후 전주 한지가 지닌 가치가 프랑스에서 널리 알려지고, 사용될 것으로 기대. 전 루브르 박물관 복원사 초청, 전문 컨퍼런스 개최

(28) "Taste Korea! 전주 스페셜" 〈전주의 날〉

- 일시/장소: 6월 21일 / 엘리지움
- 주관/주최: 문화원
- 행사 내용: 전주 관광과 한식문화 콘텐츠를 전문가 대상으로 소개하는 자리로 한식 명인, 전통주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연 형식 전주음식/ 전통주 시연과 시식회 개최(스탠딩 칵테일).

(29) 판소리·민요 발표회

- 일시/장소: 6월 22일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아티스트: 민혜성
- 행사 내용: 주프랑스 한국문화원과 국악원이 공동 개최하는 판소리-민요 강좌로 소리꾼 민혜성을 초청, 개최한 판소리·민요 강좌 발표회 개최. 강좌에 참석한 학생들이 〈뱃노래〉,〈숙영낭자가〉,〈강강술래〉 등을 발표.

(30) 문화원 세종학당 및 아틀리에 수강생 종강행사

- 일시/장소: 6월 22일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행사 내용: 문화원 수강생들이 반별로 준비한 발표 프로그램 후 다과를 함께 나누며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류의 시간 마련: 한국무용, 택견, 댄스, 노래 발표 및 경품 추첨, 노래방 등의 프로그램 구성

(31) 라 로크 당테롱(La Roque d'Antheron) 페스티벌 〈조성진 피아노 독주회〉

- 일시/장소: 8월 2일 / 프로랑 성 공원 (Parc du Chateau de Florans)
- 주관/주최: 프로랑 성
- 행사 내용: 제17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무대에서 저력을 입증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독주회가 로크 단테롱 페스티벌 일환으로 개최되며 드뷔시, 슈만, 쇼팽의 레퍼토리를 연주함

(32) 2018 K-Pop 아카데미

- 일시/장소: 8월 27일 ~ 9월 15일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행사 내용: 2016년 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사로, K-Pop 댄스와 보컬 아카데미 수업을 2주간 진행하며, 프랑스내 K-Pop을 즐기고 사랑하는 현지인들에게 이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 마련

(33) 프랑스 국립영상원 〈이창동 특별전〉

- 일시/장소: 8월 29일 ~ 9월 2일 /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 주관/주최: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문화원
- 행사 내용: 이창동 감독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작품 5개 상영 및 마스터 클래스 진행을 통한 감독과의 만남 행사 개최

(34) K-Beauty 아카데미

- 일시/장소: 8월 29일 ~ 8월 30일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행사 내용: 몇 해 전 부터 전 세계에서 큰 관심과 인기를 몰고 있는 K-뷰티를 전문가와 함께 현지인들에게 소개하는 행사로, 한국인의 기초화장법 소개 및 화장법 시연하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소개하는 자리 마련. 유명 아이돌의 화장법을 시연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메이크업을 해볼 수 있는 참여형 행사 개최.

(35) <Crossing Point> 김솔비 작가 개인전

- 일시/장소: 9월 12일~ 11월15일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행사 내용: 어린 시절 엘리베이터 안에 갖혀 생긴 트라우마를 딛고 칠흑같은 암흑 속에서 구원과 같았던 한줄기 빛을 주제로 작업을 시작. 작가는 비디오, 회화, 사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빛의 경로를 재구성하고 시선이 지나가는 틈을 만들어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보여주는 작품 20여점 전시

(36) Jeune Talents 콘서트 시리즈 - Duo Zen

- 일시/장소: 9월 26일 19시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행사 내용: 이번 Jeunes Talents 공모콘서트 일환으로 송지윤&김은진 듀엣 콘서트 개최. 대금과 피아노라는 두 악기가 만드는 조화를 선보이는 즉흥연주 공연. 공명을 만들어 내며 소통하는 본 즉흥 연주를 통해 오늘날 젊은 연주자들이 추구하는 한국의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만남의 한 단면을 소개.

(37) 앙상블 '라 메르 에 릴' 실내악 공연 〈Five senses of Korea〉

- 일시/장소: 9월 28일 20시30분 / 살 코르토
- 주관/주최: 라메르에릴 협회, 문화원
- 행사 내용: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음악/영상 콘서트를 통해 동해와 독도이야기를 들려주는 앙상블 '라메르에릴'콘서트 개최. 음악감독 겸 바이올리니스트 최연우, 바이올린 박준영, 비올라 에르완 리샤, 이희영, 첼로 박노을, 김대준, 피아노 김정권, 소프라노 강혜정, 가야금 이지영, 생황 김효영, 해금 고수영 출연

(38) 파리 15구 "제 3회 코리아 페스티벌"

- 일시/장소: 9월 29일 12-19시 / 15구 구청 광장
- 주관/주최: 한인협회, 15구구청, 문화원
- 행사 내용: 지난 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코리아 페스티벌(Festival Coréen)"이 올해 재불 한인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으로 진행.

(39) 20 Boetie 콘서트 시리즈 댄스 컴퍼니 후(后) - 〈편지〉

- 일시/장소: 10월 5일 19시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행사 내용: 2018 문화원 공연공모 프로젝트 〈20Boetie〉 일환으로 댄스 컴퍼니 후(Hoo)의 공연 〈편지〉 개최. 판소리와 무용,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접목된 공연〈편지〉는 판소리 "심청가"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심청가"의 주인공들이 겪는 절절한 감정을 음악과 무용, 그리고 영상으로 표현함

(40) 한-불 우정콘서트

- 일시/장소: 10월 17일 16시 / 르 트레지엠 아트 공연장 (Le 13eme art)
- 주관/주최: 문화원
- 행사 내용: VIP 프랑스 순방계기로 한·프랑스 간 문화교류 활성화 및 양국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콘서트 개최. 대북 퍼포먼스공연을 시작, 판소리, 퓨전공연 및 유명 K-Pop 남자 아이돌 공연을 선보임

(41) 제 2회 라로쉘 한국문화축제 〈Ici en Corée〉

- 일시/장소: 10월 1일 ~ 10월 17일 / 라로셸시 일대
- 주관/주최: 너름새 한국문화협회, 문화원 (공동)
- 행사 내용: 라로쉘 시의 대학, 도서관, 영화관, 공연장 등과 파트너쉽을 통해 한식 (다례, 한과 등), 전통음악, K-Pop 공연, 영화 및 다큐멘터리 상영 개최. 동시에 회화 및 서예, 공예품, 한국 사진전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프랑스 서부에 입체적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

(42) 행사명: 제13회 파리한국영화제

- 일시/장소: 10월 30일 ~ 11월 6일 / 퍼블리시스 시네마 (Publicis Cinéma)
- 주관/주최: 한불영상교류협회 1886, 문화원 (공동)
- 행사 내용: 제13회를 맞이하는 파리한국영화제 개최. 올해는 블록버스터 영화뿐만 아니라, 독립영화 및 60-70년대 한국 고전영화를 상영, 역사물, 판타지물,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냄. 상영작으로는 〈곤지암〉, 〈박화영〉 등 총 10편의 영화를 상영, 특히 〈박화영〉 이환 감독과 〈감독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함

(43) 행사명: 2018 에콜 노르말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생 콘서트

- 일시/장소: 11월 9일 19시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행사 내용: 2018 파리 에콜노르말 최고연주자 과정 한국인 졸업생 3인의 공연으로, 파리에서 활동하며 클래식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 출신의 젊은 연주자 3인을 소개

(44) 행사명: 제4회 몽펠리에 한국문화 축제 〈Corée d'ici〉

- 일시/장소: 11월 14일 ~ 11월 26일 / 몽펠리에 메트로폴리탄 일대
- 주관/주최: 코레디씨협회, 문화원(공동)
- 행사 내용: 올해로 4회를 맞는 동 축제는 프랑스 남부 프랑스 및 지중해 권역에 다채로운 한국문화콘텐츠를 소개하는 축제로 한국의 전통음악, K-Pop,

힙합 공연, 한글과 만화전시, 한복패션쇼, 한국 동화 애니매이션 상영 등 다채로운 한국문화를 몽펠리에 시민들에게 선보임

(45) 행사명: 소설 '잽'출판기념 김언수 작가와의 만남

- 일시/장소: 11월 12일 18시30분 / 문화원
- 주관/주최: 문화원
- 행사 내용: 김언수 작가의 단편소설집 '잽' 불어본 출간을 기념,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 작가가 소설을 집필하게 된 계기와, 소설 속에 묘사된 등장인물을 둘러싼 한국 현대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프랑스 독자에게 한국 문학을 생생하게 전달

(46) 행사명: 제 6회 드라마 파티 개최

- 일시/장소: 11월 24일 / 시네마 레 세트 파르나시엥스 (Cinéma Les 7 Parnassiens)
- 주관/주최: 봉주르꼬레협회, 문화원 (공동)
- 행사 내용: 한국의 드라마를 소개하고 함께 즐기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테마와 시대의 드라마 세편을 선정하여 각 2편씩을 프랑스어 자막과 함께 상영한다. 올해 파리 "드라마 파티"의 테마는 '웹툰'으로, '더블유(판타지, 서스펜스, 2016)', '이웃집 꽃미남(코미디, 2013)', '치즈 인 더 트랩(코미디, 드라마, 2016)' 등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들이 상영

※ 드라마 파티는 지방도시 낭시, 낭트, 렌느에서도 진행됨
- 11월 4일 : 낭시 엠제이씨 피숑 (MJC Pichon) / Kuwabara 협회, 문화원 (공동)
- 11월 7일 : 렌느 메종 데 아쏘시아시옹 (Maison des Association) / Korea Breizh 협회, 문화원 (공동)
- 11월 25일 : 낭트 스피닉스 극장 (Théâtre du Sphinx) / Kore@Nantes 협회, 문화원(공동)

7 여행정보

(1) 비자

1 체류 기간 90일 미만

90일 미만으로 체류하는 경우 쉥겐 협정으로 비자 발급 없이 관광, 가족 방문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 방문이 가능하다.

※ 프랑스 입국심사 시 구비 서류(일반여행객)

- 유효여권
- 입국일로부터 3개월 내 출국 항공권 또는 예약 확인서
- 여행자 보험 관련 서류
- 숙소예약 확인서 등 체류지 확인 증빙 서류
- 여행경비 증빙서류

2 체류 기간 90일 이상

장기간 체류(노동, 학업 등)의 경우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 프랑스 도착 후 프랑스 이민국 또는 경시청을 통해 등록해야 효력을 발휘한다.

3 경유 비자

프랑스 공항으로 입국하여 '국제구역(International Zone)'를 이탈하지 않고 프랑스 공항을 거쳐 출국하는 경우에는, 프랑스 영토를 밟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경유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

4 공연비자

일반적으로 공연자가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허가증이 필요 없지만, (한국인의 경우 프랑스 3개월 무비자체류 가능) 입국 시 편의를 위해 공연기획사 등 초청기관에서 발행하는 비영리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프랑스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공연자 사례비 지급 등) 노동허가가 필요하므로, 공연기획사 등이 노동허가를 관장하는 La DIRECCTE(경제, 경쟁, 소비, 노동 및 고용국)으로부터 공연자를 위한 노동허가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1~2달소요).

DIRECCTE(Direction regionale des entreprises, de la Concurence, de la Consommation, du travail et de l'emploi)는 지자체별로 소재하고 있으

며, 통상 공연기획사가 소재하거나 공연이 개최하는 지역에 소재한 DIRECCTE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5 출입국시 유의사항

쉥겐 협약에 따라 유럽연합(EU) 회원국 및 쉥겐 협약 가입국 내의 체류기간과 프랑스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내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수 없다.

■ 쉥겐 협약 가입국(총 26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쉥겐국가 최종 출국일(불법체류 여부 확인 당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국 내 무비자 여행 가능

- 예시 :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180일 기간 중 90일간 체류한 후, 6월 30일에 재입국하는 경우
- 6월 30일 재입국해 9월 27일에 쉥겐국을 출국하는 경우(90일 체류), 출국일인 9월 27일 기준 역산하여 이전 180일(3.31~9.27) 기간 동안 체류일수를 계산하게 되므로 3.31~6.29일 사이에 체류 시 쉥겐협정 위반
- 최장 여행 가능 기간인 90일은 쉥겐국 내에서 여행하였던 모든 기간(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일을 합산하며, 출국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 출국 심사관이 계산
-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2) 주한프랑스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30
■ 전화번호 : (02)3149-4300
■ FAX : (02)3149-4310

(3) 안전정보

1 테러위협

프랑스는 국내 정치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주변국과도 특별한 마찰이 없으나 지난 2015년부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가 심각하다. 2015년 1월 7일 파리 '샤를리 엡도' 신문사 테러를 시작으로 1월 9일 파리 식품점 인질극, 11월 13일 파리 바타클랑 극장 테러, 2016년 7월 14일 니스테러, 7월 26일 생테티엔느 성당 테러 등 파리 및 프랑스주요도시들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2 소매치기, 날치기, 강도 급증

파리 및 마르세이유 등 대도시에서는 소매치기 등 절도와 총기 강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파리의 경우, 생드니 등 북동부 및 그 외곽 지역, 에펠탑 및 몽마르트르 등 주요 관광지와 지하철에서는 관광객을 상대로 소매치기·날치기 등 절도와 강도가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프랑스한국대사관에 신고 된 우리 국민의 범죄 피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소매치기 및 날치기 등 절도와 강도 피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20-30대 여성층의 가방이 소매치기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3 사건·사고 유형 및 대처요령

- 차량으로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 교통체증으로 차량이 일시적으로 정차 시 오토바이로 접근, 차 유리창을 깨고 운전석 옆자리 착석자의 가방을 훔쳐 도주
- 식당이나 카페에서 좌석 등받이에 가방을 걸쳐 놓아 분실
- 지하철 입구 쪽에 위치해 있을 때 소매치기들이 차량 출발 직전 가방을 훔쳐 역내로 도주
- 지하철 입구에서 개찰구 통과 시 회전문에서 기다리는 동안 몸을 밀착시켜 지갑을 채가는 수법
- 샹젤리제 거리와 에펠탑 등 관광지에서 2~3명이 다가와 길을 물어보면서 가방을 훔쳐 도주, 또는 가방에 액체를 묻힌 후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주요 소지품을 훔침

- 젊은 여성패거리나 남자들이 '사인'을 요청하면서 시선을 분산시킨 후 현금 및 주요 물품을 훔침
- 호텔 앞에 정차된 버스에 짐을 싣던 단체 관광객에게 최루액을 분사해 여행객들의 가방과 소지품을 강탈하여 도주

4 장소별 유의사항

a. 공항 도착 및 출발

- 프랑스 입국 시 장시간 비행 및 시차로 인해 주의력이 떨어지고, 긴장이 풀리는 점을 이용한 소매치기범(2~3인조)들의 접근에 각별한 경계가 요망됨
- 차량 탑승까지 수하물이나 손가방 등이 신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일행이 있을 경우 교대로 이를 지키면서 공중전화 사용이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함
  - 또한, 출국 시 여정을 다 마쳤다는 생각에 긴장을 풀게 되는 점을 노린 도난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바, 특히, 대한항공이나 에어 프랑스 등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항공기의 이착륙 시간에 맞추어 전문 소매치기 범들이 출몰
- 단체로 무리지어 다니는 어린 아이들(집시) 주의

b. 공항↔시내 이동

- 차량으로 시내 이동시 오토바이를 이용한 2인조 강도가 지하터널 등 차량정차 구간에서 창문을 깨고 핸드백을 탈취하는 사례 다수 발생함
- 운전석 옆자리나 뒷자리에 핸드백, 가방 등을 갖고 타지 말고, 트렁크에 보관하는 것이 절대 안전
- RER(외곽 고속 지하철)내에는 항상 2~3명씩 조를 짜서 활동하는 소매치기 범이 아시아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빈발함
- 야간에 공항 버스가 도착하는 오페라 지역에는 밤늦게 도착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 범죄가 빈발함

c. 숙소 이용 시

- 호텔 도착 시 체크인하는 과정에서 로비에서 가방이나 소지품을 도난당하는 예가 많은 바, 호텔 도착 후에도 중요 소지품은 수중에 간직하고, 일행이 있을 경우 교대로 소지품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

d. 유명 관광지

- 몽마르트르 언덕은 파리 내 최대 사고 다발 지역으로 도로변에서는 단체여행 시에도 항상

보행 시 주의해야 함
- 특히 2~3명의 그룹이 접근하는 경우, 신체적으로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음
- 에펠탑, 루브르 궁전, 베르사이유 궁전 등 파리의 유명 관광지와 주요도시인 마르세이유, 리용, 칸 및 니스 등도 사고가 빈발함

e. 기차역
- 기차역에서 2~3명 무리를 지어 다가오는 외국인을 경계해야 하며, 대개 한 사람이 친절한 태도로 접근하여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이 소매치기를 하기 때문에 아예 근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

f. 지하철 이용
- 지하철(특히 1호선)은 소매치기들의 온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소매치기범들은 열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기 때문에 일단 지하철에 승차하면 출입구 쪽에 있지 말고 가급적 빈 좌석(창 쪽)에 앉는 것이 바람직함

g. 도로 보행
- 차도가 아닌 건물 방향으로 보행하도록 하고, 일행이 있을 경우 서로 감시할 수 있는 위치로 걷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횡단 보도를 지날 때 2명이 탄 오토바이가 다가올 경우 경계 요망

h. 경관 사칭 소매치기 범
- 노상에서 2인조로 경관을 사칭하면서 접근,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이를 가지고 달아나는 사기범들이 증가하고 있음
- 경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I. 은행이나 현금 인출기 사용
-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 인출기 사용 시 근처에 있을 수 있는 2~3인조 소매치기범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j. 악덕 유흥업소
- 몽마르트트, 피갈 지역 등 유흥업소가 많은 곳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업소는 계산 시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바, 일단 출입을 자제하고, 비정상적 요금 청구 시 인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음

5 특히 주의해야 할 곳

파리는 물론 파리 외곽지역 및 니스, 칸느와 같은 남 프랑스의 해안 도시 등 관광객이 많은 지역을 조심해야 한다. 공항-파리 간 급행지하철을 비롯한 모든 지하철 차량 내와 지하철 역은 물론이며 특히, 많은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으로 샤틀레 레알역, 오페라역, 북역, 몽파르나스역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관광객이 많은 공항,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이유 궁전, 백화점, 개선문과 콩코르드 광장 사이의 샹제리제 거리, 몽마르트, 생미셸 광장, 에펠탑, 노트르담 성당, 라데팡스 지역도 조심해야 한다.

6 현지 관습

프랑스인들은 규정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며, 남의 일에 나서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하여 타인들을 도와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담배 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횡단 등 사소한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모든 생활에서 시간적 여유를 즐기는 바, 공적인 부분에서도 민원업무처리가 매우 느리며 (도난사건 신고 시 경찰서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은 보통), 모든 것이 서류로 제시되어야 하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산처리 보다는 아직도 일일이 손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많다. 또한 근무시간 내 업무처리가 기본원칙이며 공휴일 업무처리는 거의 없다.

7 치안 법령

프랑스는 한국과는 달리 경찰력이 상당히 강한 나라로 가벼운 사안의 경우에도 체포 및 구금이 가능하며, 경찰에게 저항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범죄 즉,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경찰의 지시에 응하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대 흥분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언어소통 불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인 또는 대사관에 연락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지하철·버스 무임승차 등 한국에서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도 범죄를 구성하고 체포되거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는 만큼, 프랑스 현지 법령과 공중도덕을 철저히 준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8 현지 문화

(1) 엄격한 공사 구분 및 사생활 보호

프랑스 사회는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전통이 강한 국가로, 남녀를 구분하고 친한 사이가 되기 전에는 나이·결혼 여부에 대한 질문은 결례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되는 주제에 대한 발언을 가급적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대인관계 및 업무스타일

프랑스는 게르만 문화와 라틴문화가 혼재되어, 공식적인 업무협의 시 예의를 갖추는 것을 중시하며, 대체적으로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편이다. 다만 영미권 국가에 비해 비교적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ca depend'(경우마다 다르다)는 인식이 있다.

외국인에 대한 의식적으로 친절한 태도는 영미권에 비해 낮은 편이고, 급속도로 친밀도를 쌓기 어려운 편이나, 몇 차례의 접촉 이후 친밀도가 쌓이면 관계가 돈독해지는 경향이 있다.

(3) 이름 표기 및 호칭

프랑스에서는 〈이름 + 성〉으로 표기하며, 친한 사이가 아닌 경우, 남성의 경우 〈Monsieur +성〉, 여성의 경우 〈Madame +성〉으로 부른다. 대사, 장관 등 고위직의 경우 직함을 언급하나, 대체적인 호칭 시에는 직함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대사, 장관의 경우 Monsieur Ambassadeur, Monsieur Ministre등 〈Monsieur/ Madame + 직함〉으로 호칭한다.

여성차별 철폐차원에서 미혼의 젊은 여성을 의미하는 'Mademoiselle'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관행적으로는 아직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4) 대화 주제 및 불어구사

프랑스인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며, 문화·요리·역사·철학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개인적 성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저속한 것으

로 취급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강한 공화국 전통으로, 정교분리, 개인의 자유 및 인권 존중, 남녀평등을 주된 가치로 중시하므로, 종교에 대한 질문이나 남녀 차별적 발언,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주제는 삼가야 한다.

또한 불어구사의 특성상 표현방식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바, 가급적 미사 어구 또는 연결어구 등을 사용하여 표현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 프랑스인들의 상당수가 영어에 익숙해져 있는데다 프랑스 사회에서도 점차 영어 구사 능력이 중요해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대부분은 영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불어로 대화가 가능한 경우 불어 표현을 일부 언급하면 좋아한다.

(5) 종교 관련

인구의 65%가 가톨릭 신자이나 실제로 일요 미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10% 정도로 많지 않으며, 공화국 전통에 따라 강력한 '세속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나,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 금지, 공무원의 종교 표식 착용은 금지하는 등 정교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6) 오·만찬

프랑스인들은 업무시간 외에는 자신 및 가족들을 위한 시간에 할애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찬보다는 오찬을 선호하는 편이다. 보다 친밀해진 이후에는 만찬을 초대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 경우 외부 식당보다 서로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 팁 문화

카페 및 식당은 계산서에 15%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팁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식당에서 음식이나 서비스에 만족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잔돈 또는 전체 금액의 5-10%를 팁으로 남겨두는 것이 관행이다. 호텔 포터에게 짐 1개당 1유로, 룸메이드에게는 2유로가 적당하다.

9 현지 연락처

(1)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 일반전화 : 01)4753-0101
- 영사과(여권) : 01)4753-6987
- 긴급연락처 :
  - 주간 : 01)4753-6995 / 06)8095-9347
  - 야간 및 주말 : 06)8028-5396
- 주소 :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지하철 13번선, Varenne 역)
- 웹사이트 : http://fra.mofa.go.kr
- Facebook : www.facebook.com/ambcoreefr
- 팩스번호 : 대표 : 01)4418-0178, 영사과 : 01)4550-4028
- E-mail :consulat-fr@mofa.go.kr
- 업무시간
  - 영사과 : 월~금 09:30~12:30, 14:00~16:30 (행정민원서비스 : 여권, 가족관계등록부, 공증, 병역, 국적, 각종 증명서 발급 등)
  - 비자 : 월~금 09:30~12:00

※ 외교부 본부 24시간 콜센터
- 일반전화 : 00-800-2100-0404
- 웹사이트 : www.0404.go.kr

(2) 사건사고 발생

사건사고 발생시,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지역별 경찰서는 다음과 같다.

- 1구
  - 주소 : 45, place du Marche Saint-Honore 전화번호 : 01-40-20-19-00
  - 지하철역 : M7/14 Pyramides, M1 Tuileries
- 2구
  - 주소 : 18, rue du Croissant 전화번호 : 01-44-88-18-00
  - 지하철역 : M3 Sentier, M3 Bourse, M9 Grandes Boulevards

■ 3구
- 주소 : 4 bis/6, rue aux Ours 전화번호 : 01-42-76-13-00
- 지하철역 : M4 Etienne Marcel, M4 Rambouteau

■ 4구
- 주소 : 27, boulevard Bourdon 전화번호 : 01 40 29 22 00
- 지하철역 : M1, M5, M8 Bastille

■ 5구
- 주소 : 4, place de la Montagne Sainte-Genevieve 전화번호 : 01 44 41 51 00
- 지하철역 : M10 Maubert-Mutualite

■ 6구
- 주소 : 14, rue de l'Abbaye 전화번호 : 01 44 41 47 47
- 지하철역 : M4 Saint-Germain-des-Pres

■ 7구
- 주소 : 9, rue Fabert
- 전화번호 : 01 44 18 69 07
- 지하철역 : M8, RER(C) Invalides

■ 8구
- 주소 : 1, avenue du General Eisenhower 전화번호 : 01 53 76 60 00
- 지하철역 : M1, M13 Champs-Elysees - Clemenceau

■ 9구
- 주소 : 14 bis, rue Chauchat 전화번호 : 01-44-83-80-80
- 지하철역 : M8, M9 Richelieu-Drouot

■ 10구
- 주소 : 26, rue Louis Blanc 전화번호 : 01-53-19-43-10
- 지하철역 : M7 Louis-Blanc

■ 11구
- 주소 : 12/14, passage Charles-Dallery 전화번호 : 01-53-36-25-00
- 지하철역 : M8 Ledru-Rollin, M9 Voltaire

■ 12구
- 주소 : 80, avenue Daumesnil 전화번호 : 01-44-87-50-12
- 지하철역 : M 1, M14, RER(A,D) Gare de Lyon

■ 13구
- 주소 : 144, boulevard de l'Hopital 전화번호 : 01-40-79-05-05
- 지하철역 : M5, M6, M7 Place d'talie

■ 14구
- 주소 : 112-116, avenue du Maine
- 전화번호 : 01-53-74-14-06
- 지하철역 : M13 Galte

■ 15구
- 주소 : 250, rue de Vaugirard 전화번호 : 01-53-68-81-00
- 지하철역 : M12 Vaugirard

■ 16구
- 주소 : 2, rue Serge Prokofiev 전화번호 : 01-55-74-50-00
- 지하철역 : M9 Ranelagh

■ 17구
- 주소 : 19-21, rue Truffaut 지하철역 : 01-44-90-37-17
- 전화번호 : M2 Place de Clichy ou M2 Rome

■ 18구
- 주소 : 79-81, rue de Clignancourt 지하철역 : 01-53-41-50-00
- 전화번호 : M4 Marcadet-Poissoniers

■ 19구
- 주소 : 3-5, rue Erik Satie 지하철역 : 01-55-56-58-00
- 전화번호 : M5 Ourcq

■ 20구
- 주소 : 3-7, rue des Gatines 지하철역 : 01-44-62-48-01
- 전화번호 : M3 Gambetta

(3) 기타 연락처

■ 긴급전화(무료사용, 다이얼만 누르면 됨)
- 경찰 : 17, 구급차 : 15, 화재 : 18
- 전화 : 01-47-07-77-77

■ 분실물 신고 센터(Objets Trouves)
- 주소 : 36 rue des Morillons 75015
- 전화 : 08-21-00-25-25

■ 공항 안내 번호
- 샤를 드골 공항 : 3950
- 오를리 공항 : 3950
- 대한항공(공항) : 01-48-62-61-61
  - 출발안내 : 01-48-62-61-62
  - 도착안내 : 01-48-62-61-63
  - 예약문의 : 00-800-0656-2001
- 아시아나(공항) : 01-48-16-66-00
  - 파리지점 : 01-81-80-09-40
  - 예약문의 : 08-00-10-20-99
- 에어 프랑스(공항) : 01-48-64-20-93

■ 파리 관광안내소
- 25 rue des Pyramides 75001 Paris (M7/14 : Pyramides)
- 웹사이트 : www.parisinfo.com

■ 24시간 영업 약국(Pharmacie Les Champs Elysees)
- 주소 : 84 avenue des Champs-Elysees 75008
- 전화번호 : 01-45-62-02-41

■ 영어사용 병원(아메리칸 종합병원(Hospital Americain))
- 주소 : 63 boulevard Victor Hugo 92200 Neuilly-sur-Seine
- 전화번호 : 01-46-41-25-25

10 기타

(1) 날씨

프랑스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해양성, 대륙성,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보다 완만하며, 습도는 적은 편이다. 다만 우리나라보다 일교차가 비교적 큰 편이므로 환절기에 옷차림에 주의해야 한다.

(2) 교통정보

1 대중교통

파리, 리용, 마르세이유, 툴루즈 등 대도시에는 지하철, 버스, 트램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이 있으며, 요금체계와 운행시간들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2 기차

프랑스 주요 지역까지 기차로 이동할 수 있다. 기차는 연착, 취소 등이 자주 발생하므로 출발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표는 온라인으로 구입하거나 주요 역 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기차표를 구입한 경우, 역내 위치한 자동기계에서 탑승권을 발부받으면 된다.

온라인 e티켓을 구입한 경우, 티켓을 프린트해 소지하면 된다. 검표원이 탑승권을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탑승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파리 기차역

- 파리북역Gard du Nord(영국, 유로스타, 벨기에 방면)
- 파리동역Gare de l'Est(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방면)
- 파리리용역Gare de Lyon(니스, 마르세이유, 리옹방면)
- 파리베르시역 Gare de Bercy(클레르몽 페랑, 네베르 방면)
- 파리생라자르역Gare St.Lazare(노르망디, 브르타뉴지방방면)
- 파리오스테를리츠역Gare d'Austerlitz(보르도, 루아르 지방 방면)
- 파리몽파르나스역Gard Montparnasse(노르망디, 루아르 방면 TGV)

3 파리시 대중교통

■ 지하철 및 RER

- 지하철14개 노선, 377개역, RER(국철) 2개 노선 파리 시내 및 인근 대부분을 연결
- 특히 6번선은 지상노선으로 파리 시내 조망 가능
- 운행시간 : 05:30~01:15(종착역)
- 요금체계(2017년 9월 기준) : 1장 1.90유로, 10장 묶음(카르네) 14.90유로

※ 지하철 이용 시 유의사항

- 개표 후부터 출구까지 지하철 표를 보관해야 함(검표원이 불시 무임승차 검사)
- 소매치기에 각별히 유의(특히 RER선)
- 대부분 자동문이 아니므로 내릴 때 레버를 올리거나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림
- 파리시내 지도 및 지하철 노선도는 호텔 또는 지하철역에서 입수

■ 버스

- 지하철 표와 버스표의 구분이 없음
- 특히 69번 노선은 앵발리드, 루브르 박물관 등 주요 관광명소를 지나가는 노선
- 운행시간 07:00~23:00
- 승차 시 운전석 입구 검표기에 표를 개찰하고, 하차 시에는 기둥의 단추를 눌러 하차를 알림

■ 택시

- 원칙적으로 택시정류장에서만 탑승이 가능
- 공항, 기차역 및 시내곳곳에 택시 정류장이 설치
- 호텔 리셉션 등을 통해 호출 가능(Call Taxi)
- Call Taxi 연락처: Alpha Taxi 01-45-85-85-85, Les Taxis Bleus 3609, Taxi G7 : 3607

4 도로교통

운전 규칙은 우리와 유사하나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도시에는 일방도로가 많으므로 초행 시 주행이 쉽지 않다. 프랑스 고속도로(A1~A89)는 총 11,100km, 이중 유료도로가 8,000km 이며, 고속도로 최고속력은 130km/h로 제한되어 있다. 연휴 및 휴가철에는 고속도로 통행량이 급증하여 정체가 심해지므로 관련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도로가 좁아 소형차량운행이 많으며, 주차장이 부족해 도로변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파리 같은 대도시에는 오토바이, 자전거 운전자들이 많으므로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도로 교통사고는 2015년에 5만 6천여 건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수가 3천여 건에 달한다.

(4) 기타

1 전력 : 220~230V, 50Hz

2 언어 : 불어(관광지, 식당 및 상점에서는 영어 통용)

3 환전

2002년부터 유로화가 전면 통용되고 있으며, 2018년 9월 기준 환율 : 1유로=약 1,312원이다. 현지 ATM(현금인출기)에서 대부분 카드 사용 가능하며 대부분의 호텔, 상점, 식당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대도시 및 주요 관광지에는 환전소(bureau de change)가 있으나, 환율 및 수수료의 차이가 있으므로 환전소 2~3군데를 비교한 후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4 통신

■ 전화

- 국제전화 00(국제전화코드)-82(한국코드)-2(서울코드)-전화번호
- 시내전화 지역코드-전화번호(8자리)(파리와 근교 지역번호는 01)
- 핸드폰 번호는 지역에 관계없이 06 또는 07로 시작
- 콜렉트콜(한국 교환원 연결): KT 0800-099-0082 (유선 분당 1,375원, 무선 분당 1,507원)

■ 인터넷 사용 현황

인터넷 접속 가구 수는 83.8%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주요 관광지에는 중심가에 PC방(Internet Café)가 있다.


KOREA
FOUNDATION
KF
한국국제교류재단

33. 핀란드

1 개황

- **수 도 :** 헬싱키(Helsinki, 인구 64.3만 명)
- **인 구 :** 551만 명
- **면 적 :** 338,42㎢(한반도의 1.5배)
- **민족구성 :** 핀란드인(93%), 스웨덴인(6%) 등
- **종 교 :** 루터복음교, 그리스정교
- **시 차 :** 우리시간 -7(서머타임시 -6)
- **언 어 :** 핀란드어(88.3.%), 스웨덴어(5.3%)
- **1인당 GDP('17년 기준) :** 45,830 미불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 총교역 12.72억 미달러
  (수출 2.97억 미달러, 수입 9.75억 미달러)

2 문화적 특성

■ **오랜 외세의 지배 속에서도 살아남는 지혜를 터득한 민족**

12세기 초부터 19세기까지는 '스웨덴 왕국시대'로 스웨덴 기독교 포교 원정대가 핀란드 남서부지역에 진출하였고, 13세기 말경 대부분의 핀란드 지역이 스

웨덴 왕국의 일부로 종속되었다. 나폴레옹이 대영국전쟁 중이던 1809년, 러시아는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핀란드 지역을 점령했다. 러시아는 '대공국'이란 자치령으로 핀란드를 통치했고, 1812년에는 수도를 투르쿠에서 헬싱키로 이전했다.

핀란드는 수백 년간 스웨덴과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언어를 지켜냈고, 프랑스 대혁명 등의 영향으로 19세기 말부터 민족 자각운동과 민족의식이 고조되어 1917년 10월의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1917.12.6일 마침내 독립국가가 되었다.

그 후 1918~19년간 내전을 치르고 공화제 및 이원집정부제의 국가를 설립했으나 1939~1944년간 2차례에 걸쳐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영토를 상실하고 전쟁보상금을 내야만 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요구로 전쟁보상을 현물로 상환하는 과정에서 방직, 기계 등 산업을 발전시킨 것이 결국 핀란드를 산업선진국으로 거듭나게 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핀란드가 오랜 피지배 생활 속에서도 언어와 문화를 잃지 않고, 독립 후에도 스웨덴과 러시아 사이에서 안정적인 국가의 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강대국 사이에서 현실에 대한 빠른 판단을 기초로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전략을 추진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성실함과 인내심의 민족

핀란드어에 '씨수(SISU)'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우리의 '인내와 끈기'에 해당되는 말로서 핀란드인의 성격을 가장 잘 대표하는 말이다. 핀란드는 나무 외에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열악한 자연환경과 스웨덴,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지리적 약점을 갖고 있다. 흡사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핀란드인들은 이러한 환경을 성실한 국민성으로 딛고 일어섰다.

핀란드인 대부분은 매우 성실하고 근면하다. 약속시간을 무척 잘 지킬 뿐 아니라 업무 중에 중식과 휴식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업무집중력이 높다. 때문에 근로자의 평균 업무시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인은 인내심이 강하다. 추운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강인한 체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추운 날씨에 아이가 적응하도록 겨울에

아이를 베란다에서 재우고, 어릴 때부터 사우나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전통이기도 하다.

■ 산타의 나라

핀란드 북쪽지역인 라플란드(Lapland)에 로바니에미(Rovaniemi)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 산타마을이 있다. 이곳이 바로 산타클로스의 전설이 시작된 곳이다. 이곳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니어도 산타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산타클로스에게 보낸 편지와 엽서가 모이는 산타 우체국이 있다. 핀란드는 산타를 관광 상품으로 꾸준하게 발전시켜 왔고, 유럽을 넘어서 최근에는 중국 등 아시아 관광객들이 이곳을 많이 찾는다. 2010년에는 시진핑 국가부주석도 이 산타마을을 다녀간 바 있다.

3 한류 현황

(1) 일반 현황

핀란드에서 한류의 인기는 일부 마니아층 이외에는 아직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2008년 한국과의 핀에어 직항 노선이 열린 후, 공연단의 상호방문 등 문화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핀란드의 IT환경이 좋아 인터넷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 분야별 현황

1 현지 한류의 특징

한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과 TV를 통해 유입되었다. 가장 인기 있는 한류는 한국음식 및 K-Pop이며, 한류 콘텐츠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접하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핀란드 라디오 및 공연장에서 빈번히 흘러나올 정도로 인기가 높았으며, 이후로 K-Pop 및 음식에 대한 인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 한국어

과거 핀란드에서 한국어강좌를 제공하는 곳은 헬싱키대학이 유일했으나,

2012년 하반기부터 투르크대학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였다. 2013년 4월 한·핀 수교4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투르크대학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2015년 5월과 2017년 12월 치러지는 등 격년으로 개최되어 오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동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증가하는 등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18년 9월에는 투르쿠 대학내에 세종학당이 신설되어 핀란드내 한국어 보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문학 분야에서의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 2014년 4월 신경숙 소설가를 헬싱키로 초청해 한국문학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듬해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가 핀어본으로 출간되었다. 2015년에 다시 신경숙 작가를 초청해 북콘서트와 언론 인터뷰 기념 리셉션 등 출판기념행사를 개최해 한국문학을 소개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신경숙 작가의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핀어본으로 출간되었다. 2018년에는 핀란드 인기작가 투오마스 퀴뢰가 자신의 대표작 〈괴짜노인 그럼프〉의 최신판으로 한국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배경으로 집필한 〈한국에 온 괴짜노인 그럼프〉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선보여졌다.

격년제로 시행되던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시험 응시 수요를 고려하여,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3 K-Pop

2014년 6월 7일 헬싱키 Gloria에서 K-Pop World Festival 핀란드 지역예선을 개최하였다. 4백여 관중의 환호 속에 12팀이 열띤 공연을 펼쳤으며, 지역예선 댄스 1위 팀은 한국 본선에서도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2015년 6월 13일에도 지역예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KBS 취재진이 전 행사과정을 취재하기도 했다. 10월에 개최된 한국 본선에서는 핀란드 대표 댄스팀이 인기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에도 매년 지역예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K-Pop에 맞춰 춤을 추는 KDC(K-Pop Dance Cover-competition) 경연대회가 2011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가을에 열리고 있다.

또 다른 K-Pop 동호회인 KPop Suomi는 2015년 조직된 이후 매년 K-Pop 및 한국문화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K-Pop과 관련하여 핀란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안녕파티(Annyeong Party)'라는 행사가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구글이나 YouTube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헬싱키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으며 K-Pop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아이돌의 노래와 춤을 따라서 연습하고 대중 앞에서 공연하는 파티이다.

2015년 3월과 5월에는 인기그룹 블락비, 보이프렌드와 B1A4의 콘서트가 핀란드 K-Pop 팬들의 열광적인 호응 속에서 개최되었다.

4 드라마 및 영화

핀란드는 인구가 적고 자체 시장이 협소해 TV드라마를 따로 제작하기보다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서 자막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2010년부터 Elisa, Sonere 등 대형 핀란드 케이블방송국이 24시간 아리랑TV를 방영했으나, 2013년에 중단했다. 핀란드인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와 한국 프로그램을 접하고 있다.

그간 핀란드 케이블TV에서 방영된 일부 한국영화들은 다소 괴기스럽고 컬트적인 것(문성근·추자현 주연의 '실종' 등)이 대부분이었다. 핀란드인들은 백야가 계속되는 여름에는 야외에서 생활하고, 영화나 드라마는 흑야가 계속되는 겨울에 주로 시청하는데 분위기 때문인지 다소 우울하면서도 괴기스러운 것들을 더욱 선호하는 분위기이다.

아울러, '백마 탄 왕자와 가난하고 예쁜 아가씨'의 로맨스를 내용으로 하는 국내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는 핀란드인 취향과는 다소 거리가 먼 콘텐츠라 생각된다. 특히 핀란드 여성들은 데이트할 때도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고, 남자친구나 남편이 무엇을 이유 없이 사주거나 집까지 바래다주는 것을 무척 부담스러워하는 등 독립심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쁘고 연약한 여성이 능력 있는 남성과 사랑에 빠져서 행복해하는 내용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핀란드인들은 가볍고 밝은 내용만으로 이뤄진 코미디나 멜로 영화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 듯하다. 그간 핀란드인들이 주목한 한국영화들은 〈달팽이의 별〉, 〈즐거운 우리 집〉과 같은 다큐멘터리영화나 단편 독립영화 등이 주를 이뤘다. 매년 개최되는 헬싱키 아시아영화제와 헬싱키 국제영화제에서 다양한 한국 영화들이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 한국영화제 개최

2010년 10월 대사관 주최로 〈한국영화 페스티벌(Korea Movie Festival)〉을 개최하여 〈국가대표〉,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 〈과속스캔들〉을 상영했는데

핀란드인들보다 헬싱키 인근에 거주하는 한류에 대해 친숙한 동남아, 일본인들이 더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냈다.

2014년 8.28.~30. 대사관 주최로 헬싱키시 문화센터(CAISA)에서 한국영화 페스티벌(Korean Movie Festival)을 개최하여 〈파파〉, 〈페이스 메이커〉, 〈울지마 톤즈〉, 〈건축학개론〉을 상영하였다.

2015년 10.27일부터 30일까지 열린 한국영화제에서는 〈광해〉, 〈두렛소리〉, 〈관상〉, 〈오세암〉 등 사극, 국악 소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영화가 상영되었다. 4일간 총 6백 명 이상이 관객이 영화를 관람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한국 영화에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여주었다.

2016년 10.19~22까지 열린 한국영화제는 〈말하는 건축가〉, 〈도리화가〉, 〈수상한 그녀〉, 〈메밀꽃, 운수좋은날 그리고 봄봄〉 등 4편의 영화를 상영하였다.

2017년에는 〈위로공단〉, 〈뷰티인사이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상영하였으며, 2018년에는 10.10~12일 3일간 〈싱글라이더〉, 〈소공녀〉, 〈그 후〉를 상영할 예정이다. 최근 매년 대사관 주최로 개최되는 한국영화제를 찾는 핀란드 매니아층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5 한식

체류 국민이 600여 명이고, 전문 한식당이 2개소 뿐이어서 한식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한식당을 찾는 고객 상당수는 핀란드인 단골이다. 2008년 한-핀 간 직항노선이 매일 운항되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핀란드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핀에어에서도 비빔밥 등 한식을 기내식으로 제공하면서 최근 한식에 대한 관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한식 레시피 책자 발간('16년)

2016년 9월에는 한식 레시피 책자를 발간하였다. 24개의 주요메뉴를 현지화하여 핀란드어로 쉽게 설명한 책자로 디지털 파일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받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한식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핀란드 내의 한식 수요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발간기념행사로 핀란드요리학교와 공동으로 기념리셉션과 비빔밥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 한식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17년)

2017년 5월에는 핀란드내 한식을 비롯한 한국문화 커뮤니티의 platform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Korealainen ruoka(Korean Food)"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한식 레시피 책자 파일 공유, 한식 레시피 Q&A, 한국문화 소개 등 다양한 게시글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다. 핀란드 내에 K-Pop, 한국어, 한국유학, 태권도 등을 통해 한국 문화와 인연이 있거나 선호하는 층이 상당하지만, 이들을 하나의 Community로 연결시켜줄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모두에게 쉽게, 그리고 매력적으로 다갈 수 있는 소재인 한식을 핵심 주제로 하는 그룹 페이지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2017년 8월 18일 대사관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을 기념하는 한식 행사(삼겹살 구이 시연 및 한식 뷔페 등)를 개최하였으며, 주재국 내 한국 문화 애호·관심 그룹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K-Pop 팬, 태권도 수련인, 한국유학 경험자 등을 위주로 주재국의 미래 세대이면서 온라인 활동에도 적극적인 젊은 층을 초청하였다.

■ 핀란드 지방순회 한식 홍보행사('18년)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추진한 한식글로벌 확산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한식에 관심이 있어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핀란드 주요 3대 도시 현지인들에게 김치, 김밥, 불고기 등 한식 대표요리 및 시식 경험을 제공하고,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영상을 통해 추후 보다 많은 핀란드인에게 한식에 대한 간접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핀란드 주요 3대 도시인 오울루, 투르쿠, 탐페레에서 행사를 주관하였으며, 도시별 문화축제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여하여 더욱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Oulu Days의 일환으로 6.16 오울루에서, Turku Day의 일환으로 9.15 투르쿠에서, Tampere Days의 일환으로 9.29 탐페레에서 각각 한식 홍보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현지 거주 우리 동포들이 행사 코디네이터로 역할하여 대사관과 재외동포사회간 성공적 협업사례가 되었다.

6 태권도

핀란드에는 핀란드태권도협회 산하에 60여 도장이 운영되고 있다(협회 등록 인수 2,000명 내외). 2015년 주핀란드대사관이 후원하고 핀란드태권도협회가 주관한 대사배 태권도 대회가 11.14.(토) 누르미야르비에 있는 Maaniitun 공립학교(헬싱키 북쪽 40km 소재)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핀란드, 러시아, 에스토니아 및 아이슬란드 4개국의 270명이 참가한 명실상부한 국제대회였다.

이후 대사배 태권도대회는 핀란드태권도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핀란드 이외에도 다수의 국가가 참가하는 국제대회로 개최되었다.

7 공연 및 예술

2013년에 한·핀 수교 4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공연이 2회 개최되었으며, 이후 매년 클래식 공연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에는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맞아 한-핀 친선음악회(클래식)가 높은 호응속에 개최되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해 대사관 주관 행사 이외에도 다수의 한국 문화 예술인 초청 행사가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 난타 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3. 5. 28.(화), 사보이극장
- 주관 : 대사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 오프스 클래식 연주 콘서트
- 일시 및 장소 : 2013. 6. 17.(월), 암석교회
- 주관 : 대사관, 한국국제교류재단
- 내용 : 2014년에 한·핀 문화 교류증진을 위한 공연 및 콩쿠르 개최

■ 가곡의 밤
- 일시 및 장소 : 2014. 4. 28.(월), 암석교회
- 주관 : 대사관, 한국국제교류재단
- 내용 : 핀란드 거주 예술인을 활용한 공연으로 핀란드 국립오페라단 단원 한동훈 성악가가 한국과 핀란드 및 독일 가곡을 노래했다.

■ 정명훈 지휘 서울시향 투르크 뮤직페스티발 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4. 8. 21. 19:00~21:00, 투르크 콘서트홀
- 내용 : 정명훈이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협연해 참석 관객(8백여 명)의 환호와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다.

■ 2015년 송년 콘서트
- 일시 및 장소 : 2015. 12. 9.
- 내용 : 주요 인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비엔나 음악인 3명을 초청하여 민요 '아리랑'을 포함,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함께 주재국을 대표하는 '핀란디아' 등을 선보였다.

■ 최정화전

• 일시 및 장소 : 2016. 4. 22.~9. 18.

• 내용 : 핀란드 현대미술관에서 한국인 작가의 예술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단순히 전시를 넘어서 직접 체험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 'Helsinki Fashion Week' 한국 디자이너 참여

• 일시 및 장소 : 2016. 7. 22.~26.

• 내용 : 헬싱키 수오멘린나섬에서 개최된 헬싱키 패션위크에 아시아 대표로 한국인 김수진 디자이너가 참여했다.

■ 퓨전국악 그룹 '공명' 콘서트

• 일시 및 장소 : 2016. 10. 13.

• 내용 : "Time & Space in Harmony" 제목으로 우리 전통 국악기와 대나무 등 다양한 소재의 악기를 통해 다양한 앙상블의 음악을 선보였다.

■ 한-핀 친선음악회

• 일시 및 장소 : 2016. 10. 17.

• 내용 : 암석교회에서 개최된 클래식 공연을 통해 유럽에서 활동하는 우리 음악인 4인(산&박 피아노 듀오, 소프라노 이수연, 바리톤 양태중)이 유명 아리아 및 클래식 선율을 연주하여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 핀란드 독립 100주년 기념 한-핀 친선음악회

• 일시 및 장소 : 2017. 10. 11.

• 내용 : 헬싱키 인근 에스포시 소재 Tapiola Hall에서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한-핀 친선음악회 계기 유럽에서 활동하는 우리 음악인 4인(테너 최원휘, 소프라노 홍혜란, 첼리스트 박안젤라 진영, 피아니스트 안종도)의 클래식 공연이 열려 높은 찬사를 받았다.

■ 한국주간행사(Korea Night at SLUSH)

• 일시 및 장소 : 2017. 12. 1.

• 내용 : 핀란드에서 매년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컨퍼런스인 SLUSH를 계기로 한국과의 교류에 관심있는 인사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SLUSH 참석자들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식 소개, K-Pop 공연, 평창동계올림픽 영상 홍보를 진행하는 등 비즈니스와 문화가 결합된 종합행사로 개최되어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 매력한국알리기 공연

• 일시 및 장소 : 2018. 5. 17.

• 내용 : 암석교회에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네덜란드에서 활동중인 정민호 카운터테

너의 합동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합창단은 유명 합창곡, 아리랑 등 민요메들리와 함께 부채춤, 장구춤 등 우리 전통무용을 선보여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 2018 하미나 국제군악제(Hamina Tattoo) 주빈격 참가

- 일시 및 장소 : 2018. 7.30~8.4
- 내용 : 핀란드 하미나에서 1990년 이래 매 2년마다 개최되어 오고 있는 국제적 권위의 하미나 국제군악제(Hamina Tattoo)에 우리 국방부 전통군악대가 주빈격으로 초대받아, 7.30 개막식 단독공연, 본공연(6회), 퍼레이드, 미니타투(헬싱키 공연) 등 약 10여회의 공연을 펼쳐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 발레 갈라 참가

- 일시 및 장소 : 2018. 8.24 / 8.27
- 내용 : 한국유니버셜발레단 소속 홍향기 발레리나가 8.24 핀란드 라핀란타(Lappeenranta) 발레 갈라 및 8.27 탐페레(Tampere) 국제발레 갈라에 참가하여 많은 관심과 열띤 호응을 받았다.

■ 한-핀 친선음악회

- 일시 및 장소 : 2018. 9. 19.
- 내용 : 헬싱키 인근 에스포시 소재 Tapiola Hall에서 유럽에서 활동하는 우리 음악인 4인(김태형 피아니스트, 김봄소리 바이얼리니스트, 이혜진 소프라노, 이동환 바리톤)의 클래식 공연이 높은 호응을 받았다.

(3)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핀란드는 최근 외국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익숙해진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독특한 경험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보기 드문 밝고 명랑한 분위기의 K-Pop과 단조로운 핀란드 음식과 달리 다채로운 한식을 한류의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또한, 예의범절을 중요시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친절한 핀란드인들은 한국문화와 한국인들에게 동질감 및 친근감을 느껴, 특별한 위화감이나 부담감 없이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한류 전파 사업에 있어서 그 나라의 문화와 국민의 기호에 맞는 문화상품을 선별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핀란드인의 경우 자연, 휴식, 고요함 등을 선호하는 만큼 K-Pop과 화려한 드라마에 집중한 한류 프로그램보다는 한복, 한식, 유교철학과 같은 주제가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과거 한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핀란드인들은 최근의 화려한 한류바람으로 인해 유교적이고, 깊이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핀란드에서도 최근 한국관광, 한국음식 등을 현지 언론에서 다루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자극적인 소재(성형수술, 쇼핑, 유흥업소 등)를 다루는 경향이 있어 다소 우려된다.

따라서 청소년들과 일부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외모지상주의적이고, 소비 지향적인 이미지가 한류의 이미지에 덧씌워지는 것을 막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KDC(XpressKorea)

성격	Korean Dance Competition(KDC)은 K-Pop 춤 및 K-Pop관련 문화 등을 소개하는 동아리이며 2011년 시작되었음. 현재 XpressEvents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며,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및 한국문화소개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고 있음
회원 수	약 300여 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XpressEvents-672374559530533/?fref=nf
세부 활동 현황	• 공연장을 임대하여 K-Pop 그룹의 춤 경연대회 개최 • 2012년부터 현재까지 K-Pop 댄스대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한국문화 등을 소개하는 워크숍도 함께 개최함

(2) Kpop Suomi ry

성격	Kpop Suomi는 2015년에 조직된 신생 동호회이며, K-Pop과 더불어 한국문화에 대한 주재국 내 인지도 제고를 목표로 활동 중임
회원 수	약 600명
웹사이트	www.facebook.com/kpopsuomi/?fref=ts
세부 활동 현황	• 공연장을 임대하여 K-Con 이름으로 K-Pop 및 한국문화 소개를 위한 행사를 매년 개최

(3) Annyeong Party(안녕파티)

성격	Jrocksuomi라는 단체에서 주도하는 한국음악 동호 모임 (2004년 일본음악(J-rock) 동호회로 시작한 Jrocksuomi에서 2009년 12월부터 개최해오고 있는 한국음악 공연 모임)
회원 수	약 1,100명
웹사이트	www.jrocksuomi.fi
세부 활동현황	• 공연장을 임대하여 K-Pop 그룹의 춤·노래 등을 따라하며, 일반인들에게 同 파티의 입장권을 판매하기도 함 • 2009년 12월부터 매년 두 차례 K-Pop관련 공연을 했으며, 이들의 공연 동영상은 주로 YouTube 등에 올라와 있음

6 최근 주요 문화행사

■ 매력한국알리기 공연

- 일시 및 장소 : 5월 17일, 헬싱키 암석교회
- 내용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네덜란드에서 활동중인 정민호 카운터테너의 유명 합창곡, 아리랑 등 민요메들리 합동공연이 개최되었으며, 약 400여 명의 관객 참석

■ K-Pop World Festival 지역예선

- 일시 및 장소 : 5월 27일, 헬싱키 Gloria 공연장
- 주관 : KDC
- 내용 : 사전심사를 통과한 13개팀(가창 부문 6팀 및 댄스 부문 7팀)이 참가한 가운데 핀란드 지역예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약 350여 명의 관객 참석

■ 핀란드 3대 주요 도시(오울루, 투르쿠, 탐페레) 순회 한식홍보행사

- 일시 및 장소 : 6.15 오울루(Pohjankartano 요리학교), 9.15 투르쿠(Puolalan Koulu 요리학교), 9.29 탐페레(Tredu 요리학교)
- 내용 : 사전 신청을 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식 주요메뉴(김치, 김밥, 불고기, 부침개, 잡채 등) 레시피를 설명, 같이 만들어 시식하고 동 전체내용과 참석자들 인터뷰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추후 대사관 주관 행사시 상영 예정 / 각 행사별 약 60-70명 참석

■ 2018 하미나 국제군악제(Hamina Tattoo)

- 일시 및 장소 : 2018. 7.30~8.4, 하미나
- 내용 : 핀란드 하미나에서 1990년 이래 매 2년마다 개최되어 오고 있는 국제적 권위의 하미나 국제군악제(Hamina Tattoo)에 우리 국방부 전통군악대가 주빈격으로 초대받아, 7.30 개막식 단독공연, 본공연(6회), 퍼레이드, 미니타투(헬싱키 공연) 등 약 10여회의 공연 개최(리틀엔젤스팀과 합동공연)

■ 한-핀 친선음악회

- 일시 및 장소 : 9월 19일, 에스포 소재 타피올라홀
- 내용 : 유럽에서 활동하는 우리 음악인을 초청, 시벨리우스의 음악과 함께 유명 오페라 아리아 등 다양한 클래식 선율을 선보였으며, 약 360여 명의 관객 참석

■ 한국영화제

- 일시 및 장소 : 10월 10일~12일, 헬싱키 소재 K-13 영화관
- 내용 : 싱글라이더, 소공녀, 그 후 등 우수 한국영화 3편 상영 예정

■ 대사배 태권도대회

- 일시 : 10월 27일
- 주관 : 핀란드태권도협회
- 내용 :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인근국가 선수들이 참가하는 태권도대회 개최

■ K-Pop Dance Cover Competition

-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 헬싱키 Gloria 공연장
- 주관 : KDC
- 내용 : 사전심사를 통과한 K-Pop 댄스팀간 경연 개최 예정

■ 한국주간

- 일시 : 12월 5일, 헬싱키 소재 Presto
- 내용 :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컨퍼런스 행사인 SLUSH 2018 계기, 전세계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및 우리측 참여기업을 포함하여 상호 네트워킹을 위한 리셉션 개최 예정

7 여행정보

(1) 비자 : 쉥겐 무비자 누적 90일

(2) 안전정보

시내는 야간 도보여행에 문제없을 정도로 치안이 안전한 편이다. 단, 유럽관광 성수기인 5월~9월 사이에는 여행객이 많이 모이는 곳(마켓광장, 기차역, 호텔로비, 식당 등)에서 소매치기가 종종 발생하므로 휴대품(여권, 현금 등)에 주의해야 한다.

8 현지 문화

(1) 통화 및 환전

핀란드는 유로(2002년 도입)를 사용하며, 1유로는 약 1,320원 정도이다. 유로 외에는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으며, 은행(9시-16시), 호텔, 항구, 공항, 기차역 등의 환전소에서 환전할 수 있다. 호텔, 상점, 식당에서 신용카드가 자유롭게 사용되는 편이다.

(2) 팁

식당, 택시 요금에 15%의 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팁이 불필요하며, 호텔의 포터에게 1~2유로, 호텔방에는 1~2유로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

9 현지 연락처

(1) 긴급 연락처

- 범죄, 화재, 응급환자 : 112
- 헬싱키 경찰서 : (+358) 295 470 011(업무시간 중 / 이외 긴급시 112)
- 헬싱키 공항 : (+358) 20 014 636
- 병원(24시간 운영) : Haartman Hospital(+358 9 310 5018)
- 약국(24시간 운영) : +358 300 20200

(2) 대사관 연락처

- 주소 : Erottajankatu 7A, 00130 helsinki, Finland
- 전화번호 : 09) 251-5000
- 팩스 : 09) 2515-0055
- E-mail : korembfi@mofa.go.kr
- 홈페이지 : //fin.mofa.go.kr
- 비상연락처 : 040-903-1021
- 민원시간 : 월~금요일 09:00~12:00, 13:30~17:00

10 기타

(1) 날씨

사계절이 있으나 봄(4~5월), 여름(6~9월), 가을(10월), 겨울(11~이듬해 3월) 겨울이 매우 길고 여름에는 자정까지 해가 지지 않는 백야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겨울에는 10시 이후에 해가 떠서 3시경에 해가 지는 흑야현상이 나타난다. 여름에는 30도 가량 온도가 오르나 습하지 않아서 체감온도가 높지는 않으며 겨울에는 -20도 이하로 종종 내려가고 11월부터 내린 눈이 통상 4월 초까지 녹지 않는다. 자연은 매우 청정하여 대부분 가정에서 수돗물을 그냥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2) 교통정보

1 대중교통

헬싱키 시내에는 버스, 트램,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매우 발달되어 중앙역에서 기차로 지방도시 및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그(3시간 30분소요)까지 갈 수 있으며, 항구에서 페리 이용 시 인근 국가인 에스토니아까지는 2시간 가량 소요된다.

헬싱키 시내에서 공항까지는 약 30분 소요되며, 택시를 탈 경우 비용이 35~40유로 정도이며 중앙역에서 공항셔틀버스를 이용하면 6유로 정도이다.

2 도로교통

헬싱키 시내는 도보로 주요 관광지를 다 둘러볼 수 있을 만큼 작으며, 자전거 도로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 자전거로 관광할 경우 2시간 내외로 헬싱키의 주요 관광지를 모두 돌아볼 수 있다.

(3) 생활물가

스웨덴, 노르웨이와 달리 유로를 사용하고 있어 환전에 대한 불편함이 없다. 물가는 노르웨이보다는 싸지만 서유럽보다 약간 더 비싼 수준으로 맥도날드의 빅맥 햄버거 1개가 5.61달러(우리나라 4.16달러, 미국 5.28달러, 프랑스 5.17달러, 노르웨이 6.21달러 수준) 가량이다(2018년 미달러 기준).

34. 헝가리

1 개황

- **수 도 :** 부다페스트 (Budapest, 인구 약 170만 명)
- **인 구 :** 988만 명
- **면 적 :** 93,031㎢ (한반도 면적의 42%)
- **민족구성 :** 헝가리인(Magyar, 90%), 집시(5%), 기타(5%)
- **종 교 :** 로마가톨릭(74.4%), 개신교(20%), 유대교 등
- **시 차 :** 우리시간 -8, 서머타임 적용시(4~10월) -7
- **언 어 :** 헝가리어
- **1인당 GDP('17년) :** 12,023미달러
- **우리나라와의 교역('17년, KITA) :** 총교역 19.2억 미달러(수출9.8억 미달러, 수입9.4억 미 달러)

2 문화적 특성

(1)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적 교차로

헝가리는 19세기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이어받아서 유럽과 유사할 만큼 높은 문화수준을 자랑하며, 현재의 헝가리 문화 역

시 이 시기에 형성된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19세기 헝가리는 경제 발전에 힘입어 '동방의 파리'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문화가 융성했고,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영화 등에서 뛰어난 예술가들을 상당수 배출했다. 헝가리는 문화적 인종적으로 아시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서기 1000년경 기독교를 국교로 수용하면서 서유럽의 기독교문화가 유입되어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적 교차로'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2) 뛰어난 예술가들의 요람

음악으로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프란츠 리스트, 현대음악의 대가 벨라 바르톡, 민속음악 수집가이자 세계적인 음악교수법의 창시자인 졸탄 코다이 등이 대표적이며, 인상주의 화가인 미하이 문카치, 촌트바리 등이 잘 알려진 헝가리 미술가이다. 영화로는 영화사의 걸작 〈붉은시편〉을 만든 미클로 쉬얀초, 영화이론가이자 감독인 벨라 발라즈, 〈토리노의 말〉을 만든 벨라 타르 등이 대표적인 헝가리 출신 영화인이며, 전쟁사진작가로 유명한 로버트 카파, 그리고 앙드레 케르테스 등이 있고, 200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케르테스 임레도 헝가리인이다.

헝가리는 19세기에 형성된 높은 수준의 문화적인 프라와 국민들의 뛰어난 문화적 소양을 바탕으로 중동부 유럽의 대표적인 문화강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립오페라하우스(1,200석), 예술궁전(1,700석) 등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파인아트뮤지엄, 현대미술 중심의 루드비히뮤지엄, 공예미술관 등이 대표적인 미술관이며, 도서관은 전국적으로 1만개에 이르고 1802년 국립박물관이 개관된 이래 전국적으로 800여개의 박물관이 있다.

(3) 헝가리의 문화정책

헝가리의 문화정책은 국가적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갖고 있으며, 현 피데스당 체제하에서 문화의 국가주의적 성격이 점차 가속화하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시기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국제 금융계의 거물이자 헝가리 출신인 조지 소로스가 출연하여 만든 '소로스 재단'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나, EU가입 이후 유럽연합의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기금을 운용하는 국립문화기금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민간

부문의 정부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헝가리의 문화외교 전략은 1차대전 이후 방대한 영토와 인구를 상실하면서 주변국으로 흩어진 헝가리인들을 문화적으로 포용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족문화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1989년 체제전환 이후 과거 사회주의시기에 형성되었던 '구체제의 문화'를 청산하는 작업 역시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해외에 헝가리의 문화외교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해외의 헝가리문화원이라 할 수 있는 '발라시 인스티튜트'를 17개국 19곳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헝가리의 문화예술은 클래식음악, 연극, 회화, 문학 등 기초예술에 집중되어 있으며, 영화, 드라마, 콘텐츠 등 문화산업은 해외자본의 진출과 자체 제작기반의 붕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음악가를 보유했던 국가답게 클래식음악 등에서는 꾸준히 세계적인 뮤지션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그중 이반 피셔의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세계적 수준의 오케스트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문학에서는 산도르 마라이, 요제프 아틸라, 아고타 크리스토프 등 세계 문학계의 거장이 다수 등장한 바 있으며, 200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케르테스 임레와 노벨문학상 유력후보자인 나더쉬 피테르 등 현대의 거장도 상당수다. 영화를 비롯한 콘텐츠산업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라즐로 네메스 등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젊은 감독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여 과거 영화강국의 영광을 잇고 있다.

3 한류 현황

(1) 일반현황

헝가리는 2009년 유럽 최초로 공중파에서 〈대장금〉을 방영한 이래 〈동이〉, 〈이산〉, 〈선덕여왕〉 등의 사극이 잇달아 방영되었으며 최근에는 현대극인 〈파스타〉가 방영되어 큰 인기를 얻었다. 〈대장금〉의 경우 헝가리인구의 51.6%가 시청하는 등 현지의 한류 붐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드라마와 함께 K-Pop 관련 동호회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K-Pop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매년 개최되

는 헝가리한국영화제에 관객이 크게 몰리는 등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가 지속적으로 형성,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2007년 슈퍼주니어가 헝가리인들에게 알려지면서 한류열풍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류동호회는 B2ST, Big Bang, SHINee, 소녀시대, JYJ(K-Pop) 및 꼬레어이필름클럽(영화)이며, 한국의 아이돌 그룹 B2ST, Big Bang, SHINee, 2NE1이 헝가리 한류 팬들에게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헝가리의 한류는 K-Pop, 드라마, 영화와 같은 대중문화한류에서 점차 세분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어교육 수요 증대, 전통무용 및 전통음악 등 전통문화한류에 대한 관심 증대, 한국학과 지원학생수의 증가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로 40대 이상은 〈대장금〉 등으로 형성된 한국드라마 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10대와 20대에는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가, 20-30대에는 한국영화팬들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 201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한국문화원이 개설되면서 지속적으로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양국 간의 문화교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헝가리 한국문화원은 한국어, 태권도, K-Pop, 전통 무용, 국악, 전통 공예, 바둑, 한식 등 10여개 정규강좌를 열어 평균 200여 명 안팎의 수강생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월 2-3차례씩 공연 및 전시 등의 한국문화행사를 열어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분야별, 지역별로 한국문화 관련 동호회가 크게 늘면서 현지인 커뮤니티에 의한 한국문화행사가 이뤄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헝가리 여성 14명으로 구성된 '무궁화무용단'은 뛰어난 기량을 갖춰 현지 한국문화행사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2015년 7월 서울의 국립국악원과 전주에서 두 차례 공연을 갖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문화동호회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자발적으로 한국문화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2017년 5월에는 19개 동호회가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약 200여 명이 참여, '한유(Han-You)문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이는 해외 현지인들에 의해 설립된 첫 번째 문화재단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2018년 10월에는 한유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최초의 한국문화 이벤트가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바 있다.

(2) 분야별 현황

1 드라마

2008년 유럽에서는 최초로 TV 미니시리즈 〈대장금〉을 국영방송국인 MTV가 4차례에 걸쳐 방영한 후 2010년 10월부터 〈선덕여왕〉을, 2011년 2월부터 〈동이〉를 잇달아 방영하였다. 〈대장금〉은 2008년도에는 아침과 점심시간대에 방영되었고 시청률이 올라가자 2009년 9월~11월, 2010년 1월~ 3월 각각 프라임시간대에 방영되었으며, 〈선덕여왕〉과 〈동이〉는 주5회 저녁 황금시간대에 방영되었다. 헝가리인들이 유독 사극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한복과 하나의 예술작품 같은 한국음식 때문이라고 한다. 2015년에는 사극〈이산〉, 현대물 〈파스타〉가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2 영화

지난 2007년 헝가리에서 처음으로 〈한국영화주간〉 행사를 개최한 이래 매년 한국영화제가 열리고 있다. 2007년에는 〈태극기 휘날리며〉 등 8편이 상영되었고, 2009년에는 〈밀양〉 등 10편, 2010년에는 〈국가대표〉 등 10편, 2011년에는 〈워낭소리〉 등 5편, 2012년에는 김기덕 감독의 작품 5편, 2013년에는 〈광해〉 등 5편이 상영되었고, 2014년에는 영화 편수와 상영관을 크게 확대하여 부다페스트, 페치, 세게드 등 3개 도시, 5개 상영관에서 모두 27편의 한국영화가 상영되어 큰 인기를 모았다. 2014년에 한국영화제에는 〈혜화, 동〉의 민용근 감독과 배우 정연주 씨가 참여하여 관객과의 대화를 갖기도 했다.

헝가리에서 한국영화는 드라마틱한 전개. 화사한 영상미, 이국적인 소재 등으로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감독으로는 독특한 영화세계를 보여주는 김기덕 감독과 홍상수, 박찬욱 감독 등의 팬이 상대적으로 다수이며, 장르로는 현대극보다 사극에 대한 인기가 더 높은 편이다. 한국영화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제10회 헝가리 한국영화제 당시에는 6,000명 이상의 관객을 기록하였으며, 〈타이타닉영화제〉 등 현지영화제에서도 꾸준히 한국영화가 소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영화 동호회도 구성되어 이들에 의해 격주로 한국영화제(코리아무비로드)가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평균 70여 명이 관객이 참여하고 있다.

3 K-Pop

2018년 현재 헝가리에는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K-Pop 댄스 및 K-Pop 관련 팬클럽 150여개가 존재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편이다. 주로 10-20대 젊은 층에서 K-Pop에 대한 인기가 높으며,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 일본 J-pop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이 같은 흐름은 몇 년 전부터 K-Pop으로 바뀌어 압도적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팬클럽들이 헝가리한류팬클럽연합회 'Idolater'를 구성하여 헝가리 현지에서의 K-Pop 관련 행사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매년 개최되는 K-Pop 월드페스티벌 헝가리 지역예선에서는 15-20여 개 팀이 참가해 뛰어난 댄스와 노래솜씨를 보여주었으며, 해마다 500-600여 명의 관객이 참여하여 헝가리에서의 한류 붐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들은 YouTube 등을 통하여 한국 K-Pop 그룹의 활동을 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노래와 율동을 배워 연습하고 있다. 한국문화원에서 운영되는 K-Pop 댄스 교실에도 3개 반이 구성되어 운영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4 한식

2008년 헝가리에서 방영된 〈대장금〉의 인기로 많은 헝가리인들이 한국음식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한국영화제, 문화원 개관행사, 지역축제 등 주요문화행사와 연계해 한식을 소개함으로써, 한식 보급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Marriott 호텔에서 개최한 국경일 행사를 겸한 〈Taste of Korea 2010〉 행사에서는 한식 리셉션과 함께 호텔 내 식당에 한식판매코너를 운영하고 음식전문기자들을 초청하여 시연회를 가졌으며, 지상파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식을 홍보함으로써 단순히 1회성으로 우리 음식을 소개하는 종래의 관행에서 벗어나 한국음식의 세계적 경쟁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고급요리로서의 한식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주헝가리한국문화원에서 상설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요리 수업〉은 헝가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대기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추와 마늘을 즐겨 사용하는 등 한국과 입맛이 비슷한 헝가리인들은 거부감 없이 한국음식을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

주헝가리 한국문화원에서는 2014년 11월 한식 페스티벌을 주최하여 궁중 음식재현 등의 행사를 가졌으며, 250여 명의 현지인들이 참여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2015년 5월에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한식세계화를 위한 안테

나숍인 'K-food' 부다페스트지점이 개설되었고, 2016년과 2017년에 개최된 한국문화 페스티벌에서 현지 한식당이 대거 참여, 현지인들에게 한식을 선보이기도 했다. 2017년 8월에는 우관스님을 초청해 헝가리 원광사에서 130여 명의 현지 주요 인사를 초청해 사찰음식 행사를 열기도 했다.

한국문화원의 한식정규강좌는 매주 3개 반이 운영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헝가리인들이 상대적으로 매운 음식을 선호하고, 마늘을 즐겨먹는 등 우리와 식성이 유사하고, 한식이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어서 인기가 높은 편이다.

5 한국어

2008년 부다페스트 엘떼(ELTE) 인문대학 내 한국학과 설립 이후 꾸준히 한국학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학을 배우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한국문화에 심취해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설학원이 있을 정도로 한국어의 인기는 대단하다. 현재 문화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종학당 한국어강좌는 220여 명의 학생들이 초·중·고급반으로 나누어 공부하고 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친구들을 사귀기도 하고 한국드라마나 노래를 들으며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6 기타 산업파급효과

드라마 〈선덕여왕〉의 원작소설인 류은경 작가의 책이 헝가리어로 번역되어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한 헝가리가 K-Pop 음원구매율이 높다는 것도 눈여겨볼 일이다.

헝가리인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으로 한국의류를 구입하거나 한국화장품을 사기도 하는데, 특히 한국의 비비크림의 인기가 높고, 한국산 미용제품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 헝가리 한국문화페스티벌(9.22)〉 중에 진행된 'K-Beauty 메이크업 시연 및 워크샵'에 대하여 헝가리인들은 K-Pop 아이돌이나 배우들의 메이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국산 화장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대장금〉의 여파로 한국식품점에도 많은 헝가리인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실제 한국문화페스티벌시 운영되는 한국식품 팝업스토어에서는 거의 모든 제품이 판매될 정도로 높은 호응도를 확인할 수 있다.

(3)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헝가리인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유의 역동성과 서사의 힘에 있다. 이들은 한국의 K-Pop이 풍부한 율동과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제공하는 다이내믹한 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특성은 특히 젊은 층에게 크게 어필하여 지속적으로 팬클럽을 만들어내는 자양분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드라마와 영화가 보여주는 '이야기'는 이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의 문법과는 다른 독특한 상상력과 색다른 이야기의 전개가 현지 관객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 콘텐츠가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시각적 체험(화면 구성과 사극의 화사한 복식 등)도 인기의 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한국문화콘텐츠의 매력은 K-Pop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유사한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뿌리에 기반을 둔 정서적 동질감이다. 헝가리는 몽골, 오스만투르크,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제국, 나치독일, 구소련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침략과 식민 지배를 당하는 등 오랜 외침과 저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동부 유럽의 전략적 요충지(로마가톨릭과 정교회, 아시아와 유럽 문화의 교차점)라는 지정학적 요소에 말미암아 역사적 부침을 거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와 유사한 정서를 갖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이들 문화의 아시아적 뿌리라는 요소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 번째는 한국문화가 가진 상대적 신선함이다. 일본과 중국에 비해 한국문화는 새롭고도 트렌디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한식은 육류중심의 현지인들에게 새로운 의미의 건강식을 의미하며, 한복은 화사한 색감을 가진 이색적인 옷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문화를 알고 체험한다는 것은 현지인들에게 이국적(exotic)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면서 새로운 문화적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4 문화교류시 고려해야 할 점

헝가리에서 드라마를 배급할 경우에는 헝가리어 더빙이 필수이며, 일반적으로 20회 이상 장편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회당 방영시간이 보통 30~40분인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헝가리인들과 교류할 시에는 서두르거나 인간적인 측면을 무시하지 말고 배려심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헝가리인들은 직설적인 편이라 싫어하는 것을 표현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며, 정직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편이 좋다.

5 한류 동호회 현황

(1) 일반현황

헝가리의 한류동호회는 K-Pop 팬클럽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K-Pop 댄스동호회, 영화 및 드라마, 한국어동호회 등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오프라인 모임이나 일 년에 1-2차례씩 독자적인 이벤트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2) 동호회별 현황(총 236개 동호회)

1 R3D Seven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394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R3DSEVEN/?fref=ts
설립일	2016
대표	Pocsai Ágota
연락처	agotapocsa90@gmail.com

2 CYC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5132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HomeMadeAsia/
설립일	2015 (HMA from 2012)
대표	Németh Dávid
연락처	homemadeasia@gmail.com

3 Coverdose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24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CoverDoseDance/?fref=ts
설립일	2014
대표	Kiss Csenge
연락처	coverdose.dance1@gmail.com

4 B~wave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142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BWaveKpop/?fref=ts
설립일	2017
대표	Magda Renátó
연락처	magdarenee93@gmail.com

5 B~wave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142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BWaveKpop/?fref=ts
설립일	2017
대표	Magda Renátó
연락처	magdarenee93@gmail.com

6 Anonymus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
웹사이트 주소	-
설립일	2016
대표	Grawátsch Lili
연락처	grawilla24@gmail.com

7 Anonymus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
웹사이트 주소	-
설립일	2016
대표	Grawátsch Lili
연락처	grawilla24@gmail.com

8 Ko:Realize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287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ko.realize.dance/?fref=ts
설립일	2016
대표	Benkő Beatrix
연락처	ko.realize@gmail.com

9 4Divas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58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4divas.dance/?fref=ts
설립일	2016 (Originally in 2013 Home Made Asia)
대표	Komondi Martina
연락처	4divas.dance@gmail.com

10 UHS (United Hungarian Squad)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241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unitedhungariansquad/
설립일	2016
대표	Czine Veronika Virág
연락처	unitedhungariansquad@gmail.com

11 Droll Cosmos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Droll-Cosmos-1894804884101233/
설립일	2017
대표	Gyimóthy Réka
연락처	heni0316@gmail.com

12 Yong Yoja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473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yongyoja/?fref=ts
설립일	2014
대표	Buday Kira
연락처	yongyoja@gmail.com

13 RUR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58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runultradancegroup/?fref=ts
설립일	2016
대표	Jónás Karolin
연락처	runultradance@gmail.com

14 5CANDAL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
웹사이트 주소	-
설립일	2017
대표	Kovács Bianka
연락처	scan.scan.scandal@gmail.com

15 MADLIPS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
웹사이트 주소	-
설립일	2017
대표	Simon Barbi
연락처	simonbarbi11@gmail.com

16 GIRLS IN GROOVE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
웹사이트 주소	-
설립일	2016
대표	Bodolai Kitti
연락처	bodolai.kitti@gmail.com

17 Koremoo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
웹사이트 주소	-
설립일	2017
대표	Molnár-Kubus Fanni
연락처	molnarkubusfanni@gmail.com

18 DIMENSION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
웹사이트 주소	-
설립일	2017
대표	Tornyai Zita
연락처	tornyaizizi@gmail.com

19 Neverthless Dance Crew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6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NDCNeverthlessDanceCrew/?fref=ts
설립일	2017
대표	Demján Krisztina
연락처	ndcneverthless@gmail.com

20 Dreamakers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
웹사이트 주소	-
설립일	2017
대표	Kiss Bianka
연락처	bia06@citromail.hu

21 ECHO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
웹사이트 주소	-
설립일	2017
대표	Cserős Andrea
연락처	hayehaye@freemail.hu

22 Trinity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
웹사이트 주소	-
설립일	2017
대표	Csizy Lívia
연락처	lvcsizy@gmail.com

23 Rhythmix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369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rhythmix.dance/?fref=ts
설립일	2014
대표	Csicsmann Réka
연락처	nguyenszilvia@yahoo.com

24 AYA - As You Are

성격	K-Pop 댄스 동호회
회원 수	206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AYA-As-You-Are-167362793622598/?fref=ts
설립일	2015
대표	Lakatos Annabella
연락처	asyouareaya@gmail.com

25 BURNIE

성격	K-Pop 커버 솔로 공연자
설립일	2017 (Originally in Home Made Asia 2015)
이름	Sárközi Vivien
연락처	sarkozivivien11@gmail.com

26 Bajó Abigél

성격	K-Pop 커버 솔로 공연자
설립일	2016
이름	Bajó Abigél
연락처	abigel.bajo@gmail.com

27 Nana

성격	K-Pop 커버 솔로 공연자
설립일	2014
이름	Zrufkó Henrietta
연락처	heni.zruf@gmail.com

28 Borsik Bettina

성격	K-Pop 커버 솔로 공연자
설립일	2017 (Home Made Asia from 2015)
이름	Borsik Bettina
연락처	bettina.borsik@gmail.com

29 Nixie

성격	K-Pop 커버 솔로 공연자
설립일	2017
이름	
연락처	agirlytomboy@gmail.com

30 Mugunghwa

성격	한국전통무용 동호회
회원 수	26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mugunghwadance/?fref=ts
설립일	2013
대표	Esztergomi Zsuzsa
연락처	mmdance.hu@gmail.com

31 Manwol táncсsoport- 만월무용단

성격	한국전통무용 동호회
회원 수	79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Manwol-t%C3%A1nccsoport-%EB%A7%8C%EC%9B%94-%EB%AC%B4%EC%9A%A9-%EB%8B%A8-886464111487354/
설립일	2015

32 Seoul Mates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1844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seoulmatesent/
	http://seoulmates-ent.com/
설립일	2017
연락처	seoulmatesent@gmail.com
대표	Koczúr Lucia

33 Debreceni Koreai Kulturális Egylet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63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Debreceni-Koreai-Kultur%C3%A1lis-Egylet-1378424819154668/?fref=ts
	http://koreaindebrecen.blog.hu/
설립일	2015
연락처	lelkembenkorea@gmail.com

34 Kpop World Festival // Hungary //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수	152
설립일	2017
연락처	kwfhungary@gmail.com

35 Happy Cherry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1086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happycherry.kpop/?fref=ts
설립일	2015
연락처	https://yuninachan.deviantart.com/
대표	Szabó Andrea

36 Home Made Asia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5160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HomeMadeAsia/?fref=ts
설립일	2012
연락처	homemadeasia@gmail.com
대표	Németh Dávid

37 Hungarian K-Pop Music Awards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840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hungariankpopmusicawards/?fref=ts
설립일	2013
대표	Molnár Viktória

38 헝가리어 한국어 그룹:) Magyar-Koreai csoport :)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1062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1528822957349519/

39 Idolater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3313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Idolaterevents/?fref=ts
설립일	2015
연락처	contact@idolaterevents.com
대표	Molnár Viktória

40 Irány Dél-Korea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139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702150399840773/?fref=ts

41 Omona Kpop Party Budapest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1127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pg/omonakpopparty/about/?ref=page_internal
설립일	2016

42 Korean Music 〈3 한국 음악 애호가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374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240992502664640/?fref=ts

43 Magyar Kpop táncosok és énekesek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300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1064668766941188/?fref=ts

44 Magyar- Koreai Baráti Társaság*헝가리어- 한국어 우호 협회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342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koreanhungaryfriend/?fref=ts

45 Xiaolongimnida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2794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Xiaolongimnida/?fref=ts
	http://xiablog.blog.hu/
설립일	2012
연락처	info@xiaolongimnida.hu
대표	Baksa Tímea

46 Koreai holmik cseréje és adás-vétele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420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185270434937152/?fref=ts

47 Dél- Korea Hungarian- Korean group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2768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delkorea/?fref=nf

48 Hungarian Kpop Yaoi Fanfics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242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274953162677740/?fref=ts

49 Hungarian K-Pop Concerts + International Information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2297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1067770556594915/

50 Korean bands hungary~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3324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680852082053285/?fref=ts

51 LikeOn Productions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137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LikeOnProductions/?fref=ts
설립일	2016
연락처	contact.likeonproductions@gmail.com
대표	Molnár Viktória

52 Hallyu Hair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44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Hallyuhair/?fref=ts
대표	Fábián Orsi

53 K-Pop News Hungary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1912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KpopNewsHungary/?fref=ts

54 Kpop Hungary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208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kpophungaryforever/?fref=ts

55 Máté taekwondo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수	2131
웹사이트 주소	http://www.matetaekwondo.hu/
대표	Máté Gergő
연락처	matetkd@gmail.com

56 Parataekwondo Hungary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483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Parataekwondo-Hungary-1375461759392642/
대표	Szarka Tünde
연락처	tuncgyozo@y7mail.com

57 Szegedi Koreai Kulturális Közösség / 세게드한국문화동호회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460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koreainszeged/
설립일	2015
연락처	koreainszeged@gmail.com

58 Koreai kalligráfia - Munbangsau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132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munbangsau/

59 Mindeulle együttes

성격	K-Pop 및 한국문화 동호회
회원 수	40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mindeulle.hungary/
설립일	2015
연락처	mindeulle.hungary@gmail.com

60 Magyar Doramafan 2016

성격	한국 드라마 동호회
회원 수	1582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797854957019391/?fref=ts

61 Hungarian Dorama Club

성격	한국 드라마 동호회
회원 수	583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109885646073761/?fref=ts

62 Hungarian KPOP, DORAMA, VLIVE group

성격	한국 드라마 동호회
회원 수	903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573306826202152/?fref=ts

63 Dorama fanok (K-drama, J-drama, K-Pop, J-Pop, movie-k)

성격	한국 드라마 동호회
회원 수	211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256880264389500/?fref=ts

64 Koreai sorozatok kedvelői

성격	한국 드라마 동호회
회원 수	2011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hwarangok/?fref=ts

65 Koreai sorozatok 한국 시리즈

성격	한국 드라마 동호회
회원 수	1391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Koreai-sorozatok-%ED%95%9C%EA%B5%AD-%EC%8B%9C%EB%A6%AC%EC%A6%88-282133371973001/?fref=ts

66 Koreai sorozatok/filmek

성격	한국 드라마 동호회
회원 수	2674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korea.fan.hun/?fref=ts

67 Dèl-Koreai filmek ès történelmi dráma sorozatok

성격	한국 드라마 동호회
회원 수	806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512443122300356/?fref=ts

68 Koreai film- és drámaközösség (영화, 드라마)

성격	한국 드라마 동호회
회원 수	361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koreaifilmdrama/?fref=ts

69 South Korea in Hungary

성격	한국 드라마 동호회
회원 수	1556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354127261330900/?ref=ts&fref=ts

70 South Korea Fan Club

성격	한국 드라마 동호회
회원 수	4838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SouthKoreafanclub/?ref=ts&fref=ts

71 Whalemények

성격	한국 드라마 동호회
회원 수	94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whalemenyekblog/?fref=ts

72 Pécsi Koreai Klub

성격	한국 드라마 동호회
회원 수	106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368492293268005/
설립일	2013
대표	Turcsi Eleonóra

73 100% 팬클럽

1. 100% Hungary	
회원 수	113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461349860571241/?ref=ts&fref=ts

74 24K 팬클럽

1. 24K Hungarian Fan Club	
회원 수	661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278660415573282/?ref=ts&fref=ts
2. 24K Hungary	
회원수	701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24K-Hungary-378757375653332/?ref=ts&fref=ts

75 2NE1 팬클럽

1. 2ne1 Hungary 〈3	
회원 수	396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371456376238173/
2. 2NE1 Hungary Fan Page	
회원 수	2151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2ne1hungary.fan.page/timeline
설립일	2011
3. 2NE1 Hungary:]	
회원 수	150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183425801733738/

76 2PM 팬클럽

1. 2PM Hungary	
회원 수	177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266421333385325/
2. 2PM Hungary Fans	
회원 수	857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2pmHungaryFans/timeline

77 4Minute & KARA 팬클럽

1. 4KARA Hungary | 4minute and Kara Best KPOP Female Girl Groups	
회원 수	1336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4niashungary/?ref=br_rs
	http://teehee.gportal.hu
설립일	2009
2. 4Minute Hungary	
회원 수	617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4Minute-Hungary-379165385516281/

78 After School 팬클럽

1. After School Hungarian Fanclub	
설립일	400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After-School-Hungarian-Fanclub-260441964075551/?fref=ts
설립일	2009

79 Ailee 팬클럽

1.《Ailee Hungary - 에일리 헝가리》	
회원 수	179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aileehungary/?fref=ts

80 Astro 팬클럽

1. ASTRO Hungary	
회원 수	751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ASTROHungary/
2. ASTRO Hungary	
회원 수	674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761743503948647/

81 B.A.P 팬클럽

1. B.A.P Hungary	
회원 수	9161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baphungary
설립일	2012
연락처	baphungary2@gmail.com
2. ~ Hungarian Babyz~ ♥B.A.P ♥	
회원 수	110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108610465936488/?fref=ts

82 B.I.G 팬클럽

1. Boys In Groove - B.I.G Hungary	
회원 수	851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boysingroovehungary/

83 Beast 팬클럽

1. BEAST/Highlight & JHS Hungary	
회원 수	1019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hungarianlight/?fref=ts
2. BEAST / B2ST Hungary	
회원 수	1397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b2sthungary/?fref=ts
3. BEAST Hungary *-*	
회원 수	218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452129528143908/

84 BESTie 팬클럽

1. BESTie Hungary	
회원 수	209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pages/BESTie-Hungary/645185765505537?sk=timeline
설립일	2013

85 BIGBANG 팬클럽

1. BIGBANG Hungary	
회원 수	3874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BIGBANGHungary/?ref=profile
설립일	2011
연락처	hungarianvips@gmail.com
2. BigBang Hungary	
회원 수	178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886921291346309/

86 Black Pink 팬클럽

1. BLACK PINK Hungary	
회원 수	978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BLACKPINKHungary
설립일	2016
2. BLACKPINK HUNGARY	
회원 수	186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1803811136544203/?fref=ts

87 Block B 팬클럽

1. Block B_Hungary	
회원 수	2164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BlockBHungary/timeline
2. Block B_Hungary	
회원 수	898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363118917035853/?fref=ts

88 Boyfriend 팬클럽

1. Boyfriend Hungary	
회원 수	417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bfhungary/timeline
설립일	2011

89 Boys Republic 팬클럽

1. Boys Republic Hungary - 소년공화국	
회원 수	98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BoysRepublicHungary/timeline
설립일	2013

90 BTL 팬클럽

1. BTL - Beyond The Limit /Hungary/	
회원 수	29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beyondthelimithungary/

91 BTOB 팬클럽

1. BTOB (Born To Beat) Hungary	
회원 수	1997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BornToBeatHungary/timeline
설립일	2012
2. BTOB Hungary	
회원 수	496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254760647948773/?fref=ts

92 BTS 팬클럽

1. Bangtan Boys Hungary	
회원 수	11034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BTS.HUN.Fan.Page/timeline
설립일	2013
2. Bangtan Boys Hungary ♥	
회원 수	2401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114631252081362
3. Bangtan Hungary	
회원 수	2991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BangtanBoysHungary/timeline
4. BTS - Bangtan Boys /HUN/	
회원 수	719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BTS-Bangtan-Boys-HUN-735164876578106/?ref=py_c
5. BTS Hungary Army	
회원 수	5963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hungarianbts/?fref=ts

6. BTS love is not over♥ army♥ bangtan boys Hungary	
회원 수	2698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410992932442325/
7. MAG - 방탄소년단 헝가리	
회원 수	3086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magyararmygroup
설립일	2015
대표	Kunkli Orsolya
연락처	magbtshun@hotmail.com
8. ~Bangtan Boys Fanfiction-Hungary~	
회원 수	1682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663764823701415/

93 CL 팬클럽

1. CL Hungary	
회원 수	850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ZBHungary/?ref=profile
	http://chaerin.gportal.hu

94 CN Blue팬클럽

1. CN BLUE & F.T Island Hungary	
회원 수	1809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cnblueandftislandhungary/timeline
설립일	2012
2. CNBlue Hungary	
회원 수	288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CNBlueHungary/?fref=ts

95 Day6 팬클럽

1. DAY6 Hungary	
회원 수	396
웹사이트 주소 (Facebook)	https://www.facebook.com/DAY6-Hungary-721690397936410/?fref=ts

96 Epik High 팬클럽

1. EPIK HIGH Hungary	
회원 수	619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EpikHighHungary/?ref=profile
	http://epikhigh.gportal.hu
대표	Kőrösi Nikolett

97 EXO 팬클럽

1. 2HEXO - To Hungarian Exo-L	
회원 수	702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2hexo/
	http://2hexo.tumblr.com/
설립일	2012
연락처	2hexo.km@gmail.com
2. EXO Hungary	
회원 수	4140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ExoHungary/timeline
설립일	2012
연락처	exohungary@citromail.hu
3. EXO Hungary	
회원 수	294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477219572296573/
4. EXO Planet Hungary	
회원 수	649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188962694553658/

98 F(x) 팬클럽

1. f(x) Hungary	
회원 수	814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pages/Fx-Hungary/278168902235684
	http://fx.gportal.hu/gindex.php?pg=33820363
연락처	fxhungarysub@gmail.com

99 FT Island 팬클럽

1. CN BLUE & F.T Island Hungary	
회원 수	1809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cnblueandftislandhungary/
설립일	2012
대표	Hegyi Anna
2. FT Island Hungary	
회원 수	360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1588312681423951/

100 Girls' Generation 팬클럽

1. Girls' Generation (SNSD) Hungary fansite	
회원 수	1009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pages/Girls-Generation-SNSD-Hungary-fansite/289813534377034?sk=timeline
	http://snsd-sone.gportal.hu/
설립일	2010

101 GOT7 팬클럽

1. GOT7 Hungary	
회원 수	39698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OT7HU?fref=ts
설립일	2014
2. Got7 Hungary♡∞Hun AhGaSe FC∞	
회원 수	696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352224531608980/?ref=suggested_groups
3. IGOT7 Hungary	
회원 수	426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761785880530448/

102 HyunA 팬클럽

1. HyunA Hungary	
회원 수	627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pages/HyunA-Hungary/1390543957827507?sk=timeline
	http://blog.kimhyunbak.com/
설립일	2013
2. Kim Hyuna Hungary	
회원 수	1983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Kim-Hyuna-Hungary-1426131577599408/?fref=ts

103 iKON 팬클럽

1. iKON Hungary	
회원 수	151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iKONHungary/timeline
웹사이트 주소 (Webpage)	http://ikonhungary.blogspot.hu/
설립일	2013
연락처	ikonhungary2014@gmail.com
2. ♥iKON Hungary ♥	
회원 수	759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1552602805025116/?fref=ts

104 IMFACT 팬클럽

1. IMFACT HUNGARY - 임팩트 헝가리	
회원 수	441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imfacthungary
2. IMFACT HUNGARY - 임팩트 헝가리	
회원 수	152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1781033778790151/

105 INFINITE 팬클럽

1. ♥ ~Infinite Hungary~♥ ~인피니트 헝가리♥ ~	
회원 수	518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516436025053395/
2. Infinite Hungary	
회원 수	2450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pages/Infinite-Hungary/487686404592792?sk=timeline
설립일	2012
3. INFINITE Hungary - Hivatalos Csoport	
회원 수	65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723482391092279/
4. Nam Woohyun 남우현Hungary	
회원 수	12661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woohyunhungary/?ref=ts&fref=ts

106 Jay Park 팬클럽

1. Jay Park Hungary Jay Effect	
회원 수	374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JayParkhunJayeffect/?fref=ts

107 JYJ 팬클럽

1. Kim Jaejoong - 김 재중Hungary	
회원 수	2937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jaejoonghungary.hu/
설립일	2014

108 Kim Namgil 팬클럽

1. Kim Nam- gil 김남길Fan Club Hungary	
회원 수	4888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kngfchun/?ref=ts&fref=ts
설립일	2011
연락처	kngfchun@gmail.com

109 Korean Entertainments 팬클럽

1. JYP Nation Hungary	
회원 수	198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1599703706960921/?ref=ts&fref=ts
2. S.M. Ent. Hungary	
회원 수	344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1649938445257104/?ref=suggested_groups
3. SM Town Hungary	
회원 수	192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424045194289038/
4. YG Family Hungary	
회원 수	448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YGFamilyHungary

110 K-Pop Other 팬클럽

1. KPOP Hungary	
회원 수	1037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KPOP-Hungary-253683551500580/?ref=py_c
2. K-Pop Hungary	
회원 수	208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pages/K-Pop-Hungary/440768199296717?sk=timeline
설립일	2012
3. K-Pop Hungary	
회원 수	386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353280681416073/?ref=ts&fref=ts
대표	Szabó Krisztina
4. K-Pop hungary	
회원 수	1492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kpophungary123/?fref=ts

5. K-Pop World Hungary	
회원 수	2388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pages/K-Pop-World-Hungary/109581562544278?sk=timeline
	www.monday-to-sunday.mlap.hu
6. K-Pop.Hungary	
회원 수	4293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pages/K-PopHungary/481915941896850?sk=timeline
	http://kwacho.blogspot.hu/
설립일	2013
대표	Kócziás Johanna
연락처	k.top.johi@gmail.com
7. # BTS # EXO # VIXX # GOT7 # Hungary 〈3 〈3 〈3	
회원 수	387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361804187359061/?ref=suggested_groups
8. AOMG, AMOEBA C.ÉS YMC ENT. Hungary	
회원 수	104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502394606623231/
9. ~K~K~K~ (K-Pop Kép Kérő)	
회원 수	1492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480201948794599/?ref=suggested_groups
10. 〈3 Minden ami Korea ès Japán 〈3	
회원 수	2824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517976244887995/
11. Dotya	
회원 수	1291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DOTYAOFFICIAL/?fref=ts
설립일	2013
대표	Bendják Dorottya
12. Hungarian KPOP Fanfics	
회원 수	2763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419673311393526/

13. Neverland.~	
회원 수	3526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alwaysneverland/?fref=ts

111 Kwon Twins 팬클럽

1. KWON TWINS Hungary	
회원 수	83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kwontwinshitech/?fref=ts
설립일	2014
대표	Ignáth Enikő

112 LC9 팬클럽

1. LC9 (League of Competition #9) Hungary	
회원 수	90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151672851681502/
2. LC9 Hungary	
회원 수	659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LC9Hungary/timeline
설립일	2013

113 Lee Min Ho팬클럽

1. Lee Min Ho Hungary	
회원 수	1650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LeeMinHoHungary/?fref=ts

114 Lee Jong Suk팬클럽

1. Lee Jong Suk Hungary	
회원 수	3139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jongsukhungary/?fref=ts

115 Lunafly 팬클럽

1. Lunafly Hungary	
회원 수	512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LunaflyHungary/?fref=ts

116 M.Pire 팬클럽

1. M.Pire Hungary	
회원 수	451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pages/MPire-Hungary/165663106954089?sk=timeline

117 MBLAQ 팬클럽

1. A+ in Hungary	
회원 수	651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mblaq.hungarian/

118 Miss A 팬클럽

1. Miss A Hungary	
회원 수	1561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pages/Miss-A-Hungary/468652379874853?sk=timeline

119 Monsta X 팬클럽

1. Monsta X - 몬스타엑스Hungary	
회원 수	2176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Monsta-X-%EB%AA%AC%EC%8A%A4%ED%83%80%EC%97%91%EC%8A%A4-Hungary-1587803168169264/?fref=ts
2. Monsta X Hungary Monbebes Fandom Csoport	
회원 수	1376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1018995638153477/?fref=ts

120 Myname 팬클럽

1. MYNAME Hungary	
회원 수	1010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MYNAMEhungary/?fref=ts
설립일	2012
연락처	hungarianmygirls@gmail.com

121 NCT 팬클럽

1. NCT Hungary	
회원 수	915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smnctkpophun/?fref=ts

122 Nu'Est 팬클럽

1. NU'EST Hungary	
회원 수	2138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NuestHungary/timeline
설립일	2012

123 Punch 팬클럽

1. Punch Hungarian Fansite	
회원 수	290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1punch.hungary/?fref=ts

124 Red Velvet 팬클럽

1. Red Velvet Hungary	
회원 수	368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Red-Velvet-Hungary-864805660215336/?fref=ts

125 Secret 팬클럽

1. Secret Hungary	
회원 수	1717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pages/Secret-Hungary/273796852680222?sk=timeline
설립일	2009

126 Seventeen 팬클럽

1. Seventeen Hungary	
회원 수	984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pages/Seventeen-Hungary/633452113395191?sk=timeline
2. SEVENTEEN Hungary	
회원 수	320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549121745156457/

127 SHINee 팬클럽

1. SHINee Hungary	
회원 수	1246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208792859175777/?ref=suggested_groups
2. SHINee Hungary~<3	
회원 수	181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301398439945403/

128 Sistar 팬클럽

1. Sistar Hungary	
회원 수	908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pages/Sistar-Hungary/149046961873807?sk=timeline
설립일	2010

129 SS501 팬클럽

1. SS501 Fans Hungary	
회원 수	870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ss501.hungary/timeline
설립일	2011

130 Super Junior 팬클럽

1. Super Junior(SuJu)Hungary	
회원 수	1756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pages/Super-JuniorSuJuHungary/227615357248671?sk=timeline

131 Teen Top 팬클럽

1. Teen Top Hungary	
회원 수	994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pages/Teen-Top-Hungary/1438407303073219?sk=timeline
설립일	2014
2. Teen Top Hungary~	
회원 수	317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359817620714102/

132 ToppDogg 팬클럽

1. ToppDogg Hungary	
회원 수	440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254089358075000/

133 TVXQ/JYJ 팬클럽

1. TVXQ/JYJ Hungary	
회원 수	129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228884537201865/

134 U-KISS 팬클럽

1. U-Kiss HUNGARY	
회원 수	318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129300240521078/
2. U-KISS(유키스) Hungary	
회원 수	1590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pages/U-KISS%EC%9C%A0%ED%82%A4%EC%8A%A4-Hungary/288564817823601?sk=timeline
설립일	2011

135 Up10tion 팬클럽

1. Up10tion [업텐션] Hungary	
회원 수	433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1097770033585949/?ref=suggested_groups
2. 업텐션Up10tion Hungary	
회원 수	536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up10tionhungary/?fref=ts
설립일	2015

136 VIXX 팬클럽

1. VIXX Hungary / 헝가리 별빛	
회원 수	3146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pages/VIXX-Hungary/475827385804530?sk=timeline
설립일	2013
대표	Harkai Daniella
연락처	vixxhungary@gmail.com

137 Winner 팬클럽

1. Winner Hungary	
회원 수	970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WinnerHungary/timeline
설립일	2013
연락처	winnerhungary@gmail.com

138 비(Rain) 팬클럽

1. Cloud Hungary: Incredible RAIN / 헝가리구름: 대단한 비	
회원 수	1092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IncredibleRAIN/timeline
웹사이트 주소 (Webpage)	http://incrediblerain.blogspot.hu/
설립일	2012
연락처	cloudhungary@gmail.com

139 MAMAMOO 팬클럽

1. Mamamoo Hungary	
회원 수	441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acebook.com/mamamoohungary/

6 최근 주요 문화행사

(1) 전시

■ 한국전통공예전 『나전과 옷칠_그 천년의 빛』전(2.23-3.30, 문화원)

- 주최/주관: 근대황실공예문화협회 / 주헝가리 한국문화원
- 한국 전통공예, 나전칠기 분야 장인 31인의 대표작 37점을 소개하는 전시로, 자개장 등 기존 전통적 형태의 나전칠기 작품 외에 유럽 전통의 '알'공예 등과 접목한 새로운 형식의 나전칠기 작품을 선보임

■ 한-헝 교류전시 『산토팔라토(Santopalato)』전 (5.29.~7.31., 문화원 / 5.31.~6.30., 헝가리청년작가협회(SYAA) 스튜디오 갤러리)

- 주최/주관: 주헝가리 한국문화원 / 헝가리청년작가협회(SYAA)
- 바이오 아트(Bio Art) 작가 우지원의 작품 '손맛(Son Mat)'을 중심으로 안탈 벌라스(헝가리) 등 유럽 지역 5개국 18개 팀·작가가 참여한, '음식'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장르의 시각예술 작품을 보여주는 단체전으로 헝가리 큐레이터 유디트 살립스키의 기획을 바탕으로 헝가리청년작가협회(SYAA)와 공동으로 개최

■ 『우리 살림_장醬, 그리고 한국의 독甕 이야기』 (9.4.-10.31., 문화원)

- 주최/주관 : 주헝가리 한국문화원/울주군/(사)울산옹기축제위원회
- '옹기'와 '발효음식'을 소재로 한국 고유의 도자 문화와 식문화를 보여주는 전시로 현지 도예교육기관(kozter18)과 공동으로 옹기장의 시연 등 워크샵을 개최함

■ 『감통感通_ LINKED VIEWS』 (11.19.~2019.2.28., 문화원)

- 주최/주관 : 주헝가리 한국문화원
- 한국과 헝가리 양국의 민속설화를 바탕으로 작업하는 전통예술 분야의 예술가, 민화작가 지민선과 텍스타일작가 벌러셔 율리어의 2인전으로, 민속설화와 전통예술의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양국 간 문화예술의 교류를 디지털 세계에서의 '혼합'하는 시도를 선보임

(2) 공연 및 축제

■ '한국과 헝가리, 시를 노래하다: 윤동주와 요제프 아틸라〉 문학포럼 (2.9, 부다페스트 페퇴피 문학박물관)

- 페퇴피 문학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 한국(김응교, 심보선)과 헝가리(커러피아트 오르쇼야) 양국의 시인이 양국 대표시인 윤동주와 아틸라에 대한 강연, 작가·관객과의 대화를 진행
- 헝가리문학·역사협회, 요제프 아틸라 협회, 헝가리 예술과학 아카데미, 페퇴피 문학박물관 관계자 및 회원 등 현지 작가 및 문학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양국 문학계 간 교류의 장 형성

■ 김도연 밴드 '국악의 새로운 향' 공연 (3.26., 부다페스트 뮤직센터(Budapest Music Center)

- 예술경영지원센터-국제문화교류 기획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컨템포러리 국악 그룹, '김도연 밴드'의 새로운 창작 국악 공연 개최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코리아 판타지(Korea Fantasy): 한국 전통음악과 춤의 향연' 공연 (4.24., 부다페스트 MOM컬쳐센터)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초청, 국악관현악, 판소리, 전통무용 등 전통 가무악을 총망라하는 공연 개최

• 주재국 현지에서 접하기 힘든,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 국악 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 문화예술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일 수 있는 무대 마련

■ 국립현대무용단 '혼합' 공연 (5.4., 부다페스트 캐슬가든(Varkert Bazar))

• 국립현대무용단 대표작 '혼합'을 통해, 한국 전통무용·음악을 서구의 음악, 현대무용, 발레, 힙합 등과 접목하여 새롭게 해석해 낸, 한국의 대표적 현대무용을 소개

■ '재유럽 한인예술가 소개 프로젝트 #1, 현대음악 작곡가 장은호 콘서트' (6.8., BMC)

• 주폴란드·주터키 한국문화원 연계 프로젝트로, 폴란드를 기반으로 활동중인 현대음악 작곡가 장은호의 작품 콘서트를 통해 한국 현대음악의 헝가리 현지 음악계에 소개하는 무대를 통해, 한국 전통음악을 현대음악의 작곡 기법을 재해석한 '산조 시리즈'를 통해 한국적 현대음악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공연

■ '재유럽 한인예술가 소개 프로젝트 #2, 최나경 플루트 리사이틀' (6.23., 두너팔로타(Duna Palota))

• 주폴란드·주터키 한국문화원 연계 프로젝트로, 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는, 한국 대표 클래식 연주자, 플루티스트 최나경을 처음으로 헝가리 음악계에 소개하는 무대로서 한국 관악 연주자의 헝가리 최초 공연

■ 2018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6.16., 문화원)

•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의 헝가리 지역 예선전을 진행함

■ '앙상블 한가람' 모닝커피 콘서트 (7.18., 문화원)

• 한국과 헝가리 양국의 연주자가 함께 창단한 실내악 그룹, '앙상블 한가람'의 공연으로 오전 시간을 이용하여 간단한 다과와 함께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 '첼리스트 양성원 & 피아니스트 엔리코 파체 듀오 리사이틀' (9.19., 리스트 음악원 솔티홀)

• 졸탄 코다이의 곡으로 데뷔앨범을 발표하고, 피터 외트뵈쉬의 첼로 협주곡을 서울시향과 아시아에서 초연하는 등 헝가리 작곡가들에 큰 관심을 보여 온, 한국의 대표적 첼리스트 양성원을 초청하여 리스트와 쇼팽의 곡을 공연함

■ 2018 제4회 헝가리 한국문화페스티벌 (9.22, 부다페스트 MOM센터)

• 전통공연, K-Pop, 태권도, 한식 및 문화체험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페스티벌로서 금년에는 K-Beauty 메이크업 시연, 한식 시연 등을 무대에 올리는 등 새로운 한국문화를 폭넓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제11회 헝가리 한국영화제 (11.5 - 11 / 부다페스트 우라니아극장, 슈가르극장, 아트+시네마 등)

• 부다페스트, 세게드, 페치, 데브레첸 등 4개 도시 6개 상영관에서 한국영화 26편을 5일간 상영하는 한국영화 종합 축제

7 여행정보

(1) 비자

1 일반여행객

헝가리-한국 간 비자면제협정으로 90일까지 무비자입국, 체류가 가능하나,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비자발급이 필수적이다.

공동구비서류	노동비자	유학비자
• 신청한 비자의 유효기간 만료 후 최소 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사진 2매 • 비자신청서 • 의료보험증명서	• 노동허가서 • 고용계약서 • 헝가리의거주지증명 • 헝가리 혹은 한국의 은행잔고증명서 영문	• 입학허가서 • 헝가리의 거주지 증명 • 헝가리 체류비 조달에 대한 증빙서류 • 학비를 납입한 경우 납입 증명서
• 항공권예약증		

2 주한헝가리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 58 (주한 헝가리 대사관)
- 전화 : 02-792-2105
- 팩스 : 02-792-2109
- 업무시간 : 월~금 오전 9시 ~ 11시
- 여권수거 가능 시간 :
  - 월-목 : 오전 9시- 12시, 오후1시- 오후4시30분
  - 금: 오전 9시- 오전12시

(2) 안전정보

1 여행경보단계 : 미지정

2 사건·사고 현황

- 휴대품 절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체니 다리, 부다왕궁, 영웅광장, 세체니온천, 기차역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모르는 사람이 친절하게 접근해오면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며 특히 자신의 휴대품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공항이나 호텔에서도 가방 등 휴대물품을 잠시 놓아두고 자리를 떠난 사이에 날치기 당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휴대품은 잠시라도 방치하면 안 된다.

- 호텔 내 절도

중급 이하의 호텔은 경비가 불충분하며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더욱 용이하기 때문에 귀중품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체크인 전 및 체크아웃 시 수하물은 반드시 시선이 닿는 곳에 놓아두어야 한다. 또한, 분실했을 때를 대비, 여권번호, 신용카드번호, 컴퓨터, 카메라 등 상품명을 기재해놓으면 분실신고 시 도움이 된다.

- 카드결제 사기

헝가리 바찌(Vaci)거리 및 웨스트엔드(Westend) 쇼핑몰 등에 위치한 일부 화장품 매장(SEACRET 등)에서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결제 사기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다. 매장 내 직원이 화장품 소개 및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매를 유도하고 상품 결재 시 얘기한 판매 가격에 0 을 하나 더 붙이는 방식으로 카드 결제 전 (Pin Code 입력 혹은 서명 전) 반드시 해당 구매가격 확인이 필요하다.

3 자연재해

헝가리는 지진 등의 심각한 자연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다뉴브(Duna)강과 티써(Tisza)강에서는 매년 주로 3월과 5월 말에 강물이 범람하여 교통통제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2009년 6월 말에 1주일 동안 범람하는 등 시기가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여름철 돌풍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36~38도의 폭염이 며칠간 지속되다가 갑작스러운 돌풍과 함께 한랭전선이 형성되어 기온이 20~25도로 떨어지고, 돌풍으로 인해 가로수, 도로가 파손되고 물놀이 하던 사람이 실종되는 등의 인명피해도 발생한 바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4 유의해야할 지역

■ 바치(Vaci) 거리

관광 명소인 구바치 거리와 신바치 거리는 소매치기, 들치기, 사기주점 등이 있다. 야간출입은 사기주점 및 날치기 강도의 표적이 되기 쉬우니 삼가는 것이 좋다.

■ 켈레티(동부), 뉴거티(서부) 기차역

국제선과 국내선의 중심지인 켈레티역과 누거티역은 집시 및 부랑자들의 사는 곳으로, 소매치기의 표적이 되기 쉬우니 야간출입을 피하는 것이 좋다.

8 현지 문화

(1) 일반문화

특별한 인사법은 없으나 친한 사이끼리는 볼을 서로 맞대기도 한다. 남자와 여자가 악수를 할 때, 일반적으로 여성이 손을 내밀기 전까지 남성들은 기다린다.

(2) 종교관련

오랜 가톨릭 국가로 예배당 출입 시 경건을 중시하여 남자는 모자를 벗어야 하고, 여자는 짧은 치마를 입거나 민소매 옷을 입으면 안 된다.

(3) 팁 문화

당, 호텔 등의 요금계산서에 팁(경우에 따라 10~15%)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팁을 주기 전에 계산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팁(5~10%)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호텔에서 짐을 운반하는 보이 또는 체크아웃하기 위해 객실을 나올 때는 1유로(300포린트) 정도 팁을 주는 것이 예의다.

9 현지 연락처

(1) 긴급 연락처

- 경찰(일반) : 107
- 소방서 : 105
- 부다페스트 응급센터(구급차) : 104
- 항공기 출 도착 안내 : bud.hu

(2) 의료기관 연락처

- 주재국 의료체계는 국립병원과 개인병원이 있다.
  - 여행출발 전에 한국에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약국에서 항생제 등 약을 구입하려면 우리나라처럼 의사의 처방전을 구비해야 한다.

- 부다페스트 내 종합병원
  - János Kórház
    - 주소: 1125 Budapest, Diós árok 1-3.
    - Tel : 061-458-4500
  - Rozsakert Medical Center
    - 주소: 1026 Budapest,Gábor Áronu.74-78/a
    - Tel : 061-392-0505
  - Szent Imre Kórház
    - 주소:Budapest, Tétényi út 12-16, 1115
    - Tel : 061-464-8600

※ 유의사항
- 미예약시 진료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예약 후 방문 권장한다.
- 병원 방문 시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 약국

헝가리에는 한국과 동일하게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 가능한 약품과 처방전이 없어도 구입 가능한 약품이 있다.

(3) 대사관 연락처

■ 주소: H-1062 Budapest, Andrassyut 109
■ 전화번호
- 대표: (06-1)462-3080
- 영사과: (06-1)462-3097

■ 팩스: 대표 (06-1)351-1182
■ E-mail: hungary@mofa.go.kr
■ 홈페이지: hun.mofa.go.kr
■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처: (06-30)990-4128/(06-30)304-6033
■ 민원 업무시간: 월~목요일 09:00~17:00/금요일 09:00~16:00

10 기타

(1) 날씨

헝가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후로 사계절이 있고, 여름에는 기온은 높으나 건조하여 불쾌지수가 낮은 편이고, 겨울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일조량이 적다.

(2) 교통정보

1 대중교통

헝가리의 대중교통은 지하철, 트램, 버스, 택시 등으로 볼 수 있다.

■ 지하철(Metro)

헝가리에는 4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다. M1(노란색), M2(빨간색), M3(파란색), M4(초록색)이다.

M1은 유럽대륙에서 최초로 건설되었으며 영웅광장, 시민공원, 세체니온천, 오페라하우스 등과 연결되어 있다. M2는 부다와 페스트를 연결하며 M3는 페스트 지역만 연결되어 있다. M4는2014년 5월 개통, Kelenföld역에서부터 동부역까지 연결된다.

■ 트램(Villamos), 버스

수십 개의 노선이 있으며 탑승료는 버스기사가 받지 않으며 표를 구입해 개찰기계에 넣어 사용해야 한다. 트램이나 버스에서는 자주 불심검문을 실시하는데, B KV안장을 찬 검표원들이 표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용한 표를 바로 버리지 않는 것이 좋다. 1회권은 환승이 적용되지 않으며, 탑승할 때마다 사용해야 한다.

- 1회권 350포린트(HUF), 10회권 3,000포린트(HUF), 24시간용 1,650포린트(HUF), 72시간용 4,150포린트(HUF), 30일용 9,500포린트(HUF)(영수증 미발급시/10,500(영수증 발급시)

■ 택시

헝가리는 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콜택시보다 가격이 비싸다. 기본요금은 450포린트(HUF)이며 km당 280포린트(HUF)가 부과된다. 호텔 택시와 개인택시 및 거리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3~4배 요금이 비싸므로 가능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공항과 시내 구간은 공항전용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거리에 따라 정액제로 운행된다.

〈공항전용택시 Fo Taxi 정액제〉

- CityTaxi:211-1111
- FoTaxi:222-2222

2 도로교통

시내에서는 시속 30~50km 이하, 일반국도는 시속 70~90km 이하,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 속도위반 단속을 자주하는 편이

며 위반 시 5,000~300,000 포린트(HUF)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헝가리에는 10개의 고속도로가 있으며, 중간에 요금소가 없이 주유소나 인터넷에서 고속도로 통행스티커(Vignette)를 구입해야 한다.

(3) 기타

1 전력사용현황

현지 TV 및 Video는 한국과 다른 PAL방식을 사용한다. 전기시스템은 220V/50Hz로 한국 제품 중 220V, 50~60Hz의 전자제품은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단 TV, VIDEO는 MULTI 방식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2 환전

헝가리화폐는 포린트(Forint, HUF)화이며 은행, 호텔 환전소에서 외화를 포린트화로 교환할 수 있다.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환율차이에 유의해야 하며 유명 관광지에 위치한 환전소의 경우 환전율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 1 USD = 약 280 HUF (2018년 11월 기준)

3 통신

■ 우편

헝가리에서 우편물은 우체국(Posta)을 이용한다. 헝가리 내 우편 이용 요금은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

※ 헝가리-서울 간 우편배달 소요 일수

• 일반국제우편:7~14일/DHL:2~3일/EMS:5~8일

[우편요금]

무게	국내	국외
50g 미만	150	450
100g 미만	205	730
250g 미만	245	1,220
500g 미만	445	2,030
2000g 미만	920	6,150

[EMS 우편요금]

무게	국내	국외
1kg	3,790	12,825
5kg	6,145	18,095
10kg	6,825	24,765

■ 전화

현지의 시내전화 요금은 1분당 15포린트(HUF)이며 다른 지역으로 연결할 때의 요금은 30 포린트(HUF), 가정에서 휴대전화로 걸 때는 70포린트(HUF)이다. 국제전화 요금은 부다페스트-서울 유선요금의 경우 분당 100포린트(HUF) 정도이며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200~350포린트(HUF) 정도이다.

■ 인터넷 사용 현황

ADSL/ISDN/모뎀/무선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이 무난하다.

2018 지구촌 한류현황 Ⅲ

발　행 2018년 12월 20일

발 행 처 한국국제교류재단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전　화 064-804-1000

ISBN 979-11-5604-294-5
979-11-5604-290-7 (세트)

디자인 및 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 본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국국제교류재단
(TEL : 064-804-1000　FAX : 064-804-127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